

# 한중인문학연구

84

한중인문학회



## 한중인문학연구 제84집 목차

### ■ 기획 논문

#### 기획 주제-한·중 문학의 교류 현황과 가능성

정미령 · 중국 내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 현황과 향후 전망 .....	1
이설 · 심보경 · 『홍루몽(紅樓夢)』 색채어의 중한 번역 연구 .....	27
부용 · 『채식주의자』의 두 중역본(中譯本) 번역 비교 연구 .....	55
张阳 · 韩国文人对陶渊明受容样相新探 .....	87

### ■ 일반 논문

배경진 · 艷情詩와 晚唐 艷情詩의 여성형상 .....	115
담홍달 · 한국어 순차 접속문과 중국어 접속문의 대응 관계 고찰 .....	145
유석 · 정설 · 김건희 · 중국어 사·피동 동형표지 ‘讓, 叫, 給’의 한국어 번역 양상에 대한 문법적 고찰 .....	173
이은희 · 외국인인을 위한 한글 자모 교육 방향 연구 .....	205
채남 · 임다영 · 馬路의 조어 논거 .....	229
이유정 · 조윤재 · 키워드 네트워크(Keyword Network)를 활용한 임시정부 시기 독립운동과 중국 연구 동향 비교 분석 .....	257
오영미 · 해외 한국 문화교육 커리큘럼과 강의 방식에 대한 연구 .....	289
黄卓颖 · 乡土观念的形成与先唐诗歌的“故乡”写作 .....	315
单清丛 · 韩国语“-X건대”构式的传信语义类型分析 .....	339
章婷 · 宋婷立 · 中高级汉语水平的韩语母语者字感研究 .....	367
赵雪君 · 崔丽红 · 基于模因论视角下的流行语研究 .....	393
张团伟 · 武宁王墓志铭中“嚮”的再释读 .....	417
杨芷芸 · 任志强 · 《分手的决心》的模糊性及其要素分析 .....	441
许世立 · 许森宇 · 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融合发展现状及对策研究 .....	463



# 중국 내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 현황과 향후 전망

정미령\*

##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학술논문 검색 플랫폼 CNKI(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에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현대문학'에 한정하여 관련 연구논문을 추출하고 중국 내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술논문이 총 308편 게재되었고, 석사학위논문이 156편, 박사학위논문이 21편으로 총 485편이 검색되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2장에서는 중국 내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 동향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3장, 4장에서는 세부적으로 게재 학술지(혹은 기관 출처), 그리고 주제별 유형 분류 작업에 더불어 한중 양국 현대문학의 비교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논의된 작가 및 작품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한국 현대문학 작가 중에서 이광수(李光洙, 1892~1950), 채만식(蔡萬植, 1902~1950), 염상섭(廉想涉, 1897~1963)이 여전히 핵심 연구 대상이다. 무엇보다도 여성 작가작품,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연구성과를 축적하였다. 특히 여성 작가 중에서 박완서(朴婉緒, 1931~2011)와 강경애(姜敬愛, 1905~1943)가 핵심 연구 대상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중 여성 작가 비교연구에서 강경애(姜敬愛, 1905~1943)와 샤오홍(蕭紅, 1911~1942)의 비교연구가 총 15편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중국 내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 전망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주제어** 한국 현대문학, 한중 현대문학 비교연구, 등재 학술지, 주제별 유형 분류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비교문학 박사과정

## 〈목차〉

1. 들어가며
2. 기존 연구 검토
3. 중국 내 한국 현대문학 학술논문 연구 동향 분석
4. 중국 내 한국 현대문학 학위논문 연구 동향 분석
5. 나가며: 향후 연구 전망 및 새로운 의제

## 1. 들어가며

한국전쟁(1950) 이후,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그동안 이념적 대립이 위축된 상황에서 벗어나 수교를 맺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중국 내에서의 한국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비해 도약적인 추세를 보였다. 한중 수교 이후, 외교 정치,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양국의 경제 협력은 이미 무역, 투자에서 금융,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였다. 주지하듯 한중 양국은 오래전부터 동일한 한자문화권에 속한 이유로 지속적인 문화적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sup>1)</sup> 이런 이유로 중국과 한국은 수교 이래, 상호 간의 사회 및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절실한 열망을 보였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내에서는 ‘중국열’, 중국 내에서는 ‘한류’ 등 문화가 전파해가는 추이를 보이기도 했다. 기존의 논의에 의하면, 한중 수교 직후 중국대학 내에서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곳이 10곳 미만이었지만, 그 후 200여 곳이나 확장되었다.<sup>2)</sup>

지금까지 중국 내 한국문학연구 현황에 관한 연구논의는 주로 고인덕(2003)<sup>3)</sup>, 金长善(2006)<sup>4)</sup>, 赵莉(2006)<sup>5)</sup>, 金鹤哲(2009)<sup>6)</sup>, 홍정선(2010)<sup>7)</sup>, 牛林杰·张懿田

1) 그중에서도 ‘문학연구’는 주변국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 牛林杰·张懿田, 「中韩建交二十年来中国的韩国现代文学研究综述」, 『当代韩国』 第3期, 2012, p.28.  
 3) 高仁德, 「한국문학의 중국어권 진출 현황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25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3, pp.623-664.  
 4) 金长善, 「20世纪后半期韩国文学译介在中国」, 『世界文学评论』 第2期, 2006, pp.283-285.

(2012), 김윤진(2013)<sup>8)</sup>, 이해영(2014<sup>9)</sup>), 한용호(2014)<sup>10)</sup>, 순허원·류즈치양(2017)<sup>11)</sup>, 손지봉(2018)<sup>12)</sup>, 남연(2018)<sup>13)</sup> 등에 의해 진척되어 왔다. 특히 金長善(2006), 趙莉(2006), 金鶴哲(2009), 홍정선(2010), 김윤진(2013), 손지봉(2018)은 한국문학 번역 및 출판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중비교문학에 주안점을 둔 연구로는 이해영(2014)이 있고, 한국 현대문학 연구 현황에 집중하여 논의한 연구는 牛林杰·張懿田(2012), 남연(2018) 등이 대표적이다.

본 글에서는 한국문학 연구에서도 ‘현대문학’의 연구 현황에 한정하여 살펴보려 한다. 기존의 ‘한국 현대문학’<sup>14)</sup> 동향 연구와 달리, 2010년부터 2023년 사이<sup>15)</sup> 중국 내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 
- 5) 趙莉, 「韩国文学翻译三十年(1976~2006)」, 『外国文学动态』 第5期, 2006, pp.42-45.
  - 6) 金鶴哲, 「中韩建交以后中国文坛对韩国纯文学的译介研究」, 『当代韩国』 第3期, 2009, pp.39-48.
  - 7) 홍정선,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번역출판의 현황과 문제점」, 『민족문학사연구』 제43집, 민족문학사학회, 2010, pp.394-414.
  - 8) 김윤진, 「중국에서의 문학한류와 번역현황」, 『한국출판연구』 제64집, 한국출판학회, 2013, pp.71-85.
  - 9) 이해영, 「중국내 한중비교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제44집, 한중인문학회, 2014, pp.47-68.
  - 10) 한용호, 「중국 북경지역에서의 한국 문학 연구 현황과 그 과제」, 『열상고전연구』 제4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4, pp.261-293.
  - 11) 순허원·류즈치양, 「중국 내 한국 현대문학의 전파와 번역: 흐름과 사고」, 『아시아리뷰』 제7집,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7, pp.71-90.
  - 12) 손지봉, 「21세기 중국 내 한국현대문학 번역출판현황 고찰」, 『통역과 번역』 제20집, 한국통역번역학회, 2018, pp.1-20.
  - 13) 남연, 「중국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 현황 분석 및 향후 방향 설정」, 『문학교육학』 제61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pp.91-139.
  - 14) 牛林杰·張懿田, 위의 논문, p.27 각주에서 논의되었듯이, 한국 현대문학 개념과 시대 구분에 대해 한국 학계에서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牛林杰, 張懿田(2012)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20세기 한국 현대문학으로 한정하여 2010년~2023년 사이 CNKI(中国知网学术文献总库)에서 추출한 결과에 대한 동향 분석을 진행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 15)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범위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존에 2010년부터 10년간

계재 학술지(혹은 기관 출처), 그리고 주제별 유형 분류, 한중 현대문학 비교연구 현황, 그리고 논의된 작가 및 작품들을 정리하였다. 무엇보다도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국 내에서의 한국 현대문학의 연구 전망과 새로운 의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 2. 기존 연구 검토

중국 내에서의 한국문학 연구는 중국 문화대혁명의 동란으로 일시적으로 소개조차 어려운 곤혹의 시기를 겪었다. 그러나 1980년대로 진입하면서부터 중국 학계에서는 새로운 연구 과제, 즉 ‘한국문학’ 연구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당시 북경대학(北京大学),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연변대학(延边大学) 교수 학자들을 중심으로 조선문학 연구회가 발족되었다.<sup>16)</sup>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 이후, 개혁 개방 시기에 걸쳐 한국문학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민족성이 짙은 연변지역 학자들이 주축을 이루어 왔지만, 근래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인 북경지역으로 이전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복단대학교(复旦大学)와 남경대학교(南京大学), 남경사범대학교(南京师范大学)를 중심으로 하는 화동지역과 산둥대학교(山东大学), 중국해양대학교(中国海洋大学)를 중심으로 하는 산둥반도 지역, 그 후, 21세기로 진입하면서부터 제남(濟南), 청도(靑島), 위해(威海), 천진(天津), 광주(广州), 중경(重庆), 항주(杭州), 성도(成都), 낙양(洛阳), 료성(聊城), Ning파(宁波), 서안(西安), 무한(武汉), 곤명(昆明) 등 여러 지역에서도 한국어학과가 새롭게 개설되는 동시에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성과는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큰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sup>17)</sup>

알다시피 20세기 초반에는 격동의 시기였지만, 문학연구에 대한 작업은 끊이지 않았다. 54 신문화운동의 대표 인물인 후스(胡適, 1891~1962)는 일제 통치

---

범위를 설정하여 논의하려 했으나, 지난해 2023년까지 추출 가능한 연도까지 확장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16) 한용호, 위의 논문, p.265.

17) 한용호, 위의 논문, pp.262-263.

하에 처한 한국(朝鮮)과 베트남 두 나라에 깊은 동정을 표하면서 이에 주목하고자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저우쥘런(周作人, 1885~1967)은 중국인이 조선인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선 민간 전설인 <최치원>, <투법>, <도문> 등 일본어판을 번역하여 『어사(語絲)』에 발표하기도 했다.<sup>18)</sup> 그 후, 중국 문단에 20여 명의 프롤레타리아 한국(朝鮮) 작가와 그들의 작품이 활발히 소개되기도 했다.<sup>19)</sup>

한중 수교 이후, 최근 약 20년간(1992년~2012년)에 걸쳐 중국 내에서의 한국 현대문학에 관한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朝鮮半島相関文献目録(1992~2005)』<sup>20)</sup>자료집과 CNKI(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中国知网) 검색 결과, 이에 더불어 산둥대학 한국학연구원의 자료를 통합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문학 관련 서적 중에서도 현대문학에 관한 연구자료로 학술저서 7편, 학술논문 180편, 저널논문(期刊论文) 143편, 석박사 학위 논문 37편으로 구성되었다.<sup>21)</sup> 한국 현대문학 관련 연구논문에 관한 주제 유형별 분류에서 소설 연구가 59%로 압도적인 성과를 보였고, 문학비평 연구 및 종합 연구가 18% 및 15%를 각각 차지하였다. 또한, 시가 연구가 6%, 산문 연구는 1%로 미약한 비중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 현대문학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에서 주제 유형별 분류를 살펴보면, 역시 소설 연구가 32편으로 1위를 차지하고 문학비평 연구가 3편, 시가 연구가 1편을 차지하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sup>22)</sup> 牛林杰·张懿田(2012)은 중국 내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약 20년간 활발히 진행됐지만, 여전히 다른 한국학 연구 분야와 비교하면 미흡한 결과임을 밝혔다. 특히 장르 연구에서 소설에 편중된 경향이 짙고, 무엇보다도 20년간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18) 순허원류즈치양, 위의 논문, pp.74-75.

19) 순허원류즈치양, 위의 논문, p.75.

20) 牛林杰·张懿田, 위의 논문, p.28.(沈定昌, 刘大军, 『朝鮮半島相関文献目録(1992~2005)』, 辽宁民族出版社, 2008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힌 바 있다)

21) 牛林杰·张懿田, 위의 논문, p.28.

22) 牛林杰·张懿田, 위의 논문, pp.30-31.

에서 핵심 연구력이 지극히 ‘불안정’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다음 장에서는 최근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 국한하여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추출한 후, 게재 학술지, 주제별 유형 분류, 그리고 한중 현대문학 비교연구 현황과 연구 논문에 출현된 작가 및 작품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중국 내 한국 현대문학 학술논문 연구 동향 분석

중국에서 국가 지식 인프라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CNKI(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中国知网)의 검색창에서 ‘한국 현대문학’, ‘한국문학’ 키워드를 입력한 후, 연도별 항목에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선택하고 나서 차례로 ‘현대문학’ 분야의 논문을 재추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3)</sup> 총 157개 학술지에 한국 현대문학 관련 연구논문이 등재되었고 게재 논문 수는 308편이다.

〈표1〉 2010년~2023년 한국 현대문학 연구 등재 학술지<sup>25)</sup>

한국어教学与研究(32) <sup>24)</sup>	大众文艺(3)	大学教育(2)
当代韩国(18)	韩国学论文集(3)	牡丹(2)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13)	戏剧之家(3)	时代文学(下半年)(2)
青年文学家(13)	才智(3)	北极光(2)
东疆学刊(8)	鄂州大学学报(3)	散文百家(新语文活页)(2)
安徽文学(下半年)(9)	今古文创(2)	散文百家(2)
外国文学动态(8)	出版广角(2)	长江小说鉴赏(2)
文学教育(上)(4), (下)(3)	社会科学战线(2)	黑龙江民族丛刊(2)
芒种(6)	教育现代化(2)	长江丛刊(2)

23) 물론 작가별로 재검색을 진행하여 검색된 논문을 더한 결과다. 그 이유는 ‘한국 현대문학’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한국 현대문학 관련 논문이 모두 검색된 것이 아니기에 검색창에서 추가로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자주 거론되는 작가(이광수, 채만식, 최인훈, 염상섭, 박태원, 이태준, 이상, 김기림, 정지용, 김승옥, 이호철, 이문구, 손창섭, 이문열, 황석영, 박완서, 신경숙, 강경애, 박경리)와 최근 젊은 세대 작가(한강, 조남주, 김영하) 중에서도 중국에서 활발히 논의된 몇몇 작가를 입력하여 이와 관련 게재 연구논문을 추가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로 모든 현대문학 작가를 차례로 검색하지 못한 점 양해드린다.

东北亚外语研究(5)	现代交际(2)	文化创新比较研究(2)
名作欣赏(5)	出版参考(2)	文化学刊(2)
中国朝鲜语文(4)	出版发行研究(2)	名家名作(2)
北京第二外国语学院学报(3)	山西青年(2)	绥化学院学报(2)
广西民族师范学院学报(3)	渤海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	北方文学(2)

위의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韩国语教学与研究』(32), 『當代韩国』(18),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13), 『青年文学家』(13), 『东疆学刊』(8), 『安徽文学(下半月)』(8), 『外国文学动态』(8), 『文学教育(上)(下)』(4)(3), 『芒种』(6), 『东北亚外语研究』(5) 등 학술지에서 한국 현대문학에 관한 논문이 비교적 많이 등재되었다.

<표2> 한국 현대문학 학술논문 주제별 연구 현황

주제별 연구 분류	논문 게재 수(편)	비율(%) <sup>26)</sup>
한국과 중국 현대대문학 비교연구, 영향 관계 연구	45편	14.61%
문학 유파, 문학사조 연구	3편	0.974%
문학 잡지, 문학검열 기제, 매체, 출판 미디어 연구	8편	2.597%
주제와 문학 유형 연구	13편	4.221%
여성 형상, 여성 의식 및 여성 문학연구 <sup>27)</sup>	38편	12.338%
작가 및 작품 세계 연구, 작가들 간의 비교연구 <sup>28)</sup>	88편	28.571%
문학비평 연구	5편	1.623%
번역 및 수용 연구, 번역출판 연구	27편	8.766%
한국현대문학사 연구	5편	1.623%
한국 현대문학 시각, 재인식, 가치, 의미, 방법론 등 연구	43편	13.961%
아동·청소년 문학연구	1편	0.325%
한국 현대문학 교육 연구	25편	8.117%
기타	7편	2.273%
	308편	100%

24) 괄호 안의 수는 총 몇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음을 의미한다.

25) 이외에 한편 학술논문만 등재된 학술지를 정리한 내용은 <부록1>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26) 비율 표기는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표기하고, 반올림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27) 여기서 '여성 형상, 여성 의식 및 여성 문학 연구' 주제별 분류는 한국 현대문학 작품 연구에서도 여성 형상, 또는 여성 의식에 주목한 문학 작품들을 의미한다. 즉 여성 작가에 대한 연구 논문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그다음으로 주제 유형별 분포 상황을 살펴보려 한다. 위의 <표2>에서 확인되듯이, 특정 ‘작가 및 작품 세계 연구, 작가들 간의 비교연구’에 관한 연구가 88편이고, ‘한국과 중국 현대대문학 비교연구, 영향 관계 연구’ 관련 논문이 총 45편, ‘한국 현대문학 시각, 재인식, 가치, 의미, 방법론 등 연구’가 총 43편이다. 그리고 ‘여성 형상, 여성 의식 및 여성 문학연구’가 38편, ‘번역 및 수용 연구, 번역출판 연구’가 27편, ‘한국 현대문학 교육 연구’가 각 25편, ‘주제, 문학 유형 연구’가 13편, ‘문학 잡지, 문학검열 기제, 매체, 출판 미디어 연구’가 8편, ‘기타’<sup>29)</sup> 연구에 분류된 논문이 7편, ‘문학비평 연구’ 및 ‘한국현대문학사 연구’가 각 5편, ‘문학 유파 문학사조 연구’가 3편, ‘아동·청소년 문학연구’가 1편으로 검색되었다.

<표3> 한중 현대대문학 비교연구 현황

한중 현대대문학 영향관계 연구	
梁后超의 “诗界革命论”对韩国文学的影响	中韩近现代文学关系研究的历史与现状
论梁后超与鲁迅对韩国文学的影响	中国文化与韩国文学的关联性研究
郑芝溶诗论中对于中国诗学接受的研究	韩国消费文学在中国的流传与影响
한중 현대대문학 작가 및 작품 비교연구	
鲁迅与李光洙文学思想比较研究——以《狂人日记》和《无情》为中心分析	韩国作家崔晷海与中国体验小说
鲁迅的《狂人日记》与李光洙的《无情》比较研究	沁透男人心灵的哀愁——以郑芝溶的《乡愁》和余光中的《乡愁》为中心
鲁迅与李光洙文学观之比较研究	中韩诗歌的手工艺美术探究——以下之琳和郑芝溶的诗为例
老舍和李光洙作品中的爱情话语论析	1930年代首尔与上海的都市空间与都市认识比较—

28) ‘작가 및 작품 세계 연구, 작가들 간의 비교연구’에서 개별적인 여성 작가 또는 여성 작가의 작품 세계에 관한 연구를 포함시켰고, ‘작가들간의 비교 연구’는 한국과 중국 현대문학 작가들의 비교연구가 아니라 한국 내에서의 작가들의 비교 연구 또는 일본 현대문학 작가와의 비교 연구를 이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를테면, 石秋英, 「金革《大海里捞出的小提琴》与金英夏《玉米和我》比较研究」, 『韩国语教学与研究』第2期, 2020; 崔元植, 朱霞, 「韩国(朝鲜)现代文学的新历史感知——以金英夏的《黑色的花》与洪锡重的《黄真伊》为中心」,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3期, 2005; 朴慧晶, 「村上春树和金英夏的短篇小说比较研究——以后现代主义叙事手法为中心」, 『青年文学家』第12期, 2017 등이 이에 해당한다.

29) 주제별 유형 분류에서 분류하기 모호한 논문 주제를 ‘기타’로 분류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一以朴泰远和穆时英的现代主义小说为中心
鲁迅和蔡万植短篇小说的讽刺性对比研究	《魔道》与《翅膀》中的潜意识对比(施蛰存, 李箱)
鲁迅的《祝福》和蔡万植的《痴叔》中的双重讽刺比较研究	试论李泰俊与郭沫若《苏联纪行》中的民族自省意识
从读者反应批评视角解读蔡万植和老舍的讽刺手法	孙昌涉与郁达夫自传体小说比较研究
中韩现代小说的离婚母体研究——以蔡万植的《过渡期》和老舍的《离婚》为中心	鲁迅与孙昌涉小说的存在主义倾向对比
浅议张天翼与蔡万植小说中的知识分子形象——以1930年代《移行》与《痴叔》为中心	简析李文求与胡学文小说中的戏剧性叙事和乡土话语的美学
《三代》与《家》第三代空间结构对比考察	浅析李文求《日落西山》与鲁迅《故乡》的相同点
廉想涉《三代》与巴金《家》的第一代空间结构之比较	沦陷时期中国东北与韩国文学比较研究
中韩两国现代家族小说的丰碑——巴金《家》与廉想涉《三代》之比较	
한중 현대대문학 여성 작가 및 작품 비교연구	
姜敬爱与萧红小说语言描写艺术之比较	《生死场》和《人间问题》女性人物形象的比较(萧红 姜敬爱)
浅析萧红与姜敬爱小说的散文化倾向	浪漫文化度者的情怀:萧红和姜敬爱之对比
论萧红和姜敬爱小说的艺术表现手法——以《生死场》和《人间问题》为例	相悬地各殊, 襟韵暗如符——萧红与姜敬爱生平及创作比较
20世纪30年代中韩左翼女作家创作中的女性意识变化——以萧红、姜敬爱创作中所体现的民族国家意识为中心	萧红与姜敬爱小说中女性底层人物形象考察
主流叙事与人性书写——姜敬爱与萧红小说的主题意蕴之比较	论张洁与朴婉绪作品中的知识女性形象
姜敬爱与萧红小说的性别悲剧与性别意识	铁凝与朴婉绪短篇小说比较研究——以老人形象为中心
姜敬爱与萧红小说的叙事结构艺术	中韩女性成长小说研究——陈染的《私人生活》和申京淑的《单人房》
丁玲与朴景利的人生及创作之比较研究	

위의 <표3>에서 제시되었듯이, 한중 현대대문학 비교연구를 살펴보면, 이광수(李光洙, 1892~1950)와 루쉰(鲁迅, 1881~1936)(3)<sup>30)</sup>, 채만식(蔡萬植, 1902~1950)과 루쉰(鲁迅, 1881~1936)(2), 채만식(蔡萬植, 1902~1950)과 라오舍(老舍,

30) 논문 제목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3편 중에서 <무정(無情)>(1917)과 <광인일기(狂人日記)>(1918)의 비교 연구가 2편이다.

1899~1966)(2), 염상섭(廉想涉, 1897~1963)과 바진(巴金, 1904~2005)(3)<sup>31)</sup> 등 중복된 비교분석 연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 작가 및 작품 비교연구에서는 강경애(姜敬愛, 1905~1943)와 샤오홍(萧红, 1911~1942)(10)<sup>32)</sup>과 그 외 박경리(朴景利, 1927~2008)와 덩링(丁玲, 1904~1986), 신경숙(申京淑, 1963~)과 천란(陈染, 1962~)<sup>33)</sup>, 박완서(朴婉緒, 1931~2011)와 장결(张洁, 1937~2022), 박완서(朴婉緒, 1931~2011)와 테닝(铁凝, 1957~) 등 비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표4〉 학술논문에서 논의된 작가 및 작품

작가 및 작품 출현 현황		
이광수(李光洙, 1892~1950)(23) 〈무정(無情)〉(1917)(6) 〈애욕의 피안(愛欲的彼岸)〉(1936) 〈소년의 비애(少年的悲哀)〉(1917)(2) 〈동경잡신(东京杂信)〉(1916) 〈난제오(乱啼鸟)〉(1940)	채만식(蔡萬植, 1902~1950)(12) 〈인형의 집을 나와서(走出玩偶之家后)〉(1933) 〈탁류(浊流)〉(1937) 〈치숙(痴叔)〉(1938)(3) 〈과도기(过渡期)〉(1923, 1973) 〈논 이야기(水田的故事)〉(1946)	염상섭(廉想涉, 1897~1963)(9) 〈만세전(万岁前)〉(1924)(3) 〈삼대(三代)〉(1931)(4)
이상(李箱, 1910~1937)(7) 〈날개(翅膀)〉(1936)(6)	정지용(鄭芝溶, 1902~1950)(6) 〈향수(乡愁)〉(1923)	김영하(金英夏, 1968~)(5) 〈흡혈귀(吸血鬼)〉 〈비상구(紧急出口)〉 〈옥수수와 나(玉米和我)〉(2012) 〈퀴즈쇼(猜谜秀)〉(2007) 〈엘리베이터에 갇힌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夹在电梯里的那个男人怎么样了)〉(1999)
손창섭(孫昌涉, 1922~2010)(4)	이문구(李文求, 1941~2003)(3) 〈관촌수필(冠村随笔)〉(1972)(2)	김승옥(金承鈺, 1941~)(3) 〈무진기행(霧津紀行)〉(1964)(2)
이태준(李泰俊, 1904~1978)(3) 〈농군(农民)〉(1939)	박태원(朴泰遠, 1909~1986)(3) 〈천변풍경(川边风景)〉(1936)	이호철(李浩哲, 1932~2016)

- 31) 논문 제목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3편 모두 염상섭의 〈삼대(三代)〉(1931)와 바진의 〈가(家)〉(1931)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 32) 논문 제목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편 중에서 강경애의 〈인간문제(人間問題)〉(1934)와 샤오홍의 〈생사의 마당(生死場)〉(1935)의 비교 연구가 2편이다.
- 33) 논문 제목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천란의 〈개인생활(私人生活)〉(2001)과 신경숙의 〈외판방(单人房)〉(1995)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김동인(金東仁, 1900~1951)(2) 〈감자(土豆)〉(1925)(2)	이기영(李箕永, 1895~1984) 〈고향〉(1933)	최서해(崔晷海, 1901~1932)
김소월(金素月, 1902~1934)	이육사(李陸史, 1904~1944)	김기림(金起林, 1908~?)
황석영(黃皙暎, 1943~) 〈삼포가는 길(去森浦的路)〉(1973)	이문열(李文烈, 1948~) 〈젊은 날의 초상(青春肖像)〉(1981)	윤대녕(尹大寧, 1962~) 〈미란(美蘭)〉(2001)
박민규(朴玟奎, 1968~) 〈카스테라(卡斯泰拉)〉(1993)		
여성 작가 및 작품 출현 현황		
강경애(姜敬愛, 1905~1943)(26) 〈축구전(足球戰)〉(1933) 〈인간문제(人間問題)〉(1934)(4) 〈지하촌(地下村)〉(1936)	박완서(朴婉緒, 1931~2011)(21)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故鄉飄已遠)〉(1992) 〈그 남자네 집(那個男人的家)〉(2004) 〈휘청거리는 오후(顫動的午後, 蹣跚的午後)〉(1976)(2) 〈친절한 복희씨(亲切的福姬)〉(2006)(3) 〈엄마의 말뚝(媽媽的庄子)〉(1980, 1981, 1991) 〈황혼(黃昏)〉(1979) 〈포말의 집(泡沫之家)〉(1976) 〈살아있는 날의 시작(活着的一天的開始)〉(1979)	신경숙(申京淑, 1963~)(16) 〈외딴방(單人房)〉(1995)(8) 〈엄마를 부탁해(尋找母親)〉(2008)(5)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哪裏傳來找我的電話鈴聲)〉(2010) 〈종소리(鐘聲)〉(2003)
한강(漢江, 1970~)(8) 〈채식주의자(素食主義者)〉(2007)(7)	조남주(趙南柱, 1978~)(8) 〈현남 오빠에게(給賢南哥的信)〉(2017) 〈82년생 김지영(82年生的金智英)〉(2016)(7)	박경리(朴景利, 1927~2008)(3) 〈토지(土地)〉(1969~1994)
공지영(孔枝泳, 1963~)(3) 〈도가니(熔爐)〉(2009)(2)	강신재(康信哉, 1924~2001) 〈젊은 느티나무(青青的樺樹)〉	김유정(金裕貞, 1908~1937)

특히 위의 <표4>에서 확인되듯이, 학술논문 주제로 세부적으로 논의된 작가 및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전히 이광수(李光洙, 1892~1950)(23)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채만식(蔡萬植, 1902~1950)(12), 염상섭(廉想涉, 1897~1963)(9), 이상(李箱, 1910~1937)(7), 정지용(鄭芝溶, 1902~1950)(6), 김영하(金英夏, 1968~)(5) 등 작가작품에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작가에 대한 논의로는 강경애(姜敬愛,

1905~1943)(26), 박완서(朴婉緒, 1931~2011)(21), 신경숙(申京淑, 1963~)(16), 한강(漢江, 1970~)(8), 조남주(趙南柱, 1978~)(8) 등이 추출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 작가에 대한 연구논의가 큰 축적을 이룬 점이다.

#### 4. 중국 내 한국 현대문학 학위논문 연구 동향 분석

본 장에서는 중국 내 한국 현대문학에 관한 학위논문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석사학위논문은 총 156편 추출되었다.<sup>34)</sup>

〈표5〉 한국 현대문학 석사학위논문 주제별 연구 현황

주제별 연구 분류	논문 게재 수(편)	비율(%)
한국과 중국 현대문학 비교연구, 영향 관계 연구	45편	28,846%
문학 유파, 문학사조 연구	-	-
문학 잡지, 문학검열 기제, 매체, 출판 미디어 연구	-	-
주제와 문학 유형 연구	16편	10,256%
여성 형상, 여성의식 및 여성 문학연구	16편	10,256%
작가 및 작품 세계 연구, 작가들 간의 비교연구	56편	35,897%
문학비평 연구	-	-
번역 및 수용 연구, 번역출판 연구	16편	10,256%
한국현대문학사 연구	-	-
한국 현대문학 시각, 재인식, 가치, 의미, 방법론 등 연구	4편	1,25%
아동청소년 문학연구	1편	0,313%
한국 현대문학 교육 연구	1편	0,313%
동아시아 문학연구	1편	0,313%
기타	-	-
	156편	100%

우선, 위의 〈표5〉에서 확인되듯이, 한국 현대문학 관련 석사학위논문 주제별

34) 석사학위논문 출처 기관을 확인한 결과, 연변대학(延边大学)(30), 산둥대학(山东大学)(21), 흑룡강대학(黑龙江大学)(16), 길림대학(吉林大学)(14), 중국해양대학(中国海洋大学)(13), 중앙민족대학(中央民族大学)(9), 칭다오대학(青岛大学)(8), 북경제2외국어대학(北京第二外国语学院)(6), 사천외국어대학(四川外国语学院)(5), 연타이대학(烟台大学)(5)에서 한국 현대문학 관련 석사학위논문이 10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2〉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연구 현황에서 ‘작가 및 작품 세계 연구, 작가들 간의 비교연구’가 56편, ‘한국과 중국 현대대문학 비교연구, 영향 관계 연구’가 45편, ‘주제와 문학 유형 연구’, ‘여성 형상, 여성 의식 및 여성 문학연구’, ‘번역 및 수용 연구, 번역출판 연구’가 각각 16편, ‘한국 현대문학 시각, 재인식, 가치, 의미, 방법론 등 연구’가 4편, ‘아동·청소년 문학연구’, ‘한국 현대문학 교육 연구’, ‘동아시아 문학연구’<sup>35)</sup>가 각각 1편을 보이고 있다.

〈표6〉 한중 현대대문학 비교연구 현황

한중 현대대문학 영향관계 연구	
鲁迅在殖民地韩国的接受—影响研究	
한중 현대대문학 작가 및 작품 비교연구	
鲁迅《狂人日记》与李光洙《无情》的比较研究	鲁迅与孙昌洙小说的存在主义倾向对比研究
郁达夫与李光洙小说的疾病书写比较研究	精神分析学视角下的《围城》与《雾津纪行》对比研究
蔡万植和老舍的讽刺小说比较研究	李文求与胡学文的农村小说比较研究
蔡万植和老舍小说的人物形象比较研究	卞之琳和郑芝溶诗歌意象的东方传承与西方新思
蔡万植与老舍讽刺小说的比较研究	李箱《翅膀》与鲁迅《狂人日记》比较研究
老舍与蔡万植小说中女性形象的比较研究	穆时英和朴泰远现代主义小说比较研究
老舍与蔡万植作品语言风格对比研究	施蛰存与朴泰远小说的现代主义特征比较研究
老舍《骆驼祥子》和蔡万植《浊流》小说中的女性形象比较研究	李泰俊与郭沫若《苏联纪行》比较研究
郑芝溶诗歌与中国古典诗歌的关联研究	李泰俊与老舍小说比较研究
巴金和廉想涉小说中知识分子形象比较研究	
한중 현대대문학 여성 작가 및 작품 비교연구	
萧红和姜敬爱小说中的女性人物比较	林白与申京淑女性成长小说叙事比较研究
萧红与姜敬爱的小说比较研究	申京淑和虹影的成长小说比较研究
姜敬爱和萧红中国东北背景小说比较研究	朴婉绪与池莉小说中的女性意识比较研究
姜敬爱与萧红的悲剧意识比较	朴婉绪和张洁小说中母女关系的变化比较研究
丁玲与姜敬爱小说的女性形象比较	陈染与朴婉绪小说中父性克服过程的比较研究
申京淑与王安忆的成长小说比较研究	张洁和朴婉绪20世纪80年代女性小说中女性形象的比较
申京淑《单人房》与林白《一个人的战争》叙事特征比较研究	小说《妈妈的木槌》和《无字》中母亲形象的比较研究—中韩女性作家的情况
기타 주제 비교연구	
同场战争的“异质”书写—中国“抗美援朝”小说与韩国“战后”小说创作比较研究	中韩现代家族小说中的父亲形象比较研究

35) 金京子, 「韩中日文学中“万宝山事件”的小说化研究」, 硕士学位论文 延边大学, 2014.

新时期中韩女性文学的比较研究	中韩小说中母亲形象比较研究
九十年代中韩女性文学研究	中·韩新文学史比较
中韩文学翻译理论与实际	韩中翻译中直译法的局限性及其转换方法
20世纪30年代中韩女性作家创作中的国家民族意识研究	中韩现代小说基督教救赎意识的比较研究
20世纪30年代中韩现代主义小说的都市性比较研究	中韩现代家族小说比较研究
朴景利《土地》与陈忠实《白鹿原》的女性形象比较研究	

다음은 석사학위논문 주제에서 한중 현대대문학 비교연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표6>에서 확인되듯이, 채만식(蔡萬植, 1902~1950)과 라오서(老舍, 1899~1966)(6)의 비교 연구가 6편이고, 이광수(李光洙, 1892~1950)와 위다푸(郁达夫, 1896~1945), 이광수(李光洙, 1892~1950)와 루쉰(鲁迅, 1881~1936)<sup>36)</sup>, 그 외, 손창섭(孫昌涉, 1922~2010)과 루쉰(鲁迅, 1881~1936)(2), 이상(李箱, 1910~1937)과 루쉰(鲁迅, 1881~1936)<sup>37)</sup>의 비교연구가 추출되었다. 또한, 염상섭(廉想涉, 1897~1963)과 바진(巴金, 1904~2005), 박태원(朴泰遠, 1909~1986)과 무스잉(穆时英, 1912~1940), 이태준(李泰俊, 1904~1978)과 라오서(老舍, 1899~1966), 정지용(鄭芝溶, 1902~1950)과 변지림(卞之琳, 1910~2000), 김승옥(金承鈺, 1941~)과 첸중수(錢鍾書, 1910~1998)<sup>38)</sup>, 이문구(李文求, 1941~2003)와 후취원(胡学文, 1967~) 등 비교연구도 확인되었다.

여성 작가 비교연구를 살펴보면, 강경애(姜敬愛, 1905~1943)와 샤오홍(蕭紅, 1911~1942)(4)의 비교연구가 4편을 차지하고, 그 외, 강경애(姜敬愛, 1905~1943)와 덩링(丁玲, 1904~1986), 신경숙(申京淑, 1963~)과 왕안이(王安忆, 1954~), 신경숙(申京淑, 1963~)과 린바이(林白, 1958~)(2)<sup>39)</sup>, 신경숙(申

36) 논문 제목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광수의 <무정(無情)>(1917)과 루쉰(鲁迅, 1881~1936)의 <광인일기(狂人日記)>(1918)가 논의되었다.

37) 논문 제목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상의 <날개(翅膀)>(1936)와 루쉰(鲁迅, 1881~1936)의 <광인일기(狂人日記)>(1918)가 논의되었다.

38) 논문 제목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승옥의 <무진기행(霧津紀行)>(1964)과 선충원의 <변성(邊城)>(1934)이 논의되었다.

39) 논문 제목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경숙의 <외딴방(單人房)>(1995)과 린바이의 <일개

京淑, 1963~)과 홍잉(虹影, 1962~), 박완서(朴婉緒, 1931~2011)와 츠리(池莉, 1957~), 박완서(朴婉緒, 1931~2011)와 장결(张洁, 1937~2022)(3)<sup>40</sup>, 박완서(朴婉緒, 1931~2011)와 천란(陈染, 1962~) 등이 논의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박경리(朴景利, 1927~2008) 작가의 <토지(土地)>(1969~1994)와 천중스(陈忠实, 1942~2016) 작가의 <백록원(白鹿原)>(1993) 두 대하소설에서의 여성 형상 비교연구가 포착되었다.

그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석사학위논문에서 논의된 작가 및 작품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표7>에서 확인되듯이, 채만식(蔡萬植, 1902~1950)(12), 이광수(李光洙, 1892~1950)(8), 염상섭(廉想涉, 1897~1963)(6), 최인훈(崔仁勳, 1936~2018)(6) 등 작가 관련 연구가 5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 작가 및 작품 연구에서는 여전히 박완서(朴婉緒, 1931~2011)(18), 신경숙(申京淑, 1963~)(10), 강경애(姜敬愛, 1905~1943)(9), 박경리(朴景利, 1927~2008)(7), 조남주(趙南柱, 1978~)(4), 한강(漢江, 1970~)(2)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표7> 석사학위논문 작가 및 작품 연구 출현 현황

작가 및 작품 연구 출현 현황		
채만식(蔡萬植, 1902~1950)(12) <탁류(浊流)>(1937)(2) <태평천하(太平天下)>(1938)	이광수(李光洙, 1892~1950)(8) <무정(無情)>(1917)(4)	염상섭(廉想涉, 1897~1963)(6) <만세전(万岁前)>(1924) <삼대(三代)>(1931) <효풍(孝風)>(1948)
최인훈(崔仁勳, 1936~2018)(6) <크리스마 캐럴(圣诞歌)>(1963~1966) <회색인(灰色人)>(1963~1964) <광장(广场)>(1960)(2) <태풍(暴风雨)>(1973~1974)	박태원(朴泰遠, 1909~1986)(4) <계명산천은 밝았느냐(鷄鳴山川何時亮)>(1963)	이상(李箱, 1910~1937)(4) <날개(翅膀)>(1936)(2)
이태준(李泰俊, 1904~1978)(4)	정지용(鄭芝溶, 1902~1950)(4)	김승옥(金承鈺, 1941~)(3) <무진기행(霧津紀行)>(1964)
이문구(李文求, 1941~2003)(3) <관촌수필(冠村隨筆)>(1972)(2)	김영하(金英夏, 1968~)(3) <여행의 이유(旅行的理由)>	이문열(李文烈, 1948~)(2) <들소(野牛)>(1979)

인적 전쟁(一个人的战争)>(1994)이 논의되었다.

40)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妈妈的庄子)>(1980)과 장결의 <무자(无字)>(2002)가 논의되었다.

	(2019)	
손창섭(孫昌涉, 1922~2010)(2)	최명익(崔明翊, 1902~1972)	김기림(金起林, 1908~?)
박태원(朴泰遠, 1910~1986)	서정주(徐廷柱, 1915~2000)	이호철(李浩哲, 1932~2016)
전상국(全商國, 1940~) 〈아베의 가족(阿贝的一家) (1979)〉	황석영(黃皙暎, 1943~)	
여성 작가 및 작품 연구 출현 현황		
박완서(朴婉緒, 1931~2011)(18) 세 가지 〈소원(三个愿望) (2009)〉 〈나무(裸木)〉(1970) 〈엄마의 밭뚝(妈妈的庄子) (1980, 1981, 1991)(2)〉 〈목마른 계절(渴望的季节) (1971)〉 〈노란집(黄房子)〉(2013)	신경숙(申京淑, 1963~)(10) 〈외판방(单人房)〉(1995)(2) 〈엄마를 부탁해(寻找母亲) (2008)〉 〈모르는 여자들(陌生的女人 们)〉 (2011)	강경애(姜敬愛, 1905~1943)(9)
박경리(朴景利, 1927~2008)(7) 〈토지(土地)〉(1969~1994)(4) 〈만리장성의 나라(万里长城之 国)〉(1990)	조남주(趙南柱, 1978~)(4) 〈82년생 김지영(82年生的金智 英)〉(2016)	한강(漢江, 1970~)(2) 〈채식주의자(素食主义者) (2007)〉

마지막으로 중국 내 한국 현대문학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sup>41)</sup> 다음 <표8>에서 중국 내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박사학위논문 주제별 연구 현황에서 확인되듯이, 2010년~2023년 사이 한국 현대문학 관련 박사학위논문 발표는 총 21편이고, 그중에서 ‘한국과 중국 현대문학 비교연구, 영향 관계 연구’가 12편, ‘주제와 문학 유형 연구’, ‘작가 및 작품 세계 연구, 작가들 간의 비교 연구’가 각 3편, ‘문학 유파, 문학사조 연구’, ‘한국 현대문학 시각, 재인식, 가치, 의미, 방법론 등 연구’, ‘동아시아 문학연구’가 각각 1편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 현대문학 비교연구, 영향관계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41) 박사학위논문 출처기관을 확인한 결과, 중앙민족대학(中央民族大学)(6), 길림대학(吉林大学)(5), 랴오닝대학(辽宁大学)(3), 연변대학(延边大学)(2), 산둥대학(山东大学), 동북사범대학(东北师范大学), 절강대학(浙江大学), 소주대학(苏州大学), 랴오닝사범대학(辽宁师范大学)에서 한국 현대문학 관련 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물론 이외에도 검색하지 못한 박사학위논문이 존재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한계로 이상의 연구논문만 추출하여 논의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3>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수 있다.

〈표8〉 한국 현대문학 박사학위논문 주제별 연구 현황

주제별 연구 분류	논문 게재 수(편)	비율(%)
한국과 중국 현대대문학 비교연구, 영향 관계 연구	12편	57,143%
문학 유파, 문학사조 연구	1편	4,762%
문학 잡지, 문학검열 기제, 매체, 출판 미디어 연구	-	-
주제와 문학유형 연구	3편	14,286%
여성 형상, 여성 의식 및 여성 문학연구	-	-
작가 및 작품 세계 연구, 작가들 간의 비교연구	3편	14,286%
문학비평 연구	-	-
번역 및 수용 연구, 번역출판 연구	-	-
한국현대문학사 연구	-	-
한국 현대문학 시각, 재인식, 가치, 의미, 방법론 등 연구	1편	4,762%
아동·청소년 문학연구	-	-
한국 현대문학 교육 연구	-	-
동아시아 문학연구	1편	4,762%
기타	-	-
	21편	100%

〈표9〉 한중 현대대문학 비교연구 현황

한중 현대대문학 작가 및 작품 비교연구	
鲁迅与李光洙文学观比较	朝鲜族作家朴善锡与韩国作家李文求文学中的“恨”情结比较研究
周作人与李光洙文学思想比较研究	萧红与姜敬爱小说比较研究
李文求与胡学文小说叙事比较研究	
기타 주제 비교연구	
中韩家族小说比较研究	中国新感觉派与朝鲜“九人会”小说比较研究
产业化时期韩·中小小说中体现的传统意识比较研究	90年代以来韩中女性成长小说比较研究
中韩现代女作家的女性意识比较研究	20世纪八九十年代中韩小说父亲形象比较研究
中韩小说现代化转型比较研究	

위의 〈표9〉에서 확인되듯이, 이광수(李光洙, 1892~1950)와 루쉰(鲁迅, 1881~1936), 이광수(李光洙, 1892~1950)와 저우쥬어런(周作人, 1885~1967), 이문구(李文求, 1941~2003)와 박선석(朴善锡, 미상)(조선족 작가), 이문구(李文求, 1941~2003)와 후쉬원(胡学文, 1967~) 등 비교연구가 확인되었다. 이외에 여성 작가들 간의 비교연구로는 강경애(姜敬爱, 1905~1943)와 샤오홍(萧红,

1911~1942)이 추출되었다. 기타 주제 비교연구로는 「한중 가족소설 비교연구(中韩家族小说比较研究)」, 「중국 신감각파와 조선 ‘구인회’ 소설 비교연구(中国新感觉派与朝鲜“九人会”小说比较研究)」, 「산업화 시기 한중 소설 속에 나타난 전통의식 비교연구(产业化时期韩·中小说中体现的传统意识比较研究)」, 「90년대 이후 한중 여성 성장소설 비교연구(90年代以来韩中女性成长小说比较研究)」, 「한중 현대 여성작가의 여성의식 비교연구(中韩现代女作家的女性意识比较研究)」, 「20세기 1980~1990년대 한중 소설 속 아버지 형상 비교연구(20世纪八九十年代中韩小说父亲形象比较研究)」, 「한중 소설 현대화 전형 비교연구(中韩小说现代化转型比较研究)」 등이 확인되었다.

## 5. 나가며: 향후 연구 전망 및 새로운 의제

중국 학술논문 검색 플랫폼 CNKI(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中国知网)에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현대문학 관련 연구논문을 추출한 결과 학술논문이 총 308편 검색되었고, 석사학위논문 156편, 박사학위논문 21편으로 총 485편을 추출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0년~2023년 사이 중국 내 한국 현대문학 연구논의는 기존의 논의에 비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학술논문 분야에서 이광수(李光洙, 1892~1950) 23편, 채만식(蔡萬植, 1902~1950) 12편, 염상섭(廉想涉, 1897~1963) 9편의 연구논문과 석사학위논문에서는 채만식(蔡萬植, 1902~1950) 12편, 이광수(李光洙, 1892~1950) 8편, 염상섭(廉想涉, 1897~1963) 6편, 박사학위논문에서는 이광수(李光洙, 1892~1950) 2편이 추출되었다. 이상에서 확인되듯이, 위의 세 작가가 핵심 연구 대상이다. 이외에 해방 직후, 한국 문단에 활약한 손창섭(孫昌涉, 1922~2010), 최인훈(崔仁勳, 1936~2018), 이문구(李文求, 1941~2003), 김승옥(金承鈺, 1941~), 황석영(黃皙暎, 1943~) 등 작가 및 작품 세계에 관한 연구성공도 확인되었지만, 이광수, 염상섭, 채만식 작품 연구보다 월등히 적은 편이다. 특히 학술논문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을 때, 이광수(李光洙, 1892~1950)와 루원(魯迅, 1881~1936)의 비교연구가 총 3편, 채만식(蔡萬植, 1902~1950)과 루원(魯迅,

1881~1936) 비교연구가 2편, 채만식(蔡萬植, 1902~1950)과 라오서(老舍, 1899~1966) 2편, 염상섭(廉想涉, 1897~1963)과 바진(巴金, 1904~2005) 3편이 추출되었다. 그리고 석사학위논문에서 채만식(蔡萬植, 1902~1950)과 라오서(老舍, 1899~1966)의 비교연구가 총 6편을 기록하였다.

무엇보다도 학술논문은 물론 학위논문을 아울러 여성 작가 및 작품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연구성과를 축적한 바 있다. 그중에서 여성 작가 강경애(姜敬愛, 1905~1943)에 관한 연구논의로는 학술논문 26편, 석사학위논문 9편, 박사학위논문 1편이 추출되었고, 박완서(朴婉緒, 1931~2011)에 관한 논의가 학술논문 분야에서 21편, 석사학위논문 18편, 박사학위논문 1편이 확인되었다. 특히 한중 여성 작가 비교문학 연구에서는 강경애(姜敬愛, 1905~1943)와 샹오홍(蕭紅, 1911~1942)의 비교연구가 총 15편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20년은 범세계적으로 대유행병 COVID-19 사태가 벌어진 시기로 학술연구의 산출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학술연구 논문은 2010년~2023년 14년간 학술논문 308편에서 81편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어느 시기보다 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석사학위논문에서 총 14편이 산출되었는데, 그중에서 조남주 작가작품에 관한 연구가 무려 4편, 김영하 작가작품에 관한 연구가 2편, 그리고 주제별로 여주인공 비극,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가 4편, 번역 관련 3편, 전후 소설에 관한 연구 1편을 기록한 연구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로 최근 문단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그리고 작품 속 ‘여주인공’,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동향이 포착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향후 연구 전망과 의제를 간략하게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추출한 485편 연구논문에서 다양한 작가 및 작품에 관한 연구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기존에 활발히 논의되었던 이광수, 채만식, 염상섭 등 작가 및 작품 세계에 주안점을 둔 연구가 포착되었다. 기존에 논의되었던 작품 이외에도 새롭고 다양한 작품에 초점을 맞춰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해석하고 재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추출한 이광수

의 작품 연구 중에서도 그의 대표작이자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무정(無情)>(1917)에 주안점을 두고 다각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물론 <애욕의 피안>(1936), <소년의 비애>(1917)(2), <동경잡신>(1916), <난제오>(1940) 등 작품에 대한 연구성과도 포착되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이광수의 <유정>(1922), <홍>(1932), <사랑>(1938), <원효대사>(1942) 등과 같은 폭넓은 작품 세계를 분석하여 한국 현대문학 대표 작가인 이광수의 풍부한 작품 세계를 재고찰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해방 직후, 한국 문단에 활약한 몇몇 작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주로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기에 발표된 작품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작가 및 문학 작품 연구는 작가 사후에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합의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기에 발표된 작품 연구가 주를 이룬 주된 원인 중 하나는 20세기 초 제국주의, 식민주의 확장과 서구 사상 및 이념이 서세동점으로 혼란한 시기를 겪은 당시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을 살펴보는 데에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쟁 이후 소설, 분단문학, 그리고 토지 개혁 소설<sup>42)</sup>, 1970년~1980년대 고도성장기를 배경으로 한 산업화 시기 문학 작품, 한국 좌익 민족문학론 속의 리얼리즘론, 한국문학의 민족주의 연구, 한국 민중문학, 그리고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발표된 작품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이러한 연구 과제들을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여성의식, 여성의 자아 인식과 탐구 및 현대 여성 작가에 관한 연구는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여성 문학 비교연구에서 강경애와 덩링, 박완서와 장결, 박완서와 천란 등 비교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특히 강경애와 샤오홍의 비교연구가 15편을 기록하여 양적으로 큰 축적을 이루었다. 이상에서 확인되듯이 이미 논의되었던 작가와 작품의 중복적인 비교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비교연구 대상을 모색해나가는 것 또한 향후 연구 과제라고 생각한다. 넷째<sup>43)</sup>, 최근 한국 내에서도 동아시아 문학연구에 관한 학위논문이 산

42) 남연, 위의 논문, p.122.

43) 이해영, 위의 논문, p.59. 최근 몇 년간 중국학계에서는 크로스컬처(跨文化), 비교문학형상학(比较文学形象学)으로 명명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

출되었고, 중국 내에서도 ‘동아시아’라는 연구 지평을 확장한 학위논문 주제가 등장했다. 이는 한중 비교문학에만 치중하지 않고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 내에서의 비교문학, 영향 관계, 문학사조의 발생론적 양상을 보다 더 거시적인 측면, 다각도, 다차원적인 시야를 제공하고 한국문학, 문화를 더욱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를 돕는 의미 있는 연구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문학비평에 관한 연구논의가 부족하다. 알다시피 서평과 문학비평은 문학 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작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독자의 작품 이해와 감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44)</sup> 이외에도 문예비평, 수용미학적 측면에 입각한 논의를 확장하여 한국 현대문학 세계를 더 풍부하게 음미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섯째, 문학 장르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본문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소설 연구’에 편중된 경향이 짙고 기타 장르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일 시, 희곡, 산문 등 기타 장르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기 정치적 입장으로 강제로 사용되었던 일본어로 소설을 창작한 이중언어 작가들의 작품 연구작업을 확장해나가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에 관한 동향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최근 ‘문학의 위기’라고 제기되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문학연구는 지속해서 활발한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은 서로 더 깊은 이해와 문화교류를 증진하기를 바라며 신진 학도들의 적극적인 학술 교류와 심층적인 문학 연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며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

국은 동아시아 크로스컬처(东亚跨文化), 동아시아 상호텍스트(东亚跨语境), 동아시아 상호어계(东亚跨语际)를 전제로 한중 양국의 비교문학 연구가 이 경계 혹은 변계 지대라는 연구에서 새로운 연구성과가 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논의되었다.

44) 남연, 위의 논문, p.127.

◆ 참고문헌

1. 논문

高仁德, 「한국문학의 중국어권 진출 현황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25집, 중국어문학 연구회, 2003, pp.623-664.

김윤진, 「중국에서의 문학한류와 번역현황」, 『한국출판연구』 제64집, 한국출판학회, 2013, pp.71-85.

남연, 「중국에서의 한국 현대문학 연구 현황 분석 및 향후 방향 설정」, 『문학교육학』 제 61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pp.91-139.

손지봉, 「21세기 중국 내 한국현대문학 번역출판현황 고찰」, 『통역과 번역』 제20집, 한국 통역번역학회, 2018, pp.1-20.

순허원·류즈치양, 「중국 내 한국 현대문학의 전파와 번역: 흐름과 사고」, 『아시아리뷰』 제 7집,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7, pp.71-90.

이혜영, 「중국내 한중비교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제44집, 한중인 문학회, 2014, pp.47-68.

한용호, 「중국 북경지역에서의 한국 문학 연구 현황과 그 과제」, 『열상고전연구』 제4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4, pp.261-293.

홍정선,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번역출판의 현황과 문제점」, 『민족문화사연구』 제43집, 민족문화사학회, 2010, pp.394-414.

牛林杰·张懿田, 「中韩建交二十年来中国的韩国现代文学研究综述」, 『当代韩国』 第3期, 2012, pp.27-33.

金长善, 「20世纪后半期韩国文学译介在中国」, 『世界文学评论』 第2期, 2006, pp.283-285.

赵莉, 「韩国文学翻译三十年 (1976~2006)」, 『外国文学动态』 第5期, 2006, pp.42-45.

金鹤哲, 「中韩建交以后中国文坛对韩国纯文学的译介研究」, 『当代韩国』 第3期, 2009, pp.39-48.

논문 접수 일	2024년 7월 13일
심사 완료 일	2024년 8월 27일
게재 확정 일	2024년 9월 19일

## 〈부록1〉 2010~2023년 한국 현대문학 연구 등재 학술지

山东理工大学学报	中国比较文学	文学报
河北广播电视大学学报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	商业文化
山东师范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文学研究	学术交流
苏州教育学院学报	外国文学研究	学术界
郑州轻工业学院学报	中国社会科学报	东吴学术
深圳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黄海学术论坛	贵州民族研究
齐齐哈尔师范高等专科学校学报	赤子(上中旬)	科学中国人
杭州电子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	科技信息	上海鲁迅研究
吉林省教育学院学报(下旬)	中国比较文学	国际汉学
黑龙江教育学院学报	求知导刊	世界文化
首都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教育教学论坛	文艺理论与批评
北华大学学报	考试周刊	语文建设
长春师范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	当代世界文学(中国版)	中译外研究
北京联合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当代比较文学	中外文化与文论
怀化师专学报	北京印刷学院学报	国际汉学
牡丹江大学学报	现代经济信息	韩国研究论丛
中央民族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现代职业教育	品位经典
江苏海洋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时代教育	剑南文学(经典教苑)
东北师大学报(哲学社会科学版)	中国市场	中国民族博览
太原大学教育学院学报	文教资料	明日风尚
湖北广播电视大学学报	出版科学	华中学术
远东学院学报(社会科学版)	科教文汇	三角洲
信阳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小康	艺术世界(下半月)
烟台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青春岁月	金牌读写(高中生适读)
盐城师范学院学报(人文社会科学版)	日本研究	语文教学通讯·D刊
天津外国语学院学报	外国文学动态研究	汉语言文学研究
闽西职业技术学院学报	燕赵中文学刊	甘肃社会学科
开封文化艺术职业学院学报	新纪实	当代作家评论
鲁东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教师	中韩社会与海洋交流研究(韩国研究丛书 61)
湖南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	散文百家(理论)	南腔北调
吉林广播电视大学学报	林区教学	日本教育与日本学研究
天津商务职业学院学报	作家天地	中国图书商报

昌吉学院学报	黄金时代(学生族)	语文学刊(外语教育教学)
宁夏师范学院学报	参花(上)	延边党校学报
广播电视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青春岁月	艺术品鉴
延边教育学院学报	学理论	知识文库
兰州工业学院学报	科教导刊(中旬刊)	黑龙江教育(高教研究与评估)
教育部基础教育课程改革研究中心	民族翻译	当代外语研究
课外语文		

〈부록2〉 한국 현대문학 석사학위논문 출처 대학 기관

연변대학(延边大学)(30) 2010(4), 2011(3), 2012(2), 2013(3), 2014(5), 2015(3), 2016(2), 2017(2), 2018, 2019(3), 2020(2), 2021	중아민족대학(中央民族大学)(9) 2011(3), 2012, 2013(2), 2015, 2016, 2019	남경대학(南京大学)(5) 2013, 2014, 2015(2), 2017
산둥대학(山东大学)(21) 2010, 2011(3), 2012, 2013, 2014(2), 2015(3), 2016, 2017, 2018(2), 2019, 2020(4), 2022	칭다오대학(青岛大学)(8) 2012, 2014, 2015(2), 2018(2), 2020, 2022	대련외국어대학(大连外国语大学)(4) 2018, 2019, 2020, 2021
흑룡강대학(黑龙江大学)(16) 2010(2), 2011, 2012(2), 2013(3), 2015, 2016, 2017, 2019(3), 2021, 2023	북경제2외국어대학(北京第二外国语学院)(6) 2012, 2013, 2014, 2017, 2019(2)	후난사범대학(湖南师范大学)(4) 2016(2), 2018(2)
길림대학(吉林大学)(14) 2011(3), 2013(2), 2014(2), 2015(2), 2017, 2018(2), 2019(2)	사천외국어대학(四川外国语学院)(5) 2013, 2014, 2015, 2016, 2019	북경외국어대학(北京外国语学院)(3) 2017, 2019, 2022
중국해양대학(中国海洋大学)(13) 2010(2), 2011, 2012(3), 2013, 2014(4), 2015(2)	엔타이대학(烟台大学)(5) 2013(2), 2014, 2017, 2018	장춘이공대학(长春理工大学)(2) 2012, 2022
상해외국어대학(上海外国语大学) 2018	화둥사범대학(华东师范大学) 2013	하이난대학(海南大学) 2018
충칭사범대학(重庆师范大学) 2014	취푸사범대학(曲阜师范大学) 2021	길림재경대학(吉林财经大学) 2012
정강공상대학(浙江工商大学) 2022	허베이대학(河北大学) 2017	운남대학(云南大学) 2012
허난대학(河南大学) 2012	광시사범대학(广西师范大学) 2018	

〈부록3〉 한국 현대문학 박사학위논문 출처 대학 기관

중앙민족대학(中央民族大学)(6) 2012, 2015(2), 2017, 2018(2)	연변대학(延边大学)(2) 2011, 2016	절강대학(浙江大学) 2012
길림대학(吉林大学)(5) 2011, 2014, 2016, 2019, 2022	산둥대학(山东大学) 2017	소주대학(苏州大学) 2012
랴오닝대학(辽宁大学)(3) 2014, 2018, 2020	동북사범대학(东北师范大学) 2010	랴오닝사범대학(辽宁师范大学) 2013

*Abstract*

---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Korean modern literature  
research in China

Zheng, Meiling

In this study, we extracted related research papers limited to Korean 'modern literature' from 2010 to 2023 from CNKI(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a Chinese academic paper search platform, and examined trends in research on modern Korean literature in China. As a result, a total of 308 academic theses were published, 156 master's theses, and 21 doctoral theses, for a total of 485 searches, achieving high result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Chapter 2 reviewed existing previous studies on research trend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in China. Chapters 3 and 4 examine in detail the published academic journals and type classification by topic, as well as the comparative research status of modern literature in Korea and China, and organize them focusing on the authors and works discussed. In particular, among Korean modern literary writers, Lee Kwang-soo, Chae Man-sik, and Yeom Sang-seop are key subjects of research. Above all, research on female authors' works and female consciousness occupied a relatively large proportion and accumulated research results. Among female writers, Park Wan-seo and Kang Gyeong-ae are key research subjects. What is noteworthy is that in comparative literature research on Korean and Chinese female writers, a total of 15 comparative studies by Kang Gyeong-ae and Xiao Hong were record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last chapter briefly presents the prospects for future research on Korean modern literature in China.

**Keyword**

Korean modern literature, Comparative study of modern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 registered academic journals, Type classification by topic

## 『홍루몽(红楼梦)』 색채어의 중한 번역 연구

이 설\* · 심보경\*\*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홍루몽(红楼梦)』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의 대조 분석하여 중국어 색채어와 한국어 색채어의 구조와 의미를 고찰하고 『홍루몽』 번역의 방법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색채어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형태론적 측면에서 중한 양국 색채어의 단어 구조, 『홍루몽』 원문과 번역본의 예문을 대조 분석하여 『홍루몽』에 반영된 색채어의 의미와 번역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루몽』 색채어에 반영된 중국어 원문과 한역본을 분석한 결과 ‘단일 색채어’, ‘상태 형용사 + 색채어’, ‘사물 명사 + 색채어’ 세 가지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홍루몽』에서 ‘단일 색채어’는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인물의 신분과 성격 등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생략할 경우 원문 색채의 의미와 분위기를 표현한 『홍루몽』의 특징과 매력을 잃을 수 있다. ‘상태 형용사 + 색채어’의 경우, 상태 형용사가 색채의 채도와 명도를 나타내므로 번역을 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하며, ‘사물명사 + 색채어’의 경우, 색채어를 직접 번역하되 원문이 강조하는 색깔을 전달할 수 있는 색채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대응 색채어가 없는 경우에는 색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하여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红色’ 계열 색채어는 열정, 활발함을 상징하며, 부귀와 길상의 의미하여 주로 ‘가보옥’과 ‘왕희봉’의 복식 및 장신구, ‘가씨’ 집안의 장식물에 표현되었다. ‘绿色’ 계열 색채어는 청춘과 생기를 상징하며 ‘왕희봉’의 복식에 사용된 ‘豆绿’은 외향적이고 생기 넘치는 성격을 표현하였다. ‘白色’ 계열 색채어는 깨끗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며, ‘묘옥’의 고결함과 청고한 품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紫色’과 ‘石青色’은 관복 및 신분의 존귀함과 고상함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홍루몽』 색채어 번역 방법을 통해 번역가는 원문의 색채어의 의미를 충실히 표현할 수 있으며, 독자는 『홍루몽』 서사에 반영된 중국의 문화적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홍루몽, 색채어, 단일 색채어, 합성 색채어, 파생 색채어, 대조 번역

\* 제1저자, 한림대학교 중한번역협동과정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

\*\* 교신저자,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중한번역협동과정대학원 교수

## 〈목차〉

1. 서론
2. 색채어의 개념과 구조
  - 1) 색채어의 개념
  - 2) 중국 색채어의 단어 구조
  - 3) 한국 색채어의 단어 구조
3. 『홍루몽』 색채어의 중한 번역문 사례 분석
  - 1) 단일 색채어 번역
  - 2) 합성 색채어 번역
4. 결론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홍루몽(紅樓夢)』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을 대조 분석하여 중국어 색채어와 한국어 색채어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고 『홍루몽』 색채어 번역의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색채는 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풍부한 문화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색채어는 단순한 색채 묘사를 넘어서 문화 전승과 감정 표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색채어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소설에도 입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색채어는 단순히 색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도 관련이 깊어 소설 원문의 색채어를 알맞게 번역하는 것은 독자에게 원작의 색채 감각과 문화적 의미를 전달하게 되어 원문의 의미를 알맞게 반영한 색채어는 독자에게 시각적 효과를 배가하게 된다. 반면, 번역이 충분히 정확하지 않으면 원문이 전달하려는 내용을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적합한 번역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색채어는 소설에서 단순한 색채 표현에 그치지 않고, 서사를 강화하고 인물의 성격 특징을 심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색채어는 소설의 문학적성과 예술성을 풍부하게 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특히, 『홍루몽』의 색채어는 풍부하여 장면이나 인물의 복식을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어 이를 통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과 성격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홍루몽』 번역에서도 중국어 원문에 대한 한국어 색채어의 선택은 원문 색채의 의미와 인물의 성격과 신분 등을 표현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홍루몽』의 저자인 조설근(曹雪芹)은 청나라의 소설가, 시인, 화가이다. 청나라 소년 시절에는 난징(南京)에서 가정을 이루었으나 나중에 가족과 함께 북경(北京)으로 이주하였다. 소년 시절에는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으나 1727년에는 아버지인 조부(曹頌)가 자금을 횡령하여 명예를 실추되고 가문은 파산하여 가족은 북경으로 이주하게 되었다.<sup>1)</sup>

『홍루몽』에서 저자는 왕정 및 관료 사회 및 봉건 귀족 계층의 부패, 중국 청나라의 과거제도, 노비 제도, 혼인 제도, 계급 제도 등과 같은 당대의 사회 문화 및 정치 제도 등을 비판하였다. 또한 다양한 인물의 형상을 개성 있고 뚜렷하게 창조하여 각각의 고유한 개성을 지닌 인물들이 나타내는 색채어 및 언어적 표현으로 인물의 성향과 기질, 상징적 의미 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시, 사, 곡, 부 등은 『홍루몽』의 서사와 융합되어 저자의 예술적 표현력을 높게 나타내고 있으며 『홍루몽』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 인물의 신분, 복식 및 장신구 착용 상황에도 나타나고 있다.<sup>2)</sup> 『홍루몽』 연구자인 후문빈(胡文彬)은 『红楼梦在国外』에서 『홍루몽』의 외국어 번역본은 총 17종 언어로 62개 판본이 있으며, 그 중 부분 번역은 12종 언어로 구성된 26개 번역본, 전체 번역본은 9개 언어, 19개 판본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sup>3)</sup> 『홍루몽』의 인기와 번역학적 기여도를 잘 알 수 있다.

『홍루몽』 색채어와 관련된 한국 측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 고민희(2015)는 ‘청색(青色)’의 의미를 ‘靑자 포함 복합어’를 중심으로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1) 林煥文·張鳳, 『世界著名文史學家辭典』, 黑龍江: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85, p.769.

2) 曹雪芹 著, 中國藝術研究院&紅樓夢研究所 校注, 『紅樓夢』,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22, pp.4-5.

3) 董曉波, 『《紅樓夢》域外傳播面臨的挑戰』, 『光明日報』, 2024.2.24., p.10.

‘靑’의 의미와 특징, ‘靑色’이 갖고 있는 ‘다의성’과 ‘모호성’으로 인한 번역상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였다. 유염·염철(2021)은 『홍루몽』 색채어에 혼성이론을 적용하여 중한 번역의 색채어 의미 확장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으나 색채어와 색채를 포함한 단어의 정의와 조어법, 한국어와 중국어 색채어의 단어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한·중 색채어의 관계를 면밀하게 조망하는 데 아쉬움이 있다. 임나정(2022)은 색채어 ‘靑(靑)’ 번역의 어려움을 문화적 차이와 인지적 차이로 적용하여 색채어의 의미와 상징성을 표현할 때에는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그 나라에 없어 번역하기 쉽지 않은 색채어, 비슷한 색채어에 대한 대체 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지 않은 것이 한계로 보인다.

중국 측 『홍루몽』 색채어 연구는 중한 번역 외에도 다른 언어와의 관계,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梁京(2021)은 『홍루몽』에서 색채어의 의미와 빈도 분석을 통해 색채어와 식물, 복식, 기물 간의 관계가 소설의 내용을 전개하고 전통 문화 및 사회적 유행을 반영한다고 강조하였으며, 荣慧艳·李书宁(2022)은 최용철·고민희 한역본에 나타난 ‘紅’ 계열 색채어의 번역 방법을 분석한 후 ‘紅’계 색채어의 번역 특성 및 번역을 위한 수정방안을 제시하였다. 李亚彤(2022)은 인지 언어학 및 색채이론을 접목하여 색채어의 단어 구조, 의미를 분석한 후 『홍루몽』에 반영된 색채어는 심미적 분위기를 조화롭게 하는 데 의의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색채어 분석에서 기초적인 작업에 그쳐 색채어의 의미를 면밀하게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葛雅琦·成玉峰(2024)은 색채어 번역에서 문맥이 복잡하거나 문화적 내포가 포함될 때는 품사와 용법에 따라 의역, 생략 등의 번역 방법을 선택하는 유연하고 종합적인 번역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热依拉·艾比不拉(2013)은 중국어와 위구르어의 색채어 번역 분석을 통해 문화적 차이로 색채어 번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본 색채어와 실물 색채어는 직역을 하고, 존재하지 않는 실물 추상 색채어는 의역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홍루몽』에 반영된 색채어를 대상으로 원문과 번역본의 예문

을 대조하여 한중 색채어의 구조를 분석한 후 한역본에서 발생하는 색채어 번역의 문제를 제시하고 색채어 번역의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2년에 중국 인민문학출판사(人民文學出版社)에서 출판된 『홍루몽』(제 4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홍루몽』의 한역본은 시대적인 요인 및 판본간의 내용 분석을 통한 완성도를 고려하여 2007년 청계출판사에서 간행된 안의운·김광렬 완역본(이하 번역본1), 2009년 나남출판사에서 간행된 최용철·고민희 완역본(이하 번역본2), 2012년 솔출판사에서 간행된 홍상훈 완역본(이하 번역본3)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홍루몽』의 판본은 주로 지연재평본(脂硯齋評本)과 정각본(程刻本) 두 가지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원문과 번역본은 같은 판본 체계에 속하며, 모두 지연재평본을 기반으로 수정되고 번역된 것이다. 이 판본의 장점은 원작의 초고에 가깝다는 특징을 지니며, 조설근(曹雪芹)의 창작 스타일과 사상을 보다 진실하게 보여주어 연구에 참고 가치가 높다. 완역된 한역본 중 본 연구에서 선정한 번역본은 지연재평본 한역본 중 출판 연도가 최신인 세 가지 판본에 해당되며 내용이 상세하여 한역본 번역과 연구에 의의가 있다.

## 2. 색채어의 개념과 구조

### 1) 색채어의 개념

색채는 우리 생활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색채는 문화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와 문화에 따라 색에 대한 이해와 부여의 의미도 다르다. 색채어는 언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색채 단어를 사용하면 작품의 이미지와 감동을 향상시켜 독자나 관객이 작품이 표현하는 감정과 의미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sup>4)</sup>에 의하면 색채는 (1)물체가 빛을 받을 때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검색일: 2024.06.18.)

빛의 파장에 따라 그 거죽에 나타나는 특유한 빛, (2) 사물을 표현하거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 따위에서 드러나는 일정한 경향이나 성질로 설명하고 있다. 즉, 색채어란 빛깔을 나타내는 말을 가리킨다.

한중 양국의 학자들도 색채어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였다. 중국학자 叶军<sup>5)</sup>은 색채어는 바로 자연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색채와 사람들의 주관 의식에서 후천적으로 형성된 추상적인 색채 인상을 반영하는 단어라고 정의하였다. 叶军(1999)은 색채어와 색채를 포함하는 단어에 대해서 개념의 구분을 제시하였다. 그중에 색채를 포함하는 단어는 색채 형태소를 포함하지만 색채 개념을 나타내지 않는 단어와 색채어는 색채 개념을 반영하는 단어라고 정의하였다. 曹莉亚(2012)는 ‘색채어는 단어의 개념적 의미에 따라 구분된 단어의 일종으로 핵심 기준은 구체적인 언어 환경에서 사물의 색채를 나타내는지, 색채의 의미를 갖는지 여부’라고 정의하였다. 중국학자들은 색채어에 대해 일치된 정의를 내리지 않았지만, ‘색채어는 색채를 표현과 표시하는 단어’로 보편적인 정의하였다. 한국학자 신윤호(1991)는 인간은 한정된 어휘로 모든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색채로 표현하고 표현하는 단어를 색채어로 정의하였으며, 김인화(1986)는 주변 환경이나 물체의 색채를 통해 색 감각을 결정하는 단어가 색채어이며 이는 언어화된 약속의 기호라고 정의하였다.

위의 한중 양국 학자의 정의에 근거하여 언어학에서 색채어가 어휘의 한 유형으로 여겨지며 물체의 색채, 인물의 의상 및 장면에서 나타나는 색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됨을 알 수 있다.

## 2) 중국 색채어의 단어 구조

중국 색채어의 단어 구조에 대한 학자들의 분류가 다양하다. 詹人凤(1990)은 기본 색채어와 비기본 색채어로 분류하였으며 <sup>6)</sup>叶军(2001)은 색채어를 기본 색채어와 보통 색채어로 정의하였다.<sup>7)</sup> 李红印(2007)는 색채어를 단일 색채어와

5) 叶军, 『现代汉语色彩词研究』, 呼和浩特: 内蒙古人民出版社, 2001, p.34.

6) 詹人凤, 『现代汉语语义学』, 北京: 商务印书馆, 1990, pp.175-184.

합성 색채어로 분류하고 합성 색채어는 다시 복합 색채어와 파생 색채어로 분류하였다.<sup>8)</sup> 加晓昕(2014)에서는 색채어를 단일 색채어와 합성 색채어로 분류하고 합성 색채어는 다시 복합 색채어와 파생 색채어로 분류하였다.<sup>9)</sup> 김순진·한용수(2017)는 색채어를 복합 색채어, 부가 색채어와 중첩 색채어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sup>10)</sup>

詹人凤과叶军은 색채어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을 뿐, 세부적인 구분은 하지 않았으면 김순진·한용수의 분류에서는 ‘ABB’ 유형의 단어에 대한 분류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加晓昕에서는 李红印의 분류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색채어를 분류하였으며, 李红印은 색채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분류와 설명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 원문에 나타나는 중국어 색채어 특징과 분류체계의 세분화 정도에 근거하여 李红印의 분류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 (1) 단일 색채어(单纯颜色词)<sup>11)</sup>

단일 색채어는 모두 자유롭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색채어를 가리킨다. 중국어 단일 색채어는 주로 红, 白, 黄, 黑, 绿, 蓝, 紫, 灰이다.<sup>12)</sup>

〈예문1〉 黑头发 红苹果 蓝眼睛

#### (2) 합성 색채어(合成色彩词)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이다. 합성 색채어도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다. 합성 색채어는 중국 색채어의 주요 구성 부분이다. 합성

7) 叶军, 위의 책, pp.35-49.

8) 李红印, 『现代汉语颜色词语义分析』, 北京: 商务印书馆, 2007, pp.50-53.

9) 加晓昕, 『现代汉语色彩词立体研究』, 成都: 四川出版集团&四川科学技术出版社, 2014, pp.29-30.

10) 김순진·한용수, 「현대 중국어 오색 색채어의 구조 小考」, 『한중인문학연구』 제56집, 한중인문학회, 2017, pp.149-171.

11) 李红印, 위의 책, pp.50-53.

12) 같은 곳, p.49.

색채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상태 형용사 + 색채어

〈예문2〉 大红/深红/淡红 // 暗绿/深绿/淡绿 // 嫩黄/嫩绿/鲜红

이런 유형의 색채어는 앞 부분이 뒤의 색채어에 대해 밝기와 정도를 수식하고 있다. 상태 형용사와 색채 단어의 결합을 통해 색채의 표현 방식을 풍부하게 만들며 녹색이 시각적으로 다른 층과 깊이를 나타내게 하여 언어 표현을 생동감 있고 구체적으로 만든다.

(나) 색채어 + 색채어

〈예문3〉 紫红-紫+红//黄绿-黄+绿//碧绿-碧+绿//青绿-青+绿//  
墨绿-墨+绿//碧蓝-碧+蓝

이 구조의 단어는 두 개의 단일 색채 단어를 결합하여 생성된 새로운 색채 단어이다. 결합된 색상 단어는 단일 색상 단어보다 더 구체적이고 풍부하며, 색조의 미세한 차이와 질감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碧绿'은 단순한 '绿'보다 더 생동감 있게, 신선하고 밝은 绿色을 전달한다.

(다) 사물명사 + 색채어

〈예문4〉 草绿/豆绿/玫瑰紫(식물) // 猩红/鹅黄(동물) // 水红/天青(자연물)

이러한 유형의 색채어는 일반적인 사물의 색채를 사용하여 가리키는 색채의 종류를 나타내고, 그 중의 '사물'은 대부분 식물 동물과 자연물 등이다.

(라) 사물명사 + 色

〈예문5〉 茶色/金色/银色/檀色 // 翡翠色/玳瑁色/青莲色

'사물명사+色'와 같은 이러한 유형의 색채어는 '茶色/玳瑁色'처럼, 구조에서

거의 색채를 표현하지 못하고, 사물의 색채를 통해 가리키는 색채를 명명한다.

(마) 색채어 + 色

〈예문6〉

红色/黄色/白色/黑色 // 橙黄色/黄绿色/粉红色

이런 유형의 색채어는 모두 ‘색채어+色’으로 구성되며 ‘红色 黄色 白色’처럼, 일부는 단일 색채를 나타내고 ‘橙黄色 黄绿色 粉红色’처럼, 일부는 혼합 색채를 나타낸다.

(3) 파생 색채어

파생 색채어는 단일 색채어의 어근에 접미사를 붙여 구성된 색채어이다.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ABB

〈예문7〉 红扑扑/白皑皑/金灿灿/银晃晃

‘白皑皑/金灿灿’와 같은 이러한 색채어는 모두 중첩구조이다. 중첩구조는 정도에서 색채 어근을 설명하거나 제한한다. 기본 색채어에 의성어 또는 의태어가 결합된 형태로, 반복과 음운 효과를 통해 색채의 시각적 표현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색채의 동적 느낌과 질감을 부여한다. 이러한 구조는 색채 묘사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 특정 상황에서의 시각적 및 감정적 효과를 잘 전달할 수 있게 한다.

(나) A不BC

〈예문8〉 黑不溜秋/灰不溜秋/黄不拉几

(다) AXY // AXYZ

〈예문9〉 乌漆黑/红巴渣 // 黑古隆咚/黄了呱呱

A不BC와 AXY/ AXYZ의 유형은 색채 어근에 색채 표현 외에도 뒤에 다양한 ‘비 색채 정보(非色彩信息)’를 추가하였다. 이런 구조 방식은 중국어에서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 있으며, 중국어 표현에서 색채와 감정에 대한 풍부한 묘사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黑古隆咚’은 어두운 색채를 표현할 수 있다.

〈표 1〉 중국어 색채어 구조

	단어 구조		색채 예문
	중국어 색채어	단일 색채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색채어
합성 색채어		상태 형용사 + 색채어	大红/深绿/淡黄
		색채어+색채어	粉红/紫红/青绿
		사물명사+색채어	火红/豆绿/天蓝
		사물명사+色	茶色/青莲色/赤铜色
색채어+色		黄色/红色/灰白色	
파생 색채어		ABB	红扑扑/白皑皑/金灿灿
	A不BC	黑不溜秋/灰不溜秋/黄不拉几	
	AXY/ AXYZ	乌漆黑/黑古隆咚/ 黄了呱叽	

### 3) 한국 색채어의 단어 구조

신호철(2012)은 한국어 색채어 대해 색채 명사나 색채 형용사 외에 기본 색채어에 파생 접사가 결합된 파생 색채어, 다른 색채어가 결합된 합성 색채어, 자음 또는 모음 교체에 의한 색채어 형성 등으로 분류하였다.<sup>13)</sup> 사옥동(2014)은 색채어를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로 분류하였으며,<sup>14)</sup> 정성환(2018)은 색채어를 복합어 색채어, 파생어 색채어, 합성어 색채어, 중첩어 색채어 등으로 분류하였다.<sup>15)</sup> 손봉(2019)은 색채어를 한자어 색채어와 고유어 색채어로 분류한 후 고유어 색채어는 다시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로 분류하였다.<sup>16)</sup> GAO YUXUAN(2023)은

13) 신호철, 「한국어 색채 표현이 이원 체계」, 『문법 교육』 제16집, 한국문법교육학회, 2012, pp.173-202.

14) 사옥동, 「한·중 색채어의 대조 연구: 기본 오색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pp.17-22.

15) 정성환, 「전통색 색채어 구조를 위한 기초연구: 조선왕조실록 색채어 분류를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 제45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5, pp.138-150.

16) 손 봉, 「한·중 색채어 {백(白), 적(紅), 흑(黑), 청(靑), 황(黃)} 대조 분석」, 상명대학

색채어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한 후 고유어 색채어는 단일어와 합성어, 파생어로 분류하여 합성어는 단일 색채어의 결합, 색채어의 중첩, 색채어와 상태 형용사의 결합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파생어는 접두파생어와 접미파생어로 분류하였다.<sup>17)</sup> 본 연구에서는 신호철, 손봉, GAO YUXUAN의 분류 방식을 참고하여 한국어 색채어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 (1) 한자어 색채어

한자어 색채어는 한자로 사용되는 색채를 표현하는 단어이다. 다시 단일어 색채어와 복합어 색채어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단일 색채어

단일 색채어는 모두 자유롭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색채어를 가리킨다. 이러한 색채어는 중국어 한자어와 형태가 같이 나타난다.

〈예문10〉

‘붉다’ 계열: 홍(紅) // ‘희다’ 계열: 백(白), 은(銀) // ‘검다’ 계열: 흑(黑)

‘푸르다’ 계열: 남(藍), 청(靑), 녹(綠), 감(紺) // ‘누르다’ 계열: 갈(褐), 황(黃)

#### ② 합성 색채어

##### (가) 색채어 + 색채어

〈예문11〉 주+황-주황(朱黃) // 분+홍-분홍(粉紅) // 자+주-자주(紫朱)

이 유형은 단일 색채어 + 단일 색채어의 구조이다. 두 개의 단일 색채어가 결합하여 혼합색을 표현하는 복합 색채어를 형성한다.

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9, pp.15-30.

17) GAO YUXUAN, 「한국어 ‘누르다’ 계열과 중국어 ‘황(黃)’ 계열 색채어 대조 연구 은유 의미 대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 pp.15-19.

(나) 사물 명사 + 색채어

〈예문12〉 초록(草綠)/석록(石綠)/등황(藤黃)

‘사물 명사 + 색채어’ 형태의 합성어는 사물을 지시하는 명사와 해당 색깔을 나타내는 색채어를 결합한 것이며, 주로 생동적인 색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합성어의 대다수는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다) 상태 형용사 + 색채어

〈예문13〉 순백(純白)/심홍(深紅)/담황(淡黃)

상태 형용사 색채어는 형용사 형태소와 색채 형태소가 결합된 색채어이다. 이런 유형의 특징은 형용사로 색채어가 표현하는 한 색채의 정도와 명도(明度)를 수식한다.

(라) 사물 명사 + 색

사물 명사 뒤에 ‘색(色)’이라는 단어를 결합한 구조이다.

〈예문14〉 비색(翡色) / 황토색(黃土色) / 연두색(軟豆色)

이 유형은 사물의 이름을 색채의 명칭과 결합하여 특정 색채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단어 구조에서 ‘사물’은 보통 색상이 연상되는 특정 물질이나 대상을 가리키고 표현은 색채를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고유어 색채어

① 단일 색채어

한국어 고유어 색채어는 ‘붉다/검다/희다/푸르다/누르다’와 같이 기본 오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색채 형용사’와 ‘색채 명사’로 설정되어 있다. 고유어 단일 색채어는 복합어 색채어의 기본색이 된다.

〈예문15〉 붉다/검다/희다/푸르다/누르다 // 빨강/검정/하양/파랑/초록

## ② 합성 색채어

### (가) 색채어 + 색채어

이 구조는 두 개의 단일어 색채어가 결합된 형태이다.

〈예문16〉 겹다+붉다 → 겹붉다 // 겹다+누르다 → 겹누르다

이 유형은 두 개의 고유한 단일어 색채어를 결합하는 것인데, 그 특징은 비록 구조는 두 색채어의 결합이지만 이 색채어의 의미는 뒤의 색채어가 나타내는 색채에 더 치우쳐 있다.

### (나) 중첩 색채어

〈예문17〉 노릇노릇/불긋불긋/파릇파릇

중첩 색채어는 색채에 대한 묘사를 생동감 있게 하고,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색채 표현은 더욱 이미지와 구체성을 높일 수 있다. 색채어와 의태어가 결합한 경우, 의태어는 농도, 광택, 질감, 상태 등을 나타내어 대상을 섬세하게 표현하게 한다.

### (다) 상태 형용사 + 색채어

〈예문18〉 질푸른/질붉은

‘질’은 상태 형용사, ‘푸른’, ‘붉은’은 고유어 색채어이다. ‘질푸른’, ‘질붉은’과 같은 유형의 특징은 색채어가 표현하는 한 색채의 정도와 명도(明度)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 ③ 파생 색채어

파생어는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하는 구조이다. 파생 색채어는 접두 파생 색채어와 접미 파생 색채어로 분류하였다.

(가) 접두 파생 색채어

접두 파생 색채어는 실질형태소 앞에 접사가 놓이는 형태이다.

〈예문19〉

새-: 새파랗다, 새붉다, 새빨갳다, 새하얗다, 새까맣다, 새카맣다

셋-: 셋노랗다

시-: 시퍼렇다, 시뻘겁다, 시허옇다, 시꺼멓다

잇-: 잇누렇다

접두사 ‘새-’는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붙어 그 색깔이 더 진하다는 뜻으로 형용사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경우에는 접두사 ‘시-’가 붙는다.

(나) 접미 파생 색채어

접미 파생 색채어는 실질 형태소 뒤에 접사가 결합하는 형태이다.

〈예문20〉 ‘노르다 + -스름하다’--> 노르스름하다

‘푸르다 + -스레하다’--> 프르스레하다

‘-스름하다’, ‘-스레하다’는 빛깔이 비슷하고 열거나 그 형상과 비슷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노르스름하다’는 기본적인 색채어에 접미사를 추가하여 새로운 의미의 색채어를 만든다. 이것은 색채의 변형, 강도, 투명도 등을 나타낸다.

〈표 2〉 한국어 색채어 구조

		단어 구조		색채 예문	
한국어 색채어	한자어 색채어	단일 색채어	한자로 사용되는 색채를 표현하는 하나의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단어	홍(紅)/백(白)/은(銀)/흑(黑)/황(黃) 남(藍)/청(靑)/녹(綠)/갈(紺)/갈(褐)	
		합성 색채어	합성 색채어	색채어 + 색채어	주황(朱黃)/분홍(粉紅)/자주(紫朱)
				사물명사 + 색채어	초록(草綠)/석록(石綠)/등황(藤黃)
				상태 형용사+색채어	순백(純白)/심홍(深紅)/담황(淡黃)
		사물명사 + 색(色)	비색(翡色)/황토색(黃土色)		
고유어 색채어	단일 색채어	한국 고유의 색채를 표현하는 하나의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단어	붉다/검다/회다/푸르다/누르다		

합성 색채어	색채어 + 색채어	검붉다/검누르다
	중첩 색채어	불긋불긋/노릇노릇/파랏파랏
	상태 형용사 + 색채어	질푸른/질붉은
파생 색채어	접두 파생 색채어	새하얗다/시꺼멓다
	접미 파생 색채어	노르스름하다/푸르스레하다

〈표1〉과 〈표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의 색채어와 한국어의 색채어는 공통점이 있는 동시에 많은 차이점도 존재한다. 한국어의 색채어 구조 분류는 중국어 색채어 구조보다 더 복잡하며, 한자어와 고유어의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뉜다. 반면, 중국어 색채어의 파생어에는 ‘ABB’, ‘A不BC’, ‘AXY / AXYZ’와 같은 구조 형식이 있으며, 이는 중국어에 특유한 것으로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중 색채어의 구조에 대한 대조 분석을 통해 두 언어 색채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이러한 색채어 차이가 분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차이가 번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하고,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중한 색채어 번역에서의 적용과 표현을 깊이 분석하기로 한다.

### 3. 『홍루몽』 색채어의 중한 번역문 사례 분석

『홍루몽』 원문 1장~5장에 등장하는 모든 색채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후 본 장에서는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세 가지 색채어 구조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 원문에 근거하여 각각의 번역본 예문에서 나타나는 색채어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단일 색채어 번역

〈예문21〉

원문: 今嫌紫蟒长 (第1回 18页)

번역본1: 오늘은 비단옷도 성에 차지 않는다네 (안의운김광렬 2007:50)

번역본2: 오늘은 보라색 망포옷이 끌린다고 싫어하네 (최용철·고민희 2009:50)

번역본3: 오늘은 자줏빛 망포 너무 길다고 투덜거리네 (홍상훈 2012:51)

〈예문21〉에서 ‘紫蟒’은 ‘紫色’의 용 모양이 새겨진 관복을 의미한다. 고대에는 각 직위에 따라 다른 색의 관복을 입었다. 친왕과 삼품(三品) 관리는 ‘紫色’의 관복을 입었는데 ‘紫色’은 존귀함과 귀족 신분의 상징으로, 원문에서 ‘紫蟒’은 관직의 등급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번역본1에서는 구체적인 색채 표현 대신 ‘비단옷’을 사용하여 화려한 옷을 나타내지만 직접적으로 색상은 지정하지 않았다. 번역본2에서 ‘보라색’은 고유어 단일 색채어로, ‘보라색’은 ‘紫色’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번역본3에서 ‘자줏빛’은 한자어 ‘자주(紫朱)+빛’, 즉, 단일 색채어 + 단일 색채어의 구조이다. 이것은 ‘紫色’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색채의 광택과 색조를 강조하고 있다. 세 번역본 예문을 비교하여 살펴볼 때, ‘자줏빛’은 다른 두 예문보다 ‘紫蟒’의 신분 상징과 화려함이 돋보이는 단어이다.

〈예문22〉

원문: 俄而大轿内抬着一个乌帽猩袍的官府来了 (第1回 19页)

번역본1: 뒤이어 검은 사모를 쓰고 관복을 입은 신임 부사가 팔인교(八人轎)에 앉아 지나갔다. (안의운·김광렬 2007:51)

번역본2: 곧 큰 가마 위에 앉은 검은 사모에 붉은 도포를 입은 사또가 보였다. (최용철·고민희 2009:51)

번역본3: 잠시 후 검은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붉은 도포 차림의 관리를 태운 큰 가마가 지나갔다. (홍상훈 2012:49)

〈예문22〉에서 ‘猩袍’은 ‘红色’ 관복을 의미한다. ‘猩’은 오랑우탄의 피와 같은 선명한 붉은색을 가리킨다. ‘猩袍’에서 ‘猩’ 역시 관복의 색채를 의미한다. 번역본1에서는 ‘猩袍’의 红色을 번역하지 않고 관복으로 직접 번역하였으며, 번역본2와 번역본3에서는 ‘猩袍’의 红色을 고유어 단일 색채어 ‘붉은’으로 번역하여 ‘도포(道袍)’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였다. 한국어에서는 ‘猩’이라는 색을 표현할 적절한 색상 단어가 없어 정확하게 번역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저자가 의도한 색채를 완전히 번역하여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이국의 독자에게는 보다 직관

적인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원문에서의 ‘猩袍’은 ‘선홍빛 관복’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예문23〉

원문: 无瑕白玉遭泥陷 (第5回 84页)

번역본1: 티없는 옥을 진흙 속에 빠뜨리고서 (안의운김광렬 2007:233)

번역본2: 티 없는 백옥이 진흙 속에 빠진 꼴이었네. (최용철고민희 2009:136)

번역본3: 진흙탕에 빠진 티 없이 하얀 옥 같은 신세라네. (홍상훈 2012:151)

〈예문23〉에서 ‘白’은 단일 색채어로 ‘옥’의 순결함을 묘사하며 진흙의 더러움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번역본1에는 색채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색채어를 생략하여 ‘티없는(无瑕疵的)’으로 ‘옥’을 묘사하였다. 번역본2에는 한자 단일 색채어 ‘백(白)’을 사용하였고 원문 색채어 ‘白’을 보존하여 옥의 색과 순백함을 직관적으로 나타내어 원문 내용에 충실하였다. 번역본3의 ‘하얀’은 고유어 단일 색채어이다. 이것은 색채어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옥의 순백함을 강조하여 원문 표현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다. 〈예문23〉은 묘옥(妙玉)의 운명을 노래한 곡이다. ‘白’은 깨끗함과 순결함의 상징으로, 묘옥은 고귀한 출신이지만 불가에 몸담고 있으며 성격이 차갑고 고고하다. 묘옥은 생활 습관과 대인 관계에서 깨끗함을 추구하는데, 이는 마치 백옥과 같아서 ‘白’은 묘옥의 고결하고 청렴한 성격과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다.

〈예문24〉

원문: 光摇朱户金铺地 (第5回 79页)

번역본1: 햇빛 어린 주홍대문 어른어른 눈부시고 (안의운김광렬 2007:152)

번역본2: 붉은 대문과 금색 바닥은 반사된 빛이 흔들리고 (최용철고민희 2009:131)

번역본3: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문들과 금을 깔아놓은 듯한 바닥 (홍상훈 2012:140)

〈예문24〉에서 ‘朱戶’는 주홍색 대문을 의미한다. ‘朱戶’은 대문의 색채를 묘사

할 뿐만 아니라 ‘부귀한 집’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번역할 때 원문에 있는 색채어와 색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어야 한다. 번역본1에서 ‘朱’는 한자어 합성 색채어 구조의 색채어 + 색채어인 ‘주홍’으로 번역되었다. 번역본2에서 ‘朱’는 ‘붉은’으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고유어 단일 색채어로, 빨간색을 의미하지만 주홍색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번역본3에서는 주홍색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단지 ‘화려한’이라는 단어로 문을 묘사했으며 색채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비록 원문에서 화려한 장면을 묘사하였지만 원문의 ‘朱戶’는 색채 표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朱戶’를 단순히 화려한 대문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번역본1에서 사용한 ‘주홍대문’이 색상을 강조하여 원문의 색채 표현에 정확해 보인다.

## 2) 합성 색채어 번역

### (1) 상태 형용사 + 색채어

#### <예문25>

원문: 身上穿着缕金百蝶穿花大红洋缎窄裱袄 (第3回 40页)

번역본1: 몸에는 꽃 속에서 노니는 나비패를 금실로 수놓은 빨간 양단 저고리를 받쳐 입고 (안의운·김광렬 2007:88)

번역본2: 몸에는 금으로 새긴 꽃밭에 나비무늬를 넣은 붉은색 양단으로 통 좁은 조끼를 걸쳤으며 (최용철·고민희 2009:80)

번역본3: 붉은색의 커다란 양단洋緞에 금실로 꽃밭을 노니는 수많은 나비를 수놓은, 겨드랑이 부분이 짧게 올라간 저고리(襖)를 입고 (홍상훈 2012:81)

<예문25>는 왕희봉(王熙凤)의 복식 색채를 묘사한 것으로, ‘大红’이 왕희봉의 활기차고 열정적인 성격을 반영한다. ‘大红’은 ‘大’(상태 형용사)와 ‘红’(색채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명한 빨간색을 의미한다. 번역본1에서 ‘大红’은 고유어 단일 색채어 ‘빨간’으로 번역되었으며 번역본2와 번역본3에서는 ‘大红’은 ‘붉은색’으로 번역되었다. 위의 세 개의 번역본 모두, 원문 ‘大红’이 의미하는 선명한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적으로 흔한 빨간색 어휘를 사용하여 번역하고 있다.

〈예문26〉

원문: 厚底大红鞋 (第3回 48页)

번역본1: 그 위에 밑창이 두터운 빨간 단화를 신었다. (안의운·김광렬 2007:100)

번역본2: 두꺼운 바닥의 붉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 (최용철·고민희 2009:90)

번역본3: 바닥이 두꺼운 다홍색 가죽신을 신고 있었다. (홍상훈 2012:92)

〈예문26〉은 가보옥(賈寶玉)의 복식 색채를 묘사한 것으로, 가보옥은 남자이지만 ‘紅’을 좋아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보옥은 활발하고 열정적인 소년일 뿐만 아니라 가부(賈府)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성격 특징과 신분을 표현하는 데 ‘紅’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예문26〉의 번역본1과 번역본2에서 ‘大红’은 고유어 단일 색채어 ‘빨간’과 ‘붉’으로 번역되었으며 번역본3에서는 ‘大红’은 ‘다홍색’으로 번역되었다. 번역본1과 번역본2는 ‘紅色’을 나타내었지만 ‘大红’이 강조하는 선명한 정도는 표현하지 못하였지만 번역본3의 ‘다홍색’은 ‘홍색’의 색채 선명도를 적절하게 표현하여 원문의 ‘大红’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예문27〉

원문: 一件二色金百蝶穿花大红箭袖 (第3回 47页)

번역본1: 그리고 붉은 바탕에 진한 금실과 연한 금실로 꽃밭에서 노니는 나비들을 수놓은 소매가 좁은 비단 도포를 입었는데 (안의운·김광렬 2007:99)

번역본2: 백 마리의 나비가 꽃밭을 나는 그림이 두 가지 금실로 수놓인 붉고 소매가 좁은 긴 저고리를 입었다. (최용철·고민희 2009:87)

번역본3: 꽃밭에서 노니는 수많은 나비를 금실로 수놓은 붉은 전의를 입고 (홍상훈 2012:91)

〈예문27〉의 번역본에서는 모두 고유어 단일 색채어의 ‘붉다’로 번역하였다. 원문에서는 상태 형용사 ‘大’를 사용하여 ‘紅’의 강렬함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강한 시각적 충격을 나타내며 소매의 선명함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인다. 번역본에서는 비록 ‘紅’의 기본적인 의미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였으나 색채의 강렬함과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다소 부족하여 원문의 ‘大红’의 강렬함과 부귀한 느낌을 완전히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문28〉

원문: 正面设着大红金钱蟒靠背 (第3回 44页)

번역본1: 정면에는 금실로 용을 수놓은 붉은색 등받이며 (안의운김광렬 2007:94)

번역본2: 그 앞에는 검붉은 바탕에 금실로 이무기를 수놓은 등받침 (최용철고민희 2009:85)

번역본3: 정면에는 붉은 바탕에 금빛이무기를 수놓은 커다란 등받이(靠背) (홍상훈 2012:86)

〈예문28〉의 ‘大红’에 대해, 번역본1에서는 고유 단일 색채어 ‘붉은색’, 번역본3에서는 고유 단일 색채어 ‘붉은색’으로 번역하였다. 번역본2에서는 고유 복합 색채어 ‘검붉은’으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약간의 검은색이 섞인 더 짙은 붉은색을 나타내어, 원문의 ‘大红’의 선명한 빨간색과는 색상 의미에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大红’을 ‘검붉은’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大红’을 일반적인 ‘빨간색’으로 번역하는 것은 원문이 표현하고자 하는 시각적 색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붉은’으로 번역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예문28〉은 실내에서 물건들의 색채 묘사를 통해 방의 주인의 신분과 가문의 부귀함을 부각시켰다. 예문에서 ‘大红’의 번역을 보면 ‘大红’은 색도와 명도가 높은, 선명하고 밝은 빨간색을 의미하며, 열정적이고 뚜렷한 느낌을 준다. ‘한자어 상태 형용사 + 색채어’의 단어 구조로 구성된 ‘大红’은 ‘다홍’ 또는 ‘진홍’으로 번역하는 것이 색채와 내용 이해에 있어 적절해 보인다.

위에 ‘大红’의 예문을 보면, ‘大红’을 일반적인 ‘빨간색’으로 번역하는 것은 원문이 표현하고자 하는 시각적 색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검붉은’으로 번역하는 것도 색채 표현에서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大红’을 같은 한자어 단어 구조인 ‘다홍’으로 번역하는 것이 색채와 내용 이해에 있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다.

(2) 사물 명사+색채어

<예문29>

원문: 身上穿着银红撒花半旧大袄 (第3回 48页)

번역본1: 그는 꽃무늬가 곱게 그려진 좀 오래된 분홍색 도포를 입고 (안의운·김광렬 2007:100)

번역본2: 몸에는 연분홍빛 꽃잎무늬가 있는 약간 오래된 큰 저고리를 입고 (최용철·고민희 2009:90)

번역본3: 은빛 바탕에 붉은색의 자잘한 꽃무늬를 넣은 약간 험 저고리를 입고 (홍상훈 2012:92)

<예문29>의 ‘银红’은 분홍색에 화학 물질 ‘银朱’를 첨가하여 만든 은빛 광택이 있는 연한 빨간색이다. 번역본1에서 ‘银红’의 색채는 한자어 합성 색채어(색채어 + 색채어)인 ‘분홍색’으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부드러운 빨간색을 강조하지만 ‘银红’의 은빛 광택을 표현하지는 못하였다. 번역본2에서 ‘연분홍빛’은 ‘연+분홍+빛’으로 구성된다. ‘연-’은 접두사로 접두 파생 색채어가 되며, 여기에 다시 ‘분홍’과 ‘빛’이 결합되어 합성의 형태를 복합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번역본3에서는 ‘은(银)’과 ‘홍(红)’을 각각 번역하여 ‘银’은 한자 단어 ‘은빛’으로 ‘红’은 고유어 단일 색채어 ‘붉은색’으로 번역되어 ‘银红’의 광택과 색채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예문30>

원문: 临窗大炕上铺着猩红毡褥 (第3回 44页)

번역본1: 창문가의 구들에는 붉은 주단이 깔려 있고 (안의운·김광렬 2007:94)

번역본2: 창문가에 있는 커다란 구들 위에는 붉은색 양탄자가 깔려 있고 (최용철·고민희 2009:85)

번역본3: 창가에 놓인 커다란 구들(炕) 위에는 진한 붉은색의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홍상훈 2012:86)

<예문30>에서 ‘猩红’은 선명하고 깊은 적색으로, 보통 오랑우탄 피의 색과 비슷하다고 표현된다. 번역본1에서의 ‘붉은’과 번역본2에서의 ‘붉은색’은 고유어 단일 색채어로 일반적인 적색을 나타내었지만 깊이나 선명도를 나타내지 못하

였다. 특히 이 번역은 ‘猩紅’의 선명함과 깊이, 농도의 특성을 특별히 부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번역본3의 ‘붉은색’ 역시 고유어 단일 색채어이지만 ‘진한 붉은색’이라는 상태 형용사를 추가하여 색상의 깊이감을 높여 ‘猩紅’의 본뜻에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猩紅’의 색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猩紅’을 ‘선홍색’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예문31>

원문: 外罩石青起花八团倭緞排穗褂 (第3回 47頁)

번역본1: 그 위에 석청색 바탕에 여덟 개의 둥그란 무늬가 있는 일본 비단에 술을 드리운 마고자를 입고 있었다. (안의운·김광렬 2007:99)

번역본2: 겉에는 울룩불룩 여덟 송이 둥근 꽃을 새기고 끝단에 채색 술을 단 단倭緞 석청색 마고자를 걸쳤으며 (최용철·고민희 2009:89)

번역본3: 여덟 개의 질푸른 꽃무늬를 수놓고 아랫단에 일본 비단으로 술을 단 마고자를 걸치고 (홍상훈 2012:91)

<예문31>의 ‘石青’은 검은색에 가까운 ‘深藍色’이다. 전통 복식에서 ‘石青’은 고귀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의 신분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石青’은 고급스러움과 고귀함을 돋보이게 한다. 번역본1과 번역본2에서는 ‘석청색’으로 번역되었다. 여기서 ‘석청색’은 한자어 합성어(사물명사 + 색채어)로, ‘석(石)’과 ‘청색(青色)’의 결합이다. 번역본3에서는 ‘질푸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색채를 나타내는 합성 색채어(상태 형용사 + 색채어)이며, ‘石青’을 표현하는 어두운 청록색과 일치한다. 『홍루몽』 원문에서 보여주는 색상에 의해 ‘질푸른’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저자가 의도한 색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예문32>

원문: 裙边系着豆绿官绦双衡比目玫瑰佩 (第3回 40頁)

번역본1: 날씬한 허리에는 장밋빛 옥돌로 만든 두 개의 물고기 옥패를 연두색 술 띠에 달아 길게 드리웠으며 (안의운·김광렬 2007:88)

번역본2: 치마에는 녹색 궁중매듭을 맺고, 한 쌍의 장미색 비목어(比目魚) 무늬 패물을 달고 있었다. (최용철·고민희 2009:78)

번역본3: 치마 가장자리에는 연두색의 고급 비단 실에 장미색 옥을 깎아 만든 한 쌍의 물고기가 매달린 옥패玉佩를 차고 있었다. (홍상훈 2012:81)

〈예문32〉의 중국 전통 색채 ‘豆绿’은 조색할 때 ‘황벽나무’를 첨가한다. 『홍루몽』 원문에서 표현한 ‘豆绿’은 녹색에 약간의 노란색이 가미된 색으로, 일반 녹색보다 더 옅고 색상이 ‘청완두’에 가까운 연한 녹색이다. ‘豆绿’은 중국 고대 여성들이 좋아하던 복식 색채어이다. 이 부분은 왕희봉이 등장할 때의 복식 묘사로, ‘豆绿’은 왕희봉의 활발한 성격을 돋보이게 한다. 번역본1과 번역본3은 원문과 같이 사물명사+색채어인 ‘연두색’으로 번역했으며, 번역본2는 한자 단일 색채어인 ‘녹색’으로 번역하였다. ‘豆绿’은 ‘노란색’이 섞여 있어 경쾌하고 활발한 느낌이 있다. 여기서 ‘豆绿’을 단순히 ‘녹색’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연두색’으로 번역하면 ‘豆绿’의 색채 표현에 더 정확해 보인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홍루몽(紅樓夢)』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을 대조 분석하여 한국어 색채어와 중국어 색채어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고 『홍루몽』 색채어 중한 번역 사례 분석을 통해 색채어 번역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색채어는 한자어와 고유어로 나뉘어 단일 색채어, 합성 색채어, 파생 색채어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중국어 색채어 구조보다 복잡하다. 중국어 색채어는 ‘ABB’, ‘A不BC’, ‘AXY/AXYZ’와 같은 유형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한국어 색채어에는 나타나지 않는 형식이다.

『홍루몽』 색채어에 반영된 중국어 원문과 한역본을 분석한 결과 ‘단일 색채어’, ‘상태 형용사 + 색채어’, ‘사물 명사 + 색채어’ 세 가지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홍루몽』에서 ‘단일 색채어’는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인물의 신분과 성격 등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색채어를 생략한 채 번역하면 내용 이해에서 문제는 없지만 원문 색채어의 의미와 분위기를 표현한 『홍루몽』의 특징과 매

력을 잃을 수 있다. ‘상태 형용사 + 색채어’의 경우 상태 형용사가 색채의 채도와 명도를 나타내므로 번역 시에도 이를 반영해야 하며, ‘사물명사 + 색채어’의 경우 색채어를 직접 번역하되 원문이 강조하는 색감을 전달할 수 있는 색채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대응 색채어가 없는 경우에는 색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하여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红色’ 계열 색채어는 열정, 활발함, 부귀, 길상을 의미하며 주로 ‘가보옥’과 ‘왕희봉’의 복식 및 장신구, ‘가씨’ 집안의 장식물에 표현되었다. ‘绿色’ 계열 색채어는 청춘과 생기를 상징하며 ‘왕희봉’의 복식에 사용된 ‘豆绿’은 외향적이고 생기 넘치는 성격을 표현하였다. ‘白色’ 계열 색채어는 깨끗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며, ‘묘옥’의 고결함과 청고한 품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紫色’과 ‘石青色’은 관복 및 신분의 존귀함과 고상함을 반영하고 있다.

색채어는 소설 텍스트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물의 이미지와 감정을 부각하여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기에 색채어 번역은 텍스트 번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합한 색채어 번역을 통해 번역가는 『홍루몽』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표현할 수 있으며 독자는 『홍루몽』 서사에 반영된 중국의 문화적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색채어 번역 방법은 『홍루몽』 번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설 텍스트에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색채어 번역 방법이 소설 텍스트 번역 및 관련 연구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1.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ict.korean.go.kr>

### 2. 단행본

조설근·고악 지음, 안의운·김광렬 옮김, 『홍루몽』 1, 청계출판사, 2007.

조설근·고악 지음, 최용철·고민희 옮김, 『홍루몽』 1, 나남출판사, 2009.

조설근 지음, 홍상훈 옮김, 『홍루몽』 1, 솔출판사, 2012.

加晓昕, 『现代汉语色彩词立体研究』, 成都: 四川出版集团&四川科学技术出版社, 2014.

- 林煥文·張鳳, 『世界著名文史學家辭典』, 黑龍江: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85.
- 叶军, 『现代汉语色彩词研究』, 呼和浩特: 内蒙古人民出版社, 2001.
- 李红印, 『现代汉语颜色词语义分析』, 北京: 商务印书馆, 2007.
- 章银泉, 『色彩描写词典』, 银川: 宁夏人民出版社, 1988.
- 曹雪芹 著, 中国艺术研究院红楼梦研究所 校注, 『红楼梦』, 北京: 人民文学出版, 2022.
- 詹人凤, 『现代汉语语义学』, 北京: 商务印书馆, 1990.

### 3. 논문

- 高旼喜, 「《紅樓夢》의 색채어 번역: 靑色을 중심으로」, 『中國小說論叢』 第47輯, 한국소설학회, 2015, pp.119-153.
- GAO YUXUAN, 「한국어 ‘누르다’ 계열과 중국어 ‘황(黃)’ 계열 색채어 대조 연구 은유의 의미 대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
- 김순진·한용수, 「현대 중국어 오색 색채어의 구조 小考」, 『한중인문학연구』 제56집, 한중인문학회, 2017, pp.149-171.
- 김인화, 「현대 한국어의 색채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金炫兌·孫東玉, 「韓中 五色色彩語의 文化象徵意味 對照 分析」, 『中國學』 第26輯, 대한중국학회, 2006, pp.143-166.
- 사옥동, 「한·중 색채어의 대조 연구: 기본 오색을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 손 붕, 「한·중 색채어 {백(白), 적(紅), 흑(黑), 청(靑), 황(黃)} 대조 분석」, 상명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9.
- 신윤호,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색채어 분석과 효과적인 지도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어학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991.
- 신호철, 「한국어 색채 표현이 이원 체계」, 『문법 교육』 제16집, 한국문법교육학회, 2012, pp.173-202.
- 오 설, 「한중 ‘푸르다’류 색채어 대조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20.
- 유염염철, 「혼성이론 시각으로 분석한 『紅樓夢』 색채어 중한번역 연구: 번역자의 인지 과정을 중심으로」, 『통번역연구』 제26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22, pp.45-74.
- 임나정, 「중국 고전소설 <홍루몽> 색채어 번역 연구: 청(靑)색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전공 석사학위논문, 2022.
- 전은경, 「한·중 색채형용사 의미 대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 정성환, 「전통색 색채어 구조를 위한 기초연구: 조선왕조실록 색채어 분류를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 제45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5, pp.138-150.

HAO ZHI, 「한·중 기본 색채어 의미 확장 대조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葛雅琦·成玉峰, 「《红楼梦》中色彩词“红”的日译对照研究」, 『汉字文化』第2期, 2024, pp.183-185.

董晓波, 「《红楼梦》域外传播面临的挑战」, 『光明日报』, 2024.2.24., p.10.

梁京, 「《红楼梦》色彩词研究」, 中国美术学院 硕士学位论文, 2021.

热依拉·艾比不拉, 「汉语--维吾尔语颜色词翻译对比研究--以小说《红楼梦》汉维文本对比为例」, 中央民族大学 硕士学位论文, 2013.

叶军, 「含彩词与色彩词」, 『山东大学学报』第3期, 1999, pp.90-101.

\_\_\_\_\_, 「谈色彩词词典的收词和释义」, 『辞书研究』第3期, 2003, pp.24-31.

荣慧艳·李书宁, 「崔·高《红楼梦》韩译本“红”系颜色词翻译研究」, 『牡丹江教育学院学报』第6期, 2022, pp.16-19.

李亚彤, 「《红楼梦》前八十回颜色词研究」, 辽宁大学 硕士学位论文, 2022.

曹莉亚, 「《红楼梦》颜色词的界定」, 『名作欣赏』第32期, 2012, pp.75-78.

논문접수일	2024년 8월 7일
심사완료일	2024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9일

*Abstract*A Study on the Chinese-Korean Translation of Color Words  
in 『Dream of the Red Chamber』

Li, Xue · Shim, Bokyung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Chinese and Korean color words by comparing the original text of 『The Dream of the Red Chamber(红楼梦)』 with its Korean translation, focusing on translation methods. The basic concept of color words and their structures in Chinese and Korean were explained. Examples from both versions were analyzed morphologically, and translation strategies for color words were proposed. Analysis revealed three main types of color words: ‘single color words’, ‘state adjective + color words’, and ‘thing noun + color words’. ‘Single color words’ in 『The Dream of the Red Chamber』 often express historical, cultural background, and character traits, thus their omission can reduce the text's charm. ‘State adjective + color words’ needs to reflect chromaticity and brightness in translation. ‘Thing noun + color words’ should convey the emphasized color from the original text, and when a direct equivalent is lacking, a suitable replacement should be chosen. ‘红色’ symbolizes passion and activity, seen in costumes and accessories, while ‘绿色’ symbolizes youth and vitality, with ‘豆绿’ indicating liveliness. ‘白色’ symbolizes cleanliness and purity, reflecting integrity, and ‘紫色’ and ‘青色’ denote the dignity of official attire. The 『The Dream of the Red Chamber』 color word translation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can help translators faithfully express the meaning of the color words in the original text, and it is significant for readers to deepen their understanding of the Chinese cultural meaning reflected in the 『The Dream of the Red Chamber』 narrative.

**Keyword** The Dream of the Red Chamber, color term, single color words, composite color word, derived color word, contrastive translation



## 『채식주의자』의 두 중역본(中譯本) 번역 비교 연구\*

부 용 \*\*

### 국문요약

2013년에 번역가 천일(千日)이 번역한 한강의 『채식주의자』(素食主義者)의 중국어 번역본은 처음으로 충칭출판사(重慶出版社)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후 2021년에 사천문예출판사(四川文藝出版社)는 이 작품을 『채식자』(素食者)라는 제목으로 재출판하였으며 번역가가 후추통(胡椒筒)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채식주의자』가 중국어로 번역 및 출판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재출판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현재까지 제출된 연구는 대부분 2013년판에 집중되어 있으며, 두 중국어 번역본을 비교한 연구는 단 한 편에 불과하다. 본 논문은 두 번역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번역의 충실성과 가독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번역 비평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베르만의 긍정적인 번역 비평 이론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번역 평가 기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고, 두 번역가의 번역 세계와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어서 두 번역가가 이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번역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번역 전략과 번역 작품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문단의 배치, 문장의 구성, 단어의 선택 문제를 분석하여 두 번역가 각자의 번역 문체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번역본을 비교하는 것은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두 번역가의 번역 철학과 번역 방법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순히 번역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차이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한강, 채식주의자, 중국어 번역, 베르만, 번역 비평, 충실성, 가독성

\* 이 글은 2023년 8월 20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및 한국어문학연구소 주최 ‘한국문학의 미래, 유라시아에서 찾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장윤정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목차〉

1. 서론
2. 긍정적 번역 비평과 번역가 입장
3. 『채식주의자』의 의미와 그의 전달 양상
4. 꿈의 번역 양상과 창조적 글쓰기 탐색
5. 결론

## 1. 서론

본 연구는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두 중국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앙트완 베르만의 번역 비평 이론을 적용하여 각 번역본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번역본은 2013년에 번역가 천일(千日)이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채식주의자』(素食主義者)라는 제목으로 중국 독자들에게 처음 소개한 것이다. 두 번째 번역본은 이미 중국어 번역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번역가 후추통(胡椒筒)에 의해 『채식자』(素食者)라는 제목으로 재번역 및 재출판되었는데 이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번역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긍정적인 번역 비평 이론을 통해 두 번역본 각각의 독특성과 가치를 조명하고 향후 한국 현대 문학 번역의 발전 방향을 탐구하는 데에 있다.

『채식주의자』는 한강이 2004년 여름부터 2005년 겨울까지 발표한 세 편의 단편 소설을 모은 소설집으로, 2006년 창작과비평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소설집을 바탕으로, 2013년에 중국어판 『채식주의자』(素食主義者)가 번역 및 출판되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설립된 2005년 이후, 중국에서의 한국 도서 출판은 2012년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며 2011년에는 최고치인 29부가 출판되었다.<sup>1)</sup> 한류의 영향으로 2005년 이전에는 주로 인터넷 소설과 추리소설 등 대중문학이 중국에서 번역되었으나, 이후에는 이문열, 이청준, 박완서, 신경숙 등 순수문학

1) 文丽华, 「韩国现代小说在中国——翻译出版现状、问题及解决方案」, 『当代韩国』第4期, 2018, p.80.

작품이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채식주의자』의 첫 번째 중국어 번역본은 순수문학 작품에 대한 조명이 필요한 시대적 맥락에서 충칭출판사(重庆出版社)에 의해 출판되었다.

한편, 2021년에 사천문예출판사(四川文艺出版社)에서 출판된 『채식자』(素食者)는 미투 운동이 여성의 삶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쟁점화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인 한강의 작품으로 중국어 문화권에 소개된 것이다. 또한, 두 번역본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The Vegetarian*이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수상한 사건이 있다. 이 국제문학상의 수상은 현 시대의 한국문학에 대한 중국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이는 2021년에 재출판된 번역본에 대한 관심과 독서를 촉진시켰다.

중국에서 『채식주의자』의 중역본에 대한 연구는 세 편의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2013년에 출판된 『채식주의자』를 기본 텍스트로 채택하였으며, 연구자들은 모두 번역학을 전공하였다. 조아남은 유진 나이다의 기능등가 이론을 바탕으로 번역본의 인물 심리 묘사 및 관련 어휘와 문장을 분석하여 기존 번역본과 다른 번역문을 제시하였다.<sup>2)</sup> 이 이론은 원문 독자와 번역문 독자의 반응 일치를 강조하며 번역 텍스트 평가의 기준이 원문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주호는 20세기 초 옌푸(嚴復, 1853-1921)가 제시한 문학 번역의 평가 기준인 신(信), 달(达), 아(雅)를 통해 작품의 번역 과정 및 효과를 분석하였다.<sup>3)</sup> 이는 원문의 충실도뿐만 아니라 도착 언어의 유창성과 자연스러움을 동시에 강조하는 더욱 객관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아기는 번역투가 독자 감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어휘적, 통사적, 전략적 번역투를 구분하여 단편 「채식주의자」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sup>4)</sup> 그는 원문의 표현 방식을 중국어의 화용론적 특징을 고려하여 수정해

2) 조아남, 『『채식주의자』 중역본에 나타난 심리묘사와 관련된 번역에 대한 연구 - 기능등가 이론을 중심으로』, 중국광서사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3) 주호, 『소설 번역에서의 '신달아' 번역 표준 - 장편 소설 『채식주의자』 중국어 번역본을 중심으로』, 중국광서사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4) 전아기, 『『채식주의자』 중역본의 번역투 연구』, 중국화중사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분석의 초점을 출발어에서 도착어로 전이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나타낸다.

중국 연구자들은 각자의 평가 기준에 따라 『채식주의자』의 중국어 번역본을 분석하고, 기준에 미달한 경우 수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번역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오역을 수정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오역에 대한 판단 기준의 객관성과 오역을 따지는 작업의 유의미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원문과 일일이 대조하며 번역본을 분석하는 이러한 방식은 번역본을 단순히 원작의 부속품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시사한다. 번역 비평은 번역본을 독립된 텍스트로서의 특성을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탐구 방법이 필요하다.

2020년 이후, 『채식주의자』의 중국어 번역본에 관한 연구는 생태번역학과 코퍼스 분석과 같은 현대적 접근법을 도입하여 진행되었다. 서군과 장효염은 코퍼스를 활용하여 중국어 번역본과 영어 번역본의 번역자 주체성을 비교 분석하고, 두 번역본 간의 어휘 및 문장 길이의 차이를 연구하였다.<sup>5)</sup> 이 연구는 번역가의 주체성에 주목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었으나, 코퍼스를 통한 분석만으로 번역가의 주체성을 충분히 관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아향과 최은실은 한중 및 한영 번역을 대상으로 언어적 특성이 번역 전략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조사하며, 언어 간 맥락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sup>6)</sup> 또한 광장예와 유인빈은 중국어 번역본 두 권을 생태번역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언어학적, 문화적, 의사소통적 차원을 고려한 번역의 생태를 평가하였다.<sup>7)</sup> 이 연구는 중국어 번역본 두 권을 처음으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

5) XU Jun, ZHANG Xiao-tian, Comparative Study of Translator's Subjectivity Based on Corpus of English Version, Journal of Yanbian University (Social Sciences), Vol.53 No.6, 2020, p.47.

6) 이아향·최은실, 「한중 번역과 한영 번역에서 나타나는 고맥락과 저맥락 양상 비교」, 『외국학연구』 제64집,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23, pp.43-68.

7) 郭长誉·刘人博, 「生态翻译学视域下『채식주의자』汉译研究」, 『한중인문학연구』 제74집, 한중인문학회, 2022, pp.255-273.

서 그 의미가 크다.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2013년에 출판된 번역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번역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분석 대상이 단편 소설 하나에 집중되었다는 점, 중국어 번역본의 모든 판본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두 중국어 번역본을 비교하는 연구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새로운 분석 방법을 도입하였지만, 현재까지의 분석 내용은 주로 번역 텍스트의 언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중국어 번역본 두 권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조명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 중에는 본 논문과 공통된 연구적 뿌리를 공유하는 작업들이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주로 원문에 대한 충실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기존의 번역 비평 방식을 재성찰하고, 베르만의 번역 비평 이론을 적용하여 『채식주의자』의 번역본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이해원은 베르만의 긍정적 번역 비평 이론을 활용하여 프랑스어 번역본을 원작과 구별되는 독립된 작품으로 강조하였다.<sup>8)</sup> 반면, 이영훈은 베르만의 번역 분석론을 통해 프랑스어 번역본 『채식주의자』에서 나타난 여러 왜곡 현상을 지적하며, 이 번역본이 원작의 특징을 훼손한 텍스트로 간주하였다.<sup>9)</sup> 또한, 김민정·채경화·명선혜·웨이잉의 연구는 베르만의 생산적 비평 방법론을 바탕으로 영어 번역본 『채식주의자』를 분석하였는데,<sup>10)</sup> 이는 번역 작품 분석과 함께 번역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추가된 점에서 새로운 번역 비평 방법론을 탐색하는 데에 훌륭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베르만의 번역 비평 방법론을 특정 문학 작품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8) 이해원, 『『채식주의자』 불역본의 번역비평을 위하여 - 베르만의 번역비평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천』, 『프랑스어문교육』 제63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8, pp.381-423.

9) 이영훈, 「단편 『채식주의자』 프랑스어 번역의 번역비평 시론 - 베르만의 번역분석론을 기반으로」, 『통번역학 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22, pp.107-138.

10) 김민정·채경화·명선혜·웨이잉, 「베르만의 생산적 번역 비평 이론을 적용한 The Vegetarian 번역비평」, 『번역학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번역학회, 2021, pp.55-80.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에 위치하면서도, 중국어가 갖는 독특한 문법적·문화적·역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 이론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베르만의 긍정적 번역 비평이론을 소개한 후, 두 번역가의 번역 입장, 번역 기획, 번역 지평 등을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두 번역가가 이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번역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번역 전략과 번역 작품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작중 인물의 꿈을 번역할 때 문단의 구성부터 어휘의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번역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두 번역가의 번역 문체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논의한다.

## 2. 긍정적 번역 비평과 번역가 입장

18세기 르네상스 이후로 ‘비평’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에 더 중점을 두어 사용되어 왔다. 번역 비평 또한 마찬가지로 주로 번역 작품의 결함을 지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심지어 어떤 번역 작품이 다른 언어권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예를 들어, 2016년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보라 스미스가 번역한 *The Vegetarian*에 대한 번역 논쟁은 지속되어 왔다. 조재룡은 영역본의 몇몇 오류를 지적하며, 스미스의 번역이 “원문을 존중하는지 여부가 묻힌 채 ‘다시 쓰기’ 작업이 번역의 중심을 차지했던 시기”<sup>11)</sup>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인규는 데보라 스미스의 자유로운 번역 방식이 영어권 독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며, 한국 문학을 알리는 일과 원문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12)</sup>

지금까지 번역 결과물에 대한 접근은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져 왔

11) 조재룡, 「번역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문학동네』 제90집, 문학동네, 2017, p.19.

12) 이인규, 「채식주의자에 대한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 어떻게 볼 것인가?」, 『번역학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번역학회, 2017, pp.173-205.

으며, 이는 “번역은 원문이 아니며, 원문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된다”는 오래된 전통적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긍정적인 번역 비평 태도는 20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프랑스의 번역학 연구자 앙트완 베르만<sup>13)</sup>은 긍정적인 번역 비평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다.<sup>14)</sup> 베르만의 문제의식을 살펴보면, 그는 번역 및 번역 비평이 은폐되고 억압 받으며 무시되고 종속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문제로 제기한다.<sup>15)</sup>

번역 주체는 개체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이며, 자유롭고 자기 성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번역 주체로부터 번역본에 접근하는 방식은 종종 은폐된 번역 비평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베르만은 번역 작품을 논할 때, 번역가가 성장해온 사회 문화적 배경, 역사적 조건, 번역 이념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번역가 분석론을 통한 번역 비평은 베르만이 구상한 번역학이 수행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sup>16)</sup>

베르만은 번역 비평에서 도그마적인 사고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시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이라는 가치 판단 기준을 설정한다. 그의 저서 『번역과 문자』에서는 자민족중심주의 번역, 하이퍼텍스트적 번역, 플라톤주의적 번역을 대체할 새로운 번역 방식으로 윤리적 번역, 시적 번역, 사유하는 번역을 제안한다.<sup>17)</sup> 이는

13) 이영훈은 이네스 오세키 - 테프레의 표현을 인용하여 앙트완 베르만을 번역 이론과 번역 실천을 학문적으로 아우르는 인물로 소개한다. 이는 베르만이 프랑스의 번역가 이론가이자 독일어와 스페인어 번역가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과 2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한 사실에 근거한 평가다. 이러한 다양한 업적은 그가 번역학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영훈, 「앙트완 베르만의 번역학 지형도」, 『한국프랑스학 논집』 제91집, 한국프랑스학회, 2015, p.496 참조).

14) 베르만의 긍정적 번역 비평 방법과 부정적 번역 분석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는 『번역과 문자: 단것의 가치』에서 번역의 본질적인 지향을 방해하는 문자의 왜곡 체계를 13가지 왜곡 경향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그는 번역분석론이라고 명명했다. (Berman, Antoine, 윤성우·이향 역, 『번역과 문자: 단것의 가치』, 철학과 현실사, 2011, p.69).

15) Berman, Antoine, 윤성우·이향 역, 『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철학과 현실사, 2009, p.69.

16) 이영훈, 「앙트완 베르만의 번역 비평이론 연구」, 『통번역학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5, p.125.

번역을 단순한 언어 전환의 작업이 아닌, 문화적 및 철학적 맥락을 고려한 깊이 있는 접근 방식으로 보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베르만은 번역의 시적 기준을 “번역자가 진정한 텍스트 작업을 실현하여 원문의 텍스트성과 비교적 긴밀한 상응 관계에 있는 텍스트를 만들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sup>18)</sup> 이는 번역자가 진정한 텍스트 작업을 통해 원문의 텍스트성을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한편, 윤리적 기준은 번역문이 원문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베르만이 제시한 번역의 윤리에서 중요한 개념은 ‘낮춤의 시련’이며, 이는 번역 과정에서 낮선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고 받아들이는지와 관련이 있다. 그는 낮선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모습을 존중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낮춤에 대한 존중은 원문의 텍스트성과 시적 감수성을 유지하는 번역 실천과 연결된다. 베르만은 타자의 낮춤을 그대로 존중하는 번역 행위의 특성을 ‘직역성’으로 명명한다.<sup>19)</sup> 그의 직역론은 문자 번역이나 단순한 직역을 넘어서, “시니피앙들 간의 유희에 주목하는 문자적 작업”<sup>20)</sup>임을 강조한다. 특히 속담 번역을 분석할 때 그가 제시한 ‘글·몸 번역’은 시니피앙의 유희를 잘 드러내는 예로, 이는 단순한 일대일 번역이 아니라 리듬과 소리의 조화를 고려한 섬세한 번역 과정을 포함한다.<sup>21)</sup> 이러한 시적 및 윤리적 기준은 번역 비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번역 작업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강조하는데 기여한다.

번역의 입장은 번역가의 번역 충동, 번역 목적, 번역 지평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번역가가 원작을 “다시 쓰기”할 때의 특정 태도이자 선택이며, 이러한 태도나 선택은 번역가가 원작 자체와 번역 작업의 역할 및 의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번역가가 속한 시대, 사회 환경, 문학적 분위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간적·공간적으로

17) Berman, Antoine, 앞의 책, 2011, pp.32-34 참조.

18) 전성기, 『번역 인문학』,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p.182.

19) 조재룡, 『번역하는 문장들』, 문학과 지성사, 2015, p.377.

20) Berman, Antoine, 앞의 책, 2011, p.18.

21) 정혜용, 『번역 논쟁』, 열린 책들, 2012, p.28 참조.

서로 다른 두 번역가 천일과 후추통의 번역 작품 세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번역 입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천일은 1976년생으로 1999년에 북경사범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그림책, 만화, 아동문학, 인터넷 소설, 자기계발서, 문학 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번역 활동을 진행해 왔다. 2009년에는 일본 추리소설 작가 이시다 이라의 중단편 소설집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번역가로서의 활동 외에도 그는 저작권 대리인 및 출판사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 작가 협회와 중국 번역 협회의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학력 배경을 고려할 때 천일은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나, 조선족 출신으로서 한국어가 그의 모어이며, 대학 진학 전에 조선족 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공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22)</sup> 천일이 지금까지 번역한 작품 중 문학 작품은 전체 약 40권의 번역 도서 중 다섯 권에 불과하며, 이 중 한강의 『채식주의자』(素食主義者, 2013), 정유정의 『28』(28天, 2015), 신경숙의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想要说给月亮听的故事, 2015), 백은유의 『유원』(愿, 2022), 정한아의 『친밀한 이방인』(第二个安娜, 2023) 등이 포함된다. 2013년 충청출판사를 통해 출판된 『채식주의자』는 천일이 번역한 첫 한국문학 작품으로 그의 번역 세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후추통의 번역 세계를 살펴보면 그가 번역한 작품 대부분이 문학작품임을 알 수 있다.<sup>23)</sup> 그의 첫 문학작품 번역은 김탁환의 『거짓말이다』(谎言, 2017)로 세

22) 1952년 이후, 중국 정부는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시와 주변 지역에 조선족 자치구를 설립하고, 이 지역의 조선족 교육당국은 한글 교과서를 사용하여 학교 수업에서 한국어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족 학생들이 모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였으며, 이는 학생들의 언어적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LI YONGRI · 최영진, 「중국정부의 교육통합 정책에 따른 교육환경과 사회정체성의 변화 - 조선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제64집, 재외한인학회, 2024, pp.162-163 참조.) 천일 번역가가 학교를 다니던 시기는 조선족 학교에서 한국어가 주된 교육 언어로 자리 잡고 있었던 시기로, 천일이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교육적 배경은 그가 후에 번역가로서 활동하며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23) 2023년 11월 12일, 후추통 번역가에게 이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보내며 번역가의 한국어

월호 사건과 메르스 환자의 상황을 다룬 현실 비판 소설이다. 이어서 위안부 문제를 다룬 김숨의 『한명』(最后一个人, 2021), 서미애와 조장호의 추리소설, 가상 화폐를 소재로 한 장유진의 『달까지 간다』(我们想去的地方, 2022), 전선란의 『천개의 파랑』(一千种蓝, 2023),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地球尽头的温室, 2023), 『방금 떠난 세계』(刚刚离开的世界, 2023) 등 최근 젊은 작가들의 인기 작품들을 번역하였다. 또한, 한국의 세월호 사건, 미투 운동 등의 현장을 다룬 손석희의 에세이집과 N번방 사건을 다룬 서적도 그의 번역을 통해 소개되었다. 후추통의 번역 작품은 한국의 현장 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중국어 문화권에 전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천일 번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이 작품을 번역하였으며, 번역원의 지원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의 번역 작업은 부분역이 아니라 전역이었다. 후추통 번역가는 중국 출판사로부터 번역 테스트 제안을 받고 시역을 통과한 후 번역 계약을 체결하고 번역 작업을 시작하였다.

『채식주의자』를 번역할 당시 후추통은 정영목의 저서 『완전한 번역에서 완전한 언어로』를 읽고 있었으며, “번역은 저자의 스타일을 향해 가려고 애쓰는 것이기에 문제는 내가 우리말을 잘 쓰느냐보다 저자의 문체를 우리말로 잘 옮겼느냐입니다<sup>24)</sup>”라는 문장이 크게 와 닿았다고 한다.<sup>25)</sup> 따라서 후추통 번역가는 의역보다는 작가가 추구하는 문체를 더 중시하였다. 작가의 문체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번역가의 주체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이는 김탁환의 『거짓말이다』의 번역 작업을 완성한 후 번역자의 후기에서 “번역가는 작가의 옆에 있어야 한다. 앞도 뒤도 아닌 바로 옆이라는 말이다. 작가와 같은 위치에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

---

학습 경험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2023년 12월 9일에 최종적으로 받은 답변에서 번역가는 한국어 학습 경험에 대해 밝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번역가의 뜻을 존중하여 그의 번역 작품과 번역 후기를 중심으로 후추통의 번역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24) 정영목, 『완전한 번역에서 완전한 언어로』, 문학동네, 2018, p.22.

25) 이 내용은 2023년 11월 12일 후추통 번역가에게 이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보낸 후, 2023년 11월 14일에 받은 답변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을 통해, 후추통이 작가의 언어와 문체를 충분히 존중하고 독자들에게 잘 전달하면서도 번역가로서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채식주의자』가 처음 번역되었던 2013년은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한참 뜨거워지던 시기였으며, 출판계는 한국 인터넷 소설의 출판에서 순수문학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었다. 한국문학의 정진과 유명한 작가들의 대표작이 번역되는 가운데 한강은 젊은 세대 작가로서, 『채식주의자』는 2000년 이후 한국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중국 독자에게 소개되었다. 당시 한국문학만의 특징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한편, 2021년에 이 작품이 후추통에 의해 재번역되었을 때에는 『82년생 김지영』 등 한국 작품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었다. 작품이 출판되었을 때 국제문학상 수상작이라는 점이 홍보되어 더욱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다. 따라서 후추통은 원문에 충실하면서 작가의 문체와 예술적 스타일을 재현하는데 주력하였다.

긍정적 번역 비평은 번역 작업을 단순히 원문에 대한 충실도로 판단하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번역을 독립적인 창작 활동으로 인정하는 접근 방식을 포함한다. 이는 번역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번역 과정에서의 창의적 해석과 문화적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장에서는 천일과 후추통의 번역 활동과 번역 입장을 살펴보았다. 수년간 한국 문화와 한국 문학 소개해온 이들은 한국 문학의 전달자이자 재창조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두 번역가가 작품을 번역할 때 보여준 독창성과 예술성을 검토함으로써, 원작과 동등한 문학적 가치를 지닌 독립된 작품으로서의 번역본을 분석하겠다.

### 3. 『채식주의자』의 의미와 그의 전달 양상

베르만은 번역에서 시적 기준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번역자가 원본의 텍스트 성과 비교적 긴밀한 상응 관계에 있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번역자가 원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다른 언어로 옮길 때 적절히 전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원본 텍스트인 『채식주의자』가 어떤 작품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채식주의자』는 2004년 여름부터 2005년 겨울까지 발표된 한강의 단편 소설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 세 편을 묶은 소설집으로 2006년 창작과비평사에서 출판되었다.<sup>26)</sup> 이 세 편 of 소설은 주인공 영혜의 남편, 형부, 그리고 언니 인혜의 시점을 통해 영혜가 채식을 선택하면서 겪게 되는 삶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가부장적 억압 속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한 여성의 모습을 그려낸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영혜의 남편이 평범하게 살던 아내가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정하자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그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 영혜가 악몽으로 인해 육식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 남편 정서방은 영혜의 몸과 마음에 일어난 변화의 원인을 궁금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아내의 친절 가족에게 도움을 청한다. 장인어른의 폭력으로 인해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여 입원한 후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은 망설임 없이 영혜와의 이혼을 결정한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영혜의 형부가 그녀의 영당이에 있는 몽고반점에서 영감을 얻어 예술적이고 색채가 강한 작품을 창작하고자 한다. 소설의 결말부에서 형부와 영혜는 몸에 꽃을 그린 채 육체적인 결합을 이룬다. 마지막 소설인 「나무불꽃」은 영혜의 언니 인혜의 시점에서 진행된다. 영혜와 형부 사이의 불륜이 인혜에 의해 발견된 후, 인혜는 남편과 이혼하고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 이 부분에서는 영혜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의 삶을 다루며, 육식을 거부하는 단계에서 나무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게 된 동생의 변화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인혜의 내면세계와 심리적 고통이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이 과정을 통해 마지막에 인혜는 영혜의 선택을 이해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표면적으로 ‘채식’은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만을 고집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심층적으로는 ‘가부장적 사회’ 더 나아가 기존의 규범이나 질서의 내적 모순을 고발하려는 장치”<sup>27)</sup>로 작동하고 있다. 주인공 영혜가 채식을 거

26) 『채식주의자』에 수록된 세 편의 작품 발표 지면과 발표 시기는 이와 같다. 「채식주의자」, 『창작과 비평』 제124호, 2004, 「몽고반점」, 『문학과 사회』 제67호, 2004, 「나무불꽃」, 『문학관』 겨울호, 2005.

부한 후에 음식 자체를 거부하여 식물이 되기를 원한다. 방민호는 영혜의 ‘나무 되기’를 인간 사회의 폭력과 억압 메커니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여주인공의 ‘의지’ 작동 과정<sup>28)</sup>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억압받는 자가 단지 영혜와 인혜를 비롯한 여성으로만 간주한다면, 이 소설을 페미니즘 소설로 일반화하기 쉽다. 소설 속에서 비디오 아티스트인 형부가 또한 정치적 억압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혜’의 ‘육식 종언’과 ‘그’(영혜 형부)의 ‘예술선언’은 자신들의 실존에서 비롯한 욕망이나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적이고 고유한 영역을 지향하는 절대적인 것<sup>29)</sup>으로, 이는 형부와 영혜를 동일시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해준다. 형부와 영혜의 관계는 이 소설이 전달하고자 하는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를 더욱 심화시키며, 이를 통해 독자들은 가부장적 사회와 정치적 억압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형부와 영혜의 관계는 단순히 비윤리적인 행위로 축소되어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그들의 결합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번역 양상을 분석하기 전에 중국어 번역본의 서지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판 중역본은 「채식주의자」(素食主义者), 「몽고반점」(胎斑), 「나무불꽃」(树火) 세 편만 번역되었으며, 작품해설과 저자의 말은 번역되지 않았다. 2021년판 중역본에서는 「채식주의자」와 「몽고반점」의 제목이 각각 「素食者」와 「胎记」로 변경되었으며, 작가의 말이 추가로 번역되었다. 두 판본 모두 허윤진이 작성한 해설과 번역자의 후기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주의해야 할 점은 『채식주의자』가 두 번역가에 의해 간체 중국어 2권과 번체 중국어 2권으로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간체에서 번체로 재출판될 때 일부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엄밀히 말해 『채식주의자』 중역본은 총 네 권이 있다. 구체적인 도서 정보는 아래 <표1>과 같다.

27) 김지훈,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자기서사와 자기실현의 문제 -서사의 주체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73집, 한민족어문학회, 2016, p.517.

28) 방민호, 「한강 장편소설 『채식주의자』의 ‘나무되기」, 『문학사의 비평적 탐구』, 예학, 2018, p.445.

29) 정미숙, 「육망, 무너지기 쉬운 절대성 - 한강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의 욕망분석」, 『코기토』 제64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p.8.

〈표1〉 『채식주의자』 중국어 번역본 도서 정보

번역가	제목(출판년도)	출판사	언어
천일(千日)	《素食主义者》(2013)	충칭출판사	간체 중국어
	《素食者》(2016)	만유자문화	번체 중국어
후추통(胡椒筒)	《素食者》(2021)	사천문예출판사	간체 중국어
	《素食者》(2023)	만유자문화	번체 중국어

이어서, 번역자가 번역 작업을 통해 원본의 텍스트성을 어떻게 실현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채식주의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드러내는 장면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sup>30)</sup> 특히, 영혜의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주도하여 영혜에게 고기를 먹이는 장면은 가부장적인 억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영혜의 팔을 잡거나 영혜의 입을 벌려 억지로 고기를 넣으려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동을 방관하거나 협조하는 여성들 모두 가부장적 폭력의 공모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장면은 남편, 형부, 인혜의 시점에서 세 번 서술된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 소설에서 장인어른이 영혜에게 고기를 먹이는 장면은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특징적인 장면이다. 처음에 그는 영혜에게 고기를 권할 때는 마치 아내를 걱정하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아내가 고기 먹기를 거부하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뺨을 때리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한다. 이 장면을 지켜본 남편의 시점은 이 상황을 더욱 아이러니하게 만든다. 남편이 “가슴이 뭉클한 부정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말과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은 뒷모습”이라는 신체적 묘사를 통해 늙고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든다. 그러나 곧이어 폭력적인 행위의 주체로 다시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가부장적 사회의 폭력성이 더욱 강조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30) 이 글에서는 2013년과 2021년 판본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 작업을 진행하겠다. 이러한 선정 이유는 간체 중국어판이 두 번역가의 초역본으로서, 번역가의 번역 입장과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 예시를 논의할 때는 원작 소설을 ST로, 2013년판 중역본을 TT1로, 2021년 중역본을 TT2로 표기한다.

〈표2〉 『채식주의자』 번역 예시 1

ST-1	<p>평생의 노동으로 단련된, 단단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은 뒷모습으로 장인은 탕수육을 아내의 얼굴에 들이밀었다.</p> <p>“먹어라. 애비의 말 듣고 먹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찌려고 그러는 거냐.”</p> <p>기슴 뫼클한 부정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허공에서 조용히 떨고 있는 장인의 젓가락을 아내는 한 손으로 밀어냈다.</p> <p>“아버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p> <p>순간, 장인의 역센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아내가 뺨을 감싸쥐었다.<sup>31)</sup></p>
TT1-1	<p>一辈子的劳作使他的身子骨保持得十分硬朗, 但是毕竟岁月不饶人, 老丈人已经驼背了。他把糖醋肉递到老婆的面前说道: “吃下去, 听爸爸的话, 赶紧吃下去, 这都是为你好。再不吃得了病可怎么办啊?”</p> <p>我被这父爱感动得心里一阵发热, 不知不觉中眼圈就湿了。我想, 此时此刻在座的人都会有相同的感受。老婆伸手推掉在半空中安静地颤抖的筷子, 说道: “爸爸, 我不吃肉!”</p> <p>在那一瞬间, 老丈人有劲的手掌劈开了虚空。老婆马上用手抱住了侧脸。<sup>32)</sup></p>
TT2-1	<p>一辈子的劳动铸造了岳父坚实的体魄, 但岁月不饶人, 只见驼着背的他把糖醋肉送到妻子面前说:</p> <p>“吃吧, 听爸的话, 赶快吃下去。我这都是为了你好, 这要是得了什么病可如何是好啊?”</p> <p>岳父的这份父爱感动得我心头一热, 眼眶不自觉地湿润了。大概在座的所有人也都被这一幕感动了。妻子却用手推开了半空中微微颤抖的筷子。</p> <p>“爸, 我不吃肉!”</p> <p>瞬间, 岳父强有力的手掌劈开了虚空。妻子的手捂住了侧脸。<sup>33)</sup></p>

두 중국어 번역본에서 이 장면은 비교적 생동감 있게 잘 번역되었다. 남편의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TT1은 “此时此刻在座的人都会有相同的感受”라는 표현을 그대로 번역한 반면, TT2는 “大概在座的所有人也都被这一幕感动了(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에 감동받았을 것이다)”로 번역하였다. 즉, TT2는 이 감정을 ‘감동’으로 명시적으로 번역한 것이다. 감동적인 장면이 곧바로 폭력적인 장면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버지를 비롯한 남성들의 비이성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받은 남편의 주관적 내러티브는 가

31)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07, pp.48-49.

32) 韩江(著)·千日(译), 『素食主义者』, 重庆: 重庆出版社, 2013, p.45.

33) 韩江(著)·胡椒筒(译), 『素食者』, 成都: 四川文艺出版社, 2021, p.37.

부장적 집단 폭력의 양상을 강화하여 독자에게 더욱 강렬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 장면을 생생하게 살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폭력성을 드러내는 동사의 선택이다. 아버지의 행동을 드러내는 “허공을 갈랐다”, “아내의 입에 갖다 댔다”, “탕수육을 짓이겼다”, “두 입술을 열었으나”, “악물린 이빨을 어찌지 못했다” 등의 부분을 살펴보면, TT1에서는 각각 “劈(쪼개다)”, “塞(집어넣다)”, “捻(비비다)”, “打开(열다)”, “叩开(두드리다)”로 번역되었고, TT2에서는 “劈(쪼개다)”, “塞(집어넣다)”, “捻(비비다)”, “掰开(까다)”, “抠开(후비다)”로 번역되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아내의 입술을 “까다”는 표현과 이빨을 “후비다”는 표현은 물리적 강압과 저항의 생생한 묘사를 통해 가부장적 폭력의 잔인함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와 비교할 때, TT1에서 사용된 “열다”와 “두드리다”는 동일한 사건을 더 순화된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폭력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정치적 억압에서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형부의 존재다. 형부는 처음부터 예술성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자본주의와 상업주의적 사회를 비판해 온 인물이었다. 그가 창작해 온 작품들은 사회적 입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억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신이 추구하는 길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다. 그의 비디오 작품 끝에 등장하는 날아가는 새의 이미지를 통해 형부가 여전히 자유를 꿈꾸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형부가 아이가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발자국에서 ‘꽃’이 피어나거나 나비떼가 날아오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는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형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계기가 바로 영혜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영혜가 자살을 시도한 후 홀린 피가 형부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작업에 대해 구역질을 느끼게 만들었고, 영혜의 영당이에 있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몽고반점이 그의 예술적 감성을 불러일으켰다. 영혜의 행동과 그의 반응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예술적 영감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의미한다. 영혜의 자살 시도는 형부로 하여금 그의 예술적 · 사회적 정체성을 재정립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해방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드러낸다.

이처럼 형부의 예술은 사회적 억압과 정치적 불의에 대한 반항의 매개체로 작용하며, 그의 창작 활동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선 사회적 저항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회적 저항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부분은 “오월의 신부”라는 별명이다. 이 별명을 통해 형부가 한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여러 활동을 했던 운동권 출신의 행동가이자, 사르트르가 말하는 ‘앙가제’를 실천하는 고뇌하는 지사형 예술가였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sup>34)</sup> 형부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불의를 직접적으로 맞서 싸운 행동주의자였다. 사르트르의 앙가제는 예술가가 단순히 작품을 창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표3〉 『채식주의자』 번역 예시 2

ST-2	형 별명이 <b>오월의 신부</b> 였잖아. <b>의식있는 신부</b> , 강직한 성직자 이미지..... <sup>35)</sup>
TT1-2	你的外号不是 <b>五月的新娘</b> 吗? 圣洁纯净的 <b>新娘</b> 、刚正不阿的教会人员形象..... <sup>36)</sup>
TT2-2	你的绰号可是 <b>五月的神父</b> 啊。那种有思想意识的 <b>神父</b> 、刚正不阿的圣职者的形象..... <sup>37)</sup>

위의 중국어 번역본 양상을 살펴보면, 번역가가 TT1에서는 “오월의 신부”를 성직자인 신부로 번역하지 않고, 새색시 신부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의식이 있는 신부”는 TT2에서 원문 그대로 번역된 반면에 TT1에서 “성스러우며 순수한 신부(圣洁纯净的新娘)”로 번역되었다. 이는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사례로, 형부의 과거와 그의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34) 한강이 인터뷰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주된 모티브가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김대중, 『『채식주의자』 번역 속 의역/오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과제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51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pp.39-40 참조.

35) 한강, 앞의 책, p.135.

36) 韩江(著)·千日(译), 앞의 책, p.132.

37) 韩江(著)·胡椒筒(译), 앞의 책, p.112.

다. 반면 TT2는 “오월의 신부”를 성직자인 신부로 정확하게 번역하여 원문의 의미를 잘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 번역본에서도 이 단어가 가지는 문화적·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오월의 신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독자가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 번역본 『채식주의자』가 원본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중국 독자 혹은 연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연구자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에서 발표한 10편의 학술지 논문을 검토한 결과, 가부장적 사회에서 주변화된 주인공 영혜가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여성이 위치한 타자의 위치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권위적이고 가부장적 가치 체계를 비판한다는 작품의 주제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sup>38)</sup> 이는 두 중국어 번역본이 가부장적 질서의 폭력성을 효과적으로 번역하여 중국 독자에게 전

38) 10편의 논문 아래와 같다.

- ① 郑冬梅·陈翘楚, 「解读韩江小说中二元对立人物形象的塑造——以《素食主义者》和《植物妻子》为中心」, 『韩国语教学与研究』 2017(4), 2017, pp.102-109.
- ② 沈颖, 「浅析韩国小说《素食主义者》中的伦理混乱与伦理选择」, 『大众文艺』 2019(09), 2019, pp.53-54.
- ③ 师琦, 「《素食主义者》的叙述声音解读」, 『河南工程学院学报(社会科学版)』 39(3), 2019, pp.73-77.
- ④ 李佳妍, 「“毁灭”与“救赎”——《素食主义者》与《拯救乳房》中女性意识的比较」, 『现代交际』, 2020(12), 2020, pp.113-114.
- ⑤ 于智雯, 「韩江小说中的植物意象隐喻——以《素食主义者》为主例」, 『吉林省教育学院学报』 477, 2020, pp.177-182.
- ⑥ 朱卿, 「《素食主义者》对于“王后窥镜”的突破」, 『鲁东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38(4), 2021, pp.73-77.
- ⑦ 毕桂涛, 「矛盾、觉醒与救赎: 韩江小说《素食主义者》中“植物性回归”的隐形表达研究」, 『韩国语教学与研究』 2023(02), 2023, pp.121-126.
- ⑧ 黄晓微, 「从“身体”开始: 论韩江小说《素食主义者》的叙事美学」, 『闽西职业技术学院学报』 25(1), 2023, pp.63-66.
- ⑨ 辛敬敬·金春子, 「浅析《素食主义者》中的人物形象」, 『大众文艺』 2023(12), 2023, pp.19-21.
- ⑩ 毕娇娇·朴银姬, 「毁灭与顺从: 韩江系列小说《素食主义者》的女性形象分析」, 『文学艺术周刊』 2024(07), 2024, pp.16-19.

달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부장적 사회의 전형적인 인물인 아버지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원작의 주제를 중국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페미니즘 시각에서 육식의 폭력성, 가부장제 질서의 폭력성, 남성중심주의 사회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작품으로 『채식주의자』를 이해할 때, 형부도 폭력의 가해자로만 인식될 수밖에 없다. 「몽고반점」이 이상문학상을 수상할 때 “한국문단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예술가 소설’의 뛰어난 전범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39)</sup>는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담긴 깊은 의미는 충분히 파악되지 못했다. 영혜는 단지 형부의 포르노그래피적 욕망의 대상으로만 이해되어왔으며, 형부와 영혜의 육체적인 결합은 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왔다. 많은 관점에서 형부가 영혜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그녀를 유혹했다고 보고 있으며 그의 행위는 “더러운 목적”을 가진 비윤리적인 행위로 비판하는 주장도 있다.<sup>40)</sup> 이러한 해석은 형부의 직업과 과거의 역사, 즉 사르트르가 말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오월의 신부”라는 점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부의 과거와 그의 정치적 활동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그의 인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졌다고 할 수 있다.

#### 4. 꿈의 번역 양상과 창조적 글쓰기 탐색

이 장에서 베르만이 제시한 윤리적 기준, 즉 원문을 어떻게 구현하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문단의 배치, 문장의 구성, 어휘의 선택 문제를 통해 두 번역가가 원문을 어떻게 다르게 번역하고 자

39) 김성곤 외, 「제29회 이상문학상 선정 경위와 총평 정리」, 『제29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2005, p.319.

40) 郑冬梅·陈翹楚, 沈颖, 师琦, 毕桂涛, 辛敬敬·金春子의 논문에서 형부라는 인물에 대한 비판이 잘 드러나 있다. 于智雯은 이 작품에 나타난 식물 모티프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영혜의 원시적인 생명력이 형부의 원시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형부와 영혜의 결합에 대해서도 윤리적인 측면보다 예술적인 감상을 강조하여 이 장면에 드러난 심미적 함의를 파악하였다. 이 논문은 형부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은 유일한 논문이다.

신만의 문체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꿈의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꿈의 변역 양상을 선택한 이유는 세 작품에서 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모티프이며, 등장인물들의 꿈이 사건의 전개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영혜의 꿈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녀의 행동과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영혜가 육식과 브래지어 착용을 거부하게 된 원인은 꿈에서 비롯된다. 영혜가 첫 번째 꿈을 꾸기 전날에 음식에서 식칼 조각이 나와 남편이 영혜에게 화를 낸 에피소드가 있었다. 도살장에서 자신이 날고기를 먹는 장면은 현실에서 식칼로 대표되는 “자기 내면에 잠재된 폭력성”<sup>41)</sup>을 표출한 것이다. 이 꿈은 영혜가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폭력성과 불안함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두 번째 꿈은 영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개를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을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기억은 그녀의 무의식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꿈에서 자신이 살육하는 자로 등장하게 만든다. 이 꿈은 영혜가 가부장적 권위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며,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은 트라우마를 드러낸다. 세 번째 꿈은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섹스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이 꿈에서 영혜는 동물을 살해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는 그녀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폭력적인 충동이 표면화되는 순간으로, 남편의 폭력성과 성적 억압에 대한 저항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식물이 되는 꿈은 영혜가 가부장적 사회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서 나무되기를 희망하는 장면이다. 이 꿈은 그녀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상징하며,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모습을 담고 있다. 앞서 세 개의 꿈이 “신체의 절단과 훼손, 피 등 몸의 죽음 이미지로, 그녀의 무의식은 죽어가던 개와 같은 ‘공포’로 채워져 있다”<sup>42)</sup>라면 마지막 꿈은 그녀가 추구하는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

41) 우미영, 「주체화의 역설과 우울증적 주체: 한강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 3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p.464.

42) 박선경, 「탈주하는 '몸주체'와 회의를 시작하는 비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93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24, p.41.

어 편안한 마음과 태도를 담고 있다.

영혜의 남편은 영혜가 자살 시도한 후 병원에서 누군가를 살해하는 꿈을 꾸게 된다. 깨어난 후, 그는 자신이 누구를 죽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지만, 깨어나자마자 아내의 생사를 확인하는 행위를 통해 그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아내에 대한 살해 욕망이 드러난다. 이는 남편이 감추고 있는 내면의 폭력성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형부의 꿈은 처제 영혜와의 육체적 결합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sup>43)</sup>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영혜의 몸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꿈에서 영혜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초록즙이며, 그녀의 육체 자체가 나무로 묘사된다. 이는 형부가 “영혜의 길들여지지 않은 원시적 야성적 생명력에 매혹”<sup>44)</sup>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이 소설의 마지막 대목에서 영혜와 형부가 몸에 꽃을 그린 채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장면이 흔히 주목받지만, 본고에서는 오히려 형부의 꿈에 나타난 나무와의 결합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꽃을 그리는 행위는 형부가 자신의 예술적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나무는 영혜의 존재 자체를 상징한다. 형부가 처음에 영혜의 몸에 꽃을 그렸을 때 성욕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설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예술 창작물로서의 몸보다는 영혜의 존재 자체를 욕망하고 있다. 형부의 꿈에서 나타난 나무와의 결합은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원시적 욕망과 예술적 영감을 상징한다.

이 작품에서 “꿈은 주인공들이 과거의 죄의식을 대면하고 자각하는 통로”<sup>45)</sup>라는 관점은 인혜의 꿈을 해석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인혜의 꿈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한다. 그녀가 목격한

43) 이 부분은 두 중국어 번역본에서 모두 삭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그녀의 몸을 앞으로 돌렸다. 눈을 찌르는 빛이 그녀의 상체에서 비쳐—광원은 그녀의 얼굴 개인 듯했다—그는 그녀의 가슴 윗부분을 볼 수 없었다.”(117) 두 번역본 모두 여기까지만 번역했으며, 문맥상 어색하지 않아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독자의 상상에 맡겨 여운을 준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

44) 김명주, 앞의 글, p.38.

45) 배진희,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본 오웰의 『1984』와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어영문학연구』 제62권 제3호,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2020, p.53.

동생 영혜의 식물화와 자신이 눈에서 피 흘리는 모습은 인혜로 하여금 자신도 가부장적 억압 속에서 피해자임을 자각하게 만든다. 이 꿈은 그녀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부여된 다양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지만,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결과적으로, 인혜의 꿈은 그녀가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게 하며, 자신이 억압받아왔던 삶을 재평가하게 만든다. 이는 그녀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자각하고, 그동안 억압받아왔던 자아를 되찾는 계기가 된다.

연작 소설 『채식주의자』의 결말부에서 나타난 지우의 꿈, 즉 엄마새가 날아갔다는 꿈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지우의 어머니인 인혜의 관점에서 보면, 인혜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살아오며 겪은 억압과 희생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엄마새의 날아감은 인혜가 그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을 의미할 수 있다. 둘째, 지우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새의 날아감은 가족의 분열과 불안정성을 나타낼 수 있다. 지우가 꿈을 꾸던 날에 인혜가 새벽에 집에서 탈출한 행동을 상기하면, 이 꿈은 어린아이인 지우가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엄마새가 날아가는 꿈은 지우가 느끼는 불안과 상실감을 반영하며, 가족의 붕괴나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볼 때, 『채식주의자』에서 등장하는 꿈들은 각 인물의 내면적 갈등과 사회적·문화적 문제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심리적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꿈은 단순한 플롯의 요소를 넘어서, 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의 주제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꿈의 중국어 번역 양상은 <표4>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4> 『채식주의자』의 꿈의 번역 양상

인물	ST 꿈의 묘사	T11 꿈의 번역	T12 꿈의 번역
영혜	꿈1: 날고기 먹는 꿈 (pp.18-19)	논리적 문맥 재구성 (pp.14-15)	원문 구조에 대한 충실 (pp.9-11)

	꿈2: 인간 죽이는 꿈 (pp.36-37)	논리적 문맥 재구성 (pp.32-35)	원문 구조에 대한 충실 (pp.26-27)
	꿈3: 동물 살해 욕망 드러 내는 꿈 (pp. 42-43)	객관적인 사건 진술 (pp.38-39)	나열문을 통한 리듬의 강화 (pp.31-32)
	꿈4: 나무 되는 꿈 (p.180)	문장 호응의 부재 (p.179)	문장 시제의 변화 (pp.151-152)
남편	아내 죽이는 꿈 (pp.61-62)	인물 감정의 표출 (p.61)	일관된 태도의 묘사 (p.50)
형부	성적인 꿈 (pp.116-117)	성적 묘사의 삭제와 색 채 표현의 차이 (pp.114-115)	성적 묘사의 삭제와 색채 표 현의 차이 (p.96)
인혜	동생의 식물되기과 피눈물 흘리는 꿈(p.156)	단어 선택에 따른 인물 감정의 단순화 (pp.153-154)	단어 선택에 따른 인물 복잡 한 심리의 전달 (p.130)
지우	엄마새가 날아가는 꿈 (pp.218-219)	문장 성분 부족으로 인 한 대화의 어색함 (pp.216-217)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을 위한 주어 첨가 (pp.185-186)

위의 표를 통해 두 번역가가 선택한 다양한 번역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번역 전략을 검토할 때, 문단의 배치, 문장의 구성, 그리고 어휘의 선택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문단 배치의 문제에서는 문단 구성의 변경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번역자가 원문의 문단 구성을 얼마나 유지했는지, 혹은 의도적으로 변형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이 측면의 주요 기준이다. 문단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 그 변화가 원문의 의미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러한 재구성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장 구성의 문제에서는 번역자가 원문의 문체적 특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했는지를 분석한다. 여기서 문장이 원문의 복잡성과 리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사건 전달에 중점을 두어 명확하게 표현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준을 통해 번역자가 원문의 문체적 특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나아가 번역본이 원문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어휘 선택의 문제에서는 번역자가 선택한 어휘가 인물의 성격

과 심리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평가한다. 어휘 선택이 인물의 감정과 행동을 어떻게 단순화하거나, 반대로 복잡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이 측면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번역본에서 인물 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번역자의 어휘 선택이 원문의 뉘앙스를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번역본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기여하며, 번역자가 원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재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문단 배치의 차이를 살펴보겠다. TT1에서 꿈을 묘사할 때 문단을 나누는 방식이 원문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도살장에서 날고기를 먹는 자신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헛간 바다, 피웅덩이에 비친 내 눈이 번쩍였어”와 “(이빨에 씹히던 날고기의 감촉이) 그렇게 생생할 수 없어”의 순서가 변경되었다. 이는 앞의 문장이 입속에 날고기로 가득 찬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이후에 날고기를 씹던 감촉이 생생하다는 서술로 이어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판단에서 순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혜의 두 번째 꿈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살인자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걸 감춰준 사람은 누굴까, 그건 분명히 나나 당신이 아닌데”라는 문장의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파악된다. 누군가가 사람의 머리를 삼으로 쳐서 죽인 상황을 모두 이야기한 후에, 이 사실을 숨긴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으로 문맥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는 논리적인 서술 방식에 더 적합하여 독자가 읽을 때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번역의 충실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에게 더 명확하고 논리적인 서사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TT2의 경우에는 문단을 나누는 방식과 문단 구조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T2의 번역가는 원문의 문단 구성을 충실히 따르며, 주인공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주인공의 경험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독자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내면세계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따라서 TT2의 번역 전략은 주인공의 정신적 상태와 성격을 강조하는 데 효과적이며, 독자가 원작의 복잡한 심리적 요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문장의 구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우선, TT1과 TT2에서는 번역 과정에서 모두 문장의 변형이 나타났음을 발견할 수 있다. 주인공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무서웠어. 추웠어.”라고 감정을 토로한 내용을, TT1에서는 “공포와 추위가 얽혀 있다(恐惧与寒冷交织在一起)”로 변경하고, TT2에서는 “공포와 추위가 나를 감싸고 있다(恐惧与寒冷包围着我)”로 바꾸었다. 한국어 원문이 일인칭 화자인 주인공의 직접적인 느낌을 전달한 반면, TT1의 번역은 공포와 추위가 얽혀 있다는 환경 묘사를 통해 당시 주인공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TT2의 번역은 공포와 추위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을 더욱 명료하게 전달한다. 이는 중국어의 언어 습관에 따른 문장 구조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장 구조의 변형은 원문과 번역문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문장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동물 살해 욕망을 드러내는 꿈에서 첫 번째 단락의 서술에 관한 분석이다. “누군가의 목을 자를 때”, “칼질을 할 때”, “올려놓을 때”, “깨어날 때”, “비둘기를 죽이고 싶을 때”, “고양이를 목조르고 싶을 때”라는 형식을 통해 작가는 주인공 영혜의 내면에 내재한 폭력성을 강조하여 그녀의 심리적 갈등을 강화하는 서술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TT1은 사건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번역하였다. 이로 인해 꿈속에서 주인공의 폭력적인 모습을 독자에게 전달되었으나, 작가 특유의 문체를 살리지 못한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한편, TT2는 모든 부분을 다 드러내지 않았으나 “每当……时”, “……的时候”, “每当这时”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원문의 스타일을 살리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반복적인 표현은 긴장감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독자가 주인공의 폭력적 충동과 내적 갈등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한다.

또한, 원문에서 영혜가 식물이 되는 꿈이 두 번 서술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 번은 인혜의 꿈에서 영혜가 자신이 나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며, 또 한 번은 영혜가 직접 꿈속에서 자신이 나무가 되었다고 발화하는 장면이다. 꿈속의 영혜와 현실 속의 영혜의 이야기가 일치한다는 점은 중요한 서사적 장치이다.<sup>46)</sup> 그러나 두 번역본은 모두 이 부분을 동일하게 번역하지 않았다. 특히 TT2에서는 “물구나무서 있을 때 내 몸에 잎사귀가 자랄 것이

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돋을 것이다(我倒立的时候, 身上会长出叶子, 手掌会生出树根)”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내가 물구나무서 있는데”와 “내가 물구나무서 있었는데”라는 시제의 변화를 통해 인혜의 꿈에서의 발언과 현실에서의 영혜의 발화를 구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셋째, 어휘 선택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TT1에서는 사건을 서술할 때 정서를 드러내는 단어를 추가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깨는 순간”과 “깨어난 순간”을 모두 “놀라서 깨어나다(惊醒)”으로 번역하여 ‘놀랍다’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꿈에서 느낀 공포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누군가 칼질을 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는 독백 부분에서는 번역가가 ‘놀랍고 겁이 나서 별별 떠는 모습’을 그리는 “胆战心惊”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다. 또한, 인혜의 꿈에서 자신의 “왼쪽 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는 부분은 “선혈이 끊임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鲜血淋漓)”으로 표현하여 공포의 정도를 한 단계 높였다. 이러한 번역 전략은 독자의 감정적 반응을 극대화하고, 원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공포와 불안의 정서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은 단어의 선택에 따라 인물 감정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다룬다. “우두커니”라는 부사는 한국어에서 멍하니 서 있는 모습 혹은 행동 없이 가만히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사람이 놀라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또는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원문에서 인혜가 거울 속에서 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느낀 놀라움과 충격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TT1에서는 이 부분을 “차갑게(冷冷地)”로 번역하였다. 이 경우, 인혜가 그러한 자신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변해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TT2에서는 “멍하니(呆呆地)”로 번역하여 인혜의 감정을 비교적 잘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나무가 되는 꿈을 이야기할 때 신이 난 영혜를 바라보는 인혜의 모습을

46) 언니, 내가 물구나무서 있는데, 내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돌아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어. 끝없이, 끝없이..... 사타구니에서 꽃이 피어나려고 해서 다리를 벌렸는데, 활짝 벌렸는데..... (한강, 앞의 책, p.158)  
 꿈에 말이야, 내가 물구나무서 있었는데.....내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돌아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어. 끝없이, 끝없이..... 사타구니에서 꽃이 피어나려고 해서 다리를 벌렸는데, 활짝 벌렸는데..... (한강, 앞의 책, p.180)

묘사할 때 사용된 “우두망찰(愚頭忘察)”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자성어는 한국어에서 ‘어리둥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함’을 뜻한다. TT1에서는 이를 “멍하니(傻傻地)”로 번역한 반면, TT2에서는 “마음이 불안하고 어지럽게(心慌意乱地)”로 번역하여 인혜의 복잡한 심정을 독자에게 잘 전달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번역에서 어휘 선택이 인물의 감정과 심리를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보여주며, TT2의 번역이 원문의 의도를 더 잘 반영하고 있음을 평가할 수 있다.

## 5. 결론

이 연구는 번역의 충실성과 가독성을 넘어서 새로운 번역 비평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천일과 후추통 두 번역가의 번역 입장과 번역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베르만의 긍정적인 번역 비평 이론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고, 두 중국어 판본이 모두 베르만이 제시한 시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작품임을 증명하였다.

우선, 두 중국어 번역본에서 가부장적 사회의 전형적인 인물인 아버지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원작의 주제를 중국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성공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TT2는 강렬한 동사의 선택을 통해 아버지의 폭력성과 영혜의 저항을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반면, TT1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충돌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킨다. 또한, 중국 연구자들이 형부와 영혜의 육체적인 관계를 단지 윤리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것은 형부에 대한 이해의 부재 때문이다. 형부는 사르트르가 말하는 ‘양가제’를 몸소 실천한 인물로서, 예술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는 “오월의 신부”라는 별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별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독자들이 이 인물을 비판적으로만 접근한 것으로 논의하였다.

이어서 이 작품에서 꿈이 종종 인물의 감정적·심리적 상태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 속 꿈의 양상에 대한 번역을 분석하였다. 문단 배치와 관련하여, TT1의 번역가는 서술할 때 맥락상의 논리성을 고려하여 문단을 재배치하는 전략

을 사용함으로써, 독자가 꿈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면, TT2의 번역가는 원문의 문단 구성을 충실히 따르며, 주인공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문장 구성의 문제를 검토한 결과, 두 중국어 번역본 모두 중국어의 언어 습관에 따른 문장 구조의 변형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TT1은 사건을 중심으로 번역하여 주인공의 폭력성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작가의 문체를 완전히 살리지 못했다. 반면, TT2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원문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주인공의 심리적 상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휘 선택이 인물의 감정과 성격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혜의 감정 묘사를 살펴보았다. TT1의 번역은 인혜의 충격과 놀라움을 무관심으로 변질시키는 반면, TT2는 인혜의 내면적 충격과 혼란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세계 문학 속에서 한국문학의 위치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채식주의자』의 두 중국어 번역본을 비교 분석하여, 각 번역이 원작의 주제와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출판 전략 및 독자 수용과 같은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할 예정이다.

## ◆ 참고문헌

### 1. 자료

-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07.  
 韩江(著)·胡椒筒(译), 『素食者』, 成都: 四川文艺出版社, 2021.  
 韩江(著)·千日(译), 『素食主义者』, 重庆: 重庆出版社, 2013.

### 2. 단행본

- 방민호, 『문학사의 비평적 탐구』, 예유, 2018.  
 정영목, 『완전한 번역에서 완전한 언어로』, 문학동네, 2018.  
 정혜용, 『번역 논쟁』, 열린 책들, 2012.

- 한강 외, 『제29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사, 2005.
- Berman, Antoine, 윤성우·이향 역, 『번역과 문자: 먼것의 가치』, 철학과 현실사, 2011.
- Berman, Antoine, 윤성우·이향 역, 『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철학과 현실사, 2009.

### 3. 논문

- LI YONGRI · 최영진, 「중국정부의 교육통합 정책에 따른 교육환경과 사회정체성의 변화 - 조선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외한인연구』 제64집, 제외한인학회, 2024, pp.161-190.
- XU Jun, ZHANG Xiao-tian, Comparative Study of Translator's Subjectivity Based on Corpus of English Version, Journal of Yanbian University (Social Sciences), Vol.53 No.6, 2020.
- 郭长誉 · 刘人博, 「生态翻译学视域下『채식주의자』汉译研究」, 『한중인문학연구』 제74집, 한중인문학회, 2022, pp.255-273.
- 김대중, 「『채식주의자』 번역 속 의역/오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과제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51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pp.31-59.
- 김민정 · 채경화 · 명선혜 · 웨이잉, 「베르만의 생산적 번역 비평 이론을 적용한 The Vegetarian 번역비평」, 『번역학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번역학회, 2021, pp.55-80.
- 김지훈,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나타난 자기서사와 자기실현의 문제 -서사의 주체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73집, 한민족어문학회, 2016, pp.507-531.
- 박선경, 「탈주하는 '몸주체'와 회의를 시작하는 비체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93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24, pp.33-58.
- 배진희,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본 오웰의 『1984』와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어영문학연구』 제62권 제3호, 한국중앙영어영문학학회, 2020, pp.47-67.
- 우미영, 「주체화의 역설과 우울증적 주제: 한강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pp.451-481.
- 이영훈, 「단편 『채식주의자』 프랑스어 번역의 번역비평 시론 - 베르만의 번역분석론을 기반으로」, 『통번역학 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22, pp.107-138.
- \_\_\_\_\_, 「앙트완 베르만의 번역 비평이론 연구」, 『통번역학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5, pp.115-148.
- \_\_\_\_\_, 「앙트완 베르만의 번역학 지형도」, 『한국프랑스학논집』 제91집, 한국프랑스학회, 2015, pp.495-521.
- 이인규, 「『채식주의자』에 대한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 어떻게 볼 것인가?」, 『번역학

- 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번역학회, 2017, pp.173-205.
- 이향아·최은실, 「한중 번역과 한영 번역에서 나타나는 고맥락과 저맥락 양상 비교」, 『외국학연구』 제64집,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23, pp.43-68.
- 이혜원, 「『채식주의자』 불역본의 번역비평을 위하여 - 베르만의 번역비평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천」, 『프랑스어문교육』 제63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8, pp.381-423.
- 전아기, 「『채식주의자』 중역본의 번역투 연구」, 중국화중사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정미숙, 「육망, 무너지기 쉬운 절대성 - 한강 연작소설 『채식주의자』의 육망분석」, 『코기토』 제64집,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pp.7-32.
- 조아남, 「『채식주의자』 중역본에 나타난 심리묘사와 관련된 번역에 대한 연구 - 기능등가 이론을 중심으로」, 중국광서사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조재룡, 「번역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문학동네』 제90집, 문학동네, 2017, pp.1-21.
- 주호, 「소설 번역에서의 ‘신달아’ 번역 표준 - 장편 소설 『채식주의자』 중국어 번역본을 중심으로」, 중국광서사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文丽华, 「韩国现代小说在中国——翻译出版现状、问题及解决方案」, 『当代韩国』 第4期, 2018.
- 郑冬梅·陈翘楚, 「解读韩江小说中二元对立人物形象的塑造——以《素食主义者》和《植物妻子》为中心」, 『韩国语教学与研究』 2017(4), 2017, pp.102-109.
- 沈颖, 「浅析韩国小说《素食主义者》中的伦理混乱与伦理选择」, 『大众文艺』 2019(09), 2019, pp.53-54.
- 师琦, 「《素食主义者》的叙述声音解读」, 『河南工程学院学报(社会科学版)』 39(3), 2019, pp.73-77.
- 李佳妍, 「“毁灭”与“救赎”——《素食主义者》与《拯救乳房》中女性意识的比较」, 『现代交际』, 2020(12), 2020, pp.113-114.
- 于智雯, 「韩江小说中的植物意象隐喻——以《素食主义者》为主例」, 『吉林省教育学院学报』 477, 2020, pp.177-182.
- 朱卿, 「《素食主义者》对于“王后窥镜”的突破」, 『鲁东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38(4), 2021, pp.73-77.
- 毕桂涛, 「矛盾、觉醒与救赎: 韩江小说《素食主义者》中“植物性回归”的隐形成表达研究」, 『韩国语教学与研究』 2023(02), 2023, pp.121-126.
- 黄晓微, 「从“身体”开始: 论韩江小说《素食主义者》的叙事美学」, 『闽西职业技术学院学报』 25(1), 2023, pp.63-66.
- 辛敬敬·金春子, 「浅析《素食主义者》中的人物形象」, 『大众文艺』 2023(12), 2023, pp.19-21.
- 毕娇娇·朴银姬, 「毁灭与顺从: 韩江系列小说《素食主义者》的女性形象分析」, 『文艺艺

术周刊』 2024(07), 2024, pp.16-19.

논문 접수일	2024년 7월 22일
심사 완료일	2024년 8월 29일
게재 확정일	2024년 9월 19일

*Abstract*A Comparative Study of the Two Chinese Translations of *The Vegetarian*

Fu, Rong

In 2013, the first Chinese translation of Han Kang's *The Vegetarian* (素食主义者), translated by Qian Ri (千日), was published by Chongqing Publishing (重庆出版社). Subsequently, in 2021, Sichuan Literature and Art Publishing (四川文艺出版社) re-published the work under the title *The Vegetarian* (素食者), with the translator changed to Hu Jiao Tong (胡椒筒). The fact that *The Vegetarian* was re-published within less than a decade after its first translation into Chinese can be considered an unusual occurrence.

Up to now, most of the research has focused on the 2013 edition, with only one study comparing the two Chinese translations. This thesis explores the potential for a new approach to translation criticism that goes beyond fidelity and readability by taking the two Chinese translations as its subject. To achieve this, Berman's positive translation criticism theory was first applied to seek alternatives to traditional translation evaluation criteria, and the translation philosophies and positions of the two translators were thoroughly examined. Subsequently, by analyzing how each translator understood and translated the work, the study examined their respective translation strategies and the effects of their translations. Finally, the study reviewed the translators' individual styles by analyzing the issues of paragraph arrangement, sentence structure, and word choice.

The comparison of the two translations in this study focuses on revealing the translation philosophies and methods of the two translators rather than on determining which is superior.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not only recogni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ranslations but also analyzing how these differences affect readers.

**Keyword**

Han Kang, *The Vegetarian*, Chinese translation, Berman, translation criticism, fidelity, readability

# 韩国文人对陶渊明受容样相新探

-以崔致远为中心的考察-

张阳\*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신라 말기 崔致远이 중국 동진 시기 陶淵明을 수용한 양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도연명은 중국 전원시의 창시자이며 최치원은 신라 시대의 가장 유명한 문인이다. 비록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차이는 최치원이 도연명의 영향을 받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최치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연명을 수용했으며, 대부분이 간접적인 방식의 수용이다. 본 논문은 최치원의 도연명 수용 양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도연명을 수용한 상황을 분석했다. 최치원은 견당(遣唐) 유학생으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만당 시기의 문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만당 시기에는 정권이 흔들리고 전란이 이어져 당시 문인들은 도연명의 “田園生活”을 동경하기 시작, 學陶하고 仰陶하며 和陶하였다. 최치원은 만당 시인들과 교류하며 그들 시풍의 영향을 받아 도연명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문학의 연구방법을 채택해, 최치원과 교류가 있던 杜荀鶴, 張喬, 羅隱 세 명의 만당 시인을 착안점으로 하여, 도연명이 이들 시인에 미친 영향 및 최치원과 만당 시인의 수창(酬唱) 과정을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歸去”와 “氣節” 두 가지 측면에서 도연명에 대한 최치원의 수용 양상을 연구하였다. 최치원의 도연명 수용 양상 연구는 도연명 문학이 한국에서 전파된 양상과 최치원의 중국 고대 문학 수용 양상을 연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陶淵明, 崔致远, 归去, 만당시인, 은일전원, 안빈낙도

\* 韩国国立安东大学 汉文系 博士结业

## 〈目次〉

1. 绪论
2. 陶渊明对晚唐诗人的影响
3. 崔致远与晚唐诗人的诗歌酬唱
4. 崔致远对陶渊明的受容
  - 1). 归去：从田园到青山
  - 2). 气节：淡泊名利与安贫乐道
5. 结论

## 1. 绪论

汉诗在韩国的古典文学中一直占据着重要地位。韩国文人们在汉诗的创作方面取得了辉煌灿烂的成就。在韩国文人所创作的汉诗作品中，不仅有其本土特色元素的存在，还对中国的文人以及文学作品进行受容，其中对陶渊明的受容一直是众多学者研究的重点。陶渊明的诗文通过书籍交换、使者互访及遣唐留学生的交流等途径传入到了韩国，被韩国文人所受容，并创作出了大量的汉诗作品。

陶渊明是中国东晋时期著名的山水田园诗人，其诗文以‘平淡自然’的特色，受到了韩国文人的好评，以至于韩国文人们开始仰陶，学陶，和陶，而在众多韩国文人之中崔致远便是其中之一。早在其『桂苑笔耕集』中便有关于陶渊明的诗文（下文将对此具体展开说明）。新罗末期的崔致远(857~?)与中国东晋时期的陶渊明（365~427）两位诗人生活的年代虽然相距五百多年，但并不影响崔致远对陶渊明进行受容。两位诗人在生活遭遇、精神追求以及诗歌创作等方面有着很多相似之处，而这些都可以通过崔致远的诗文反映出来。对于崔致远是如何接触到陶渊明的已经有很多学者做出过探讨。崔雄权在其「接受的先声：陶渊明形象在韩国的登陆」中认为陶渊明及其九篇诗文是随着『文选』的传入而被韩国文人所接受的。<sup>1)</sup>可见，作为新罗末期的文人，崔

1) 崔雄权, 「接受的先声:陶渊明形象在韩国的登陆」, 『东疆学刊』第2期, 2007, p.26.

致远是有机会接触到陶渊明的诗文并对其进行受容的。但本文将题目定为韩国文人对陶渊明受容样相新探—以崔致远为中心的考察，就是想要从一个新的视角来分析崔致远对陶渊明的受容情况。崔致远曾以留学生的身份前往唐朝学习，且与当时的众多文人交好，本文将与崔致远交好的杜荀鹤、张乔以及罗隐等晚唐诗人作为媒介，探讨崔致远对陶渊明的受容情况。

在晚唐时期，陶渊明已经具有很重要的影响力。‘崇尚自然，归隐田园’的陶渊明深受当时文人的推崇。文人们在诗文中引用陶渊明以及陶诗中的典故，表达自己想要归隐的决心。而本文将以南唐诗人作为切入点，分析陶渊明对晚唐诗人的影响，探讨崔致远与晚唐诗人的赠诗酬唱过程，最终研究崔致远对陶渊明的受容情况。研究崔致远对陶渊明的受容情况有利于探讨陶渊明文学在韩国的传播情况以及崔致远的汉文学对中国古代文学的受容情况。

## 2. 陶渊明对晚唐诗人的影响

晚唐时期，社会动荡，政治腐败，百姓苦不堪言，其政治环境与陶渊明生活的东晋末年几乎一致。于是，晚唐诗人对陶渊明愈发感同身受，也能够理解陶渊明放弃仕途，归隐田园的行为，更能与陶渊明的精神世界产生共鸣。在晚唐时期混乱的时代背景下，传统的儒家伦理纲常已经无法束缚文人的内心，而儒家对于政治的协助作用也丧失了现实意义，大部分文人开始有了避世之心，于是开始选择独善其身的生活方式，向往避世隐居的生活状态。文人们逐渐开始把这种生活状态以及理想转移到文学创作上来，想要在诗文中打造一个避世的“桃花源”。而陶渊明所创造的“桃花源”，就为此时的晚唐文人提供了一个心灵栖息地。于是他们开始阅读陶诗、体会陶诗、引用陶诗以及创作陶诗。其中杜荀鹤、张乔及罗隐三位诗人便受到了陶渊明的影响，且创作了很多与陶渊明相关的诗文。下面，让我们看一下这三位诗人对陶渊明的受容情况。

杜荀鹤（846~904），字彦之，号九华山人，其创作了众多送别诗，有送人游历的，有送人贬谪的，还有送人归隐的。其〈送友人宰浔阳〉就是一首

送别诗, 在此诗中就有对陶渊明进行受容的诗句, 具体诗文如下:

高兴那言去路长, 非君不解爱浔阳。  
有时猿鸟来公署, 到处烟霞是道乡。  
钓艇满江鱼贱菜, 纸窑连岳楮多桑。  
陶潜旧隐依稀在, 好继高踪结草堂。<sup>2)</sup>

〈送友人宰浔阳阳〉是杜荀鹤生活在浔阳时所作的一首送别诗。整首诗表达了诗人对浔阳自然风光的热爱与赞美, 诗人喜爱浔阳不仅是因为自己的友人在这里, 还因为陶渊明曾隐居于此。陶渊明是浔阳人, 亦是浔阳三隐<sup>3)</sup>之一, 其在浔阳生活了24年。诗文中一句“陶潜旧隐依稀在”可以看出诗人想要追寻陶渊明的足迹在浔阳定居, 感受隐逸生活, 可谓是体现了诗人对隐逸生活的向往与赞美。而“好继高踪结草堂”表达了诗人想要追寻着陶渊明生活的行踪继承他的高洁遗风, 可以看出诗人对陶渊明高洁人格的认可与赞赏。

晚唐时期局势动荡不安, 杜荀鹤曾数次前往长安应试, 但都未能及第, 怀才不遇的他对政局失望回到了自己的家乡隐居。杜荀鹤不是因为对仕途的厌倦而选择隐居, 而是因为应试结果不理想, 所以才选择隐居。这种郁郁不得志的心理使得其诗文中充满了对功名的追求以及对仕途的渴望, 在其〈山居自遣〉中可以一探究竟, 具体诗文如下:

茅屋周回松竹阴, 山翁时挈酒相寻。  
无人开口不言利, 只我白头空爱吟。  
月在钓潭秋睡重, 云横樵径野情深。  
此中一日过一日, 有底闲愁得到心?<sup>4)</sup>

整首诗描绘了杜荀鹤隐居山林, 远离尘世, 享受着隐居之乐的生活状

2) 杜荀鹤, 〈送友人宰浔阳〉, 『全唐诗』卷692, 台北: 文史哲出版社, 1978, p.7973.

3) 南朝萧统在『陶渊明传』中记载: “时周续之入庐山事释慧远, 彭城刘遗民亦遁匡山, 渊明又不应征命, 谓之‘浔阳三隐’。”

4) 杜荀鹤, 〈山居自遣〉, 『全唐诗』卷692, 台北: 文史哲出版社, 1978, p.7970.

态。诗人对世俗的追名逐利毫无关心，在大部分人都在“无人开口不言利”之时，诗人却在“只我白头空爱吟”。诗人专注于自己的诗歌创作以及享受宁静的山林生活，他像陶渊明一样隐居在绿树环绕的茅屋中，不问世事，安心创作诗歌。而诗的最后一句“有底闲愁得到心”，表达了诗人对隐居生活的满足，只要生活在这田园山水中，是没有什么忧愁可以打扰到他的，整首诗着重描写诗人隐居生活的趣味以及不慕名利的心志。但结合此诗的创作背景，我们就可以一窥诗人的心境。这首诗大约创作于公元895年左右，此时晚唐已经进入衰落阶段，政治腐败、战乱频繁。诗人作为一名多次参加科举考试并落榜的文人，使得他对社会现实有了更深刻的认识，也使得他急切想要逃离世俗的纷争。整首诗通过描绘山林的美景，表达了诗人对山林生活的喜爱与对世俗纷争的厌恶，这种情感是和当时的社会环境以及个人遭遇密切相关的，这就使得此诗具有强烈的个人情感。诗句“此中一日过一日”中的“过”成了本诗的点睛之笔。“过”在汉语中有日晷一日地度日之意，由此可见诗人虽然享受隐居生活，但是“过”一字却展现出了诗人内心对于入仕不顺的不甘及怀才不遇的苦闷。除此之外，〈陈晷归麻川〉、〈怀卢岳书斋〉、〈赠庐岳隐者〉、〈怀紫阁隐者〉、〈溪居叟〉及〈苦吟〉等诗文中也有与陶渊明及归隐田园相关的诗句。

张乔（825~890），是晚唐时期的著名诗人，少年时求学于庐山（现位于中国江西省九江市境内），青年时在长安入仕，中年时则开始云游四海，老年时则看透世俗归隐田园，隐居在九华山中。张乔在云游山水之时，创作了很多山水田园诗歌，在他的诗歌中不仅引用陶渊明及陶诗中的典故，而且对陶渊明隐居避世的行为表示赞赏。其中〈寻桃源〉便是一首关于“桃花源”的诗歌。

武陵春草齐，花影隔澄溪。  
路远无人去，山空有鸟啼。  
水重青霭断，松偃绿萝低。  
世上迷途客，经兹尽不迷。<sup>5)</sup>

5) 张乔，〈寻桃源〉，《全唐诗》卷639，台北：文史哲出版社，1978，p.7333.

诗文的首句“武陵春草齐，花影隔澄溪”，描绘了武陵春天的美丽景象，鸟语花香，潺潺溪水的景色令人向往。而下一句“路远无人去，山空有鸟啼”营造出了山间的寂静与孤寂之感，同时也表达了诗人对自然的亲近和尊重。诗文的最后两句“世上迷途客，经兹尽不迷”是诗人对人生的思考以及对迷途之人的劝诫。这里的“迷途客”指的是在生活中迷失方向的人，而“经兹尽不迷”表达了诗人对自然的赞美以及对生活真谛的感悟。诗人在诗文的最后提醒人们，只有亲近自然，才能找到生活的真谛，才能避免迷失在俗世之中。整首诗诗风清新自然，颇有陶渊明诗风的特色。而诗中的“桃源”意象便引自陶渊明。张乔晚年隐居在庐山，在许棠的〈题张乔升平里居〉一诗中便有“匡庐曾共隐，相见自相亲”<sup>6)</sup>的记载，可以作为其隐居于庐山的佐证。而陶渊明因“不为五斗米折腰”的气节，毅然决然地过上了“采菊东篱下，悠然见南山”的生活，最终隐居在庐山。介于晚唐时期陶渊明诗文的盛行，在庐山求学的张乔亦会受到陶渊明的影响，在其诗文中引用陶渊明及陶诗抒发自己的情怀。

张乔的另一首诗〈七松亭〉也引用了陶诗中的典故，具体诗文如下：

七松亭上望秦川，高鸟闲云满目前。  
已比子真耕谷口，岂同陶令卧江边。  
临崖把卷惊回烧，扫石留僧听远泉。  
明月影中宫漏近，佩声应宿使朝天。<sup>7)</sup>

张乔在诗中引用子真郑朴<sup>8)</sup>及陶渊明的典故来突出对历史人物的思考以及对自身的感悟。子真面对西汉末年动荡不安的社会环境，选择隐居于谷口（今中国陕西省淳化县），过着种田耕作的生活。而“岂同陶令卧江边”一句则化用了陶渊明〈拟古九首〉（其九）中的诗句“种桑长江边，三年望当采”<sup>9)</sup>。陶渊

6) 许棠，〈题张乔升平里居〉，《全唐诗》卷603，台北：文史哲出版社，1978。

7) 张乔，〈七松亭〉，同上，p.7332。

8) 子真即郑朴，西汉末年的隐士，因不满当权者的统治，遂举家迁至云阳谷口（今中国陕西省淳化县），其在归隐之时，种田耕作，隐居山林，被后世称为“谷口子真”。

9) 陶渊明，〈拟古九首〉（其九），选自袁行霈撰，《陶渊明集笺注 修订本》卷4，北京：中华

明的诗句表面上是写种植桑树，但是其实是在暗喻东晋时期的历史背景及政治变迁。张乔引用陶渊明诗中的典故也是为了发出对晚唐时期动荡不安政治背景的感慨。诗人通过引用子真及陶渊明，表达了自己在乱世之际想要归隐的决心，同时也表达了诗人对中国大好河山的热爱以及对自由生活的向往。除上述两首直接引用陶渊明及其意象的诗文外，〈旧归山〉、〈江村〉、〈题友人林斋〉及〈城东寓居寄知己〉等诗中也有与归隐相关的诗句。

和李商隐，温庭筠并称为“三大才子”的罗隐（833~909）也曾创作过与陶渊明相关的诗文。具体诗文如下：

中和节后捧琼瑰，坐读行吟数月来。  
只叹凋龙方擅价，不知赧尾竟空回。  
千枝白露陶潜柳，百尺黄金郭隗台。  
惆怅报君无玉笋，水天东望一裴回。<sup>10)</sup>

此诗是罗隐创作的一首酬友诗，读完整首诗，可以感受到罗隐心中的失落与惆怅。首句“中和节后捧琼瑰”中的“中和节”兴盛于唐代，有百官“进书献种上春服”<sup>11)</sup>的习俗，用来表达官员对皇帝的忠心。文中，诗人在“中和节”后手捧珍贵的礼物，想要进献皇帝。诗文中所说到的礼物虽然指的是琼瑰（次于玉石的珍贵石头），但是琼瑰在古代亦有精妙的文章之意，所以这里诗人所献上的礼物是自己“坐读行吟数月”后作的精美文章。但是，诗人精心准备的文章却没有得到重视，自己那如同“雕龙”般的才华却没有得到认可，诗人内心充满了失望与惆怅，所以才发出了“赧尾竟空回”的感慨。本诗借景抒情，用陶渊明<sup>12)</sup>和郭隗<sup>13)</sup>两人的典故来自喻，陶渊明被誉为“五柳先生”，而“千枝白露”的陶渊

书局，2003，p.330.

10) 罗隐，〈县斋秋晚酬友人朱已贲见寄〉，『全唐诗』卷664，台北：文史哲出版社，1978，p.7603.

11) 据『唐会要』中的记载，中和节政策规定中有关春服的内容是“王公戚里上春服”，以表忠心，但在具体实施过程中，也有皇帝对臣子们的赏赐。

12) 陶渊明在〈五柳先生〉中用“闲静少言，不慕荣利”来表达自己的志向，这里罗隐引用具有高尚节操的陶渊明来自喻。

明正是诗人忠贞高尚气节的表现。而诗人也希望能像郭隗一样得到重用，表达了自己建功立业的决心。“惆怅报君无玉笋，水天东望一裴回”透露了诗人想要建功立业，辅佐君王的抱负，但在当时的社会背景下却很难实现，最终只能自我落寞。在诗中我们可以看出罗隐渴望被重用，希望施展自己的才华，而陶渊明在年轻时也曾发出“忆我少壮时，无乐自欣豫，猛志逸四海，骞翮思远翥”<sup>14)</sup>的感慨，来表达自己年轻时的伟大抱负与鸿鹄之志，两人在这方面也有些许相似之处，可见陶渊明对罗隐的影响。

菊花是陶诗中的代表意象，而罗隐的另一首诗〈菊〉，就是通过对菊花意象的描写，抒发了自己想要归隐的意愿。具体诗文如下：

篱落岁云暮，数枝聊自芳。  
雪裁纤蕊密，金拆小苞香。  
千载白衣酒，一生青女霜。  
春丛莫轻薄，彼此有行藏。<sup>15)</sup>

此诗虽然叫做〈菊〉，但全文并没有提到“菊”，而是诗人通过“菊”表达自己内心想要归隐的意愿。“千载白衣酒，一生青女霜”引用了“白衣”<sup>16)</sup>和“青女”<sup>17)</sup>的典故。在古代未入仕的人被称为“白衣”，这里诗人以“白衣”自比，抒发自己入仕之路的艰辛。罗隐虽满腹经纶，但其科举之路异常坎坷，在二十八年间十

13) 郭隗黄金台是一段发生在战国时期燕国的著名故事，讲述了燕昭王为了招揽人才，听从郭隗的建议，修建了黄金台，以示对人才的重视和尊重。这个故事体现了燕昭王求贤若渴的决心，以及郭隗通过自己的智慧和行动，帮助燕昭王实现了招揽天下贤才的宏愿。在诗文中罗隐引用郭隗的典故来表达自己想要建功立业的决心以及辅佐君王的心愿。

14) 陶渊明，〈杂诗〉（其五），选自袁行霈撰，《陶渊明集笺注 修订本》卷4，北京：中华书局，2003，p.341.

15) 罗隐，〈菊〉，《全唐诗》卷659，台北：文史哲出版社，1978，p.7566.

16) “白衣”在古代指尚未入仕的人，在《唐才子传·孟浩然》中就有：“观浩然誓拆谦退，才名日高，竟沦明代，终身白衣，良可悲夫！”的记载。

17) “青女”是中国传说中掌管降雪的女神，早在《淮南子·天文训》中就有：“至秋三月，地气不藏，乃收其杀，百虫蛰伏，静居闭户，青女乃出，以降霜雪。”的记载。

举进士，但终未登科及第。引用“青女”的神话故事是为了彰显诗人的品行，“青女”是霜雪女神，掌管着人间的降雪，白雪象征着纯洁，代表了纯洁无暇的品行，侧面表达了诗人内心的高洁。“彼此有行藏”表达了罗隐对自身遭遇的感慨以及欲归隐田园的决心。<sup>18)</sup>罗隐生活在晚唐时期，他一生心怀志向，但却始终怀才不遇，以致其仕途之路坎坷，所以他在诗文中大多会呈现出“壮志难酬”、“愤世嫉俗”的消极避世心态。在这种心态的作用下，辞官隐居的陶渊明反而会给予罗隐很多积极的引导力。陶诗中豁达的情怀以及归隐的乐趣给罗隐提供了心灵安慰，让他在仕途不顺的道路上得到了些许慰藉。罗隐在《江夏酬高崇节》、《赠渔翁》及《秋日富春江行》等诗文中也有与归隐及回归自然等相关的内容。

从杜荀鹤到张乔再到罗隐，我们可以看出陶渊明对几位晚唐诗人的影响。晚唐诗人对陶渊明人格气节的推崇，对他入仕态度的理解和赞赏，只是晚唐诗人受其影响的一个方面，更重要的是晚唐诗人对陶诗中自然平淡诗风及诗歌艺术水平的欣赏，这让他们产生了极大的兴趣，以至于在诗文中引用陶渊明及其诗文中的典故，表达自己的气节以及想要归隐的心愿。崔致远作为新罗时期著名的遣唐留学生，与晚唐诗人往来密切，晚唐诗人的诗歌风格也无形地影响到崔致远，为崔致远学习陶渊明以及选择隐居埋下了种子。下面，笔者将探讨崔致远与几位晚唐诗人之间的关系，以及他们是如何进行诗歌酬唱的。

### 3. 崔致远与晚唐诗人的诗歌酬唱

从唐朝初期开始，新罗在文学和商贸活动中开始与唐朝进行密切联系，直到晚唐时期达到高潮，双方保持了近300多年的友好和睦关系。杜英雄在其论文中指出：“新罗时期派遣到唐朝的使臣多达120次，同时派遣了大量留学生以及留学僧前往唐朝，在宪德王17年(825)派遣宿卫学生包括金允夫、金立

18) “行藏”出自《论语》的《述而》，“用之则行，舍之则藏。”意为被任用就出仕，不被任用就归隐，这里用来表达诗人想要归隐的决心。

之、朴亮之等12人, 习业学生包括崔利贞、金淑贞、朴季业等4人前往中国学习, 僖康王2年(837)新罗派遣前往唐朝学习的留学生达到了216人, 直到文圣王2年(840)新罗要求把留学期满的105名留学生送归本国。”<sup>19)</sup>由此可见两国之间的交往。『唐会要』中也有唐玄宗增建国学学舍, 以用来教授各国留学生的记录。<sup>20)</sup>在这种文化交流中, 新罗文人与中国文人建立了良好的关系。这里值得一提的是, 崔雄权曾在其论文中提到: “当时派遣到唐朝的新罗文人大多集中在睦州、宣州、扬州和苏州等地以及安徽九华山、浙江天台山、江西九江等地, 而这些地方中就包括了陶渊明的故乡浔阳柴桑(今中国江西省九江市柴桑区), 这些地方也是陶渊明活动的主要舞台。”<sup>21)</sup>因此, 在学唐之风盛行的年代, 留学到这里的新罗文人或多或少会受到陶渊明的影响。

在新罗时期的遣唐留学生中, 最出名的莫过于韩国汉文学的鼻祖崔致远(857~?)。他在唐懿宗咸通九年(868)渡海来华, 并参加了科举考试, 唐僖宗乾符元年(874)进士及第, 随后出任溧水县尉。唐僖宗中和四年(884)离开唐朝回归新罗。崔致远在唐朝生活的16年中, 常与晚唐时期的文人一起切磋诗艺, 互作诗歌。崔致远在与晚唐文人们的往来过程中必定会受到晚唐诗人的影响。

868年, 崔致远以宿卫学生的身份前往唐朝学习。874年, 其考取宾贡进士。876年, 出任溧水(今中国江苏省南京市)县尉。880年, 因黄巢之乱, 阻断了崔致远北上的道路, 遂而被淮南节度高骈招入幕府, 担任从事官。<sup>22)</sup>884年, 其以“国信使”的身份回归新罗。崔致远在唐的十六年间, 为人谦虚恭

19) 두영웅, 「新罗下代 渡唐留学生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16-18.

20) 王溥在『唐会要』中有: “太宗即位, 益崇儒术, 贞观五年数幸国学。遂增筑学舍千二百间, 国学·太学·四门亦增生员, ……高丽·百济·新罗·高昌·吐蕃诸国酋长, 亦遣子弟请入国学之内, 八千余人。国学之盛, 近古未有。”的记载。

21) 崔雄权, 「崔致远对陶渊明形象的文化解读」,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第2期, 2008, p.120.

22) 徐居正的『东国通鉴』中有: “崔致远, 新罗人, 精敏好学。年十二, 随海舶入唐求学。十八登第, 调宣州溧水县尉, 迁侍御史内供奉, 又为高骈书记。”的相关记载。

谨，与晚唐的文人，幕府，官僚等交游甚广。崔致远与晚唐诗人的接触与往来，早在许筠的『惺叟诗话』<sup>23)</sup>及李奎报的『白云小说』<sup>24)</sup>中就有相关记载，因为其于晚唐诗人的往来过于亲密，导致他创作的诗文从晚唐诗人那里汲取了很多营养。另外，党银平和闵庚三<sup>25)</sup>及朴炳仙<sup>26)</sup>等人也在论文中论证了崔致远与晚唐诗人之间的关系。所以崔致远与晚唐诗人往来过密这一线索，为本文研究崔致远对陶渊明的受容提供了有力依据。下面，我们就以与崔致远往来过密的三位晚唐诗人为例，探讨他们在诗歌酬唱过程中所创作的诗文。

杜荀鹤酷爱结交新罗文人，其诗〈送宾贡登第后归海东〉<sup>27)</sup>就是写给离开唐朝回归韩国的新罗友人的。杜荀鹤和崔致远的交集应该是从晚唐诗人顾云(?~894)开始的。顾云于乾符元年(874)登进士第，之后被淮南节度使高骈招为讨判官，直到高骈去世前，一直在高骈的幕府中。而顾云作为和崔致远同榜<sup>28)</sup>的文人，两人一直交往频繁。在崔致远『桂苑笔耕集』的〈献诗启〉中就有两人同榜的相关记载。<sup>29)</sup>顾云十分欣赏崔致远的文采，且与崔致远情谊深厚，曾作诗〈送崔致远西游将还〉<sup>30)</sup>来表达自己对崔致远的欣赏。

而顾云也和杜荀鹤同为高骈<sup>31)</sup>(821~887)的幕府文人，同时两人也曾

23) 许筠在『惺叟诗话』中有：“崔孤云学士之诗，在唐末亦郑谷，韩偓之流，率佻浅不厚。”的相关记载。

24) 李奎报在『白云小说』中有：“其(崔致远)诗不甚高，岂其入中国，在于晚唐后故欤。”的记载。

25) 당은평·민경삼, 「东国文学之祖 崔致远 与 唐末文人 交游考述」, 『중국어문논총』 제25집, 중국어문학회, 2003.

26) 박명선, 「唐代 韩中文人之 교류에 관한 연구 — 东国文宗 崔致远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46집, 중국어문학학회, 2007.

27) 杜荀鹤, 〈送宾贡登第后归海东〉, 『全唐诗』卷691, 台北:文史哲出版社, 1978, p.7933.

28) 古代科举考试, 考中的张榜公布, 在同一榜录取的称为同榜。

29) 崔致远的『桂苑笔耕集』中「献诗启」有如下记载：“某启：某窃览同年顾云校书献相公长启一首、短歌十篇。学派则鲸喷海涛，词锋则剑倚云汉，备为赞颂，永可流传。”这里的“同年”便是科举应试者对同榜登第者的称呼，可见顾云和崔致远同科进士。

30) 顾云, 〈送崔致远西游将还〉, 『全唐诗』卷663, 台北:文史哲出版社, 1978, p.7595.

31) 高骈, 晚唐时期的名将, 诗人。咸通七年(866), 曾任淮南(今中国江苏省扬州市北部)节度使。崔致远、顾云、罗隐等人都曾在其幕府中。

同在九华山（中国安徽省池州市境内）学习。<sup>32)</sup>顾云十分欣赏杜荀鹤，曾评价其文章“不逊色于李杜”。<sup>33)</sup>杜荀鹤也曾创作过诗文〈寄顾云〉<sup>34)</sup>、〈顾云侍御出二子请诗因遗一绝〉<sup>35)</sup>以及〈贺顾云侍御府主与子弟奏官（敕下时，年七岁）〉<sup>36)</sup>等诗文赠予顾云。同时，杜荀鹤仕途之路艰辛，其曾于唐僖宗乾符三年冬（876）投奔裴瓚<sup>37)</sup>，在『全唐诗』中收录其所作的〈冬末投长沙裴侍郎〉以及〈投长沙裴侍郎〉两首诗可以作为依据。而收录在『桂苑笔耕集』中的〈前湖南观察巡官裴璋启〉中有“乾符三年冬到湖南起居座主侍郎之时”<sup>38)</sup>一句，可看出两人或许因为裴璋的原因得以相识。两人相识后，互作诗歌，相互酬唱，收录在『全唐诗』中的〈赠溧水崔少府〉便是杜荀鹤写给崔致远的一首诗。具体诗文如下：

庭户萧条燕雀喧，日高窗下枕书眠。  
 只闻留客教沽酒，未省逢人说料钱。  
 洞口礼星披鹤氅，溪头吟沽上渔船。  
 九华山叟心相许，不计官卑赠一篇。<sup>39)</sup>

崔致远于876年到877年出任溧水（今中国江苏省南京市）县尉，而少府则是县尉的别名，所以诗中所说的崔少府便是崔致远。这首诗是杜荀鹤在中

32) 周勋初的『唐诗大辞典·修订本』中有：“顾云，字垂象。一字士龙，池州秋浦(今安徽池州)人。盐商之子，初与杜荀鹤、段文圭同居九华山学习，又同罗隐受知于令狐綯。”

33) 计有功的『唐诗纪事』中有：“其雅丽凝炼之句，能使贫吏廉，邪臣正，父慈子孝，兄友弟悌，人伦之纪备矣。其壮语大言，则决起逸发，可以左揽工部袂（杜甫），右拍翰林（李白）肩。”的相关记载。

34) 杜荀鹤，〈寄顾云〉，同上，p.7936.

35) 杜荀鹤，〈顾云侍御出二子请诗因遗一绝〉，同上，p.7938.

36) 杜荀鹤，〈贺顾云侍御府主与子弟奏官（敕下时年七岁）〉，『全唐诗』卷692，台北：文史哲出版社，1978，p.7853.

37) 裴瓚为唐朝时期的官员，僖宗乾符元年，官至礼部侍郎。

38) 崔致远，〈前湖南观察巡官裴璋启〉，『桂苑笔耕集』卷18，首尔：韩国古典翻译院，2018，p.291.

39) 杜荀鹤，〈赠溧水崔少府〉，同上，p.7966.

国池州（中国安徽省池州市）生活时所作，而溧水和池州距离不远，两人完全有可能互作诗歌表达对对方的欣赏，所以这首诗可以作为两人交好的证据。通过诗文中的描述我们可以看出崔致远当时生活的面貌，以及杜荀鹤对崔致远的评价。诗中的“庭户”是崔致远在溧水时所住的官邸，而诗文中的“客”则是杜荀鹤自己，诗文描写了崔致远在临行前与杜荀鹤一起饮酒的场景。“九华山叟心相许”中的“九华山叟”<sup>40)</sup>就是杜荀鹤本人。而“心相许”肯定了杜荀鹤对崔致远的欣赏。最后一句“不计官卑赠一篇”，诗人不在乎崔致远官阶的低微，即使小小的县尉也十分尊重他，可见两人之间的互相欣赏。

另一位与崔致远交好的诗人张乔，其与杜荀鹤相似，也爱喜结好友，且创作了众多与新罗友人相关的诗文。『全唐诗』中便收录了张乔所创作的〈送朴充侍御归海东〉<sup>41)</sup>、〈送宾贡金夷吾奉使归本国〉<sup>42)</sup>、〈送僧雅觉归海东〉<sup>43)</sup>、〈送棋待诏朴球归新罗〉<sup>44)</sup>以及〈送新罗僧〉<sup>45)</sup>等诗。而崔致远便是张乔众多新罗好友之一，与张乔交好的崔致远曾作汉诗一首赠与张乔，具体诗文如下：

一种诗名四海传，浪仙争得似松年。  
不惟骚雅标新格，能把行藏继古贤。  
藜杖夜携孤峤月，苇帘朝卷远村烟。  
病来吟寄漳滨句，因付渔翁入郭船。<sup>46)</sup>

崔致远认为张乔的诗名扬四海，用一句“浪仙争得似松年”肯定了张乔在文学界的地位，这里的“浪仙”指的是唐代著名诗人贾岛（贾岛，字浪仙），而“松年”则是张乔的字，张乔的诗风因为清新自然，具有浪漫主义色彩，诗风像

40) 杜荀鹤，字九华山人，亦或九华山叟。

41) 张乔，〈送朴充侍御归海东〉，『全唐诗』卷638，台北：文史哲出版社，1978，p.7320.

42) 张乔，〈送宾贡金夷吾奉使归本国〉，同上，p.7305.

43) 张乔，〈送僧雅觉归海东〉，同上，p.7312.

44) 张乔，〈送棋待诏朴球归新罗〉，同上，p.7320.

45) 张乔，〈送新罗僧〉，同上，p.7314.

46) 崔致远，〈和张进士乔村居病中见寄〉，『崔文昌侯全集』卷1，首尔：大东文化研究院1972，p.32.

极了贾岛，但崔致远却认为“浪仙”的文学怎么能比得上“松年”呢？可见其对张乔的认可及欣赏。而说到张乔和崔致远两人的往来，就要追溯到张乔的出身。张乔作为池州人，咸通年间（860~873）成为进士，黄巢之乱<sup>47)</sup>后隐居池州的九华山，而杜荀鹤也是池州出身，而且也曾九华山学习并且隐居。杜荀鹤的〈秋日怀九华旧居〉一诗，可以作为其隐居在九华山的证据。<sup>48)</sup>唐僖宗六年（879）杜荀鹤归隐于九华山，广明元年（880）张乔也归隐于九华山。张乔与杜荀鹤二人既为同乡，又在差不多的时间内隐居于九华山，所以同样是池州出身的两人定会有交集。据『隋唐五代卷—中国文学编年史』中记载，杜荀鹤约于中和二年（882）到扬州，见到了张乔。与此同时，杜荀鹤作诗〈维扬逢诗友张乔〉赠予张乔，可见两人的交往。<sup>49)</sup>而本文在上文中探讨了杜荀鹤及崔致远的关系，所以可以推断出热爱交友的崔致远极有可能通过杜荀鹤结交张乔，进而成为朋友，互作诗歌。

晚唐时期还有一位与崔致远交好的诗人是罗隐。罗隐和顾云一样曾在高骈的幕府中，在顾云与罗隐一起创作的〈与罗隐互谑〉一文中有“隐与云同谒淮南相公高骈，高以云为人雅律，遂留云而远隐。”<sup>50)</sup>，这足以见得两人曾一起在高骈的幕府中，而且关系极好，以至于作诗以互谑。罗隐也曾创作一首〈送顾云下第〉<sup>51)</sup>来表达两人之间的友谊。所以通过顾云作为媒介，崔致远和罗隐得以相识，相识后，罗隐对崔致远的文采极为欣赏。金富轼在『三国史记』中就曾记载：

47) 乾符五年（878）至中和四年（884）由黄巢领导的民变，是王仙芝起义的后续。同时也是唐末民变中，历时最久，遍及最大，影响最深远的一场农民起义，最终导致唐国力大衰。

48) 杜荀鹤在〈秋日怀九华旧居〉一诗中有：“吾道在五字，吾身宁陆沉。凉生中夜雨，病起故山心。烛共寒酸影，蛩添苦楚吟。何当遂归去，一径入松林。”的记载，可作为其隐居在九华山的证据。

49) 杜荀鹤在〈维扬逢诗友张乔〉中有：“天下方多事，逢君得话诗。直应吾道在，未觉国风衰。生计吟消日，人情醉过时。雅篇三百首，留作后来诗。”的记载，可以看出两人之间的诗歌酬唱。

50) 顾云，〈与罗隐互谑〉，『全唐诗』卷871，台北：文史哲出版社，1978。

51) 罗隐，〈送顾云下第〉，『全唐诗』卷663，台北：文史哲出版社，1978。

始西游时，与江东诗人罗隐相知。隐负自高，不轻许可人。人示以公所制歌诗五轴，隐乃叹赏。又与同年顾云友善，将归，顾云以诗送别。<sup>52)</sup>

相传罗隐心高气傲，文采卓越，从不轻易佩服或者赞赏别人的才华，但是当他看到崔致远的〈五轴〉后，对崔致远赞叹不已，内心十分欣赏崔致远的才华。柳晟俊在「罗隐诗与新罗崔致远诗之关系」一文中认为崔致远与顾云、郑畋及裴澈等人有所往来，而顾云、郑畋及裴澈等人又与罗隐交好，所以这几位诗人之间的诗歌酬唱可以作为罗隐和崔致远相识的间接依据，同时其也认为罗隐或为崔致远之师。<sup>53)</sup> 综上所述，可以推断出罗隐与崔致远的关系。

上文可知，崔致远在中国留学做官期间，通过同在高骈幕府中的顾云，结交了杜荀鹤、张乔及罗隐等人。这几位晚唐时期的诗人通过与崔致远互作诗歌，肯定了崔致远的文学才华，也表达了对崔致远的欣赏。而这些诗歌可以为崔致远与晚唐诗人的往来提供可靠性的依据。根据上文可以知道晚唐时期在经历了安史之乱及黄巢之乱等大规模的起义和战争后，国家政权削弱，社会动荡不安，由于晚唐时期与东晋社会的风气十分相似，诸多诗人在无法实现自己的理想和政治抱负的情况下，开始学习陶渊明，杜荀鹤、张乔及罗隐几人便是其中的代表文人。而崔致远本身又十分好学，对中华文化十分仰慕，所以崔致远在和这些诗人的交往中，会无形地学习他们的创作手法以及思想情感。因此，崔致远可能从晚唐诗人那里间接地接受陶渊明，加之受到『文选』中陶渊明相关诗文的影响，使得其开始学习陶渊明，继而对陶诗进行受容。

#### 4. 崔致远对陶渊明的受容

上文我们探讨了陶渊明对作为媒介的杜荀鹤、张乔及罗隐几位诗人的影响以及他们与崔致远之间的关系，这些都为本文研究崔致远对陶渊明的受容

52) 金富轼, 「崔致远文集」, 『三国史记』卷46, 首尔:明文堂, 1986, p.715.

53) 柳晟俊, 「略论晚唐罗隐诗与崔致远诗之关系」, 『중국어문논총』, 제29집, 중국어문연구회, 2005, p.130-134.

情况提供了重要依据。那么崔致远是如何对陶渊明进行受容的呢？又如何 在诗文中体现对陶渊明的受容？从哪些方面对陶渊明进行受容？几位与崔致远 交好的晚唐诗人是否加深了崔致远对陶渊明的受容？这些都是本章节研究的 重点。

首先，我们需要明确的是，陶渊明的诗文是通过『文选』的传入，而被韩 国文人所熟知的。『文选』是何时以何种方式传入韩国的，本文不予探讨。但『 文选』在新罗时期的传播情况可以为崔致远对陶渊明的受容提供重要依据。因 此，下文将简单探讨一下『文选』在新罗时期的传播情况。

郑玉顺曾在其论文中论证了『文选』传入新罗时期的过程。<sup>54)</sup>其在论文中 指出，『三国史记』中的『强首传』中曾有关于新罗文学家强首在少年时学习『文 选』的记载。<sup>55)</sup>可见，当时『文选』已经成为文人们必学的书目。而据金富轼的 『三国史记』记载，新罗统一三国后，学习唐朝建立科举制度，新罗神文王二年 (682) 设置了“国学”，而『文选』便是当时“国学”的必读书目。<sup>56)</sup>元圣王四年 (788) 新罗实行读书三品科制度，而『文选』被选定为主要课程。同时三品科 制度分为上、中、下三品，而熟读『文选』的课程就是上品。<sup>57)</sup>可见『文选』在当 时的地位。所以，当时『文选』是官僚子弟们必须熟读的书目。到这里，可以看 出『文选』在新罗时期已经成为一种学习潮流，官宦子弟们欲入仕必先学习『文 选』，并且熟读『文选』中的诗文。出生在贵族家庭的崔致远必然也会接触到『文 选』，而收录在『文选』中的8首陶诗和〈归去来并序〉必定会被崔致远所读，为 崔致远对陶渊明的受容奠定了基础。

因此，崔致远在赴唐以前便接触到了陶渊明的诗文，之后又通过与几位

54) 郑玉顺, 『『文选』流传韩国考』, 『古籍研究』第2期, 1998, p.41-43.

55) 『三国史记』, 卷四十六中的〈强首传〉中说: “强首及壮, 自知读书, 通晓义理……遂就 师读『孝经』、『曲礼』、『尔雅』, 『文选』, 所闻随浅近, 所得愈高远, 魁然为一时之杰 ……”

56) 『三国史记』, 卷三十八中的〈官职上〉中有: “教授之法以『周易』、『尚书』、『毛诗』、『礼 记』、『春秋左氏传』、『文选』, 分而为之业, 博士若助教一人……”

57) 『三国史记』, 卷三中的〈新罗本纪〉中有: “四年春, 始定读书三品科以出身, 读『春秋 左氏传』, 若『礼记』、若『文选』, 而能通其义, 兼明『论语』、『孝经』者为上。”

晚唐诗人的交往，使得崔致远对陶渊明的认识更加深入，从单纯的喜爱陶渊明的诗风到追求陶诗中隐逸自然与高尚的气节品质。几位晚唐诗人就像催化剂一样加深了崔致远对陶渊明的认识。

上文中我们探讨了陶渊明对晚唐诗人的影响，而杜荀鹤等晚唐诗人作为桥梁，在崔致远和陶渊明的受容过程中起到了重要的媒介作用。崔致远在留唐期间以及回归新罗后创作的诗歌中，引用了很多与陶渊明相关的典故，通过陶渊明来抒发自己的气节及想要归隐的心愿。本章节根据上文的相关分析，总结出了崔致远对陶渊明的受容情况主要集中在两个方面，分别是“归去”及“气节”。下面，笔者就总结出的“归去”与“气节”两方面的受容情况进行说明。

### 1) 归去：从田园到青山

在陶渊明的诗文中被引用最多的便是其隐逸之趣，其“归去”思想一直是文人学习模仿的重点。首先，我们应该明确一点，陶渊明的“归去”主要集中在“归乡”、“归家”、“归田”以及“回归自然”这几个方面，而晚唐诗人人们对陶渊明“归去”思想的受容范围也集中在“归乡”、“归田”及“回归自然”这几个方面。崔致远的“归去”思想是在其仕途不顺，欲隐居之时产生的，在其仕途不顺之时，陶渊明“采菊东篱下，悠然见南山”的“归去”生活让崔致远产生向往，以至于崔致远晚年携全家隐居于伽耶山<sup>58)</sup>。其在隐居之时曾创作一首〈题伽佛山读书堂〉，此诗文在本质意义上对陶渊明的“归去”进行了受容，具体诗文如下：

狂喷叠石吼重峦，人语难分咫尺间。  
常恐是非声到耳，故教流水尽笼山。<sup>59)</sup>

此诗是崔致远在晚年创作的一首自然诗歌，其晚年由于官场失意，从而隐居于伽耶山。整诗呈现出一种高山流水之美，诗句壮丽豪放。“人语难分咫

58) 伽耶山位于韩国庆尚南道陕川郡伽倻面缙仁里。

59) 崔致远, 〈题伽佛山读书堂〉, 『崔文昌侯全集』卷1, 首尔: 大东文化研究院, 1972, p.27.

尺间”间接地表现出外界喧哗的“是非声”让人难以分辨对与错，而“常恐是非声到耳，故教流水尽笼山”是为了淹没外界的“是非声”（这里的“是非声”应该是指崔致远在官场所受到的不公与非议）从而提高了水声的强度，借助流水的力量将“是非声”隔绝在山外。整首诗透露出诗人对世俗之事充耳不闻的豁达态度，与陶诗中的“纵浪大化中，不喜亦不惧”<sup>60)</sup>所表达的豁达思想是一致的。崔致远仰慕陶渊明的人品，欣赏其诗文，所以晚年隐居于伽耶山，有感而发作下此诗。这里值得一提的是，虽然崔致远和陶渊明都选择“归去”，但二人“归去”的地方却不同。陶渊明选择的“归去”之地是“躬耕于田园”，而崔致远选择的“归去”之地则是“隐于青山”。两人选择“归去”之地的不同，是受当时社会风气影响的。关于这一点，张振亭曾在其论文中指出：“新罗时期的花郎们为了实现自己的理想，推崇‘相磨以道义，相悦以歌乐，游娱山水，无远不至’的修行方式。”<sup>61)</sup>同时，崔致远也曾在自己的〈鸾郎碑序〉中写道：“国有玄妙之道，曰‘风流’。”<sup>62)</sup>“风流道”不仅是三教圆融的和合精神，同时也是一种价值标准，意味着自由自在的“风流生活”，花郎们以诗、乐、酒等为精神媒介，畅游于山水中，感受山水之美，以达到一种身心的调和及精神的超脱，这一点和陶渊明“隐居田园，怡然自得”的精神内涵十分相似。由此可见，“游娱山水”已经成为当时新罗社会的一种风尚。所以，崔致远选择“青山”作为自己的“归去”之地是与当时的文化背景有所关联的。但无论是“田园”还是“青山”，都可以看出崔致远想要隔绝外界的非议，不问世事，寻找安静、闲适的隐居之地，以让自己的身心得到修行。

崔致远在另一首诗〈赠山僧〉中也表达了其“归去”的心志，在诗中所隐居的地方亦是“青山”。

60) 陶渊明, 〈形影神三首〉, 选自袁行霈撰, 『陶渊明集笺注 修订本』卷2, 北京: 中华书局, 2003, p.65.

61) 张振亭, 「崔致远与陶渊明的诗歌意象世界—两位孤独诗人穿越时空的心灵对话」, 『延边大学学报』第3期, 2007, p.52.

62) 崔致远, 〈鸾郎碑序〉, 『崔文昌侯全集』卷1, 首尔: 大东文化研究院, 1972, p.212.

僧乎莫道青山好，山好何事更出山。  
试看他日吾踪迹，一入青山更不还。<sup>63)</sup>

《赠山僧》是崔致远另一首描写自然山水风光的诗歌，这首诗承接上文中的《题伽耶山读书堂》一诗。诗中的“青山”便是“伽耶山”，也就是崔致远选择“归去”的地方。据『三国史记』记载，崔致远在厌倦官场后，与其家人隐居在伽耶山，和海印寺的定玄僧人结为道友。<sup>64)</sup>这首诗便是崔致远探望道友时所作的。诗文开头“僧乎莫道青山好，山好何事更出山”表明诗人本来对“青山”的美好并不感兴趣，但是诗的后两句情感急转而下，发生了变化，“试看他日吾踪迹，一入青山更不还”可以看出崔致远对“青山”的向往以及他对隐于“青山”的决心。从刚开始对“青山”的生活毫无兴趣，到“一入青山更不还”，这种心境的转变不仅是因为崔致远对当时社会环境以及政坛状况的失望，而且还反映了崔致远对世俗功利的厌倦，以及渴望追求内心的宁静与自由。

在崔致远『桂苑笔耕集』中也有关于‘隐于青山’相关的记载。

人间之要路通津，眼无开处；物外之青山绿水，梦有归时。<sup>65)</sup>

崔致远‘隐于青山’的行为可以说是他对人生态度的思考，对自我人格的沉淀。‘青山’即自然，这与陶渊明纵情于自然之乐的情趣也是一致的。纵观崔致远所作的诗文中，有很多描写自然景物的咏物诗及抒发自然山水之乐的诗文，这些诗文虽和陶诗没有过多关联，但是崔致远通过对陶渊明及其诗文的受容，或多或少地会受到影响，以至于其创作诗文的时候，将自我情感融入到自然山水中，无形之中受到了陶渊明的影响。其中《红叶树》便是一首描写自然景物的咏物诗。具体诗文如下：

63) 崔致远, 《赠山僧》, 『孤云先生文集』七言绝句, 首尔: 학예사, 1973, p.50.

64) 金富轼在『三国史记』中的《崔致远文集》中有:“最后带家隐伽耶山海印寺, 与母兄浮图贤俊及定玄师, 结为道友。栖迟偃仰, 以终老焉。”的记载。

65) 崔致远, 《再献启》, 『桂苑笔耕集』卷17, 首尔: 韩国古典翻译院, 2018, p.268.

白云岩畔立仙姝，一簇烟萝倚画图。  
 丽色也知于世有，闲情长得似君无。  
 宿妆含露疑垂泣，醉态迎风欲待扶。  
 吟对寒林却惆怅，山中犹自辨荣枯。<sup>66)</sup>

此诗通过对“仙姝”的描绘，表达了诗人对自然之美的歌颂以及对生命荣枯的感慨，同时也暗含着诗人自我情感的投射，使得整首诗既具有自然之美，又富有深沉的自我情感。诗人把自我情感融入诗中，通过对“仙姝”的描写，抒发了对生命繁荣与凋零的感叹。可以说是将自山水之乐升华到了情感层面，富有哲理，耐人寻味。

除此之外，崔致远还有很多描写自然山水之美的诗文，如，〈春日，邀知友不至因寄绝句〉<sup>67)</sup>、〈石峰〉<sup>68)</sup>、〈赠金川寺主〉<sup>69)</sup>等都是其描写自然山水的佳作。

上述可知，无论是〈题伽倻山读书堂〉、〈赠山僧〉还是其他描写自然之美的诗文，都表达了崔致远欲“归去”，想要沉浸于自然的心志及对世俗的厌倦。崔致远在“归去”上对陶渊明的受容情况，从二人生活的时代背景上来看，崔致远生活的时代和陶渊明一样，都处于易代之际。新罗末期的动荡不安以及王权更迭让崔致远产生了想要“归去”的想法，而东晋时期的陶渊明也亦是如此。从思想内容上来看，其“隐于青山”的行为好比陶渊明“躬耕田园”，通过隐居来修炼自己的人格。同样受到儒家教育的二人，秉承着“达则兼济天下，穷则独善其身”的原则，以“老庄”的无为思想以自慰，隐居于山林，寻求精神上的解放及心灵上的自由。

66) 崔致远, 〈红叶树〉, 『桂苑笔耕集』卷20, 首尔: 韩国古典翻译院, 2018, p.332.

67) 徐居正, 〈春日, 邀知友不至因寄绝句〉, 『(국역)동문선』(二), 서울: 민문고, 1989, p.370.

68) 崔致远, 〈石峰〉, 同上, p.330.

69) 徐居正, 〈赠金川寺主〉, 同上, p.370.

## 2) 气节：淡泊名利与安贫乐道

陶诗中淡泊名利以及安贫乐道的气节一直被历代文人所称赞，杜荀鹤的“好继高踪结草堂”、罗隐的“千枝白露陶潜柳”，都是对陶渊明高尚气节进行赞美的诗句，而崔致远也不例外。观察崔致远与陶渊明相关的诗文中，其对陶渊明的气节十分赞赏，以至于在诗文中常引用陶渊明及其典故来表达自己淡泊名利、安贫乐道的气节。其在留唐期间的所作的〈和李展长官冬日游山寺〉就可以看出。

暂游禅室思依依，为爱溪山似此稀。  
 胜境唯愁无计住，闲吟不觉有家归。  
 僧寻泉脉敲冰汲，鹤起松梢摆雪飞。  
 曾接陶公诗酒兴，世途名利已忘机。<sup>70)</sup>

金宽雄、金东勋在他们合著的书中提到此诗是证明陶渊明诗文在新罗末期已经传到朝鲜的最早资料。<sup>71)</sup>虽然之前通过『文选』的传入，很多新罗文人已经或多或少地接触到了陶渊明的诗文，但是直接对陶渊明进行受容，并创作诗文的，崔致远可以说是第一人。崔致远学习陶诗的写作风格，把“诗”和“酒”的意象联系在一起，颇有陶诗的韵味。通过崔致远的诗让新罗末期的文坛认识到了陶渊明，让陶渊明站上了韩国汉文学的舞台，这首诗也标志着陶渊明文学在韩国的诞生。在崔致远看来，“世途名利已忘机”的陶渊明是一位不贪图世俗名利的高洁之人，陶渊明不与世俗同流合污的气节以及归隐后安贫乐道的田园生活让崔致远十分向往，“曾接陶公诗酒兴，世途名利已忘机”一句直接点明了崔致远对陶渊明的崇拜以及仰慕，可见陶诗为崔致远提供了很多创作灵感。

崔致远回到新罗，在历经新罗王朝的政权交替后，目睹了没落的新罗王

70) 崔致远, 〈和李展长官冬日游山寺〉, 『崔文昌侯全集』卷1, 首尔: 大东文化研究院, 1972, p.207.

71) 金宽雄·金东勋, 『中朝古代诗歌比较研究』, 黑龙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5, p.67.

朝以及官场的黑暗，他亦想为国尽忠，于是向新罗国王献上治国之策，但最终未被采纳，还遭到了贬官。崔致远在郁郁寡欢之下，创作了〈途中作〉这首诗，具体诗文如下：

东飘西转路歧尘，独策羸骖几苦辛。  
不是不知归去好，只缘归去又家贫。<sup>72)</sup>

上文的〈和李展长官冬日游山寺〉与其说是在诗句上对陶渊明的受容，〈途中作〉一诗可谓是从诗的思想内容上对陶渊明的受容。整首诗用淳朴自然的诗句表达了崔致远选择入仕的原因，那便是“家贫”以及“无归处”。崔致远因为自己贫困的处境，不得已而入仕做官，这与崔致远“本求食禄非求利，只为荣亲不为身”<sup>73)</sup>的思想是一致的。这种思想正好与陶渊明的“既自以心为形役，奚惆怅而独悲”<sup>74)</sup>为了免于饥寒违背自己的意志而入仕的思想是契合的。在温饱面前，气节固然重要，但是单凭一身傲骨并不能解决现实问题，所以诗人才会对是否“归去”犹豫不决，但诗人又希望保持自己的气节，不被世俗所胁迫，在矛盾的心理下发出了“不是不知归去好，只缘归去又家贫”的感慨，这一点也和为解决温饱问题而出仕的陶渊明的人生境遇十分相似。

其另一首诗文〈春晓偶书〉中也有诗句体现了崔致远淡泊名利的情怀。

叵耐东流水不回，只催诗景恼人来。  
含情朝雨细夏细，弄艳好花开未开。  
乱世风光无主者，浮生名利转悠哉。  
思量可恨刘伶妇，强劝夫郎疏酒杯。<sup>75)</sup>

72) 崔致远, 〈途中作〉, 『崔文昌侯全集』卷1, 首尔: 大东文化研究院, 1972, p.25.

73) 崔致远, 〈陈情上太尉诗〉, 『桂苑笔耕集』卷20, 首尔: 韩国古典翻译院, 2018, p.327.

74) 陶渊明, 〈归去来兮辞〉, 选自袁行霈撰, 『陶渊明集笺注 修订本』卷4, 北京: 中华书局, 2003, p.452.

75) 崔致远, 〈春晓偶书〉, 『孤云集』, 卷1, 首尔: 韩国古典翻译院, 2009, p.178.

“乱世风光无主者，浮生名利转悠哉”在动荡不安的时代中，没有人能够真正主宰风光与荣耀，人们在浮生中为了名利而不断奔波，但诗人却认为这些名利都是短暂而且虚幻的，体现出了诗人对世俗名利的思考以及自己淡泊名利的心志。纵观崔致远的其他作品，还可以发现一些与陶渊明相关的内容。如，收录在『桂苑笔耕集』中的〈长启〉中就有如下记载：

岂料太尉相公回垂奖怜，便署职秩，迹趋郑驿，身寓陶窗，免忧东郭之贫，但养北宫之勇。<sup>76)</sup>

崔致远在年幼时以布衣的身份前往中国学习，学成归国后，并没有受到当时新罗朝廷的重视，为了提升自己，崔致远决定隐居山林，不问世事。但隐退后的生活却因为微薄的俸禄难以糊口，即使面对这样的困境崔致远仍然乐于安贫乐道，保持超然的气节。他在诗文中引用郑驿<sup>77)</sup>、陶渊明、东郭履<sup>78)</sup>以及北宫黜<sup>79)</sup>等人的典故，通过这几人来表现自己的坚定意志。即使身处困境，惨遭贬官，依旧能够坚守自己的气节，恪尽职守。文中的“身寓陶窗”便是引用了陶渊明的诗句“五六月中，北窗下卧，遇凉风暂至，自谓是羲皇上人。”<sup>80)</sup>这里的“羲皇”便是伏羲。伏羲是中国古代贤明的国王和君主，他代表着远古时代淳朴自然的生活状态，这里诗人引用陶诗中伏羲的典故，是为了表达自己脱离世俗，追求宁静，自然闲适生活的心志。诗人在文章中引用郑驿的典故，是因为崔致远曾被任命为馆驿巡官，而郑驿在孝景帝时，曾作为太子舍

76) 崔致远，〈长启〉，『桂苑笔耕集』卷18，首尔：韩国古典翻译院，2018，p.284.

77) 『列传史记』卷130中的〈郑当时〉中有：“孝景时，为太子舍人。每五日洗沐，常置驿马安诸郊，存诸故人，请谢宾客，夜以继日，至其明旦，常恐不遍。”

78) 『史记』卷126中的〈滑稽列传〉中有：“东郭履，被称为东郭先生，其鞋子有上无下，行走雪中，脚板踏地。”的记载，后遂以“东郭履”来形容谓穷困潦倒的处境。

79) 北宫黜，战国时齐国勇士。『孟子』〈公孙丑上〉中记载：“北宫黜之养勇也，不肤，不目逃。思以一豪挫于人，若挞之于市朝。”这里引用北宫黜的典故来形容诗人坚定不移的意志。

80) 陶渊明，〈与子俨等疏〉，选自袁行霈撰，『陶渊明集笺注 修订本』卷7，北京：中华书局，2003，p.519.

人, 常置驿马于长安诸郊, 以存问故人, 接待宾客, 表示自己的好客好学。两人有着相同的官职经历, 即使身居下位, 依旧能恪尽职守, 保持作为官员的本心。而引用东郭履是为了说明其虽身心处境艰难, 但依然能够像北宫黝一样保持一颗“不动心”, 强调诗人自己的坚定意志。崔致远通过引用众多典故来表达自己的心境, 即使身在困境中, 贫困潦倒, 但自己那傲世的情怀依旧不可动摇。陶渊明的诗以及坚毅的气节给予崔致远无限的勇气, 为他安心归隐的提供了动力。

另一首收录在『桂苑笔耕集』中的〈前宣州当涂县令王翱摄杨子县令〉也有与陶渊明相关的记载, 如下:

前件官相门积庆儒室推贤, 早登廉孝之科, 尝历句稽之任, 虽栖下位, 不坠令名, 果逢连帅之知, 再假字人之秩, 雉谁忍捕, 鹊自停喧, 陶潜之腰腹暂口, 孔奋之膏腴不润。<sup>81)</sup>

崔致远在文中引用陶渊明与孔奋<sup>82)</sup>的例子来证明自己的心志。即使身居下位也不能忘记自己的职责, 用陶渊明“不为五斗米折腰”的气节以及孔奋“脂膏不润”的品格来表明自己恪尽职守, 不慕名利, 亦欲为国尽忠的理想。崔致远必定是受到了陶渊明人品的影响, 所以才会的诗文中引用陶渊明来表达自己的心志。

陶渊明年轻时曾以“孤云”<sup>83)</sup>自比, 崔致远则自号“孤云”。“孤云”一词清高孤傲, 便可看出二人的气节操守。陶渊明曾任职彭泽县令, 因不满官场黑暗, 为保持气节而愤然辞官归田。崔致远自任太守, 亦因不满朝政腐败, 晚年

81) 崔致远, 〈前宣州当涂县令王翱摄杨子县令〉, 『桂苑笔耕集』卷13, 首尔: 韩国古典翻译院, 2018, p.210.

82) 孔奋是东汉初年的官员, 其在富裕的县城“姑臧”担任了四年的县官, 每一任在此当官的官员, 没几个月便富起来了, 但是孔奋在此任职四年, 财产却一点儿也没增加。其生活极俭, 奉行着为官清廉之道。汉代刘珍在其〈东观汉记·孔奋〉中记载: “直脂膏中, 亦不能自润。”后世使用孔奋斗“脂膏不润”的典故来形容为官清廉。

83) 陶渊明的〈咏贫士·万族各有托〉中有诗句“万族各有托, 孤云独无依”, 在诗中陶渊明以“孤云”自称。

携全家隐居于俚仰山。两人都因不满现实环境的黑暗，为保持自己的气节而隐居山林，过着悠然自乐的生活。因此，从中我们不难发现陶渊明的创作、人品以及气节对崔致远的影响。<sup>84)</sup>

从上文的分析中，我们可以看出，崔致远的生活方式以及文学创作等都受到了陶渊明的影响。年幼的崔致远孤身一人前往中国留学，难免会孤独失意，而杜荀鹤、张乔等晚唐诗人进入崔致远的生活后，使其遣唐生活变得富有乐趣。而在与杜荀鹤等晚唐诗人的往来中，其必定会接触到陶渊明及其诗文，陶渊明诗文中安贫乐道、淡泊名利的气节及纵情于山水的豁达心态给予崔致远很多启发，而陶渊明“不为五斗米折腰”的气节更是给予他很大的精神力量。面对归国后新罗王朝的动荡不安以及官场的腐败黑暗，崔致远彻底失望，对于有着同样经历的陶渊明产生仰慕之情，以至于用陶渊明及其诗文典故来托物言志。

## 5. 结论

陶渊明和崔致远两人生活的年代虽相距久远，但来自不同国家，不同时代的两人却有着相似的生活经历及人生的感悟。崔致远在年幼时前往中国学习，在中国生活的过程中结识了杜荀鹤、张乔以及罗隐等晚唐文人，一心求学的崔致远在与他们往来的过程中，互作诗歌酬唱，学习他们的诗歌风格以及情感表达。而杜荀鹤、张乔等晚唐文人亦属于易代之际的文人，晚唐时期的动荡不安，让他们急于寻求心灵上的避世之所，加之唐朝时期陶渊明诗风的盛行，这让他们对陶渊明产生了兴趣，因此学习陶诗，感悟陶诗，引用陶诗中的典故来托物言志。陶诗中的归隐生活以及陶渊明的人格气节都让他们十分欣赏。崔致远在与几位晚唐诗人的诗歌酬唱过程中，也会汲取他们对陶渊明受容的部分，这也就搭建起了崔致远和陶渊明两人跨越时空的联系。

崔致远对陶渊明的受容不仅局限于其“归去”思想的受容，对其“气节”方面

84) 钟优民,『陶学发展史』,长春:吉林教育出版社,2000,p.421.

也进行了受容, 而“归去”和“气节”也是陶渊明影响晚唐诗人重要方面。通过上文的论证, 可以总结出崔致远对陶渊明受容的最大特点就是间接性以及朦胧性, 这种特点体现在崔致远是通过几位晚唐诗人或者『文选』中陶渊明的诗文对陶渊明进行受容。但是, 这种间接性使得其受容特征并不是很明显, 仅仅局限于以陶渊明的形象自喻或者引用陶诗中的典故, 并没有创造“和陶词”或者“和陶诗”。但从文学发展史的角度来说, 研究崔致远对陶渊明的受容情况, 对研究陶渊明诗文在韩国汉文学史上的整体受容具有重要的意义, 为后来的学者研究高丽时期、朝鲜时期陶渊明文学在韩国的受容情况提供一些可参考性的依据, 这也是本文的目的。

## ◆ 参考文献

### 1. 资料

- 安鼎福, 『(国译)东史纲目』, 首尔: 민문고, 1989.
- 陶渊明, (袁行霈撰), 『陶渊明集笺注 修订本』, 北京: 中华书局, 2003.
- 李奎报, 『白云小说』, 首尔: 同和出版社, 1985.
- 刘加夫等人, 『隋唐五代卷—中国文学编年史』, 湖南: 湖南人民出版社, 2006.
- 金富轼, (金钟权译), 『三国史记』, 首尔: 明文堂, 1986.
- 计有功, 『唐诗纪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 徐居正, 『(国译)东国通鉴』, 首尔: 世宗大王纪念事业会, 1996.
- , 『(国译)东文选』, 首尔: 민문고, 1989.
- 张基樞, 『论语』, 首尔: 平凡社, 1976.
- 周勋初, 『唐诗大辞典·修订本』, 上海: 江苏古籍出版社, 1990.
- 圣祖, 『全唐诗·清圣祖御定』, 台北: 文史哲出版社, 1978.
- 崔致远, (崔秉准校点), 『桂苑笔耕集』, 首尔: 韩国古典翻译院, 2018.
- , (李尚贤译), 『孤云集』, 首尔: 韩国古典翻译院, 2009.
- , 『孤云先生文集』, 首尔: 학예사, 1973.
- , 『崔文昌侯全集』, 首尔: 成均馆大学大东文化研究院, 1972.
- 司马迁, (洪锡宝译), 『史记列传』, 首尔: 三星文化财团, 1978.
- 王溥, 『唐会要』, 北京: 中华书局, 1955.

## 2. 单行本

金宽雄·金东勋, 『中朝古代诗歌比较研究』, 黑龙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5.  
钟优民, 『陶学发展史』, 长春: 吉林教育出版社, 2000.

## 3. 论文

당은평·민경삼, 「东国文学之祖崔致远与唐末文人交游考述」, 『중국어문논총』 제25집, 중국어문연구회, 2003, pp.253-272.  
두여웅, 「新罗下代 渡唐留学生 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박병선, 「唐代 韩中 文人の 교류에 관한 연구 — 东国文宗 崔致远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46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pp.441-470.  
柳晟俊, 「略论晚唐罗隐诗与崔致远诗之关系」, 『중국어문논총』 제29집, 중국어문연구회, 2005, pp.129-145.  
임원빈, 「杜荀鹤 诗歌에 나타난 心理世界」, 『中国语文论译丛刊』 제16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05, pp.179-203.  
杜雨芹·段莉萍, 「论杜荀鹤送别诗」, 『牡丹江大学学报』 第11期, 2019, pp.66-68.  
黄哲, 「陶渊明对晚唐诗的影响」, 『重庆科技学院学报』 第2期, 2013, pp.138-139.  
张振亭, 「崔致远与陶渊明的诗歌意象世界——两位孤独诗人穿越时空的心灵对话」, 『延边大学学报』 第3期, 2007, pp.50-55.  
郑玉顺, 「『文选』流传韩国考」, 『古籍研究』 第2期, 1998, pp.41-46.  
任冬青, 「晚唐诗人张乔考述」, 『古籍整理研究学刊』 第5期, 2018, pp.68-71.  
崔雄权, 「接受的先声: 陶渊明形象在韩国的登陆」, 『东疆学刊』 第2期, 2007, pp.23-28.  
\_\_\_\_\_, 「崔致远对陶渊明形象的文化解读」,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 第2期, 2008, pp.120-123.

논문접수일	2024년 8월 10일
심사완료일	2024년 9월 2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9일

*Abstract*

A New Exploration of Korean Scholars' Reception of Tao Yuanming  
 -A Study Centered on Choi Chi-won-

Zhang, Yang

Tao Yuanming, Choi Chi-won, Late Tang Poets, Contentment in Poverty and Pursuit of the Way, Reclusiveness and Nature, Indirect Reception. This paper primarily explores the reception of Tao Yuanming, a Chinese poet of the Eastern Jin period, by Choi Chi-won, a scholar from the late Silla period. The two poets share many similarities in their life experiences, spiritual pursuits, and poetic creations, which are reflected in Choi Chi-won's poetry. Previous research indicates that Choi Chi-won had multiple pathways of indirect reception of Tao Yuanming's works.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oi Chi-won's reception of Tao Yuanming from a new perspective. Choi Chi-won, who studied in the Tang Dynasty as a foreign student, interacted with many contemporary literati, thereby inevitably being influenced by their poetic styles.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rocess of poetic exchange between Choi Chi-won and late Tang poets such as Zhang Qiao, Du Xunhe, and Luo Yin, exploring Tao Yuanming's influence on late Tang poets and ultimately investigating Choi Chi-won's reception of Tao Yuanming. Understanding Choi Chi-won's reception of Tao Yuanming will contribute to the study of the transmission of Tao Yuanming's literature in Korea and the reception of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by Choi Chi-won.

**Keyword**

Tao Yuanming, Choi Chi-won, Return, Late Tang Poets, Reclusiveness and Nature, Contentment in Poverty and Pursuit of the Way

# 艷情詩와 晚唐 艷情詩의 여성형상

- 혼용된 체제 속에서의 문학적 분석 -

배경진\*

## 국문요약

본 연구는 艷情시와 만당 艷情시의 여성 형상에 대한 문학적 분석을 통해 혼용된 체제 속에서의 문학적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艷情시는 애정시와 궁체시와 교집합을 이루며 다양한 문체적 특징을 보여왔다. 그래서 이러한 혼용된 체제 속에서 艷情시의 고유한 특질을 도출하고, 문학적,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艷情시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艷情시가 다양한 남녀 간의 관계와 감정을 포착하는 문학적 장르임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남조 궁체시의 성행과 당대 艷情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두 시기 문학의 교집합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만당 艷情시에 나타난 여성 형상을 의인법, 신화 전설의 전고, 신체어 등의 여성 묘사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혼용된 체제 속에서 艷情시의 특징을 밝히고, 중국 문학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만당(晚唐), 艷情시, 애정시, 궁체시, 여성형상

## 〈목차〉

1. 들어가는 말
2. 艷情詩의 개념과 특징
3. 艷情詩와 愛情詩
4. 宮體詩에서의 艷情的 특징
5. 晚唐 艷情詩에서 나타난 여성 형상
6. 맺는말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 1. 들어가는 말

艷情詩는 艷體詩 혹은 艷詩라고도 불린다. 『詩經』에서부터 염정적인 묘사로 이어져온 염정시는 齊와 梁 시기에 이르러 宮體詩와 같은 혈통 속에서 형성되었다. 제량 시기 궁체시가 흥성한 이후, 잠시 주춤했었던 염정시는 중당부터 다시 활발해져 만당 시기에는 그 문학적 절정을 이루었다.

만당 시기의 염정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체로 주목받았으며, 당시 문인들의 섬세한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반영한다. 唐代의 과거시험, 특히 進士科는 문인들의 문학적 소양을 평가하는 중요한 제도로, 시문을 통한 창작 능력이 중시되었다. 이로 인해, 연회에서 읊는 즉흥적인 시조차도 뛰어난 문예적 감각이 발휘되었다.

그러나 염정시는 그 문예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통 유교 사상의 ‘詩言志’ 관점에서 외설적이고 음란한 표현으로 간주되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교적 시각에서 시는 도덕적 교훈을 전달해야 한다고 보았기에, 염정시의 예술적이고 유희적인 가치는 종종 간과되었다. 그러나 염정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사실적이고 솔직하게 묘사하며, 여인의 아름다움을 요염하게 그려내는 문학적 예술미를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염정시는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을만하다.

염정시는 때로 愛情詩나, 宮體詩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염정시만의 독특한 문학적 특징이 존재한다. 특히, 염정시는 애정시보다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에 중점을 두며, 궁체시와는 또 다른 정서를 담고 있다. 염정시는 남녀 간의 사랑뿐 아니라 다양한 감정과 아름다움을 묘사하며, 문학적 예술성을 극대화해 왔다.

본 연구는 염정시가 단순히 세속적인 시로 치부되기보다는 그 문학적 가치와 예술적 특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염정시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고, 愛情詩와 宮體詩와의 비교를 통해 염정시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염정시가 크게 흥성했던 만당 시기 염정시에 나타난 여성 형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의인법을 통한 영물시의 艷

情化, 신화 전설 속 典故를 통한 여인의 신격화, 신체어를 통한 미인의 형상화라는 여성 형상 묘사 기법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는 艷情시의 문학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중국 문학사에서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해 보고자 한다. 또한 艷情시의 독특한 표현 기법과 예술미를 재조명함으로써, 현대 문학 연구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艷情詩의 개념과 특징

艷情詩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艷’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艷(러브 레터), 艷聞(남녀 간의 스캔들)과 같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艷은 남녀 간의 연애나 정사를 나타낸다. 그러나 艷은 단순히 외설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국 고전 문학에서 소박한 美에서 화려한 美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발전해 왔다.

중국 고전 문학에서 艷情시는 시문학의 한 체제로 자리 잡았다. 艷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艷情시는 齊·梁 시기 宮體詩와 같은 문학적 배경을 공유하면서 唐代에 이르러 남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여성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시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艷情시의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艷’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艷’은 豔이나 豔으로도 표기되며, 『說文解字』에서는 “좋고 풍성한 것”이라 정의되어 있다. 또한, 『春秋傳』에서는 “아름답고 곱다”<sup>1)</sup>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크고 화려한 미적 가치를 내포한다. 이처럼 艷은 풍부하고 아름다운 것을 뜻하며, 꼭 여성에게만 한정된 표현은 아니다.

처음에는 楚歌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던 艷은, 문학에서 점차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남녀의 사랑을 묘사하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左思의 「吳都賦」 중 “荊豔楚舞”<sup>2)</sup>라는 구절에서 豔(艷)은 楚歌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1) 好而長也。从豐。豐，大也。奩聲。『春秋傳』曰：“美而豔。”許慎，『說文解字』，北京：中華書局，1963，p.103.

南朝 梁 元帝 蕭綽의 『纂要』에서도 “楚歌曰艷”<sup>3)</sup>이라 하며 楚歌를 艷이라고 규정했다.<sup>4)</sup> 그 당시 艷에 해당하는 초기는 애절하고 서정적인 색채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음악이었다. 그러나 艷曲이나 艷歌는 후에 음란하고 저속한 亡國之音으로 간주되며, 哀艷, 俗艷, 妖艷 등과 같은 비평 용어로 발전하였다.

염정사에서 ‘艷’의 사용은 처음 『詩經』에서 나타난다. 『詩經·小雅·十月之交』에서는 “아름다운 부인(艷妻)”<sup>5)</sup>이라는 표현을 통해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였으며,<sup>6)</sup> 이는 후대에 이르러 미인의 외모를 나타내는 주요 용어로 자리 잡았다. 또한 『楚辭·招魂』에서의 “艷陸離些”는 아름다운 용모를 나타내는 예로,<sup>7)</sup> 艷은 중국 고전 문학에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었다.

염정사에서 ‘艷’은 단순히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체를 의미하는 비평 용어로도 쓰였다. 예를 들어, 晉代 範寧은 『春秋穀梁傳』序에서 『左傳』에 대해 “左氏は 아름답고 화려하다”<sup>8)</sup>라 하였는데, 여기서 艷은 문체의 외적 형식이 화려하고 풍성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평 용어로서의 艷은 염정시의 문사적 특징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艷情의 字意를 살펴보면, 艷은 시의 외형적이고 화려한 표현 기교를 의미하며, 情은 남녀의 사랑이나 서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즉, 艷情詩는 화려한 문체와 수사적 기교로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한 시이다. 이때 艷은 외적인 수사

2) 李善의 注: “豔, 楚歌也。” 豔은 豔으로도 쓴다. 蕭統編, 李善注, 『文選』卷五,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p.231.

3) 徐堅等編, 『初學記』卷一五, 北京: 中華書局, 2004, p.376.

4) “艷”本為楚國一種歌曲的名稱。這種歌曲也被稱為艷曲或艷歌。康正果, 앞의 책, p.133.

5) 艷妻嬭方處。程俊英譯注, 『詩經·小雅』,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p.295.

6) “毛傳”에서는 이 부분의 艷을 美色으로 설명했다. 美色曰艷。段玉裁, 『說文解字注』, 北京: 商務印書館, 1988, p.80.

7) 王逸은 艷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석했다. 艷, 好貌也。洪興祖撰, 白化文等点校, 『楚辭補注』, 北京: 中華書局, 1983, p.210.

8) 左氏艷而富。範寧集解, 楊士勛疏, 『春秋穀梁傳註疏』卷一,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p.11.

기교를, 情은 내용적인 감정 요소를 대표한다.

韋毅은 唐代 艷情시를 선별하여 『才調集』에 수록하였는데, 이 선집의 이름인 ‘才調’는 재능 있는 문인(才人)이 아름답고 섬세한 정서를 표현한 시라는 의미에서 지어졌다. 艷情시 창작은 주로 당대 과거에 급제한 進士科 엘리트들, 이른바 才人이라 불리는 글재주가 있는 문인들이 연회나 모임에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희를 즐기며 시를 서로 주고받거나 개인의 감상을 읊곤 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艷情시가 창작되며 크게 유행하였다. 이들의 艷情시에는 여인에 대해 화려하고 아름답게 묘사되거나, 남녀의 애정 혹은 남녀 사이의 일들, 더 나아가 색정까지도 사실적이며 솔직하게 표현되었는데 이것이 艷情시의 내용적 특징이 된다. 이러한 내용적 특징과 더불어 외적인 특징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文彩로 서정적 情調까지 담아낸 시를 艷情시라 규정해 본다.

### 3. 艷情詩와 愛情詩

艷情詩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辭源』에서는 艷情시를 “애정을 제재로 한 시”<sup>9)</sup>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現代漢語詞典』에서는 “옛날 남녀의 사랑을 전문적으로 묘사한 시”<sup>10)</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艷情시와 愛情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艷情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愛情시와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艷情시와 愛情시를 구분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吳調公은 『李商隱研究』에서 唐代 文人과 女冠의 시를 두고 “일부는 愛情시와 艷情시”<sup>11)</sup>라고 구분했으나, 구체적으로 그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아쉬움을 남긴다.

---

9) 艷詩，以愛情為題材的詩。商務印書館編輯部，『辭源』，上海：商務印書館，1987，p.3419.  
 10) 艷詩，舊時指專門描寫男女愛情的詩。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現代漢語詞典』，上海：商務印書館，1997，p.1452.  
 11) 詩人和女道士唱和以及女道士生活為題材的作品，不是個別的，而其中有一部分是愛情詩和艷體詩。吳調公，『李商隱研究』，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2，p.105

그동안 염정시의 정의를 내리기 위한 학계의 논의는 지속되었다. 康正果는 『風騷與艷情』에서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남녀관계가 혼외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염정시를 특징짓기도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고대인들은 부부의 사랑 외에 각종 형태의 남녀 사이의 사랑을 艷情으로 통칭하였는데, 이를 묘사한 시가 염정시이다”<sup>12)</sup>

이는 “부부가 아닌 남녀 간의 사랑”을 강조하는 견해<sup>13)</sup>로, 염정시가 봉건사회의 도덕적 제약을 벗어난 혼외의 사랑을 다룬다고 본 것이다.<sup>14)</sup> 文航生 또한 「晚唐艷詩概述」에서 부부의 사랑을 포함하지 않은 혼외의 사랑을 염정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는 염정시를 애정시의 일부로 포괄해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수 있다.

“사랑을 제재로 한 애정시는 포괄되는 종류가 비교적 다양하다. 예컨대 戀歌, 閨怨, 婚別, 寄內, 悼亡, 思婦, 棄婦 등의 내용이 애정시에 포함된다. 그러나 염정시는 표면적으로 애정시 보다는 작은 개념으로 寄內, 悼亡 등 부부의 정을 묘사한 시는 포함되지 않는다.”<sup>15)</sup>

康正果와 文航生은 둘 다 부부의 사랑을 포함하지 않은 혼외의 사랑을 염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애정시와 염정시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康正果는 남녀 간의 관계가 혼외적인지 여부를 염정시의 주요 특징으로 보며, 부부 이외의 남녀 관계를 염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12) 在古代，人們把夫婦情愛以外各種形態的男女戀情泛稱為“艷情”，把寫艷情的詩篇稱為“艷情詩”。康正果，『風騷與艷情』，上海：上海文藝出版社，1988，p.152.

13) 文航生，「晚唐艷詩概述」，『四川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四川：西華師範大學，1996，p.7.

14) 錢鍾書，『宋詩選注』，上海：三聯書店，2002，p.8.

15) 愛情詩當然是指以愛情為題材內容的詩歌，它在文學史上包括的種類較多，如戀歌、閨怨、婚別、寄內、悼亡、思婦、棄婦等類詩，都可歸屬愛情詩。文航生， 앞의 논문， pp.7-8.

그의 관점에서는 염정시는 부부 관계를 벗어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시로 이해된다. 文航生은 애정시를 더 넓은 개념으로 보고, 그 중에서 염정시를 구분한다. 그는 애정시가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포함한다고 보며, 염정시는 그 중에서도 특히 혼외의 사랑을 다루는 시로 정의한다. 이는 염정시를 애정시의 하위 범주로 보는 견해이다. 文航生의 견해에 따르면, 염정시는 애정시보다 좁은 개념이며, 부부의 사랑을 다루는 시는 염정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楊柳는 『李商隱評傳·艷情詩』에서 염정시의 범위를 더 넓게 보았다. 그는 염정시에 대해 “이 책에서 말하는 염정시는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하다. 그 중 진실되고 순수한 애정시가 있는가 하면 또한 봉건사회 사대부 계층들이 연회석에서 창작한 화류계의 농담이나 기생과의 일탈을 묘사한 작품도 포함된다.”<sup>16)</sup>고 설명했다. 이는 염정시가 진실되고 순수한 애정시와 함께 연회석에서 창작된 유희적인 작품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염정시와 애정시의 범위를 정의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 고전 염정시에서는 사랑의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 단순히 혼인 여부나 사랑의 대상에 따라 염정시를 정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염정시는 혼외의 사랑을 다루는 시를 넘어, 다양한 남녀 간의 관계와 감정을 포착하는 문학적 장르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애정시와 염정시를 명확히 구분하기보다는, 두 장르의 공통점 속에서 염정시만이 가진 문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염정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독자적인 문학적 가치를 형성해왔는지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 4. 宮體詩에서의 艷情的 특징

염정시는 애정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궁체시와도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궁체시가 궁정문학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지만, 염정시의 짙은 색채를

16) 本書所談的艷情詩，範圍較廣泛，其中既有真誠純潔的愛情詩，又包括描寫封建社會士大夫階層飲席宴會中創作的冶遊戲謔，狎妓狹邪之作。楊柳，『李商隱評傳』，江蘇：人民出版社，1981，p.334.

나타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궁체시와 염정시는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교차를 통해 시단의 유행과 맞물려 발전해 왔기 때문에, 혈통이 같다고 하는 것이 더 유연하다. 그 이유는 중국 고대 시에서 염정의 표현 기법들이 긴 연원을 가지고 있으며, 궁체시가 남조에서 궁정 문학으로서 특유한 흐름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궁체시와 염정시를 혼용해서 보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는 틀리지 않지만, 왜 혼용될 수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궁체시의 정의를 면밀히 살펴보고, 궁체시와 염정시가 왜 서로 혼용되었는지, 어떤 염정적 특징이 궁체시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궁체시는 남조 梁 簡文帝 때부터 시작되었다. 宮體의 宮은 東宮을 가리키며, 簡文帝가 태자 시절에 거처했던 곳에서<sup>17)</sup> 유래되었다. 宮體는 簡文帝나 昭明太子 등 왕족을 중심으로 한 궁정문학이다. 주로 궁정에 있는 귀족 여성들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한 작품들이 많다. 『梁書·簡文帝紀』에서는 궁체시를 “가볍고 염려(輕艷)함으로 시를 해치는 것”<sup>18)</sup>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궁체의 풍격이 가볍고 염려(輕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梁書·徐摛傳』에서는 徐摛의 시 창작에 대해 “새로움을 좋아하여 옛 체식에 구애받지 않는다.”<sup>19)</sup>라고 묘사하고 있다. 東宮에서도 그의 독특한 문체를 따라 배웠으며, 이를 宮體라 불렀다.<sup>20)</sup> 徐摛는 궁체의 창시자로서 “새로운 변화(新變)”를 추구했으며, 이는 당시 기존의 형식과 다른 새로운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隋書·經籍志』에 蕭綱의 시에 대해 평가한 부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梁 簡文帝가 동궁에 있을 때, 시를 짓는 것을 좋아했다. 청신한 말로 기교를

17) 楊明, 「宮體詩評價問題」, 『復旦學報』 第5期, 上海: 復旦大學, 1988, p.46.

18) 傷於輕艷, 當時號曰“宮體”。 姚思廉, 『梁書·本紀』 第四, 北京: 中華書局, 1973, p.107.

19) 『梁書·徐摛傳』에서 徐摛의 시창작에 대해 “屬文好為新變, 不拘舊體。”라고 묘사되고 있다.

20) 摛文體既別, 春坊盡學之, “宮體”之號, 自斯而起。 姚思廉, 『梁書·列傳』 第二十四, 北京: 中華書局, 1973, p.286.

부렀지만, 내용은 남녀의 잠자리에 그쳤을 뿐이다. 문구를 조각하여 지나치게 꾸밈고, 규방 안으로만 생각이 다했다. 후생들이 그러한 것을 좋아하여, 전하여 서로 익히니, 조정 안 밖으로도 유행하였고, 이를 宮體라 불렀다.”<sup>21)</sup>

簡文帝의 시 창작에서 궁체를 설명하며 남녀의 잠자리나 규방을 묘사한 것으로, 궁체시의 내용적 특징을 알 수 있다. 궁체시는 궁정을 중심으로 남녀의 情事나 여인을 묘사하는 내용에서 艷情의 특징을 담고 있어 艷情시로 간주되기도 한다. 劉肅의 『大唐新語』卷三에서는 간 문제가 태자 시절에 艷詩를 잘 지었고, 대중에게 유행해서 이를 宮體라 불렀다고<sup>22)</sup> 기록하고 있다. 이로부터 궁체가 艷情시 즉 艷情시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궁체시는 궁정을 중심으로 한 艷情詩로, 내용과 형식적 특징에서 많은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 궁체시의 특징에 대해 王力堅은 「宮體正義」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궁체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艷物, 艷事, 艷情을 내용으로 염려한 사조를 나타내는 ‘艷’이다. 그렇기 때문에, 궁체시를 종종 ‘艷詩’로 부르기도 한다. 다만 궁체시는 梁代 때 크게 유행했지만, 艷시는 오히려 그 역사가 길다. 梁代에 이르러, 비로소 시단에 艷풍이 선풍적으로 불면서, 마침내 신체시 창작의 추세 속에 하나의 독립된 궁체로 변화되어 나왔다.”<sup>23)</sup>

궁체시의 특징은 ‘艷物, 艷事, 艷情’으로, 모두 艷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艷物은 규방이나 여인의 사물뿐만 아니라 남성의 시각으로 묘사된 관능적인 여

21) 梁簡文帝之在東宮, 亦好篇什, 清辭巧製, 止乎衽席之間, 雕琢蔓藻, 思極閨闈之內。後生好事, 遞相放習, 朝野紛紛, 號為宮體。魏征, 『隋書·經籍志(四)』卷三十五, 北京: 中華書局, 1973, p.1090.

22) 好作艷詩, 境內化之, 浸以成俗, 謂之宮體。劉肅撰, 許德楠點校, 『大唐新語』卷三, 北京: 中華書局, 1997, p.42.

23) 宮體詩最顯著的特征是“艷”——艷物、艷事、艷情的內容, 艷麗的辭藻。因此, 宮體詩也常常被稱為“艷詩”。然而, 宮體詩雖大興於梁代, 艷詩卻源遠流長……進入梁代後, 詩壇的艷風才愈熾愈烈, 終於從新體詩創作潮流中訛變出門戶獨立的宮體一派。王力堅, 「宮體正義」, 『學術研究』第5期, 廣東: 廣東省社會科學界聯合會, 1995, p.109.

인의 자태나 신체 일부를 의미한다. 艷事는 남녀의 잠자리나 남녀 사이의 일을 색정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생성되는 감정이 바로 艷情이다. 궁체시는 궁정 안의 여인이나 아름다운 사물(物), 정사(事), 연정(情)을 색정적이며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당시 시단에 하나의 艷風을 일으켰다.

궁체시는 궁첩이나 궁궐 기녀의 용모, 복식, 자태, 동작(화장, 가무, 오락) 등이 잘 묘사되었고, 남녀의 정사도 색정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 단, 색정적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性愛가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인의 외적, 내적 묘사가 詠物로써 이루어진다. 작가 자신이 시적 주체가 되기보다는 시적 대상을 선정해 외형적 아름다움을 관능적이고도 유희적으로 묘사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궁체시 이전의 고대 염정을 나타내는 시들이 상대적으로 소박한 서정 위주였다면, 남조 궁체시는 體物에 화려하게 공을 들이는 것이 특징이다.<sup>24)</sup>

남조의 시에서 묘사된 미인은 기존의 詩나 賦에서 고수해 오던 굴원 식 香草美人 수사법<sup>25)</sup>과는 달리, 상징 의미 없이 아름다운 여인 자체로 묘사된다. 그러면서 여성적이고 화려한 아름다움과 부드러운 감정에 치우쳐 艷情化 되고, 소재도 여인과 관련된 소소한 사물들에게까지 세심하게 미치게 되어 시적 소재 또한 더욱 확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唐代 염정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당대 염정시가 남조 궁체시를 계승했다는 것은 그 당시 작가나 평론가들의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당대 염정시를 종종 남조의 궁체시와 비교하였는데, 그 중 韓偓은 『香奩集序』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저 멀리 남조의 궁체시를 생각해 보건데, 庾信의 문장을 언급하며 공격할 수 없

24) 楊明, 앞의 논문, p.47.

25) 궁체시에는 미인의 형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기존의 詩나 賦에서 사용되는 기탁기법으로 “香草美人”을 시에 운용했으며, 이는 이상화된 아름다운 여인에 비유하여 작가가 품고 있는 다른 상징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이다. 香草美人 기탁기법은 屈原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굴원은 정치적 함의를 담아 美人이나 佳人에 자신을 빗대어 고결한 인격과 큰 포부를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거나, 이상적인 군왕을 묘사하며 유토피아를 상징했다.

었다. 도리어 옥대신영을 꾸짖는다면, 어찌하여 서릉이 서문을 썼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제 막 마음으로 받드는 자세를 얻었으니, 다행히 이를 갈 정도의 부끄러움은 없다.<sup>26)</sup>

한약은 남조 궁체시와 닮은 염정시를 지어 『香奩集』으로 편찬했는데, 序文에 직접 남조시기 궁체시 대가인 유신과 서릉의 문장에 대해 반박하고 적대감을 갖는 대신 부끄럼 없이 받드는 마음으로 시를 썼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한약이 남조 궁체시의 대가들처럼 뛰어난 시를 쓰고 있음을 자부하면서, 자신이 궁체시의 전통을 이어받아 염정시를 창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부분이다.

이와 같이 당대 염정시가 남조 궁체시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이 둘이 서로 교차되는 관계 속에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염정시와 애정시, 궁체시는 공통적인 내용적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히 구분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 체제의 모호함 속에서 염정시의 특징을 찾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장르 구분을 넘어, 중국 고전 문학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5. 晚唐 艷情詩에 나타난 여성 형상

晚唐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모순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환관이 정치를 장악하고, 번진이 독립적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도시는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고, 민중들은 불안한 현실을 잊기 위해 오락과 유희에 몰두하였다. 이로 인해 문인들은 연회와 유희에서 글재주를 발휘하며 염정시를 창작하였고, 그 결과 염정시는 더욱 유미적이고 감각적인 특성을 띠게 되었다.

만당 염정시는 전통적인 염정시와 비교했을 때 한층 더 감각적이고 복잡한 여성 형상을 그려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초기 염정시가 주로 외적인 아름다움과

26) 遐思宮體，未降稱庚信攻文；卻諷『玉臺』，何必倩徐陵作序。初得捧心之態，幸無折齒之慚。董誥等編，『全唐文』卷829，北京：中華書局，1983，p.8739.

관능적 묘사에 중점을 두었다면, 만당 시기의 염정시는 여기에 복잡한 감정과 심리적 깊이를 더해 표현하였다. 이는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문인들의 내면을 자극하며, 여성의 형상을 통해 이러한 감정적 불안을 표현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만당 시기 문인들이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문학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던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만당 염정시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남성 문인뿐만 아니라 여성 작가들도 활발히 참여하며, 다채롭고 섬세한 여성 형상이 작품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全唐詩』에 따르면, 만당 염정시에 참여한 문인의 수는 대략 80여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생평이 분명하고 시가 창작에 적지 않은 작품을 남겼으며, 작품에서도 염정 풍격이 뚜렷했던 杜牧·李商隱·溫庭筠의 작품을 중심으로 만당 염정시에 나타난 여성 형상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아울러, 본 장에서는 만당 염정시에 나타난 여성 형상을 ‘의인법을 통한 영물시의 艷情化’, ‘신화와 전설 속 典故를 통한 여신의 신격화’, ‘신체어를 통한 미인의 형상화’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의인법을 통한 영물시의 艷情化’는 사물이나 동물을 의인화하여 여인을 연상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법은 사물에 감정을 부여하고 자연스럽게 여성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만당 시기 여러 시에서 이러한 기법이 자주 나타나며, 현실을 탈피하고자 하는 문인들의 유희적 경향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둘째, ‘신화와 전설 속 典故를 통한 여신의 신격화’는 만당 시기의 염정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법으로, 신화 속 여신들을 시에 등장시키며, 시적 여인을 신격화하는 기법이다. 이를 통해 초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여성 형상이 창출되며, 당시 문인들이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이상적 미를 추구했던 경향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체어를 통한 미인의 형상화’는 여성의 신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감정과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詩經』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만당 시기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발전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면서도 심리적 깊이와 시대적 불안을 함께 표현하는 방식이 자주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법을 바탕으로 만당 염정시에 나타난 여성 형상의 다채로운 표현을 대표 작가의 작품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만당 염정시의 미학적 특성과 그 차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의인법을 통한 영물시의 艷情化

문학에서 사용되는 수사기법 가운데 의인법(擬人)은 사물이나 동식물을 사람처럼 인격화하는 것으로, 작가의 감정이입이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인물묘사나 관계묘사가 두드러지는 염정시에서 그 특징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詠物詩에서 노래하는 사물(物)은 단순한 자연적인 사물이 아니라, 남녀 간의 감정과 사랑의 상징적 매개체로 작용한다.

영물시의 艷情化는 사물이나 동물에 염정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감정 이입과 의인화 기법을 적용하여, 남녀의 관계를 더 깊이 있고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시적 대상이 되는 사물은 단순한 배경 요소가 아닌, 염정시의 중요한 서정적, 감정적 표현 도구로 기능하는데, 이렇게 사물이나 동물은 감정적 상징으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李商隱의 「夜思」<sup>27)</sup>를 통해 이러한 기법을 살펴볼 수 있다.

銀箭耿寒漏,	은화살은 차가운 밤을 가르고
金缸凝夜光。	금등잔이 밤을 밝힌다
綵鸞空自舞,	화려한 난새는 공허히 홀로 춤추고
別燕不相將。	떠나는 제비는 다시 만나지 못한다
寄恨一尺素,	한 치의 흰 비단에 恨을 부치고,
含情雙玉瑤。	쌍둥이 옥 장식에 정을 담는다
(중략)	
覺動迎猜影,	그대 그림자인가 하여
疑來浪認香。	그대 향기를 헛되이 찾으려 한다

27) 劉學鍇·余怒誠, 『李商隱詩歌集解』, 北京: 中華書局, 1988, p.1973.

鶴應聞露警,	학은 분명 이슬에 놀랄터이고
蜂亦爲花忙。	벌 또한 꽃을 위해 바쁠테다
古有陽臺夢,	옛날에는 陽臺의 꿈이 있었고
今多下蔡倡。	지금은 下蔡의 노래가 많은데
何爲薄冰雪,	어찌하여 얼음과 눈처럼
消瘦滯非鄉?	수척해진 몸으로 타향에 머무는가?

「夜思」는 작가가 여인과의 이별 후 애절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염정시이다. ‘벌 또한 꽃을 위해 바쁠테다(蜂亦爲花忙)’에서 벌(蜂)은 꽃을 피우기 위한 매개체로 등장하는데, 이는 벌을 남자로, 꽃을 여자로 비유하여 아름다운 여인을 찾기 위해 바쁜 남자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벌과 꽃이 남녀 관계를 상징하는 장치로 사용되며, 염정시에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되면서, 자연 속 사물들이 의인화되어 감정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묘사는 자연 속의 평범한 사물이지만, 염정시의 맥락에서 인간의 감정을 더욱 생동감 있게 드러냄으로써 의인법으로 염정화하고 있는 예로, 작가의 감정이입이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염정시에서 묘사되는 남녀 간의 애정과 생동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 시에서 벌과 꽃의 비유는 단순한 남녀 관계 묘사를 넘어,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이상적 관계와 사랑을 꿈꾸던 당대 문인들의 감정까지도 담아내고 있다. 사회적 혼란 속에서 안정된 사랑을 추구하기 어려웠던 문인들의 감정이, 벌이 꽃을 찾는 모습으로 은유되고 있다.

또한, 작가는 은화살(銀箭)과 금등불(金釘)을 통해 차가운 밤을 묘사하고, 화려한 새(綵鸞)와 떠나는 제비(別燕)를 통해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단순한 자연물의 묘사를 넘어서,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하며, 동시에 당시 문인들이 느꼈던 감정적 불안을 담아내기도 했다.

흰 비단(一尺素)과 옥 장식(玉璫)은 여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장치로, ‘그대 그림자인가 하여, 그대 향기를 헛되이 찾으려 한다(覺動迎猜影, 疑來浪認香)’라는 구절은 애절한 그리움과 절실한 감정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또한 ‘어찌하여 얼음과 눈처럼 수척해진 몸으로 타향에 머무는가(何爲薄冰雪, 消瘦滯

非鄉)’라는 구절은 단순히 이별의 슬픔뿐 아니라, 작가의 개인적 좌절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무력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염정시가 단순히 남녀 간의 애정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잡한 감정과 시대적 배경을 함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杜牧의 「屏風絕句」는 병풍 속에 담긴 여인의 아름다움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 염정시의 대표적인 예로, 자연 속 사물을 인간화하여 여인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의인법이 두드러진다. 이 작품에서는 병풍이라는 사물이 여인의 이미지를 품고 있으며, 사물이 의인화되어 감정적인 느낌을 부여받고 있다. 병풍 속 여인의 모습은 그저 그림에 머물지 않고 생동감 있게 묘사됨으로써 염정시의 특징인 감정 이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宋代 張戒가 『歲寒堂詩話』에서 “杜牧의 시에서는 아름다운 비단에 여인의 연지 백분만 인지될 뿐이다(杜牧之詩只知有綺羅脂粉.)”<sup>28)</sup>라고 한 것처럼, 사물을 묘사하는 영물시의 묘사에서도 杜牧은 사물에 요염한 여인을 연상시키는 묘사로 뛰어나다. 아래 杜牧의 「屏風絕句」<sup>29)</sup>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다.

屏風周昉畫纖腰, 병풍엔 周昉이 그린 허리 가는 미인,  
 歲久丹青色半銷. 세월이 오래되어 단청색으로 반쯤 바랬구나.  
 斜倚玉窗鸞髮女, 옥창에 비스듬이 기댄 난새 머리 여인,  
 拂塵猶自妬嬌饒. 먼지 털며 오히려 그 요염함을 시기하네.

「屏風絕句」는 병풍을 노래한 작품이지만, 그림 속 여인을 묘사함에 있어 상당히 관능적이다. 이 시에서 병풍 속 여인은 단순한 그림이 아닌, 마치 살아있는 인간처럼 묘사되고 있다. 첫 구절 ‘周昉이 그린 허리 가는 미인(周昉畫纖腰)’에서 등장하는 허리가 가는 여인의 모습은 미의 상징으로, 시대를 초월한 미적 가치를 보여준다. 병풍은 사물이지만, 병풍에 담긴 그림에서 사물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인격화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周昉은 당대의 유명한 화가로, 그의

28) 丁福保, 『歷代詩話續編·歲寒堂詩話(卷上)』, 北京: 中華書局, 1983, p.464.

29) 吳在慶, 『杜牧集繫年校注』第八冊, 北京: 中華書局, p.462.

그림 속 인물들은 그 섬세함과 우아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작품에서 여인의 허리는 단순히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여성의 요염함과 섬세함을 상징하며 병풍 속에서조차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구절 ‘세월이 지나 단청색이 반쯤 바랬다(歲久丹青色半銷)’는 시간이 지나도 병풍 속 여인의 아름다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상징하며, 세월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미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는 여인이 마치 영원히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염정시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특히, 이런 아름다움은 당대 문인들이 현실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 이상적 미를 추구했던 심리와 연결될 수 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문인들은 현실을 벗어나 미적 완전함과 영속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으며, 병풍 속 여인의 변치 않는 아름다움은 그러한 이상적 미의 표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염정시는 현실을 탈피한 이상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구절 ‘옥창에 비스듬이 기대 난새 머리 여인(斜倚玉窗鸞髮女)’은 병풍 속 여인이 마치 살아있는 인물처럼 묘사되며, 독자에게 생동감을 전달한다. 이처럼 병풍 속 사물이 생동감 있게 인격화되는 것은 의인법을 통해 여인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염정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다. 난새 머리의 여인이 옥창에 기대어 있는 모습은 실제로 그 자리에 있는 듯한 환영을 불러일으키며,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감정이 있는 인물로서 독자와 교감한다. 이 장면에서 병풍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단순히 그림을 담은 곳이 아니라, 감정을 담은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 구절 ‘먼지를 털며 오히려 그 요염함을 시기하네(拂塵猶自妬嬌饒)’는 병풍 속 여인의 요염한 아름다움이 얼마나 두드러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다. 먼지가 쌓여도 그 요염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먼지마저도 그녀의 매력을 시기할 정도로 여인의 아름다움은 강렬하게 부각된다. 이는 염정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성의 변치 않는 미적 가치를 강조하며, 그 아름다움이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지속됨을 상징한다.

杜牧의 「屏風絕句」는 염정시의 중요한 특징인 여성의 외적 아름다움과 내적

감정을 의인법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단순히 병풍 속에 그려진 여인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요염함과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통해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이상적 미를 추구했던 唐代 문인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병풍과 여인의 이미지를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사물이 살아있는 감정을 가진 존재처럼 느껴지도록 묘사한 의인법은 만당 염정시의 감정적 표현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2) 신화 전설 속 典故를 통한 여인의 신격화

만당 염정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신화와 전설 속의 여성 인물을 운용해 몽환적이고 초월적인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작가들은 典故를 통해 여인을 신격화하며, 현실을 벗어난 환상적 세계를 창조하는데,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 바로 溫庭筠의 「七夕歌」<sup>30)</sup>이다.

鳴機札札停金梭,	베틀 소리 찰카찰카 울리다 금복을 멈추니
芙蓉澹蕩生池波。	부용꽃 일렁이며 연못에 파동이 인다
神軒紅粉陳香羅,	신을 모시는 곳에 붉은 분칠과 향기로운 비단이 진열되고,
鳳低蟬薄愁雙蛾。	봉황 비너를 낮추니, 얇은 비단 속 슬픈 눈썹이 드러난다
微光弈弈凌天河,	희미한 불빛이 일렁이자 은하수를 건너고
鸞咽鶴唳飄飄歌。	난새와 학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노래가 된다
彎橋銷盡愁奈何,	굽어진 오작교가 녹아 사라지니 어찌할 도리가 없네
天氣駘蕩雲陂陀。	날이 화창해지니 구름이 가파르게 오르네
平明花木有愁意,	아침이 밝아오니 꽃나무들에 수심이 깃들고,
露濕綵盤蛛網多。	이슬에 젖은 오색접시에 거미줄이 가득하네.

이 시는 七夕이라는 표제로, 중국 고대 신화 중 하나인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그들의 비극적 사랑을 화려한 시어로 표현한 염정시이다. 견우와 직녀가 일 년에 한 번 오작교를 건너 만나는 이 이야기는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면서도, 역설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시어를 통해 그들의 애뜻한 감정을

30) 劉學鐸, 『溫飛卿全集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7, p.215.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만당 염정시에서 신화적 전고를 활용해 여신적 여성 형상을 부각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시의 첫 구절, ‘베틀 소리 찰각찰각 울리다 금복을 멈추니(鳴機札札停金梭)’에서 직녀가 베틀을 멈추고 은하수를 건너는 장면은 단순한 일상적 활동을 초월하여 신화적, 초월적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장면은 직녀가 하늘의 베틀을 다루는 신적인 존재로 부각되며, 그녀의 행동은 일상과 비일상을 넘나드는 신화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직녀는 단순히 인간적인 슬픔을 겪는 존재가 아닌, 신적 존재로 승화되는 여신으로 그려진다. 그녀가 오작교를 건너 하늘과 은하수를 연결하는 장면에서 초월적 힘을 부여받으며, 이는 그녀를 인간을 초월한 신적 존재로 승화시킨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직녀는 이상적 미와 초월적 존재로 묘사되는데, 이는 문인들이 현실의 혼란 속에서 이상적 세계를 추구한 반영이다. 만당 시기의 사회적 불안 속에서 이러한 신화적 세계는 작가들이 현실을 벗어나 이상적 세계를 추구하는 내면적 소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묘사는 직녀를 단순한 인간적 존재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정시의 특징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신을 모시는 곳에 붉은 분칠과 향기로운 비단이 진열된(神軒紅粉陳香羅)’ 장면은 직녀를 신성한 존재로 부각시키며, 인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닌 초월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암시한다. 이처럼 직녀는 신화 속 여신으로, 그녀의 아름다움과 요염함은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신성함으로 승화된다. 이는 현실의 불안과 혼란에서 벗어나 이상적 미를 추구하는 문인들이 여성을 이상화하고 신격화하는 방식을 통해 나타난다. 바로 직녀라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여신을 통해 인간적 아름다움이 신성함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봉황 비녀를 낮추니, 얇은 비단 속 슬픈 눈썹이 드러난다(鳳低蟬薄愁雙蛾)’라는 구절에서 봉황 비녀와 슬픈 눈썹은 여인의 내면적 감정을 시적으로 드러내며, 동시에 여인을 초현실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봉황이라는 전설적 존재와 여인의 모습이 결합되어 시적 대상의 슬픔이 더욱 신비롭게 표현된다. 이 장면에서 여인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 신비롭고 이상적인 존재로 그려지며,

만당 염정시에서 신화 전고를 통해 여인을 신격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보여준다.

‘희미한 불빛이 일렁이자 은하수를 건너니(微光奔奔凌天河)’라는 구절은 물과 빛의 이미지가 결합된 몽환적인 표현으로,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는 장면을 환상적이고 신비롭게 그려내고 있다. 이는 직녀의 행위를 단순한 사건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몽환적인 장면으로 승화시키며 독자에게 신비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장면들은 직녀가 현실의 고통과 슬픔을 초월한 존재로 그려지며, 그녀의 행위가 신화 속 여신적 존재로 이상화된다는 것을 강화한다. 더 나아가, 만당의 염정시가 현실의 혼란에서 벗어나 이상적 미를 추구하며, 현실 도피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여인을 신격화하여 신화적 표현을 탁월하게 구사하는 작가로 李商隱을 빼놓을 수 없다. 李商隱은 작품에 신화 전설의典故를 많이 사용해 시가 난해하다는 평<sup>31)</sup>을 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시적 표현은 상당히 뛰어나다. 그의 작품에서도 신화 속 여신과 같은 인물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염정시에서 여인의 신격화를 통해 몽환적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음은 李商隱의 「燕臺四首·夏」<sup>32)</sup>이다.

前閣雨簾愁不卷，	앞 누각 비 내리는 주렴 근심에 걸히지 않고
後堂芳樹陰陰見。	뒤뜰의 꽃나무는 무성해 어두운 그늘이 진다
石城景物類黃泉，	석성의 경치는 黃泉과 같고
夜半行郎空柘彈。	한밤에 헤메는 潘郎은 공연히 새총질을 한다
綾扇喚風闐闐天，	비단 부채가 천상의 바람 부르는 듯
輕帷翠幕波淵旋。	연한 비취빛 휘장이 물결처럼 감아 돈다
蜀魂寂寞有伴未？	촉의 영혼은 외로이 짝을 찾았는가?
幾夜瘴花開木棉。	몇 밤 지나면 남방의 꽃이 목화처럼 피겠지
桂宮流影光難取，	계궁의 달빛은 잡기 어려워
嬌薰蘭破輕輕語。	아리따운 난꽃은 살며시 속삭인다
直教銀漢墮懷中，	곧장 은하수를 내 품에 떨어뜨려

31) 陳伯海, 『唐詩論評類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5, p.1325.

32) 劉學鍇·余怒誠, 앞의 책, p.85.

未遣星妃鎮來去。	별의 여신 星妃가 오래도록 머물게 하고 싶다
濁水清波何異源?	탁한 물과 맑은 물결은 어찌 근원이 다른가?
濟河水清黃河濁。	제하수는 맑고 황하수는 혼탁하니
安得薄霧起細縵，	어찌 얇은 안개 속 담황색 치마 입을 그대를 일으켜
手接雲旉呼太君?	손수 구름 수레를 맞이하여 태군을 부를 수 있을까?

「燕臺詩」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구성된 염정시로, 典故를 사용하여 환상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星娥는 星妃라는 이름으로, 여름부터 가을 사이 서쪽 은하수에서 볼 수 있는 織女星이라는 별자리이다. 원래는 단순한 별자리였으나 신화와 전설을 통해 인격화되었다.

제1구의 ‘前閣雨簾愁不卷’는 비 내리는 이미지를 통해 직녀가 견우를 만나 흘리는 눈물이 가랑비가 되어 내린다는 전설을 연상시킨다. 이는 비극적 사랑의 이미지를 환상적으로 묘사하여 깊은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제12구에 등장하는 星妃는 시인의 사랑하는 짝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대변하는 이미지로 사용된다. 제11구와 제12구 ‘直教銀漢墮懷中，未遣星妃鎮來去’에서 시인은 은하수를 품에 떨어뜨려 별의 여신인 星妃가 오래도록 머물게 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시인의 애절한 마음과 함께 여성의 신격화를 통해 염정시의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또한, 제5구 ‘綾扇喚風闔闔天’과 제6구 ‘輕帷翠幕淵旋’에서 비단 부채와 비취빛 휘장이 물결처럼 감아 도는 이미지는 직녀의 신비로움을 더욱 부각시키며, 제9구와 제10구 ‘桂宮流影光難取，嬌薰蘭破輕輕語’에서 계수나무 궁전에 떠도는 달빛과 아리따운 난꽃의 속삭임은 물과 빛의 몽롱함을 통해 星妃의 형상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고 있다. 이 작품은 신화적 전고를 통해 여성 인물을 신격화함으로써 염정시의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만당 염정시의 독특한 매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 3) 신체어를 통한 美人의 형상화

신체어란 말 그대로 사람의 신체를 나타내는 단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얼굴, 허리, 머리, 손, 발 등이 신체어에 속한다. 염정시는 여성에 대한 인물 묘사가 많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 일부를 묘사할 때 은유나 환유를 통해 또 다른 상징 의미를 나타내는 기법으로 응용되기도 한다. 작가가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재인식하고 대상을 형상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의 세계 또한 새롭게 재탄생되기도 한다.

만당 염정시에서 신체어를 통한 여성 형상화는 이전 시기와 비교해 여성의 감정과 내면세계를 더욱 깊이 탐구하고, 사회적 불안과 같은 외부적 요소에 대한 반영을 통해 이상적 미를 추구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눈썹은 사람의 심리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얼굴의 한 부분이다. 표정을 나타내는 부위인 만큼 사람의 희노애락이 표출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시에서 운용되는 눈썹은 보통 남성 묘사보다는 여인의 묘사에 사용된다. 아름다운 눈썹은 곧 '미인'으로 은유 되고, 그 형태의 유사성에 따라 작가에게 또 다른 의미로 재해석되어 등가성을 갖는 다른 사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다음 杜牧의 「閨情」<sup>33)</sup>에서 이러한 예시를 볼 수 있다.

娟娟卻月眉,	곱고 아리따운 초승달 눈썹
新鬢學鵝飛。	금방 빚은 듯 한 구름머리는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듯 하다
暗砌勻檀粉,	어두운 섬돌엔 박달나무 꽃가루가 고르게 뿌려져 있고
晴窗畫夾衣。	맑은 창에는 그림 겹옷 걸려 있다
袖紅垂寂寞,	붉은 소매에 쓸쓸함이 드리워지고
眉黛斂衣稀。	여인의 눈썹은 옷으로 희미해진다
還向長陵去,	長陵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今霄歸不歸。	님이 오늘 밤 돌아오실까 하여 망설이는구나.

작품 속 초승달은 미인의 구부러진 눈썹으로 비유된다. 제1구 '초승달 눈썹(月眉)'이라는 은유는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의

33) 吳在慶, 앞의 책, p.584.

미 부여가 되는 부분이다. 당대 대부분의 작가들에게 달은 다의적인 이미지로 운용된다. 그들에게 달은 단순히 미를 상징할 뿐 아니라, 사랑과 그리움, 외로움이라는 감정적 정서를 내포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특히 초승달의 형태는 사랑을 기다리는 여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며, 이러한 다층적 의미가 시속에서 여인의 심리적 상태와 연결된다. 바로 홀로 밤을 지키는 외로움의 형상이 되기도 하고, 한없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형상이 되기도 한다. 달의 정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리움의 정서이다.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움이 되고 사무치게 그리워하게 되니 수심에 젖는 일월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초승달에 비유된 눈썹은 단순히 아름다운 미인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여인의 고독과 그리움을 함께 담고 있다. 초승달은 밤하늘을 비추는 존재로, 여인의 눈썹은 그녀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감정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처럼 여인의 외모를 통해 감정을 묘사하는 기법은 만당의 엽정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기도 하다.

만당 엽정시의 이러한 특징은 단순한 미적 표현을 넘어서,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적 미를 추구하려는 문인들의 의식을 반영한다. 그리움과 슬픔을 담은 눈썹은 사회적 혼란과 불안 속에서 이상적 여성상을 만들어 내는 도구로 작용하며, 이는 당시 문인들이 꿈꾸던 감정적 안정과 미적 이상의 추구를 상징한다.

杜牧의 「閨情」은 신체어를 통해 여인의 아름다움과 내면적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한 엽정시의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눈썹, 머리카락, 소매와 같은 신체어를 통해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적 쓸쓸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기법은, 만당 엽정시의 미적 이상과 서정성을 극대화한다. 초승달에 비유된 눈썹은 아름다운 여인을 상징함과 동시에 여인의 내면적 갈등과 고독까지 담아내고 있다. 까마귀의 날갯짓에 비유된 머리카락은 생동감을 주면서도, 시간의 흐름을 암시한다. 또한 붉은 소매를 통해 드러난 쓸쓸함 등은 여인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고독을 더욱 두드러지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엽정시의 주요 특징인 서정성과 감성적 깊이를 잘 드러내고 있으며, 만당 엽정시가 사회적 불안과 혼란 속에서 현실을 초월한 미적 세계를 창조하려는 문학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신체어를 통한 생동감 있는 묘사와 은

유는 여인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시적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 염정시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그 밖에도, 아름다운 눈썹은 미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여인의 아름다움과 요염한 자태가 묘사되기도 한다. 눈썹은 단순한 외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당대 문인들에게 있어 여인의 내면과 감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는 만당 염정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여성의 외모와 함께 내면의 정서를 입체적으로 형상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시로, 다음은 溫庭筠의 「黃曇子歌」<sup>34)</sup> 일부를 보도록 하겠다.

萋芊小水路, 푸릇푸릇 풀들이 무성한 작은 마을 길에  
 馬上修蛾嬾. 말 위의 아름다운 여인은 느릿느릿 눈썹을 가다듬는다  
 羅衫裹向風, 바람에 나부끼는 비단 적삼,  
 點粉金鸚卵. 황금색 피꼬리 알처럼 분을 바른 모습이 빛나는구나

이 작품에서도 ‘눈썹’은 미인의 외적 아름다움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녀의 세심함과 정교한 미적 감각을 강조하는 장치로 사용된다. 말 위에서 느릿느릿 눈썹을 가다듬는 여인의 모습은 단순히 화장하는 장면 그 이상인 여인의 여유로움, 우아함, 요염함을 강조하며, 미인의 관능미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고 있다.

唐代에는 여성의 다채로운 복식과 화장술이 유행했다. 특히 현대 여성들처럼 당대 여성들도 눈썹 화장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눈썹을 세심하게 그리거나 화장을 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단순한 미적 수단을 넘어, 당대 여성들의 자아 표현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작품 속 여인이 눈썹을 가다듬는 장면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며, 이는 그녀의 자신감과 세련미를 드러냄과 동시에, 관능적이고 요염한 자태를 한층 더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후반부에서 묘사된 ‘바람에 나부끼는 비단 적삼(羅衫裹向風)’과 ‘피꼬리 알처럼 빛나는 분 화장(點粉金鸚卵)’은 여인의 화려함과 세련미를 극대화하는 표현으로, 그녀의 외적 아름다움을 넘어,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

34) 劉學鐸, 앞의 책, p.49.

다. 비단 적삼의 나부김은 그녀의 자유로움과 동적인 매력을 상징하며, 분을 바른 모습은 세밀한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구절들은 여인의 외모를 통해 여인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대 염정시가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이상적 미를 추구하며 여인의 형상화에 집중한 문학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끊어질 듯 가녀린 허리의 묘사를 통해 미인을 형상화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唐代 남성 작가 시각에서 묘사되는 여인의 형상은 주로 가늘고 섬세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염정시에서 묘사되는 여인들도 楚腰, 細腰, 腰細 등의 시어가 높은 빈도로 사용되며, 남성 작가에게 내재된 가냘픈 여성에 대한 욕망과 이상적 여성상을 반영했다. 이러한 가느다란 허리에 대한 추구는 唐代 이전부터 존재해 온 미적 이상으로, 가는 허리는 여성의 매력과 요염함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자주 묘사되었다.

옛날 초 영왕은 남자의 가느다란 허리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영왕의 신하들은 매일 한 끼씩 먹으며 식단을 조절하였는데, 숨을 참은 다음 허리띠를 하고, 벽을 짚고 일어섰다. 그 이듬해가 되어 조정 대신들의 얼굴빛은 검고 노랗게 변했다.

『墨子·兼愛』 중.<sup>35)</sup>

허리가 뚱뚱하면 왕의 총애를 잃을까 두려워 자신의 식단을 조절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어 건강을 잃을 정도로 자신을 혹독하게 관리하였다는 위의 일화는 그 당시 미적 기준에서 여인의 가느다란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이후 만당 염정시에도 영향을 미쳐, 여인의 가는 허리가 시적 묘사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南朝 徐陵의 『玉臺新詠·序』에서도 “초나라 왕궁에는 가는 허리가 안 나오는 데가 없다(楚王宮裏, 無不推其細腰)”<sup>36)</sup>고 하였는데, 만당 염정시에서도 여인에 대한 가는 허리의 형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5) 昔者楚靈王好士細腰, 故靈王之臣皆以一飯為節, 脅息然後帶, 扶牆然後起。比期年, 朝有黧黑之色。墨子, 李小龍譯注, 『墨子·兼愛中』, 北京: 中華書局, 2007, p.66.

36) 吳兆宜注, 『玉臺新詠箋注』, 北京: 中華書局, 1985, p.5.

예를 들어, 杜牧의 「遺懷」에서는 ‘초나라 얇은 허리 미녀 손바닥에 놓아도 가볍겠구나(楚腰腸斷掌中輕)’<sup>37)</sup>라고 묘사하여 여인의 허리가 얼마나 가볍단지를 강조하며, 미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있다. 여인의 허리를 가벼운 물체에 비유함으로써, 그녀의 신체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남성에게 주는 심리적 매혹을 부각시키고 있는 예이다.

또한, 李商隱의 「蜂」에서는 ‘복비의 허리는 보잘것없이 가늘어 겨우 이슬만 감당할 뿐이며(宓妃腰細纔勝露)’<sup>38)</sup>라고 하여 여인의 허리가 얼마나 섬세한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슬보다 가늘다는 표현은 그녀의 섬세한 매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가는 허리가 여인의 내면적 연약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溫庭筠의 「楊柳枝八首」其一에서는 ‘한가로이 봄바람과 짝이 되어 간드러지게 허리춤을 춘다네(閒農春風伴舞腰)’<sup>39)</sup>라고 묘사하여 여인의 가녀린 허리춤으로 요염함과 우아함을 상징했다. 이 작품에서도 허리는 단순히 외모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인의 내면적 감정과 사회적 위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溫庭筠은 또한 「江南曲」에서 ‘가녀린 허리는 절굿공이를 방불케 하지요(依約腰如杵)’라고 하여 여인의 가는 허리로는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만당 염정시에서 가녀린 허리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미적 이상을 넘어, 사회적 불안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서 벗어나 이상적 미를 추구하려는 문인들의 의식을 반영한다. 가는 허리는 남성의 욕망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적 미적 세계를 추구하려는 문학적 경향을 담고 만당 염정시에서 아름답게 형상화 되었다.

이 외에도 풍성한 머리, 여인의 뺨, 새하얀 손 등 염정시에서 신체 일부를 통해 파생되는 형상들은 다양하다. 만당 염정시에서 신체어를 통한 여성의 형상화는 여인의 외모와 내면적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묘사 기법은 여인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단순한 외모 묘사에 그치지 않고

37) 吳在慶, 앞의 책, p.1214.

38) 劉學鍇·余怒誠, 앞의 책, p.1141.

39) 劉學鍇, 앞의 책, p.859.

여인의 감정과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여인의 신체 부분을 다양한 상징으로 재해석하여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만당 염정시에서 신체어를 통한 형상화는 단순히 외모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심리적, 감정적 깊이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여인의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데 기여한다.

## 6. 맺는말

본 연구는 애정시와 궁체시로 혼용된 체제 속에서 염정시의 개념과 특징을 고찰하고, 만당 염정시에서 나타나는 여성 형상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염정시는 여성의 외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녀의 내면적 감정과 심리 상태를 섬세하게 표현하며, 남녀 간의 애정을 서정적으로 그려내는 농염한 시풍을 형성하였다. 특히 만당 시기에는 ‘艷物’, ‘艷事’, ‘艷情’이 복합적으로 녹아들며, 감각적이고 화려한 문체로 더욱 발전하여 성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당 염정시에서 나타난 여성 형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의인법을 통한 영물시의 염정화, 신화 전설 속 전고를 통한 여인의 신격화, 신체어를 통한 미인의 형상화라는 여성 형상 묘사 기법으로 구분하여 논증하였다. 이를 통해 염정시가 단순히 외모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여인의 내면적 감정과 심리 상태를 섬세하게 표현하며, 그 매력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염정시는 애정시, 궁체시와 혼용되지만, 그 속에서 고유한 문학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이상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인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용된 체제의 모호함 속에서 염정시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염정시의 문학적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중국 고전 문학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염정시는 화려한 표현 기교와 수사적 형식, 그리고 서정적인 감정과 남녀의 사랑을 고유의 방식으로 융합하여 독특한 문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염

정시가 중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염정시의 문학적 흐름과 변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사회와 문화적 맥락에서 그 미적 추구와 문학적 의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가 중국 문학사의 다양한 양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궁체시와 애정시와의 교차를 넘어 염정시만의 고유한 문학적 특질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1. 단행본

- 康正果, 『風騷與艷情』,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8.
- 段玉裁, 『說文解字注』, 北京: 商務印書館, 1988.
- 董誥 等, 『全唐文』 卷829, 北京: 中華書局, 1983.
- 遂欽立, 『先秦漢魏晉南北朝詩·梁詩』 卷六, 北京: 中華書局, 1983.
- 劉肅撰, 許德楠點校, 『大唐新語』 卷三, 北京: 中華書局, 1997.
- 劉學鐸, 『溫飛卿全集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7.
- 劉學鐸·余怒誠, 『李商隱詩歌集解』, 北京: 中華書局, 1988.
- 墨子, 李小龍譯注, 『墨子·兼愛中』, 北京: 中華書局, 2007.
- 範寧集解, 楊士助疏, 『春秋穀梁傳註疏』 卷一,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商務印書館, 1987.
- 徐堅等編, 『初學記』 卷一五, 北京: 中華書局, 2004.
- 蕭統, 李善注, 『文選』 卷五,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 楊柳, 『李商隱評傳』, 江蘇: 人民出版社, 1981.
- 吳在慶, 『杜牧集繫年校注』 第八冊, 北京: 中華書局, 2008.
- 吳調公, 『李商隱研究』,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
- 吳兆宜注, 『玉臺新詠箋注』, 北京: 中華書局, 1985.
- 姚思廉, 『梁書·本紀』 第四, 北京: 中華書局, 1973.
- 魏征, 『隋書·經籍志(四)』 卷三十五, 北京: 中華書局, 1973.
- 錢鍾書, 『宋詩選注』, 上海: 三聯書店, 2002.
- 丁福保, 『歷代詩話續編·歲寒堂詩話(卷上)』, 北京: 中華書局, 1983.
- 程俊英譯注, 『詩經·小雅』,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1997.
- 陳伯海, 『唐詩論評類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5.

許慎,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63.

洪興祖撰, 白化文等点校, 『楚辭補注』, 北京: 中華書局, 1983.

## 2. 논문

文航生, 「晚唐艷詩概述」, 『四川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四川: 西華師範大學, 1996.

楊明, 「宮體詩評價問題」, 『復旦學報』第5期, 上海: 復旦大學, 1988.

王力堅, 「宮體正義」, 『學術研究』第5期, 廣東: 廣東省社會科學界聯合會, 1995.

논문접수일	2024년 8월 1일
심사완료일	2024년 8월 28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9일

*Abstract*

A Literary Analysis of Erotic Poetry and Depictions of Women in  
Late Tang Erotic Poetry  
-Examining the Mixed Systems-

Bae, GyoungJin

This study aims to reevaluate the literary value of the erotic poetry (艷情詩) and the depiction of women in Late Tang erotic poetry through a literary analysis of the mixed systems in which they are situated. Erotic poetry intersects with love poems (愛情詩) and Palace-Style poetry (宮體詩), showcasing diverse stylistic features. By identify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rotic poetry within these mixed systems, this study seeks to shed new light on its literary and historical significance.

Firstly, the definition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erotic poetry are examined, proposing that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literary genre capturing various relationships and emotions between men and women. The study then analyzes the prevalence of Palace-Style poetry during the Southern Dynasties and its influence on contemporary erotic poetry, confirming their stylistic and thematic intersections.

Lastly, the depiction of women in Late Tang erotic poetry is analyzed, focusing on literary techniques such as personification, mythological allusions, and the use of body-related terms to portray beauty. This research aims to highlight the multifaceted value of erotic poetry, contributing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Chinese literary history through a literary analysis of mixed systems.

**Keyword**

Late Tang Dynasty, erotic poetry(艷情詩), love poems(愛情詩), Palace-Style Poetry(宮體詩), Depiction of women



# 한국어 순차 접속문과 중국어 접속문의 대응 관계 고찰

담 홍달\*

##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고서, -어서, -다가, -자마자, -자'에 이끄리는 순차 접속문과 이들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을 고찰하였다. 양정석(2010)에서 제시한 후행절 사건시 기준 해석 여부와 후행절 서법에 대한 제약 여부의 검증 방법을 기준으로 검증하여, 한국어의 '-자'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의 '剛...就...' 접속문이 명시어 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가어 구조를 이루는 한국어 '-고서' 연결어미 문장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인 '...然後...' 구문, '...以後/之後...' 구문, '...後...' 구문, '-어서' 연결어미 문장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인 '...然後...' 구문, '-다가' 연결어미 문장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인 'V1-著 V2' 구문, '...的時候...' 구문, '-자마자' 연결어미 문장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인 '一...就...' 구문은 명시어 구조를 이루지 않고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 '-어서' 연결어미 문장과 대응되는 중국어의 무표지 접속문도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

**주제어** 접속문, 명시어 구조, 부가어 구조, '剛...就...' 접속문, '...然後...' 접속문, 'V1-著 V2' 접속문, '...的時候...' 접속문, '一...就...' 접속문, 무표지 접속문.

## <목차>

1. 서론
2. 부가어 구조 접속문과 명시어 구조 접속문
3. 한국어 순차 접속문과 중국어 접속문의 대응
4. 결론

\*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 1. 서론

순차 접속문은 시간상으로 선행절의 동작 이후에 후행절의 동작이 이어지거나, 선행절의 상태가 후행절에 선행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이다.<sup>1)</sup> 이러한 시간적 선후관계를 이루는 한국어의 연결어미로 ‘-고서, -어서, -다가, -자마자, -자’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 연결어미들이 이루는 접속문들의 통사적 특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순차 접속문의 통사구조와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의 통사구조를 대조 연구하려고 한다.

한국어 접속문의 연구는 초기에 분류론적 이론을 통해 연구되다가 후기에는 생성문법 이론을 통해서 연구되었다. 분류론적 체계의 대표인 최현배(1937/1971)는 한국어 복합문을 포유문, 병렬문, 연합문의 세 가지 하위 범주로 나누었다. 연합문과 병렬문이 접속문이다.

남기심(1985), 김영희(1988), 서정수(1994)에서는 접속문을 종속접속문과 대등접속문으로 구별하지만, 대체로 종래의 분류론적 관점을 유지하였다.

임홍빈 외(1995)에서는 한국어 접속문의 선행절을 모두 부가어로 보았다. 즉 접속문은 모두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양정석(2010)에서는 종래의 대등접속문이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덧붙여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접속문이 존재한다는 관점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부가어 절을 이루는 연결어미로 알려졌던 ‘-어서’, 대등 접속문을 이룬다고 생각해 온 연결어미 ‘-고’는 다음 (1)와 같은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고 보았다.<sup>2)</sup> 그러나 ‘-거든’, ‘-지만’, ‘-자’ 등의 접속어미는 선행절을 접속어미의 보충어로 취하고, 후행절을 접속어미의 명시어로 취하는 (2)와 같은 ‘명시어 구조’를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1) 본 연구의 ‘순차 접속문’을 최재희(1990)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순차관계 접속문’이라고 지칭한다.

2) ‘-어서’ 접속문은 (1가)와 같은 VP 부가어 구조를 이루고 ‘-고’ 접속문은 (1나)와 같은 IP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

- (1) 부가어 구조: 가, [VP [CP 선행절] VP]  
 나, [IP [CP 선행절] IP]]
- (2) 명시어 구조: [CP [C[IP 선행절 ] [C 연결어미 ]] [CP/IP 후행절 ]]

중국어 접속문의 연구에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분류론적 이론에 따라 접속문을 연구하였다.

黎錦熙(1924)에서는 중국어 복문(複句)을 세 가지 하위 범주, 즉 내포문(內包複句), 대등복문(等立複句), 주종복문(主從複句)으로 분류했다.

王力(1943/1985), 丁樹聲 等(1952/1999)에서는 중국어 접속문을 등립구(等立句)와 주종구(主從句) 혹은 병렬(並列)과 종속(偏正)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했다.

생성문법의 관점 하에서 何元建(2011)에서는 중국어 접속문을 연합복문(聯合複句)과 주종복문(主從複句) 두 가지로 분류하고 다음 두 가지 구조를 제시하였다. 연합복문은 명시어 구조로, 주종복문은 부가어 구조로 파악한다.

- (3) 연합복문(聯合複句): [ConjP [CP 선행절 ] [Conj[Conj 연결사-[CP 후행절]]]]
- (4) 주종복문(主從複句): [CP [CP 선행절 ] [C 후행절 ]]

鄧思穎(2019)에서는 중국어 접속문을 연합복문(聯合複句)과 종속복문(偏正複句) 두 가지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접속문의 통사구조에 대한 양정석(2010)의 관점과 같은 관점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중국어의 연결사를 C(complementizer/標句詞) 범주로 설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 (5) 연합복문(聯合複句): [CP1[CP2 선행절 ] [C1[C1 연결사-[TP 후행절]]]]
- (6) 종속복문(偏正複句): [CP1[CP2 선행절 ] [CP1 후행절 ]]

본 연구에서는 순차 접속문 중에서 (2)와 같은 명시어 구조의 접속문이 한국어와 중국어에 존재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즉, 연결어미 ‘-고

서, -어서, -다가, -자마자'가 형성하는 한국어 접속문과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은 부가어 구조의 접속문을 이루는 반면, 연결어미 '-자'가 형성하는 한국어 접속문과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은 명시어 구조의 접속문을 이룬다는 것이다.

필자는 담홍달(2022)에서 한국어의 '-거든' 접속문과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이 명시어 구조를 이룬다는 점을 논증했는데, 이들은 명시어인 절이 '의도'의 의미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된다.<sup>3)</sup> 본 연구는 의도의 의미와 관계 없는 순차 접속문의 여러 유형들을 한국어 내에서 비교하고, 또한 중국어와의 대응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범언어적으로 접속문의 통사적 기술에 부가어 구조와 명시어 구조의 두 구조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전의 주장을 보강하고자 한다.

## 2. 부가어 구조 접속문과 명시어 구조 접속문

핵계층 이론(X-bar theory)은 인간 언어의 모든 구, 문장을 생성하는 원리이다. 접속문까지 포함하는 모든 문장은 핵계층 이론에 주어진 소수의 규칙들에 의해서 생성된다. Chomsky(1986)에 따르면 핵계층 이론의 원리는 다음 3개의 핵계층 도식(X-bar schema)으로 이루어진다. 각각을 보충어 규칙(complement rule), 명시어 규칙(specifier rule), 부가어 규칙(adjunct rule)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 (7) 핵계층 도식

ㄱ.  $X' \rightarrow YP X$

ㄴ.  $X'' \rightarrow YP X'$

ㄷ.  $X''' \rightarrow YP X''$

3) 양정석·류덕녕·레티탐(2023)에서는 한국어의 '-거든' 접속문이 중국어와 베트남어에서, 나아가 영어와 독일어에서 명시어 구조의 접속문으로 대응되고, 명시어 절은 의도의 의미 특성을 가진다고 기술했다. 중국어의 사실은 담홍달(2022)에 바탕을 둔 것이다.

접속문은 (7ㄱ)의 보충어 규칙에 의해 생성되는 보충어 구조를 갖지 않는다. (7ㄴ)의 명시어 규칙에 의해 생성되는 명시어 구조, (7ㄷ)의 부가어 규칙에 의해 생성되는 부가어 구조만이 접속문 구조에서 확인된다.

양정석(2010, 2022a,b)에서는 한국어 연결어미 ‘-거니와, -지만, -더니,...’ 들을 이루는 문장들이 부가어 구조가 아닌 ‘명시어 구조’를 취한다고 하는 점을 보이는 세 가지 증명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에 이 세 가지 증명 방법의 타당성 논증 과정을 같이 보기로 하자.

첫 번째 방법은 ‘접속문의 부정 요소의 영향권’이다. 다음 (8)과 (9)의 대조를 통해 확인해 보자.<sup>4)</sup>

- (8) 가. 태풍이 와서 그가 창문을 닫았다/닫지 않았다.  
 나. 소나기가 내리고 우레가 울렸다/울리지 않았다.  
 (9) 가. 그가 냄새를 맡더니 동생이 양말을 벗었다.  
 나. \*그가 냄새를 맡더니 동생이 양말을 벗지 않았다.

(8가)에서는 후행절 동사 ‘닫다’에 붙는 부정 요소 ‘않-’의 영향권은 선행절에 미친다. 즉 창문을 닫은 이유가 태풍이 오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부정의 의미가 해석될 수 있다. (8나)에서도 후행절의 부정 요소 ‘않-’의 영향권은 선행절에 미쳐 소나기가 내리는 사실과 우레가 울린다는 사실의 연접에 대한 부정의 의미가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더니’ 접속문 (9가, 나)에서는 후행절 동사에 붙는 부정 요소 ‘않-’의 영향권이 선행절까지 미치는 해석은 불가능하다.

중속접속문으로 알려진 ‘-어서’ 접속문과 대등접속문으로 알려진 ‘-고’ 접속문이 모두 선행절을 후행절 부정 요소의 영향권 안에 드는 해석을 가진다. 반면, ‘-더니’ 접속문에서는 후행절 부정 요소의 영향권이 선행절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현상은 ‘-아서’ 접속문, ‘-고’ 접속문, 그리고 ‘-더니’

4) (9)에서 ‘\*’로 표시된 문장은 선행절이 후행절의 부정 요소 ‘않-’의 부정의 영향권에 드는 해석으로 비문이 된다. 다른 해석으로 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는 있다.

접속문의 통사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면 체계적으로 설명된다.<sup>5)</sup>

- (8) 가. [<sub>VP</sub>[<sub>CP</sub>[<sub>IP</sub> e [<sub>I'</sub>[<sub>VP</sub>[<sub>CP</sub> 태풍이 와서] [<sub>VP</sub> 창문을 닫]]-∅-]]-지] 않-]-았-다.  
 나. [<sub>VP</sub>[<sub>CP</sub>[<sub>IP</sub>[<sub>CP</sub> 소나기가 내리고] [<sub>IP</sub> 우리가 올리-∅-]]-지] 않-]-았-다.  
 (9) [<sub>CP</sub>[<sub>C</sub>[<sub>IP</sub>그가 냄새를 맡-∅-]]-더니] [<sub>CP</sub>[<sub>IP</sub> e [<sub>VP</sub>[<sub>CP</sub> 동생이 양말을 벗지] 않-]-았-]-다] ]

(8가, 나)와 같은 부가어 구조에서는 선행절인 CP가 후행절의 부정 보조동사 ‘않-’에 성분통어되므로 ‘않-’에 의해 부정되지만, (9)와 같은 명시어 구조에서는 후행절의 부정 보조동사 ‘않-’에 성분통어되는 것은 후행절일 뿐이므로, 선행절은 부정의 영향권 안에 들지 못한다.

두 번째 방법은 ‘후행절 사건시 기준 해석의 여부’이다. (10)과 (11)의 대조를 통해 이 증명 방법을 확인해 보자. (10)에서는 ‘-어서’ 접속문, ‘-고’ 접속문의 후행절에 ‘-었-’, ‘-∅-’, ‘-을 것이-’이 결합되어 후행절의 사건시가 과거, 현재, 미래로 변동함에 따라 선행절의 사건시도 과거, 현재, 미래로 의존적으로 바뀐다. 이 점에서도 종속접속문으로 알려진 ‘-어서’ 접속문과 대등접속문으로 알려진 ‘-고’ 접속문이 모두 후행절 사건시 기준 해석을 받는다는 점이 주목된다.

- (10) 가. 태풍이 와서 그가 창문을 닫았다/닫는다/닫을 것이다.  
 나. 소나기가 내리고 우리가 올렸다/올린다/올릴 것이다.  
 (11) 그가 냄새를 맡더니 동생이 양말을 벗었다/?양말을 벗는다/?양말을 벗을 것이다.

그러나 (11)의 ‘-더니’ 접속문에서는 선행절이 후행절 사건시의 변동에 따라 의존적으로 변동하지 않는다. ‘-어서’ 접속문, ‘-고’ 접속문이 부가어 구조인 것과 달리 ‘-더니’ 접속문의 통사구조가 (9)와 같은 명시어 구조인 것이 그 이유이

5) (8가, 나)은 (7ㄷ)의 ‘부가어 규칙’이 적용되어 형성된 ‘부가어 구조’이다. (9)은 (7ㄴ)의 ‘명시어 규칙’이 적용되어 형성된 ‘명시어 구조’이다.

다. (9)'와 같은 구조에서 '-더니' 접속문의 후행절은 보문소 '-더니'의 명시어가 되므로, 후행절의 시간 요소들이 그 절 경계(CP)를 넘어서 선행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선행절의 연결어미가 후행절의 서법에 대한 제약이 가지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 (12) 가. 태풍이 와서 그가 창문을 닫아라/닫자/닫으마.  
나. 소나기가 내리고 우리가 울려 보아라/울려 보자/울려 보마.  
(13) 그가 냄새를 맡더니 ??동생이 양말을 벗어라/??우리가 양말을 벗자/??동생이 양말을 벗으마.

(12)에서 볼 수 있듯이 '-어서' 접속문, '-고' 접속문의 후행절 서법은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13)에서는 '-더니' 접속문의 후행절 서법이 제약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 제시한 부가어 구조인 (8)', 명시어 구조인 (9)'의 가정을 통하여 이 차이가 체계적으로 설명된다. (8)'과 같은 부가어 구조에서는 '-어서' 선행절과 '-고' 선행절이 후행절의 VP의 부가어, IP의 부가어일 뿐이므로 후행절의 서법에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나 (9)'과 같은 명시어 구조에서는 후행절 CP가 선행절의 보문소 '-더니'의 명시어이므로 후행절의 서법이 머리성분 '-더니'에 의해 제약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상의 세 가지 방법은 연결어미 '-더니'가 '-어서', '-고'와는 달리 명시어 구조를 형성하는 머리성분(핵어: head)의 기능을 가짐을 증명한다.<sup>6)</sup>

한국어에서 명시어 구조 접속문을 부가어 구조 접속문과 구별하는 세 검증 방법을 중국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담홍달(2022)에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중국어 접속문에서는 '...而且...' 접속문, '要是...' 접속문, '雖然...但是...' 접속문이 명시어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6) 양정석, 『-더니- 계통 연결어미들의 형식의미론적 기술』, 『배달말』 71집, 배달말학회, 2022a, p.7.

이 세 가지 검증 방법 중에서 ‘접속문의 부정 요소의 영향권’을 이용한 검증 방법은 중국어 접속문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

鄧守信(1973/1975/2017), 陳平(1985), 袁毓林(2000)에서는 부정 요소의 영향권이 한 절 내에서 부정 요소의 뒤에 위치하는 성분에 미친다고 하였다. 沈開木(1984)에서는 부정 요소의 영향권은 음운론적인 휴지(pause)가 있는 경우에 문장 전체이고, 휴지가 없는 경우는 목적어까지라고 하였다. 胡建華(2007)에서는 중국어 부정 요소의 영향권을 그 부정 요소가 성분통어(c-command)하는 영역으로 설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중국어 문장에서 부정 요소의 영향권이 한 절을 넘어서 다른 절에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 요소의 영향권 차이를 이용한 검증 방법을 중국어 접속문의 구조 판단을 위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시간적 선후관계를 이용한 검증 방법과 후행절 서법에 대한 제약 여부의 검증 방법을 중국어 접속문에 적용해 보자. 먼저 시간적 선후관계를 이용한 검증 방법을 통하여 ‘因為...所以...’ 접속문이 부가어 구조를, ‘...而且...’ 접속문과 ‘要是...’ 접속문이 명시어 구조를 이룬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

- (14) 因為下雷陣雨，所以他關上了窗戶/所以他關上窗戶/所以他會關窗戶。  
 (소나기가 와서 그가 창문을 닫았다.)  
 (소나기가 와서 그가 창문을 닫는다.)  
 (소나기가 와서 그가 창문을 닫을 것이다.)
- (15) 가. 哲洙販毒，而且殺了人/殺人/要殺人。  
 (철수는 마약을 판매하거니와 사람도 죽였다.)  
 (철수는 마약을 판매하거니와 사람도 죽인다.)  
 (철수는 마약을 판매하거니와 사람도 죽일 것이다.)  
 나. ??哲洙販了毒/哲洙販毒/哲洙要去販毒，而且殺人。  
 (철수는 마약을 판매했거니와 사람도 죽였다.)  
 (철수는 마약을 판매하거니와 사람도 죽인다.)  
 (철수는 마약을 판매하거니와 사람도 죽일 것이다.)
- (16) 가. 要是你通過考試，\*我們一起吃了飯(吧)/我們一起吃飯(吧)/我們會一起吃飯(吧)!  
 (시험에 통과하면 우리가 같이 밥을 먹었다.)

(시험에 통과하면 우리가 같이 밥을 먹자!)

(시험에 통과하면 우리가 같이 밥을 먹자!)

나. 要是你\* 通過了考試/通過考試/(會)通過考試, 我們一起吃飯(吧)!<sup>7)</sup>

(시험에 통과했다면 우리가 같이 밥을 먹었다.)

(시험에 통과하면 우리가 같이 밥을 먹자!)

(시험에 통과하면 우리가 같이 밥을 먹자!)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었-’, ‘-을 것이-’와 같은 선어말어미 요소들에 의해 시간적 선후관계의 변동을 나타내기가 어려우므로 과거의 의미를 표현하는 중국어 완료상 표지 ‘-了-’, 현재의 의미를 표현하는 중국어 중화상 표지 ‘-∅-’, 미래의 의미를 표현하는 중국어 추정외의 양상 표지 ‘-會/要-’를 이용하여 그 시간 관계를 설명하기로 한다.<sup>8)</sup> ‘因為...所以...’ 접속문인 (14)에서는 후행절의 사건시를 완료상 표지 ‘-了-’, 중화상 표지 ‘-∅-’, 추정외의 양상 표지 ‘-會/要-’의 첨가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변동되어 선행절의 사건시도 과거, 현재, 미래로 의존적으로 변동한다. 그러나 ‘...而且...’ 접속문인 (15가)에서는 문장들이 모두 문법적이지만 후행절 사건시의 변동에 따라 선행절 사건시가 의존적으로 변동하지 않는다. 반대로 선행절 사건시의 변동에 따라 후행절 사건시가 의존적으로 변동하지도 않는다(15나). ‘要是...’ 접속문인 (16가)는 후행절 사건시가 미래로 바뀔 경우 선행절 사건시가 이에 의존하여 바뀌지만 후행절 사건시가 과거로 바뀌는 경우에는 선행절 사건시가 이에 의존하여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16나)는 선행절 사건시가 과거/현재/미래로 변동함에 따라 후행절 사건시가 의존적으로 변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인다.

편정복문(偏正復句)의 예로 알려진 ‘因為..., 所以...’ 접속문은 후행절 사건시의 변동에 따라 선행절 사건시가 의존적으로 변동한다.<sup>9)</sup> 반면, ‘...而且...’ 접속문과 ‘要是...’ 접속문은 선행절이나 후행절 사건시의 변동에 따라 그 후행절

7) (16가, 나)에서 \*로 표시된 문장은 ‘要是’가 후행절에 ‘의도’ 의미를 요구하는 해석으로 비문이 된다. 다른 해석으로 문법적인 문장이 될 수는 있다.

8) 왕례량,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 범주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251.

9) 劉月華·潘文娛·故韞,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1, p.864.

이나 선행절이 의존적으로 변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을 (14)'의 부가어 구조('因為..., 所以...' 접속문), (15)', (16)'의 명시어 구조('...而且...' 접속문, '要是...' 접속문)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14)' [MP[CP 因為下雷陣雨] [MP 所以他關上了窗戶]]

(15)' [CP [CP 晝洙販了毒][C 而且-[MP 殺人]]]

(16)' [CP[C 要是-[IP 你通過考試]] [MP 我們一起吃了飯(吧)]]

(14)'와 같은 구조에서는 선행절인 CP가 후행절의 부가어에 지나지 않으므로 후행절이 과거, 현재, 미래로 바뀔 때 따라 선행절이 과거, 현재, 미래로 바뀌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그러나 (15)', (16)'와 같은 명시어 구조에서는 완료상을 포함한 절이 명시어일 뿐이므로, 이 명시어절이 과거, 현재, 미래로 바뀔 때 따라 다른 절(보충어 절)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의존적으로 변동되는 일은 생각할 수가 없다.

(15)'의 구조에서는 C 범주 '而且'에 의해 투사되는 구의 명시어(CP)가 선행절이고, (16)'에서는 C 범주 '要是'에 의해 투사되는 구의 명시어(MP)가 후행절이다. 원리매개변인 이론(Principles & Parameters theory)에 의하면 보충어가 머리성분(핵어: head)에 앞서는지 뒤서는지의 사실은 머리성분 매개변인(head parameter)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지만 부가어 또는 명시어의 어순에 대한 매개변인을 설정한 예는 찾기 어렵다. 부가어와 명시어는 그 피수식어의 오른쪽에 나타날 수도 있고, 왼쪽에 나타날 수도 있다. (15) 구문과 (16) 구문이 공통적으로 명시어 구조를 이루지만 그 명시어의 순서는 다를 수 있는 것이다.<sup>10)</sup>

후행절 서법에 대한 제약 여부의 검증 방법은 (17), (18), (19)의 대조를 통해 확인해 보자. 중국어 서법에 대해서 서퇴(2017)에서는 평서문 서법 요소는 어기조사 '吧, 呢, 的, 啊, 來著, 了', 또는 무표지 서법 'φ'가, 청유문의 서법 요소는 어기조사 '吧'가, 명령문의 서법을 표현하는 어기조사는 '吧, 啊, 了', 또는 무표

10) 담홍달, 「한국어 접속문과 중국어 접속문의 대조 분석: 명시어 구조 접속문을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6집,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2022, p.40.

지 서법 ‘ $\phi$ ’가 존재한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각 서법의 요소들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평서문 서법의 무표지 서법 ‘ $\phi$ ’을, 명령문 서법의 ‘吧’를, 청유문 서법의 ‘吧’를 대표로 활용하려고 한다.

- (17) 因為下雷陣雨，所以他關上了窗戶/所以讓他關上窗戶吧/所以我們一起關上窗戶吧!  
 (소나기가 와서 그가 창문을 닫는다/그에게 창문을 닫게 했다고./우리가 창문을 닫자!)
- (18) 哲洙販毒，而且殺人。  
 \* 哲洙販毒吧，而且殺人(吧)!  
 \* 我們一起販毒吧，而且殺人(吧)!  
 (철수는 마약을 판매하거나와 사람을 죽인다.)  
 (\* 철수는 마약을 판매하거나와 사람도 죽여라!)  
 (\* 우리 같이 마약을 판매하거나와 사람도 죽이자!)
- (19) <sup>?</sup>要是你遇見老師，把禮物給他。(평서문의 분석으로)  
 要是你遇見老師，把禮物給他吧!  
 要是我們遇見老師，把禮物給他吧!  
 (\* 네가 선생님을 만나거든 이 선물을 전한다.)  
 (네가 선생님을 만나거든 이 선물을 전해라!)  
 (우리가 선생님을 만나거든 이 선물을 전하자!)

(17)에서는 ‘因為...， 所以...’ 접속문의 후행절 서법에 대한 제약이 없지만 (18), (19)에서는 선행절이나 후행절 서법이 제약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와 같은 부가어 구조에서는 ‘因為-’ 선행절이 후행절 MP의 부가어일 뿐이므로 후행절의 서법에 제약받은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반면에 (15)와 같은 명시어 구조에서는 선행절 CP가 후행절의 보문소 ‘而且-’의 명시어이므로 선행절의 서법이 머리성분 ‘而且-’에 의해 제약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16)의 명시어 구조에서는 후행절 MP가 선행절의 보문소 ‘要是-’의 명시어이므로 후행절의 서법이 머리성분 ‘要是-’에 의해 제약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상의 논증은 위 두 가지 증명 방법으로 중국어 명시어 구조 접속문과 부가어 구조 접속문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증명 방법을 한국어의 순차 접속문 ‘-고서, -어서, -다가, -자마자, -자’ 접속문들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들에 대하여 적용해 본다. ‘-고서, -어서, -다가, -자마자’ 접속문들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들은 부가어 구조를 이루며, ‘-자’ 접속문에 대응되는 중국어 ‘剛...就...’ 접속문은 명사어 구조를 이룬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 3. 한국어 순차 접속문과 중국어 접속문의 대응

#### 1) ‘-고서’, ‘-어서’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

시간적 순차 관계를 표현하는 ‘-고서’, ‘-어서’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20) 그는 나에게 선물을 주고서 집에 갔다.

他給我禮物，然後回家了。

他給我禮物以後，回家了。

他給我禮物之後，回家了。

他給我禮物後，回家了。

他給了我禮物，回家了。

(21) 그는 교실에 들어가고서 선생님을 만났다.

他進教室，然後遇見了老師。

他進教室以後，遇見了老師。

他進教室之後，遇見了老師。

他進教室後，遇見了老師。

他進教室，遇見了老師。

(22) 철수는 꽃을 사서 여자친구에게 주었다.

哲洙買了花，然後送給了女朋友。

哲洙買了花以後，送給了女朋友。

哲洙買了花之後，送給了女朋友。

哲洙買了花後，然後送給了女朋友。

哲洙買了花，送給了女朋友。

(23) 그는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었다.

他抓魚，然後烤了吃。  
 他抓了魚以後，烤了吃。  
 他抓了魚之後，烤了吃。  
 他抓了魚後，烤了吃。  
 他抓魚，烤了吃。

예문 (20)–(23)을 보면 ‘-고서’ 접속문과 ‘-어서’ 접속문은 중국어에서 ‘...然後...’ 접속문, ‘...以後...’ 접속문, ‘...之後...’ 접속문, ‘...後...’ 접속문, 무표지 접속문의 다섯 가지 접속문 형식으로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선행절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후행절의 사건이 이어지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이들 중 ‘...然後...’ 접속문은 접속부사 ‘然後’가 후행절을 이끄는 문장이고 ‘...以後/之後...’ 접속문과 ‘...後...’ 접속문은 선행절의 말미에 시간 방위 명사 ‘以後/之後/後’가 붙어 있는 문장이다. 무표지 접속문은 접속 요소를 가지지 않는 접속문인데, 역시 순차 관계를 표현한다.

중국어 접속문에서 주절의 역할은 후행절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然後...’ 접속문, ‘...以後...’ 접속문, ‘...之後...’ 접속문, ‘...後...’ 접속문, 무표지 접속문의 후행절에 과거의 의미를 표현하는 중국어 완료상 표지 ‘-了-’, 현재의 의미를 표현하는 중국어 중화상 표지 ‘-Ø-’, 미래의 의미를 표현하는 중국어 추정 의양상 표지 ‘-會/要-’ 이 추가됨에 따라 선행절이 의존적으로 변동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 (24) 가. 哲洙去學校，然後見了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났다.)  
 나. 哲洙去學校，然後見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난다.)  
 다. 哲洙去學校，然後要去見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날 것이다.)
- (25) 가. 哲洙去學校以後，見了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났다.)  
 나. 哲洙去學校以後，見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난다.)

- 다. 哲洙去學校以後, 要去見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날 것이다.)
- (26) 가. 哲洙去學校之後, 見了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났다.)
- 나. 哲洙去學校之後, 見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난다.)
- 다. 哲洙去學校之後, 要去見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날 것이다.)
- (27) 가. 哲洙去學校後, 見了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났다.)
- 나. 哲洙去學校後, 見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난다.)
- 다. 哲洙去學校後, 要去見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날 것이다.)
- (28) 가. 哲洙去學校, 見了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났다.)
- 나. 哲洙去學校, 見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난다.)
- 다. 哲洙去學校後, 要去見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날 것이다.)

(24)-(28)에서는 ‘...然後...’ 접속문, ‘...以後...’ 접속문, ‘...之後...’ 접속문, ‘...後...’ 접속문, 무표지 접속문 후행절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바뀌에 따라서 선행절의 시간이 의존적으로 바뀌는 관계가 포착된다. 예문들을 보면 (24)-(28)은 후행절 사건인 ‘見朋友’에 과거의 의미를 부여하는 ‘-了-’,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Ø-’, 미래의 의미를 부여하는 ‘-會/要-’를 첨가함에 따라 선행절의 사건인 ‘哲洙去學校’도 그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의존적으로 변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도 그렇지만 중국어에서도 의문법, 명령법 등의 서법은 후행절에 표시된다. 위 접속문들이 후행절 서법에 대한 제약을 가지는지 살펴보자.

- (29) 가. 哲洙去學校, 然後去見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난다.)

나. 哲洙去學校, 然後去見朋友嗎?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나냐?)

다. 哲洙去學校, 然後去見朋友吧!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나라!)

라. 我們去學校, 然後去見朋友吧!

(우리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나자!)

(30) 가. 哲洙去學校以後, 去見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난다.)

나. 哲洙去學校以後, 然後去見朋友嗎?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나냐?)

다. 哲洙去學校以後, 去見朋友吧!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나라!)

라. 我們去學校以後, 去見朋友吧!

(우리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나자!)

(31) 가. 哲洙去學校之後, 去見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난다.)

나. 哲洙去學校之後, 去見朋友嗎?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나냐?)

다. 哲洙去學校之後, 去見朋友吧!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나라!)

라. 我們去學校之後, 去見朋友吧!

(우리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나자!)

(32) 가. 哲洙去學校後, 去見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난다.)

나. 哲洙去學校後, 去見朋友嗎?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나냐?)

다. 哲洙去學校後, 見朋友吧!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나라!)

라. 我們去學校後, 見朋友吧!

(우리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나자!)

(33) 가. 哲洙去學校, 見朋友。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난다.)

나. 哲洙去學校, 見朋友嗎?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나냐?)

- 다. 哲洙去學校, 見朋友吧!  
 (철수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나라!)
- 라. 我們去學校, 見朋友吧!  
 (우리는 학교에 가(고)서 친구를 만나자!)

2장에서 서법의 증명 방법 중에 중국어 평서문 서법의 무표지 서법 ‘ $\phi$ ’을, 명령문 서법의 ‘吧’를, 청유문 서법의 ‘吧’를 사용하기로 하고 여기서 의문문 서법도 사용 빈도수가 높은 ‘嗎’로 활용하기로 한다. ‘...然後...’ 접속문, ‘...以後...’ 접속문, ‘...之後...’ 접속문, ‘...後...’ 접속문, 무표지 접속문의 후행절은 평서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 $\phi$ ’, 의문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嗎’, 명령과 청유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吧’와 결합할 수 있다. 이들 유형의 접속문들이 후행절 서법에 대한 제약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然後...’ 접속문, ‘...以後...’ 접속문, ‘...之後...’ 접속문, ‘...後...’ 접속문, 무표지 접속문들이 모두 (14)와 같은 부가어 구조를 갖기 때문에, 선행절은 후행절 MP의 부가어가 되어, 후행절의 서법에 대하여 제약을 가할 수 없다.

이상의 논거를 통해 ‘...然後...’ 접속문, ‘...以後...’ 접속문, ‘...之後...’ 접속문, ‘...後...’ 접속문, 무표지 접속문들이 모두 (14)와 같은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2) ‘-다가’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

시간적 순차 관계를 표현하는 ‘-다가’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구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은 접속사/접속부사를 갖지 않는 무표지 접속문이거나, ‘的時候’를 선행절의 머리성분으로 가지는 접속문인데, 두 경우 모두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

- (34) 철수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哲洙睡著睡著, 做了夢。  
 哲洙睡覺的時候, 做了夢。
- (35) 그는 공부하다가 쓰러졌다.

他學著學著，暈倒了。  
 他學習的時候，暈倒了。

위 예문을 통하여 ‘-다가’ 접속문이 중국어에서 ‘V1-著 V1-著, V2’ 접속문, ‘...的時候...’ 접속문의 두 가지 형식으로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1-著 V1-著, V2’ 접속문, ‘...的時候...’ 접속문의 후행절에 과거의 의미를 표현하는 중국어 완료상 표지 ‘-了-’, 현재의 의미를 표현하는 중국어 중화상 표지 ‘-∅-’, 미래의 의미를 표현하는 중국어 추정 양상 표지 ‘-會/要-’ 이 추가 됨에 따라서 선행절의 시간이 의존적으로 변동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 (36) 가. 哲洙睡著睡著，做了夢。  
 (철수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나. 哲洙睡著睡著，做夢了。  
 (철수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다.)  
 다. 哲洙睡著睡著，會做夢。  
 (철수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꿀 것이다.)
- (37) 가. 哲洙睡覺的時候，做了夢。  
 (철수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  
 나. 哲洙睡覺的時候，做夢了。  
 (철수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다.)  
 다. 哲洙睡覺的時候，會做夢。  
 (철수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꿀 것이다.)

(36), (37)은 ‘V1-著 V1-著, V2’ 접속문, ‘...的時候...’ 접속문에서 후행절의 시간 표현들을 달리해 본 것으로, 후행절에 현재 의미를 표현하는 표지 ‘-∅-’, 과거 의미를 표현하는 표지 ‘-了-’, 미래 의미를 표현하는 표지 ‘-會-’로 각각 그 시간 해석에 변화를 주었다. 시간 부사와의 결합이 다소 부자연스럽지만 후행절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변경함에 따라서 선행절의 시간이 의존적으로 바뀌는 관계가 확인된다. (36), (37)에서는 후행절 사건 ‘睡覺’에 미래, 현재, 과거의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선행절 사건 ‘做夢’이 그에 따라 미래, 현재, 과거

로 의존적으로 해석된다.

‘V1-著 V1-著, V2’ 접속문, ‘...的時候...’ 접속문이 후행절 서법에 대한 제약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다음 (38), (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8) 가. 哲洙睡著睡著, 做夢了。  
(철수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나. 哲洙睡著睡著, 做了夢嗎?  
(철수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으나?)  
다. ?孩子們睡著睡著, 做个夢吧!  
(아이들은 잠을 자다가 꿈꾸라!)  
라. ?孩子們睡著睡著, 一起做夢吧!  
(아이들은 잠을 자다가 함께 꿈꾸자!)
- (39) 가. 哲洙睡覺的時候, 做夢了。  
(철수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나. 哲洙睡覺的時候, 做夢了嗎?  
(철수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으나?)  
다. ?孩子們睡覺的時候, 做个夢吧!  
(아이들은 잠을 자다가 꿈꾸라!)  
라. ?孩子們睡覺的時候, 一起做夢吧!  
(아이들은 잠을 자다가 같이 꿈꾸자!)

이 두 문장이 평서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 $\phi$ ’, 의문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嗎’와 결합하면 자연스럽다. 명령문과 청유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吧’와 결합하면 의미상 다소 어색한 문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38다, 라), (39다, 라)는 통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루는 문법적인 문장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8) [MP[CP 孩子們睡著睡著] [MP 做个夢吧/一起做夢吧]]  
(39) [MP[CP 孩子們睡覺的時候] [MP 做个夢吧/一起做夢吧]]

이 두 접속문도 위에서 논의한 부가어 구조인 ‘...然後...’ 접속문, ‘...以後...’ 접속문, ‘...之後...’ 접속문, ‘...後...’ 접속문, 무표지 접속문들처럼 그 선행절이

후행절 MP의 부가어이므로, 후행절 서법에 대한 제약을 가하지 못한다.

다시금, ‘V1-著 V1-著, V2’ 접속문, ‘...的時候...’ 접속문이 (14)와 같은 부가어 구조를 이루는 것이 확인된다.

### 3) ‘-자마자’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

시간적 순차 관계를 의미하는 ‘-자마자’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마자’ 접속문은 중국어의 ‘—...就...’ 접속문과 가장 자연스럽게 대응된다.

(40) 철수가 가자마자 영화가 왔다.

哲洙一走, 英熙就來了。

(41) 철수가 노래를 부르자마자 전기가 나갔다.

哲洙一唱歌, 就停電了。

‘—...就...’ 접속문에서 선행절이 후행절 시간 해석에 따른 영향을 받는지의 검토는 다음과 같다.

(42) 我一回國, 就給你發了郵件。

(저는 귀국하자마자 메일을 보냈다.)

(43) 我一回國, 就給你發郵件。

(저는 귀국하자마자 메일을 보낸다.)

(44) 我一回國, 就會給你發郵件。

(저는 귀국하자마자 메일을 보낼 것이다.)

(42)–(44)에서는 ‘—...就...’ 접속문의 후행절에 과거의 의미를 표현하는 중국어 표지 ‘-了-’, 현재의 의미를 표현하는 중국어 표지 ‘-∅-’, 미래의 의미를 표현하는 중국어 표지 ‘-會-’의 첨가로 그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변동함에 따라서 선행절의 시간이 의존적으로 바뀌는 사실이 확인된다. (42)–(44)에서는 선행절 사건 ‘回國’이 후행절 사건 ‘發郵件’의 미래, 현재, 과거의 의미 변동에

따라 미래, 현재, 과거 의미로 의존적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就...’ 접속문에서 후행절의 서법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 (45) 我一回國，就給你發郵件。  
(저는 귀국하자마자 메일을 보낸다.)
- (46) 我一回國，就給你發郵件嗎？  
(저는 귀국하자마자 메일을 보내나?)
- (47) 你一回國，就給我發郵件吧！  
(너는 귀국하자마자 메일을 보내라!)
- (48) 我們一回國，就給他發郵件吧！  
(우리는 귀국하자마자 메일을 보내자!)

‘—...就...’ 접속문은 평서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Φ’, 의문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嗎’, 명령과 청유문을 표현하는 서법 요소 ‘吧’과 결합하면 모두 자연스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부가어 구조로 증명된 ‘...然後...’ 접속문, ‘...以後/之後...’ 접속문, ‘...後...’ 접속문, ‘V1-著 V1-著, V2’ 접속문, ‘...的時候...’ 접속문과 같이 ‘—...就...’ 접속문도 선행절이 후행절 MP의 부가어이므로 후행절의 서법에 제약을 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就...’ 접속문도 (14)’의 부가어 구조를 이루는 사실이 확인된다.

#### 4) ‘-자’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

앞에 제시한 순차 접속문들과 달리 ‘-자’ 접속문은 명시어 구조를 이루고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도 명시어 구조를 이룬다. 다음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응되는 접속문들을 관찰하여 이 점을 보이기로 한다.

- (49) 철수가 학교에 오자 눈이 오기 시작했다.  
哲洙剛到學校，就開始下雪了。
- (50) 회의가 끝나자 직원들이 회사 밖으로 나갔다.  
會議剛結束，職員們就離開了公司。

- (51) 철수가 집을 나가자 전화벨이 울렸다.  
 哲洙剛離家，電話鈴就響了。  
 (52) 그가 노래를 부르자 영희가 울었다.  
 他剛唱歌，英熙就哭了。

담홍달(2022)에서는 ‘-자’ 접속문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은 무표지 접속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 접속문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접속문이 (49)–(52)에 보인 것과 같은 ‘剛...就...’ 접속문이라고 주장한다. ‘剛’을 접속문을 이끄는 접속 요소로 서술한 예는 선행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11)</sup> 본 연구에서는 이 ‘剛’을 보문소(C) 범주로 처리하고자 한다.

‘剛...就...’ 접속문에서 선행절이 후행절 시간 해석에 따라 변동하는 해석을 가지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 (53) 哲洙剛離家，電話鈴就響了。  
 (철수가 집에 나가자, 전화벨이 울렸다.)  
 (54) <sup>?</sup> 哲洙剛離家，電話鈴就響了。  
 (\*철수가 집에 나가자, 전화벨이 울린다.)  
 (55) <sup>\*</sup> 哲洙剛離家，電話鈴就會響了。  
 (\*철수가 집에 나가자, 전화벨이 울리겠다.)

중국어 ‘剛...就...’ 접속문의 후행절에서 과거의 의미를 표현하는 완료상 표지 ‘-了-’, 현재의 의미를 표현하는 중화상 표지 ‘-Ø-’, 미래의 의미를 표현하는 추정 양상 표지 ‘-會-’를 첨가하여 그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석되도록 변화를 주었다. ‘剛...就...’ 접속문은 동작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구문이다. 선행절의 사건이 끝난 후에 후행절의 사건이 이어서 발생하는 것을 표현한다. 예문 (55)의 후행절에 미래 의미를 표현하는 추정 양상 표지 ‘-會-’를 첨가하더라도 이에 따라 선행절이 미래 의미로 의존적으로 변동하지 못하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이것은 ‘剛...就...’ 접속문이 이미 발생한 사실을 표현하기 때문이다.<sup>12)</sup> 이

11) 邢福義, 『漢語複句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1, p.268.

12) 苑艷艷 「現代漢語“一……就……”句式探究及在教學中的應用」, 山東大學碩士學位論

는 ‘剛’이 한국어의 연결어미 ‘-자’처럼 기준 시점을 발화시 이전의 시점으로 설정하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최재희(1991)에서는 한국어 ‘-자’ 접속문의 순차 의미를 연계성과 연발성으로 규정하고, ‘-자마자’ 접속문의 순차 의미는 연계성과 즉발성으로 규정했다.<sup>13)</sup> ‘剛...就...’ 접속문이 구조적으로는 ‘-자’ 접속문과 대응되지만, 의미적으로는 ‘-자마자’가 가지는 ‘즉발성’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4)</sup>

중국어의 ‘剛...就...’ 접속문과 ‘—...就...’ 접속문은 모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표현하지만, 전자는 이미 발생한 사건만 표현할 수 있고 후자는 미연(未然)의 사건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이 두 접속문의 큰 차이점이다.

- (56) 我一回國，就會給你發郵件。  
 (저는 귀국하자마자 내일 메일을 보낼 것이다.)  
 (56)\* 我剛回國，就會給你發郵件。  
 (\*저는 귀국하자 내일 메일을 보낼 것이다.)

(56)과 달리, (56)은 후행절에 미래 의미를 표현하는 추정 양상 표지 ‘-會-’를 첨가하면 선행절의 시간이 이에 따라 의존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剛...就...’ 접속문에서 후행절의 서법에 대한 선택제약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 (57) 哲洙剛離開家，電話鈴就響了。  
 (철수가 집에 나가자 전화벨이 울렸다.)  
 (58) 哲洙剛離開家，電話鈴就響了嗎？  
 (철수가 집에 나가자 전화벨이 울렸어?)  
 (59) ?? 哲洙剛離開家，電話鈴就響了吧！

文, 2008, p23.

13) 최재희, 『국어의 접속문 구성 연구』, 서울: 탑출판사, 1991, p186.

14) 이 점은 ‘剛...就...’ 접속문이 ‘-자마자’의 의미를 강하게 가진다는 익명의 심사위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서술한 것이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린다.



본 연구에서는 순차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서, -어서, -다가, -자마자, -자’ 등이 형성하는 한국어 접속문과 이들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 표현들을 검토하였다. 이들 접속문의 선행절이 후행절 사건시 기준의 해석이 가능한지, 후행절 또는 선행절의 서법에 대한 제약의 사실이 있는지를 검증 방법으로 사용하여 한국어 순차관계 접속문들의 통사적 특성을 확인하고, 중국어에서 이와 대응되는 접속문의 통사적 특성들을 비교해 보았다.

중국어에서도 명시어 구조를 이루는 ‘剛...就...’ 접속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剛...就...’ 접속문은 한국어의 ‘-자’ 접속문과 대응되는 중국어의 접속문이다. 이 유형의 접속문에 대해서 양정석(2010)에서 제시한 검증 기준들을 적용함으로써 이 접속문이 명시어 구조를 이룬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순차관계를 나타내는 한국어의 ‘-고서’ 접속문, ‘-아서’ 접속문과 이들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인 ‘...然後...’ 접속문, ‘...以後...’ 접속문, ‘...之後...’ 접속문, ‘...後...’ 접속문, ‘-다가’ 접속문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인 ‘V1-著 V1-著, V2’ 접속문, ‘...的時候...’ 접속문, ‘-자마자’ 접속문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인 ‘—...就...’ 접속문은 명시어 구조를 이루지 않고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 ‘-고서’ 접속문, ‘-아서’ 접속문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무표지 접속문도 부가어 구조를 이룬다.

## ◆ 참고문헌

### 1. 단행본

- 양정석, 『한국어 통사 구조론(개정판)』, 서울: 한국문화사, 2010.  
 임홍빈·장소원, 『국어문법론 I』,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5.  
 최재희, 『국어의 접속문 구성 연구』, 서울: 탐출판사, 1991.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1937/1971.  
 陳平, 『現代語言學研究: 理論, 方法與事實』, 重慶: 重慶出版社, 1985.  
 丁樹聲 等, 『現代漢語語法講話』, 北京: 商務印書館, 1952/1999.  
 鄧守信, 『漢語語法論文集—中譯本』,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2017.  
 鄧思穎, 『形式漢語句法學 (第二版)』,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19.

- 何元建, 『現代漢語生成語法』,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北京: 商務印書館, 1924/1992.  
 劉月華·潘文娛·故韡, 『實用現代漢語語法(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01.  
 林裕文, 『偏正複句』,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62/1987.  
 邢福義, 『漢語複句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1.  
 Chomsky, N, Barriers, MIT, 1986.

## 2. 논문

- 김영희, 「등위 접속문의 통사 특성」, 『한글』 201-202집, 한글학회, 1988, pp.83-118.  
 남기심, 「접속어미와 부사형 어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0집, 연세대학교 언어 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985, pp.69-77.  
 담홍달, 「한국어 접속문과 중국어 접속문의 대조 분석: 명사어 구조 접속문을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6집,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2022, pp.33-62.  
 서뢰, 「한국어와 중국어의 서법에 관한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서정수,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1)-대등접속어미」, 『한글』 189집, 한글학회, 1985, pp.51-86.  
 양정석, 「-더- 계통 연결어미들의 형식의미론적 기술」, 『배달말』 71집, 배달말학회, 2022a, pp.1-39.  
 \_\_\_\_\_, 「한국어 ‘-길래’ 접속문의 통사미미적 합성」, 『언어와 정보』 26권2호, 한국언어정보학회, 2022b, pp.129-151.  
 양정석·류력녕·레티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의 의도 구문」, 『언어와 언어학』 99집, 2023, 한국외국어대 언어연구소, pp.53-94.  
 유소려,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관계 접속문에 대한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7.  
 왕례량,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 범주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苑艷艷, 「現代漢語“壹……就……”句式探究及在教學中的應用」,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胡建華, 「否定,焦點與轄域」, 『中國語文』第2期,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2007, pp.99-112.  
 沈開木, 「不’字的否定範圍和否定中心的探索」, 『中國語文』第6期,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1984, pp.4-12.  
 王弘宇, 「說“一 A 就 C”」, 『中國語文』第2期,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2001, pp.134-140.  
 袁毓林, 「論否定句的焦點, 預設和轄域歧義」, 『中國語文』第2期,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2000, pp.99-108.

논문 접수 일	2024년 8월 10일
심사 완료 일	2024년 8월 30일
게재 확정 일	2024년 9월 19일

*Abstract*

---

A Contrastive Study on Sequential Conjunctive Sent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Tan, Hongda

Conjunctive sentences can form 'Spec Constructions' and 'Adjunct Constructions' in X-bar theoretical terms. In this paper, I examine Chinese conjunctive sentences corresponding to Korean conjunctive sentences with conjunctive endings '-goseo, -eoseo, -daga, -jamaja, -ja' which have sequential meaning. I find that there exists one type of 'Spec Constructions' in Chinese conjunctive sentences, which is 'gang...jiu...' sentences. And there also exist seven types of 'Adjunct Constructions' in Chinese conjunctive sentences, which are '...ranhou...' sentences, '...yihou/zhihou...' sentences, '...hou...' sentences, 'V1-zhe V1-zhe, V2' sentences, '...deshihou...' sentences, 'yi...jiu...' sentences, and marker-less conjunctive sentences.

**Keyword** Conjunctive sentences, Adjunct Constructions, Spec Constructions, 'gang...jiu...' sentence, '...ranhou...' sentence, '...hou...' sentence, 'jishi...ye...' sentence, 'V1-zhe V1-zhe, V2'sentence, '...deshihou...' sentence, 'yi...jiu...' sentence, Marker-less conjunctive sentences



# 중국어 사피동 동형표지 ‘讓, 叫, 給’의 한국어 번역 양상에 대한 문법적 고찰

-넷플릭스 중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유석\* · 정설\*\* · 김건희\*\*\*

##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중국 드라마 16편의 한중 자막을 대상으로 사·피동 동형표지 ‘讓’, ‘叫’, ‘給’ 구문이 한국어 자막에서 어떻게 번역되는지 살펴보고 그 대응 양상의 원인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讓’, ‘叫’, ‘給’ 구문은 한국어 자막에서 다양한 대응 양상으로 나타났다는데 ‘사동-주동’, ‘사동-피동’, ‘피동-능동’, ‘피동-사동’ 네 가지 대응 양상 위주로 통사적, 의미적 특징과 대응 원인을 검토하였다. 주어의 [±유정성], 중국어 문장이 한국어 문장으로 변환될 때 나타나는 논항의 변화,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 변화를 주요 논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한중 자막 번역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학습자들이 사·피동 표지의 의미와 기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한중 자막 번역의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사동문, 피동문, 말뭉치, 한중대조, 한중번역

## 〈목차〉

1. 서론
2. 선행 연구의 검토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4. 번역의 대응 양상 및 분석
5. 결론

\* 주저자: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공동저자: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서론

한중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과 중국 OTT 플랫폼<sup>1)</sup>에서는 양국의 대표적인 드라마나 영화 작품도 수입되고 있다. 이는 양국의 시청자들에게 풍부한 영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와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도 소중한 구어 말뭉치 학습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고는 한국의 여러 플랫폼 중 넷플릭스<sup>2)</sup>에서 상영되는 중국 드라마를 대상으로 드라마 중국어 자막에 나타나는 사·피동 동형표지 ‘讓’, ‘叫’, ‘給’에 대응하는 한국어 자막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어 자막에 대한 한국어 자막 번역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와 중국어 학습자들이 사·피동 동형표지의 실현 양상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사동법과 피동법은 대표적인 문법범주로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중요한 문법적 지위를 차지한다. 최근 몇 년간 한중 사동법과 한중 피동법을 대조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 중에서 한중 사동법을 대조하는 기존 연구로는 HUA SHENGNAN(2018), 동정정(2022), YANG HONGYUE(2023), 유석·김건희(2023) 등이 있다. 이들은 한중 각각의 사동 실현 방법을 선정하여 통사적, 의미적 측면에서 한중 사동법의 특징을 대조하였다. 왕녕박(2017), 왕월요(2022), 최요방(2024) 등에서는 한중 피동법을 대조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들은 피동법의 전체적인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대조하는 것 이외에 한중

1) 최선영, 「OTT서비스에서의 텔레비전 시청흐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p.11. 최선영(2014)에서는 OTT플랫폼에 대해 ‘텔레비전 동영상 콘텐츠를 방송사와 같은 저작권자로부터 구매하여 복수의 방송 채널과 콘텐츠를 취합하고 다시 시청자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특정 망에 종속되지 않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

2) 본 연구는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중국 드라마의 이중 자막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언어 학습자들이 ‘Language Learning with Netflix’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Netflix 영상 자막에 나오는 외국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넷플릭스의 자막 번역은 일반적인 병렬말뭉치 자료보다 한국어 교육 및 언어학적 연구 가치가 실질적으로는 더 크다고 생각된다.

피동법의 실현 방법의 대응 양상도 함께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어와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양국의 사동법과 피동법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한중 사동문 대조와 한중 피동문 대조로 각각 나뉘서 대조 연구를 진행하였고 무엇보다 사동문과 피동문이 모두 실현될 수 있는 사·피동 동형표지에 관한 대조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어 통사적 사동법 가운데 ‘讓’, ‘叫’, ‘給’과 같은 표지들이 중국어 사동문과 피동문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동형표지이다.<sup>3)</sup> 그렇다면 이런 중국어 사·피동 동형표지는 한국어에서 어떤 사동법 유형이나 피동법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讓’, ‘叫’, ‘給’ 구문에 대응되는 한국어의 구문이 어떤 통사적 및 의미적 특징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상영되는 중국 드라마의 이중언어 자막을 대조하고, 다양한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讓’, ‘叫’, ‘給’ 구문 자막이 한국어 구문 자막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대조언어학적 관점 및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고 나아가 한중 자막 번역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했다. 2장에서는 ‘한중 자막 번역의 대조 연구, 한중 사·피동법의 대조 연구, 한중 사·피동 동형표지의 대조 연구’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방법과 코퍼스 자료 수집 과정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사·피동 동형표지 ‘讓’, ‘叫’, ‘給’ 구문에 대응되는 한국어 자막 번역의 양상을 고찰하는데 실제 드라마 자막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 통사적 의미적 대응 양상을 설명하였다. 마

3) 왕녕박, 「한·중 사동과 피동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 34.  
 ‘讓’, ‘叫’, ‘給’은 중국어 사동문을 실현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동법이면서 동시에 피동문도 실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왕녕박(2017)에서는 ‘讓’, ‘叫’, ‘給’이 통사적 사동법과 통사적 피동법 유형에 모두 포함되었다.

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겠다.

## 2. 선행 연구의 검토

선행 연구의 유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OTT 플랫폼에서 방영된<sup>4)</sup> 영상 자막을 기반으로 언어학적 관점에서 자막 번역 양상을 살펴본 논의, 둘째, 한중 사동법 및 피동법을 대조한 논의, 셋째, 한중 사·피동 동형표지를 대조한 논의이다.

OTT 플랫폼에서 방영된 영상 자막을 기반으로 언어학적 관점에서 자막 번역 양상을 주목한 논의로는 부광인(2013), 채우정(2022) 등이 있다. 부광인(2013)에서는 중국어 드라마 한 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드라마 자막 중에 나오는 관용어 출현 빈도를 정리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 양상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채우정(2022)은 넷플릭스에 상영된 중국 드라마 한 편을 중심으로 한국어 번역 자막 중에 나타나는 호칭어, 외래어, 한자어, 사동법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중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한 번역의 다양성을 보여주었으며 한국의 언어 현실과 맞지 않는 번역투<sup>5)</sup> 부분도 지적하였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한중 번역 양상을 대조하여 학습자가 제2언어를 사용할 때 상대방 나라의 언어 표현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차이점이 나타나거나 잘못된 번역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한중 사동법 및 피동법을 대조하는 연구는 통사론적 영역과 의미론적 영역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한중 사동문의 실현 방법에 따른 대조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금송(2014)은 한국어와 중국어 사동문의 실현 방법을 형태적 방법, 통사적 방법, 어휘적 방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라 한중 사동문에서 나타나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

4) 이러한 영상 작품들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도 포함된다.

5) 최희경(2016), 「번역투 다시 보기: 코퍼스 분석 사례를 토대로」, 『번역학연구』 17호, 한국번역학회, 2016, pp. 147. 최희경(2016)에서는 ‘번역투’에 대해 ‘(번역+투)의 조어 형태’, ‘번역에 나타나는 어투’ 또는 ‘번역(또는 번역사) 때문에 생긴 어투’라고 제시하였다.

다. 왕녕박(2017)은 한중 사동문의 실현 방법을 형태적 방법과 통사적 방법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사동문의 실현 방법에 따라 사동문의 기능 핵의 내포 구조를 대조하였다. 최근 유석·김건희(2023)는 한중 사동문의 실현 방법을 다음 <표1>과 같이 형태적 방법, 통사적 방법, 어휘적 방법으로 분류하고 중국어 통사적 사동문과 한국어 어휘적 사동문의 사동주와 피사동주 자리에 오는 명사의 [±유정성] 양상을 대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어휘적 사동문에서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유정명사나 무정명사인 경우, 중국어 통사적 사동문으로 번역할 때 선택하는 중국어 통사적 사동 표지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밝혔다.

<표1> 한중 사동문의 실현 방법

실현 방법	한국어	중국어
형태적 방법	‘-이-, -히-, -리-, -기-’ 계열과 ‘-우-, -구-, 추-’ 계열	×
통사적 방법	‘-게 하-’	‘使, 叫, 讓, 命, 給’
어휘적 방법	‘-시키-, ‘시키-’	보충형 사동, 동형형 사동

한중 피동법을 대조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 피동문의 실현 방법 연구는 최현배(1937)로부터 시작되는데 최현배(1937)에서는 접미사 피동, ‘-되다’, ‘-받다’, ‘-당하다’ 구성의 피동, 그리고 보조동사 ‘-어지다’와 ‘-게 되다’를 활용한 피동 방식을 각각 첫째, 둘째, 셋째 방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최영(2007)의 연구에서는 최현배(1937)가 제시한 피동문의 실현 방법에 동의하여 한중 피동문에 관한 심층적인 대조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문화(2018)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피동 형태 몇 가지를 선정하고, 이들 간의 일대일 및 대대일 대응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한중 병렬말뭉치를 사용하였다.

중국어의 피동문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黎锦熙(1924)와 王力(1943)으로부터 시작된다. 중국어 피동법의 실현 방법 논의 위주로 살펴보면 黎锦熙(1924)는 피동문 주어가 수사(受事)로서 피동적 의미를 나타내는 ‘被’의 경우, 명사 앞에서는 전치사(介詞), 동사 앞에서는 피동적 조동사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王

力(1943)는 ‘被’가 조동사이고, ‘叫’도 조동사로 피동문을 만들 수 있으며, 또한 무표지 피동문도 제시하였다. 최영(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피동문의 실현 방법뿐만 아니라 현대 중국어 피동문의 실현 방법도 정리했는데 중국어 피동문의 실현 방법은 ‘被’, ‘讓’, ‘叫’, ‘給’, ‘由’에 의한 통사적 피동법과 ‘遭’, ‘受’ 등의 피동성을 가진 타동사에 의한 어휘적 피동법으로 분류했다. 본고는 최영(2007)에서 제시한 중국어 피동법을 참고하여 한중 피동문의 실현 방법을 다음 <표2>와 같이 제시한다.

<표2> 한중 피동문의 실현 방법

실현방법	한국어	중국어
형태적 방법	‘-이-, -히-, -리-, -기-’	×
통사적 방법	‘-되다’, ‘-받다’, ‘-당하다’	‘被, 讓, 叫, 給, 由’
어휘적 방법	‘-어지다’, ‘-게 되다’	‘遭’, ‘受’ 등 타동사

한국어와 중국어 사·피동 동형표지를 대조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한국과 중국의 각각의 연구를 살펴보고 종합하겠다. 사·피동 동형표지는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형태적 사동 접미사 가운데 존재하며 양동휘(1979), 강명순(2001), 김윤신(2006)에서 사·피동 동형 동사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중국어에서 사·피동 동형표지는 일반적으로 통사적 사동에서 나타나며 江藍生(2000)의 연구에서는 고대 작품에서 자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피동 동형표지로 ‘教’, ‘叫’, ‘給’, ‘讓’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教’가 현대 중국어에서는 통사적 사동으로 간주되지 않고 ‘叫’로 교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洪波·趙茗(2005)의 연구에서는 사·피동 접미사를 ‘叫’, ‘給’, ‘讓’ 세 가지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사·피동 동형표지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한중 사·피동 동형표지의 목록

한국어	중국어
‘-이-’, ‘-히-’, ‘-리-’, ‘-기-’ 접미사 계열에서 파생된 파생동사	‘讓’, ‘叫’, ‘給’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중 사동문과 피동문을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으로 대조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었으나 한중 사·피동 동형표지를 대조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문화(2018)의 논의가 거의 유일한데, 이문화(2018)은 신문 기사와 병렬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讓’, ‘叫’, ‘給’ 구문의 한국어 번역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讓’, ‘叫’, ‘給’ 구문의 한국어 사동문이나 피동문으로의 대응 관계가 일대일 대응하지 않음을 밝혔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OTT 플랫폼 중국 드라마 자막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중국어 ‘讓’, ‘叫’, ‘給’ 구문에 대응되는 한국어 구문 자막의 번역 양상을 의미적, 통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겠다.

###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의 선정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드라마 중 중국 드라마 자막 자료의 다양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고의 연구 대상 수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드라마 작품을 조사하였다.

#### 선별 기준:

1. 넷플릭스에 수입된 현대 중국어 드라마 조사
2.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제작된 드라마 제외
3. 이중언어 자막 없는 작품 제외

1차 선별 과정에서는 넷플릭스에서 상영 중인 중국 드라마 중 사극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사극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사용되는 언어 표현이

현대극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차 선별 과정에서는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제작된 드라마 작품을 제외하였다. 마지막 3차 선별에서는 2차에서 선정된 드라마 중에 이중언어 자막이 없는 드라마 작품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한중 자막의 번역 양상을 대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어와 한국어 자막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다. 이상의 3차 선별을 거쳐 최종적으로 연구 대상이 된 드라마 목록은 다음과 같이 총 16편이다.

〈표4〉 본고의 연구 대상

- |  |
|--|
| 1. 〈겨우 서른〉, 2. 〈너를 들려줘〉, 3. 〈너를 부르는 시간〉, 4. 〈너를 정말 사랑해〉, 5. 〈넌 웃을 때 제일 예뻐〉, 6. 〈누나의 첫사랑〉, 7. 〈맛있는 로맨스〉, 8. 〈미미일소흔경성〉, 9. 〈분투파소년〉, 10. 〈유성화완〉, 11. 〈입심불혹〉, 12. 〈이지파생활〉, 13. 〈차이문 난난적 소시광〉, 14. 〈첫사랑의 멜로디〉, 15. 〈친애적 열애적〉, 16. 〈투투장부주〉 <sup>6)</su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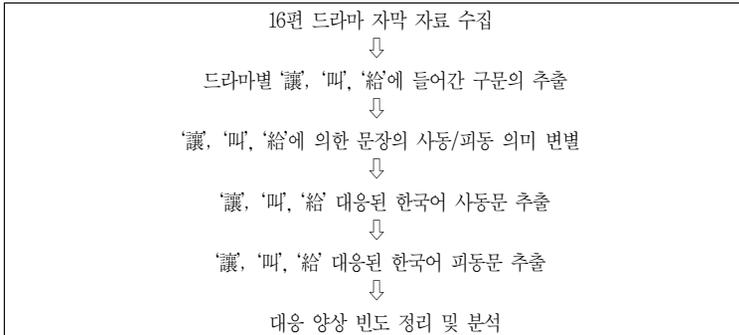
본고에서 선정된 중국 드라마는 최소 20회, 최대 50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당 40분 내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발행 연도는 모두 2015년 이후이며 이야기의 주제는 ‘로맨스, 젊은이들의 직장생활, 청춘의 방향’ 등이다.

## 2) 연구 방법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중국 드라마 16편의 이중언어 자막을 바탕으로 말뭉치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자료는 총 4백만여 어절(4,024,184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조언어학과 코퍼스언어학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6) 이하 ‘드라마+1, 2, 3...’로 지칭하겠다.

〈표5〉 연구 과정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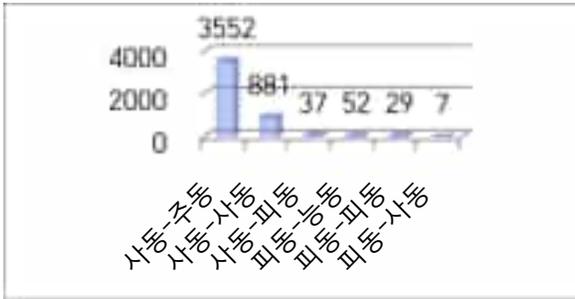
드라마 자막 수집에는 Language Learning with Netflix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Language Learning with Netflix는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강력한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시청하면서 언어를 더욱 효과적이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사이트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드라마 자막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드라마 중국어 자막에서 ‘讓’, ‘叫’, ‘給’과 같은 사·피동 동형표지를 포함된 구문을 추출했다. 이 단계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도구를 활용하여 자막 텍스트를 추출했다. 추출한 ‘讓’, ‘叫’, ‘給’ 구문을 사동문과 피동문으로 분류하고 사동이나 피동 의미가 없는 구문을 제외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讓’, ‘叫’, ‘給’ 사동문과 피동문이 대응하는 한국어 사동문과 피동문을 추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피동 동형표지의 대응 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국어 사동-한국어 주동’, ‘중국어 사동-한국어 피동’, ‘중국어 피동-한국어 능동’, ‘중국어 피동-한국어 사동’등<sup>7)</sup>의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 분석 단계에서는 ‘讓’, ‘叫’, ‘給’ 사동문과 피동문이 대응되는 한국어 자막의 번역 양상을 통사론 및 의미론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대응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7) 이하 ‘사동-사동, 사동-피동, 사동-주동, 피동-피동, 피동-사동, 피동-주동’으로 줄여서 지칭하겠다. ‘-’ 앞부분이 중국어 자막 원문에 해당하고 ‘-’ 뒷부분이 한국어 자막 번역 부분에 해당한다.

## 4. 번역의 대응 양상 및 분석

### 1) 대응 양상

사·피동 동형표지 ‘讓’, ‘叫’, ‘給’ 구문에 대응되는 한국어 구문의 번역 양상을 탐구하기 위해 OTT 플랫폼에서 상영되는 16편의 중국 드라마에 나오는 한중 자막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앞서 3장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3가지의 선별 기준 및 의미 분석을 거친 후 사·피동 동형표지 ‘讓’, ‘叫’, ‘給’ 구문에 대응되는 한국어 자막의 번역 빈도를 도출하였다. 먼저 ‘讓’ 구문의 한국어 자막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겠다.



〈그림1〉 ‘讓’ 구문의 한국어 번역 양상

〈그림1〉은 ‘讓’ 구문이 대응되는 한국어 자막의 번역 양상이다. 이를 통해 사·피동 동형표지 ‘讓’이 중국 드라마 자막에서 사동의 의미와 피동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讓’ 사동문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주동문으로의 대응 관계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구문들은 중국어에서는 뚜렷한 사동 의미가 잘 드러나는 반면 한국어 자막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사동의 의미를 잃고 주동문으로 번역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한국에서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사동문보다 중립적인 표현 방식을 선호하여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1과 같이 ‘讓’ 사동문이 한국어 번역 양상에서 2위를 차지하는 한국어 번역 유형

은 사동문이다. 이러한 한국어 사동문의 번역 양상은 16편 드라마에서 모두 빈번하게 출현하였다. 또한 ‘讓’ 사동문이 한국어 자막의 번역 양상에서 주동문과 사동문에 대응되는 것 이외에도 피동문으로도 대응되는 현상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수집한 구문 사례 중 한국어 피동문으로의 번역은 37개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讓’ 사동문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사동문으로 번역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피동문으로 번역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다. 그러나 ‘讓’ 표지는 사동의 문법적 기능이 피동의 문법적 기능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중국어 자막에서 나타나는 ‘讓’ 구문이 피동 의미를 수행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sup>8)</sup> ‘讓’ 중국어 피동문은 한국어 자막에서 대부분 능동문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한국어 피동문으로 번역되기도 하며 사동문으로 번역되는 사례도 있다.

다음은 ‘叫’ 구문의 한국어 자막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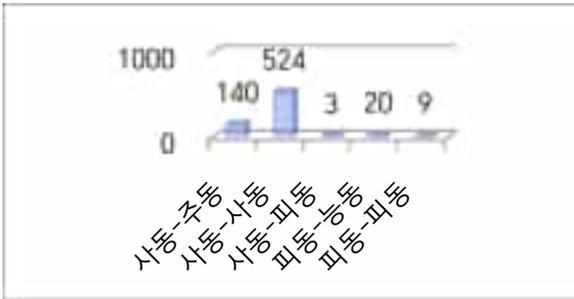
〈그림2〉 ‘叫’ 구문의 한국어 번역 양상

‘叫’ 구문에 대한 한국어 번역 양상을 분석한 결과 사동의 의미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고 피동의 의미 기능은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를

8) 중국 〈新華字典〉에 따르면 ‘讓’은 ① 사양, ② 사동, ③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동이 피동보다 먼저 제시되어 사동의 의미 범위가 피동의 의미 범위보다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면 ‘ㅁ’ 사동문이 한국어 주동문으로 번역된 경우가 85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 사동문으로 번역된 경우가 22개로 그 뒤를 이었다. ‘ㅁ’ 구문이 피동문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응된 한국어 번역 양상 또한 파악할 수 없었다. 실제 중국어 구어에서는 ‘ㅁ’가 피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법적 제약이 많은 편이다. 楊曉明(2017)은 ‘ㅁ’를 사동문과 피동문 모두 실현될 수 있는 사·피동 동형표지로 간주했지만 사동의 의미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피동문으로 실현되더라도 사동 의미와 피동 의미가 공존하는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ㅁ’가 사동문을 형성할 때는 문법적 제약을 크게 받기 때문에 피동문에서는 반드시 동사구(VP)가 사용되어야 하며 피동작주도 생략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은 ‘給’ 구문의 한국어 자막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겠다.



〈그림3〉 ‘給’ 구문의 한국어 번역 양상

〈그림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給’ 구문은 사동문과 피동문을 모두 실현할 수 있다. ‘給’ 사동문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讓’, ‘ㅁ’와는 달리 524회로 한국어 사동문에 가장 많이 대응되는 특징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 주동문으로 번역되는 양상이 140회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다. ‘給’ 피동문은 한국어 능동문으로 번역될 때 20회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 피동문으로 번역될 때는 9회로 뒤를 이었다. 한국어 사동문으로 번역된 경우는 포착되지 않았다.

이상 사·피동 동형표지 ‘讓’, ‘ㅁ’, ‘給’ 구문의 한국어 번역 양상을 분석한 결

과 아래와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1) ‘讓’, ‘給’은 사동문과 피동문을 모두 실현할 수 있으나 ‘叫’는 피동문으로 실현된 예문을 찾을 수 없었다. ‘叫’는 중국어 자체에서도 피동문 실현에 문법적 제약이 많다.

2) ‘讓’, ‘叫’, ‘給’ 사동문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讓’과 ‘叫’ 사동문은 한국어 주동문으로, ‘給’은 한국어 사동문으로 가장 많이 대응되었다. ‘讓’과 ‘給’ 사동문은 한국어 피동문으로 대응되는 경우도 확인하였다.

3) ‘讓’, ‘叫’, ‘給’ 피동문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讓’ 피동문은 대응되는 한국어 번역의 수가 가장 많고 문장 유형도 가장 다양하였다. 그러나 ‘叫’가 실현된 피동문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한국어의 번역 양상도 판단할 수 없었다. ‘給’ 피동문은 한국어 능동문 및 피동문으로 극히 일부만 대응되었다.

## 2) 대응 양상의 분석

4백만여 어절(총 4,024,184개)로 구성된 중국 드라마 자막 자료에서 사·피동 동형표지 ‘讓’, ‘叫’, ‘給’ 구문은 한국어로의 번역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번역 양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의미론 및 통사론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나아가 ‘讓’, ‘叫’, ‘給’ 구문이 한국어로 적절하게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는 표현도 제시하고자 한다. ‘讓’, ‘叫’, ‘給’ 사동문이 한국어 사동문으로, ‘讓’, ‘叫’, ‘給’ 피동문이 한국어 피동문으로 번역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겠다. 그 대신 ‘讓’, ‘叫’, ‘給’ 사동문이 한국어 주동문과 피동문으로, ‘讓’, ‘叫’, ‘給’ 피동문이 한국어 능동문과 사동문으로 번역된 경우, 즉 사동-주동, 사동-피동, 피동-능동, 피동-사동에 해당하는 번역 양상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겠다.



확하게 나타나며 구문 문형도 중국어 통사적 사동의 문형을 충족하므로 사동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1ㄱ) ‘讓’ 사동문에서 사동주가 [+유정성] 명사인 경우 사동문으로 번역되지 않고 (1ㄴ)처럼 종결어미 ‘-라’와 인용표지 ‘-고’가 결합한 일반 주동문으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 현상은 양슬아(2020)에서 제시한 ‘讓’ 사동문이 한국어 주동문으로 번역되는 기술과 일치한다. 양슬아(2020)는 중국어 사동문이 사동의 의미 외에도 ‘초래, 명령, 허락’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讓’ 사동문에서 사동주가 [+유정성]일 때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라’와 인용표지 ‘-고’가 결합한 ‘-라고’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문 (1ㄱ)처럼 ‘讓’ 사동문을 한국어 사동문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1ㄴ) 주동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박은석(2012)에서도 ‘叫’ 사동문이 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예문 (2ㄱ)에서 ‘叫’ 사동문은 사동주가 [+유정성] 명사로 나타나며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선생님이 저에게 문제를 대답하게 하셨다’와 같은 사동문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2ㄴ) 한국어 자막에서 사동문으로 번역되지 않았고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라’와 인용표지 ‘-고’가 결합한 ‘-라고’에 의한 주동문으로 번역되었다.

(2) ‘叫’ 사동문 - 한국어 주동문

ㄱ. 중국어 자막: 老師 叫 我 起來回答問題  
(NP1 叫 NP2 VP )

ㄴ. 한국어 자막: 선생님이 문제에 대답하라고 해서.

〈드라마16, 제1회〉

‘給’ 사동문은 ‘명령’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주동문은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 예문 (3)과 예문 (3)’은 ‘給’ 사동문이 한국어 주동문으로 번역되었는데 번역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힘들다.

9) 왕녕박, 앞의 논문, p.90. ‘讓’, ‘叫’, ‘給’ 등 뚜렷한 사동 표지가 실현하는 사동법을 중국어 사동문의 통사적 방법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통사적 사동법으로 실현한 사동문의 문형을 ‘NP1 + Vcause2 + NP2 + Vp + (NP3)’로 제시하였다.

(3) ‘給’ 사동문 - 한국어 주동문

ㄱ. 중국어 자막: 你爸 昨晚都 給 我 治好了  
 (NP1 給 NP2 VP)

ㄴ. 한국어 자막: 네 아빠가 어제 다 고쳐줬다.

〈드라마1, 제15회〉

(3) ‘給’ 사동문 - 한국어 주동문

ㄴ. 중국어 자막: 也 給 我 帶來了很大的困擾  
 ( 給 NP2 VP )

ㄱ. 한국어 자막: 저도 많이 힘들었고요.

〈드라마10, 제8회〉

지금까지 ‘讓’과 ‘叫’ 사동문에서 사동주가 유정명사일 경우 사동의 의미보다 ‘명령’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어 한국어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라고’(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라’+ 인용표지 ‘-고’)에 의한 주동문으로 번역되는 몇 가지 자막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讓’, ‘叫’, ‘給’ 사동문에서 사동주가 부정명사일 때도 한국어 주동문으로 번역되는 특징과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사동주가 부정명사일 경우

‘讓’, ‘叫’, ‘給’ 사동문에서 사동주가 부정명사일 때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겠다. 이정순(2014)은 중국어 사동문이 ‘인과관계’의 발생을 강조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중국어 사동문이 한국어 주동문으로 번역되는 원인을 설명하였다. 중국어 사동문에서 사동주가 부정명사일 때 한국어에서 일반적인 주동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우며 원래 중국어 사동문에서 주어였던 사동주가 한국어 주동문에서 ‘부사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 (4)를 살펴보겠다.

(4) ㄱ. 日本加入TPP談判促使中韓更積極對待日中韓自貿協定

ㄴ. 일본의 TPP협상 참여는 한국어 중국어로 하여금 한중일 FTA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 것이다

ㄴ'. 일본의 TPP협상 참여로 인해 한국과 중국이 한중일 FTA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4ㄱ)은 중국어 사동 표지 ‘促使’를 통해 실현된 사동문으로 사동주가 무정명사인 ‘日本加入TPP談判(일본의 TPP 참여)’이다.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번역문은 (4ㄴ)과 (4ㄴ') 두 가지가 있는데 (4ㄴ)은 ‘-게 만들다’에 의한 사동문이고 (4ㄴ')이 일반 주동문이다. 여기서 예문 (4ㄱ) 중국어 사동문이 대응하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번역문은 (4ㄴ')이다. 이정순(2014)은 한중 사동문을 구현할 때 화자가 관찰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4ㄴ') 주동문이 (4ㄴ)에 비해 더욱 자연스럽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어는 화자를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어는 사건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추출한 드라마 자막은 모두 구어 자료이므로 사동주가 무정명사일 경우가 유정명사일 경우보다 적게 나타났다. 다음 예문 (5)는 테니스 코치가 새로 정한 훈련 방식을 팀원에게 설명한 뒤 팀원들이 그 훈련 방식에 대해 두려움과 긴장감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화이다. 예문 (5)를 살펴보면 ‘讓’ 사동문의 사동주가 무정명사일 때 한국어 주동문으로 번역되었다.

(5) ‘讓’ 사동문 - 한국어 주동문

ㄱ. 중국어 자막: 該項訓練 會 讓 大家 突飛猛進的  
(NP1           讓   NP2           VP)

ㄴ. 한국어 자막: 이번 훈련을 통해 모두의 실력이 일취월장할 거야.

〈드라마10, 제36회〉

예문 (5ㄱ)에서 ‘讓’ 사동문의 사동주는 무정명사 ‘該項訓練(이번 훈련)’이다. 이를 한국어 사동문으로 번역하게 되면 ‘이번 훈련은 여러분 모두의 실력을 성장하게 할 거야.’라는 사동문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해당 드라마 한국어 자막에서 이를 한국어 사동문으로 번역하지 않았고 (5ㄴ)처럼 일반 주동문으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 양상은 앞에 검토한 이정순(2014)의 설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예문 (5ㄱ)에서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동의 원인 사건인 ‘이번 훈련’이다. 반면 (5ㄴ) 한국어 주동문에서는 원인 사건보다는 사동문의 결과인 ‘모두의 실력’을 강조하기 위해 주동문으로 번역되었다. 이는 중국어는 원인 사

건에 중점을 두고 한국어는 원인 사건보다는 결과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사동-피동

16편의 드라마 자막에서 중국어 ‘讓’, ‘給’ 사동문이 한국어 피동문으로 번역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讓’, ‘給’ 사동문이 한국어 피동문으로 번역될 때 ‘-이-’, ‘-히-’, ‘-리-’ 세 가지 접미사를 활용한 형태적 방법과 ‘-어지다’, ‘-게 되다’를 통한 통사적 방법, ‘동작성명사+되다/받다’를 결합한 어휘적 방법을 통해 한국어 피동법의 유형과 대응되었다.

‘讓’ 사동문을 피동문으로 번역한 자막 사례는 다음 예문 (6)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예문 (6)은 더빙 면접을 본 성우인 주인공1(貝耳朵)이 면접 후에 우연히 면접 회사 소속인 주인공2(연예인)에게 면접 결과가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인공2와 다툼을 벌이게 되는 배경에서 발생하는 대화이다.

### (6) ‘讓’ 사동문 - 접미사 ‘-히-’ 피동문

ㄱ. 중국어 자막: 你信不信 我讓 公司 封殺 你  
(NP1 讓 NP2 vp NP3)

ㄴ. 한국어 자막: 이 회사에 찍히고 싶어?

〈드라마2, 제1회〉

### (7) ‘讓’ 사동문 - 접미사 ‘-리-’ 피동문

ㄱ. 중국어 자막: 而是可能會讓 你的人生 偏離 軌道  
(讓 NP2 vp NP3)

ㄴ. 한국어 자막: 네 인생이 달린 공부잖아.

〈드라마5, 제24회〉

예문 (6ㄱ) ‘讓’ 사동문에서 사동주 ‘我(나)’와 피사동주 ‘公司(회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구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너는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회사 00한테 부탁해서) 너를 퇴사시킬 거야’라는 문장이 되는데 피사동주 ‘公司(회사)’는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동주가 하는 시킴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ㄱ)의 중국어 사동문에서는 무정명사인 피사동주 ‘公司(회사)’가 NP3 ‘你(너)’를 퇴사시킬 수 있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피사동주가 무정명사로 나타나지만 유정명사처럼 NP3를 퇴사시키는 사동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예문 (6ㄱ)에서 ‘你信不信(믿든지 안 믿는지)’를 통해 사동의 결과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 사동문에서는 ‘公司(회사)’와 같은 무정명사가 피사동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어 사동문에서는 사동주가 [+유정성]이고 피사동주가 [-무정성]인 구문은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 자막에서는 이를 (6ㄴ)과 같이 ‘이 회사에 찍히고 싶어’라는 피동문으로 번역되면 더욱 자연스럽다. 예문 (7ㄱ) ‘讓’ 사동문도 마찬가지로 피사동주가 [-유정성] 명사로 나타나므로 사동문에 비해 피동문 ‘네 인생이 달린 공부잖아’로 번역하면 더욱 자연스럽다. 다음으로 ‘給’ 사동문의 한국어 피동문 번역 양상을 살펴보겠다.

(8) ‘給’ 사동문 - ‘-게 되-’ 피동문

- ㄱ. 중국어 자막: 這次 給 你 添麻煩了  
(NP1 給 NP2 vp)
- ㄴ. 한국어 자막: 너만 귀찮게 됐네.

〈드라마9, 제32회〉

(9) ‘給’ 사동문 - ‘-이/가 되-’ 피동문

- ㄱ. 중국어 자막: 新能源事業部 給 他們 造成了潛在的威脅  
(NP1 給 NP2 vp)
- ㄴ. 한국어 자막: 신에너지 본부가 잠재적 위협이 되니.

〈드라마13, 제22회〉

먼저 예문 (8)을 살펴보면 (8ㄱ)은 ‘給’사동문이고 (8ㄴ)은 한국어 피동문 자막이다. (8ㄱ)의 ‘給’ 사동문을 한국어로 직역할 경우 ‘이번에 당신에게 폐를 끼치게 했습니다.’라는 사동문이 되지만 드라마 한국어 자막에서 한국어 사동문으로 직역하지 않고 (8ㄴ)처럼 ‘-게 되’에 의한 피동문으로 번역하였다. (8ㄱ)에서는 NP2 ‘你’는 (8ㄴ)에서 ‘너’로 번역되었다. 이를 통해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가 비교적 친밀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당신에게 폐를 끼치

다'라는 표현보다는 (8ㄴ)과 같이 '너만 귀찮게 됐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게 되면 (8ㄱ) 중국어 원자막의 의미를 보존하는 동시에 친근감과 공감대를 더해 더욱 자연스럽다. 또한, (8ㄴ)에서는 '한정'을 뜻하는 보조사'만'을 첨가하여 귀찮은 대상이 제삼자가 아닌 상대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예문 (9ㄱ)은 한국어 사동문으로 직역하면 '신에너지 본부가 그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을 일으키게 했다.'라는 사동문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드라마 한국어 자막에서 '잠재적인 위협'이라는 사건의 발생을 두고 있기 때문에 (9ㄴ)과 같이 피동문으로 번역했다.

### (3) 피동-능동

김윤정(2012)은 중국어 피동문의 통사적 구조와 의미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피동법의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는 중국어 피동문의 '수동주, 수동사건, 피수동주, 피수동사건'이 나타나는 수동구문의 의미 구조를 도식화하여 각 의미 성분의 명칭을 부여하였다.<sup>10)</sup> 본고에서도 중국어와 한국어 피동문의 통사적 구조와 의미적 기능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중국어 사피동 표지의 피동문이 한국어 능동문으로 변환되는 과정과 중국어 사피동 표지가 한국어 피동문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위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수동문이 아닌 피동문으로 표현하고자 피동문 내부 구조의 명칭을 피동주, 피동사건, (피)피동주, (피)피동사건으로 바꿔 표현하였다.

도혜진(2009)은 '讓', '叫', '給'의 사동용법이 피동용법에 비해 훨씬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본고에서 수집된 자료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중국어 피동 동형 표지 '讓', '叫', '給'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주로 능동문과 사동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사·피동 동형표지

10) 김윤정, 「현대중국어 수동구문의 한국어 번역 패턴에 대한 코퍼스 기반 분석 - 태의 불일치 현상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60호, 2012, pp.73-75.

玻璃被弟弟打破了(우리가 동생에게 깨졌다.)

위 수동구문에서 주어 '玻璃'는 수동주이고 표지 '被'는 수동사건이며 행위자 '弟弟'는 피수동주이고 술어 '打破了'는 피수동사건이다.

‘讓’, ‘叫’, ‘給’ 피동문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능동문으로 번역되는 빈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6〉讓, ‘叫’, ‘給’ 피동-능동 한국어 번역의 출현 빈도

讓	叫	給	계(번)
52	0	20	72

‘讓’, ‘叫’, ‘給’ 중 ‘讓’이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므로 먼저 ‘讓’ 피동문이 대응되는 한국어 능동문의 양상부터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중국어 피동문에서 한국어 능동문으로 번역될 때 사용되는 어휘를 아래 〈표7〉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7〉讓에 대응하는 한국어 능동문의 서술어 어휘 (3순위)

순위	항목	빈도
1	들키다	4
2	보다, 들다, 되다	3
3	욕먹다, 말하다, 듣다, 알다, 하다,	2

〈표7〉에서 ‘들키다’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다’, ‘들다’, ‘되다’가 출현하였다. ‘욕먹다’, ‘말하다’, ‘듣다’, ‘알다’, ‘하다’는 각각 2번씩 출현하여 출현 빈도에서 제3위를 차지했다. 서술어의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讓’ 피동문이 한국어 능동문으로 번역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는 일반 단일동사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단일동사란 복합어가 아니라 단일어이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본동사를 말한다. 여기서 단일동사는 ‘들키다’, ‘욕먹다’를 제외한 모든 동사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일반 단일동사가 아닌 특수동사를 사용하는 경우로 ‘들키다’, ‘욕먹다’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수동사는 단일어가 아니라 파생어, 합성어 등의 복합어로 이루어지며 나아가 관용어(‘욕먹다’)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단일동사

다음 예문은 ‘讓’를 포함한 중국어 피동문에서, 한국어 능동문으로 번역될 때 단일동사가 쓰이는 예문이다. 남몰래 애정 행각을 벌이다 여주인공이 듣는 것을 걱정하는 배경에서 발생하는 대화이다.

(10) ‘讓’피동문 - 한국어 능동문

- ㄱ. 중국어 자막: 鬆開 讓人家看見 祁曉
- ㄴ. 한국어 자막: 누가 보면 어찌려고 그래?
- ㄷ. \*누구에게 보이면 어찌려고 그래?

-〈드라마12, 제30회〉

(10ㄱ)은 중국어 피동문의 자막이며, (10ㄴ)은 이를 번역한 한국어 능동문이고, (10ㄷ)은 중국어 피동문 자막을 직역한 한국어 피동문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방법을 도식화하여 다음 〈표8〉로 나타냈다.

〈표8〉 ‘讓’ 피동문이 한국어 능동문으로 변화하는 과정

	피동주	피동사건	(피)피동주	(피)피동사건
중국어 피동문		讓	人家	看見
↓	화제	X	주어	술어(능동)
한국어 능동문			누구	보다

〈표9〉 ‘讓’ 피동문이 한국어 피동문으로 변화하는 과정

	피동주	피동사건	(피)피동주	(피)피동사건
중국어 피동문		讓	人家	看見
↓	피동주	피동사건	(피)피동주	(피)피동사건
한국어 피동문		피동접사-이-	누구	보다

〈표9〉를 보면 ‘讓’ 피동문을 한국어 피동문으로 번역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지만, 〈표8〉를 보면 (10ㄴ) 과 같이 능동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

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중국어 사·피동 동형표지 ‘讓’에 해당하는 성분이 (10ㄴ)에서 구현되지 않았지만 번역할 때 행위자-행위동사의 주술 관계가 잘 대응된다.

• 특수동사

특수동사는 ‘들키다’와 ‘욕먹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서 <표7>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들키다’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讓’ 피동문이 한국어 능동문으로 번역될 때 특수동사인 ‘들키다’로 쓰이는 예문이다. 예문(11)은 화자가 사무실에 강아지를 데려온 청자에게 경고를 하는 장면이다. 예문(12)의 경우, 아버지(화자)가 딸에게 연애를 들키고 싶지 않아 대화를 하는 장면이다.

(11) ‘讓’피동문 - 한국어 능동문

- ㄱ. 중국어 자막: 這要是讓賀主管看到了, 肯定得罰你們
- ㄴ. 한국어 자막: 허 팀장님께 들키면 벌금 물어야 해요.

<드라마6, 제1회>

(12) ‘讓’피동문 - 한국어 능동문

- ㄱ. 중국어 자막: 就算讓她發現了又能怎麼樣?
- ㄴ. 한국어 자막: 들키면 어때서요.

<드라마7, 제11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들키다’를 피동적 표현이 아닌 일반 동사로 정의하고 있지만 제시되는 문법 해석을 보면 피동의 의미 가능성도 수행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들키다’에 나타나는 피동의 의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수동사로 제시한다.<sup>11)</sup> 이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예문 (11)과 (12)의 중국어 피동문이 한국어 능동문으로 번역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

‘욕먹다’는 <표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3위를 차지한다. ‘욕먹다’는 ‘욕’과 ‘먹

11)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들키다’ 동사. 【...에게】 ((-다(가) 뒤에 쓰여)) 숨기려던 것을 남이 알게 되다.  
 소년은 지갑을 훔치려다가 주인에게 들켰다.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다 선생님께 들켜서 혼이 났다.

다'가 결합하여 '비난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이는 두 단어의 원래 의미를 그대로 합친 것보다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용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讓' 피동문이 한국어 능동문으로 번역될 때 특수동사인 '욕먹다'가 사용되는 예문이다.

(13) '讓'피동문 - 한국어 능동문

- ㄱ. 중국어 자막: 潑了他前女友一身開水, 讓人罵了一狗血淋頭
- ㄴ. 한국어 자막: 전 여친한테도 처음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서 (전여친에게) 욕먹었는데
- ㄷ. \*전 여친한테도 처음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서 (전여친에게) 욕먹혔는데  
-〈드라마3, 제2회〉

(13ㄱ)은 '讓'을 활용한 피동문이지만 한국어 번역 (13ㄴ)에서는 서술어 '욕먹다'를 사용하여 능동문으로 번역되었다. '욕먹다'는 관용표현으로 한국 사람들이 일상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며 피동문보다 더욱 간명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16편 중국 드라마 자막에서는 '屌' 피동문이 없으므로 피동문의 대응 양상을 따로 논의하지 않겠다.

'給' 피동문의 경우 〈표6〉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 능동문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다.

(14) '給'피동문 - 한국어 능동문

- ㄱ. 중국어 자막: 一會兒(前輩)那操作細節上的失誤全給(她)指出來了
- ㄴ. 한국어 자막: 그러더니 (그녀가) 실험 과정상의 작은 실수까지 다 잡아냈어.
- ㄷ. \* 그러더니 실험 과정상의 작은 실수까지 (그녀에게) 다 잡혔어.  
-〈드라마3, 제6회〉

예문 (14)의 대화 배경은 선배의 실험에서 그녀가 작은 실수를 발견하여 이를 남에게 말하는 부분이다. (14ㄴ)은 중국어의 피동문을 한국어 능동문으로 번역한 구문이며, (14ㄷ)은 중국어의 피동문을 한국어의 피동문 그대로 직역한 구문

이다. 다음 <표10>와 <표11>은 ‘給’ 피동문을 한국어 능동문과 한국어 피동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표10> ‘給’ 피동문이 한국어 능동문으로 변화하는 과정

	피동주	피동사건	(피)피동주	(피)피동사건
중국어 피동문	失誤	給	(她)	指出來
↓	화제	X	주어	술어(능동)
한국어 능동문	실수		(그녀)	잡다

<표11> ‘給’ 피동문이 한국어 피동문으로 변화하는 과정

	피동주	피동사건	(피)피동주	(피)피동사건
중국어 피동문	失誤	給	(她)	指出來
↓	피동주	피동사건	(피)피동주	(피)피동사건
한국어 피동문	실수	피동접사-히-	(그녀)	잡다

예문 (14)는 ‘給’ 피동문이 한국어 능동문으로 번역되는 사례이다. (14ㄱ)은 한국어 피동문 (14ㄷ)으로 번역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우며 능동문 (14ㄴ)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따라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중국어 피동표지 ‘給’가 실현되지 않았다. 덧붙여 ‘실수’는 한국어 문두에서 화제(topic)로 나타나며 한국어 능동문으로 번역할 때 행위자-행위동사의 주술 관계가 잘 대응된다.

#### (4) 피동-사동

‘讓’, ‘叫’, ‘給’ 피동문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사동문으로 번역되는 빈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2>와 같이 ‘讓’ 피동문이 한국어 사동문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7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給’, ‘叫’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12〉 ‘讓’ ‘叫’ ‘給’ 피동-사동 한국어 번역 출현 빈도

讓	叫	給	계(번)
7	0	0	7

楊曉明(2017)에서는 ‘叫’ 피동문에 어느 정도 사동의 의미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로 楊曉明(2017)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하였다.

- (15) 有人說別說了, 懸念都[叫]你們給說沒了.  
(누군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궁금증은 너희들이 말해 버렸다.)

예문 (15)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허락한다면 ‘懸念(궁금증)’을 말할 수 있다. 이때 ‘懸念(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듣는 사람이므로 이 예문은 피동문과 사동문이 공존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도혜진(2009)은 ‘被’, ‘讓’, ‘叫’가 기본 형태 구조에서 서로 호환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楊曉明(2017)의 연구를 ‘讓’에도 적용하여, ‘讓’ 또한 피동성과 사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동형표지로 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 (16) ‘讓’ 피동문 - ‘-게 하-’ 사동문  
ㄱ. 중국어 자막: 千萬不要讓尤雅發現任何的蛛絲馬跡  
ㄴ. 한국어 자막: 유아가 절대 모르게 해요.

-〈드라마4, 제21회〉

예문 (16)은 화자가 청자에게 아이를 무사히 낳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화이다. (16ㄱ)은 피동표지 ‘讓’을 사용한 피동문이다. 그러나 楊曉明(2017)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어 피동문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허락’을 받으면 유아에게 일어난 일을 공개할 수 있어 행동을 강제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동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예문 (16ㄱ)의 중국어 원문은 피동성과 사동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예문

의 중국어 원문은 피동문이지만 사동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점으로 인해 한국어 사동문으로 번역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피동 동형표지 ‘讓’, ‘叫’, ‘給’의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들을 살펴 보았다. 추가적으로 번역투, 곧 부자연스러운 번역 표현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왕옥요(2023)에서는 중국어는 동형표지 두 개가 결합하여 피동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때 두 가지 피동 표지가 모두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보통 구문 앞에 나온 피동 표지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구문 뒤에 나온 피동 표지는 앞에 나온 피동 표지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 예문 (17), (18)은 중국어 피동문을 한국어 피동문으로 번역할 때 ‘讓’, ‘給’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 (17) ㄱ. 중국어 자막: 好好的一個拍黃瓜, 讓你給做成了腌黃瓜  
 ㄴ. 한국어 자막: 멸찍한 오이무침이 당신 때문에 오이지가 됐잖아.  
 <드라마6, 제18회>

- (18) ㄱ. 중국어 자막: 這回真讓你給猜着了  
 ㄴ. 한국어 자막: \*형 예상이 맞았어.  
 ㄷ. 형 예상이 맞았네.  
 <드라마1, 제26회>

예문 (17)을 살펴보면 ‘讓’는 피동표지로 인식되고, ‘給’는 조사로 인식된다.<sup>12)</sup> 곧 ‘讓’은 피동표지이며, ‘給’은 조사로써 ‘做成了腌黃瓜’의 내용을 강조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예문 (18)의 경우도 (17)과 같이 ‘讓’은 피동표지, ‘給’는 조사로써 ‘猜着了’의 내용을 강조하는 역할인데 한국어 번역 자막 (18ㄴ)에서 표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번역투로 볼 수 있다. 곧 ‘給’로 ‘猜着了’를 강조하는 표현이 필요한데 올바르게 번역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번역은 필자가 (18ㄷ)에 제시하였다. ‘給’에 대응되는 표현으로 한국어의 강조 및 확인 어미, ‘-네’를 쓰면 중국어 원문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12) 杨晓明, 「使役与被动共用标记词“给”和“叫”的对比研究——基于语料库的研究」, 『山东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04호, 2017, pp.120-121.

## 5. 결론

본고는 넷플릭스에 상영된 중국 드라마 16편의 한중 자막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피동 동형표지 ‘讓’, ‘叫’, ‘給’ 구문이 번역되는 한국어 자막의 대응 양상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사·피동 동형표지 ‘讓’, ‘叫’, ‘給’ 구문이 한국어 자막에서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분석하고 대응되는 원인 및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 사·피동 동형표지 ‘讓’, ‘叫’, ‘給’ 구문이 대응되는 한국어 번역 자막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둘째 다양한 번역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과 특징을 검토하였다.<sup>13)</sup> 본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피동 동형표지 ‘讓’, ‘叫’, ‘給’ 구문이 대응되는 한국어 번역 자막의 유형을 검토하였다. ‘讓’, ‘叫’, ‘給’이 중국어 사동문의 실현 표지로 사용될 때 ‘讓’과 ‘叫’ 사동문은 한국어 주동문으로 더 많이 번역되었고 ‘給’ 사동문은 주동문보다 사동문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讓’, ‘給’ 사동문이 한국어 자막에서 피동문으로 번역된 경우도 일부 존재하였으나 ‘叫’ 사동문이 한국어 피동문으로 대응되는 경우가 없었다. ‘讓’, ‘叫’, ‘給’이 피동문으로 실현될 때 ‘叫’가 피동문을 실현하는 자막을 포착하지 못했다. 이는 ‘叫’의 실현 제약과 말뭉치 자료의 한계로 판단된다. ‘讓’, ‘給’은 드라마 자막에서 피동문을 실현하는 경우가 있었고 한국어 능동문으로 번역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 피동문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讓’, ‘叫’, ‘給’ 구문 대응 양상이 보여주는 특징과 원인을 검토하였다. 첫째, ‘사동-주동’으로 대응되는 경우 사동주가 유정명사일 때 ‘讓’, ‘叫’ 사동문은 ‘-라고’에 의한 주동문으로 대응되는 규칙성을 보이지만 ‘給’ 사동문은 그렇지 않았다. 사동주가 무정명사일 때는 원래 주어 자리에 위치한 사동주가

13) 기존 이문화(2014)의 연구와 달리 본고는 ‘讓’, ‘叫’, ‘給’ 사동문이 한국어 사동문으로 번역되는 것, ‘讓’, ‘叫’, ‘給’ 피동문이 한국어 피동문으로 번역되는 것을 고찰하는 것 이외에 ‘讓’, ‘叫’, ‘給’ 구문이 대응되는 한국어 자막 번역의 다른 양상도 함께 살펴보았다. 즉 사동-주동, 사동-피동, 피동-능동, 피동-사동의 번역 양상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어 주동문에서 목적어 자리로 이동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어는 화자 중심의 주관적 서술에 집중하는 반면에 중국어는 사건 중심의 객관적인 묘사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동-피동’으로 대응되는 경우는 ‘讓’, ‘給’ 사동문이 피동문으로 번역될 때 피사동주가 무정명사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중국어 사동문에서는 의인화 기법을 사용해 피사동주가 무정명사일 때도 사동의 결과 사건을 구성하는 능력을 가지지만 한국어에서는 이를 적용하면 문장이 부자연스러워서 피동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셋째, ‘피동-능동’의 대응에서 한국어 특수동사와 단일동사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특히 단일동사의 경우 한국어 피동문으로 번역하면 부자연스러운 경우를 많이 포착하였다. 넷째, ‘피동-사동’의 대응에서 ‘讓’, ‘給’가 한 피동문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讓’은 피동의 의미를 ‘給’은 조사로서 피동 사건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給’이 포함된 ‘讓’ 피동문에서 ‘給’이 피동문을 강조하지만 한국어 번역문에서 표현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어 원문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네, -잖아’ 같은 표현을 활용해 ‘給’의 강조 역할을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는 16편 중국 드라마 한중 자막을 통해 사·피동 동형표지 ‘讓’, ‘叫’, ‘給’ 구문의 한국어 번역 양상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번역 양상의 문법적 특징을 파악하고 다양한 번역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만 16편 한중 자막에서 나타나는 ‘번역 오류’ 현상에 대한 분석은 진행하지 못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 ◆ 참고문헌

### 1. 자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네이버사전, <https://dict.naver.com/>  
 新华字典, <https://zidian.gushici.net/>

## 2. 단행본

- 최현배,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1937/2004.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1924.  
 王力, 『中国现代语法』, 商務印書館, 1943.  
 藍江生, 『汉语使役与被动兼用探源』, 『近代汉语探源』, 商务印书馆, 2000.

## 3. 논문

- 강명순, 「국어 ‘태’의 통사적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김운신, 「사동·피동 동형동사의 논항교체 양상과 의미해석」, 『한국어 의미학』 21호, 한국어의미학회, 2006, pp. 51-73.  
 김윤정, 「현대중국어 수동구문의 한국어 번역 패턴에 대한 코퍼스 기반 분석 - 태의 불일치 현상을 중심으로」, 『중국어학연구』 60호, 2012, pp. 65-100.  
 노금송, 「한중 사동문 구조 유형과 의미 대조 분석」, 『우리말연구』 39호, 우리말학회, 2014, pp. 117-139.  
 도혜진, 「현대 중국어“被”,“讓”,“叫”,“給” 피동문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09.  
 동정정, 「한·중 사동문의 대조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박은석, 「한중 분석형 사동 구조 대조 연구를 통해 본 한중 문법 대조 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2012, pp. 47-59.  
 부광인, 「중한 자막의 관용어 번역 양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양동휘, 「국어의 피사동」, 『한글』 제166호, 1979, pp. 33-49.  
 양슬아, 「중한 번역의 번역투 해소를 위한 문법적 고찰 - 『인생』에 나타난 사동 표지 ‘让’을 중심으로」, 『언어유형론연구』 5,1호, 2020, pp. 37-53.  
 왕녕박, 「한·중 사동과 피동 대조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왕옥요, 「중국어 ‘被(bei)’에 의한 피동문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 연구」, 『반교어문연구』 64호, 반교어문학회, 2023, pp. 267-305.  
 왕월요, 「한·중 피동의 장르별 대응 양상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유석, 김건희, 「한 중 사동법 대조 연구 - 한국어 어휘적 방법과 중국어 통사적 방법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67호, 2023, pp. 21-54.  
 이문화, 「중국어 “규(叫), 양(讓), 급(給)” 피사동 표현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 연구」, 『반교어문研究』 37호, 반교어문학회, 2014, pp. 139-171.  
 이정순, 「사동문 의미자질의 한-중 번역 교육에 대한 함의 연구」, 『중국어교육과연구』 19호, 2014, pp. 133-150.

- 채우정, 「넷플릭스 중국드라마 《겨우, 서른(三十而已)》의 한국어 번역과 자막 분석」, 『中國學論集』 75호, 2022, pp. 117-136.
- 최선영, 「OTT서비스에서의 텔레비전 시청흐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최영, 「한국어와 중국어 피동문의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최요방, 「한중 피동 표현 대조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 최희경, 「번역투 다시 보기: 코퍼스 분석 사례를 토대로」, 『번역학연구』 17호, 한국번역학회, 2016, pp. 147-169.
- HUA SHENGNAN,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동문 습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YANG HONGYUE, 「한·중 사동문의 통사적인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 洪波, 赵茗, 「汉语给予动词的使役化及使役动词的被动介词化」, 『语法化与语法研究』 (二), 商务印书馆, 2005, pp. 42-43.
- 李文花, 「병렬말뭉치 기반 한·중 피동표현의 대조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8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2018, pp. 59-80.
- 杨晓明, 「使役与被动共用标记词“给”和“叫”的对比研究——基于语料库的研究」, 『山东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04호, 2017, pp. 117-122.

논문접수일	2024년 8월 7일
심사완료일	2024년 8월 30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9일

*Abstract*

---

A Grammatical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s of Chinese Causative  
and Passive Homomorphic markers ‘讓, 叫, 給’  
-focused on the Chinese dramas streamed on Netflix-

Liu, Shuo · Zheng, Xue · Kim, Keonhee

This study analyzes the translation patterns and underlying causes of how the Chinese causative and passive homomorphic markers ‘讓’, ‘叫’, ‘給’ are translated into Korean subtitles in 16 Chinese dramas streamed on Netflix. This study examines the diverse translation patterns of these markers in Korean subtitles, focusing on four main correspondences: causative-active, causative-passive, passive-active, and passive-causative. To analyze these correspondences, this study considers the key criteria such as the animacy of subjects [ $\pm$ animacy], the changes in arguments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from Chinese to Korean subtitles, and the semantic changes that occur during translation. Additionally, by analyzing the translation patterns of Chinese passive sentences, the study identifies how certain verbs with special meanings influence the translation process, causing passive sentences to be translated actively. This research provides the practical examples of Chinese-Korean subtitle translations, aiming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causative and passive markers for Korean and Chinese learner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positively impact the quality of Chinese-Korean subtitle translation.

**Keyword**

Causative Sentences, Passive Sentences, Corpus, Chinese-Korean Contrastive Analysis, Chinese-Korean Translation Analysis

# 외국인을 위한 한글 자모 교육 방향 연구\* \*\*

이 은 희 \*\*\*

## 국문요약

한글 자모 교육은 한국어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아직 통일된 교육 방향이 수립되지 못한 채 기관별, 교재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 자모 교육 연구의 핵심 쟁점인 자모의 수와 배열 순서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글 자모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한글 자모 교육은 문식성 교육의 출발점으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어문 정책이나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된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먼저 '훈민정음'과 '훈몽자회'를 중심으로 한글 자모 교육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핀 후, 어문 규범에 자모 교육 전통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국가 수준에서 편찬된 국어 및 한국어 교재에서 자모 교육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글 자모 교육에서 어떤 쟁점이 나타나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해 보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을 위한 한글 자모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주제어** 한글 자모, 한글 자모 교육 방향, 한국어 교재, 한글 자모의 수, 한글 자모의 배열 순서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본 연구는 한중인문학회 제53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

## 〈목차〉

1. 머리말
2. 한글 자모 교육의 사적 전개
  - 1) 훈민정음(訓民正音)
  - 2) 훈몽자회(訓蒙字會)
3. 어문 규범의 자모 규정
4. 한글 자모 교육의 현황
  - 1) 국어 교재
  - 2) 한국어 교재
5. 한글 자모 교육의 쟁점과 방향
  - 1) 한글 자모 교육의 쟁점
  - 2) 한글 자모 교육의 방향
6. 맺음말

## 1. 머리말

‘음소 문자 체계에 쓰이는 낱낱의 글자’(표준국어대사전)를 뜻하는 자모(字母)는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학습하는 내용으로, 한국어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한국어 교육에서 한글 자모 교육은 1990년대부터 학문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한국어 교재를 분석해서 자모의 숫자나 제시 순서, 음가를 표시하는 방식 등을 살핀 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중심을 이루는 데서 알 수 있듯이<sup>1)</sup>, 한국어 교육에서 자모 교육은 아직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못한 채 교육 기관별, 교재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발전 과정을 보면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먼저 수립되고 이를 기반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이 이루어진 방식이 아니라, 교육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수요목과 교재를 개발해서 교육을 시행하던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국가

1)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자모 교육 현황에 관한 최근 연구로는 유소영(2019), 김참이(2021), 이승왕(2023)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수준의 교육과정이 수립되는 모습<sup>2)</sup>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교육의 방향성은 마련되었지만,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표준화된 교육의 방향성이 수립되지 못했으며 이는 자모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모 교육의 경우 한국어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중요성을 지니면서 한국어 교육의 태동기부터 기관별 교재별로 다양한 접근 방향을 모색해 왔기에 통일된 교육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의 과정이 요구된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시각을 넓혀서 살펴보면 자모 교육은 문식성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만 아니라 어문 정책이나 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행되면서 각 분야에서 표준화된 방향성을 수립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어문 규범의 경우 훈민정음 창제 이후로 이루어진 자모 교육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어 교육에서는 국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가 수준에서의 통일된 교육 방향을 수립해 왔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서도 최근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재별로 접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적 수준에서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자모 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판단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집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진 자모 교육의 접근 방식에 주목하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쟁점과 이를 해결해 나갈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모 교육 연구에서 논의의 중점이 되어 온 사안 중 자모의 수와 배열 순서를 중심으로, 한글 자모 교육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현재 어문 규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본 후, 국가 수준에서 편찬된 국어 및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자모 교육의 현황을 고찰해 보겠다. 그리고 자모 교육에서 어떤 쟁점이 나타나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해 보고, 이를 기반

2) 국가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으로는 2010년부터 4단계의 과정을 거쳐 2017년 개발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2017년 개정된 '한국어(KSL) 교육과정', 2020년 개발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성은 ‘예의’의 경우 조음 위치에 따라 ‘아음(牙音)–설음(舌音)–순음(唇音)–치음(齒音)–후음(喉音)–반설음(半舌音)–반치음(半齒音)’의 순서로 배열되는데, 이들은 각각 ‘전청(全淸)–전탁(全濁)–차청(次淸)–불청불탁(不淸不濁)’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해례’의 ‘제자해’에서는 기본자 5개를 먼저 제시하고 가획자, 이체자 순서로 배열하였다는 점에서 ‘예의’와 차이를 보인다. 중성은 ‘예의’와 ‘제자해’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데, ‘천(天), 지(地), 인(人)’을 본뜬 기본자, 기본자 두 개를 결합한 초출자(初出字), 초출자에 다시 기본자를 더한 재출자(再出字)의 순서로 배열되었으며, 초출자 및 재출자에서는 ‘一’와 ‘丨’에 ‘·’를 ‘上→右→下→左’의 순서로 결합하였다.

또한 ‘합자해’에서는 ‘초·중·종 3성은 어울려야 글자를 이룬다. 초성은 중성의 위에 놓이거나 왼쪽에 놓인다(初中終三聲 合而成字. 初聲或在中聲之上 或在中聲之左)’는, 자모로 글자를 만드는 원칙이 나타나고, ‘용자례’에서는 초·중·종성의 용례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표음 문자이지만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한글의 문자적 특성을 드러낸 부분으로, 자모 교육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준다.

## 2) 훈몽자회(訓蒙字會)

‘훈몽자회’는 1527년(중종 22년) 초판이 나온 이후 400여 년 동안 10여 차례나 판본을 거듭할 정도로 널리 보급된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한자 학습용 교재이다<sup>6)</sup>. 여기에서는 한자의 음과 훈을 한글로 표시하면서, ‘범례(凡例)’에 ‘언문자모(諺文字母)’라는 한글 교재를 싣고 범례의 아홉 번째 항목에서 한글을 익혀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sup>7)</sup>.

을 보여준다.

6) ‘훈몽자회’의 특징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의 훈몽자회 범례 원문과 해설을 참고하였다.

7) “무릇 변두리 시골에 있는 무식한 사람은 언문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제 곧 언문자를 같이 적어 그들로 하여금 언문을 먼저 배우게 하고 다음에 훈몽자회를 배우게 한즉 거의가 깨우칠 수 있는 이로움이 있고, 문자를 통하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언문을 다 배우고서 글자를 알게 한즉, 비록 선생이 없다 하더라도 역시 장차 문장을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글 자모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훈몽자회’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보인다. ‘훈몽자회’에서는 처음으로 한글 자음의 명칭이 나타나며<sup>8)</sup>, 자모의 배열 순서도 ‘훈민정음’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훈몽자회’에서는 ‘훈민정음’에 제시된 언문 28자 중 ‘ㅎ’을 제외한 27자를 한글 자모의 수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초성과 종성에 함께 쓰이는 ‘초성종성통용팔자(初聲終聲通用八字)’, 초성에만 사용되는 ‘초성독용팔자(初聲獨用八字)’, 종성에만 쓰이는 ‘중성독용십일자(中聲獨用十一字)’로 나누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하였다.

- 초성종성통용팔자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 초성독용팔자 : ㅋ ㆁ ㆏ ㆑ ㆓ ㆕ ㆙ ㆛
- 중성독용십일자 : ㅌ ㅍ ㅊ ㅋ ㆁ ㆏ ㆑ ㆓ ㆕ ㆙ ㆛

자음자에서는 초성과 종성에 함께 쓰이는 8자를 먼저 제시한 후, 종성에는 쓰이지 않고 초성에만 쓰이는 8자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들은 각각 ‘훈민정음’에서 설정한 조음 위치 순서에 따라 배열되었다. 초성종성통용팔자는 ‘아음(ㄱ)–설음(ㄴ ㄷ ㄹ)–순음(ㅁ ㅂ)–치음(ㅅ) 순으로 배열한 후 ‘ㅇ’을 추가하였으며, 각 조음 위치에서는 ‘훈민정음’의 ‘제자해’처럼 기본자를 먼저 제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초성독용팔자도 ‘아음(ㅋ)–설음(ㆁ)–순음(㆏)–치음(㆑ ㆓ ㆕)–후음(㆙ ㆛)’의 순으로 배열하는 모습을 보인다.

모음자에서는 ‘훈민정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배열 방식이 나타난다. 기본자를 맨 뒤로 보내고, ‘ㅣ’와 ‘ㅡ’를 중심으로 ‘·’를 ‘右→左→上→下’ 순서로 가획하며, ‘ㅣ, ㅡ’에 ‘·’를 하나 가획한 것에서 둘을 가획하는 식으로 배열 순서를 정했다.(홍윤표, 2016:296)

‘훈몽자회’의 한글 자모 명칭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자모 배열 순서도

8) 훈몽자회에서는 한글 자모의 음가를 한자로 나타냈는데, 자음자의 경우에는 초성과 종성에 쓰인 것을 짝을 지어 표시했다. 예를 들어 ‘ㄱ’은 한자로 ‘其役’이라고 적었는데, 여기에서 ‘其(기)’는 초성의 음가를, ‘役(역)’은 종성의 음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이 자음자의 이름으로 굳어졌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자모의 수를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로 설정하고, 이것으로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도록 하면서 자음 5개, 모음 11개를 추가로 제시했다. 24개의 기본 자모는 ‘훈민정음’의 ‘예의’와 ‘제자해’에 나오는 것<sup>11)</sup>이며, 추가로 제시한 복합 자모<sup>12)</sup>는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자음자 중 ‘ㄱ ㅋ ㆁ ㅃ ㅍ ㅆ’는 단일한 음가를 지니고 있지만, 제자 과정에서 기본 자음자를 병서한 것으로 설명하였기에 기본 자모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모음자의 경우 기본 자모에 포함된 ‘ㅏ ㅑ ㅓ ㅕ’는 단모음이 아니고, 복합 자모로 제시된 ‘ㅗ ㅛ ㅜ ㅠ’는 단모음이기에 기본 자모는 발음상 단모음 여부와 무관한 모습을 보인다. 즉 ‘한글 맞춤법’에서 제시된 자모 24자는 한글의 제자 원리에 따른 것으로, 음가와는 무관하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자모의 이름과 전체적인 자모의 제시 방식은 ‘훈몽자회’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 자음자의 경우 초성중성통용팔자를 먼저 제시한 후 초성독용팔자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며, 모음자의 경우 기본 모음자를 ‘훈몽자회’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그런데 사전에 올릴 때는 복합 자모를 포함한 40개의 자모를 대상으로 하면서, 자음의 경우 된소리를 예사소리 뒤에 추가하고, 모음의 경우 기본 모음자를 결합해서 만든 복합 모음자를 기본 모음자 사이에 추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제2장 자음과 모음’ 편의 제2항~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표준어의 자음과 모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 :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ㄱ ㅋ ㆁ ㄷ ㅌ ㄹ ㄴ ㄷ ㅃ ㅍ ㅆ ㅇ ㅈ ㅊ ㆁ ㅅ ㅆ ㅅ ㅈ ㅊ ㅅ ㅈ ㅊ ㅅ ㅈ ㅊ

- 11) 자모의 수는 자음자에서 ‘ㅇ ㅏ ㅑ’이, 모음자에서 ‘ㅏ ㅑ’가 소실되면서 훈민정음과 차이가 발생한다.
- 12) 훈민정음 언문 28자에 속한 자모를 ‘기본 자모’, 그 외의 자모를 흔히 ‘복합 자모’라고 한다. 이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양명희, 2009 : 7).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언문 28자에 속한 자모를 ‘기본 자모, 기본 자음자, 기본 모음자’로 칭하고, 그 외의 자모를 ‘복합 자모, 복합 자음자, 복합 모음자’로 칭한다.

제3항 :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제4항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ㅓ, ㅕ’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제5항 : ‘ㅑ ㅕ ㅛ ㅜ ㅠ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은 발음을 중심으로 하기에 자모의 수와 구분 방식에서 ‘한글 맞춤법’과 차이를 보인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제2항과 제3항에서, 자음 19개, 모음 21개 총 40개로 자모를 제시하였다. 자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분을 두지 않지만, 모음은 제4항과 제5항에서 발음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나누어서 보여준다.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을 살펴보면 이들은 각각 제자 원리와 발음을 중심으로 하기에 자모의 수를 설정하고 구분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자음과 모음 중 자음을 먼저 제시하고 있으며, ‘한글 맞춤법’에 나타난 사전 등재 방식과 ‘표준 발음법’을 비교하면 전체 자모의 제시 순서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한글은 음소 단위의 표음 문자이기에 음운적 특성을 중심으로 자모가 배열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모의 제시 순서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훈몽자회’를 거치며 형성된 한글문화의 전통이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발음을 다루는 ‘표준 발음법’의 경우도 동일하다.

## 4. 한글 자모 교육의 현황

### 1) 국어 교재

국어 교육에서 한글 자모 교육은 정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어 교육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첫 부분에서 다루어진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 형태로 제작되는데, 현재 한글 자모 교육은 2022 교육과정<sup>13)</sup>에 따라 발행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sup>13)</sup> 중 첫 단계 교재인 ‘국어

1-1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sup>14)</sup>.

자모 교육은 40개의 자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전체적으로 자모는 ‘모음1-자음-모음2’의 구조로 제시되는데, 자모의 제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모음1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자음 : ㄱ ㅋ ㆁ ㄷ ㅌ ㅍ ㅍ ㄹ ㄴ ㄷ ㅌ ㅍ ㅍ ㅅ ㅆ ㅈ ㅊ ㅊ ㅊ ㅇ ㅎ
- 모음2 : ㅐ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자음자는 19개가 ‘한글 놀이’ 단원에서 동시에 다루어지는 데 비해, 모음자는 기본 모음자 10개는 ‘모음1’로 ‘한글 놀이’ 단원에서, 복합 모음자 11개는 ‘모음2’로 ‘글자를 만들어요’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즉 모음자는 난이도에 따라 단원을 나누지만, 자음자의 경우에는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재에서 자음자는 ‘ㄹ’과 겹자음의 위치에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훈민정음’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자음자는 조음 위치에 따라 ‘아음-설음-순음-치음-후음’의 순서로 배열되며, 동일한 조음 위치에서는 ‘기본자-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이체자’순으로 배열된다. 모음자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훈몽자회’의 순서를 따르는데, 기본 모음자 10개는 ‘한글 맞춤법’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복합 모음자 11개는 ‘ㅐ ㅑ / ㅓ ㅕ / ㅗ ㅛ ㅜ / ㅠ ㅡ / ㅣ’와 같이 자형이 비슷한 것을 묶어 제시하면서 ‘ㅐ ㅑ ㅓ ㅕ’에서 배열 순서상 차이를 보인다.

## 2)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재는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행되어 왔지만, 최근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교재를 개발

13)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는 ‘국어 1-1가’ ‘국어 1-1나’ ‘국어활동 1-1’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국어 1-1가’는 ‘한글 놀이’, ‘글자를 만들어요’,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어요’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모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한글 놀이’ 단원은 ‘글자 놀이, 모음자 놀이, 자음자 놀이’로 구성되었다.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교재 중, 국내 이주민 대상 교재인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와 국외 성인 대상 교재인 ‘세종 한국어’, 다문화 배경의 국내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재인 ‘표준 한국어’, 국내 성인 대상 교재인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에 나타나는 자모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sup>15)</sup>.

한국어 교재에서도 국어 교재와 마찬가지로 교재의 시작 단계에서 한글 자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재 2-1이나 교재 2-2처럼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 중에는 한글 자모의 교수·학습에 앞서서 한글의 특성을 소개하는 부분이 별도로 설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교재에서 한글 자모는 한글의 특성을 소개하는 부분과 자모 교수·학습 부분에서 함께 나타난다.

####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sup>16)</sup>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는 ‘기초편’에서 한글 자모 교육을 다루고 있다. 이 교재는 ‘한글의 기초와, ‘모음과 자음 I’, ‘모음과 자음 II’, ‘받침과 유용한 표현’으로 구성되어서, 교재 전체에서 한글과 한글 자모를 다루고 있다.

예비 단원의 성격을 지닌 ‘한글의 기초’ 단원에서는 한글의 문자적 특징과 모음 21자와 자음 19자의 전체적 모습, 자음자와 모음자의 제자 원리, 음절 구성 방식 등 한글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자모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음과 자음 I’ 단원부터이다.

자모 교육은 ‘모음과 자음 I’, ‘모음과 자음 II’ 두 단원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자모의 제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5) 본고에서는 2024년 4월 기준으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제시된 교재 중 최신개정판을 고찰 대상으로 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국어 교재인 ‘국어 1-1’을 교재 1, 한국어 교재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편’을 교재 2-1, ‘세종 한국어 1A’을 교재 2-2,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저학년 의사소통 1’을 교재 2-3,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급1’을 교재 2-4로 칭하겠다.

16) 이 교재는 ‘기초편’과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로 구성되어 있다.

- 모음 1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자음 1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모음 2 : ㅐ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자음 2 : ㄱ ㄴ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여기서는 총 40개의 자모를 기본 자모자 24개와 복합 자모자 16개로 나누어 기본 자모자는 ‘모음1, 자음1’에서, 복합 자모자는 ‘모음2, 자음2’에서 제시하면서, 자음자와 모음자 중에는 모음자를 먼저 배열하고 있다. 이 교재는 자모의 수뿐만 아니라, 자모를 기본 자모자와 복합 자모자로 나누는 방식과 자모를 배열하는 순서에서도 ‘한글 맞춤법’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글문화의 전통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 (2) 세종 한국어<sup>17)</sup>

‘세종 한국어’에서는 첫 단계 교재인 ‘1A’에서 한글 자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교재에서는 ‘한글을 배워요’라는 예비 단원을 설정해서, 한글에 대한 소개를 한 후 한글 자모를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한글에 대한 소개 부분에서는 모음 21자와 자음 19자를 기본 모음자 10개와 복합 모음자 11개, 기본 자음자 14개와 겹자음자 5개로 나누고, 각각 ‘한글 맞춤법’ 순서대로 제시하면서 자음자와 모음자의 제자 원리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한글 자모를 익힐 수 있도록 교수·학습하는 부분에서는 설명 부분과 달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모를 제시하였다.

- 모음 1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ㅑ
- 자음 1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모음 2 :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자음 2 : ㅋ ㅌ ㅍ ㅎ ㄱ ㄴ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17) 이 교재는 초급에 해당하는 ‘1A, 1B, 2A, 2B’ 중급에 해당하는 ‘3A, 3B, 4A, 4B’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모음자와 자음자를 음운을 중심으로 각각 2단계로 나눈 후 교대로 제시했는데, 모음자와 자음자 중에는 모음자가 먼저 제시된다.

자음자는 ‘거센소리를 제외한 기본 자음자 / 거센소리와 된소리’로 나누어서 자음1은 ‘한글 맞춤법’ 순서에 따라, 자음2는 ‘거센소리-된소리’ 순으로 배열하였다. 모음자는 ‘단모음 / 이중 모음’으로 나누었는데, ‘니, 귀’는 현실음을 반영해서 이중 모음으로 처리하였다<sup>18)</sup>. 단모음자에서는 ‘기본 모음자-복합 모음자’ 순서를 보이며, 이중 모음자에서는 ‘/y/계 이중 모음자-/w/계 이중 모음자-ㄱ’ 순을 취하는데, /y/계 이중 모음자는 ‘기본 모음자-복합 모음자’ 순을 취하지만 /w/계 이중 모음자는 ‘한글 맞춤법’ 순서를 따르고 있다.

### (3) 표준 한국어<sup>19)</sup>

표준 한국어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저학년 의사소통 1’에서 한글 자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교재에서는 예비 단원으로 설정된 ‘한글’ 단원에서 자모 교육을 다루는데, 한글의 특성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모음자와 자음자 익히기, 모음자와 자음자의 결합 익히기, 받침 있는 글자 읽고 쓰기’ 처럼 자모 학습 자체에만 목표를 둔다. ‘모음자와 자음자 익히기’에 나타난 자모 제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모음 1 : ㅏ ㅓ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ㅑ ㅓ ㅕ ㅛ ㅝ ㅟ
- 자음 1 : ㄱ ㅋ ㄴ ㄷ ㅌ ㅍ ㅂ ㅅ ㅈ ㅊ ㅌ ㅎ ㅍ ㅊ ㅌ ㅍ ㅊ ㅌ ㅍ ㅊ ㅌ ㅍ ㅊ
- 모음 2 : ㅐ ㅑ ㅓ ㅕ ㅛ ㅝ ㅟ

18) 모음자를 ‘단모음 / 이중 모음’으로 나눈 경우 단모음자에서 ‘니, 귀’를 제외하는 것은 모든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실 발음을 반영한 모습이다.

19) ‘표준 한국어’는 다문화 배경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재로, 2017년 개정된 ‘한국어(KSL)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2019년에 개발되었다. 이 교재는 학년군별로 ‘의사소통 한국어’와 ‘학습도구 한국어’로 나누어지는데,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의사소통 한국어) 저학년(1~2학년용)’ 4권,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의사소통 한국어) 고학년(3~6학년용)’ 4권,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학습도구 한국어)’ 1-2 / 3-4 / 5-6학년용 3권,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의사소통 한국어)’ 4권,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학습도구 한국어)’ 중학생용 / 고등학생용 2권으로 구성된다.

특징적인 모습은 초성과 중성에서의 음가 차이를 반영해서 ‘ㅇ’을 자음자에서 제시하지 않은 것인데, 이로 인해 처음 제시된 자모의 수는 모음자와 자음자 각각 21개 18개, 총 39개이다. 그렇지만 받침을 다루는 부분에서 ‘ㅇ’을 제시함으로써 교재 전체에 제시된 자모의 수는 40개로 어문 규범과 동일하다.

제시 방식을 보면 교재1과 같이 자음자는 동시에, 모음자는 두 단계로 나누었다. 자음자의 경우에는 기본 자음자 14개를 먼저 제시한 후 겹자음을 제시했는데, 기본 자음자는 발음 기관에 따라서 분류한 후 ‘기본자-가획자’의 순서로 제시하고, 가획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체자인 ‘ㄹ’을 뒤에 배치함으로써,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기반을 둔 모습을 보인다. 모음자의 경우에는 모음1에서 12개를 제시한 후 모음2에서 9개를 제시하는데, 모음1에서 제시된 모음자는 단모음자 8개에 이중 모음자 중 기본 모음자에 해당하는 ‘ㅑ ㅓ ㅕ ㅗ’를 더한 것으로, 단모음과 기본 모음자를 결합한 모습을 보인다. 모음 1에서 모음자는 ‘기본 모음자 중 단모음자-기본 모음자에 속하지 않은 단모음자-기본 모음자에 속하는 이중 모음자’ 순으로 배열되었다. 모음2에서는 /y/계 이중 모음자를 먼저 제시하고, /w/계 이중 모음자 중 형태적 유사성을 보이는 것을 묶은 후, 발음이 유사한 ‘내 니 ㄱ’을 모아서 제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 (4)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sup>20)</sup>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초급 1’에서 자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교재에서는 한글의 특성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예비 단원으로 설정된 ‘한글’ 단원에서 자모를 다루고 있다. 자모의 제시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모음1 : ㅏ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ㅑ
- 자음1 : ㅇ ㄱ ㅋ ㆁ ㄷ ㄸ ㄴ ㄹ ㅁ ㅂ ㅅ ㅆ ㅎ
- 모음2 :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ㅐ ㅑ
- 자음2 : ㅋ ㅌ ㅍ ㅎ

20) 이 교재는 ‘초급 1, 초급 2, 중급 1, 중급 2’의 총 4권으로 구성되었다.

- 자음3 : ㅁ ㅂ ㅅ ㅆ ㅈ ㅊ
- 모음3 : ㅏ ㅓ ㅕ ㅗ ㅛ ㅜ ㅠ

여기서는 40개의 자모를 3단계로 나눈 후 교대로 제시하고 있다. 1, 2단계에서는 모음자가 먼저 제시되지만 3단계에서는 자음자가 먼저 제시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w/계 이중 모음자가 자형과 발음상 학습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음자는 ‘거센소리를 제외한 기본 자음자-거센소리-된소리’의 순서로 단계화되고 각 단계 내의 제시 순서는 사전 등재 순서에 따르지만, 1단계에서 처음 제시되는 자음이 ‘ㅇ’이라는 점은 특징적이다<sup>21)</sup>. 모음자의 경우 ‘단모음자-/y/계 이중 모음자-/w/계 이중 모음자’의 순서로 단계화되었으며, 모음1과 모음2에서는 제자 원리에 따른 ‘기본 모음자-복합 모음자’ 순서를, 모음3에서는 자형별로 유사성을 보이는 것과 음가가 유사한 것을 묶어 제시하는 방식을 보인다.

## 5. 한글 자모 교육의 쟁점과 방향

### 1) 한글 자모 교육의 쟁점

한글 자모 교육에서, 한국어 교육은 자모라는 대상과 교육이라는 목적 측면에서 어문 규범 및 국어 교육과 공통점을 지닌다. 그렇지만 어문 규범은 한글문화 전통에 기반을 두는 데 비해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은 교육적 효율성이라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어 교육은 문자 교육에 중점을 두는 데 비해 한국어 교육은 문자 교육과 발음 교육이 결합된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은 어문 규범이나 국어 교육과 차이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한글 자모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도 어문 규범이나 국어 교육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자모의 수와 배열 순서를 살펴보면 어문 규범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훈몽자회’를 거치면서 형성된 한글문화의 전통이 기반을 이루지만, 국어 및 한국

21) 이는 ‘ㅇ’을 결합한 음절 형태로 모음을 학습하면서, 학습자들이 ‘ㅇ’에 익숙해진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 교재에서는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였다. 자모의 수 및 배열 순서와 관련된 쟁점으로는, 자모의 숫자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자음자와 모음자 중 무엇을 먼저 제시할 것인지, 자음자와 모음자를 각각 어떤 방식으로 배열할 것인가를 들 수 있다.

자모의 수를 설정하는 방식은,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어문 규범 중 ‘한글 맞춤법’에서는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따라서 기본 자모를 24개로 설정한 후 복합 자모 16개를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표준 발음법’에서는 제자 원리에 따른 구분 없이 자모 40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재에서는 단원의 목표에 따라 자모의 수를 제시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국어 교재와 한국어 교재에 공통적이다. 한글의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제자 원리에 따라 자모를 기본 자모와 복합 자모로 구분하여 제시하지만, 자모 학습 자체에 목적을 둔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 없이 자모의 수를 40개로 설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나타난 원인은, 제자 원리에 따른 기본 자모와 복합 자모의 구분은 한글 자모의 중요한 특징이지만 음운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발음 교육과 결합된 자모 교육의 효율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자음자와 모음자의 제시 순서를 살펴보면 어문 규범과 교재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자음자를 먼저 제시하는 방식은 ‘훈민정음’에서 시작되어 ‘훈몽자회’를 거쳐 전통적인 자모 제시 순서로 굳어진 것으로, 어문 규범에서는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자모 교육을 다루는 교재에서는 국어 교재와 한국어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모음자-자음자’의 순서를 보이는데, 이는 자모 학습에 목적을 둔 단원뿐만 아니라 한글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 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글의 특성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 교재 중, 교재 2-2에서는 ‘모음자-자음자’ 순서로 자모의 전체적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교재 2-1에서는 제자 원리 소개는 자음자를 먼저 하면서도 이에 앞서 전체 자모의 모습은 ‘모음자-자음자’ 순서로 제시하였다.

자모 교육 교재에서 모음자를 먼저 제시하는 이유는 한국어의 음절 구조와 관

런지어 볼 수 있다.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에 한글 자모는 음절을 형성하는 재료로서의 성격을 지니는데,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의 유형을 지닌 한국어의 음절 구조상 모음은 단독으로도 음절을 구성할 수 있지만, 자음은 모음과 결합하지 않고는 음절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모음자를 먼저 가르친 후 자음자를 가르치는 방식이 교수·학습 상황에서 용이하기에 ‘모음자-자음자’ 방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음자와 모음자를 배열하는 방식은 교재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이 문제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전체로 제시하는지, 나누어서 제시하는 경우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지, 자음자나 모음자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는지로 살펴볼 수 있다.

자음자와 모음자를 전체로 제시하는 모습은 어문 규범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글의 문화적 전통에 따른 것이기에 한국어 성인 모어 화자에게는 익숙한 방식이다. 그렇지만 교재에서는 한글의 특성을 소개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 자음자와 모음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어서 제시하는 방식이 중심을 이루는데, 이런 모습은 모음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sup>22)</sup>.

자음자와 모음자를 나누는 방식은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다양하다. 교재 2-1은 자음자와 모음자 모두 ‘한글 맞춤법’과 같이 기본 자모와 복합 자모로 나누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외의 교재들은 제자 원리와 음운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자음자의 경우, 교재 1과 교재 2-3에서는 전체로, 그 외의 경우에는 나누어 제시된다. 나누는 방식으로는 제자 원리를 중심으로 한 ‘기본 자음자 / 복합 자음자’(교재 2-1), 음운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유성 자음 및 예사소리 / 거센소리 / 된소리’(교재 2-2)와 ‘유성 자음 및 예사소리 / 거센소리 / 된소리’(교재 2-4)가 있다.

22) 모음자는 모든 교재에서 나누어 제시하는 데 비해, 자음자는 교재 1과 교재 2-3처럼 전체로 제시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는 자음자는 단일한 음운을 표시하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모음자에는 이중 모음이 섞여 있으면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복잡한 자형이 있기에 자음자에 비해 학습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음자의 전체적인 배열 순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글 맞춤법’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교재 2-1을 제외하면 교재별로 고유한 방식으로 자음자를 배열하는데, 이는 교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자음자의 배열 순서는 크게 ‘훈민정음’처럼 조음 위치에 일차적 기준을 둔 것과, 조음 방법 및 발성 유형에 일차적 기준을 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재별로 살펴보면, 자음자의 배열 방식은 국어 교재와 한국어 교재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어 교재인 교재 1은 ‘훈민정음’에서 제시된 조음 위치를 기준으로 배열한 후 각각 ‘기본자-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이체자’의 순을 취하는데, 한국어 교재 중에서는 교재 2-3이 된소리를 마지막에 배치한 것과 ‘ㄹ’의 위치가 달라진 점을 제외하면 교재 1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조음 위치에 일차적 기준을 둔 교재는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학령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라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 한국어 교재 중, 교재 2-2와 교재 2-4는 조음 방법 및 발성 유형에 따라 ‘유성자음 및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로 자음자를 배열하면서, 동일한 조음 방법 및 발성 유형 내에서는 조음 위치에 따라 순서를 정하였다.

모음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모든 교재에서 나누어 제시되는 모습을 보인다. 나누는 방식은 제자 원리를 중심으로 한 ‘기본 모음자 / 복합 모음자’(교재 1, 교재 2-1), 음운을 중심으로 한 ‘단모음자 / 이중 모음자’(교재 2-2) ‘단모음자 / /j/계 이중 모음자 / /w/계 이중 모음자와 ㄹ’(교재 2-4), 제자 원리와 음운을 결합한 ‘단모음자와 기본 모음자 / 복합 모음자 중 이중 모음자’(교재 2-3)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모음자의 전체적인 배열 순서는 제자 원리를 중심으로 한 ‘기본 모음자-복합 모음자’나 음운에 따른 ‘단모음자-이중 모음자’ 순서를 취한다. 제자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모습은 국어 교재인 교재 1과 한국어 교재 중 ‘한글 맞춤법’ 체제를 따른 교재 2-1에서만 나타나며, 그 외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음운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모음자의 배열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은 기본 모음자에서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순서를, 단모음자에서는 ‘ㅏ ㅓ ㅗ ㅜ ㅡ ㅣ ㅑ ㅕ’의 순서를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한글 맞춤법’의 제시 순서 그대로이

거나 여기에서 단모음을 추출해서 순서대로 배열한 것으로, 한글문화의 전통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중 모음자나 복합 모음자를 배열할 때는 발음이 같은 것을 묶거나, 자형이 유사한 것을 묶는 식으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면서 통일성을 찾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교재 1에서는 ‘개 케 꺼 꺼’에서, 교재 2-2에서는 ‘야 키 고 꺼 꺼’에서, 교재 2-3에서는 ‘개 케 나 귀 귀 니 내 니 꺼’에서, 교재 2-4에서는 ‘나 귀 귀 니 내 꺼 꺼’에서 ‘한글 맞춤법’과 순서상 차이가 나타나며, ‘니’의 순서도 교재별로 차이를 보인다.

## 2) 한글 자모 교육의 방향

자모 교육의 쟁점을 중심으로 교재를 검토해 보면, 이 중 자모의 수나 자음자와 모음자의 제시 순서에서는 국어 교재와 한국어 교재에서 공통적인 방향성이 드러난다. 자모의 수는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달리 설정된다. 즉 한글의 특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제자 원리를 중심으로 기본 자모를 먼저 제시하고 복합 자모를 제시하지만, 자모 자체의 학습을 위한 부분에서는 자모의 수를 40개 전체로 설정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음자와 모음자의 제시 순서에서는 ‘자음자-모음자’의 순서를 보이는 어문 규범과 달리, 교재에서는 단원의 성격과 무관하게 ‘모음자-자음자’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한글의 음절 구조 특성상, 교수·학습에 보다 적절한 순서를 선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음자와 모음자의 배열 순서는 교재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국어 교재와 구별되는 한국어 교재의 특성이 드러난다. 자음자와 모음자의 배열 순서에서 작용하는 주요 변인은 제자 원리와 발음으로 볼 수 있다. 자음자의 경우에는 제자 원리 자체가 음운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훈민정음’에서와 같이 조음 위치를 일차적 기준으로 할지, 조음 방법 및 발생 유형을 일차적 기준으로 할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모음자의 경우에는 제자 원리에 따르지 음운적인 특징인 단모음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자모의 배열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국어 교재인 교재 1의 경우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면

서, 자음자에서는 조음 위치를, 모음자에서는 제자 원리를 일차적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글 자모 교육을 발음 교육이 아닌 문자 교육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외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자음자 배열에서 ‘훈민정음’ 방식처럼 조음 위치를 일차적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의 조음 위치에서 나타나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 된소리를 동시에 학습해야 하는데, 이 방식은 발성 유형에 따른 음가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모음자의 경우에도 제자 원리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방식은, 한국어 모어 화자가 아닌 경우 단모음과 이중 모음 발음에서 느끼는 난이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동시에 학습해야 한다는 데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 교재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자음의 경우 조음 방법이나 발성 유형에, 모음의 경우 음운에 중점을 둔 접근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 교재에서 자모가 배열된 모습을 보면 이러한 방식만이 아니라, ‘훈민정음’ 이후 ‘훈몽자회’를 거치면서 형성된 한글문화의 전통에 대한 고려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모음자의 경우 교재에 따라 여전히 ‘기본 모음자-복합 모음자’ 순서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발음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설정해서 단모음자 8개를 먼저 배열한 후 이중모음자를 배열하더라도 이중 모음자 중 ‘ㅏ ㅓ ㅗ ㅛ’를 먼저 제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자음자에서도 조음 위치를 일차적 기준으로 하는 교재가 있으며, 발성 유형에 따라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 순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발성 유형 내에서는 전통적인 ‘아음-설음-순음-치음-후음’ 순서에 따른 조음 위치 배열 방식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 자모를 배열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음운의 특성에 따른 교수·학습의 효율성과 한글문화의 전통이라는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인을 위한 한글 자모 교육에서는 한글문화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 문자 교육에 중점을 두는 어문 규범의 방식과는 다른, 발음 교육과 문자 교육이 결합된 한글 자모 교육의 교수·학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는데, 한국어 교재의 모습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글 자모 교육에서 자모를 배열할 때는 문화적 전통과 교육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지만, 두 요인의 비중은 교육 목적과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달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글의 특성 이해에 중점을 두는지, 자모 학습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자모 배열 순서가 달라지는 것처럼 교육 목적에 따라 자모 배열 순서는 변화될 수 있다. 또한 교재 2-3에서 볼 수 있듯이, 자모 배열 순서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다. 이 교재에서는 학습자들의 특성상, 향후 한국어 모어 화자들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한글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연령상 한글 소개 단원을 설정하기 어렵기에, 전통적 자모 배열 순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국어 교재의 배열 순서를 따르면서 부분적인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6. 맺음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한글 자모 교육은 한국어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만 한글 자모 교육에서는 아직 통일된 교육 방향이 수립되지 못한 채 기관별, 교재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 자모 교육 연구에서 논의의 중점을 이루어 온 사안 중 자모의 수와 배열 순서를 중심으로, 자모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한글 자모 교육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어문 정책이나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훈민정음’과 ‘훈몽자회’를 중심으로 한글 자모 교육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어문 규범에 자모 교육 전통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국가 수준에서 편찬된 국어 및 한국어 교재에서 자모 교육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모 교육에서 어떤 쟁점이 나타나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해 보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을 위한 한글 자모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자모 교육은 그 중요성에 걸맞게 다양한 방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과 정책적 판단이 결부된 결과로서의 방향성이 각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글 자모 교육을 넓은 관점에서 보면서, 자모 교육의 역사를 살피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모 교육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자모 교육의 현황을 검토하고 방향성을 설정해 보았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글 자모 교육의 구체적 실현 방법이 아닌, 자모 교육의 방향성 설정에 중점을 둔 것이다. 앞으로 통일성 있는 교육 방향이 설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수립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쟁점별로 자모 교육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 활발하게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1. 교재

- 교육부, 『국어 1-1 가』, 2024.  
 국립국어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급1』, 하우출판, 2019.  
 국립국어원,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저학년 의사소통1』, 마리북스, 2019.  
 국립국어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기초편』, 하우출판, 2020.  
 국립국어원, 『세종 한국어 1A』, 2022.

### 2. 단행본

- 안병희, 『훈민정음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7.  
 홍윤표, 『한글 이야기1: 한글의 역사』, 태학사, 2013.

### 3. 논문

- 강유주·박종배, 「조선시대의 한글 교재와 그 특징」, 『교육사학연구』 30-2, 교육사학회, 2020, pp.1-27.

- 김참이, 「한국어 입문 단계 교육 제시 방법 연구」, 『이중언어학』 85, 이중언어학회, 2021, pp.81-104.
- 양명희,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글 자모와 발음 교육 방법에 대하여」, 『어문논집』 41, 중앙어문학회, 2009, pp.5-27.
- 유소영, 「한국어 교재에서의 자모 제시 순서 연구」, 『반교어문연구』 51, 반교어문학회, 2019, pp.301-324.
- 이승왕, 「한글 자모 제시 순서에 대한 교육적 고찰」, 『우리말연구』 73, 우리말학회, 2023, pp.99-128.
- 허철구, 「한글 자모순의 성립 과정과 과제」, 『사립어문연구』 18, 사립어문학회, 2008, pp.1-13.
- 홍윤표, 「한글 자모의 명칭과 배열순서에 대한 역사적 연구」, 『한국어사 연구』 2, 국어사 연구회, 2016, pp.259-320.

#### 4. 인터넷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논문 접수 일	2024년 8월 10일
심사 완료 일	2024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	2024년 9월 6일

*Abstract*

---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Korean Alphabet Education for Foreigners

Lee, Eunhee

Korean alphabet education holds significant meaning as the starting poi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owever, in the real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Korean alphabet education has not yet established a unified educational direction, resulting in various approaches being implemented depending on the institution and the textbook. This study explores the direction of Korean alphabet education for foreigners, focusing on key issues such as the number of alphabets and their arrangement order.

Korean alphabet education has been a continuous subject of interest since the creation of Hangeul, serving as a starting point for literacy education. It is currently being execut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language policy,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native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Consequently, efforts are underway at the national level to establish standardized directions across these sectors, and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s these efforts. Firs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alphabet education is examined, centered around the 'Hunminjeongeum' and 'Hunmongjahoe'. It then investigates how the tradition of Korean alphabet education is reflected in language norms and how it is implemented in national-level Korean language textbooks. Furthermore, this study reviews the issues that arise in Korean alphabet education and identifies their underlying causes, ultimately seeking to establish a direction for Korean alphabet education tailored for foreigners.

**Keyword** Korean alphabet, direction of Korean alphabet education, Korean language textbook, number of Korean alphabets, arrangement order of Korean alphabets

# 馬路의 조어 논거

채 남\* · 임 다영\*\*

## 국문요약

현대 중국어의 馬路는 ‘도로’ 또는 ‘차로’와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주로 구어에서 사용된다. 馬路라는 단어는 고대부터 존재했는데, 그 어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견해가 거론되어 왔다. 즉, 첫째, 馬路가 외래어라는 견해, 둘째, 馬路가 ‘차도’를 의미한다는 견해, 셋째, 馬路가 ‘말이 다니도록 만든 도로’를 뜻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견해에 대한 반론 역시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대 중국어와 현대 중국어 (山東 방언 등을 포함)에는 ‘마×’나 ‘마××’ 등 馬를 포함한 단어가 다수 존재하는데, 문헌에 수록된 馬를 포함한 단어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1) 馬는 글자의 본래 의미가 아닌 ‘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크다’의 의미를 나타낼 때, 馬와 螞는 호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즉, 馬路의 馬는 ‘크다’는 뜻을 나타내며, 따라서 馬路는 큰길 즉 ‘대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馬는 고대 육축(六畜)의 으뜸으로서, 육축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크고 인류의 생활과도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고대 사회에서 큰 역할을 도맡아 왔으며 다른 가축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확고한 지위를 차지했다. 이 사실을 고려했을 때 ‘마’에서 ‘크다’의 의미가 파생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馬路, 조어 논거, 馬-, 螞-, 집두사

## 〈목차〉

1. 서론
2. 고대 문헌 중에 ‘馬’의 의미
3. 현대 사전 중에 ‘馬’의 의미
4. 산둥 방언 중에 ‘馬’의 의미
5. 결론

\* 제1저자: 중국 북경어언대학교 응용중문대학 조교수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1. 서론

현대 중국어의 馬路는 주로 구어에서 사용되며 ‘도로, 차로’와 유사한 뜻을 나타낸다. 현대어에서 자주 쓰이는 마로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倪陪森(2002)와 劉志基(2002)는 마로의 어원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다. 즉 馬가 車를 나타내기 때문에 馬路는 ‘차로’를 뜻한다고 보았다. 이와는 달리 仝小琳(2011)은 현대어의 馬路가 고대어 ‘마차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聶小麗(2001)는 현대어의 마로는 고대어와 무관하며 ‘머캐넘 도로’의 약칭과 개념을 차용해서 형성된 외래어라고 설명하였다. 謝晨暉(2024)는 馬路를 고대어로부터 온 것과 외래어에서 전해진 것이 합류되어 형성된 단어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馬路의 어원에 대한 견해는 다음의 세 가지로 귀결된다.

첫째, 馬路가 외래어이며 잉글랜드 기술자 존 라우든 머캐덤(John Loudon McAdam)을 기념하기 위해 명명되었다는 견해이다. 聶小麗(2001)에 따르면,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잉글랜드 기술자인 존 라우든 머캐덤이 도로 시공법을 창안했는데, 잘게 쪼갠 돌을 이용해 길을 내는 방법으로 도로 중앙을 높게 설계해서 물 빠짐을 용이하게 하고 양쪽에 배수로를 만들었으며 도로를 평탄하고 넓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 설계자를 기념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만든 도로를 ‘머캐덤 도로(McAdam Road)’라고 명명했는데, 이를 줄여 馬路라고 불렀다.<sup>1)</sup> 다시 말해 馬路는 音譯과 意譯을 결합한 混譯 방식의 외래어인 것이다.

둘째, 馬路가 ‘차도’를 의미한다는 설이다. 劉志基(2002)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차도’를 馬路라고 불렀는데 이는 上古시대 ‘차’와 ‘말’이 한 몸이었기 때문이다. 고대의 교통수단인 ‘말’이 항상 ‘차’와 연결되어 쓰인 것은 ‘말’이 ‘차’의 동력원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즉 ‘행차길’은 ‘말이 달리는 길’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차도’를 馬路라 불렀다는 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sup>2)</sup>

셋째, 馬路는 定中結構의 복합어이며, 그 어원이 글자 그대로 ‘말이 다니도록

1) 聶小麗, 「“馬路”與“公路”」, 『語文建設』, 第9期, 2001, p.39.

2) 劉志基, 「馬年說“馬路”」, 『咬文嚼字』, 第6期, 2002, p.24-25.

만들어진 도로' 또는 '마차길'에서 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馬路의 의미는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한어사전(제7판)』에서 馬路를 ①말이 다닐 수 있도록 넓고 평평하게 만들어진 도로, ②일반적으로 도로를 가리킨다<sup>3)</sup>고 풀이해 놓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견해부터 살펴보자. 문헌 기록에 따르면 馬路라는 단어는 『左傳·昭公二十年』에 최초로 등장한다. “褚師子申遇公於馬路之衢”라는 기록을 통해 馬路라는 단어가 외래어가 아닌 고유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馬路가 외래어라는 첫 번째 견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견해와 관련하여 『周禮·地官·遂人』의 “토지를 개간할 때 토지 사이에 큰 길(遂)을 내고 그 위에 작은 통로(徑)를 낸다(凡治野, 夫間有遂, 遂上有徑)”라는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鄭玄은 “나라에 徑, 畛, 塗, 道, 路를 설치해 사람과 차가 순조롭게 수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은 우마가, 진은 큰 차가 다니는 길이고, 塗, 道, 路는 각각 1괘 차, 2괘 차, 3괘 차를 수용한다.”<sup>4)</sup>고 풀이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마’와 ‘차’가 같지 않고, 道와 路가 같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馬路가 ‘차도’라는 두 번째 견해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 번째 견해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어대사전』에서는 馬路를 고대에 말이 달릴 수 있도록 만든 큰길이라고 풀이해 놓았다.<sup>5)</sup> 이 해석에 따르면 馬路는 말이 달릴 수 있는 길이지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며, 폭이 좁은 작은 길이 아닌 폭이 넓은 큰길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해석에 대해 세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고대에 ‘말’과 ‘차’는 모두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쓰였으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차’의 용도와 중요성이 ‘말’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후대에 차가 다니는 길을 왜

3)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6, p.868.

4) [清]阮元校刻, 『十三經註疏』, 北京: 中華書局, 2009, p.1596.

5) 漢語大詞典編寫組, 『漢語大詞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1, p.17581.

馬路라고 부르기 시작했는가? 둘째, ‘말이 달릴’뿐인데 왜 ‘대로’가 필요한가? 즉 ‘徑, 畛, 塗, 道’에서는 왜 말이 달릴 수 없는가? 셋째, ‘말’이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면 馬路라는 단어 역시 자주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데 실제로 이 단어는 先秦시대 문헌 중 『좌전』에 한번 등장한 뒤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가 명·청에 이르러서야 비교적 많은 용례가 발견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馬路의 어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고대 문헌 중에 ‘馬’의 의미

『左傳·昭公二十年』에 “저사 자신이 마로의 큰길에서 위령공을 만나 그를 따라갔다 (褚師子申遇公於馬路之衢, 遂從)”라는 기록이 있다. 『說文解字·行部』에서 “衢는 사방으로 통하는 큰길을 말한다 (四達謂之衢)”고 하였고,<sup>6)</sup> 『公羊傳·宣公十二年』에는 “장왕이 정나라를 정벌할 때, 황문에서 승리를 거두고 큰길로 나아갔다.(莊王伐鄭, 勝乎皇門, 放乎路衢)”라는 기록이 있다. 또 何休는 “路衢는 外城 안의 사방으로 뚫린 큰길을 가리킨다 (路衢, 郭內衢道, 四達謂之衢)”고 설명했다.<sup>7)</sup>衢는 사통팔달 도로를 가리키며 현대 중국어에도 通衢라는 단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 그러나 馬路和衢가 모두 길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면 馬路之衢는 ‘길의 길’로 해석되기 때문에衢의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한어대사전』에 따르면衢는 ‘갈림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이 의미에 따라 『좌전』의 문장을 재해석하면褚師 자신이 큰길이 갈라지는 곳에서衢侯를 조우했고 그를 따라갔다고 풀이할 수 있으므로衢의 의미는 ‘갈림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馬路가 이음절 단어이기 때문에 馬路之衢처럼之를 정중구조의 표시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음울까지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양전』 중의路衢는 사실상‘路의衢’를 말한다. 그렇다면 馬路和‘로’는 어떻게 다른가? 또 馬路라는 단어 속의‘마’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와 관련한 문헌 기록을 살펴보자.

6) [漢]許慎,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63, p.44.

7) [清]阮元校刻, 앞의 책, p.4960.

서한 揚雄의 『方言』 권 11에는 “馬虵을 北燕에서 蛆蠖라 불렀다. 그중 개체가 큰 것은 馬虵라 하였다 (馬虵, 北燕謂之蛆蠖, 其大者謂之馬虵)”라고 기록되어 있다. 華學誠의 『揚雄方言校釋匯證』에서 馬虵은 馬蠃, 馬蠖, 馬軸, 馬陸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일컬어졌다고 한 바 있다.<sup>8)</sup>

『爾雅·釋草』에서 葦은 馬藍이라 하였는데 東晉 郭璞의 『爾雅註』에 따르면 즉 大葉冬藍이다.<sup>9)</sup> 『爾雅·釋草』에서 芣苢는 馬烏이고 馬烏은 車前이라 하였는데, 郭璞의 註에 따르면 車前草는 큰 잎이 자라 싹을 틔우며 도로변에 무성한데 江東에서는 蝦蟆衣라 부른다고 한다.<sup>10)</sup> 『爾雅·釋草』의 土蠶에 대하여 郭璞은 강동에서는 大蜂이라 부르고, 땅 속에 집을 짓는 벌을 토봉이라 하며, 유충을 먹는 벌을 ‘馬蠶이라 한다고 설명했다.<sup>11)</sup> 또 『爾雅·釋蟲』의 ‘蠲, 馬蠲’에 대해 郭璞은 蠲 가운데 가장 큰 것을 馬蠲라고 설명하였다. 『初學記』에서 孫炎의 말을 인용해 蠲은 馬蠲이고 蟬(매미)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하였는데 華學誠의 『揚雄方言校釋匯證』에서 오늘날 이런 매미는 馬蠶蠲라도 하는데 몸집이 크고 색이 검으며 우는 소리가 우렁차고 메아리가 없다고 설명하였다.<sup>12)</sup> 『說文·蟲部』의 “蠲, 馬蠲也”에 대해 段玉裁는 馬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크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면서 馬蠲는 蠲 가운데 가장 큰 것을 말한다고 했다고 지적하였다. 즉 상술한 용례 및 연구를 통해 馬가 ‘크다’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의미의 용법은 명·청에서도 이어진다. 몇 가지 용례를 아래에 들어둔다.

명대 李東陽의 『馬船行』에 南京의 馬船은 집채처럼 커서 보통 한 척에 삼백斛을 실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馬船은 ‘대형 官船’의 의미로 쓰였다. 『建炎以來繫年要錄』권 194에서도 수군의 배 중에 제일 크고 견고한 것은 馬船 밖에 없다<sup>13)</sup>고 기록해 놓았다. 명대 이시진은 『本草綱目·草三·馬蘭』

8) 華學誠, 『揚雄方言校釋匯證』, 北京: 中華書局, 2006, p.752.

9) [清]阮元校刻, 앞의 책, p.5719.

10) [清]阮元校刻, 앞의 책, 2009, p.5720.

11) [清]阮元校刻, 앞의 책, 2009, p.5740.

12) 華學誠, 앞의 책, p.716.

13) [宋]李心傳, 『建炎以來繫年要錄』, 北京: 中華書局, 1988, p.3268.

에서 민간에서 사물 가운데 큰 것을 馬라 해서, 잎이 난과 비슷하고 체형이 더 큰 꽃을 馬蘭이라 기술한 바 있다.<sup>14)</sup> 또한 『本草綱目·草五·馬蓼』에서 사물 중 큰 것을 말할 때 하나같이 馬자를 붙였기 때문에 馬蓼를 보통 大蓼라고도 한다고 기술했다.<sup>15)</sup> 『本草綱目·菜一·馬蕪』에서 사물 중 큰 것에는 마를 붙여 명명했는데 이 풀은 미나리(芹=蕪)와 비슷하고 크기 때문에 馬蕪라 명명하였다고 설명했다.<sup>16)</sup>

청대 屈大均의 『廣東新語·草語·二蘭菜』에서는 二蘭菜을 馬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잎이 난과 비슷하고 커서 크다는 의미를 가진 馬를 붙였다고 馬蘭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였다.<sup>17)</sup> 『說文解字·艸部』의 “蒼, 井藻也”에 대해 『說文解字註』에서 藻류 가운데 큰 것을 牛藻라 하였는데 草류 중 큰 것에 牛나 馬를 붙였다고 설명했다.<sup>18)</sup> 『說文解字·蟲部』의 “蝸, 馬蝸也”에 대해 단옥재는 馬자가 붙은 단어는 크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 단어의 의미는 즉 『방언』에서 말한 蟬(매미) 중에 큰 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밝혔다.<sup>19)</sup> 郝懿行的 『爾雅義疏』에서는 蚘蟥는 大蟻(왕개미)를 말하는데 보통 馬蚘蟥라고도 하며, 작은 개미의 경우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蟻(개미)라 한다고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蚘蟥를 順天人은 馬蟻라 하고, 栖霞人은 馬蟻蟻이라 부른다는 설명도 기록해 놓았다.<sup>20)</sup> 청대 孫錦標의 『通俗常言疏證·動物』에서 馬蟻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章太炎의 『新方言』의 “古人於大物輒冠馬字, 如馬蘭 馬蓼 馬蠶 馬蝸 馬蛭是也, 今淮南山東謂大棗爲馬棗, 廣東謂大豆爲馬豆, 通言謂大蟻爲馬蟻.”라는 설명문을 인용하였다.<sup>21)</sup>

위의 예를 통해 명·청에서도 馬가 ‘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14) [明]李時珍, 『本草綱目(新校註本)』, 北京: 華夏出版社, 2008, p.629.

15) [明]李時珍, 위의 책, p.753.

16) [明]李時珍, 위의 책, p.1098.

17) [清]屈大均, 『廣東新語』, 北京: 中華書局, 1985, p.716.

18) [清]段玉裁, 『說文解字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p.28.

19) [清]段玉裁, 앞의 책, 1988, p.666.

20) [清]阮元校刻, 앞의 책, p.3635.

21) [清]孫錦標, 『通俗常言疏證』, 北京: 中華書局, 2000, p.680.

수 있다. 또한 馬蟻를 螞蟻라고도 하고 馬蜂을 螞蜂이라고도 했다는 사실을 통해 螞 역시 ‘크다’라는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螞蟻와 螞蜂을 제외하고도 중국어에는 螞蚱(메뚜기)과 螞蟻(말거머리)이라는 두 가지 상용어도 있다. 螞蚱은 蝗蟲이라고도 부르는데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에서는 황(皇=蝗)에 대해서도 크다는 의미로 쓰이며 대개 소리가 큰 물종을 ‘황x’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하였다.<sup>22)</sup> 다시 말해 皇으로부터 나온 용어도 ‘마(馬/螞)’와 같이 대부분 ‘크다’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황충’은 체형이 비교적 큰 메뚜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螞蟻, 螞蜂, 螞蚱, 螞蟻’ 중의 螞도 馬와 마찬가지로 모두 ‘크다’의 의미를 가지며 주로 곤충류 단어에 쓰인다고 추정할 수 있다.

### 3. 현대 사전 중에 ‘馬’의 의미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馬/螞)’는 ‘크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이를 일반적인 언어 현상이라 볼 수 있을까? 우선 『現代漢語詞典(第7版)』(2016)에서는 馬의 뜻을 다음의 세 가지로 풀이하고 있다.

첫째, [명사] 포유동물, 머리가 작고, 얼굴이 길며, 귀가 쫓긋하고, 목과 사지의 힘이 강하다. 모든 다리에 발굽이 있고 잘 달린다. 꼬리에 긴 털이 있다. 마차, 경작, 승마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가축 중 하나이다. 둘째, 크다. 큰 별, 큰 손가락. 셋째, [명사] 성씨. 馬로 시작하는 단어는 전부 101개 있다. 그중에서 첫째 의미, 즉 짐승으로서의 ‘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67개(약 66.3%)이고, 직간접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단어가 13개(약 12.9%)이며, ‘크다’는 뜻을 가진 단어는 16개(약 15.8%)이다.

- (1) 【馬鱉】 水蛭. 環節動物, 體狹長而扁, 後端稍闊, 黑綠色. 生活在池沼或水田中, 吸食人畜的血液.(거머리. 환형동물로 몸집이 가느다랗고 길며 납작하고 뒷부분이 약간 넓적하게 퍼졌으며 흑녹색을 띤다. 연못이나 논에 서식하고 사람이나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다.)<sup>23)</sup>

22) [清]段玉裁, 앞의 책, p.709.

郝懿行的『爾雅義疏』에서 거머리 중에 큰 것을 馬螿이라 부른다고 설명하였다.<sup>24)</sup> 거머리는 흡혈 후, 몸길이가 몇 배나 팽창하기 때문에 ‘크다’의 뜻을 가진다.

- (2) 【馬廼兒】一年生蔓草，莖細，葉三角形或扁心鱗形，花小，白色，果實近球形，種子灰白色，扁平。全草入藥。(일년생 만초(蔓草)로 줄기가 가늘고 잎이 삼각형 혹은 납작한 심장 모양으로 꽃은 작고 희며 열매는 구 형태에 가깝고 씨앗은 회백색으로 납작하다. 풀 전체가 약재로 쓰인다.)<sup>25)</sup>

石聲漢의 『齊民要術今釋』에서 馬廼兒는 즉 王瓜라고 기재하였다. 그 뿌리가 비대하기 때문에 ‘크다’의 뜻을 가진다.<sup>26)</sup>

- (3) 【馬齒莧】一年生草本植物，莖匍匐地面，葉子小，倒卵形，花小，黃色。莖葉可以吃，也可入藥。(일년생 초목식물로 줄기가 땅을 기어가며 자란다. 잎은 작고 역계란형이며 꽃은 작고 노란색이다. 경엽은 먹을 수도 있고 약재로도 쓰인다.)<sup>27)</sup>

일반적으로 마치현은 말의 이빨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사실 형태가 비슷하지는 않다. 방언 자료에 따르면 馬는 단지 음을 표기하는 부호일 뿐 그 의미는 馬와 무관하다. 『산동방언집중서』 중 ‘馬踏菜, 馬扎菜, 螞蚱菜, 馬芝菜’ 항목을 참고할 수 있다.

- (4) 【馬蜂】螞蜂，胡蜂的通稱。(螞蜂, 胡蜂의 통칭.)<sup>28)</sup>

23)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6, p.1229.

24) [清]阮元校刻, 앞의 책, p.3664.

2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위의 책, p.867.

26) [北魏]賈思勰著 石聲漢校釋, 『齊民要術今釋』, 北京: 中華書局, 2009, p.1106.

2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앞의 책, p.867.

2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앞의 책, p.867.

王艾錄의 『漢語理據詞典』에서는 호봉을 큰 벌이라고 기술하였다.<sup>29)</sup>

- (5) 【馬鮫】魚，體側扁而長，銀灰色，有暗色橫紋或斑點，性凶猛，吃小魚等。生活在海洋中。也叫鮫。(물고기의 일종, 몸집이 납작하고 길며 은회색을 띠고 어두운 색의 가로줄무늬나 반점이 있다. 성질이 거칠고 작은 물고기 등을 먹으며 바다에 서식한다. 鮫(삼치)이라고도 한다.)<sup>30)</sup>

『大明漳州府誌』에 마교는 몸집이 둥글고 길다<sup>31)</sup>라는 풀이가 있다. 일반 물고기보다 더 둥글고 비대해서 ‘크다’의 뜻을 가진다.

- (6) 【馬蘭】多年生草本植物，葉子長橢圓狀披針形，邊緣像粗鋸齒，花外緣紫色，中間黃色，形狀跟菊花相似。全草入藥。(다년생 초본 식물, 잎이 긴 타원상 피침형, 가장자리가 톱니모양이고 꽃 번두리는 자주색, 중간은 노란색을 띠며 형태는 국화와 비슷하다. 전체가 약재로 쓰인다.)<sup>32)</sup>

굴대균 『廣東新語·草語·二蘭菜』를 참고할 수 있다.

- (7) 【馬藍】常綠草本植物，呈灌木狀，葉子有柄，橢圓形，邊緣像鋸齒，暗綠色，花紫色，莖葉可制藍靛，根和葉子可入藥。(상록 초본 식물, 관목상, 잎자루를 가진 타원형으로 가장자리가 톱니모양이고 잎은 암녹색, 꽃은 자주색이다. 경엽은 藍靛(쪽 염료)을 만들 수 있고, 뿌리와 잎은 약재로 쓰인다.)<sup>33)</sup>

郭璞의 『爾雅註』에서 馬藍은 즉 大葉冬藍이라 기록해 놓았다.<sup>34)</sup>

- (8) 【馬蘭】多年生草本植物，根狀莖粗，葉子條形，花藍紫色，葉子富於韌性，

29) 王艾錄, 『漢語理據詞典』, 北京: 華齡出版社, 2006, p.165.

30)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앞의 책, p.867.

31) [明]陳洪謨修 周瑛纂, 『大明漳州府誌』, 北京: 中華書局, 2012, p.207.

32)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앞의 책, p.868.

33)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앞의 책, p.868.

34) [清]阮元校刻, 앞의 책, p.5719.

可以用來搗東西，也可以造紙，根可制刷子，花和種子可入藥，也叫馬蓮。(다년생 초본 식물, 근경이 굵고 잎은 가늘고 긴 모양이며 꽃은 남보라색이다. 잎은 신축성이 좋아 물건을 묶는 데 사용되고 종이도 만들 수 있다. 뿌리로는 술을 만들고 꽃과 씨앗은 약재로 쓰이며 馬蓮이라고도 부른다.)<sup>35)</sup>

화학성 『양왕방언교석회증』에서 馬蘭의 잎이 돈(狹)처럼 길고 두텁다<sup>36)</sup>라고 설명하였다. 근경이 굵은 모양이 ‘크다’의 뜻을 가진다.

(9) 【馬陸】節肢動物，身體圓長，由很多環節構成，除前四節和末節外，每節有足兩對，頭部短觸須一對，背面有黃黑色相間的環紋。(절지동물, 몸집이 둥글고 길며, 수많은 마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번째 마디까지와 마지막 마디를 제외한 나머지는 마디마다 발이 두 쌍씩 달렸고, 머리 부분에 짧은 촉수가 한 쌍 있으며 등에 노란색과 검정색이 교차하는 무늬가 있다.)<sup>37)</sup>

李當之의 『本草經』에서 마륙의 생김새에 대해 “狀如大蜚”이라 기술했다.<sup>38)</sup> 즉 노래기 중의 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 【馬騾】公驢和母馬交配所生的雜種，身體較大，耳朵較小，尾部的毛蓬鬆。(노새, 수당나귀와 암말이 교배하여 낳은 잡종, 몸집이 꽤 크고, 귀가 작으며, 꼬리털이 수북하다.)<sup>39)</sup>

騾 앞에 馬를 붙인 이유는 노새 중에 말과 같이 체형이 크고 힘이 센 종류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11) 【馬勺】盛粥或盛飯用的大勺，多用木頭制成。(죽이나 밥을 푸는 큰 주걱,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졌다.)<sup>40)</sup>

3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앞의 책, p.868.

36) 華學誠, 앞의 책, p.752.

37)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앞의 책, p.868.

38) [清]阮元校刻, 앞의 책, p.3625.

3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앞의 책, p.868.

(12) 【馬纓花】合歡②.(합환수.)<sup>41)</sup>

청대 徐珂의 『清稗類鈔·植物類』에서 馬纓은 山大丹이라고도 부르는데 꽃이 접시처럼 크고 꽃술을 맺을 때 꽃이 수십 송이 피고 꽃마다 공 모양을 만들어 흰 수국과 비슷해서 大紅繡球(붉은 수국)을 속칭하기도 한다고 기록하였다.<sup>42)</sup>

(13) 【螞蜂】馬蜂.(말벌.)<sup>43)</sup>

螞蜂은 馬蜂의 同音·同義·異形語이다. 곤충류 단어에는 馬가 螞로 쓰이기도 한다.

(14) 【螞蟻】蛭의通稱.(거머리의 통칭.)<sup>44)</sup>

郝懿行的 『爾雅義疏』에서 거머리 중에 배가 노란 것을 馬黃이라 부른다고 기재하였는데<sup>45)</sup> 螞蟻은 馬黃의 同音·同義·異形語이다. 馬螞의 유의어로 '크다'의 뜻도 가진다.

(15) 【螞蟻】昆蟲，體小而長，黑色或褐色，頭大，有一對複眼，觸角長，腹部卵形.(곤충의 일종, 몸집이 작고 길며 검거나 흑갈색으로 머리가 크고 겹눈 한 쌍이 있으며 촉수가 길고 복부는 계란형이다.)<sup>46)</sup>

孫錦標의 『通俗常言疏證·動物』에서 大蟻(즉 개미 중의 큰 종류)를 馬蟻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sup>47)</sup> 螞蟻는 馬蟻의 同音·同義·異形語이다.

40)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앞의 책, p.868.

41)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앞의 책, p.868.

42) [清]徐珂, 『清稗類鈔』, 北京: 中華書局, 2010, p.5929.

43)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앞의 책, p.868.

44)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앞의 책, p.868.

45) [清]阮元校刻, 앞의 책, p.3664.

46)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앞의 책, p.868.

(16) 【螞蚱】 蝗蟲.(메뚜기.)<sup>48)</sup>

螞蚱에 대해서는 앞 장의 마지막 단락을 참고할 수 있다. 상술한 16개 항 중 馬나 螞는 모두 동물 ‘말’과는 무관하고 기본적으로 ‘크다’의 의미를 가진다.

『한어대사전』(2011)에 ‘마(馬/螞)’가 단어의 처음절에 쓰이면서 ‘크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총 53개이다.

(17) 【馬大頭】 一種大蜻蜓.(왕잠자리의 일종.)<sup>49)</sup>

寇宗奭의 『本草衍義』에서 蜻蛉 중 가장 큰 것을 馬大頭라 한다고 기록하였다.

(18) 【馬杌】 坐具. 大方凳.(걸상. 등받이 없는 사각형 의자.)<sup>50)</sup>

(19) 【馬盂】 大型的盂.(대형 사발.)<sup>51)</sup>

(20) 【馬門】 船上艙房的門.(배 안 선실의 문.)<sup>52)</sup>

馬門에선 ‘크다’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말’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馬는 ‘크다’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續資治通鑒·宋高宗紹興三十一年』에 따르면 “義問이 큰 배를 타고 두 명의 호위에게 병기를 들고 馬門 좌우에 서 있도록 하고 鎮江까지 나아갔다(義問乘大舟, 以二校執器械, 立馬門左右, 至鎮江)”라는 기술이 있다. 이 문헌 자료를 통해 馬門은 ‘큰 배’의 선실문임을 알 수 있다.

(21) 【馬荔】 【馬蓮】 馬蘭. 53)

47) [清]孫錦標, 『通俗常言疏證』, 北京: 中華書局, 2000, p.680.

48)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앞의 책, p.868.

49)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61.

50)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860.

51)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69.

52)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71.

앞의 항목(8) 【馬蘭】을 참고할 수 있다.

- (22) 【馬哈】 直角大羚羊.(직각뿔 큰 영양.)<sup>54)</sup>
- (23) 【馬哈魚】 即大馬哈魚.(큰 마하어. 연어의 일종.)<sup>55)</sup>
- (24) 【馬莧】 【馬鈴菜】 【馬蛇菜】 馬齒莧. <sup>56)</sup>

앞의 항목(3) 【馬齒莧】을 참고할 수 있다.

- (25) 【馬匙】 大湯匙.(큰 숟가락.)<sup>57)</sup>
- (26) 【馬蚊】 【馬軸】 【馬蟻】 【馬蠟】 【馬鑄】 馬陸.(노래기.)<sup>58)</sup>

앞의 항목(9) 【馬陸】을 참고할 수 있다.

- (27) 【馬船】 大船, 官船.(큰 배, 관선.)<sup>59)</sup>
- (28) 【馬棗】 方言, 大棗.(방언. 큰 대추.)<sup>60)</sup>
- (29) 【馬蛭】 【馬蟻】 【馬蝗】 【螞蝗】 【馬蟻】 【螞蟻】 【馬螿】 【螞蚱】 大水蛭.(말거머리.)<sup>61)</sup>
- (30) 【馬鬣】 車前草.(질경이.)<sup>62)</sup>

郭璞의 『爾雅註』에서 車前草에 대해 “大葉長穗”라고 설명하였다.<sup>63)</sup>

---

53)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71.  
 54)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72.  
 55)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72.  
 56)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73.  
 57)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77.  
 58)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77.  
 59)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77.  
 60)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79.  
 61)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79.  
 62)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79.  
 63) [清]阮元校刻, 앞의 책, 2009, p.5720.

(31) 【馬猴】猕猴.(원숭이.)<sup>64)</sup>

굴대균의 『廣東新語·獸語·猴』에서 瓊州(오늘 海南省)에 원숭이가 많은데 작은 것은 拳猴라고 부르고 큰 것은 獼猴나 母猴라 불렀는데 여기서 母는 암컷을 의미하지 않고 오직 母의 음을 차용하여 훗날 馬자로 변했다고 설명하였다. 마치 蠶(갈치) 중 馬蠶, 蚩(개미) 중 馬蚩, 薊(영경귀) 중 馬薊, 藍(쪽) 중 馬藍이 있는 것과 같이 동류 중 특히 큰 것을 부를 때 馬를 붙여 조어한다.<sup>65)</sup>

(32) 【馬道】通車馬的大路.(차와 말이 다니는 대로.)<sup>66)</sup>

(33) 【馬棟子】 【馬蘭】蠡實的別名.(타래붓꽃. 蠡實의 별칭.)<sup>67)</sup>

郝懿行的 『爾雅義疏』에서 “馬蘭子是 苢(염교)와 같이 길고 두툼하다.”<sup>68)</sup>

(34) 【馬蜂】 【馬蟻】 【螞蜂】胡蜂的通稱.(호봉의 통칭.)<sup>69)</sup>

앞의 항목(4) 【馬蜂】을 참고할 수 있다.

(35) 【馬螻蛄】 【馬蝸】蟬的一種.(매미의 일종.)<sup>70)</sup>

郭璞의 『爾雅註』에서 “매미 가운데 가장 큰 것을 馬蝸라 한다 (蝸中最大者爲馬蝸)”라는 기술이 있다.<sup>71)</sup>

64)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80.

65) [清]屈大均, 앞의 책, p.716.

66)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80.

67)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81.

68) [清]阮元校刻, 앞의 책, p.3551.

69)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81.

70)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81.

71) 華學誠, 『揚雄方言校釋匯證』, 北京: 中華書局, 2006, p.716.

(36) 【馬殿】大殿.(대전.)<sup>72)</sup>

청대 李廣庭의 『鄉言解頤·地部·寺觀』에서 文昌閣의 大殿을 馬殿이라 불렀다.<sup>73)</sup>

(37) 【馬蓼】又稱大蓼.(개여뀌, 大蓼 라고도 한다.)<sup>74)</sup>

(38) 【馬熊】熊的一種, 也稱棕熊或羆, 通稱人熊, 身體大, 肩部隆起, 毛色一般爲棕褐色.(곰의 일종. 불곰 혹은 黑(큰 곰)라고도 하며 人熊이라 통칭한다. 몸집이 크고 어깨가 솟아 있으며 털빛이 보통 갈색을 띤다.)<sup>75)</sup>

(39) 【馬薊】大薊的別名.(영경귀, 大薊의 별칭.)<sup>76)</sup>

(40) 【馬薪蒿】牡蒿.(제비쑥.)<sup>77)</sup>

三國·吳 陸璣의 『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서 牡蒿은 끝이 뾰족하고 길며 馬薪蒿라고도 부른다고 기록하였다.<sup>78)</sup>

(41) 【馬螻】螞蟻.(개미.)<sup>79)</sup>

앞의 항목(15) 【螞蟻】을 참고할 수 있다.

(42) 【馬藍頭】馬藍.(마람.)<sup>80)</sup>

앞의 항목(7) 【馬藍】을 참고할 수 있다.

72)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83.

73)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83.

74)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83.

75)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84.

76)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86.

77)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86.

78)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86.

79)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86.

80)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88.

(43) 【馬藻】水草名.(수초 이름.)<sup>81)</sup>

명대 毛晉의 『毛詩草木鳥獸蟲魚廣要·於以採藻』에서 馬藻는 부평초의 일종인데 회화나무 잎처럼 생겼고 서로 붙어서 생장하는 藻류 수초라 설명했다.<sup>82)</sup> 馬藻의 馬자는 이 식물이 붙어서 생장하므로 그 면적이 떨어져서 자라는 부평초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44) 【馬爵】駝鳥.(타조)<sup>83)</sup>

송대 樂史의 『太平寰宇記』에서 “大馬爵은 긴 목이 가슴까지 닿으며, 발굽은 낙타와 비슷하고 창백하고, 키는 8~9척에 달하며 날개를 펼치면 3미터는 족히 넘고 보리를 먹는다(有大馬爵, 頸及膺身, 蹄似橐駝, 色蒼, 舉頭高八九尺, 張翅丈餘, 食大麥)”라고<sup>84)</sup> 타조의 커다란 모습을 설명하였다.

(45) 【馬檳榔】何首烏.(하수오)<sup>85)</sup>

명대 徐弘祖의 『徐霞客遊記·粵西遊日記三』에 粵西(오늘 廣西)지방의 사람들이 馬檳榔을 檳榔(열대지역의 일종 간식)을 대신 손님 접대에 썼다는 기록이 있다.<sup>86)</sup> 하수오의 괴근은 檳榔보다 더 비대하기 때문에 馬檳榔이라 부른다.

(46) 【馬蟬】大知了.(큰 매미)<sup>87)</sup>

(47) 【馬蕪】野菜名…也稱牛蕪, 野茴香.(들풀의 명칭…牛蕪, 野茴香이라고도 부른다.)<sup>88)</sup>

81)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89.

82)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89.

83)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89.

84) [宋]樂史, 『太平寰宇記』, 北京: 中華書局, 2007, p.3520.

85)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90.

86)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90.

87)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90.

『本草綱目·菜一·馬蕪』에서 사물 중 큰 것에는 마를 붙여 명명했는데 이 풀은 미나리(芹=蕪)와 비슷하고 크기 때문에 馬蕪라 명명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sup>89)</sup>

(48) 【馬蠅】 昆蟲名. 成蟲比一般的蠅大.(곤충 명칭. 성충은 보통 파리보다 크다.)<sup>90)</sup>

(49) 【馬蟻】 【螞蟻】 大蟻. 後爲蟻的通稱.(왕개미. 훗날 蟻의 통칭이 되었다.)<sup>91)</sup>

(50) 【螞螂】 蜻蜓的一種.(잡자리의 일종.)<sup>92)</sup>

여기에선 ‘크다’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왕잡자리’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 아래의 산동 방언 중의 항목(52) 【馬蜻蜓/螞蜻蜓】을 참고할 수 있다.

『漢語大詞典』에서 검색한 이 53개의 단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馬나 螞가 ‘크다’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馬大頭, 馬盂, 馬匙, 馬蟬’등과 같은 단어에 대한 해석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둘째, ‘크다’의 의미를 나타낼 때 馬와 螞는 ‘馬蟻-螞蟻’, ‘馬螞-螞螞’과 같이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4. 산동 방언 중에 ‘馬’의 의미

馬路는 명청 시대부터 북방 관화에서 흔히 쓰였던 단어이다. 북방 관화는 山東과 直隸(지금의 河北 지역) 등과 같은 북방 방언의 어휘를 많이 흡수했으므로 이들 방언에 대한 연구는 곧 북방 관화 어휘의 용례 및 그 성립 과정을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馬路는 『左傳』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 책의

88)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90.

89) [明]李時珍, 위의 책, p.1098.

90)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90.

91)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17590.

92) 漢語大詞典編寫組, 앞의 책, p.860.

저자인 左丘明은 山東 지방인 魯나라 출신이다. 따라서 馬가 ‘크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은 방언 자료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방언은 옛날부터 계승되어 내려오는 것이므로 본 장에서는 山東 방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山東方言誌叢書』<sup>93)</sup>에 나오는 단어를 살펴보자.

(51) 【螞耐子】牛虻.(등에.)<sup>94)</sup>

牛虻은 등에류 중에 중대형을 가리키는데 『本草綱目·蟲三·木虻』에서 “牛虻大如蠅, 齧牛馬亦猛”라는 설명도 있다.<sup>95)</sup>

(52) 【馬蜻蜓】 【螞蜻蜓】 一種體大色綠的蜻蜓.(몸집이 큰 녹색 잠자리.)<sup>96)</sup>

(53) 【螞拉钻】<sup>97)</sup> 【螞條】<sup>98)</sup> 【螞各別】 【螞各得】<sup>99)</sup> 【馬螿】<sup>100)</sup>水蛭.(거머리.)

앞의 항목(1) 【馬螿】을 참고할 수 있다.

(54) 【馬狗兒蛭】 【馬蛭】<sup>101)</sup> 螞蟥.(말거머리.)

『爾雅翼』에서 말거머리 중에 큰 것은 馬蛭이나 馬螿라고도 부른다고 기술했

93) 『山東方言誌叢書』는 중국 山東대학교 錢曾怡 교수가 편집한 총서다. 이 총서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이미 利津, 即墨, 德州, 平度, 牟平, 濰坊, 淄川, 榮成, 壽光, 聊城, 新泰, 沂水, 金鄉, 諸城, 寧津, 臨沂, 萊州, 汶上, 定陶, 鄒城, 沂南, 章丘, 蒼山, 甯陽 등 24종의 방언지를 완성하여 출판하였다.

94) 王淑霞, 『榮成方言誌』, 北京: 語文出版社, 1995, p.151.

95) [明]李時珍, 『本草綱目(新校註本)』, 北京: 華夏出版社, 2008, p.1552.

96) 王淑霞, 위의 책, p.151.

97) 王淑霞, 위의 책, p.151.

98) 羅福騰, 『牟平方言誌』, 北京: 語文出版社, 1992, p.116.

99) 王曉軍·田家成·馬春時, 위의 책, p.175.

100) 王淑霞·張豔華, 『定陶方言誌』,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2005, p.148.

101) 錢曾怡·太田齋·陳洪昕·楊秋澤, 위의 책, p.126-127.

다.<sup>102)</sup>

(55) 【馬蓮】<sup>103)</sup> 【馬蓮韭】<sup>104)</sup> 馬蘭.(마린.)

앞의 항목(8) 【馬蘭】을 참고할 수 있다.

(56) 【馬蘭】 馬蘭花.(마란화.)<sup>105)</sup>

앞의 항목(6) 【馬蘭】을 참고할 수 있다.

(57) 【螞蚱鞍子】 春天多見的一種蝗蟲，翅小，身大，不會飛.(봄철 자주 보이는 황충으로 날개가 작고 몸집이 크며 날지 못한다.)<sup>106)</sup>

(58) 【馬蚰蜒】 百足蟲.(백족충.)<sup>107)</sup>

(59) 【馬蜂子】 馬蜂.(마봉.)<sup>108)</sup>

앞의 항목(4) 【馬蜂】을 참고할 수 있다.

(60) 【馬蟻蚌】<sup>109)</sup> 【螞蟻蚌】<sup>110)</sup> 大的螞蟻.(큰 개미.)

송대 吳淑의 『事類賦註』에서는 齊나라 사람은 작은 개미를 蟻蚌이라 부른다고 하였고<sup>111)</sup> 郝懿行的 『爾雅義疏』에 따르면 왕개미를 虻蚱, 馬虻蚱, 馬蟻 등

102) [漢]劉向編著 石光瑛校釋, 『新序校釋』, 北京: 中華書局, 2009, p.560.

103) 錢曾怡·太田齋·陳洪昕·楊秋澤, 앞의 책, p.116.

104) 王淑霞·張豔華, 앞의 책, p.155.

105) 王淑霞, 앞의 책, p.155.

106) 高曉虹, 『章丘方言誌』, 濟南: 齊魯書社, 2011, p.212.

107) 高曉虹, 위의 책, p.213.

108) 高曉虹, 위의 책, p.213.

109) 高曉虹, 위의 책, p.214.

110) 錢曾怡·曹志耘·羅福騰, 『諸城方言誌』,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002, p.175.

111) [宋]吳淑, 『事類賦註』, 北京: 中華書局, 1989, p.585.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며 栖霞(故 齊나라 지역) 사람은 馬蟻蚌이라고도 부른다고 설명했다.<sup>112)</sup>

(61) 【螞兒螞兒】 蜘蛛.(거미.)<sup>113)</sup>

여기에선 ‘크다’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몸집이 큰 거미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

(62) 【馬蛇子】<sup>114)</sup> 【馬車子】<sup>115)</sup> 蜥蜴.(도마뱀)

『現代漢語詞典(第7版)』에서 蜥蜴을 四脚蛇라고도 부른다고 설명했다.<sup>116)</sup> 즉 뱀의 몸에 네 개 다리가 달린 모습을 비유한 용어라 할 수 있다.

(63) 【馬踏菜】<sup>117)</sup> 【馬扎菜】<sup>118)</sup> 【螞蚱菜】<sup>119)</sup> 【馬芝菜】<sup>120)</sup> 馬齒莧.(마치현.)

고대에는 舌上音이 없었으므로 馬扎, 螞蚱, 馬芝, 馬齒와 馬踏의 독음은 서로 비슷했다. 접두사로 馬와 螞 두 글자가 쓰였는데 ‘마’자가 붙은 식물은 동물을 표시하는 馬나 곤충을 표시하는 螞와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馬踏(말이 지나간 뒤의 흔적)의 형태, 馬扎(접의자)의 형태, 螞蚱(메뚜기)의 형태, 馬牙(말의 이빨)의 형태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112) [清]阮元校刻, 앞의 책, p.3635.

113) 于克仁, 『平度方言誌』, 北京: 語文出版社, 1992, p.157.

114) 羅福騰, 『牟平方言誌』, 北京: 語文出版社, 1992, p.114.

115) 錢曾怡·太田齋·陳洪昕·楊秋澤, 『萊州方言誌』, 濟南: 齊魯書社, 2005, p.124.

116)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앞의 책, p.1402.

117) 王淑霞, 『榮成方言誌』, 北京: 語文出版社, 1995, p.155.

118) 錢曾怡·太田齋·陳洪昕·楊秋澤, 앞의 책, p.112.

119) 于克仁, 앞의 책, p.164.

120) 王曉軍·田家成·馬春時, 『蒼山方言誌』, 濟南: 齊魯書社, 2012, p.163.

(64) 【馬虎棗兒】地榆.(오이풀.)<sup>121)</sup>

『본초강목』에서는 오이풀의 잎이 느릅나무(榆)처럼 길고 자랄 때 땅(地)을 덮는다고 기록해 놓았다.<sup>122)</sup> 地榆는 지면에서 널브러지게 자란 느릅나무의 모습을 참고하여 지은 이름이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오이풀의 잎이 대추나무와 비슷하나 그보다 더 큰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큰 대추나무’의 뜻인 馬虎棗兒라는 명칭을 붙였다. 馬虎棗, 馬胡棗, 馬猴棗 등의 명칭도 있는데 여기에 쓰인 ‘虎, 胡, 猴’ 등과 같은 글자는 발음이 서로 비슷하며 棗(대추)의 어떤 종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5) 【馬杌子】一種高大的長凳.(높고 큰 긴 걸상.)<sup>123)</sup>

명대 黃一正의 『事物紺珠』에 馬杌이라는 단어가 수록되어 있는데 네모진 모양의 큰 걸상을 馬杌子라 부른다고 기록했다.<sup>124)</sup>

(66) 【齊馬婆】土元的成蟲.(토원의 성충.)<sup>125)</sup>

土元은 土蠶(땅자리벌레)이라고도 하는데 馬(말)과 무관하다. 馬를 이용해 체형이 일반 곤충보다 큰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단어는 馬가 ‘크다’의 의미를 나타내면서도 접두사 자리에 쓰이지 않은 유일한 사례이다.

(67) 【馬虎】<sup>126)</sup> 【馮虎】<sup>127)</sup>狼.(이리.)

121) 于克仁, 앞의 책, p.164.

122) 黎翔鳳, 『管子校註』, 北京: 中華書局, 2004, p.1119.

123) 邵燕梅·劉長鋒·邵明武, 『沂南方言誌』, 濟南: 齊魯書社, 2010, p.133.

124) [清]孫錦標, 앞의 책, p.637.

125) 孟慶泰·羅福騰, 『淄川方言誌』, 北京: 語文出版社, 1994, p.131.

126) 于克仁, 앞의 책, p.156.

127) 孟慶泰·羅福騰, 위의 책, p.132.

이리는 생김새가 말과 다른데도 馬를 접두사로 이용해 몸집이 크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개사슴록변의 獠는 馬의 同音·同義·異形 접두사로 짐승류를 표시할 때에 교체해서 쓸 수 있다.

(68) 【馬車】大車子.(큰 차.)<sup>128)</sup>

말이 끄는 차를 현지에서 馬拉車나 拉馬車로 불렀으며 馬車라고 부르지 않았다.

(69) 【馬猴】蟬.(매미.)<sup>129)</sup>

‘큰 매미’의 뜻으로 앞의 항목(46) 【馬蟬】 뜻인 大知了와 같다.

(70) 【馬蒼蠅】灰色的大蒼蠅.(회색의 왕파리.)<sup>130)</sup>

위에 든 33개의 산동 방언의 예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馬, 螞, 獠’ 3개의 ‘마’자는 부수와 상관없이 모두 ‘크다’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馬蜻蜓, 螞蜻蜓, 馬螞蟻, 螞螞蟻 등 4개의 단어에서는 ‘크다’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난다. 둘째, ‘크다’의 의미를 나타낼 때, 馬와 螞/獠는 호환이 가능하다. ‘馬蜻蜓-螞蜻蜓’, ‘馬扎菜-螞炸菜’, ‘馬虎-獠虎’가 그 예이다.

자료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고대 언어 환경에서 馬路는 ‘말’과 무관하며 馬가 ‘크다’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馬路는 大路를 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5. ‘크다’의 의미로서의 ‘馬’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농경을 위주로 하였으며 목축업이 고대 사회 경제에

128) 王淑霞·張豔華, 앞의 책, p.99.

129) 王淑霞, 앞의 책, p.151.

130) 邵燕梅·劉長鋒·邵明武, 앞의 책, p.122.

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대 목축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자료는 당연히 六畜일 것이다. 『左傳·昭公二十五年』에서는 “예속을 위해 육축과 三犧(기러기·오리·꿩)로 五味(신맛·쓴맛·단맛·매운맛·짠맛)를 봉행했다(爲禮以奉之, 爲六畜三犧, 以奉五味)”고 설명했다. 杜預는 육축을 ‘馬(말), 牛(소), 羊(양), 雞(닭), 犬(개), 豕(돈)’라고 해석했다.<sup>131)</sup> 『三字經』에도 육축 관련 기록이 있는데 “馬牛羊, 雞犬豕, 此六畜, 人所飼”라고 하였다. 유교 경전이든 계몽 교재이든 모두 馬를 육축의 으뜸으로 분류하고 있다.

郭錦桴의 통계에 따르면 『爾雅·釋畜』에는 육축과 관련한 명칭이 다수 출현하는데 그중 馬를 가리키는 고유 명칭이 51개, 牛가 18개, 羊이 11개, 雞가 6개, 犬이 10개, 豬가 13개이다.<sup>132)</sup> 蔣紹愚는 『周易』에서 乾卦는 龍을 사용하였고 坤卦는 馬를 사용했다고 하였다. 『周易·坤』에서는 “암말이 대지 위를 무한히 내달린다(牝馬地類, 行地無疆)”고 하였다. 『周易集解』에서는 “干寶가 말하길 하늘에서 행하는 者는 용(龍) 밖에 다 못하고 땅에서 행하는 者는 말(馬) 밖에 다 못하니 乾은 용으로 상징하고 坤은 말로 상징한다(干寶曰: 行天者莫若龍, 行地者莫若馬, 故乾以龍繇, 坤以馬象也)”고 기술했다. 동시에 고대에는 말을 보물로 여겼다. 『左傳·僖公二年』에서는 “쫓나라의 荀息이 屈産의 말과 垂棘의 보옥을 虞나라에 바치면서 虢나라를 정벌하도록 길을 내달라고 요청하였다. 僖公이 우리의 보물이라고 말했다(晉荀息請以屈産之乘與垂棘之璧, 假道於虞以伐虢. 公曰是吾寶也)”고 기술했다.<sup>133)</sup> 이상의 사실은 중국 전통 사회에서 말이 대체할 수 없는 높은 위상과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馬는 육축의 으뜸으로 체형이 크고 인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고대 중국 사회에서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馬로부터 ‘크다’의 의미가 유래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131) [清]阮元校刻, 앞의 책, p.4577.

132) 郭錦桴, 『漢語與中國傳統文化』, 北京: 商務印書館, 2010, p.12.

133) 蔣紹愚, 『漢語歷史詞彙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2015, p.435.

## 6. 결론

중국어에서 馬路는 명청시기부터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단어이다. 단어의 의미나 역사적 기원에서 보았을 때 馬路의 馬는 흔히 짐승의 한 종류인 ‘말’을 뜻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馬가 본래의 뜻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확장된 의미로도 사용되었으며, 馬路의 馬 역시 그 확장된 뜻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馬路의 어원과 관련하여, ‘차로’와 동의어라는 견해, ‘마차길’의 약칭이라는 견해, 그리고 ‘머캐넘도로’라는 외래어를 약칭하여 쓴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자료 분석을 통해 馬路는 고대부터 존재한 고유어이고, 말이 달리는 도로만을 뜻하는 단어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馬는 ‘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따라서 馬路는 ‘큰 길’을 의미한다.

둘째, 『說文解字』와 같은 전통 사전에서 馬의 의미를 ‘말’ 한 가지로 풀이해 놓은 것과 달리 『現代漢語詞典』에서는 세 가지 의미, 즉 ‘말’, ‘크다’, ‘성씨’로 설명하고 있는데, 馬로 시작하는 단어 101개 가운데 馬가 ‘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총 16개이다. 이 사실은 현대 중국어에서 馬의 확장된 의미가 널리 쓰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크다’라는 의미로서의 馬는 현대 중국어 어휘뿐만 아니라 산둥 방언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북방 방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馬路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문헌은 山東 지역 출신인 左丘明이 지은 『左傳』으로, 이 사실을 통해 馬의 확장된 의미가 화북 지역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馬가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문화적인 근거가 있다. 고대 중국의 농경 사회에서 말은 이른바 六畜 가운데 으뜸으로 몸집이 가장 큰 짐승으로, 고대 사회의 생산 활동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馬의 의미가 ‘크다’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馬의 의미가 ‘크다’로 확장된 이후, 고대 중국어의 ‘음이 비슷하면 뜻도 통한다(音近義通)’는 원칙에 따라 馬에서 음을 따온 다른 글자들도 ‘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螞蟻, 螞蜂, 螞蚱, 螞蟻’의 螞, 그리고 ‘獠虎’의 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 참고문헌

### 1. 자료

- [漢]劉向編著 石光瑛校釋, 『新序校釋』, 北京: 中華書局, 2009.  
 [漢]許慎,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963.  
 [北魏]賈思勰著 石聲漢校釋, 『齊民要術今釋』, 北京: 中華書局, 2009.  
 [宋]樂史, 『太平寰宇記』, 北京: 中華書局, 2007.  
 [宋]吳淑, 『事類賦註』, 北京: 中華書局, 1989.  
 [宋]李心傳, 『建炎以來繫年要錄』, 北京: 中華書局, 1988.  
 [明]李時珍, 『本草綱目(新校註本)』, 北京: 華夏出版社, 2008.  
 [明]陳洪謨修 周瑛纂, 『大明漳州府誌』, 北京: 中華書局, 2012.  
 [清]屈大均, 『廣東新語』, 北京: 中華書局, 1985.  
 [清]段玉裁, 『說文解字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清]徐珂, 『清稗類鈔』, 北京: 中華書局, 2010.  
 [清]孫錦標, 『通俗常言疏證』, 北京: 中華書局, 2000.  
 [清]阮元校刻, 『十三經註疏』, 北京: 中華書局, 2009.  
 [清]張楷, 『安慶府誌』, 北京: 中華書局, 2009.

### 2. 단행본

- 高曉虹, 『章丘方言誌』, 濟南: 齊魯書社, 2011.  
 郭錦桴, 『漢語與中國傳統文化』, 北京: 商務印書館, 2010.  
 羅福騰, 『牟平方言誌』, 北京: 語文出版社, 1992.  
 孟慶泰·羅福騰, 『淄川方言誌』, 北京: 語文出版社, 1994.  
 邵燕梅·劉長鋒·邵明武, 『沂南方言誌』, 濟南: 齊魯書社, 2010.  
 于克仁, 『平度方言誌』, 北京: 語文出版社, 1992.  
 王艾錄, 『漢語理據詞典』, 北京: 華齡出版社, 2006.  
 王淑霞, 『榮成方言誌』, 北京: 語文出版社, 1995.  
 王淑霞·張豔華, 『定陶方言誌』, 長春: 時代文藝出版社, 2005.  
 王曉軍·田家成·馬春時, 『蒼山方言誌』, 濟南: 齊魯書社, 2012.  
 黎翔鳳, 『管子校註』, 北京: 中華書局, 2004.  
 蔣紹愚, 『漢語歷史詞彙學概要』, 北京: 商務印書館, 2015.

錢曾怡·曹志耘·羅福騰, 『諸城方言誌』,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002.  
 錢曾怡·太田齋·陳洪昕·楊秋澤, 『萊州方言誌』, 濟南: 齊魯書社, 2005.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7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6.  
 漢語大詞典編寫組, 『漢語大詞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1.  
 華學誠, 『揚雄方言校釋匯證』, 北京: 中華書局, 2006.

### 3. 논문

仝小琳, 「“馬路”語源新探」, 『商丘師範學院學報』, 第8期, 2011, p.104-106.  
 謝晨暉, 「“馬路”語源再考」, 『漢字文化』, 第5期, 2024, p.134-136.  
 聶小麗, 「“馬路”與“公路”」, 『語文建設』, 第9期, 2001, p.39.  
 倪陪森, 「“馬路”語源探微」, 『語文月刊』, 第Z2期, 2002, p.47.  
 劉志基, 「馬年說“馬路”」, 『咬文嚼字』, 第6期, 2002, p.24-25.

논문접수일	2024년 7월 31일
심사완료일	2024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9일

*Abstract*

## The Motivation for the Word Formation of “Mǎlù(馬路)”

Cai, Nan · Lim, Dayong

The word “mǎlù(馬路)” has existed since ancient times. There are three opinions about its etymology: (1) “mǎlù(馬路)”, named in honor of the English man – John McAdam, is a word coming from foreign countries; (2) “mǎlù(馬路)” means lane. In ancient times, “carriages” and “horses” were actually the same thing. “Horses”, as ancient means of transportation, were always associated with “carriages”. “Lanes” equals “the road for running horses”; (3) “mǎlù(馬路)” means road for horses, is just a compound word in attributive structure. However, all of the opinions cannot be justified. In ancient Chinese and modern Chinese (which includes dialect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words with the structure of “mǎ(馬)×” and “mǎ(馬)××”. After analyzing the meanings of these words in philological ways, we found that: (1) the word “mǎ(馬)” does not mean “horse”, but rather means “big”; (2) When expressing the meaning of “big”, “mǎ(馬)” and “mǎ(螞)” can sometimes be interchanged. In short, “mǎlù(馬路)” means big road, not road for horses. The article points out that in ancient times, horses, with the largest body size and closely related to human life, ranked first among the six livestock. Horses played a crucial role in ancient social life and held an irreplaceable and noble posi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and not surprising to derive the meaning of “big” from “horse”.

**Keyword** mǎlù(馬路), motivation for word formation, mǎ(馬)-, mǎ(螞)-, prefix



# 키워드 네트워크(Keyword Network)를 활용한 임시정부 시기 독립운동과 중국 연구 동향 비교 분석\*

-CNKI와 RISS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이유정\*\* · 조운재\*\*\*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Keyword Network)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임시정부 시기 독립운동과 중국 관련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 학술 아카이브(CNKI)와 한국 학술 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조선 독립운동' 및 '중국'의 키워드 조합으로 학술논문을 검색 수집하고, 4단계로 구분하여 질적, 양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학계는 한류의 단계적 변환에 따라 관련 연구 논문의 양적 변화를 보인 반면, 한국 학계는 중국과 상이한 현상을 표출하였다. 한중 양국 학계의 관련 연구의 공통점은 첫째, 신문 기사 등 자료를 기반으로 임시정부와 주요 인물의 정치, 외교 활동 관련에 치중된 연구 경향을 보였다. 둘째, 중국 동북 지역에서 활동한 한인 독립운동단체 관련 연구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차이점은 한국 학계는 한인 단체가 발행한 신문잡지, 중국 檔案 등 자료 기반의 독립운동 활동을 개괄하는 연구 경향을 보이면서, 실증 자료의 수집·발굴·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중국 학계는 초기 중국 국민정부와 주요 인물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을 강조하였으며, 한국 독립운동가의 '이중적 사명' 실천을 노정, 고찰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학계의 경우, 냉각기인 4단계 시기 논문 출판이 감소하였지만, 연구 주제가 다각화된 점이다. 기존 연구 경향 분석에서 중국 학계의 독립운동 연구는 중국 공산당의 지원, 연합 관점에 집중되었다고 하였으나, 2017년 이후 학술논문은 한국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의 문화 활동 관련 연구가 많았다. 이는 한국 학계에서 고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연구 경향이 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임시정부 시기, 독립운동, 연대와 지원, 자료 발굴, 문화 활동 연구

\* 본 논문은 2024년도 고려대학교 문화스포츠대학 교내 지원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1저자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연구교수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 〈목차〉

1. 서론
2.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3. 한중 학계의 연구 동향 비교 분석
  - 1) 시기별 한중 학술논문 발행 현황
  - 2) 단어빈도와 TF-IDF 키워드 속성으로 본 연구 동향 비교
  - 3) 주요 키워드의 CONCOR 주제 군집 분석
4. 결론

## 1. 서론

한국과 중국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서구 열강과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야기된 혼란과 고통이 점철된 역사적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 1945년 이후에는 한반도 남북 독립 정부 수립과 중국의 사회주의 신중국 성립으로 각각 다른 이데올로기 체제 국가로 세계 냉전 정세에서 교류의 단절을 경험하였다. 이후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관계가 정상화되었지만,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다시 냉각기와 같은 굴곡과 부침의 관계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근대 시기 한중 양국의 교류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맞서는 ‘항일’과 조선의 ‘독립’을 향해 ‘제국에서 민국으로’의 지난한 역사를 본격적으로 함께 하였다. 한국은 3·1운동 이후 국민 주권과 독립의 열망을 가지고 상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일본 패망 전까지 27년간 중국에서 국가 정부를 운영 유지하였다.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 손문(孫文)을 중심으로 국민 주권의 정부를 수립하였으나, 군벌정부의 난립과 일본제국주의의 본격적인 침략, 국공 합작, 국공 내전 등 혼란의 근대를 건너고 있었다. 한국의 임시정부 시기는 중국의 항일투쟁 역사와 시간적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한국의 항일 독립운동은 주로 중국이라는 지리적 무대에서 중국의 연대와 지원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성을 갖고 있다.

임시정부 시기는 3·1운동 이후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부터 일본이 패망한 1945년까지 기간을 말한다. 임시정부 시기 한국 독립

운동가는 중국에서 민족주의, 공화주의, 사회주의 등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지면서도 조국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합종연횡의 애국 활동을 하였다. 일본 패망 즈음 충칭(重慶)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 소련, 영국 등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패전국 일본 처리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향후 방향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임시정부 인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북한 통일 정부 수립을 지지하였으나, 중국 국내 혼란 정국으로 인해 관철 시키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후 한국은 국제 신탁통치 후 남북한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하였고, 중국은 국공(国共)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신중국(新中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후 한중 양국은 세계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시공간적으로 단절된 시대로 침잠하였다.

본 연구는 하나의 목표로 연합하였던 임시정부 시절의 ‘과거’ 역사에 대해 ‘단절’과 ‘교류’의 사회적 경험을 가진 한중 양국 연구자의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시대 연구자들에게 기존 한중 양국 관련 연구를 성찰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격동의 근대사에서 한중 양국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항일’과 ‘독립’의 목표로 단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시기 한중 관계 연구를 미시적으로 조망하기 위하여 ‘조선 독립운동’과 ‘중국’ 키워드를 조합하여 중국 최대 학술 아카이브 CNKI(中国知网)와 한국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관련 주제 학술 문헌을 수집하고, 선정한 키워드로 검색된 학술논문의 초록을 분석하여 한중 양국 학계의 연구 동향을 파악할 것이다.

##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 1) 선행 연구

이 연구는 임시정부 시기 독립운동과 중국 관련 한중 양국 학계의 연구 동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최근 학계에는 미시적인 연구에 앞서 특정 키워드를 통해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사회적 관심사를 특정 키워드로 수렴하여 학술적 연구 가치와 연구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

다. 기존 축적된 방대한 학술 업적을 논리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고, 또 그 해석에 대해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어 분석의 한계도 지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활용함으로써 자료 선별의 객관성 제고와 생성된 학술 업적의 최대 수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합리적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관련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한중 양국 학계의 임시정부 시기 독립운동과 중국 관련 연구 동향과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 동향 분석이다.

중국 학계의 관련 연구 동향을 보면, 왕건평(王建宏)(2023)은 한국독립운동사 주제로 1992년~2021년 사이 중국 학계의 관련 단독 저서, 학술논문을 개괄하였다.<sup>1)</sup> 그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주요 대학에 연구 중심이 형성되었고, 한국 전문 학술지가 출간, 주요 연구자를 개괄하였다. 중국 학계의 관심을 임시정부, 한국 독립운동과 중국 공산당, 한인교포 등 주제별 요목을 분류하고 연구 요지를 기술하는 질적 연구의 방식을 취하였다. 최근 학자의 세대교체, 한중 관계 파동으로 인해 관심과 양적 감소의 조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키워드로 학술논문을 수집한 결과, 양적 감소 경향은 이전 시기와 타 분야에 비해 뚜렷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연구 주제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 이는 아래 분석 결과에서 보충할 것이다.

김태국(2021)은 중국 내 한국학의 일부로서 한국사 특히 한국독립운동사 관련 연구 동향을 개괄하였다.<sup>2)</sup> 2016~2019년에 출판된 한중 양국의 공동 항일의 역사 관련 대표 논문을 연구 분야, 시각과 관점, 주장과 결론을 임시정부, 한중

- 
- 1) 왕건평(王建宏)은 같은 주제의 논문을 한중 양국 학계에 발표하였다. 王建宏, 「30년간 중국 학계의 한국독립운동사 연구(1992~2021)」, 『한국 근현대사 연구』 제105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23; 王建宏, 「中国学界韩国独立运动史研究」, 『当代韩国』第1期, 2022.
  - 2) 김태국, 「중국 학계의 한국독립운동사 연구동향과 전망(2016~2019)」,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73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1.

공동항일노선, 중국 언론에 비쳐진 한국 독립운동, 중국 공산당과 독립운동 등 주제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거시적으로 연구 경향을 분류하였으나, 최근 3년간 출판된 논문(학위 논문 포함)의 연구 경향은 이전 시기와 대비가 부족하여 거시적인 연구 주제와 동향의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齐晓峰·尹圣媛(2019)은 중국에서 한국 학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구 동향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sup>3)</sup> 연구에 따르면, 20년간 한국 학계의 임시정부 연구는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계승, 조직과 구조, 외교 성과에 관한 연구, 3·1운동과 임시정부 활동에 대한 중국 언론보도 등의 연구가 많았고, 여성 독립운동과 해외 교민 사회 연구 등 임시정부를 둘러싼 독립운동 단체와 개별 인물 연구로 확대되었다. 이 연구는 중국 학계에 처음으로 한국 학계의 임시정부 관련 연구 동향을 거시적으로 분석해서 소개한 것에는 의의가 있으나, 앞서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임의로 주제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대표적인 논문만 언급하였고, 시기별 연구 주제의 변화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밖에 한중 양국 학계에서는 상호 연관된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문이 꾸준히 출판되고 있다.<sup>4)</sup>

---

3) 齐晓峰·尹圣媛, 「近二十年韩国学界大韩民国临时政府研究的特点和动向」, 『当代韩国』 第2期, 2019.

4)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주제 관련 미시적 연구 뿐 아니라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문학, 어학 분야에서 양국 학계의 연구 동향 분석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언어 한계로 인하여 한국어를 이해하는 중국 연구자가 한국의 방대한 연구 업적을 모두 다루기 보다는 주제 카테고리를 나누고 대표적인 논문을 소개하는 형식이 많았다. 中国知网(CNKI)에서 한국학계의 연구동향에 관한 학술논문은 125편으로 安洙英·姜伊威, 「从“东洋史”到“东亚史”—韩国学界近三十年的历史叙事反思」, 『史学理论研究』 第5期, 2021; 侯冠宇·朴美杰, 「侧看为峰: 近20年韩国学界对中国明代经济史研究的热点、趋势与展望」, 『中北大学学报』 第37卷 第1期, 2021 등이 있다.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학계의 연구 동향 분석은 대표 논문의 연구 관점 분석 등의 질적 연구부터 방대한 연구 업적을 양적 분석할 수 있는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활용한 연구 동향 분석으로 다양화되었다. 한국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발표된 중국 학계의 연구 동향 논문은 86편이며, 그 중 한국사 관련 연구 동향 연구는 김려화, 「중국 학계의 한국 고대 역사서 연구동향과 나아갈 방향」, 『한중인문학연구』 제83집, 한중인문학회, 2024.; 윤휘탁, 「중국 관내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과 평가」, 『만주연구』 제20집, 만주학회, 2015.; 위기야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77호, 동북아역사세

빅데이터 분석 방법의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은 방대한 비정형의 텍스트 자료를 정형화하고 패턴을 찾아내서 유의미한 정보를 발굴해 내는 분석 방법이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내용 분석의 경우, 수집 자료를 범주화 및 코딩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단어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통해 의미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연구 동향을 파악할 때, 방법론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인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학술논문에서 연구자가 사용한 단어를 알고리즘으로 토큰화(언어 단위)하고 빈도, 동시 출현, 주제 군집 등 분석 지표를 도출함으로써 전체 연구의 주제 변화 등 연구 흐름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중 양국 학계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학술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논문은 최근 한국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홍성민·이은경(2024)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국내 KCI 등재지 논문에서 ‘중국’, ‘한중’, ‘중어’ 키워드로 논문을 수집하여 한국 학계의 중국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sup>5)</sup> 분석에 따르면, 한국 학계에서는 중국 정치, 사회 관련 연구 주제, 중국 어학과 문학 관련 주제, 중국어 교육 관련 주제의 연구 논문이 활발하게 출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토픽 모델링의 분류와 실제 학계 분류와 다른 형태 제시된 점, 각 분야별 상세한 연구 주제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서상민(2017)은 중국의 한중관계 연구 동향을 중국 CNKI에서 1993년-2012년 기간 출판된 논문을 수집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sup>6)</sup> 이와 같이 빅데이터 방법인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은 학계의 특정 주제 혹은 분야의 연구 동향 분석에 유용한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단, 2022.; 김승일, 「동북공정 이후 중국 학계의 한국사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연구』 제55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0. 등이 있다.

- 5) 홍성민·이은경,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중국학계의 연구 동향 분석」, 『中國學報』第一百七輯, 한국중국학회, 2024.
- 6) 서상민, 「중국의 “한중관계” 연구동향 분석-장쩌민 시기와 후진타오 시기의 저자 키워드 연결망 비교」, 『中國學論叢』第56輯,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7.
- 7)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한중 양국 학계의 특정 주제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한 최근 논문은 김주아·민정만,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한 한중 ‘chatGPT’ 연

## 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한중 양국 학계에서 임시정부 시기 한국과 중국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임시정부 시기 한중 양국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키워드를 ‘독립운동’+‘중국’으로 설정하였다. 한국 학계의 연구는 학술 연구 정보 종합 플랫폼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플랫폼에서 논문명, 주제어, 초록에 ‘독립운동’+‘중국’ 두 개 키워드가 모두 출현하는 KCI 등재지와 학위 논문을 검색 수집하였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독립운동’+‘중국’ 두 개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조건으로 검색했을 때, 학술논문 95편, 학위 논문 총 11 편(박사 논문 2편, 석사 논문 9편)이 검색되었고, 100편을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sup>8)</sup>

같은 방식으로 중국 최대 학술 문헌 아카이브 플랫폼인 中國知網(CNKI)에서 제목, 주제어, 초록에 ‘朝鮮獨立運動’+‘中國’ 두 개 키워드가 동시 출현하는 중국 학술논문을 검색 수집하였다.<sup>9)</sup> 수집 결과, 총 533편의 학술문헌이 검색되었고, 그 중 학술회의 기록, 단독 저서를 제외한 학술논문 형식을 갖춘 문헌으로 學術期刊 190편, 學術輯刊 69편, 학위논문은 석사논문 79편, 박사논문 44편 총 382편을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 3) 연구 절차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로부터 특정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계량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sup>10)</sup> 한중 양국 학술

---

구동향-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융합연구』 제7집 제1호, 글로벌지식융합학회, 2024,가 있다.

- 8) 티베트, 동투르크스탄, 몽골 등 중국 내 민족 독립 운동과 중국 관련 논문 6편은 제외하였다.
- 9) 중국 CNKI에서 키워드 설정을 ‘獨立運動’으로 했을 때, 본 연구 주제와 관련없는 독립운동 연구 논문이 포함되어 검색되기 때문에 임시정부 시기 중국에서 사용하던 한국의 명칭인 ‘朝鮮’을 조합하여 범위를 제한하였다.
- 10) 이수상,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31권 4호, 정보관리학회, 2014, p.50.

문헌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독립운동’+‘조선’동일 키워드로 검색하고 확정된 논문은 중국 학술논문 총 382편, 한국 총 100편이다. 수집한 논문의 초록을 엑셀(Excel)에 데이터화하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텍스톰(Textom)에 업로드하여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 분석을 수행하였다. 텍스톰(Textom)을 이용해 한국 논문과 중국 논문 초록을 형태소 분석을 진행하였다. 1차 도출된 명사, 형용사, 동사 데이터를 엑셀(Excel)에서 원문과 대조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중국정부’, ‘중국국민당정부’, ‘중국국민정부’는 ‘중국국민정부’로 통제, ‘조선 용대’는 ‘조선의용대’로 교정, ‘수’, ‘이’, ‘년’등 의미 없는 불용어 제거의 2차 정제 과정을 거쳤다.<sup>11)</sup> 원문과 대조하여 누락 혹은 중첩된 단어를 대조해서 3차 대조 정제 과정을 거쳐서 최종 단어빈도, TF-IDF, N-gram의 분석 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빈도와 TF-IDF 상위 70개 단어를 키워드로 지정하여 행렬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UCINET6과 Netdraw를 이용해 중심성 분석과 CONCOR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 3. 한중 학계의 연구 동향 비교 분석

#### 1) 시기별 학술논문 발행 현황

CNKI에서 ‘조선독립운동’과 ‘중국’ 조합 키워드로 수집한 382편 학술논문의 연도별 연구 현황을 보면, 1979년 1편이 출판된 후 80년대는 학술논문이 검색되지 않았다. 1990년부터 매년 소량이지만 꾸준히 출판되다가 2003년 이후 논문 수가 현저한 양적 증가를 보였다. 연도별 학술논문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11) 이수상,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활용과 한계』, 도서출판 청람, 2018, pp.112-113..

〈표 1〉 연도별 발행 논문 수<sup>12)</sup>

1979	199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	3	1	2	7	10	4	3	14	7	9	3	8	10	5	11	8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	17	24	17	13	30	15	13	23	19	12	14	17	13	12	9	8

한국 RISS에서 ‘독립운동’과 ‘중국’ 조합 키워드로 검색하여 최종 선정한 논문 100편의 연도별 연구 현황을 보면, 1982년 간국훈의 『조선의열단원의 군사교육』 학술논문을 시작으로 매년 극소수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2006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학위논문 2편, 학술논문 10편 총 12편으로 가장 많이 출판되었다. 연도별 학술논문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도별 발행 논문 수

1982	1984	1987	1991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	1	1	1	2	4	4	2	1	1	1	1	3	1	1	1	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	4	3	2	2	3	4	3	5	6	2	1	12	6	5	9	3

한중 학계 연구 동향 변화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기존 한류 연구자의 단계 구분을 적용하였다. 현재 한국 연구자들은 한류(韓流)를 외국에서 시작된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유행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한류가 특정 국가 혹은 권역에서 유행하면 그 사회 집단 내에서는 한국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환기될 수 있다. 중국 학계는 전통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당대 주요 이슈가 학술 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중국은 2016년 사드 배치와 한한령(限韓令) 이후 한류 열기가 급강하면서 한국 관련 연구도 양적 변화를 보인 바 있다.<sup>13)</sup> 한국 또한 중국 한류 확산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12) 1991년은 ‘조선 독립운동+중국’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수가 없어 표에서 생략하였다. 발행 논문 편수는 학술期刊과 학위논문을 종합한 숫자이다

13) 이유허정, 「중국 연구자는 K-드라마를 어떻게 읽는가?」-의미 네트워크로 보는 중국의 K-

관심과 교류가 증가한 바 있다. 다양한 학술 분야에서 중국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류의 지역적 발생과 확산에 따라 한류 4단계 구분을 적용하였다.<sup>14)</sup> 1단계는 중국에서 한류 발생 시기인 90년대~2002년이다. 한류 유행이 시작되면서 중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한국 인지도와 호감도가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조선 독립운동’+ ‘중국’ 키워드로 검색된 학술논문은 소량이지만 꾸준한 연구가 이어졌다. 한국 학계의 경우, 1982년 학술논문 1편, 1987년 학위 논문 1편 이후로 매년 1~2편의 임시정부 시기 독립운동과 중국 관련 논문이 일부 전공자에 의해 꾸준히 출판되었다.

2단계는 중국 한류 유행기인 2003~2009년이다. 이 시기는 한중 양국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로 중국 사회에서 한류 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혐한류(嫌韓流)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도 발생하면서 한국 인식이 다양화된 시기이다. 중국 학계의 한국 관련 연구는 이전 단계에 비해 양적인 증가가 이어졌다. 반면 한국 학계는 이 시기 동일 주제 관련 연구가 이전 시기에 비해 양적 증가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학계 제 분야까지 확대되지 않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오히려 기간이 긴 1단계에 비해 전체 편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단계는 2010년~2016년이다. 중국 한류 성숙기로 대중 문화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한국 콘텐츠가 확산되었고, 한중 양국의 우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3단계에는 중국의 한국 인식이 보편 확장되었고, 중국 학계의 한국 관련 연구 또한 뚜렷한 양적 증가하였다. 한국 학계의 경우 역시 이전 단계에 비해 중국 관련 연구가 양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중국 학계에 비해서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4단계는 정치·외교 갈등으로 인한 한류 냉각기인 2017년 이후이다. 이 시기는 한류에 대한 반감, 한중 양국의 정치 외교 갈등 등 국가 이슈의 영향으로 인

드라마 연구 담론, 『문화영토연구』 제4권2호, 2023, P.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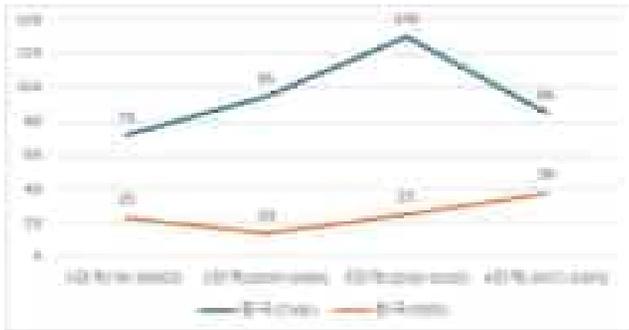
14) 채지영, 『한류 20년, 성과와 미래전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양수영·이성민, 『한류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김정우 외, 『한류3.0의 확산과 궁중문화』, 2016.

해 중국 학계의 한국 관련 연구가 양적 감소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구 경향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보면 이전 단계와 달리 연구 주제가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 학계의 경우, 2016년 이후 국내에 형성된 반중, 혐중 정서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 논문은 꾸준한 증가 혹은 유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9년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의 사회적 이슈에서 관련 연구 주제 논문은 현격히 양적 증가하였다. 한중 양국 학계의 임시정부 시기 독립운동과 중국 관련 연구는 단계별 상이한 양적 변화를 보였다. 단계별 학술논문 출판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단계별 한 중 학술논문 합계

단계	연도	중국 논문	한국 논문
1단계	1979~2002년	72	23
2단계	2003~2009년	95	14
3단계	2010~2016년	130	25
4단계	2017~2023년	85	38

<그림 1> 단계별 한중 학술논문 변화



한류 4단계에 따라 한중 양국의 시기별 학술논문 출판의 양적 변화를 탐색한 결과, 중국 학계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와 국가 관계에 따라 한국 관련 연구가 현저한 양적 변화를 보인 반면, 한국 학계는 양국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에

따른 양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같이 국내 이슈에 따른 변화를 보였다.

## 2) 단어 빈도(TF)와 TF-IDF 키워드 속성으로 본 연구 동향 비교

한중 학계의 임시정부 시기 독립운동과 중국 관련 연구 동향에서 단계별 구체적인 연구 주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술한 단계별 학술논문의 초록을 각각 엑셀(Excel)에 데이터화하고 텍스트(Textom)에서 한글과 증문의 1차 형태소 분석을 거쳐, 수차례 교정, 통제, 제거의 정제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1단계 시기인 최초 검색 시기부터 2002년까지 한중 양국 학계의 학술논문의 상위 10개 단어빈도와 TF-IDF는 다음 <표 4>와 같다.<sup>15)</sup>

<표 4> 1단계 한중 학술논문의 단어빈도와 TF-IDF

1단계 중국 학술논문				1단계 한국 학술논문			
단어	빈도	단어	TF-IDF	단어	빈도	단어	TF-IDF
韩国	141	韩国	88.1	독립운동	70	한적장병	27.6
中国	100	反日复国斗争	87.0	임시정부	47	광복군	25.6
反日复国斗争	90	朝鮮	74.3	광복군	37	여운형	25.3
朝鮮	83	上海	68.2	중국관내	35	독립운동	25.0
韩国临时政府	69	韩国临时政府	66.7	전개	28	발행	23.0
援助	53	援助	62.1	중국	24	확군	23.0
上海	42	国民党政府	48.2	상해	21	민족혁명당	19.3
国民党政府	31	中国	39.1	활동	21	한인	19.3
日本	29	抗日	35.8	한국독립당	21	신문잡지	18.4
抗日战争	26	领导	35.7	독립운동단체	18	조선의용군	15.7

<표 4>에서 1단계(90~2002년) 중국 학술논문의 상위 10개 단어빈도(TF)를

15) 지면 관계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단어 빈도 상위 10개 단어를 표로 제시한다. 상위 25개 단어빈도를 포함한 분석 지표 데이터와 도표는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Cu2d6TCSs9yd091ckM1aHvV0rPhClgXW?usp=sharin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면, 韩国, 中国, 反日复国斗争, 朝鲜, 韩国临时政府, 援助, 上海, 国民党政府, 抗日战争 등의 단어가 상위에 위치하였다. ‘한국’과 ‘중국’이 근대 시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항일’과 ‘반일’의 연합 투쟁의 역사를 한중 양국의 연대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국민당정부의 한국 임시정부 지원 관련 키워드가 주요 연구 주제인 것을 알 수 있다. TF-IDF<sup>16)</sup>가 빈도보다 높은 단어는 ‘独立运动’, ‘侨民’, ‘抗日’, ‘韩国独立党’, ‘重庆’ 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한인 교민과 애국지사의 독립운동, 한국독립당 등 정당과 무장투쟁 관련 연구 주제 흐름을 보였다.

한국 학술논문 상위 10개 단어빈도를 보면, ‘독립운동’, ‘임시정부’, ‘광복군’, ‘중국관내’, ‘전개’, ‘상해’, ‘활동’, ‘한국독립당’, ‘독립운동단체’, ‘연구’ 등이 상위에 위치하였다. 1단계 시기 한국 학계에서 독립운동 관련 연구는 주로 임시정부, 당정 활동, 독립운동단체의 무장투쟁 조직 및 활동 관련 연구 주제가 많았다. TF-IDF가 높은 단어는 ‘한적 장병’, ‘여운형’, ‘발행’, ‘확군’, ‘민족혁명당’, ‘산문잡지’, ‘의열단’, ‘동북지역’ 등이 있다. 한국 학계에서는 일본군 중 한국 국적 장병의 광복군 편입, 독립운동단체의 신문잡지 발행, 동북지역 독립운동과 애국지사의 활동과 같은 특정 연구 주제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다.

〈표 5〉 2단계 한중 학술논문 단어빈도와 TF-IDF

2단계 중국 학술논문				2단계 한국 학술논문			
단어	빈도	단어	TF-IDF	단어	빈도	단어	TF-IDF
韩国	235	朝鲜	171.6	독립운동	18	애국부인회	21.4
中国	208	无政府主义	129.1	임시정부	18	대한독립군	21.4

16)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단어빈도와 역문서 빈도의 약자로서 전체 빈도에서 의미 없는 단어의 빈도수가 높게 산출되어 그 단어에 의해 문서 전체의 의미가 결정되고, 역으로 문서 내에서 빈도는 작지만, 중요한 단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산하는 가중치 값이다. 일반적으로 TF값이 높은 단어가 TF-IDF가 중치 값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나, 특정 단어가 빈도 대비 TF-IDF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단어는 전체 문서의 핵심어라고 할 수 있다. 이정락 외, 『빅데이터와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영남대학교출판부, 2022, pp.204-205.

朝鮮	184	韩国	101.6	대한독립군비단	11	광정단	17.5
民族独立	100	民族独立	98.8	애국부인회	11	당안	17.5
韩国临时政府	95	韩国临时政府	93.9	중국	9	동북지역	15.6
中韩	83	云南讲武学校	92.4	당안	9	김성숙	13.6
抗日武装斗争	65	东北地区	88.5	조직	9	자료수집	9.7
日本	55	朝鮮义勇军	88.5	광정단	9	군자금	9.7
历史	52	杨松	86.3	활동	8	군비단	9.7
上海	52	独立军	83.2	무장투쟁	8	수집	9.7

〈표 5〉에서 2단계(2003~2009년) 중국 학술논문의 단어빈도 상위 10개 단어를 보면, ‘朝鮮’, ‘民族独立’, ‘韩国临时政府’, ‘抗日武装斗争’, ‘东北地区’, ‘无政府主义’, ‘中国革命’, ‘支持’, ‘中国共产党’ 등 단어가 상위에 위치하였다. 2단계 시기 중국 학계는 한국 독립운동단체 활동 관련 연구에 있어 중국 공산당과의 상호 지지와 연대, 연합 무장투쟁 활동 관련 연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TF-IDF가 빈도보다 높은 상위 단어는 ‘无政府主义’, ‘云南讲武学校’, ‘东北地区’, ‘朝鮮义勇军’, ‘杨松’, ‘张志乐’, ‘义烈团’ 단어가 상위에 위치하였다. 무정부주의 단체의 독립운동, 양송, 장지락 등 중국 혁명 열사의 항일 무장투쟁에서의 한중 연합 활동, 중국정부 지원의 군사학교 교육 관련 연구의 주제 흐름을 보였다.

한국 학술논문의 빈도 상위 10개 단어에는 ‘대한독립군비단’, ‘애국부인회’, ‘당안’, ‘조직’, ‘광정단’, ‘활동’, ‘무장투쟁’, ‘동북지역’, ‘자료수집’, ‘군자금’ 등이 상위에 위치하였다. 2단계 시기 한국 학계는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한인 독립운동단체의 활동, 김성숙 등 주요 독립운동가 관련 연구 경향을 나타냈다. TF-IDF가 빈도 대비 높은 단어는 ‘애국부인회’, ‘광정단’, ‘당안’, ‘자료수집’, ‘군자금’, ‘군비단’, ‘목록’, ‘소장’, ‘중국 관내’ 등이다. 한국 학계는 자료 바탕의 실증 연구 경향을 보이면서 독립운동단체와 인물의 중국 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하며, 관련 연구와 자료 발굴을 촉구하였다.

〈표 6〉 3단계 한중 학술논문 단어빈도와 TF-IDF

3단계 중국 학술논문				3단계 한국 학술논문			
단어	빈도	단어	TF-IDF	단어	빈도	단어	TF-IDF
中国	390	东北	198.4	독립운동	89	광저우	65.8
韩国	353	韩国	191.4	중국	53	국립중앙대학교	55.5
朝鲜	291	朝鲜	190.6	임시정부	43	나혜석	55.5
日本	198	日本	187.7	활동	23	독립운동	51.2
民族	133	教科书	150.7	한인	23	복나부	38.1
中韩	124	民族	143.1	지역	19	삶	36.0
东北	118	民族主义	141.8	광저우	19	한인	35.0
抗日	109	外交	141.1	남경	16	손원일	34.7
历史	81	中韩	139.1	국립중앙대학교	16	중국	30.5
朝鲜族	76	韩人	138.5	나혜석	16	임시정부	29.8

〈표 6〉에서 3단계(2010~2016년) 중국 학술논문의 단어빈도 상위 10개를 보면, ‘东北’, ‘日本’, ‘民族’, ‘朝鲜族’, ‘朝鲜人’, ‘社会’ 등 단어가 새롭게 상위에 위치하였다. 빈도 대비 TF-IDF가 높은 단어는 ‘东北’, ‘民族主义’, ‘外交’, ‘韩人’, ‘朝鲜人’, ‘政策’, ‘移民’, ‘无政府主义者’ 등 키워드가 새롭게 위치하였다. 3단계 시기의 중국 학술논문은 기존 한국 임시정부와 중국 국민정부의 정치, 외교적 연대 관련 연구 경향에서 동북지역의 현 조선족 사회 구성의 역사 문화적 배경 등으로 연구 주제가 다양화,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학술논문의 단어빈도 상위 10개를 보면, ‘한인’, ‘광저우’, ‘남경’, ‘국립중앙대학교’, ‘나혜석’, ‘삶’, ‘만주’, ‘복나부’, ‘중국관내’, ‘지지’, ‘손원일’ 등 단어가 상위에 위치하였다. 3단계 시기 한국 학계도 광저우, 만주, 남경 등 지역에서 한인의 유학, 활동 궤적, 중국인의 독립운동 지원 관련 연구 주제가 신출하였다.

〈표 7〉 4단계 한중 학술논문의 단어빈도와 TF-IDF

4단계 중국 학술논문				4단계 한국 학술논문			
단어	빈도	단어	TF-IDF	단어	빈도	단어	TF-IDF
中国	459	文学	326.1	독립운동	92	정화암	58.2
韩国	326	朝鮮人	283.1	중국	64	이규채	48.5
日本	249	电影	258.8	임시정부	44	나혜석	38.1
朝鮮	242	金学铁	213.0	활동	35	회고록	37.4
抗日战争	207	东北地区	194.6	정화암	21	이회영	36.0
民族	201	东亚	192.3	참여	20	연구	34.9
文学	182	辽宁地区	168.2	만주	20	한국유학생	34.7
东亚	134	抗日战争	153.6	회고록	18	광주학생독립운동	33.1
朝鮮人	133	移民	147.8	필요	16	한자교육	31.2
历史	130	朝鮮	145.7	한인	15	전개	29.2

〈표 7〉에서 4단계 중국 학술논문의 단어빈도 상위 10개를 보면, ‘抗日战争’, ‘民族’, ‘文学’, ‘东亚’, ‘朝鮮人’, ‘东北地区’, ‘电影’, ‘文化’, ‘金学铁’ 등 단어가 새롭게 위치하였다. 이전 단계의 학술논문이 한국 임시정부와 중국 국민당, 중국 공산당의 정치 외교 활동, 사회주의 계열 독립단체와 요인의 항일투쟁 관련 연구 경향을 보인 데 비해 4단계 시기에는 동북지역 조선족 사회와 독립운동 인사의 항일투쟁 배경 문학, 영화 등 문화 관련 연구 경향이 새롭게 나타났다.

4단계 한국 학술논문의 단어빈도 상위 10개를 보면, ‘정화암’, ‘참여’, ‘만주’, ‘회고록’, ‘필요’, ‘한인’ 등 단어가 있다. 4단계 시기 한국 학계에서도 그동안 독립운동 관련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생애, 회고록 관련 연구 주제 흐름이 나타났다. 빈도 대비 TF-IDF가 높은 단어는 ‘정화암’, ‘이규채’, ‘나혜석’, ‘회고록’, ‘연구’, ‘한국 유학생’, ‘한자 교육’ 등이 있다. 독립운동가의 회고록 등 사료 기반 생애 관련 연구 경향을 보였다. ‘한자 교육’ 키워드는 『중어대전』 저자 이조헌 연구에서 한자교육과 중국에서 항일독립운동의 관계 관련 새로운 연구 주제도 보였다.<sup>17)</sup>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된 학술논문이지만, 한국과 중국 학계의 연구 주제와

경향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중국 학계는 주로 중국 초기 국민정부의 한국 임시정부 지원과 공동의 목표인 ‘항일’을 위한 연합 전선 구축과 투쟁을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관계사 중심의 연구 경향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념으로 가졌던 동북 지역에 정착한 애국지사의 이데올로기적 이중적 실천과 문화 활동 관련 연구 주제가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 학계는 실증 사료 기반의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독립 단체와 인물의 개별 활동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 중국 학계는 한국과 중국의 당시 관계사 중심 연구 위주였다면 한국은 실증 사료 기반의 개별 연구 경향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 3) 주요 키워드의 CONCOR 주제 군집 분석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의미하는 CONCOR(CONvergence of iteration CORelation)분석은 문서에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의 구조적 위치 관계를 파악해 군집화하는 것으로 같은 군집에 위치하는 키워드들은 같은 주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키워드가 유기적 연결 관계를 형성하며 하나의 군집으로 묶여 있는 결과를 통해 거시적인 연구 경향을 추측할 수 있다. 각 단계별 한중 학술논문 초록의 상위 70개 단어로 CONCOR 분석을 수행하여 노드 주제 군집표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1단계 한중 학술논문의 CONCOR 분석한 주제 군집표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1단계 한중 학술논문 키워드의 CONCOR 주제 군집표<sup>18)</sup>

1단계	A		B		C		D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주제	반일투쟁의 민족단결	독립운동 역사 기록	한국임시정부와 중국정부	한인교민과 광복군	한중관계와 원조	동북지역 독립운동사	동북지역의 연대	항일 연대
노드수	25	43	22	15	15	11	8	6

17) 김상규,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의 새로운 일면:중국어 교육과 중국어회화교재 편찬-《중어대전》 저자 이조현의 삶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제67집, 한국중문학회, 2017.

<p>군집 대표 노드</p>	<p>反日斗争, 朝鲜, 民族, 人民, 抗日战争, 复国斗争, 朝鲜义勇军, 朝鲜民族革命党, 抗日, 抗战,</p>	<p>신문잡지, 발행, 발간, 여운형 1930년대, 1920년대, 1940년대, 상해, 독립운동, 임시정부,</p>	<p>韩国临时政府, 中国, 上海, 国民党政府, 韩国独立党, 中国共产党, 金九, 贡献, 独立党派, 政策, 关系</p>	<p>중국국민당정부,  확군, 국내, 한인교민, 귀국, 결과, 미국, 결정, 광복군 한국독립당,</p>	<p>韩国援助两国 唇齿相依 日本帝国主义 日本独立运动 在华独立运动 史 申圭植</p>	<p>동북지역, 전투, 동포지지, 한반도, 독립군, 시기, 독립운동단체, 지도자, 독립운동사, 연구</p>	<p>崔志鹰, 侨民, 历史意义, 东北, 友谊, 中朝, 两党, 东北地区,</p>	<p>항일, 중국, 활동, 노력, 소련, 정책</p>
-----------------	--	--	--	---	---	---	---	-------------------------------

〈표 8〉 1단계 한중 학술논문 CONCOR 주제 군집표에서 군집별 노드의 밀집과 연결을 통해 한중 양국 학계의 ‘독립운동’과 ‘중국’ 관련 구체적인 연구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 학술논문의 군집에서 ‘반일투쟁의 민족단결’ 주제의 A 군집은 ‘反日斗争’, ‘朝鲜’, ‘民族’, ‘抗日’, ‘抗战’, ‘中韩关系’ 등 중심성 높은 단어가 밀집하였다. 1단계 시기 중국 학계는 반일 투쟁의 공동 목표 관점에서의 한국 독립운동사 관련 연구 경향을 알 수 있다. ‘상해 한국임시정부와 중국정부’의 B 군집은 ‘韩国临时政府’, ‘中国’, ‘上海’, ‘国民党政府’, ‘韩国独立党’, ‘中国共产党’, ‘金九’ 등 키워드가 밀집해 있다. 주로 김구를 비롯한 한국 임시정부 요인과 중국 정부의 정치, 외교적 독립 활동 관련 연구 주제가 밀집해 있다. ‘唇齿相依의 한중관계와 원조’의 C 군집은 ‘韩国’, ‘援助’, ‘两国’, ‘唇齿相依’, ‘日本帝国主义’, ‘独立运动’ 등 단어가 밀집해 있다.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인 한중 관계, 역사적으로 일본제국주의에 맞선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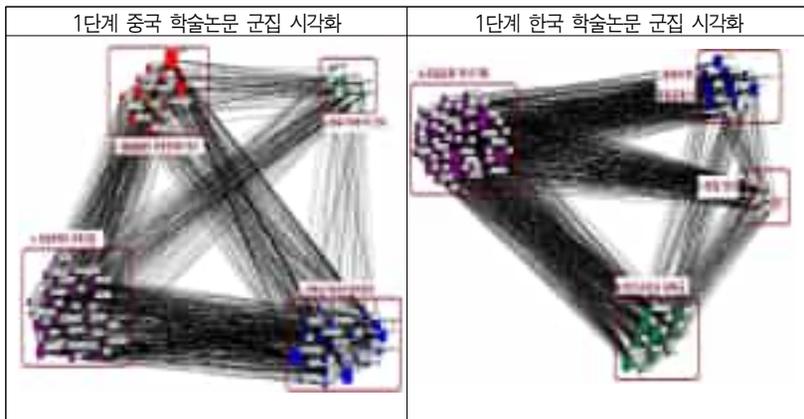
18) CONCOR 군집표에서 각 군집에 명명한 주제는 연구자가 단어 노드의 군집내 위치와 연결을 파악하여 명명한 것이다. 지면 관계상 각 군집의 전체 노드는 별도 구성한 자료 참조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Cu2d6TCSs9yd091ckM1aHvV0rPhCIgXW?usp=sharing>

‘원조’ 관련 연구 경향을 알 수 있다. 가장 작은 ‘동북지역의 연대’의 D 군집은 ‘崔志鷹’, ‘侨民’, ‘东北’, ‘友谊’ 등 키워드가 밀집되어 있다. 최지웅은 임시정부 포함 한반도 관련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 중국 연구자이다.

한국 학술논문의 군집을 보면, ‘독립운동 역사 기록’의 A 군집은 ‘신문잡지’, ‘발행’, ‘여운형’, ‘1930년대’, ‘상해’, ‘독립운동’, ‘독립동맹’, ‘임시정부’, ‘의열단’, ‘관계’, ‘의미’ 등 단어가 밀집해 있다. 한국 학계에서는 주로 임시정부 시기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단체가 발행한 신문잡지 등 자료를 기반으로 단체의 궤적과 단체 간의 관계, 활동의 의미 등을 기술하는 연구 경향을 보였다. ‘한인교민과 광복군’의 B 군집은 ‘중국국민당정부’, ‘확군’, ‘한인교민’, ‘귀국’, ‘결과’, ‘광복군’, ‘해방’ 등 단어가 밀집하였다. 일본 패망 후 한적 장병의 광복군 확대 충원 등 해방 전후 한인 교민, 광복군, 외교 정세 관련 연구 흐름을 보였다. ‘동북지역 독립운동사’의 C 군집에는 ‘동북지역’, ‘전투’, ‘동포 지지’, ‘독립운동사’, ‘연구’, ‘지도자’ 등 단어가 밀집해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지역에서 무장투쟁을 이어온 독립운동단체 관련 연구 경향을 알 수 있다. ‘항일 연대’의 가장 작은 D 군집은 ‘항일’, ‘중국’, ‘활동’, ‘노력’, ‘소련’, ‘정책’ 등 단어가 밀집해 있다. 시각화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1단계 한중 학술논문 키워드의 CONCOR 분석 시각화



2단계 시기 한중 학술논문의 초록 상위 70개 단어의 CONCOR 분석 주제 군 집표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2단계 한중 학술논문 키워드의 CONCOR 군집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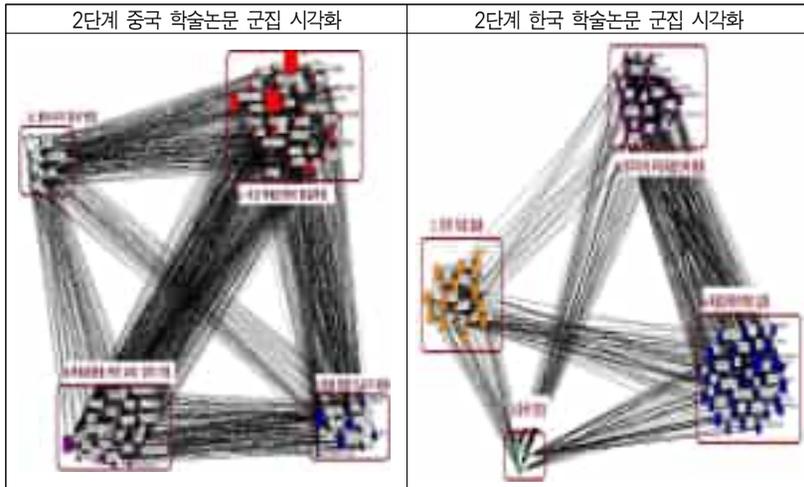
2단계	A		B		C		D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주제	독립단체의 항일투쟁	독립운동단체의 갈등	교육, 경제 지원	만주지역 무장독립단체	한중 혁명지도자	당안 자료 발굴	동아시아 정세 변화	중국 연대
노드수	32	33	21	21	11	17	7	3
군집 대표 노드	中国, 朝鲜, 无政府主义者, 中韩两国, 关系, 日本, 反日团体, 历史, 在华, 抗日战争	지도자, 임시정부, 한국독립당, 한국독립운동가, 독립운동세력, 중국관내, 1930년대, 김성숙, 상하이,	韩国, 韩国临时政府, 国民党政府, 独立军, 上海, 经济援助, 孙中山, 复国, 大韩国, 韩籍留学生	1920년대, 장백조선족자치현, 광정단, 독립운동방략, 대한독립군비단, 무장투쟁전개, 인적지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단체	民族独立, 东北地区, 杨松, 抗日武装斗争, 金若山, 境内, 延边, 中国革命, 朝鲜人, 贡献	당안, 조선인, 목록, 당안관, 김립성, 당안관, 방안, 해외자료, 만주지역, 경쟁, 개방	东亚, 局势变化, 政治, 经济, 韩人, 湖南, 南京	중국, 파과, 결과

<표 9> CONCOR 주제 군집표의 중국 학술논문에서 ‘조선 독립단체의 항일투쟁’의 A군집은 ‘中国’, ‘朝鲜’, ‘无政府主义者’, ‘反日团体’, ‘在华’, ‘独立运动史’, ‘支持’, ‘学术界’, ‘韩国学’ 등 단어가 밀집해 있다. 단체의 독립운동 활동 중심의 독립운동사와 이를 지원하는 한중 양국 정부 관련 연구 경향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2단계 시기부터 ‘학술계’와 ‘한국학’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한국학’의 일환으로 독립운동, 애국지사, 한중 관계 관련 연구 주제 흐름을 보였다. ‘독립 활동을 위한 교육, 경제지원’의 B 군집에는 ‘韩国临时政府’, ‘国民党政府’, ‘独立军’, ‘上海’, ‘经济援助’, ‘孙中山’, ‘韩籍留学生’ 등 단어가 밀집해 있다. 임

시정부 관련 연구 주제와 중국 정부가 초기부터 조선의 무장투쟁을 위해 군사교육과 경제적 지원 분야의 연구 주제가 많이 보였다. ‘한중 혁명 지도자 활동’의 C 군집에는 ‘民族独立’, ‘东北地区’, ‘杨松’, ‘抗日武装斗争’, ‘金若山’, ‘境内’, ‘延边’, ‘中国革命’ 등 단어가 밀집하였다. 중국 혁명 지도자와 한국 애국지사의 민족 독립, 항일 공동 목표 관련 연구 주제를 보여준다. ‘동아시아 정세변화’의 D 군집은 ‘东亚’, ‘局势变化’, ‘政治’, ‘韩人’ 등 단어가 밀집하였다.

주제 군집표에서 한국 학술논문을 보면, ‘독립운동단체의 갈등’의 A 군집은 ‘지도자’, ‘임시정부’, ‘한국독립당’, ‘독립운동세력’, ‘중국관내’, ‘상하이’, ‘갈등’ 등의 단어가 밀집해 있다. 2단계 한국 논문은 임시정부 수립 이후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단체 활동 관련 연구에서 ‘한국독립당’, ‘민족혁명당’ 등 정파 간 이념 갈등과 주요 인물의 활동 관련 연구 주제 흐름을 보였다. ‘만주지역 무장독립단체’의 B 군집은 ‘1920년대’, ‘장백조선족자치현’, ‘광정단’, ‘독립운동방략’, ‘대한독립군비단’, ‘무장투쟁’, ‘인적 자원’ 등 단어가 밀집해 있다. 한국 학계는 조선족 자치 지역에서 결성된 무장투쟁을 위한 독립단체의 군자금 마련 등 활동을 자료 기반의 관련 연구 경향을 보였다. ‘당안 자료 발굴’의 C 군집은 ‘당안’, ‘조선인’, ‘목록’, ‘당안관’, ‘해외자료’, ‘만주지역’, ‘개방’, ‘경쟁’ 등 단어가 밀집해 있다. 한국 학계는 자료 기반의 연구 경향을 보이면서 해외 주로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연구의 기초자료 수집의 중요성과 한중 공동 연구를 강조하였다. ‘중국 연대’의 D 군집은 ‘중국’, ‘파악’, ‘결과’ 단어가 밀집해 있다. 2단계 한중 학술논문의 각 군집의 밀집과 군집 간 연결의 시각화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2단계 한중 학술논문의 CONCOR 분석 시각화



3단계 시기는 중국 학술논문이 양적으로 가장 많이 출판된 시기이며, 한국은 이전 시기에 비해 논문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이다. 연구 주제 관련해서도 양국 모두 다양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한중 양국 학술논문의 CONCOR 분석 주제 군집표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3단계 한중 학술논문 키워드의 CONCOR 군집표

3단계	A		B		C		D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주제	한중 정부 외교 활동	한인 독립운동 과 중국의 지원	사회주의자의 반제 연합	독립운동 인물 자료	만주사 변과 동북 지역	중국 관내 독립 운동	동아시아 무정부 주의자	독립운동가 지식인
노드수	33	29	24	21	10	15	7	10
군집 대표 노드	中韩, 韩国临时政府, 民族主义, 国民党	한인, 한인 학생, 중국인, 국립중앙 대학교	满洲, 中国共产党, 共产主义者, 团体	손원일, 복나부, 이범석, 박찬익, 안동현, 기여	日本, 民族, 政策, 伪满洲国, 九一八	나혜석, 중국공산당, 민족혁명당, 사실	无政府主义者, 外交, 五四运动, 李承晚	정월성, 임시정부, 양우조, 충칭, 독립운동

	政府, 历史, 两国, 关系, 军事, 国际, 文化	광저우, 지원, 김구, 지도자, 한인 청년, 활동, 중국 국민 정부, 관계	朝鮮义 勇队, 领导, 金若山, 朝鮮革 命者, 入籍, 抗日, 反帝	서간도, 동남대 학교, 한국 광복군, 기사	事變, 反日斗 争精神 , 东北地 区, 朝鮮族 , 天津, 蒙古	연구, 지역, 필요, 혁명, 조선인, 일본제 국주의, 중국관 내	东亚, 印度, 妇女	동가, 삼, 최선화, 최선희, 지식인, 결성
--	--	---	---	--	--	---	------------------	---

〈표 10〉 주제 군집표에서 중국 학술논문의 군집을 보면, ‘한중 정부 외교 활동’의 A 군집은 ‘中韩’, ‘民族主义’, ‘国民党政府’, ‘历史’, ‘两国’, ‘关系’, ‘文化’, ‘思想’ 등 단어가 밀집해 있다. 3단계 시기 중국 학술논문에서는 기존 연구 주제 이외에 당시 한인 사회의 문화와 지식인의 사상, 교류 등 연구 주제가 다양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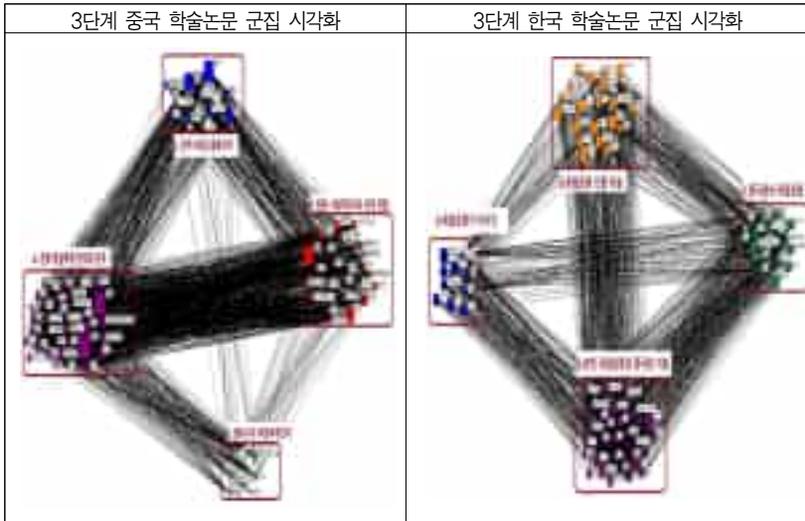
‘사회주의자의 반제 연합’의 B 군집은 ‘东北’, ‘抗日’, ‘朝鲜人’, ‘移民’, ‘满洲’, ‘中国共产党’, ‘共产主义者’, ‘朝鲜革命者’, ‘反帝’ 등 단어가 밀집되었다. 동북 지역 조선인 이주 정착 관련 주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단체와 중국 공산당의 연합 항일투쟁 관련 연구 주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만주사변과 동북지역’의 C 군집은 ‘日本’, ‘民族’, ‘政策’, ‘伪满洲国’, ‘九一八事变’, ‘东北地区’, ‘朝鲜族’ 등 단어가 밀집하였다. 9·18 사변과 만주국에서 연합한 한중 항일 전선 조선족 사회의 항일투쟁 관련 연구 주제를 알 수 있다. ‘동아시아 무정부주의자’의 D 군집은 ‘无政府主义者’, ‘外交’, ‘李承晚’, ‘东亚’ 등 단어가 밀집하였다. 한국 학술논문의 ‘한인 독립운동과 중국의 지원’의 A 군집은, ‘한인’, ‘한인학생’, ‘중국인’, ‘국립중앙대학교’, ‘한인청년’, ‘김구’, ‘중국국민정부’, ‘관계’ 등 단어가 밀집해 있다.

3단계 시기 한국 학계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활동 관련 연구 이외에 당시 한인 교민, 유학생의 독립운동 관련 새로운 연구 주제 흐름을 보였다. ‘독립운동 인물 자료’의 B 군집은 ‘손원일’, ‘복나부’, ‘이범석’, ‘박찬익’, ‘안동현’, ‘기여’, ‘서간도’ 등 단어가 밀집해 있다. 개별 독립운동 인사의 활동과 한국의 독립을 도운

중국인의 기여 등 연구 주제를 자료 기반으로 분석하는 연구 경향을 보였다. ‘만주와 중국관내 독립운동’의 C 군집은 ‘나해석’, ‘중국공산당’, ‘민족혁명당’, ‘사실’, ‘연구’, ‘필요’, ‘혁명’, ‘중국관내’, ‘만주’, ‘관심’ 등 단어가 밀집해 있다. 한국 학계가 특히 동북지역의 독립운동 관련 연구에 주목하고 사회주의 계열, 여성 독립운동가 연구 필요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운동가 지식인’의 D 군집은 ‘정율성’, ‘임시정부’, ‘양우조’, ‘충칭’, ‘독립운동가’, ‘최선화’, ‘지식인’ 등 단어가 밀집해 있다. 한국 학계의 독립운동가이자 지식인의 삶에 주목하는 연구 주제를 보여준다.

3단계 시기 한중 학술논문의 주제 군집의 시각화 결과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3단계 한중 학술논문의 CONCOR 분석 시각화



4단계는 중국의 학술논문이 양적 감소한 반면, 한국의 학술논문은 양적 증가하는 상이한 변화를 나타낸 시기이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다음 <표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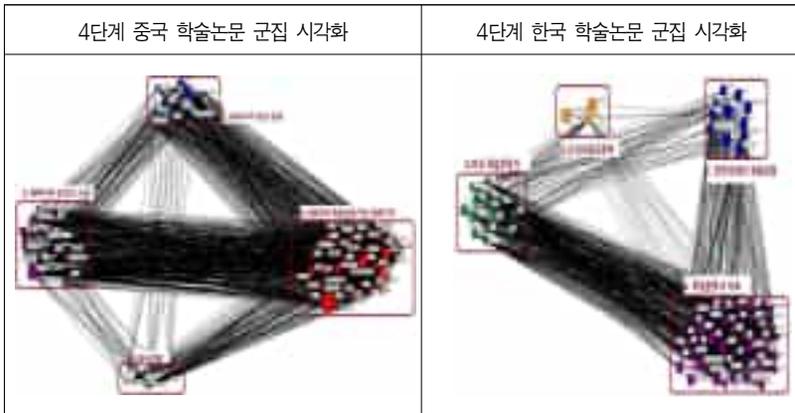
표 11) 4단계 한중 학술논문 키워드의 CONCOR 주제 군집표

4단계	A		B		C		D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주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의 기억	독립운동사 사료	동북지역 조선인 이주 정책	여성 독립운동가	동아시아 외교 정세	한인학생의 독립운동	한국 전쟁	조선의용군문학
노드수	42	47	14	14	10	11	4	3
군집 대표 노드	文学, 抗日战争, 民族, 电影, 文化, 历史, 金学铁, 思想, 交流, 书写, 意识	이규재, 조성환, 의열투쟁, 회고록, 중국관내, 자료, 독립운동개설서, 독립운동, 연해주, 발굴	朝鮮人, 东北地区, 日本帝国主义, 辽宁地区, 移民, 政策, 团体, 小说, 中国共产党, 殖民统治	나혜석, 여성, 3·1운동, 안동, 평가, 삶, 만주 지역, 의미, 역할, 사실, 중요, 주목	东亚, 国家, 话语, 东亚主义, 世界, 主体, 国民党, 政府, 美国, 体系	학업, 한국유학생, 한자교육, 망명, 남경, 이화림, 남경신학교, 일제강점기, 이주	朝鮮半島, 金奎植, 文献, 朝鮮战争	조선의용군 문학, 문학, 김사랑

〈표 11〉의 주제 군집표에서 중국 학술논문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의 기억’의 A 군집은 ‘文学’, ‘抗日战争’, ‘民族’, ‘电影’, ‘文化’, ‘历史’, ‘金学铁’, ‘思想’, ‘书写’, ‘意识’ 등 단어가 밀집하였다. 구체적으로 김학철 등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의 사상과 문학 작품, 영화 등 독립운동 이외의 문화 활동 관련 연구 주제 변화를 보였다. 이는 이전 단계에 비해 연구 주제가 확장, 구체화, 다각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북지역 조선인 이주 정책’의 B 군집은 ‘朝鮮人’, ‘东北地区’, ‘日本帝国主义’, ‘移民’, ‘政策’, ‘辽宁地区’ 등이 밀집하였다. 이전 단계부터 꾸준히 이어진 일본제국주의, 조선인, 만주 이주 등 역사 사료 연구에서 식민 통치로 인해 만주 등지로 이주 망명한 조선인의 문학 작품과 작가 관련 연구로 확대되었다. ‘동아시아 외교정세’의 C군집은 ‘东亚’, ‘国家’, ‘话语’, ‘东亚主义’, ‘世界’, ‘美国’ 등 단어가 밀집해 있다. 동아시아 포함 세계 정세 변화 등 정치외교사적

연구에서 동아시아 국가와 서양 국가의 담화 등 관련 연구 대상의 변화 흐름을 알 수 있다. ‘한국 전쟁’의 D군집은 ‘朝鮮半島’, ‘金圭植’, ‘文獻’, ‘朝鮮战争’ 단어가 위치한다. 4단계 한국 학술논문 주제 군집표에서 ‘독립운동사 사료’의 가장 큰 A 군집은 ‘이규재’, ‘조성환’, ‘의열투쟁’, ‘회고록’, ‘중국관내’, ‘자료’, ‘독립운동 개설서’, ‘자료발굴’ 등 단어가 밀집하였다. 한국 학계는 자료 기반의 독립운동 인물과 단체의 활동 궤적을 기술하는 연구 경향을 보이며, 중국과의 자료 발굴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B 군집은 ‘나혜석’, ‘여성’, ‘안동’, ‘평가’, ‘삶’, ‘중요’, ‘주목’ 등 단어가 밀집하였다. 나혜석을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 연구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인 학생의 독립운동’의 C 군집은 ‘학업’, ‘한국유학생’, ‘한자교육’, ‘망명’, ‘이화람’, ‘이주’ 등 단어가 밀집하였다. 당시 한인 교민, 한인 학생 관련 연구 주제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조선의용군문학’의 가장 작은 D군집은 ‘조선의용군 문학’, ‘문학’, ‘김사량’ 단어가 밀집하였다. 4단계 한중 학술논문 키워드의 주제 군집 시각화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3단계 한중 학술논문의 CONCOR 분석 시각화



핵심 키워드의 주제 군집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과 중국의 단계별 연구 주제는 뚜렷한 차이점이 보인다. 중국이 초기 양국 정부간의 독립 활동을 위한 연대

와 지원 관련 관계사 중심 연구에서 주로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 정착한 한국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와 단체의 문화 활동 관련 연구로 주제 변화를 보인 반면, 한국 학계는 실증 자료 기반으로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으나 중국 지역에서 활동한 애국 단체와 인물의 개별 활동에 대한 미시적 실증 연구를 일부 전공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양국 학계의 확연한 연구 경향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즉, 중국 학계는 관계사 중심의 거시적 연구와 사회주의 이념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미시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은 국내에 소개되지 않거나 관심이 필요한 독립운동가의 실증 자료 기반의 미시적 연구 경향을 일부 전공자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회주의 성향의 인물은 제외하는 이데올로기적 경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이 연구는 키워드 네트워크(Keyword Network)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임시정부 시기 독립운동과 중국에 관한 한중 양국 학계의 연구 동향 고찰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국 학술 아카이브 CNKI와 한국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조선독립운동’과 ‘중국’의 키워드 조합으로 학술논문을 검색 수집하고, 한류 발전 단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질적, 양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각 단계별 논문의 초록을 데이터화하여 분석 지표를 도출하였고, 키워드 네트워크와 주제 군집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 주제 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학계는 한류 단계에 따라 논문의 양적 변화를 보인 반면, 한국 학계는 중국과 상이한 변화를 나타냈다. 단계별 CONCOR 분석 주제 군집표를 보면, 중국 학계의 경우 초기 단계에는 중국의 지원 관점에서 중국에서의 한국 독립운동을 개괄하는 방식의 연구 경향을 보였다. 2단계 시기에서 주목할 점은 중국 학계가 한국 독립운동과 관계사 연구를 한국학의 일환으로 보고 연구 주제와 관점의 다양화를 보였다. 3단계 시기는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다. 주로 중국 관내 지역과 동북지역에서 중국 공산당과의 항일 연합 투쟁 관련 연구가 많았고, 한국 독립운동단체가 혁명과 독립의 이중적 사명 실천 관점의 연구가 다수였다. 4단

계에는 논문의 양적 감소가 나타났지만, 활동 관련 역사적 연구에서 문화 관련 연구까지 연구 주제가 다각화되었다.

한국 학술논문은 1단계 시기에는 역사적 기록에 기반한 임시정부, 동북지역 독립운동단체, 한국 광복군 관련 사료 기반 연구 경향을 보였다. 2단계 시기에는 임시 정부와 각 정파의 독립운동사 관련 연구와 중국 당안 자료 기반의 동북 지역 독립운동 단체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료 수집과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3단계와 4단계에서도 한국 학계의 독립운동과 중국 관련 연구는 독립운동을 학술적으로 개괄하는 관련 연구와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가, 한인 유학생 관련 특정 주제 연구 경향을 보였다.

한·중 양국 학계의 관련 연구의 공통점은 첫째, 신문 기사 등 자료 기반 임시 정부의 정치, 외교 관계 관련 연구 경향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둘째, 당시 한인의 강제 이주, 일본 침략의 중심지였던 만주 지역(동북지역)의 독립운동단체 관련 연구 흐름이 주를 이루었다. 차이점은 한국 학계는 신문잡지 등 자료 기반의 연구 경향을 보이면서, 중국 자료 수집, 발굴,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 학계는 초기에는 중국 국민정부 지원과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 경향을 많이 보였으나, 점차 중국 공산당의 지원과 연합전선, 중국 공산당에 편입한 이중적 사명을 가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관련 연구가 다수를 이루는 주제의 변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목할 점은 냉각기인 4단계 시기 중국 학계의 논문 출판은 감소하였지만 연구 주제가 다각화된 점이다. 기존 연구 경향 분석에서 중국 학계의 독립운동 연구는 중국 공산당의 지원과 연합 관점에 집중되었다고 하였으나, 2017년 이후 학술논문은 한국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의 문화 활동 관련 연구가 대폭 증가한 것은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 동태의 경향성 변화는 한국 학계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전망해 보아야 할 유의미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Keyword Network)를 통해 한·중 양국의 연구 경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중국 학계의 경우, 한국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에 대한 증가에 따라 학계의 논문 출판의 양적 변화가 비례하였지만, 한국의 경우 일부 전공자에 의해 연구의 명맥이 유지되다가 국내 이슈에 따라 잠시 증

가의 변화를 보인 점이다. 연구 경향은 중국이 관계사 중심의 거시적 연구와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사회주의 성향 독립운동가의 문화 활동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한국은 중국에서 활동하였으나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개별 인물에 대한 미시적 연구가 일부 전공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활동에 관한 연구가 극히 드문 것은 한국 학계에서 중국과 독립운동 연구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직된 경향이 있음을 상정할 수 있다.

향후 이 연구 결과를 시사점으로 삼아 중국 학계의 관련 연구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임시정부 시기 탁월한 독립운동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사회주의 계열 애국지사의 생애와 활동이 학술적으로 소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정우 외, 『한류3.0의 확산과 궁중문화』, 2016  
이수상,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활용과 한계』, 도서출판 청람, 2018.  
이정락 외, 『빅데이터와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영남대학교출판부, 2022.  
양수영·이성민, 『한류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망』,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채지영, 『한류 20년, 성과와 미래전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 2. 논문

- 김려화, 「중국 학계의 한국 고대 역사서 연구동향과 나아갈 방향」, 『한중인문학연구』 제 83집, 한중인문학회, 2024, pp.77-102.  
김상규,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의 새로운 일면: 중국어 교육과 중국어회화교재 편찬-《중어대전》 저자 이조현의 삶을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제67집, 한국중문학회, 2017, pp.195-215.  
김승일, 「동북공정 이후 중국 학계의 한국사 연구동향」, 『한국근현대연구』 제55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0, pp.274-294.  
김주아·민경만,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한 한중 ‘chatGPT’ 연구동향-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융합연구』 제7집 제1호, 글로벌지식융합학회, 2024, pp.11-44.  
김태국, 「중국 학계의 한국독립운동사 연구동향과 전망(2016~2019)」,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73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1, pp.293-328.

서상민, 「중국의 “한중관계” 연구동향 분석-장쩌민 시기와 후진타오 시기의 저자 키워드 연결망 비교」, 『中國學論叢』 第56輯,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7, pp.151-175.

이수상,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 31권 4호, 정보관리학회, 2014, pp.49-68. .

이유정, 「중국 연구자는 K-드라마를 어떻게 읽는가?-의미 네트워크로 보는 중국의 K-드라마 연구 담론」, 『문화영토연구』 제4권2호, 2023, pp.119-153.

윤휘탁, 「중국 관내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과 평가」, 『만주연구』 제20집, 만주학회, 2015, pp.43-74.

위가야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77호, 동북아역사재단, 2022, pp.125-158.

홍성민 · 이은경,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중국학계의 연구 동향 분석」, 『中國學報』 第一百七輯, 한국중국학회, 2024, pp.143-170.

安洙英 · 姜伊威, 「从“东洋史”到“东亚史”—韩国学界近三十年的历史叙事反思」, 『史学理论研究』 第5期, 2021, pp.73-85.

侯冠宇 · 朴美杰, 「侧看为峰：近20年韩国学界对中国明代经济史研究的热点、趋势与展望」, 『中北大学学报』 第37卷 第1期, 2021, pp.109-116.

齐晓峰 · 尹圣媛, 「近二十年韩国学界大韩民国临时政府研究的特点和动向」, 『当代韩国』 第2期, 2019, pp.43-58.

王建宏, 「30년간 중국 학계의 한국독립운동사 연구(1992~2021)」, 『한국 근현대사 연구』 제105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23, pp.7-59.

\_\_\_\_\_, 「中国学界韩国独立运动史研究」, 『当代韩国』 第3期, 2022, pp.87-128.

### 3. 웹사이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s://www.riss.kr>  
 中國知網(CNKI) <https://chn.oversea.cnki.net/index/>  
 텍스트툼(Textom) <https://www.textom.co.kr/>

논문접수일	2024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2024년 8월 28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9일

*Abstract*

---

Comparativ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China dur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Period Using  
Keyword Network  
-Focusing on Academic Papers from CNKI and RISS-

Lee, Youjung · Cho, Yunja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period in Korea and China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Academic papers were collected from the Chinese academic archive CNKI and the Korean Academic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ISS) using the keywords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China.' The collected papers were analyzed in four stages to observ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The analysis revealed commonalities in both Korean and Chinese academia: a focus on materials from the Provisional Government, such as newspaper articles, and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activities of key figures. Additionally, research topics frequently centered on Korean independence organizations active in Northeast China. However, differences were noted in that Korean academia emphasized summarizing independence activities based on materials like newspapers, magazines, and Chinese archive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discovering, and securing empirical data. In contrast, Chinese academia emphasized the support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by the Chinese Nationalist Government and explored the dual mission of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Notably, Chinese research topics have diversified. Since 2017, many Chinese academic papers have focused on the cultural activities of socialist independence activists, a trend that could be positively referenced by Korean academia.

**Keyword** Provisional Government Period, Independence Movement, Solidarity and Support, Data Collection, Cultural Activities Research



# 해외 한국 문화교육 커리큘럼과 강의 방식에 대한 연구

-라 사피엔자 대학의 한국학 전공을 중심으로-

오영미 \*\*

## 국문요약

이 연구는 방문교수 경험을 바탕으로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 한국학 전공의 커리큘럼과 문화교육, 각종의 비교과 활동을 분석하면서 해외 한국학의 현황 파악과 발전적 제언을 하고자 시도되었다.

논의의 방향은 그들의 커리큘럼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그들이 문화 교육의 범주와 학제 측면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 그리고 방문교수로서 체험한 강의와 각종의 지원 사업으로 인한 비교과 활동의 의의를 점검하는 데 두었다.

결과적으로, 해외 한국학이 처해있는 현실로서 전문 강의 교원의 부족과 재정적 여력이라는 측면이 커리큘럼 구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의 지원 사업과 비교과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기반하여 한국 내에서 해외 한국학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각종의 재정적 지원 사업을 확충하고, 한국 문학의 번역 사업이나, 영문 교재, 나아가 현지어로 된 교재의 출간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언적 결론은 해외 한국학을 현장에서 경험한 연구자들이 이미 내린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과정이 로마 사피엔자 대학과 같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았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겠다.

**주제어** 해외 한국학,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 한국 문화교육, 유럽 한국학전공, 한국문학 번역

\* 본 연구는 2023년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해외파견연구교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 〈목차〉

1. 서
2. 본
  - 1) 사피엔자 대학교 한국학 전공 현황
  - 2) 커리큘럼 분석
  - 3) 설문을 통해 본 한국학 전공 인식 조사
  - 4) ‘한류’ 강의 체험과 비교과 활동의 사례
3. 결

## 1. 서

해외 대학의 한국학 강좌 운영에 대한 현황 보고에 의하면, 한국학 운영기관은 107개국 1408개 처<sup>1)</sup>에 이른다고 한다. 이탈리아는 KF의 현황 통계<sup>2)</sup>로 볼 때, 전 세계에서 25위의 순위로 총 7개 대학에서 운영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다. 유럽 권역에서는 이탈리아가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 이어 차 순위에 드는데, 로마 사피엔자 대학의 경우, 학생 수로만 보아서 유럽에서 가장 큰 대학이고, 현재 한국학 전공 학생 수도 가장 규모가 크다. 그래서 로마 사피엔자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해외 한국학에 대한 진단은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최소한 유럽권역에서는 대표성을 떨 수 있다고 보인다.

해외 한국학의 양적인 팽창은 가히 한국학의 전성기라고 표현해도 좋을 현상인데, 수적인 성장과 맞물려 질적인 도약이 필요하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박태균 교수가 해외 한국학 연구의 질적인 도약을 논하는 제언적 성격의 논의<sup>3)</sup>를 통해 주목할 만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로부터 5-6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의 우려는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본고 역시 이러한 맥락

1) 광낙현,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대학 한국학 개설현황검토-한국국제교류재단 KF 통계 센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0(50), 한국국학진흥원, 2023, pp.431-432

2) <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Map.do>

3) 박태균, 「해외 한국학 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하여」, 『역사비평』 122, 역사비평학사, 2018 봄호, pp.2-12

에서 해외 대학의 한국학 전공을 분석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되, 인식에서 나아가 대안의 제시와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논의를 대별하자면, 해외한국학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제언의 성격을 갖거나 나라별, 혹은 대학별 특성을 분석하면서 해외 한국학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겠다. 본고는 후자의 영역에서 로마 사피엔자 대학 방문교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한국학의 현장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 논의는 그동안의 연구들이 내린 결론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지만 이탈리아에서의 한국학 전공의 최근 교육 현황이라는 면에서 업데이트된 자료와 이를 분석으로 그동안의 이탈리아 한국학 전공에 대한 새로운 자료와 분석이 제공될 것이다.

이탈리아 한국학에 대한 연구<sup>4)</sup>는 1983년 김태진의 논의<sup>5)</sup> 이후 30여 년간 7-8편 정도가 나와 있다. 초창기 연구로는 나폴리 대학에 강의 교원으로 파견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한국학 커리큘럼을 분석하거나 연구이력을 점검하는 성격으로, 2004년 김시홍의 ‘이탈리아 한국학’ 연구<sup>6)</sup>도 이런 범주에 속하는 연구이다.

보다 본격적인 연구로는 베네치아 대학에 파견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탈리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점검한 김훈태의 논의<sup>7)</sup>가 있는데, 한국학 강좌의 부족과 전문 강의 인력의 부족 등을 원인으로 들면서 한국학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에나 외국인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학 동향을 설명한 정임

4) 박병철의 연구에 의하면, 1960년대 이전의 루도비코 로젠티니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기행기나 백과사전 류의 저작물이라고 밝히고 있고, 1980년대 이전의 연구로는 그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박병철, 「이탈리아의 한국학 연구」, 『국어교육』 83권, 1994, 한국어교육학회, pp.117-118

5) 김태진, 「이태리에서의 한국학 연구」, 『용봉인문논총』 13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83, pp.179-194

6) 김시홍, 「이탈리아의 한국학」, 『이탈리아어문학』 0(15), 이탈리아어문학회, 2004, pp.25-38

7) 김훈태, 「이탈리아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어문연구』 37(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pp.465-486

숙과 김삼이의 연구<sup>8)</sup>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한국학 강좌의 다양성과 학습 자료 출판물 제작, 교수진 확대와 신예 학자 양성이라는 실질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나폴리 대학의 한국학 교원으로서 이탈리아 한국학 교육의 문제를 지적한 마우리찌오 리오토 교수의 발표<sup>9)</sup>는 K-pop이 한국학을 선택하는 입문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러한 과정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학술적으로 접근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이견 제시도 있었지만 한국문화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주목할 면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탈리아 한국학 전공에 대한 최근의 연구 논문은 2020년 로마 사피엔자 대학을 중심으로 문학 교육을 논한 양가영의 논의<sup>10)</sup>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포스트식민주의라는 시각에서 사피엔자 한국학 전공의 한국문학 교육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비판의 근거로써 피터 리의 영어 교재<sup>11)</sup> 사용, 교수자의 주입식 강의 방식, 역사주의적 작품 해석의 오류 등을 들고 있다. 방문교수로서 실제 강의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의 문학교육을 분석하고 있다는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사피엔자 한국학 전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한국학 교육, 특히 문학 교육의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양가영의 논의에 기반하되, 그러한 결과들이 현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와 교육 과정 전반으로 시각을 넓혀 한국학 전공의 운영 체계를 들여다보고, 국내 교수진으로서 해외 한국학 전공의 교육 현황에 대한 제언을 상계하고자 한다. 이 논의를 위하여 사피엔자 대학의 한국학 전공의 현

8) 정입숙, 김삼이, 「이탈리아에서의 한국학 동향과 전망」, 『한국문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9, pp.339-360

9) Maurizio Riotto, 「이탈리아에서의 한국학 교육의 몇 가지 문제」, 『제22차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제8과 자료집』, 2012, pp.513-523

10) 양가영, 「해외 대학의 한국문학 교육에서 포스트식민주의적 현실에 대한 분석-로마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9권,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2020.05, pp.117-168

11) Peter Le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황과 커리큘럼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 연구자의 강의 경험, 학생 대상 설문 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삼고자 한다.

## 2. 본

### 1) 사피엔자 대학교 한국학 전공 현황<sup>12)</sup>

이탈리아 동양학 연구소(ISO)는 2010년에 설립<sup>13)</sup>되어 2천 명이 넘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학 전공은 450명 정원으로 외국인에 15명이 배정되어 전체 인원이 거의 5백 명에 육박한다. 이는 동양학 분야의 한국학을 포함한 7개<sup>14)</sup>의 전공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수치이다. 그리고 한국학 분야의 교원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전임은 안토네타 브루노(한국어 번역 및 인류학)<sup>15)</sup> 교수가 있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상임 강사 2인 외,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전공의 다른 학과와의 겸임 교원 5인,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담당하는 계약 교수 2인이 있다.

한국과의 교류에 있어 한국학 전공은 한양대학교와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은 석사과정 중에 1년간 한국에서 수학할 수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경희대학교를 비롯한 한국 내의 여러 대학과 협정을 맺고 6개월 코스로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유럽 내의 시민대학(civic university)으로 구성된 CIVIS 프로젝트의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강의와 교원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박사과정에는 사피엔자 대학의 장학금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지원으로 현

12) 이 논문의 현황 관련 자료는, 사피엔자 한국학 전공의 Elisa Ciddar(조교), Irene Chianese(박사과정)으로부터 제공되었다.

13) 사피엔자 대학에서 동양학 학부 강좌 산하에서 한국학 강의가 시작한 시기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서, 20년이 넘는 강의 역사를 볼 수 있다.

14) ISO의 전공은 아랍어, 중국어, 힌디어, 일본어, 한국어, 페르시아어, 산스크리트어로 구성되어 있다.

15) 2024년 6월 기준, 전임교원은 브루노 교수 1인이었으나 현재 동아시아문화 영역으로 전임교원 임용 절차를 밟고 있어 조만간 2인의 전임교원이 있을 예정이다.

재 5인의 학생이 수학 중에 있고, 조교 업무 (assistant) 자격으로 학과의 전반 학사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석사 출신 2인의 졸업생이 있다. 한국학 전공의 각종 행사나 인적 보조에 있어 한국의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한국학진흥연구원의 해외 한국학 진흥 관련 사업이 관여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학 전공의 활성화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6)</sup>

2018년에는 한국의 국립도서관과 이탈리아 한국 대사관, 한국 문화원이 협정을 맺고, 사피엔자 ISO 도서관에 한국 도서 아카이브를 형성했다. 이 협정을 통하여 한국 국립도서관은 3천 권의 도서를 원년에 기증하고, 매년 250권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일정의 자금 지원으로 작가나 한국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2024년에는 드라마 작가 김은희와 배우 오정세, 기획자 장원석을 초청했는데, 한류의 영향 때문인지 이탈리아 전역에서 몰려든 관람객들로 도서관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뿐만 아니라 로마의 한국문화원과 협업하여 한국을 알리는 각종의 문화사업과 공연, 전시 등에서 한국학 전공이 중심에 놓여 있어, 대학과 지역, 대학과 민간이 연대를 공고히 하고, 한국을 알리는 침병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 2) 커리큘럼 분석

사피엔자 한국학 전공에서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거나 그들의 학습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과목은 다음과 같다.

FIRST YEAR (Total: 54 CFU)

- Korean Language and Translation I (12 CFU)

---

16) 2006, Associate professorship position, funded by KF (5 years);

- Since 2012, "Dispatched Visiting Professor Abroad Project" by AKS. Renewed upon evaluation in the years 2013, 2014, 2015, 2016, 2017;
- Since 2014, "Korean Language Interim Project" by KF. Renewed upon evaluation also for the years 2015, 2016, 2017, 2018;
- 2016, RDTA funded by KF (3 years);
- 2017, "Dispatched Visiting Professor Abroad Project" by KF

- Glottology (6 CFU)
- Linguistics (6 CFU)
- English Language and Translation (12 CFU)
- Korean Archeology and Art History (6 CFU)
- To choose from: History of Ancient and Modern China or History of Ancient to Early Modern Japan
- Additional course chosen by the student (6 CFU)

SECOND YEAR (Total: 62 CFU)

- Korean Language and Translation II (12 CFU)
-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6 CFU)
- Korean Literature (6 CFU)
- East Asian Religions and Philosophies (6 CFU)
- To choose from: Cultural Anthropology and Introduction to Tibetan Culture (6 CFU)
- Computer skills (8 CFU)
- Second language chosen by the student (12 CFU)
- Additional course chosen by the student (6 CFU)

THIRD YEAR (Total: 64 CFU)

- Korean Language and translation III (12 CFU)
- Didactics of Modern Languages (6 CFU)
- Korean Philology (6 CFU)
- English Literature (6 CFU)
- To choose from: Italian literature or comparative literature (6 CFU)
- To choose from: Archeology and Art History of India and Central Asia A, Chinese Archeology and Art History or Sinology (6 CFU)
- Additional course chosen by the student (6 CFU)
- Internship (tirocino, 8 CFU)
- Final exam (Thesis, 8 CFU)

위의 커리큘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학 전공 학생들이 학부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인 CFU(crediti formativi universitari)는 총 188 CFU로, 1 과목

당 6-12 CFU로 구성되어 있어, 한 학년 당 평균 8-9개의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졸업의 필수 요건으로는 8 CFU로 배정된 논문 쓰기과 오랄 테스트 방식의 논문 방어에 성공해야 최종 시험에 통과할 수 있고, 이것이 졸업식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일종의 세레머니가 된다.

신입생은 언어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한국학 전공의 경우, 언어학과 영어, 한국어 등이 기본이고, 2학년에서 심화된 언어 수업과 문학 수업을 커리큘럼으로 구성해야 한다. 3학년에는 영문학과 이탈리아 혹은 비교 문학 등이 포함된다. 학부 과정에서의 커리큘럼을 보면, 동양학 전공의 학생의 경우, 영어문학이 필수로 학부 과정 전체를 지배하며, 이는 이탈리아어나 문학보다 커리큘럼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어 외에도 동양의 다른 언어를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면 한국학 전공이지만 영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과 한국어 자체가 아니라 동양어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현 한국학 전공의 상황은 동양의 지역학의 한 분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학부 커리큘럼을 통해서 볼 때, 이미 세계의 언어로 통용되고 있는 영어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이후의 석, 박사 과정에서도 자국의 언어보다 영어가 상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피엔자 대학 한국학 전공의 경우, 이탈리아어, 영어, 한국어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언어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학 기반으로 이탈리아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와의 소통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학부과정에서 한국어강좌는 3학년까지 총 36 CFU인데, 한국문학은 6 CFU로 어학 대비 문학 수업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한국학 안에서도 철학과 예술사, 고고학만이 한국학 연구에 배정돼 있고, 동양학 일반 과목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커리큘럼 비중은 두 가지 시사점을 전달해 주고 있다. 하나는 해외 한국학이 언어교육에 치중돼 있어, 한국학 개설 초기의 언어 학습 위주 커리큘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한국학이 동양학의 지류로서 그 기반에 묶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피엔자 커리큘럼이 비록 어학교육에 치중돼 있긴 하지만 자체 교원이 자국어로 개발한

한국어수업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발전적으로 보여진다. 또한 한국학이 동양학의 종속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 학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공 차원의 커리큘럼 조정 작업도 이어져나가야 하리라 본다.

이탈리아의 교육과정에서 해외 지역에 대한 연구가 가장 이상적으로 도달하는 방식은 자국의 언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영어가 가장 보편적이고 빈번한 소통의 방식인 이상 그것은 이탈리아 내 학문의 영역을 세계화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학부의 모든 수업은 이탈리아어로 진행이 되며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교수자만이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부에서 영어가 필수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탈리아어를 도구로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영어 텍스트 사용에 대한 포스트 식민주의적 시각이 적용돼야 할 근거가 빈약해지는 면이 있다.

한국학 전공의 석사과정은 학부의 영어 수련을 기반으로 주로 영어로 수업이 구성된다. 다음은 석사 과정의 커리큘럼을 보자.

FIRST YEAR (Total: 54 CFU)

-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mmar, language, theory, translation, 12 CFU)
- Anthropology of Korea (CIVIS, 6 CFU)
- Universal Topics in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E-CIVIS, 6 CFU)
- History of Buddhism in Korea (E-CIVIS, 6 CFU)
- Korea visual arts in the East Asian context (6 CFU)
- East Asian Philosophies and Religions (6 CFU)
- To choose from: Linguistics, Didactics, Glottology (6 CFU)
- The students must obtain 6 more CFU by attending an internship and/or taking the Computer Skills course:

SECOND YEAR (Total: 66 CFU)

-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2 CFU)
- The students must acquire 12 CFU by taking 2 of the following

courses: Korean Topics (E-CIVIS), Korean Issues (E-CIVIS), Comparative History of th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Developmental and Educational Psychology (each 6 CFU)

- To Choose from: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Of Modern And Contemporary Japan And Korea and (6 CFU)
- Additional course chosen by the student (12 CFU)
- Thesis and final discussion in front of a selected committee (24 CFU)

[CIVIS courses offered at Sapienza]<sup>17)</sup>

- Anthropology of Korea
- History of Buddhism in Korea
- Korean Studies
- Korea issues
- Universal Topics in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이러한 커리큘럼에 기반해 볼 때, 한국학 전공이라는 범위적 특성으로 석사 과정에서는 사회, 문화 전반 영역에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학년 2학년 공히 한국어와 한국문학이 배치돼 있으며, 종교, 예술, 철학, 정치, 역사 등에서 균등하게 과목을 배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과목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2학년 과목에서 한국의 현대 문제를 짚어나감에 있어 일본과의 관계에 주목한 과목 배정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안에서 한국의 시각예술을 바라보는 과목들도 보이는데, 이는 여전히 동양의 지역학으로서 한국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과 한국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실상 방문교수 당시 내부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역시 강의 교원의 문제와

---

17) CIVIS는 유럽 전역의 선도적인 연구 고등 교육 기관 11곳(Aix-Marseille Université, 아테네 국립 및 카포디스트리아 대학교, 부쿠레슈티 대학교,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Sapienza Università di Roma, Stockholm)으로 구성된 유럽 시민 대학 연합이다. University,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y of Glasgow, Paris Lodron University of Salzburg 및 University of Lausanne, 470,000명 이상의 학생과 35,000명의 학자 및 연구원을 포함하여 58,000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고 있다.

한국을 이해하는 시각의 문제, 두 가지 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다음은 석사과정에서 사용한 한국 문학 교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부과정과는 달리 문학 관련 과목이 독립적으로 배치돼 있고, 언어와 문학을 아우르는 과목도 있어서, 한국문학에 대한 수업 비중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해외 한국학에서 어떤 텍스트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며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23년도와 24년에 걸쳐 사용된 소설 목록을 들여다보았다.

- 이청준, <예언자>The Prophet <이어도> Ieoh Island
- 한강 <채식주의자>The Vegeratian <소년이 온다> Human Acts
- 황석영 <손님>The Guest
- 이정명 <별을 스치는 바람>The Investigation
- 신경숙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I'll Be Right There
- 조남주 <82년생 김지영>Kim Jiyoung, Born in 1982
- 정유정 <종의 기원>The Good Son

해외 한국학 전공에서, 문학 텍스트로 선택되는 교재는 번역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사피엔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 이탈리아어 번역은 차치하고라도 영어로 번역된 작품의 경우, 절대적인 텍스트 선정의 조건이 된다. 지난 2년에 걸쳐 사피엔자에서 선택된 소설의 경우도 영어 번역의 유무가 결국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연구자가 주목한 것은 한국어를 교육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문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과목으로 한국의 문학을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학 전공에서 한국어로 된 원전 소설을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한국어 소통의 일상적 수준을 넘어서 문학은 은유와 상징, 배경 지식 등 고난도의 한국어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다. 한국문학의 번역 작업이 활발하지 않던 시절의 해외 한국문학은 고전문학이나 근대문학 시기의 작가들과 그들의 단편 소설이 주류였던 시절이 있었다. 사피엔자의 텍스트 목록을 보면 동시대의 주목할 작가들의 대표작들을 볼 수 있는데, 해외 한국학의 문학교육이 진일보했음을 볼 수 있다. 단지 한국 문학의 양적인 범주

에서 이들 작품은 최소한으로 추려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번역의 기회를 갖지 못한 한국의 대표적인 작품들도 다수가 존재하고 있으니 말이다. 여기서 우리 문학의 번역작업이 해외 한국학의 커리큘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소설의 경우는 이렇하고, 시의 경우, 피터 리의 저서<sup>18)</sup>를 기반으로 하는데, 해외 한국학에서 아직 이 저서를 능가할 영어 교재가 나오지 않은 현실이다. 앞서 양가영이 그의 논문에서 피터 리의 교재가 갖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지만 현실적 방안에 있어 대안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시의 경우는 소설에 비해 고난도의 언어적 능력이 필요하다. 초월 문법, 조어로 이루어진 시어 등 일상적인 언어 형태를 벗어난 것이 시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자국어로 이루어진 시의 이론서나 시 작품의 번역 등이 교육 텍스트로 사용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시간과 물적인 역량의 투입 등 많은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게 실상이다.

유럽 지역 한국학 전공의 문학 교육을 연구한 몇몇의 논문을 보면, 문학이 문화교육을 위한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을 문학교육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한국 문학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교육에서 나아가 문학을 문학 자체로 교육해야 한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하는데, 슬로베니아 한국학을 연구한 한 논문<sup>19)</sup>은 한국어가 없는 한국문학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여 해외 한국학의 한국문학 교육의 모델로서 긍정적인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5년의 한국 문학 교육이지만 현재 해외 한국학의 문학교육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교육 모델로 보여진다. 한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한국 문학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영역<sup>20)</sup> 한국 문학을 교재로 삼아 학생들이 직접 독해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해외 레지던시

18) Lee Peter H. 앞의 책

19) 강병용, 「슬로베니아에서의 한국문학 교육 방안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May 31, 2016, 한국어문학 국제 학술 포럼, 2016. pp.76-83

20) 이 당시 슬로베니아 대학에서 사용한 교재는, 『바이링겔 에디션 한국 현대 소설 세트 전 15권』(2012, 아시아 출판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프로그램으로 파견된 작가들을 심분 활용해 작가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에 선정되어 문학교재개발도 해나갈 방침이라는 것이다. 문학 커리큘럼과 한국의 문화 지원 시스템의 양자의 면에서 해외 한국학의 이상적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고 판단되며, 이 연구에서 해외 한국학 발전을 위해 제안한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피엔자 대학의 석사과정 문학교재는 이미 10년 전의 슬로베니아 대학의 교재에서 시기적으로 앞당겨져 보다 젊고 트렌디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그 사이 한국 문학의 번역 사업이 진전되고 다양화된 여파일 수 있다. 여기서 사피엔자 대학 문학 교육에 더 바랄 것이 있다면, 이탈리아어로 된 문학 교재 개발에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는 교재 개발과 더불어 이탈리아어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원의 확충과도 맞물리는 문제라 장기적인 교육 계획과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인다.

2024년도 시점 사피엔자 한국학 전공에는 문학 관련 두 개의 논문이 준비되고 있다. 하나는 ‘Literature through psychology and colors: the case of Han Kang and Jeong you Jeong’(색채와 철학으로 본 문학-한강과 정유정의 경우)과 하나는 ‘Web Sosol, an international reader’s perspective’(웹소설, 국제 독자의 수용 미학을 중심으로)이다. 이러한 논문이 석, 박사 과정에서 연구 과제로 선택된다는 것은 문학 교육이나 학생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분석력이 과거 해외 한국학과는 다르게 진전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이러한 현대 문학 작품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깊이 있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고찰은 아직 숙제로 남겨져 있는 문제이며 향후 발전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sup>21)</sup>

다음은 박사과정 커리큘럼을 보자.

#### FIRST YEAR:

---

21) 사피엔자 대학의 한국문학 교육은 이탈리아 한국학 전공의 전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개별 교수자의 강의 방식이 차별적일 수 있음을 밝히고 싶다.

- Introduction to the Doctorate in Asian and African Civilizations (2 CFU)
- Introduction to Research: Sources and Methods of Bibliographic Research (2 CFU)
- Oriental Studies and Digital Humanities (4 CFU)
- Theoretical–methodological lectures on humanities disciplines relevant to projects (6 CFU)
- Study group: theoretical–scientific essays at the discretion of the instructors (2 CFU)
- Seminar lectures on curriculum (2 CFU)
- Reading group and public speaking in the field of Oriental studies (2 CFU)
- Tutoring and integrative teaching activities pursuant (5 CFU)
- Language enhancement activities: one oriental language of choice (12 CFU)
- Participation in conferences or seminar meetings proposed by the doctoral candidate (3 CFU)

SECOND YEAR:

- Research Evaluation System, Research Valorization, and Open Science (2 CFU)
- Oriental Studies and Digital Humanities (4 CFU)
- History of Oriental Studies: Schools, Currents, Personalities, "Orientalisms" (2 CFU)
- Advanced Course in Public Speaking and Academic Writing (8 CFU)
- Writing a doctoral thesis, writing a scientific article: method lessons (2 CFU)
- Study group: theoretical–scientific essays at the discretion of the instructors (2CFU)
- Tutoring and integrative teaching activities pursuant (4 CFU)
- Participation in conferences or seminar meetings proposed by the doctoral candidate (4 CFU)
- Seminar lectures on curriculum (2 CFU)
- International Doctoral Networking: Annual Symposium on Asian and African Studies (8 CFU)

THIRD YEAR:

-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s, Career Development, and Job Placement (2 CFU)
- History of Oriental Studies: Schools, Currents, Personalities, "Orientalisms" (2 CFU)
- Organizing a Conference: Managerial and Scientific Aspects (2 CFU)
- Writing a Scientific Article: From Drafting to Revision (8 CFU)
- International Exchange and Networking: Annual Doctoral Symposium on Asian and African Studies (2 CFU)
- Seminar Lectures on Curriculum (2 CFU)
- Tutoring and Integrative Teaching Activities pursuant to DM 45/2013 (4 CFU)
- Participation in Conferences or Seminar Meetings proposed by the Doctoral Candidate (6 CFU)

박사과정의 커리큘럼은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보인다. 하나는 박사논문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양학 카테고리와 관련된 것이다. 논문 관련해서는 세미나와 심포지움 참석, 논문 튜터링, 그룹 스터디 등의 과목이 박사과정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사과정에서는 국제적인 교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세미나들이 있고, 논문 리서치와 자신의 주제를 심화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학점화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교수나 박사과정 학생의 입장 모두, 그들의 수업 안에서 논문을 지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학이라는 범위가 넓어서, 자체 교원으로 논문 지도가 불가능할 수가 있는데, 외부에 지도교수제를 열어두고 주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매우 고무적으로 보였다.

더불어 박사과정에서 한국학 관련 과목이 배제돼 있다는 면을 주목해 보았다. 모든 과목이 동양학 범주로 특정화 되어 있었다. 동양어나 동양사를 선택하여 발전시키는 과목은 학부 시절부터 최고 과정인 박사학위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온 커리큘럼이다. 이러한 동양학 범주가 학부나 석사과정에 비해서 박사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커리큘럼의 특성으로, 이탈리아 한국학이 추구하는 한국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한국학의 최고 과정에서 한국학 과목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앞선 논의에서도 수차례 언급했지만 해외 한국학 발전을 논하는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학적인 현실이 그것인 것이다.

### 3) 설문을 통해 본 한국학 전공 인식 조사

다음은 사피엔자 한국학의 커리큘럼을 통해본 위와 같은 현황 파악에 기초하여 실제 학생들의 입장은 어떤지 설문 방식을 시도해 보았다. 교육의 기능과 효과는 수요자인 학생이 가장 체감하는 영역으로 현황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설문에 답을 한 학생 수는 12명(학부 6명, 석사 5명, 박사 1명)으로 수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자유롭게 설문에 임하는 방식으로 대표성을 떨 수 있으리라 가정하며 분석에 접근했다.

설문의 내용은 총 8가지로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학 전공을 택하게 된 동기부터 전공학부에 요청되는 개인적 소견까지 폭넓게 구성해 보았다. 설문의 항목<sup>22)</sup>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22) 설문은 영어로 제시되었다.

1. Why did you decide to major in Korean Studies? How did you learn about it?
2. Do you think you chose Korean Studies well?
3. What was/is your favorite subject, among culture and literature topics, while majoring in Sapienza?
4. Do you think literature or culture classes are lacking in understanding Korea? Do you think it's enough?
5. What kind of class do you want?
6. As a Korean Studies student, do you think the exchange with Korea is going well?
7. What do you want foreign students to do in terms of the Korean government or education policy?
8. Feel free to describe your major in Korean studies or what you want to say about Korea.

Thank you.

2. 한국학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가?
3. 사피엔자 한국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었나?
4. 문학이나 문화 수업이 한국을 이해하는데 충분하다고 보는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나?
5. 문화 교육에서 어떤 수업이 듣고 싶은가?
6. 한국학과 학생으로서 한국과의 교환, 교류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7. 외국 학생으로서 한국 정부나 교육 정책 측면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8. 한국학 전공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해 보세요.

한국학을 전공으로 택하게 된 동기를 묻는 1번의 경우, 다소 예상되는 방향이기는 했으나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째는 동양학으로써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미 있었다는 것과, 둘째는 한국 드라마와 K-pop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과거에 일본학이나 중국학에 비해 선택이 많지 않았던 한국을 택하고 싶었다는 답변이 흥미로웠는데, 서양의 관점에서 동양의 학문을 아직은 미지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과, 이탈리아에 있어서 한국과의 교류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역사가 길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또한 한류의 인기를 세계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2번의 선택이 지배적인 것이라 예상했으나 대체적인 흐름은 아니었다. 이는 연구자가 실제 수업에서 거수 방식으로 3-40명의 학생들에게 즉흥적 질의를 했을 때도, 드라마나 한국 가요에 대한 관심이 동기라고 답한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경험이다. 이것은 대학에서 전공을 택할 때 한류가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어에 대한 학습 욕구를 자극하기는 했을지언정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국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2번의 질의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주목해 볼 수 있었다. 물론 만족과 불만이 5:5 정도의 비율이었으나 불만의 경우 그 원인으로 한국어 수업에 대한 결핍감과 시스템의 문제, 졸업 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등을 보였다. 이 질의는 8번의 자유 기술과 연결되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커리큘럼과 교원의 양 측면으로 언급되었다. 학생들의 요구도나 기대에 비해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의 부족과

모국어로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교원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화나 문학의 요구도를 묻는 3번이나 5번의 항목에서 보인 답을 보면, 한국의 예술, 문학, 역사, 철학, 인류학 등에서 보다 깊이 있는 강의와 과목에 대한 증설 요구를 드러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관심과 과목의 배치, 한국 고대사에 대한 관심도 다수 있어서 주목해 볼 수 있었다. 북한의 정치 체제는 한국을 전체로 이해하는 한국 밖의 시각을 볼 수 있고, 학문과 분석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매우 관심 있게 바라보는 지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남북의 정치적 고려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 한국학 입장에서든 용이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학 전공에 있어서 문화나 문학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고, 그런 만큼 요구도가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측면에서 매우 호불호가 강하여 한국학 전공 과정에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적 기회를 아주 높게 평가하는 반응도 두드러졌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문화교류 행사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었던 경험이나 한국에서 복수 학위 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은 이를 매우 좋은 기회로 평가했고, 그것이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게 된 보람과 자긍심으로 연결된다는 반응도 보였다. 교환 학생 교류 경험에는 부정적 인식도 있었는데, 사전 정보의 부족과 선택의 폭, 기회가 적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했고, 한국 정부에 비자 취득 과정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학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입장을 접해 본 이와 같은 설문 결과는 한국학 커리큘럼에 기본적으로 배치돼 있는 과목과 운용 현황과의 격차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이 보이는 가운데, 특히 문화나 문학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교과를 포함한 다양한 교과목의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과목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문화라는 광범위한 과목 수용의 어려움과 이에 대처하는 강의 가능 교원의 확보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은 자명하다. 문학 수업의 경우도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거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분야 임에도 그 전문적 깊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양해되지만, 현재 상황처럼 비정기적인 초청 인사 행사나 로마 지

역 공동체, 한국 문화원, 대사관 차원의 각종의 행사나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의 확장을 통하여 학생들의 체험의 기회를 확장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피엔자 대학 차원에서 나아가 한국 정부나 협력 기관의 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한류’ 강의의 체험과 비교과 활동의 사례

다음은 본 연구자가 사피엔자 대학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사례와 비교과 활동으로 이루어진 박사과정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 사례는 정기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범위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활동이 해외 한국학 교육에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를 보고자 했다. 또한 방문교수의 경험으로 체득한 결과, 이러한 형태의 교육 활동이 문화교육의 측면에서 결핍을 느끼는 사피엔자 한국학 전공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해외 한국학 전공에 대한 확충의 필요성은 물론 해외 한국학이 자체 발전을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리라고도 보았다.

지난 2023년 사피엔자 대학의 방문교수 신분으로 4회에 걸쳐 진행한 강의는 CIVIS 강좌로 ‘Anthropology of Korea’ 과목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10월에서 12월에 걸쳐 진행된 이 강의에서 여러 개의 주제가 펼쳐지는데, 실제 수업 과목명인 한국 인류학은 담당 교수의 전공명일 뿐 실제 강의는 ‘한류’ ‘북한의 문화와 사회’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담당한 주제는 ‘한류’였고, 구체적으로는 ‘한류 드라마- 멜로에서 장르물로의 변화 읽기’였다. 한류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는 식상한 면이 있어서 피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외국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이지만 한류 드라마의 장르 변화에 대한 통시적인 접근 방법을 보여주려고 했다. 마침 ‘오징어게임’ ‘킹덤’ 같은 OTT 용 드라마가 한류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고, 2022년도에 이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사피엔자에서 펼쳐진 경험이 있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다.

이를 입증하듯이 2024년도에는 한국국립도서관의 해외 한국자료실 조성 사업(행사명: Window in Korea)의 일환으로 초청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장르물에 있어 대표적으로 알려진 김은희 작가와 배우들이 성황리에 초청행사를 치르면서 유례없는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이 한국학의 진흥을 위해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강의의 의의는 한국학 전공에서 CIVIS 강좌가 어떻게 열리며, 이것이 한국학 교원과 강좌의 부족이라는 문화교육의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형태라는 점이다. 한국의 강좌가 지니고 있는 절대적인 고정성, 다시 말하면 한 과목, 한 교수라는 절대적 범주의 강좌 형태가 CIVIS 강좌에서는 매우 유연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피엔자를 벗어나 나아가 유럽시대 학이라는 CIVIS 소속 대학들의 교류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학이 전반적으로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EPEL 프로그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효과로, 한국학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발전적인 학제 프로그램으로 여겨진다. EPEL은 유럽 교수 교환프로그램으로 매년 유럽인 학자들을 초청해 자신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특정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한국 문명이라는 과목으로 정식으로 학점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브루노 교수는 ‘강사진과 재원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EPEL 프로그램은 한국학 강좌를 풍부하게 만들었고, 한국학 학문의 전반적인 질도 향상시켰다’고 자평하고 있다.<sup>23)</sup>

2024년 2월의 ‘INTENSIVE ACADEMIC SEMINAR (IAS) OF KOREAN STUDIES YOUNG SCHOLARS’는 한국학 중앙연구원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sup>24)</sup> 행사의 일환으로 박사 과정 학생들의 논문과 이를 지도하는 교수가 연결되어 일주일간 발표 릴레이를 펼쳤다. 논문 발표에 지원한 학생과 튜터링에 참여하는

23) 안토네타 브루노, 「라 사피엔자 로마대학교의 한국학」, 『KF 뉴스레터』 Vol 39, KF 한국국제교류재단, 2007.5

24) 사피엔자 한국학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에 선정되어, ‘사피엔자 한국학 이음 프로젝트: 한국학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 라는 주제로 2023년에서 2028년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

교수들 모두 전 세계에서 한국학 관련 연구와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자들이었다. 학생뿐만 아니라 튜터링에 참가한 교수들도 자신의 연구에 대하여 기초 발표를 하였고, 연결된 논문의 지도와 라운드 테이블까지 이어지는 매우 집중화된 연구발표의 장이었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한국 시나리오 작가 연구와 의의’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튜터링은 사피엔자에서 박사논문으로 준비 중인 Irene Lustrissimi의 ‘Web Sosol, an international reader’s perspective’와 Antonella Gasdia의 ‘Literature through psychology and colors’가 배정되어 튜터링과 라운드테이블로 이어지는 과정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물론 CIVIS 강의처럼 정규 교과목의 범주는 아니었지만 청중으로 참여한 사피엔자 한국학 학생들과, 관심 있는 타 전공 학생들 모두 한국에 대하여 심도 있고 전문적인 식견을 얻는데 유효했던 행사였고, 또한 한국학 진흥에 우호적인 교류의 장이 되었다. 튜터링에 참석했던 교수자의 시각으로 본 IAS 행사는 한국학 범주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는지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는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 그 방향성이 어디인지를 진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대한 결론은 한 마디로 ‘다양성’이었다. 대중문학, 음악, 해외 매스미디어에 비친 한국인, 역사, 무속, 불교, 한국어 고어 분석, 북한의 현대 미술, 한국 거버넌스의 문제, 색채로 보는 한국 문학, 북한 중산층의 성장과 발전 등 한국 전반을 통시와 공시적 시각이 교차되며 연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된 것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연구 주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해외 한국학 범주의 외국 학생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에 머무르는지를 주목하게 되는 계기였다. 그래서 북한 소재를 터부시하기보다는 연구의 중심 주제로 삼아 한국에서도 전문가를 파견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사피엔자 한국학 교과과정에서는 매년 한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콘퍼런스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관련 분야의 학자, 예술가, 전문가를 만나 토론하는 방식의 비교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적인 행사들이 커리큘럼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전문 지식을 고양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방문교수 시기에 사피엔자 한국학에서 주도한 각종의 문화행사는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소속 학생들의 도우미 참여를 통해 한국학 전공자로서의 자부심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앞서 학생들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일 년에 수차례 치러지는 국악 공연, 한국 음식 체험과 홍보, 한국의 드라마 관련 행사, 외교 관련 행사 등은 한국학 전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문화교육의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 6. 결

이탈리아 한국학 전공에서 테뉴어 교수직이 처음 설치된 대학이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이다. 해외 한국학 전공의 이러한 성과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사피엔자 대학이 서로 소요경비를 부담한다는 협약이 있는 후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피엔자 대학 한국학 전공을 대상으로 하는 이 논문의 제언적 결론에서 시사하는 바이며, 해외 한국학의 발전을 위하여 고려해 봐야할 지점과 맞물려 있다. 해외 한국학을 위하여 한국의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러한 실상을 이 연구에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문학을 포함한 문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사피엔자 한국학 전공은 과거의 한국학에서 진일보된 면을 보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드러나는 결핍감들을 해소할 커리큘럼으로서는 문제적인 면이 분명히 보였다. 강의 커리큘럼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측면은 대부분 전문 교원의 부족과 재정적 여력이라는 지점으로 귀결되는데, 이는 전 세계의 한국학 전공이 처한 유사한 현실로 보인다. 그러나 사피엔자 대학의 경우, CIVIS 강좌나 EFEL 프로그램,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이나 문화원, 대사관 차원의 각종 교류 행사와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한국 알리기 행사 등을 통해 이러한 결핍을 많은 부분 해소하고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대학 차원에서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한국을 알리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과목에 따라서는 오픈 강의실을 열어 한국을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학제적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다. 여기에 한국 대학과의 협정을 통한 교환 프로그램 등이 한국을 더 가까이 느끼는 계기가 되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듯 한국 대학

을 체험해 본 학생들의 행정적, 절차적 문제 인식과 요구도 분명히 존재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현실은 한국학 전공 학생들의 관심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데, 보다 유연한 시각에서 정부나 기관의 유연한 인식과 강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보다 세부적으로 문학교육으로 들어가 한국문학의 번역과 보급 작업이 해외 한국 전공의 질적인 수준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볼 수도 있었다. 이미 외국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국 내에서도 첨단 분야로 보이는 영역까지 소재를 넓혀가는데, 이 과정에는 영어로 된 자료와 번역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해외 한국학은 오늘날 한류의 영향으로 강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문화의 영향권 하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양학 범주의 지역학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피엔자의 경우, 한국보다 오랜 지원과 학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등과의 경쟁 하에서 대학 차원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동시에 5백 명에 달하는 학생 정원으로 동양학의 선도 자리에 있음에도 아직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임교원의 확충과 같은 문제에서도 해당국에 점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결과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나가고 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해외 한국학 지원에 환기 되는 면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

## ◆ 참고문헌

### 1. 논문

- 강병용, 「슬로베니아에서의 한국문학 교육 방안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May 31』, 2016, 한국어문학 국제 학술 포럼, 2016, pp.71-87.
- 곽낙현, 「한국 국제교류재단 해외대학 한국학」 개설 현황 검토-한국국제교류재단 'KF 통계센터'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제50집, 한국국학진흥원, 2023, pp.431-465.
- 김동택, 「한류와 한국학-해외 한국학 현황과 지원 방안」, 『역사비평』 2006년 봄호, 역사비평사 2006, pp.213-240.

김시홍, 「이탈리아의 한국학」, 『이탈리아어문학』 0(15),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04, pp.25-38.

김태진, 「이탈리아에서의 한국학 연구」, 『용봉인문논총』 13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83, pp.179-194.

김효신, 「이탈리아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 『이탈리아어문학』 제55집,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18.12, pp.1-56.

김훈대, 「이탈리아 韓國語教育의 現況과 課題」, 『어문연구』 37(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pp.465-486.

박병철, 「이탈리아의 韓國學 研究」, 『국어교육』 83권, 한국어교육학회, 1994.6, pp.177-200.

박태균, 「해외 한국학 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하여」, 『역사비평』 2018 봄호, 역사비평사 2018.2-12, pp.2-12.

양가영, 「해외 대학의 한국문학 교육에서 포스트식민주의적 현실에 대한 분석-로마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9권, 한국어문학 국제학술포럼, 2020.05, pp.117-168.

정광, 「해외 한국학 연구의 현황과 그 지원의 효율성 연구」, 『이중언어학』 제19호 이중언어학회, 2001.11, pp.1-52.

정임숙, 김참이, 「이탈리아에서의 한국학동향과 전망-시에나 외국인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Vol 3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9 ,pp.339-360.

Maurizio Riotto, 「이탈리아에서의 한국학 교육의 몇 가지 문제」, 『제22차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제8분과 자료집』, 2012, pp.513-523.

논문접수일	2024년 8월 7일
심사완료일	2024년 8월 26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9일

*Abstract*

---

A study on cultural education curriculum and teaching metho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majors  
-Focusing on the Korean studies major at La Sapienza University-

Oh, Youngmi

Based on the experience of visiting professors,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overseas Korean studies and make developmental suggestions by analyzing the curriculum, cultural education, and various comparative activities of the Korean Studies major at Sapienza University in Rome.

The direction of the discussion was to examine their curriculum, conduct a survey of students to examine their thoughts in terms of the category and interdisciplinary system of cultural education, and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comparisons and activities due to lectures experienced as visiting professors and various support projects.

As a result, the lack of professional lecture teachers and financial capacity are affecting the curriculum composition as a reality of overseas Korean studies, but various support projects and comparison and activities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as a way to solve them. Based on this, the plan to apply for overseas Korean studies in Korea is to expand various financial support projects and provide practical help in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publishing English textbooks, and even local textbooks. Researchers who have already experienced overseas Korean studies have already concluded this suggestive conclusion, but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in looking at how such a process works in the field such as the Sapienza University of Rome.

**Keyword**

Overseas Korean Studies, Sapienza University in Rome, Korean Culture Education, European Korean Studies Major,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 乡土观念的形成与先唐诗歌的“故乡”写作

黄卓颖\*

### 국문요약

법가(法家) 및 진한 통일 왕조가 실시한 ‘금유(禁游)’와 ‘지저(地著)’ 정책과 그 결과로 인해 장소애(戀地)라는 정서가 촉발되었다. 또한 『시경』에서의 ‘회귀(懷歸)’ 및 유가(儒家)의 혈육에 대한 강조로 인해 사람에 대한 그리움(戀人)의 정서가 부각하게 되었다. 나아가 한 나라 이후 여러 지방의 다양한 측면과 각도의 글쓰기를 통해 지방 풍속에 대한 그리움(戀土風) 정서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정서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중국 고대 초기의 향토관념과 ‘고향’이라는 정서의 근간이 되었다.

향토관념은 일종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총체적 힘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 관념은 ‘고향’이라는 새로운 제목과 시체를 구성하는 새로운 소재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향토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戀本)’ 정서 그리고 나그네(游子)가 멀리 떠난다는 생존 본연 사이에는 일종의 긴장감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긴장감은 ‘나그네가 고향을 슬퍼함(游子悲故鄉)’이라는 보편심리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보편심리가 ‘고향’ 글쓰기에 영향을 미쳐감에 따라 여러 주제 집합의 생성, 공간 및 경관에 대한 묘사와 경험, ‘멀리서 바라보는(望)’ 심상이 어루어져 ‘이비위미(以悲爲美)’라는 시학 패러다임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는 중국 고대의 최초의 향토문학 양식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양식은 표준적인 전통의 원천으로서 현 당대 향토소설과 ‘애가시인(哀歌詩人)’의 심미와 창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주제어** 향토관념(乡土观念), 장소애(恋地), ‘고향’글쓰기, 이비위미(以悲为美), 선당 시가

\* 南京师范大学 文学院, 中国古代文学, 副教授

## 〈目次〉

1. 引言
2. 恋地：从法家“禁游”到秦汉时期的地理书写
3. 血亲之爱与恋人传统
4. 从郡国书到都邑赋：地方叙事的土风之恋
5. 先唐“故乡”写作的诗学形态
6. 结语

## 1. 引言

作为一个典型的乡土社会，中国“乡土”的观念结构、意识形态分布与文化效应在目前学界中已得到了较为充分的研究，但总体而言，成果主要偏向于现当代文化与文学。<sup>1)</sup>由此带来一个较为严肃的问题：如果我们缺乏充分的“古典”视角，特别是若不能从源头上揭示乡土观念与“故乡”情怀的饱满内涵及形成过程，包括其在早期文化与文学领域的拓扑，则后世的“乡土”阐释能否葆有认知的连续性与“传真”性？显然，这是值得怀疑的。因此，对乡土观念的起源式探讨，就不仅是一个具体学术问题的研究，更涉及文化阐释结构的系统架建。而要完成这一任务，则必须回归先唐文本，因为有关乡土观念的建构过程、圆满内涵及其对文化领域的深广影响，均包括在其中。

在讨论乡土观念与“故乡”情怀如何影响文化发展特别是调控文学写作之前，我们有必要先对其观念内涵及生成过程做一番详细考察，起点是两首风土诗，其一是陆机为故乡吴郡所作的《吴趋行》：

楚妃且勿叹，齐娥且莫讴。四坐并清听，听我歌吴趋。吴趋自有始，请从阊门起。

1) 文化方面自费孝通《乡土中国》、《乡土重建》等以后，又有贺雪峰《新乡土中国》、《在野之学》、杨华《陌生的熟人》、《乡争》等成果，而文学领域则以丁帆主编“中国乡土小说研究丛书”系列专著与廖斌《现代转型体验：新世纪乡土文学研究》、韩鲁华《当代新乡土文学叙事比较论稿》、夏子科《20世纪中国乡土文学综论》等为代表。

闾门何峨峨，飞阁跨通波。重栾承游极，回轩启曲阿。蔼蔼庆云被，泠泠祥风过。山泽多藏育，土风清且嘉。泰伯导仁风，仲雍扬其波。穆穆延陵子，灼灼光诸华。王迹隳阳九，帝功兴四遐。大皇自富春，矫手顿世罗。邦彦应运兴，粲若春林葩。属城咸有士，吴邑最为多。八族未足侈，四姓实名家。文德熙淳懿，武功侔山河。礼让何济济，流化自滂沱。淑美难穷纪，商榷为此歌。<sup>2)</sup>

另一首则是谢灵运《会吟行》，同样涉及故乡会稽的吟咏：

六引缓清唱，三调仁繁音。列筵皆静寂，咸共聆会吟。会吟自有初，请从文命敷。敷绩壶羹始，刊木至江汜。列宿炳天文，负海横地理。连峰兢千仞，背流各百里。滌池溉粳稻，轻云暖松杞。两京愧佳丽，三都岂能似。层台指中天，高墉积崇雉。飞燕跃广途，鷁首戏清沚。肆呈窈窕容，路曜便娟子。自来弥世代，贤达不可纪。句践善度兴，越叟识行止。范蠡出江湖，梅福入城市。东方就飘逸，梁鸿去桑梓。牵缀书土风，辞殫意未已。<sup>3)</sup>

据晋人崔豹所言，《吴趋行》乃“吴人以歌其地”的作品，<sup>4)</sup>“吴人”说明其传唱具有一定的时空幅度，“歌其地”则揭示了其聚焦本土的写作意图。因此，尽管陆机或许并非此诗体与诗题的始创者，但作为一个深受诗歌与地方文化传统浸染的吴人，其《吴趋行》对于“某人歌某地”的风土写作惯例，以及这一写作中所蕴含的“故乡”元素的呈现，必然有着充分的自觉。如再配合“其致与《吴趋》同”的《会吟行》来看，<sup>5)</sup>这一诗体的程式化展开便更为清楚了：在一个音乐的场景上，诗人首先通过本土的地方曲调召唤观听者的注意，然后以“初”、“始”作为提点切入到对乡土的歌咏，经过一番淋漓的铺叙之后，再结以“美难穷”、“意未已”，在意犹未尽的语气中衍生着乡土的魅力与观听者的想象。两首诗完全相同的写作模式固然可以引发我们对“故乡”所具有的文学生产力的思考，但在此处，更有意味的是两首诗歌主体部分有关乡土内容的描写：《吴趋行》依次提到了宫室与建筑、风候与物产、先贤与风教、帝业与人

2) 杨明《陆机集校笺》，上海：上海古籍出版社2020年，385—386页。

3) 郭茂倩《乐府诗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8年，712页。

4) 同上，711页。

5) 同上，712页。

才（其中四姓、八族又直接关涉到陆机的宗族、姻亲与友朋）；而《会吟行》除了略变其次序、稍增其名目外，基本与前者相同，其所咏叹的依次为地理、景观、物产、宫室、交通、美人、先贤。在这些不同的名目之中，地理、景观可以归为一类，总属于“地”的范畴，而宫室、建筑、风候物产与先贤风教则可以总归于“土风”之中，至于“人才”（宗亲、友朋）与“美人”，则显然属“人”的范围，因此，从最能显现“故乡”圆满内涵的风土诗来看，乡土观念在晋、宋时期已经稳定地包含了人、地、土风三个主要元素。问题在于这些元素是如何历史地参与到乡土观念与“故乡”情怀的建构当中的？当它们成形与联结之后，又是如何影响先唐文化与文学的书写与表述的？此即本文重点关心与探究的问题。

## 2. 恋地：从法家“禁游”到秦汉时期的地理书写

毫无疑问，乡土观念与“故乡”情怀的产生，必须以一块与个体发生关联的特定地理单元的存在为前提，也即是说，只有人、地结成稳定的对应关系之后，乡土观念与“故乡”情怀才有可能出现。但是在早期的分封社会中，奴隶、佃农、家臣对领主的人身依附与贵族家族成员对姓氏与宗族的血亲依附均极大消解了“地”对个体的意义。即使春秋以后四民社会流行，“农”已占据重要的一席，但是作为“游食之民”的“工”与“商”的大量存在，以及社会对其存在的普遍承认与接受，<sup>6)</sup>依然使得人、地之间裂壑巨大。真正在历史上第一次认识到“地”对人的固定作用，并自觉用以建构人对地的依附关系的是法家及其忠实实践者秦国，而首开风气的人物则是商鞅。

在论及“国乱而地削，兵弱而主卑”的根源时，商鞅曾以一言道明了其症结，即“游食者愈众”。<sup>7)</sup>他所谓的“游食者”，不仅包括逐利游徙的工贾，在“土

6) 如《国语·齐语》曰“昔圣王之处士也，使就闲燕；处工，就官府；处商，就市井；处农，就田野”，《左传》宣公十二年说“商农工贾不败其业，而卒乘辑睦，事不奸矣”，

《谷梁传》成公元年称“古者有四民，有士民，有商民，有农民，有工民”，这些涉及到四民的早期言论均不见对“工”“商”的批评，相反，在一种看似对社会结构与治国策略的客观陈述中，郑重纳入“工”“商”，反而见出对其地位与作用的承认。

几乎没有不游的”的战国时代，<sup>8)</sup>也指向了事《诗》《书》之业的“言谈游士”。<sup>9)</sup>这些人要么避农战，要么“从事于谈说，高言伪议”，在社会上形成一种“轻其居”、“轻其君”以“浮学事淫”的风气，结果是使国家陷入无法“抔民力以待外事”的险局。如果民力不抔，则耕战无从谈起，而国之贫危破亡当然可翘足而待。<sup>10)</sup>因此，在商鞅看来，游食之民必须加以管控，使其“壹于农”而“事地利”，<sup>11)</sup>具体措施一是禁游，通过颁令国中，使“游居之事皆无得为”；<sup>12)</sup>二是总统“竟内仓、口之数，壮男、壮女之数，老、弱之数，官、士之数，以言说取食者之数，利民之数”，通过类举“民众口数，生者著，死者削”的编户策略，使其附属于一地，“无得擅徙”。<sup>13)</sup>通过这两种举措，商鞅基本上达到了将一国之民以“地著”的形式固定在土地上的目的。此后，韩非子论国家乱政，亦明确指斥工、商、游侠、游学者为“四蠹”，认为明王治国，必“使其商工游食之民少而名卑，以寡趣本务而趋末作”，在对待“游民”的问题上，可以说完全延续了商鞅“禁游宦之民而显耕战之士”的立场。<sup>14)</sup>法家这种通过“禁游”（以及建立在“禁游”基础上的编户）造成“地著”的理念，无论从“尽地力之教”的经济效益看，还是就抑制流动与不确定性的社会管控效果而言，均给国家行政特别是大一统政权的运作带来启发，故秦在统一六国的前后，其法律建设，就包括“禁游”的重要内容，如睡虎地秦墓竹简载《游士律》一条，明确规定：“游士在亡符，居县贲一甲，卒岁责之。”又说：“有为故秦人出，削籍，上造以上为鬼薪，公士以下刑为城旦。”<sup>15)</sup>前者言外国在秦的游士如无通行之符，一经查明，必罚购一甲之钱。后者则规定凡秦人外游者，除削籍之外，尚需承受轻

7) 蒋礼鸿《商君书锥指》，北京：中华书局2001年，131页。

8) 余英时《士与中国文化》，上海：上海人民出版社1987年，78页。

9) 蒋礼鸿《商君书锥指》，北京：中华书局2001年，46—47页。

10) 同上，25页。

11) 蒋礼鸿《商君书锥指》，北京：中华书局2001年，129页。

12) 同上，15页。

13) 同上，13页、32页、34页。

14) 王先慎《韩非子集解》，北京：中华书局2006年，97页。

15) 云梦秦简整理小组《云梦秦简释文（二）》，《文物》1976年7月，9页。

重不等的刑罚。两相比较，秦国对秦人外游惩罚尤严。而在另一组秦简中，亦有类似记载：“臣邦人不安其主长而欲去夏者，勿许。可（何）谓夏？欲去秦属，是谓夏。”<sup>16)</sup>此条律法中，秦国以夏自称，言去夏勿许即是禁止秦人外游之意。此后，法家与秦国对“游”的防范与禁止，在天下一统的政局与“汉承秦制”的历史嬗递中，继续保持着对汉代行政理念与风俗建设的影响，这从汉廷一方面明令禁止“游宦诸侯”，<sup>17)</sup>另一面又以重农与贵粟将民固定，避免其“离乡轻家”而生奸邪的做法中，可明显见出。<sup>18)</sup>

从战国中前期以来的法家论学，至秦汉政府的行政实践，禁游、重农与编户可以说合成了一股重要力量，在秦汉时期借助大一统的行政效力造成了“齐民”社会的普遍“地著”。自此，每一个体均被捆绑在一方特定的土地之上，他长养、生活于其中，体验、领受甚至想象着这方土地的每一个角落与侧面，在个体的灵、肉构成上都吸纳了这方土地的独特气息。<sup>19)</sup>人属于一地，地也成了界定个体身份的重要元素。所以当刘知几说“昔《五经》、诸子，广书人物，虽氏族可验，而邑里难详。逮太史公始革兹体，凡有列传，先述本居”的时候，<sup>20)</sup>他发现的其实不仅仅是《史记》写作中叙传人物、先书本籍的史法革新，更揭明了秦汉“齐民”“地著”的文化现实中，人对地的认同与地对人的界定这一人地相待关系已为社会普遍承认与接受的事实。

从另一角度来说，人在“地著”的过程中，正如上文所言，由于与土地捆绑在一起，无形之中强化了个体对土地本身的体验、感受与认知，于是，在国家的行政规划下，以兴趣与知识作为刺激，对地理进行大量描述与叙事便成为醒目的现象。地理写作当然不能简单归因于法家与秦汉之际的“地著”，但地理

16) 云梦秦简整理小组《云梦秦简释文（三）》，《文物》1976年8月，33页。

17) 阎振益、钟夏《新书校注》，北京：中华书局2007年，113页。

18) 王先谦《汉书补注》第三册，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年，1584页。

19) 班固《汉书·地理志》所谓“民函五常之性，而其刚柔缓急，音声不同，系水土之风气”；巴里·洛佩兹称“对于一些人而言，它们的本质并不是在表层完成的，而是随着感官的延伸进入土地”（安·布蒂默《地理学与人文精神》，北京师范大学出版社2019年，156页），说的均是此意。

20) 刘知几《史通》，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8年，104页。

叙事的地方体验与“乡土”转向却的确发生于此时。从先秦的地理撰述来看，主要存在三个著名文本：《山海经》以“海内外”的模式对宇宙地理与“异土”景观进行了想象；《禹贡》、《周官·职方氏》则围绕方位、自然地标、经界、物产对九州版图展开了描绘，三个文本的地理写作均强调大地理单元与大全景视野，因此，其带给读者的往往是一种“宇宙”体验与“天下”观想。但是秦汉以后，地理叙事开始转向一种“缩微聚焦”的写作模式，越来越关注区域单元的层级分割以及每一基层单元内部的细节呈现，《史记·货殖列传》的经济地理首开风气，在“货殖”的语境中，它先将汉帝国版图区分为“火耕而水耨”的“楚、越之地”、“宜五谷桑麻六畜”的“沂、泗水以北”、“加以商贾”的“三河、宛、陈”、“设智巧，仰机利”的“齐、赵”、“田畜而事蚕”的“燕、代”五大板块，然后再分别探入五大板块的地理内部，以州郡都会作为观察的基点与连线，展开一地地理、经济与风俗等内容的叙述，如其描写“楚、越”部分：

越、楚则有三俗。夫自淮北、沛、陈、汝南、南郡，此西楚也。其俗剽轻，易发怒，地薄，寡于积聚。江陵故郢都，西通巫、巴，东有云梦之饶。陈在楚、夏之交，通鱼盐之货，其民多贾。徐、僮、取虑，则清刻，矜己诺。<sup>21)</sup>

楚、越有“三俗”，分别为西楚、东楚、南楚，从地理单元而言，这是楚、越板块的二级划分，而此处所选的“西楚”单元，作者不仅详细列出其组成五郡：淮北、沛、陈、汝南、南郡，更在这五郡之下，选取江陵、陈、徐、僮、取虑等县作为代表，具论其地理、经济、民俗等特点（其后东楚与南楚的叙述格式，与此完全相同），使我们对该地的体验首先在最基层的县级单元上便充分领略到了此处与他处的不同。换言之，地域特色、地方意象与地方体验成为首先强调与呈现的内容。此后，《汉书·地理志》将这一做法发挥到了极致：

河东郡，秦置。莽曰兆阳。有根仓、湿仓。户二十三万六千八百九十六，口九十六万二千九百一十二。县二十四：安邑，巫咸山在南，盐池在西南。魏绛自魏徙此，至惠王徙大梁。有铁官、盐官。莽曰河东。大阳，吴山在西，上有吴城，周武王封

21) 司马迁《史记》，北京：中华书局1963年，3267页。

太伯后于此，是为虞公，为晋所灭。有天子庙。莽曰勤田。猗氏，解，蒲反，有尧山、首山祠。雷首山在南。故曰蒲，秦更名。莽曰蒲城。河北，《诗》魏国，晋献公灭之，以封大夫毕万，曾孙絳徙安邑也。左邑，莽曰兆亭。汾阴，介山在南。闻喜，故曲沃。晋武公自晋阳徙此。武帝元鼎六年行过，更名。潞泽，《禹贡》析城山在西南。端氏，临汾，垣，《禹贡》王屋山在东北，沁水所出，东南至武德入河，轶出荥阳北地中，又东至琅槐入海，过郡九，行千八百四十里。皮氏，耿乡，故耿国，晋献公灭之，以赐大夫赵夙。后十世献侯徙中牟。有铁官，莽曰延平。长修，平阳，韩武子玄孙贞子居此。有铁官。莽曰香平。襄陵。有班氏香亭。莽曰千昌。颍，霍大山在东，冀州山，周厉王所奔。莽曰黄城。杨，莽曰有年亭。北屈，《禹贡》壶口山在东南。莽曰朕北。蒲子，絳，晋武公自曲沃徙此。有铁官。狐讎，骐。侯国。<sup>22)</sup>

作为西汉版图的全域呈现，《汉书·地理志》并未仅停留在大全景的笼统介绍上，而是在全域的框架中，将“缩微聚焦”的州郡都会讲述作为主要叙事策略，涉及对象包括汉帝国境内一百零三个郡国、二百四十一个侯国，以及其下属的三十二道与一千三百一十四县邑。从此处所选的“河东郡”来看，作者首先概述了河东郡建制、沿革、地标、户口与属县之数，接着便以主要的篇幅介绍了所属二十四县的情况，包括沿革与更名、历史事件与人物、自然与人文地标、盐铁地利等诸多内容，其中，对那些最能彰显本地价值与特色的地标与历史，如安邑之巫咸山与盐池，太阳之吴山、吴城与天子庙，蒲反之尧山、首山祠与雷首山，周武王封太伯后，晋献公灭魏封毕万、灭耿赐赵夙，周厉王奔颍，晋武公徙絳等内容，又尤作重点提示。于是，在以国领郡，以郡领县，以县领地标、历史，以地标、历史见此地之“唯一性”的地理叙事中，我们对土地的领受与体验，再次被嵌定在地方的基层单元之中。

可见，秦汉以后地理叙事的“缩微聚焦”，即使不能视为先秦以来因法家与大一统帝国“禁游”而“地著”所带来的直接影响，至少也可以看作是对它的一种紧密呼应，因为二者都强调在“地理分异”的基础上，对每一方地理单元进行“微观”体验，正是这种持续且立体的“微观”体验，让生活其中的个体产生了一种此在的“唯一”感，并通过此此在“唯一”感关联和确认自我所属的“乡土”界

22) 王先谦《汉书补注》第五册，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年，2224—2225页。

域。<sup>23)</sup>至此，对纯粹物理意义上的“土”的依恋，可以说构成了“乡土”观念与“故乡”情怀中的一个核心内容。乌孙公主悲叹“居常土思兮心内伤”，汉元帝说“传曰亡怀土，何必思故乡”，班彪称“悟戍卒之言，断怀土之情”，应劭说“太上皇思土欲归丰”，“怀土”、“思土”、“土思”这一系列“土”式词汇的涌现与流行，正充分证明了此点。

### 3. 血亲之爱与恋人传统

在乡土观念与“故乡”情怀构建的过程中，与“恋地”并存，甚至发源更早的还有另外一种情绪，即《诗经》中的“怀归”，如《小雅·四牡》：

四牡騤騤，周道倬迟。岂不怀归？王事靡盬，我心伤悲。  
 四牡騤騤，啍啍骆马。岂不怀归？王事靡盬，不遑启处。  
 翩翩者騅，载飞载下，集于苞栩。王事靡盬，不遑将父。  
 翩翩者騅，载飞载止，集于苞杞。王事靡盬，不遑将母。  
 驾彼四骆，载骤騤騤。岂不怀归？是用作歌，将母来谗。<sup>24)</sup>

役子逼于“王事”，“不遑启处”，不得不远离家邦，从事四方，然而在漫长的行旅征途中，终于难忍乡思的煎熬，故再三倾吐其“怀归”苦情。令人瞩目的是，此处引发役子“怀归”苦情的，并不是笼统的“家邦”概念或一方具体的地理空间，而是一个特殊的人物对象：父母。放大而言，其实就是一个与自己有着血亲关系的人群。实质上，这一人群基本上覆盖了《诗经》中所有行役怀归的指示对象，如《邶风·击鼓》写从军者“执子之手，与子偕老”的念想，所谓

23) 加拿大人文地理学者爱德华·雷尔夫在其《地方与无地方》中说：“与地方的深度连接对于人类来说是必需的，更是无可逃避的。若没有这样的连接，人类就会丧失存在的意义。”（商务印书馆2021年，66页）从中国古代乡土观念的形成来看，法家与秦汉大一统政权的“禁游”、“地著”虽然带有行政与法律的强制性，但其将人禁锢在土地上，客观上也为每一个体创造了与地方深度连接的契机，让人在领略与体验地理及其文化空间的同时，亦生成与界定了自我，雷尔夫所谓“存在的意义”系于此，中国古人“乡土感”的生成前提更赖于此。

24) 阮元校刻《十三经注疏》，北京：中华书局1980年，406页中栏、下栏。

“子”，即指妻室；《王风·扬之水》叹“怀哉怀哉”，亦是“思其乡里之处者”；<sup>25)</sup>《魏风·陟岵》写“孝子行役，不忘其亲”，“亲”则无非父母；<sup>26)</sup>《唐风·鸛羽》述征夫羈縻王事，所忧亦在无怙、无食、无尝的父母；<sup>27)</sup>其他如《豳风·东山》写“归士与其室家互相思念”；<sup>28)</sup>《小雅·杖杜》则一忧“父母”，一伤“女心”；《北山》登高望家，“忧我父母”；<sup>29)</sup>《鸿雁》写征夫行野，“哀此鰥寡”。总之，不离父母、兄弟、妻室、宗族的血亲集团。

这种无视“地”而突出“人”的思路，在春秋以后的儒家言论中，有了进一步发展。从孔子开始，出于一种道德与伦理优先的立场，有意否定“土”的价值及其对“士君子”身份构成的意义：一则称“君子怀德，小人怀土”，再则说“士而怀居，不足以为士矣”。<sup>30)</sup>明确将“怀土”、“怀居”视为“士行”的对立，这无疑赋予了“土”一种强烈的负面色彩。至孟子，虽然没有直接否定“土”的价值，但是当他说出“无恒产而有恒心者，惟士为能”的话时，亦在某种程度上暗示了作为“恒产”之一的“土”在“士”进德修业的过程中是可有可无的。<sup>31)</sup>当然，孔孟这些反对或忽视“土”的言论，还仅限于道德的语境，并未直接与其乡土观念挂靠，但儒家的“乡土”言说，正是在这一前提下展开的，因此，一旦涉及“故乡”的话题，儒家便往往接续《诗经》与孔孟的传统，表现出对“人”的强烈依恋。如荀子便是代表：

凡生乎天地之间者，有血气之属必有知，有知之属莫不爱其类。今夫大鸟兽则失其群匹，越月踰时，则必反铅；过故乡，则必徘徊焉，鸣号焉，踟蹰焉，踟蹰焉，然后能去之也。小者是燕爵犹有啜焦之顷焉，然后能去之。故

25) 阮元校刻《十三经注疏》，北京：中华书局1980年，331页中栏。

26) 朱熹《诗集传》，北京：中华书局1958年，65页。

27) 阮元校刻《十三经注疏》，北京：中华书局1980年，365页中栏。

28) 方玉润《诗经原始》，北京：中华书局2006年，320页。

29) 阮元校刻《十三经注疏》，北京：中华书局1980年，463页中栏。

30) 程树德《论语集释》，北京：中华书局2006年，250页、950页。“怀居”之“居”乃“意所便安处”，正与“溺其所处之安”的“土”同义。

31) 焦循释孟子“恒产”曰：“然则恒产者，田里树畜，民所恃以长养其生者也。”（《孟子正义》，中华书局1987年，93—94页）则孟子所谓“恒产”，乃包括土地在内。

有血气之属莫知于人，故人之于其亲也，至死无穷。<sup>32)</sup>

这段涉及“故乡”的文字，虽然一开始主要关联鸟兽，但荀子以鸟兽“过故乡”的徘徊鸣号，证明“有知之属莫不爱其类”，从而推出“人之于其亲也，至死无穷”的结论，因此，“故乡”又未尝脱离人的语境。只不过其于鸟兽，乃表现在同类之爱上，于人，则更突入到宗族血亲的内部。此正如郑玄所释，“含血气之类，人最有知而恩深也，于其五服之亲，念之无止已”。<sup>33)</sup>因此，以血亲之爱的“恋人”充实与表征“故乡”，便成了贯穿《诗经》与先秦儒家的另一传统。这一传统于“恋地”之外，别构一义，二者在战国以前，本无过多交会，但在秦汉“地著”政策的强势统合下，逐渐合流：荀子已承认“无土则人不安居，无人则土不守”；<sup>34)</sup>至汉初韦孟《在邹诗》抒写从彭城迁居于鲁而产生的一种“于异他邦”的“故乡”感时，就不仅仅包括“嗟我小子，岂不怀土”的“恋地”情结，同时也内含了“既去祚祖，惟怀惟顾”的“恋人”愁情。<sup>35)</sup>人、地之恋的合流，既加固了人在乡土生成的根，<sup>36)</sup>又为“乡土性”的构成提供了多元动力。当然，这依然不是“故乡”的圆满内涵，其最终完成尚有待土风之恋的加入。

#### 4. 从郡国书到都邑赋：地方叙事的土风之恋

作为一个成词，“土风”在《左传》中即已出现，但成公九年的这条叙事所称“乐操土风”，乃特指钟仪弹奏的楚地音乐，<sup>37)</sup>与本文“水土风俗”的“土风”并非一回事。<sup>38)</sup>当然，“水土风俗”的解释，依然比较笼统，如依据汉魏晋大量涌

32) 梁启雄《荀子简释》，北京：中华书局2009年，271—272页。

33) 孙希旦《礼记集解》下册，北京：中华书局2007年，1374页。

34) 梁启雄《荀子简释》，北京：中华书局2009年，185页。

35) 王先谦《汉书补注》第十册，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2年，4810—4811页。

36) 余英时《士与中国文化》论及秦汉社会的巨变时，认为其主要表现为两点：“一是士和宗族有了紧密的结合”，“二是士和田产开始结下了不解之缘”，且二者共同造成了“士在乡土生根”。这一论断总体不错，但推动和承担这一历史进程的主语不应只限于“士”。

37) 杨伯峻《春秋左传注》第二册，北京：中华书局2005年，845页。

38) 杨明《陆机集校笺》，上海：上海古籍出版社2020年，388页。

现的“土风”文本，我们可大致划出其概念范围：所谓“土风”，乃是在一方限定的土地与空间中，由人与地单独或交互生成的除两者之外的一切可感对象，从自然风物、风候至人文风俗、风教，无不包括其中，因此，在某种意义上，它约等于一地物产风候与人文风习的总和。至于这一物产风候与人文风习在哪些方面以及通过何种方式强化了人的乡土感，我们留待下文讨论，此处先梳理其参与乡土观念建构的过程。

最早注意“土风”并对其进行自觉采录的例子，来自于汉成帝时期的张禹、朱赣，据班固所言，二人曾对汉帝国版图内大部分地区的风俗作了专门的条理与记载，其成果后来被班氏采入《汉书·地理志》。张、朱二人的行为，在某种程度上激活了“土风”作为一种专门的地方知识，在建构地方形象与地域特征中的作用。故在其后不久，有关“土风”的调查与记录便成了官方写作甚至国家行政展开的一项重要内容。如光武帝刘秀初即位，即命南阳“撰作风俗”，以显帝王桑梓；<sup>39)</sup>袁汤为陈留太守，则使户曹吏“追录旧闻，以为《耆旧传》”，“以劝风俗”。<sup>40)</sup>此后，“沛、三辅有耆旧节士之序，鲁、庐江有美德先贤之赞。郡国之书，由是而作。”<sup>41)</sup>官方的提倡与示范可以说直接造成了汉代至魏晋时期“土风”写作的持续高潮。此类“郡国之书”在当时门类极富，撰写方式亦多样，而论其数量最繁、影响最大者，则莫过于三：

其一，耆旧传/先贤传。从《隋书·经籍志》、《水经注》、《华阳国志》等文献的著录与引用来看，这类文本在汉晋之际的产量极高。<sup>42)</sup>其写作特色乃在专述一地前代贤能与人才，通过记其立身行事之优以彰显本地风教道德之异，从而为地方特色增价，如汉代圈称《陈留耆旧传》记高氏三人：

39) 魏征等《隋书》，北京：中华书局2002年，982页。

40) 荀悦、袁宏《两汉纪》下册，北京：中华书局2020年，331页。

41) 魏征等《隋书》，北京：中华书局2002年，982页。

42) 汉晋之间的耆旧传/先贤传今皆不传。但从《隋书·经籍志》史部“杂传”的记载来看，明确可断为此时作品的就有十七种之多，这还不包括《华阳国志》所载郑伯邑、赵彦信、陈申伯、祝元灵、王文表的巴、蜀《耆旧传》，《水经注》所引刘彧《长沙耆旧传》，《说郛》所录司马彪《零陵先贤传》等。

靖高祖父固，不仕王莽世，为淮阳太守所害，以烈节垂名。固子慎，字孝甫，敦厚少华，有沈深之量。抚育孤兄子五人，恩义甚笃。琅邪相何英嘉其行履，以女妻焉。英即车骑将军熙之父也。慎历二县令，东莱太守，老病归家，草屋蓬户，瓮缶无储，其妻谓之曰：“君累经宰守，积有年岁，何能不少为储蓄以遗子孙乎？”慎曰：“我以勤身清名为之基，以二千石遗之，不亦可乎！”子式，至孝，常尽力供养。永初中，螟蝗为害，独不食式麦，圉令周强以表州郡，太守杨舜举式孝子，让不行，后以孝廉为郎。<sup>43)</sup>

固有“烈节”，慎行“敦厚”，式则“至孝”，作者叙高氏一门三代，着眼皆在节操德行，目的正在于借助高氏重名，通过表彰州郡，广告天下，以为乡土生色。又如三国谢承《会稽先贤传》叙茅开“为督邮，平决厌众心。尝之部，历其家，不入门，当路向堂朝拜”，称淳于长通“年十七，说《宓氏易经》，贯洞内事万言，兼《春秋》，乡党称曰圣童”，<sup>44)</sup>前者公而忘私，后者幼通经史，同样以先贤的才学、德行建构本地的优良风教传统。这种“矜其乡贤，美其邦族”的写作模式贯穿了耆旧传/先贤传的大部分文本，<sup>45)</sup>就其精神与效果而言，既彰显了个人之德与能，也在很大程度上达到了“载光郡国”、为地方表异的效果。<sup>46)</sup>当然，作为“郡国之书”的主要代表，除了专从人才风教一面写其“土风”之美的耆旧传/先贤传外，尚有将“土风”与其他地方题材聚合杂叙的另一种形式，此即：

其二，风俗传/地理记。<sup>47)</sup>这类文本所叙，一般涵盖了地方从自然至人文的几乎所有内容，大凡“州郡及县分野封略事业，国邑山陵水泉，乡亭城道里土田，民物风俗，先贤旧好”等无不包括在内。<sup>48)</sup>然在看似丰富、全面的题材指涉中，作者的写作却常有重点的偏斜，即轻地理与自然而重历史与人文，以

43) 卢弼《三国志集解》第五册，上海：上海古籍出版社2021年，1859—1860页。

44) 熊明辑校《汉魏六朝杂传集》第二册，北京：中华书局2021年，778页、779页。

45) 刘知几《史通》，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8年，194页。

46) 同上，194页。

47) 《隋书·经籍志》将此类文本称为“地理之记”，刘知几《史通·杂述》则名为“地理书”，实质均为一地地理、经济、历史与人文等内容的综叙，从某种意义上而言，近于后世方志。

48) 魏征等《隋书》，北京：中华书局2002年，988页。

内容最全、体制最备的《华阳国志》为例，全书共十二卷十四篇，除卷十二《序志》属于道其缘起、述其体例的自序性文字外，卷五《公孙述刘二牧志》、卷六《刘先主志》、卷七《刘后主志》、卷八《大同志》、卷九《李特雄期寿势志》，内容皆在叙述汉晋时期雄踞西南之霸政的历史。即以巴、汉中、蜀、南中四地名篇的前四卷而论，落实到具体写作，亦重在历史与人文，如卷一《巴》篇，洋洋七千余字，其中写巴地自然与地理的不过“仰禀参伐，俯壤华阳，黑水、江、汉为梁州”与“其地东至鱼复，西至樊道，北接汉中，南极黔、涪”两段二百余字。至开篇以设梁州、合雍州、属益州言巴之建置与沿革，中段述其种族与民风、春秋战国秦汉之演进历史，言入汉以后巴地之先贤高才、治乱经过与政区分合，写都城之制与地标、名胜、遗迹之著者，连带后篇叙所领重要郡县与各地大姓名族，皆出之以大篇幅与重笔墨。<sup>49)</sup>其余卷十、十一两篇，则又分序三国以前之“先贤士女”与西晋“后贤”二十人，大体又采用了耆旧传/先贤传的格式。可见，《华阳国志》中有关巴地的写作，正是通过详述其独特的历史与人文，建构起其“蛮风犹存”、“华风渐染”的“土风”特征，从而真正实现了“志其本国，足以明此一方”的写作目的。<sup>50)</sup>而汉中、蜀、南中三篇，及山谦之《吴兴记》、《南徐州记》、顾夷《吴郡记》、贺循《会稽记》、盛弘之《荆州记》、习凿齿《襄阳记》、圈称《陈留风俗传》、周处《风土记》等其他地记的写作，亦无不遵此法式。如《陈留风俗传》叙陈留尉氏县安陵乡，虽定位于地理，但重点却落在张延寿“上书请减户”的谦让之德及天子对这一德行的褒奖上，突出的仍是本地历史、风教与其社会影响；而在另一则叙事中，作者甚至自觉地将外黄县大齐亭、考城县斜亭、尉氏县少曲亭、扶沟县帛乡帛亭等乡亭合并打造成了一个“七乡十二亭”的地方名胜体系，<sup>51)</sup>试图借助历史与人文建筑，制造一个覆盖陈留又能标记陈留的地方文化符号，故从风俗传/地理记对地域形象与地方感的塑造来看，叙“土风”已然成了一种主要手段。

49) 刘琳《华阳国志校注》，成都：巴蜀书社1984年，15—102页。

50) 刘知几《史通》，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8年，194页。

51) 陈桥驿等注《水经注》第三册，北京：中华书局2020年，1832页。

其三，都邑赋。作为文学的一体，都邑赋可以说是汉代京都大赋的艺术派生。但如果从其所体之物的对象与内容看，则又无法将其与秦汉“地著”以后，个体地域观念与地方感增强分离开来：地方感刺激了作为文学之一类的都邑赋的繁荣，反过来，这些以地方城市为写作对象，类聚与集结各种地方题材，通过“极声貌以穷文”的赋法完成构篇的都邑赋，在地域特征的呈现与地方形象的塑造上，亦是其他文本所无法比拟的。以扬雄《蜀都赋》为例，围绕成都，作者首先编入地理形势、民族人种、山川形胜、水陆物产、城市建筑、果木菜蔬、女工织物、宴饮歌舞等主题，从整体上完成了赋文的组构与布局。然后，在“写物图貌，蔚似雕画”的具体描绘中，为充分彰显成都的地方特色，扬雄特意加入了两种策略：一是会合众感官对某些特殊的物产对象进行共同体验，如布帛锦绣，不仅有“发文扬采”、“阿丽纤靡”的视觉观感，亦有“细都弱折”、“不可见风”的触觉体验；美食烹饪，不仅有“调夫五味，甘甜之和”的味觉，亦包括“五肉七菜，臠馐腥臊”的嗅觉，前者突出了“蜀锦”之轻柔与华美，后者则极言“川菜”之气味、口感的多样与复合，都以感官对象、感受效果的多元与独特，写出一种浓郁的蜀地风味。另外，为使“蜀地”形象更加立体与独特地呈现出来，扬雄还在赋中加入了一些民俗与“土风”的描写，最著者莫如写冬春之际“观渔”一段：“尔乃其俗，迎春送冬，百金之家，千金之公”，先选定一“江”，“乾池泄澳”以放水，待“巨沼”半干，然后下船“鱼弋”，此时岸上人车杂聚，“观者方堤”，而河塘之中，则是“行舡竞逐，偃衍撇曳”，渔人驾驶泥船，往来抛洒鱼网，直至“俎飞脍沈，单（殫）然后别”。<sup>52</sup>此正画出了一幅极具蜀地特色的“打鱼图”。以上两种做法，后者因在凸显地方特色中效果更明显、取材也更便利，故在此后的都邑赋写作中被广泛运用，如张衡《南都赋》以“男女姣服，骆驿缤纷”一段写南阳上巳节男女杂游的风俗，<sup>53</sup>刘楨《鲁都赋》以“绘弁端衣，散佩垂绅”一段写鲁地儒生的气派与风度，<sup>54</sup>皆借特殊“土风”，形

52) 费振刚、仇仲谦、刘南平《全汉赋校注》，广州：广东教育出版社2005年，212—215页。

53) 同上，727页。

54) 同上，1122页。

容地方特色。这对于作赋者而言，固然表达了“安土重迁之深旨”；<sup>55)</sup>对于读赋者甚至大部分社会个体来说，又何尝不滋生出一种“家自以为我土乐，人自以为我民良”的乡土情结！<sup>56)</sup>

总而言之，经由耆旧传/先贤传、地理记/风俗传、都邑赋等“郡国之书”的“土风”书写，地方性与地方感被进一步突显出来。从此，乡土的感受与乡思的引发，便与“土风”产生了莫大干系，张翰思吴中风味“菰菜羹、鲈鱼脍”而命驾归乡，<sup>57)</sup>陆机忆“东头竹箴之饮”的旧习而“乡思转深”，<sup>58)</sup>便是其中著名的事件。即此不难见出，“土风”之恋已然成为“故乡”情怀的稳定组成。<sup>59)</sup>

## 5. 先唐“故乡”写作的诗学形态

法家禁游与秦汉大一统政权的“地著”造成“恋地”、《诗经》“怀归”与儒家“亲亲”造成“恋人”、汉魏以后地方的多向度写作造成“恋土风”，三者合流，一方面赋予中国早期乡土观念与“故乡”情怀以饱满内涵，另一方面，又将蕴藏着丰富的空间、景观要素及强大的造情、共情能力的“故乡”观念播散至文学领域，使得先唐诗歌在主题、诗体及写作范式等方面发生了一系列令人瞩目的变化。

首先，作为物质与观念的双重载体，“故乡”给先唐诗歌写作带来的第一个影响便是在为其提供一种新诗材的基础上，生成了若干专写“故乡”的新诗题与新诗体。新诗体如前言风土诗即是代表，从陆机《吴趋行》、谢灵运《会吟

55) 刘志伟主编《文选资料汇编·赋类卷》，北京：中华书局2013年，146页。

56) 萧统《文选》第五册，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0年，2040页。

57) 余嘉锡《世说新语笺疏》，北京：中华书局2007年，467页。

58) 上海古籍出版社编《汉魏六朝笔记小说大观》，上海：上海古籍出版社2020年，575页。

59) 自此之后，“土风”常被用来单独指称“故乡”或用作“故乡”的主要义项，如《三国志》言朱治“以年向老，思恋土风”，左思《三都赋序》“先王采焉，以观土风”，陆机《吴趋行》“山泽多藏育，土风清且嘉”，谢灵运《会吟行》“牵缀书土风，辞殚意未已”，均是例证。

行》等典型例证来看，此类风土诗虽然在命题与内容上可以随时、地的迁移而变化，但其写作格式却一直保持着某种恒定：从音乐起唱开始，至表明本土身份，铺叙人、地、土风之美，再到末尾唱叹、赞颂作结，前后次序甚至都不容颠倒。故就其“体”的规范性而言，是充实、稳定且严格的。<sup>60)</sup>至于专写“故乡”的新诗题，汉魏以后，咏叹亦多，如“远望思归”的《巫山高》、“问讯其客，或得故旧乡里”的《门有车马客行》等即是流行的例子。它们与风土诗的颂赞情调不同，往往强调用“故乡”元素对乡思主体展开一种悲情描写。以《门有车马客行》为例，无论曹植、张华/鲍照，抑或陆机、何逊/何妥/何宴的作品，<sup>61)</sup>亦无论古诗正体，抑或后人代、拟，均通过“游子”与“车马客”之间的“故乡”对话，讲述着一种“游子悲故乡”的沉痛：身处异乡的游子辨认来自故乡的“车马客”；在二者“语昔”、“论今”的交谈中，游子被引入某种“故乡”情境与想象，这种情境与想象使远离的苦痛与他乡的异质被暂时搁置；但当“车马客”远去，“故乡”幻影消失，“后忧方复起”的觉醒则给身世飘零的游子带来了更加深广的二次伤害。显然，此类新诗题中，落寞、孤独、绝望被设置成了诗篇的底色，它一方面指示出文本之内的游子的悲剧，另一方面，因为此种绝望与悲剧贴合了现实生活中游子的普遍遭遇及“游子悲故乡”的共同心理，故在跳出文本后，更与其他“故乡”元素一起，合力创生了“以悲为美”的诗学范式。

作为表现之一，是诗人在空间与景观意象的体验中始终贯穿的“悲”感。先唐诗歌的“故乡”写作，一般都会涉及两种不同空间：异乡的与故乡的。从异乡空间来看，当一个游子远离家乡，孤独地置身于一块陌生的土地时，他对此方空间的体验当然是异己、齟齬、隔阂与不适的，如“出郭门直视，但见丘与坟。古墓犁为田，松柏摧为薪。白杨多悲风，萧萧愁杀人”（《古诗十九首·去者日以疏》）所见是萧杀与死亡；“登高山，奈何蹈盘石，树木丛生郁差错。寝蒿草，荫松柏”（曹丕《陌上桑》）是险阻与荒凉；“虎啸深谷底，鸡鸣

60) 颜之推《颜氏家训·文章》论陆机《齐讴行》，因其“前叙山川物产风教之盛，后章忽鄙山川之情”，违背了风土诗的一般写作规范，故将其斥为“殊失厥体”。

61) 《艺文类聚》载张华《门有车马客行》，《乐府诗集》作鲍照。《文苑英华》条何逊《门有车马客》，《乐府诗集》作何妥，又作何宴。

高树巅。哀风中夜流，孤兽更我前”（陆机《赴洛道中作诗》一）是凄冷与可畏。又如“高山绝云霓，深谷断无光。昼夜沦雾雨，冬夏结寒霜”（鲍照《登翻车岨诗》）之陡峭与荒寒；“白云满鄣来，黄尘暗天起。关山四面绝，故乡几千里”（刘昶《断句诗》）之阻隔与禁闭；“愤风方未息。危帆渡中悬，孤光岩下昫。岸际树难辨，云中鸟易识”（王僧孺《中川长望诗》）之危险与不稳，“山烟蔽钟阜，水雾隐江津。洲渚敛寒色，杜若变芳春”（孙万寿《早发扬州还望乡邑》）之迷失与变化，无不让我们见出诗人对异乡空间的本能拒斥与不适。即便异乡空间有时显示出某种独特的客观之美，也很难让游子产生真正的认同与共鸣而消除其精神的紧张与焦虑。相反，由于这种美缺少熟悉感与切己性，故在游子看来，往往不是“旅客长憔悴，春物自芳菲”的隔阂与冷漠；<sup>62)</sup>便是如潘岳所言，“信美非吾土，祇搅怀归志”，<sup>63)</sup>更强烈地激发出游子的乡思与愁情。

如果异乡空间加给游子的是一种普遍、持续的陌生与异质感，这种陌生与异质能否在故乡的空间中抹去或消除？就情理而言，似乎应该如此。但实际情况是，除了陶渊明等极少数离家不久且对回归充满执念的诗人，以及某些通过想象与回忆建构出的故乡场景，带有些许温暖与适己外，其他凡涉及故乡现实空间真实体验的诗作，无不呈现出一种令人意外的难堪：古诗《十五从军征》写老兵八十归家，看到的光景竟是“松柏冢累累。兔从狗窦入，雉从梁上飞。中庭生旅谷，井上生旅葵”，<sup>64)</sup>除了死气，便是荒芜；曹丕从征黎阳，过故居，眼前所见亦是“故宅顿倾”，“荆棘绕蕃”；<sup>65)</sup>沈炯自长安还至方山，发现其心之所系的家乡早已是“空村余拱木，废邑有颓城。旧识既已尽，新知皆异名”；<sup>66)</sup>这种感受同样存在于江总的“故乡”体验中，当其白首归家，寻找旧日的踪迹时，发现在一片模糊的熟悉感中人事已尽变其面目：“径毁悲求仲，

62) 李伯齐《何逊集校注》，北京：中华书局2012年，183页。

63) 萧统《文选》第三册，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0年，1226页。

64) 郭茂倩《乐府诗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8年，301页。

65) 魏宏灿《曹丕集校注》，合肥：安徽大学出版社2009年，56页。

66) 逯钦立《先秦汉魏晋南北朝诗》，北京：中华书局2006年，2445页。

林残忆巨源。见桐犹识井，看柳尚知门”。<sup>67)</sup>诗人带着游子的疲倦与伤痛，满怀希望回归故乡，却绝望地发现他们再次被一种陌生与异质感包围：凋零、破败、荒废、萧条、变易。昔日的“故乡”已然变异为另一种“他乡”。这种因变化而生的异质感虽然不尽同于异乡空间那种毫无交会的陌生，但在使游子丧失安全性与认同感上效果是一致的。因此，无论身在异乡或是返归故乡，游子都被描写成了一个“飘零”“无根”的悲剧存在物。

当然，尽管在先唐的“故乡”写作中，“悲剧”情调与“异质”氛围贯穿始终，但作为乡思的主体，游子总是试图在诗歌的世界中，穿越遥远的距离与阻隔，以一种艺术的方式抵达“故乡”，借此缓解其郁积的“悲剧”情绪与“异质”体验。那么他们是如何做到的？一种共通而特殊的方式经常出现在诗人的笔下：“还顾望旧乡，长路漫浩浩”（《古诗十九首·涉江采芙蓉》）、“步出城东门，遥望江南路”（古诗《步出城东门》）、“还望故乡，郁何垒垒”（曹丕《善哉行》一）、“伫立望故乡。顾影凄自怜”（陆机《赴洛道中作诗》一）、“望归涂兮漫漫。盼江流兮洋洋”（湛方生《怀归谣》）、“试与征徒望。乡泪尽沾衣”（谢朓《休沐重还丹阳道中诗》）、“有情知望乡，谁能鬢不变”（谢朓《晚登三山还望京邑》）、“相思不会面，相望空延颈”（顾则心《望廊前水竹诗》）、“望乡空引领。极目泪沾衣”（何逊《赠诸游旧诗》）、“乡关不再见，怅望穷此晨”（孙万寿《早发扬州还望乡邑》）。当游子在异地遭受“乡思”的折磨与煎熬时，“望”显然成了纾解其心灵愁苦的唯一方式。一个简单的身体动作如何具有这等消忧解愁的能力？这就不得不归结为“望”所具有的“幻化”的效能：当游子置身于一片高远开阔之地，通过“望”将视线无限拉长，一方面模糊当下的体感，将身心从此在的异乡空间抽离；另一方面，随着地平线外视觉的虚化，抽离的身心被转送至飘忽的思绪，从而使游子在一片亦真亦幻、半觉半迷的回忆与想象空间中拼凑和组合出“故乡”形象，这种既虚幻又真实的触摸，让游子暂时逃离了此在的异己与不适，于是，“远望可以当归”变成了一种心理的现实。<sup>68)</sup>而为了强化“望”延伸与模糊的视觉效果及其带来的心灵宽慰，先唐诗人

67) 同上，2588页。

又常将两类意象与之搭配：长路与江河。<sup>69)</sup>从现实情况看，无论长路，抑或江河，其实都是横亘在游子与“故乡”之间的绝大阻隔，是造成游子与故乡两分的重要原因，但由于二者都具有向远方延伸的性质，所以，当游子迫于现实身体的拘禁而投目远“望”时，它们又成了引导视线的高效辅助，将游子视线导向地平线与景观线之外，并通过自身的消失与模糊，让游子迅速进入幻化的记忆与想象场所，从而帮助游子有效地完成意念之中的“故乡”之旅。因此，尽管长路与江河两种意象本身内涵着阻隔与延续的矛盾与张力，但在“望”的主导下，它们已被有效地调和为一。由此，又可见出“望”作为“故乡”写作的核心元素，已然超越了一个简单的肢体动作，它对“乡思”情绪的表达、对游子苦恋的造型，加上其他诗学元素的配合，让其早已成为故乡写作中表意与构境的最有效手段。我们甚至可以毫不夸张地说，正是由于“望”的形塑，游子那集合孤独、悲怨、呼告、冥思、呢喃的悲剧性造型，才被完美地定格在“故乡”写作乃至整个中国古典文学经典形象之林中。

## 6. 结语

从先秦法家“禁游”、儒家“亲亲”，至秦汉大一统政权下的“齐民”“地著”，再到东汉魏晋时期的土风书写，早期的中国用了一段漫长的历史生成与充实了一个包括恋地、恋人、恋土风在内的“故乡”观念。这一观念，乃是作为一种文明模式的乡土中国的抽象与通分，更是具有中国特色的乡土文明意识形态表达，故自其成形之日起，即在多方面影响了古代中国的社会、历史、文化

68) 郭茂倩《乐府诗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8年，687页。

69) 如《古诗十九首·涉江采芙蓉》、谢朓《赛敬亭山庙喜雨诗》、萧统《饮马长城窟行》、王筠《早出巡行瞩望山海诗》用长路意象；曹丕《善哉行》一、鲍照《还都至三山望石头城诗》、谢朓《和别沈右率诸君诗》、沈约《登玄畅楼诗》、何逊《赠诸游旧诗》、《渡连圻诗二首》之二、《下方山诗》、《慈姥矶诗》、刘孝威《出新林诗》、孙万寿《远戍江南寄京邑亲友》、《早发扬州还望乡邑》用江河意象；而汉铙歌《巫山高》、古诗《步出城东门》、湛方生《怀归谣》、谢灵运《登上戍石鼓山诗》、鲍照《拟行路难》十五、何逊《日夕出富阳浦口和朗公诗》、何逊《望新月示同羈诗》、王僧孺《中川长望诗》则二者兼用。

发展进向乃至国家形象的建设，文学是其中的重要代表。以先唐的诗歌为例，由人、地、土风之恋所酿生的“游子悲故乡”的文化心理，作为一种情感装置与诗歌生成机制，在“故乡”主题的写作中，一方面通过控驭诗人集结各种不同题材创造出分离与出走的诗学情境，在游子与故乡之间建立起一种悲剧关系，另一方面，又以异乡与故乡空间的双重异质体验，以及“望”的孤独造型，再次对此种悲剧关系做出呼应与诠释。二者合力，共同创生了一个“以悲为美”的文学样式，这一样式构成了中国古典时期“故乡”写作的艺术总则，并在后世为乡土文学向现当代转型提供了来自传统的、民族的资源与保障。

## ◆ 参考文献

### 1. 单行本

- 程树德，《论语集释》，中华书局，2006。  
 费孝通，《乡土中国》，人民文学出版社，2021。  
 费振刚、仇仲谦、刘南平，《全汉赋校注》，广东教育出版社，2005。  
 郭茂倩，《乐府诗集》，上海古籍出版社，1998。  
 蒋礼鸿，《商君书锥指》，中华书局，2001。  
 梁启雄，《荀子简释》，中华书局，2009。  
 刘琳，《华阳国志校注》，巴蜀书社，1984。  
 刘知几，《史通》，上海古籍出版社，2008。  
 逯钦立，《先秦汉魏晋南北朝诗》，中华书局，2006。  
 卢弼，《三国志集解》，上海古籍出版社，2021。  
 司马迁，《史记》，中华书局，1963。  
 王先谦，《汉书补注》，上海古籍出版社，2012。  
 王先慎，《韩非子集解》，中华书局，2006。  
 魏征等，《隋书》，中华书局，2002。  
 萧统，《文选》，上海古籍出版社，2010。  
 熊明辑校，《汉魏六朝杂传集》，中华书局，2021。  
 杨明，《陆机集校笺》，上海古籍出版社，2020。  
 余嘉锡，《世说新语笺疏》，中华书局，2007。  
 余英时，《士与中国文化》，上海人民出版社，1987。  
 朱熹，《诗集传》，中华书局，1958。

## 2. 论文

- 王立, 『中国古代思乡文学侧议』, 『文学评论』, 第6期, 1988, pp112-118.  
 吴淑元, 『古代怀乡诗的情结与情操』, 『求索』, 第12期, 2007, pp200-201.  
 杨景龙, 『中国乡愁诗歌的传统主题与现代写作』, 『文学评论』, 第5期, 2012, pp35-47.  
 云梦秦简整理小组, 『云梦秦简释文(二)』, 『文物』, 1976年7月, p9.  
 云梦秦简整理小组, 『云梦秦简释文(三)』, 『文物』, 1976年8月, p33.

논문 접수 일	2024년 8월 1일
심사 완료 일	2024년 8월 27일
게재 확정 일	2024년 9월 19일

*Abstract*

---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Locality and the Writings of 'Hometown'  
Poetry in Pre-Tang Dynasty

Huang, Zhuoying

The 'forbidden travel' and 'staying certain region' policies and consequences of the Legalism and Qin Han dynasties triggered the sentiment of topophilia, and the emphasis on 'returning home' from Shi Jing and kinship in the Confucian tradition brought the sentiment of longing for people. Add to this the various aspects and angles of writing from different provinces after the Han, and the sentiment of nostalgia for local customs was created. Ultimately these sentiments eventually formed the basis of the notion of locality and 'hometown' sentiment in early ancient China.

The concept of locality is both a source and a totalizing force in society, and it is not just limited to new material which compose new title or new poetry style. There is a kind of tension between the nostalgia for hometown and the survival essence of being a wanderer, and this tension has led to the universal psychology of 'the wanderer mourns his hometown' (游子悲故乡). This universal sentiment gradually influenced the writing of 'hometown', which was characterized by the creation of multiple sets of themes, the description and experience of space and landscape, and the image of 'looking from afar' (望), thus creating a poetic paradigm of 'beauty in sorrow' (以悲为美). As a result, the first local literature style in ancient China was born, and this style, as a standard traditional resource, continues to influence the aesthetics and creation of contemporary local novels and 'lament poems'.

**Keyword** concept of locality, topophilia, literary works about hometown, beauty in sorrow, poetries in pre-Tang dynasty



# 韩国语“-X건대”构式的传信语义类型分析

단 청 총 (单 淸 丛)\*

## 국문요약

한국어 구문 '-X건대'는 전형적 증거 구문 표현이다. 한국어 '-X건대'는 화자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본고는 주로 증거이론, 구문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 구문 '-X건대'의 증거 의미 유형, 내부 특징 및 관계, 보다 본질적인 화용 기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첫째, 증거 유형에 있어서 '-X건대'는 주로 8가지 유형, 11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둘째, 구문 내부의 관계에 있어서 '-X건대'는 거시적 구문, 중간적 구문1, 중간적 구문2, 미시적 구문 표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당 구성 요소는 수평 및 수직 차원에서 상호 작용한다. 셋째, 화용 차원에서 우리는 '-X건대'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책임 회피와 같은 화용 기능 외에도 '-X건대'가 정보를 객관화하고 응집시키는 정보 포장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주제어** X건대, 증거범주, 구문문법, 구문간 상호작용, 정보포장

## 〈目象〉

1. 序论
2. 理论背景
3. 韩国语“-X건대”构式的语义类型-内部关联-语用属性
4. 结语

\* 上海外国语大学 韩语系 博士研究生

## 1. 序论

韩国语“-X건대”构式是具有典型性的传信性质构式表达, 即说话人通过直接或间接体验来获得相关信息, 传递给听话人。前人的相关研究主要集中在“건대”的句法语义特点以及其作为引用性质的表达具有转述他人信息, 回避自身责任的功能。但“-X건대”本身作为一个比较典型的传信表达从传信范畴展开的研究并不多, 且相关研究有可以进一步细化的可能。作为构式的“-X건대”其内部的构式联结情况如何也有待进一步分析。此外, 除了前人常提及的责任回避的语用功能外, “-X건대”相对而言比较本质的语用功能是什么? 基于上述思考, 本文主要关注如下三个问题:

- (1) 韩国语“-X건대”构式的传信语义类型有哪些?
- (2) 韩国语“-X건대”构式的内部构式关联如何?
- (3) 韩国语“-X건대”构式较本质的语用功能是什么?

韩国语学界有关“건대”的研究主要将其作为连接词尾进行讨论和研究。최현배(1937/1959)将“건대”归类于“动词和形容词结合的一种表达”。<sup>1)</sup>이정민(1975)认为“-건대”用于推测、想象的不明确行为句(불명료 수행문)的自然句群中, 或者与“바라다, 원하다”等“愿望动词(소망동사)”结合使用。<sup>2)</sup>此外, “-건대”的具体使用中说话者不出现, 不能与陈述之外的句型, 如疑问句、命令句等共现使用。김승균(1981)将“-건대”归类于连接词尾, 认为与疑问词共现, 用于叙述格助词后的“-건대”是“-관대”错误发展的结果。其主要认为“-건대”不仅具有“过去语义”, 且具有“主观性”并通过预设概念进行了解释说明。<sup>3)</sup>권재일(1985)认为“-건대”属于“评价关系”的连接词尾, 其认为“-건대”的先行小句

1)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37/1959, p.290.

2) 이정민, 「言语行为에 있어서의 样相构造」, 『现代国语法』, 启明大学 出版部, 1975.

3) 김승균, 「한국어의 연결형어미 「건대」와 「거늘」, 「기에」와 「느니라」의 화용론」, 『건대 학술지』, 25, 1981, pp.21-27.

和后接小句的视点相同,有时制词尾和特殊助词的结合制约,但可以与部分补助词,如“-도”、“-만”结合使用。4)서태룡(1988)将“건대”进行了重新分析,其认为“건대”是由“-거-”、动名词语尾“-은”以及形式名词“대”组合而成的。并且“-건대”的“거”具有“思维世界(사유의 세계)”、“未知觉(미지각)”、“可能(가능)”的语义,“-은”具有决定、完结的语义特点。5)김종록(1993)从复句的句法特征方面对“-건대”进行了讨论,认为“-건대”复句的主语没有“±生命度”、“±人格性”、“±一致性”的制约,其主要功能是表“说明关系”。6)성동일(2000)主要从共时和历时相结合、重新分析的角度对“-건대”的句法和语义特点进行了分析,涉及的主要观点有“-건대”的“거”表示说话时发话人对某一动作或状态的“任意肯定(임의적인 확정)”、“-은”表示预设否定先行内容的对立转折语义,在发话时之后表示动作的决定、完结。7)이의중(2020)主要从文体体裁的角度对“-건대”进行了分析,认为“-건대”用于学术文献体裁,表示笔者自身观点的阐释,而在新闻报道中则尽可能避免个人主观判断的表达。8)

综合前人研究,可以发现前人对“-건대”这一带有古语色彩表达的研究主要集中在比较传统的句法语义层面,即聚焦于“-건대”自身的语法特点展开分析,一定程度上忽略了“-건대”作为一个整体其在句中发挥的作用,尤其是在信息传递方面,“-건대”前搭配的表达有何特点,若将其与其前的表达看作一个构式整体,不同构式之间的关联如何,发挥怎样的语用功能等方面在前人的研究中鲜有提及。基于此,本文主要从传信范畴的角度对“-건대”的特点进行分析。

- 
- 4) 권재일,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서울: 집문당, 1985, p.58.  
 5) 서태룡, 『國語 活用語尾의 形態와 意味』,首爾: 塔出版社, 1988, p.199.  
 6) 김종록, 『국어 접속문의 통사론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p.10.  
 7) 성동일, 『접속어미 ‘-건대’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p.48-51.  
 8) 이의중, 『한국어 연결 어미의 레지스터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pp.112-117.

## 2. 理论背景

### 1) 韩国语“-X건대”的构式<sup>9)</sup>特点

Goldberg(1995)对构式的定义是, 构式是一个形义配对体, 但我们不能简单从构式的相关组成部分(完全)推出该构式的语义是什么, 构式具有整体性、多义性、动态性、能产性等基本特点,<sup>10)</sup>“-X건대”作为构式也具有相关特征属性, 本文对“-X건대”作为构式能体现构式最主要特点的参项, 如整体性、多义性、动态性、能产性四个方面进行说明。从整体性角度来看,“-X건대”作为构式是由“X”与“건대”成分的组合表示整体性语义的, 即通过“X”的不同来赋予该构式新的语义, 但在此也需要注意的是“건대”实则也并非原本即是一个整体, 其也是由不同的构成要素组合而来的,“건대”的组合实则也是一个构式不断发展并固化的过程, 或者说, 其也可以体现构式不同要素之间相互组合最终发展出带有固定属性的整体性语义。从多义性角度来看,“-X건대”构式可以根据添加不同的“X”成分表示不同的多义性, 这不仅是“-X건대”构式所独有的特征, 凡是具有能产性的构式可以说无一不具有该特征, 但需要注意的是多义性内部的典型性以及非典型性语义, 尤其是无论“X”怎么变化,“-X건대”都可

9) 根据审稿建议, 我们将构式理论部分的内容以脚注形式处理。具体如下: 构式理论是近一阶段备受关注的语法理论, Goldberg(1995)对构式的定义如下:“C是构式, 当且仅当C是一个形式(Fi)与意义(Si)的配对体(pairing), 无论是形式或意义的某些特征都不能完全从C的组成部分或先前已有的其他构式推知。”即“构式”是形式与意义的结合体(pairing of form and meaning)或“形式与功能的结合体(pairing of form and function)”。(Goldberg, 1995; Jackendoff, 1997; Kay & Fillmore, 1999) 并且该定义也强调了构式的不可预测性(unpredictability)。近年来, 随着构式理论的发展、推广和应用, 国内外学界对构式的关注不再仅局限于构式的形义配对, 也愈发关注构式网络之间的相互联结、相互作用。近期汉语学界, 施春宏(2024), 夏欢乐、张谊生(2024)的研究颇具代表性, 尤其是施春宏(2024)对构式网络的运作过程进行了深入的讨论, 其重点强调了构式网络的各个组成部分在互动中互塑。尤其是在宏观层面将构式网络运作的基本原理概括为形义匹配性、经济适应性、价值调变性三个方面, 将构式网络运作的基本机制概括为互动机制、压制机制、反馈机制三种类型。

10) Goldberg, A. E.,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5, p.4.

能带有相对底层性质的语义，或者说具有一种相对单义性。从动态性和能产性角度来看，“-X건대”不是一成不变的，其通过与不同要素的结合产生出新的表达，在底层或典型语义的基础上扩展出带有不同次类属性的表达。既然“-X건대”是一个具有较典型构式性质的表达，那就需要思考其构成部分具有怎样的语义，发挥怎样的作用等。首先来看“건대”本身的语义，《표준국어대사전》、《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어미·조사 전문가용 사전》对“건대”的释义情况如下：

〈表1〉韩国语“건대”在词典中的释义

词典	释义
『표준국어대사전』	일부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 뒷절의 내용이 화가자 보거나 듣거나 바라거나 생각하는 따위의 내용임을 미리 밝히는 연결어미. 내가 보건대 저놈은 장차 크게 될 아이야. 신이시여, 바라건대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제가 장담하건대 신제품은 엄청난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제발 바라건대 정신 좀 차려라. 듣건대 당국이 이 문제의 해결을 서두른다 하니 일단 안심이 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일부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뒤 문장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바람 등을 말한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어미 1.〔‘생각하다, 추측하다, 보다’ 등의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말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릴 때 쓴다. 즉 뒤 문장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다. 예: 제각 생각하건대 그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이번 전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짐작하건대 누군가가 우리 일을 방해하는 게 분명합니다. 2.〔‘바라다, 부탁하다, 기대하다’ 등의 동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뒤의 내용을 바라거나 부탁함을 나타낸다. 예: 바라건대 이번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제차 당부하건대 저희 편에 서주세요. 기대하건대 내년 봄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어미·조사 전문가용 사전』	-건대(연결어미) 1.〔‘듣다, 보다, 생각하다, 추측하다’ 등의 동사에 쓰이어〕 뒤의 사실을 말하게 되는 근거임을 나타낸다. ‘-아 보면’의 뜻. 이제 와서 생각하건대 선생님이 옳았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버지는 어제 오후에 오신 게 틀림없어요. 회고하건대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함께 했습니다. 듣건대 북한에서는 백두산을 관광 자원이자 신화의 장소 이상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2.〔'바라다, 당부하다, 단언하다' 등의 동사에 쓰이어〕 전제를 나타낸다. '-는데'의 뜻. 바라건대 저를 도와주소서. 내 당부하건대 그 일은 아주 엄하게 다스리시오. 맹세코 말하건대 그것은 아닙니다. 단언하건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	--

从辞典释义来看, 『표준국어대사전』中对"건대"的释义是一个义项, 表示说话者所看、所听、所望、所想的内容, 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与 『어미·조사 전문가용 사전』对"건대"的释义相对较为详细, 主要分为两个义项, 一是与表示思考、推测的动词连用, 表明言者自身的想法或见解, 一是与表希望、拜托、期待的动词表示说话人的某种希望。但相较于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어미·조사 전문가용 사전』对"건대"的释义相对来说有所不同, 其第一个义项表示后述事实的根据, 第二个义项主要与希望、嘱咐、断言等动词连用, 表示某种前提。基于上述语义, 本文尝试对韩国语"-X건대"构式的传信特点进行分析。

## 2) 理论背景-传信理论

Jakobson(1957)<sup>11)</sup>, Bybee(1985)<sup>12)</sup>, Willet(1988)<sup>13)</sup>, Aikhenvald(2004)<sup>14)</sup>等都曾对传信做出过相关定义, 其实最早对传信标记展开研究的可以追溯至Franz Boas(1911, 1938)对加拿大原住民语言Kwakiutl语中与传信性相近的概念进行考察, Franz Boas(1911: 43)认为Kwakiutl语中需要带有传信性质的表达来引入对话中的新主题,<sup>15)</sup>如"el(a)"、"Emsku"、"Eng"、"xEnt"。尽管各

11) Jakobson, R.,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Selected Writings II, Word and language*, The Hague: Mouton, 1957, pp.13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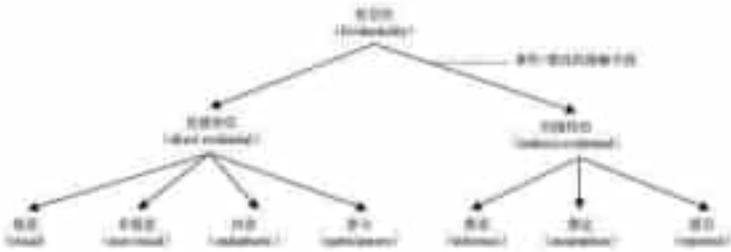
12) Bybee, J. L.,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p.184.

13) Willett, Thomas, "A Cross-Linguistic Survey of the Grammaticalization of Evidentiality", *Studies in Language*, 12, 1988, p.55.

14) Aikhenvald, Alexandra Y.,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3.

15) 原文如下: Franz Boas (1911: 43) the Kwakiutl would require a form indicating whether this is a new subject introduced in conversation or not; and in case the speaker had not seen the sick person himself, he would have to express whether

家对传信的定义略有不同,但可以肯定的是传信表示的是“传递句子信息来源 (data-source) 的语法范畴”。其后Willet(1988)<sup>16)</sup>, Plungian (2001)<sup>17)</sup>, Aikhenvald(2004)<sup>18)</sup>, Plungian (2010)<sup>19)</sup>等学者也对传信范畴的分类展开了研究,整理来看,传信可以根据事件/情况的接触手段分为直接传信 (direct/first-hand/witnessed evidential) 和间接传信 (indirect/non-firsthand/non-witnessed evidential); 可以根据获得直接信息的方法分为视觉 (visual), 非视觉 (non-visual/sensory/sensoric), 内省 (endophoric), 参与 (participatory); 根据获得间接信息的方法分为推论 (inference), 推定 (assumption), 报告 (reported)。



〈图1〉传信类型(根据송재욱:2023整理)

he knows by hearsay or by evidence that the person is sick, or whether he has dreamed it.

- 16) Willett, Thomas, "A Cross-Linguistic Survey of the Grammaticalization of Evidentiality", *Studies in Language*, 12, 1988, p.57.
- 17) Plungian, Vladimir A., "The place of evidentiality within the universal grammatical space", *Journal of Pragmatics*, 33, 2001, p.353.
- 18) Aikhenvald, Alexandra Y.,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65.
- 19) Plungian, Vladimir A., "The place of evidentiality within the universal grammatical space", *Journal of Pragmatics*, 33, 2001,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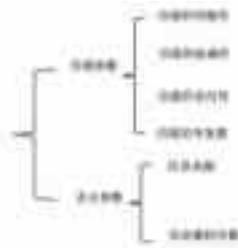
前人对传信的相关类型进行了深入且有益的研究。但是，话语交际过程中信息传递的可衡量程度，或者说以怎样的可操作的参数进行衡量，相关研究还少有提及。岳易婷(2021)在对汉语传信标记“说”的特征进行分析时使用的信源参数颇有参考意义，<sup>20)</sup>本文对其衡量标准进行了调整，可得到如下信源参数：



〈图2〉信源参数类型(根据岳易婷·2021调整)

本文在上述理论的支撑下，主要对韩国语构式-X건대"的传信特征、构式联结以及相关的语用特征进行分析。

20)



在此说明为何进行上述调整，在此尝试对传信的信源进行一些可操作的分析，传信本身即为一个语义语用的概念，本文认为没有必要将其单列，而岳易婷(2021)语义参项下的信息来源一项也与整个信源参项有重复，故将其进行了删除，最终调整为“信息的明确性”、“信源的权威性”、“信源的亲历性”、“信源的单复数”、“信息辗转次数”五项。

### 3. 韩国语“-X건대”构式的语义类型-内部关联-语用属性

#### 1) 韩国语“-X건대”构式的语义类型

本文对韩国语构式“-X건대”的语义分类主要借助了一定语料进行分析,在此对语料情况进行说明。本文使用的语料主要为고꼬마 세종말뭉치以及自建语料库, 21)其中前者243条相关语料, 后者共检索出105条, 删除重复语料5条, 共对343条语料进行了分析。22)

〈表2〉韩国语“-건대”的传信表现类型

类型	此类	具体表现	频次	比重
视觉	指向过去	보건대 1	8	2.33%
		보건대 2	58	16.91%
	指向现在	살피건대	5	1.46%
非视觉	听觉	듣건대	19	5.54%
	内省	생각건대	36	10.50%
推论		추측건대(추정/추론)	35	10.20%
		짐작건대	29	8.45%
推定		판단하건대	5	1.46%
		단언하건대	10	2.92%
		장담하건대	14	4.08%
愿望1		소망하건대	2	0.58%
		바라건대	21	6.12%
		원하건대	7	2.04%
		애원하건대	2	0.58%
愿望2		맹세하건대	4	1.17%
		약속하건대	2	0.58%
言说类	一般说明	말하건대	33	9.62%
		요약하건대	4	1.17%
	强调说明	강조하건대	3	0.87%
		되풀이하건대	4	1.17%

21) 该韩汉双语语料库大小为213,324,046字節, 其主要為電視劇口語對話語料, 既包括了古代電視劇, 也有現代電視劇, 本文主要以現代電視劇相關語料為主。(審稿專家指出這裡需要簡要說明相關電視劇的數量及播出的時間範圍, 由于語料庫非筆者自建且沒有具體標注故無法提供具體數值, 僅能提供總的容量與字節, 今後我們將圍繞幾個單一具體的語料繼續展開分析。)

22) 本文的例句也皆出于此, 后文不单独标注。

	建议	청하건대	2	0.58%
		권하건대	2	0.58%
	其他	비유건대	7	2.04%
		고백하건대	5	1.46%
		상고하건대	2	0.58%
		其他言说	24	7.00%
总计			343	99.99%

### (1) 类型一：视觉传信类型

根据前人的研究，通过视觉获得的信息可靠性或者说准确性最高，韩语通常用“보건대”表达，表示“从……来看”、“由此来看”、（笔者）认为、“依我所见”等，相关表达都带有不同程度的视觉属性<sup>23)</sup>，根据对现有语料的观察，在此将“보건대”主要分为两种类型，一种是指向过去的信息、一种是指向现在的信息，具体来看：

#### 【指向过去】

- (1)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빈 수레가 요란한 경우가 많았다.
- (2) 즉, 소월시를 논의하는 방식에는 여태까지의 성과로 **보건대**, 우리의 지적 흥미를 이끌 만한 요인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上述例句中，第一组例句中“보건대”所在的句子表示“从过往经验来看”以及“从迄今为止的成果来看”。在信息的明确性来看，“过往的经验”以及“迄今为止的成果”都是较为明确的信息来源，从权威性角度来看，尽管既往的经验并不一定是带有绝对的权威性，但其具有相当的可信性，因为社会成员一般都会默认已经成为经验的事实带有权威性，有需要遵循的必要性和规范性；从信源的亲历性来看，说话人不一定亲历相关事实；从信源的单复数情况来看

23) 在此需要说明的是为何是不同程度的视觉属性，“看”作为一个常用表达其除了视觉动作上的“看”之外，也经过语法化发展出相对虚化的用法，这一点在韩语的“보다”也有所体现，汉语的“看”，日语的“みる”都是十分多义的表达，其多义表达间存在主观化、语法化程度的不同。

看,“过往的经验”以及“迄今为止的成果”带有抽象性的复数特征。岳易婷(2021)认为复数的信源通常比单数信源更能赋予标记和内容以叙实性。<sup>24)</sup>众人所见要比一个人看到的内容更具可信性。从信息的辗转次数来看,相关信息依靠说话人自己进行观察和总结即可,并非是辗转两次甚至两次以上的多手消息,这样一定程度上可以确保相关信息的现实性。

【指向现在】

(3) 편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J양은 아마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으로서 경제학이란 그 '사막한' 느낌의 학문을——실제로 토마스 카알라일은 "경제학은 우울한(dismal) 학문이다."

(4) 육갑으로 **보건대**, 을축년은 우리 민족에게 꼭 인연이 깊은 해라고 할 수밖에 없다.

与上述回溯指向过去信息不同的是,该类型指向的是现在的信息。从信息的明确性来看,动作主体通过“亲自看/阅读信件”、“从六甲来看”等内容分别对“学生的兴趣爱好”、“今年的情况”进行判断,相对来说,信息较为明确,且属于动作主体亲自经历的情况。从权威性来看,相关的信息是动作主体自己进行推测判断的,而非是权威机构或相关人士提供的信息,其权威性相对较弱。信源的单复数为单数,并没有其他辗转次数,这决定了相关信息的叙实性较强,动作主体对“J某作为即将高考的学生认为经济学是有着‘冷漠’感觉的学问”这一判断大概率是正确的,且后文也引用了“托马斯·卡莱尔”的话来反证动作主体对“J某”的判断是正确的。例(4)中,“보건대”后的信息也给出了说话人对乙丑年情况的判断,即乙丑年对于我们民族来说是很有缘分的一年。

(2) 类型二：非视觉（听觉）传信类型

(5) 소문에 **들건대**, 내가 가한 고문의 고통이 심했는지 그녀는 점점 광신적인 종교로 빠져들어갔다고 하였다.

24) 岳易婷, 『說類傳信標記의叙實性研究』, 四川大學, 2021, p.44.

(6) 심리학자의 말을 **듣건대**, 검은빛은 어두움의 빛이요, 어두움은 무서운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이 다 이 빛을 싫어한다고 한다.

该类型主要是非视觉, 即通过听觉、嗅觉、味觉等获得信息的类型, 相较于视传信, 其叙实性较前一类型有所减弱, 其常表示“听说”、“据说”、“传闻说”等。从信息的明确性来看, 该类型的信息是通过他人获得的, 其间可能经历了多道传递过程, 尤其如例(5)中“传闻说”的信息明确性相较例(6)的“据心理学家说”更为模糊, 整个信源明确性相较类型一较为模糊。从信源的权威性来看, 例(6)明显要高于例(5), 即说话人听到的信息既可以从非权威人士处获得的, 也可以是从权威人士处获得的。从信源的亲历性来看, 尽管例(6)中有明确的信息来源, 但“心理学家”是否亲自参与了后述信息是难以判断的, “黑暗是可怕东西的根源”并不能说是“心理学家”亲自经历获得的信息, 其亲历性较类型一相对模糊。从信源单复数来看, 真正发出“传闻”信息的人既可以是一个人也可以是多个人, “心理学家”既可以定指某位具体的“心理学家”, 也可以指代“心理学家”这一群体, 故其单复数需要根据具体语境中言者和听者的所指进行判断。从信息的辗转次数来看, 其既可以是如例(5)进行多次辗转, 也可以是经由“心理学家”进行一次辗转。

### (3) 类型三：内省类型

(7) 제가 **생각건대** 당신은 제가 당신이 대학생이어서 좋아한다고 생각하고는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았습니다.

(8) 그러니까, **생각건대** 작가가 아버지를 한갓 구멍가게 주인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일종의 전략이었을 것이다.

内省类型主要通过“생각건대”来表示说话人或动作主体自身的想法, 其主要表示“我想”、“我认为”。一般来说, “想”这一动作发出的主体应该是第一人称, 即其他人难以知晓动作主体的想法或感受, 这也决定了其或显性或隐性的主语需要是第一人称。从信息的明确性来看, 该类型的信息来源较为明

确, 即皆为动作主体自己, 信源的权威性相对较弱, 作为动作主体内省的信息, 带有较强的主观性, 相关信息于他人而言不一定是可靠的或权威的。从信源的亲历性来看, 动作主体“我”可能参与了相关事件, 如例(7)中“你是因为我是大学生所以喜欢我才动脑筋的”, 其中动作主体“我”的身份就是大学生, 自然是事件的亲历者, 但例(8)中, 动作主体“我”很难说是“作家让父亲成为一家小店的主人是一种战略”这一信息的亲历者, 而只能说是对相关事件可能存在的条件进行的某种判断。从信源单复数来看, 该类型的信源为单数, 没有相关辗转次数。

#### (4) 类型四: 推论类型

(9) **추측건대** 그는 1986년에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란드(덴마크 영토)로 가는 도중 길을 잃고 표류하다가 지금의 케이프만이라 여겨지는 곳을 발견했다.

(10) **짐작건대**,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같은 기관 이름이 아니면 '컴퓨터, 통신 위성' 같은 첨단 설비를 머리에 떠올릴 것이다.

内省类型主要通过带有推测性质的表述, 如“추측건대”、“짐작건대”进行表达, 其主要表示“据推测”。其信源的明确性相对模糊, 除非以韩语“主语+推测表达+건대”或汉语“据+推测主体+推测”表达, 在此较难知晓相关信息是由谁推测的。从信源的权威性来看, 尽管在此并不知晓具体的主体, 但从后述信息“他于1986年在从冰岛……开普曼的地方”、“中央情报部、安全企划部等机构的名字”来看, 相关信息较为正式, 具有一定可信度。从信源的亲历性来看, 相关信息主要以推测性质的信息为主, 推测主体不一定亲自参与其中, 或者说非亲身经历的较大。信源的单复数相对较模糊, 由于推测主体的模糊性在此较难说相关信息是由一个人推测的还是由多人推测的。从信息辗转次数来看, 相较听说类型此类带有强烈传递性质的表达, 推论类型的辗转次数较低, 基本以较直接的方式传递给认知主体。

## (5) 类型五：推定类型

(11) **단정건대**, 그들은 빵집이나 순대국밥집 또는 돼지족발집에서 만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12) 제가 **장담하건대**, 이번에는 무조건 그 땅볼 선수가 1등 상을 차지할 거예요.

推定类型既带有推测属性, 但同时也有较强的断言属性, 即动作主体对相关信息持有较大把握或较大信心认定推测的信息为真, 该类型主要为“带有断言性质的表达+건대”, 表示“可以断定”、“我敢打赌”等。从信源的明确性来看, 尽管相关例句表达不一定明确显示推定主体, 但通过相关主体不难发现该类型的信息来源基本是第一人称表达, 信源的权威性较弱, 带有较强的主观性。从信源的亲历性来看, 带有第一人称性质的认知或动作主体对后续事件信息介入的可能性加大, 如例(11)中动作主体推断出的信息可以是动作主体亲身看到“他们在面包店、米肠汤饭店或猪蹄店见面”的场景。从信源单复数来看, 一般情况下信源以单数为主, 非单数情况下, 动作主体表现出的断言属性较难体现。信息辗转次数较少, 现有语料中皆为第一人称推定性质的表达, 即说话人与第一人称重合, 相关信息是说话人自己的意志或推断。

## (6) 类型六：愿望类型

## ① 愿望类 1

(13) **원하건대** 왕의 신령이 도솔천으로 올라가 미륵을 뵈고 천손(天孙)과 함께 만나 모든 생명이 경사스러움을 입게 하소서.

(14) **바라건대** 나의 애달픈 고충을 명찰하고 명일의 건전한 조국을 위하여 한번 더 심사(深思)하라.

愿望1类型主要通过“带有希望、愿望性质的动词表达+건대”进行表达, 其通常表示“希望”、“愿望”等带有祈愿性质的状态。该类型的信源较为明确, 即

是说话人或第一人称，其权威性相对较弱，主观性较强，亲历性交强，信源单一，不存在信息辗转。需要注意的是，该类型作为愿望类型，相关例句的后续信息“国王的神灵登上兜率川去见弥勒”、“明察我的苦衷”等信息带有非现实性，即“X+건대”表示的是说话人的某种祈愿，但后述信息是否真的可以实现，并不取决于说话人，而取决于听话人或客观条件，换言之，相关信息有不能实现或者说与说话人的祈愿或预期相反的可能。

## ② 愿望类 2

(15) 나 AAA은 하늘에 **맹세하건대**, 나는 결코 아내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침을 다시 두지도 않을 것이다.

(16) **약속하건대** 언젠가는 이만 리의 산하가 모두 나의 것이 될 것이니, 나는 강산을 밟아 나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 당신을 위해 해결책을 찾겠다.

愿望类型2主要通过“带有承诺或决心性质的动词表达+건대”进行表达，主要表示“我发誓”、“我保证”。上述例句中信源明确，即都是说话人自己，信息的权威性较弱，亲历性较强，信源单一，辗转次数单一。与愿望1类型相似的是，该类型同样表示的是非现实性质的表达，即“X+건대”后的信息是否真的可以实现还带有相当的不确定性，更重要的是与愿望1类型不同的是，愿望1类型的相关祈愿或假设能否真正实现取决于听话人，而非说话人，即说话人主观上肯定希望相关的祈愿与期待能够实现，但决定实现与否的关键不在于说话人而在于听话人。愿望2类型与其正好相反，说话人承诺或决心做某事，事件实现与否的关键在说话人而非听话人，另外，尽管说话人做出了承诺或保证但“不会抛妻弃子，也不会续弦娶小妾”、“我将踏破河山，倾尽我所有的能力，为你找到解决之法”此类信息是否是说话人主动愿意为之是不可知的，即不排除是听话人希望说话人“不抛妻弃子，也不续弦娶小妾”、“找到解决之法”，但说话人主观上想要“抛妻弃子，续弦娶小妾”、“不想找到解决之法”的可能。

## (7) 类型七：言说类型

## ① 一般说明类

在检索分类的语料中，“X+건대”中“X”以言说动词的表达较普遍常见，但不同言说动词发挥的语用功能并不完全相同，在此将现有语料中的言说动词根据其在语用交际过程中发挥的作用分为一般说明类、强调说明类、建议说明类、比喻说明类等类型。

(17) 분명히 **말하건대**, 너랑 내가 아들을 낳게 된다면 난 분명 좋은 아빠가 될 거야.

(18) 거듭 **말하건대**, 날치기한 안건들을 소관 상위의 재심의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법사위와 본 회의 통과를 기도하는 일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민자당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한다.

一般说明类型通常以“말하건대”的形式进行表达，表示言说。该类型的信源参数可做如下分析，即上述类型的信源明确，皆为第一人称说话人，权威性相对较弱，主观性较强。但是，在例(18)的表达中，我们根据后述信息可以推测“民自党应该铭记”的这部分信息其权威性较例(17)明显较强。从信源的亲历性来看，上述例句中说话人不一定亲历相关事件，但在检索的相关语料中，“말하건대”也常与第一人称主语“제가”搭配，如“제가 말하건대, 이걸로 당신과 끝이 아니에요.(我告诉你，这事跟你没完)”，一定程度上可以反映一般言说类性质的表达其既可以是亲历的，也可以是非亲历的。尽管“말하건대”前也常出现“다시”、“거듭”等带有反复性质的副词表达，但这并非说其存在多个信源，而是同一信源信息的反复。相关表达基本不存在信源辗转，是说话人向听话人直接传递信息。

## ② 强调说明类

(19) **강조하건대** 이 대폭발 이전의 시기는 신비한 시기가 아니다.

(20) 오늘의 정신적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건대**, 그것은 사실주의 또는 현실주의 또는 리얼리즘이라는 말로 부를 수 있다.

韩语强调说明类型通常以“带有强调性质的表达+건대”组合而成，其通常表示“强调一下”、“概括起来/总之”等。从信源来看，其通常是第一人称主语来对相关事件进行强调或总结，但一般第一人称在句中并不显性出现，而是以隐性形式向听者传递信息。信源可以是说话人主观见解、立场态度的表达，如“这场大爆炸之前的时期不是神秘的时期”，也可以是对前述信息的概括总结，如例(20)，这类总结性质的信息实际上也是对前述信息的进一步强调。从信源亲历性来看，说话人不一定亲历相关事件，可能是仅对一般常理的陈述。信源较单一，基本没有信息辗转，以直接的方式传递给听话人。

### ③ 建议说明类

- (21) 그러므로 내가 네게 **권하건대** 이 풀고리를 적게 끼는 것이 좋겠다.  
 (22) 나는 한마디 **권하건대**,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sup>25)</sup>

韩语建议言说类型通常以“劝说类动词+건대”组合而成，如较常见的“권하건대”，表示劝诫、劝告，如上述两例中韩语“권하건대”常与“권하건대”表达共现，而其对应的汉语常为“我劝你”再加“……为好”、“最好”等带有劝谏、建议的表达，即说话人以较委婉的方式让听话人进行或不进行某一行为。该类型的信源较明确为第一人称，信源的权威性较强，即尽管相关例句中的信源并非一定是政府机构等绝对的权威，在交际过程中，交际一方相较另一方持有更多信息或能提供更好的建议时也可以看作持有一定权威性。从信源亲历性的角度来看，该类型说话人的亲历性较强，或者说，正是说话人对相关事件有比较直接的体验才能向听话人提出“少戴这草环”、“做出正确选择”的建议。该类型的信源比较单一，即出自说话人直接的建议，基本没有信息辗转和相关信

25) 该例句根据审稿专家的建议进行了修正。

息的损耗。

#### ④ 比喻说明类

(23) **비유컨대**, 그것은 그지없이 황폐한 광야에서의 방황이었다.

(24) **비유컨대**, 겸재 정선의 그림에 의해 조선의 국토가 진경을 획득하게 되었다면, [관동별곡]은 우리말의 화필로 그려진 진경산수화가 아닐는지.

韩语其他言说类型中通常也以“言说动词+컨대”的形式表达，在此不逐一说明，但其中“비유컨대”这一表达较有特点需要单独进行说明。“비유컨대”对应汉语“打个比方”，是说话人对相关事件做进一步解释说明的表达。从信源的明确性来看，相关比喻性质的信息出自说话人，是说话人对前述信息进一步转化式的解释说明，信源的权威性存在不确定性，即说话人既可以是有有一定权威性的专家人士，也可以是一般的说话人。从信源的亲历性来看，例(23)中，说话人可以是直接经历相关事件而获得“彷徨”的感受，也可以如例(24)是说话人对相关事件带有解释说明的评论，而不一定是亲自经历。信源的单复数相对比较单一，基本没有信息辗转或其他损耗，主要是说话人直接将归纳解释性的信息传递给听者。

以上，本文对韩语“X+컨대”的传信参数及其对应的常用汉语表达进行了分析，现将其归纳总结如下表格：

〈表3〉 韩国语“컨대”的信源参数整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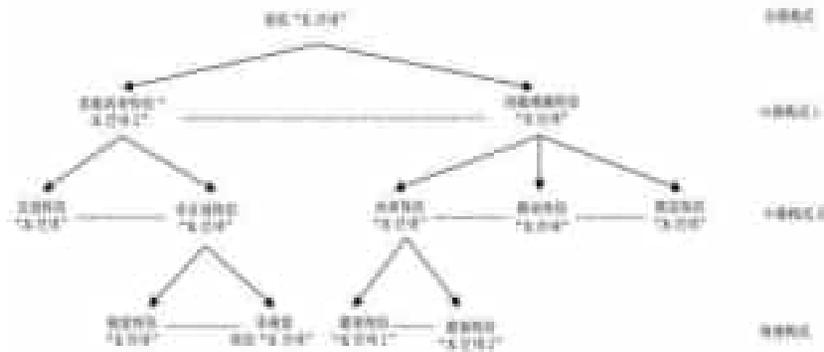
—	信源明确性	信源权威性	信源亲历性	信源单复数	信息辗转次数	
视觉传信	+	±	±	+	-	
非视觉传信	±	±	-	±	±	
内省	+	-	±	-	-	
推论	-	±	-	±	-	
推定	+	-	+	-	-	
愿望类	愿望类1	+	-	+	-	-
	愿望类2	+	-	+	-	-
言说类	一般说明	+	±	±	-	-

	强调说明	+	±	±	-	-
	建议	+	+	+	-	-
	其他(比喻)	+	±	±	-	-

根据上述表格可以观察得到如下信息：“X+건대”的视觉传信与非视觉传信的信源参项之间具有一定镜像分布特征；内省传信与推定传信的信信特征较为相似，但推论传信与内省传信、推定传信相比，在“信源明确性”、“信源权威性”、“信源单复数”存在较大差别；愿望1传信类型与愿望2传信类型的传信特点基本一致，但两者语用效果的方向相反；言说类传信表达中除建议类传信外，一般说明、强调说明等其他类型的传信特点具有一致性的倾向。

## 2) 韩国语“-X건대”构式的内部关联

上文主要对韩语构式“-X+건대”的信信特征以及相关的叙实特征进行了分析，可以发现“-X+건대”的不同类型并非孤立存在，彼此存在相互的构式联结。基于构式在宏观和微观层面的运作，现将韩语构式“-X+건대”的构式层级建构如下：



〈图3〉韩国语“-X+건대”的传信构式层级

在此将韩语构式“-X+건대”分为带有直接具身性的传信构式“-X+건대1”以及间接推测性的传信构式“-X+건대2”，两者属于次于宏观构式“-X+건대”的中观构

式层级, 两者又可下属分类出不同微观构式, 而两类中观构式之间存在直接具身体认与间接推测的区分, 后者相较前者而言相对更为抽象, 但在较多情况下, 相关的推测也是在具身体验的基础上完成的, 即两种主要的中观构式之间彼此存在构间互动<sup>26)</sup>。接下来, 我们来看从属于中观构式的微观构式及其相互作用机制。

首先, 从属于直接具身性传信构式“X+건대1”本文主要区分了非言说类型的传信构式“X+건대”和言说类型的传信构式“X+건대”, 之所以进行这样的区分是因为言说类与非言说类皆借助相关感官进行传信, 但两者的方向性存在不同, 言说类突显的是动作主体自内向外输出信息的主动性, 非言说类突显的是动作主体由外部环境感知的相对被动性, 前者构式中在检索的语料中表现十分多样, 其信源参数亦存在微观差异, 后者构式又可分为视觉传信构式类型和非视觉传信构式类型, 根据Aikhenvald(2004)等前人研究, 视觉传信的可信度要强于非视觉传信的类型<sup>27)</sup>, 即“보건대”、“살피건대”等表达的可信度要高于可能经过多次信息辗转的“듣건대”等表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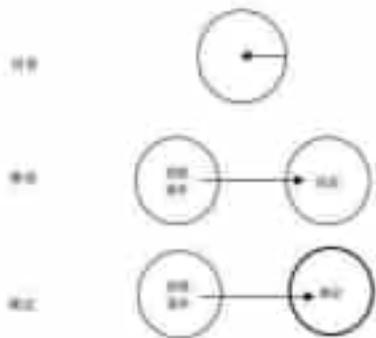
其次, 从属于间接推测性的传信构式“X+건대2”, 其下属可分为内省传信类型、推论传信类型、推定传信类型三种微观构式, 尽管Plungian (2010)<sup>28)</sup>的分类中将内省归类于直接传信的范畴, 但在根本上, 其与间接传信中的推论传信与推定传信具有一致性, 即皆需要说话人或动作主体进行思考, 故在此将内省传信归类于间接推测性的传信构式类型中, 这种本质上的共性决定了此三类微观构式内部存在彼此进行构式互动的可能。一般情况下, 当认知主体为第一人称, 即强调认知主体自身的思维活动, 个体对自身内心世界的主观经验进行观察和理解时, 一般为内省传信构式。当强调从已知或既有的前提、条件、线索推理得出新结论时为推论传信, 而当强调根据某一情况进行推测进而做出某种判断时为推定传信, 即三者皆属于带有推测性质的传

26) 施春宏, 「构式网络的运作: 在互动中互塑」, 『世界汉语教学』, 01, 2024, p.11.

27) Aikhenvald, Alexandra Y.,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65.

28) Plungian, Vladimir A., “The place of evidentiality within the universal grammatical space”, *Journal of Pragmatics*, 33, 2001, p.37.

信类型。



〈图4〉内省传信’推论传信’推定传信的意象图式

此外，本文将两个愿望传信构式置于内省传信构式“X+건대2”的下属范围内，这种愿望或祈愿本质上是说话人或动作主体对内心诉求的直接反映。愿望1传信构式类型突显的是自身希望或预期看到的某种结果，愿望2传信构式突显的是说话人自身的意志和决心，其纵向上与内省传信构式之间存在包含、被包含的关系，横向上其可以是在愿望1传信构式的基础上做出的进一步判断和发展。

### 3) 韩国语“-X건대”构式的语用属性<sup>29)</sup>

韩国语“-X건대”构式作为一个具有古语色彩的表达，前人对其语义语用功能的讨论主要集中在其表示言者“任意性质的确认(임의적 확인)”或“前提(전제)”以及与其相关的带有“原因或理由”的附属语义表达。关于“-X건대”在语用文体上的表现，이의중(2020)主要区分了“-X건대”在不同该问题中的使用情况，其主要观点认为“-X건대”的后一小句主要表示文本生产者的判断、见解、意向或知识的内容，前一小句通常具有陈述前述小句性质、信息来源或言

29) 本文之所以在这里进行再思考，或者说想要寻求“-X건대”较本质的语用功能，主要是受赵新建(2012)的启发，即对韩国语表达相对单义性进行提取。

语类型的功能。<sup>30)</sup>其经过统计认为“-X건대”用于学术文献体裁，表示阐释笔者自身的观点，如：

(25) 돌이켜보면, 또 역사적 경험에 **비추건대**,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옳은 길이었다. (학술 문헌, 『러시아 혁명사』) (转引自이의중 2020:116)

(26) **종합해보건대**, 맥닐 Robert H. McNeal이 지적했듯이, 그녀는 본질적으로 혁명의 직업에 맞춰 태어났다. (후략) (학술 문헌, 『러시아 혁명사』) (转引自이의중 2020:116)

反之，在新闻报道等需要传达客观信息的体裁中则尽可能避免使用带有笔者个人判断或主观观点的表达，而根据이의중(2020)的观察，在新闻报道的体裁中“-X건대”主要以引用句的形式出现，如：

(27) NSA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정보당국이 부제가 투표 관련 계정에도 진입을 시도했다면 "**집착건대** 계정을 만들어 합법적인 시스템을 배끼려고 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보도, 『SBS뉴스』) (转引自이의중 2020:116)

(28) 트럼프는 로이터 통신에 이어 28일 워싱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왜 우리가 사드배치 비용을 내야 하는냐. 정중히 **말하건대** 비용을 한국이 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문 보도, 『동아일보』) (转引自이의중 2020:116)

对于이의중(2020)对“-X건대”语用功能的上述观察，本文基本同意上述观点，但本文认为对于“-X건대”的语用功能可以做进一步的阐释。当“-X건대”用于学术体裁中，<sup>31)</sup>如上述例句中的“역사적 경험에 비추건대”、“종합해보건대”并非完全是笔者自身的观点，从例句所在的语境来看，笔者是根据客观的历史经验进行总结或者对前文信息进行总结，相关信息并不能完全看作是笔者自身的个人观点，换言之，“-X건대”的后述信息带有总结性质，且具有一定客观属性的表达。在需要客观传递信息的新闻报道语篇中，“-X건대”主要以直接

30) 이의중, 『한국어 연결 어미의 레지스터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p.116.

31) 同上.

引语的形式出现,即表示的是说话人自身的主观推断、见解等,这一点与前文的韩汉或韩外观察的例句具有一致性,但在此需要进一步思考的是“-X건대”在带有推测性质的主观表达中到底发挥怎样的作用。本文认为无论“-X건대”是在何种语体或语境中其皆带有一定“信息客观化”的信息包装功能,即可以先将其功能做如下表示:

[[主观(推测)信息] 건대客观化信息包装]—(新闻体裁直接引用)

[[客观信息] 건대客观化信息包装/汇总]—(学术体裁)

根据上述公式,本文认为“-X건대”无论在何种体裁中无论“X”前是主观性质的信息还是客观性质的信息,皆有一定“信息客观化”的作用,当其前为主观性推测信息时,如“짐작하다”、“말하다”时,即便不使用“-X건대”构式,句子仍然可以通过转变为其他形式表达,如下例,但句子的客观属性或正式属性明显降低。

(29) **짐작건대** 계정을 만들어 합법적인 시스템을 बे끼려고 한 것 같다

\*나/S는 계정을 만들어 합법적인 시스템을 बे끼려고 한 것 같다고 짐작한다.

(30) **종합해보건대**, 맥닐 ...지적했듯이, 그녀는 본질적으로 혁명의 직업에 맞춰 태어났다.

\*맥닐 Robert H. McNeal이 지적했듯이, 그녀는 본질적으로 혁명의 직업에 맞춰 태어났다.

在此,本文认为“-X건대”除了表示上文提及的不同传信类型之外,其在语用层面可以发挥使信息客观化或使信息进一步“凝聚化”的功能。

#### 4. 结语

本文主要基于传信理论、构式理论对韩国语“-X건대”构式的传信语义类型及其内部特点、构式关联、较本质的语用功能进行了分析,可得出如下小

结：

〈表4〉 韩国语“-X건대”的信源参数整理<sup>32)</sup>

维度	特点	
传信语义	视觉类型、非视觉类型、内省类型、推论类型、推定类型、愿望类型、言说类型 <sup>33)</sup>	
构式关联	可分为宏观构式、中观构式1、中观构式2、微观构式等不同层级类型。	
	横向维度	内省构式、推论构式、推定构式之间存在横向维度上认知突显方面的差别。
	纵向维度	内省构式与愿望构式1、愿望构式2之间存在纵向维度上包含、被包含的关系。
语用功能	具有使信息客观化、凝聚化的信息包装功能。	

第一，在传信语义类型方面，“-X건대”构式可区分为视觉类型、非视觉类型、内省类型、推论类型、推定类型、愿望类型、言说类型7种主要类型以及下属的11个小类，每个类型中的信源参数特点存在微观差异，不同类型间也部分存在或一致，或镜像的分布特点。

第二，在构式关联方面，“-X건대”可分为宏观构式、中观构式1、中观构式2、微观构式等不同层级类型，相关构式在横向和纵向维度上存在交互过程，如内省构式、推论构式、推定构式之间存在横向维度上认知突显方面的差别，内省构式与愿望构式1、愿望构式2之间存在纵向维度上包含、被包含的关系。

第三，在语用方面，本文尝试对“-X건대”相对本质的语用功能进行思考，认为“-X건대”具有使信息客观化、凝聚化的信息包装功能。

由于时间和精力所限，本文对“-X건대”的考察主要限于语义层面，并未对其他语法角度展开分析，文中涉及的语料也相对有限，今后将扩大语料对“-X건대”的用法做进一步的分析。

32) 根据审稿建议我们增加了该表格。

33) 针对不同类型的传信特点可参照〈表3〉。

◆ 参考文献

1. 资料

송재목, 『传信范畴特讲』, 首尔大学国语文课程资料, 2023.

2. 单行本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권재일,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서울: 집문당, 1985.

서태룡, 『国语 活用语尾의 形态와 意味』, 首尔: 塔出版社, 1988.

이정민, 「言语行为에 있어서의 样相构造」, 『现代国语法』, 启明大学 出版部, 1975.

이희자, 이종희, 『어미·조사 전문가용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2010.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37/1959.

赵新建, 『韩国语语法多义现象研究』, 广州: 世界图书出版公司, 2012.

Aikhenvald, Alexandra Y.,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Boas, F., *Introduction*, In Boas F, (ed.), *Handbook of American Indian Languages*, vol. 1.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11.

\_\_\_\_\_, *The Mind of Primitive Man*, New York: Macmillan, 1938.

Bybee, J. L.,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5.

Dahl, Ö., *Tense and Aspect Systems*, Oxford: Blackwell, 1985.

Goldberg, A. E.,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5.

3. 论文

김승근, 「한국어의 연결형어미 「건대」와 「거늘」, 「기에」와 「는지라」의 화용론」, 『건대학술지』, 25, 1981.

김종록, 『국어 접속문의 통사론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박진호, 「한국어(韩国语)에서 증거성(证据性)이나 의외성(意外性)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 사회』, 15, 2011a, pp.1-25.

성동일, 「접속어미 ‘-건대’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송재목, 「증거성(evidentiality)과 주어제약의 유형론-한국어, 몽골어, 티벳어를 예로 들어-」, 『형태론』, 09, 2007, pp.1-23.

\_\_\_\_\_, 「인식양태와 증거성」, 『한국어학』, 44, 2009, pp.27-53.

\_\_\_\_\_, 「‘-더니와 -었더니’:선어말어미 ‘-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어학』, 60, 2011, pp.33-67.

\_\_\_\_\_, 「한국어 종결어미 ‘-네’의 의미기능」, 『국어학』, 76, 2015, pp.123-159.

\_\_\_\_\_, 「의외성(mirative)에 대하여: 독립된 문법범주 설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언어』, 41, 2016, pp. 593-617.

이의중, 『한국어 연결 어미의 레지스터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施春宏, 「构式网络的运作: 在互动中互塑」, 『世界汉语教学』, 01, 2024, pp.11-31.

夏欢乐, 张谊生, 「构式特征在构式化过程中的互动、机制与结果」, 『世界汉语教学』, 02, 2024, pp.218-231.

严辰松, 「构式语法论要」,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 04, 2006, pp.6-11.

岳易婷, 「“说”类传信标记的叙实性研究」, 四川大学, 2021.

Aikhenvald, Alexandra Y., “The essence of mirativity”, *Linguistic Typology*, 16, 2012, pp.435-485.

DeLancey, Scott, “Mirativity: The grammatical marking of unexpected information”, *Linguistic Typology*, 1, 1997, pp.33-52.

\_\_\_\_\_, “The mirative and evidentiality”, *Journal of Pragmatics*, 3, 2001, pp.371-384.

\_\_\_\_\_, “Still mirative after all these years”, *Linguistic Typology*, 16, 2012, pp.529-564.

Jackendoff, R., “Twistin’ the night away”, *Language*, 73, 1997, pp.534-559.

\_\_\_\_\_,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Selected Writings II. Word and language*, The Hague: Mouton, 1957, pp.130-47.

Kay P., Fillmore, C. J., “Grammatical constructions and linguistic generalizations: the What’s X doing Y? construction”, *Language*, 75 1999, pp.1-33.

Plungian, Vladimir A., “The place of evidentiality within the universal grammatical space”, *Journal of Pragmatics*, 33, 2001, pp.349-357.

Willett, Thomas, “A Cross-Linguistic Survey of the Grammaticalization of Evidentiality”, *Studies in Language*, 12, 1988, pp.51-97.

논문접수일	2024년 8월 9일
심사완료일	2024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9일

*Abstract*

## An Analysis of the Evidentiality Types and Semantic Features of the Korean Construction “-X gondaе”

Shan, Qingcong

The Korean construction ‘-X gondaе’ is a typical evidentiality construction, that is, the information obtained by the speaker through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 is transmitted to the listener. Based on evidentiality theory and construction theory, this paper mainly analyzes the semantic types of evidentiality, internal semantic features, construction correlation, and essential pragmatic functions of the Korean construction ‘-X gondaе’.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irst, in terms of the semantic types of evidentiality ‘-X gondaе’, we mainly distinguish eight classes and eleven classes, among which the information source parameters of different types are micro-different; Second, in terms of construction correlation, ‘-X gondaе’ can be divided into different levels of expression, such as macro construction, meso-construction 1, meso-construction 2 and microscopic construction, and related components interact in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Third, in terms of pragmatics, we believe that in addition to the pragmatic functions such as responsibility avoidance mentioned by predecessors, we believe that ‘-X gondaе’ also has the function of information packaging to objectify and condense information.

**Keyword** ‘-X gondaе.’ Evidentiality category, Construction grammar, Construction interaction, Information packaging



# 中高级汉语水平的韩语母语者字感研究

-以形声字为例\*

章婷\*\* · 宋婷立\*\*\*

##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시선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중급 및 고급 한국어 원어민이 형태소 처리에서 '단어 감각' 우위를 보이는지 시각 시나리오 패러다임을 통해 조사하고, 나아가 전체 단어의 친숙도와 의미 투명성이 한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어 원어민은 중국어 원어민과 유사한 처리 패턴을 보이지만 아직 중국어 원어민의 처리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원어민은 한자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단어 감각'의 장점이 있고, 이는 '외적 감각'의 장점과 '내적 감각'의 약점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한자 전체의 친숙도와 형태 구문 문자의 의미 투명성은 한자 인식에 상호 작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친숙성과 의미 투명성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자 인지 처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친숙도 효과는 한자 처리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반면, 의미 투명도 효과는 처리 후반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한-중 모어 화자의 한자어 처리에서는 전체 단어 친숙도 효과가 의미투명도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특히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강한 친숙도 조건에서 의미투명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반면, 중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강한 친숙도 조건에서 의미투명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제 중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단어 감각'을 더욱 함양하기 위해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자의 스크롤링, 한자의 형태적 구조 분석, 적합성 근거의 활용 극대화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제안합니다.

**주제어** 친숙도, 의미 투명성, 한국어 원어민, 단어 감각, 시선 이동

\* 본 연구得到2023年国际中文教育重点研究课题项目“基于《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的语素库建构与实证研究(项目编号为23YH18B)”的支持

\*\* 南京师范大学 文学院 语言学及应用语言学专业 副教授, 第一作者

\*\*\* 南京师范大学 文学院 语言学及应用语言学专业 硕士研究生, 第二作者

## 〈目录〉

1. 引言
2. 研究方法
3. 实验结果
4. 讨论
5. 结论

## 1. 引言

国际中文教育领域中汉字的习得难度是多方面的,涉及语言、文化、认知等多个层面。传统的汉字习得研究主要采用质性分析方法对汉字偏误进行归类并说明其原因(李宝贵等,2022)<sup>1)</sup>,然而偏误分析并不能解释清楚不同母语的学习者对汉字的认知加工机制。例如汉字文化圈的汉语学习者(如韩国、日本等),对于汉字的习得是否具有优势?因此,有学者提出“字感”的概念(徐子亮,1999)<sup>2)</sup>,主张从认知心理的角度对汉字习得情况及原因进行分析。白剑波、刘艳妮(2006)认为字感主要表现在学习者对汉字方块特点的认识上,是无意识中获得的一种对汉字隐含规律的深刻直觉<sup>3)</sup>。汉字“字感”具有主观直觉性、整体认知性、经验习得性、直观敏捷性、形象模糊性等特点(白文婷,2019)<sup>4)</sup>

字感是对汉字的一种综合感悟,反映了学习者对汉字的敏感度和认知能力,表现为一种由外及内不断渗透的动态直觉感知能力系统:“外”指学习者能区别汉字字形及结构的辨认能力;“内”指学习者能自觉将汉字字形和内在理

1) 李宝贵·郭爽·李慧,「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研究的回顾与前瞻——基于文献计量学视角」,『云南师范大学学报(对外汉语教学与研究版)』第2期,2022, pp.11-21.

2) 徐子亮,「对外汉语教学的模式构建」,『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4期,1999,pp.104-109+115.

3) 白剑波·刘艳妮,「试论非汉字文化圈学生的字感培养与获得」,『现代语文』第5期,2006,pp.104-105.

4) 白文婷,「中亚东干留学生字感培养研究」,西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19.

据性联系起来的学习、理解能力(刘姝, 2013) 5)。这种“外感”和“内感”的分类是对“字感”概念较为全面的描述。目前汉字“字感”研究尚未成系统,且“字感”讨论大多局限在教学方法上(谭宏, 2011;尹泓嘉, 2015;肖丽君, 2020) 6),缺少实证方面的研究。

我们通过眼动追踪技术发现:中高级汉语水平的韩语母语者与同等水平的非汉字文化圈的汉语学习者相比,在习得独体字时,对字形、结构的辨认已经具有汉语母语者的心理优势,且对不同笔画类型的独体字习得呈现难度的梯度,具备独有的字感“外感”能力(章婷等, 2023) 7)。韩语母语者对汉字外在字形结构的独特感知能力已经被证实,但是否依然具备内在的汉字感知能力呢?即对合体字的字形与意符之间的语义关联性与理据性的学习、理解能力如何?这是需要我们进一步验证的。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手写汉字表中约有84.3%是合体字,其中形声字占比61.4%(姜颜岐, 2022) 8)。同时,文字学研究表明形声字中大约有2/3为左右结构的形声字,其中90%为左形右声,10%为左声右形(张积家等, 2014) 9)。形声字(尤其是左形右声的形声字)数量占绝对优势,所以对形声字的考察某种程度上反映合体字的加工机制。形声字认知加工过程中影响因素众多,包括字频、熟悉度和语义透明度等。其中,字频和熟悉度二者存在高度相关性(Tanaka-Ishii et al., 2011;孙娜娜、李小建, 2017) 10)。熟悉度是指主体对字词的熟悉程度,相当于主观频率(Gernsbache

5) 刘姝, 「初级阶段非汉字文化圈学生“字感”的培养及汉字教学」, 『长江学术』第1期, 2013, 137-141.

6) 谭宏, 「汉字教学中非汉字文化圈学生的字感研究」, 重庆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10. 尹泓嘉, 「汉字字感的培养与对外汉字教学」, 黑龙江大学硕士学位论文, 2015.

肖丽君, 「以字感培养为核心的对外汉字教学设计」, 华侨大学硕士学位论文, 2020.

7) 章婷·宋婷立·周雅洁, 「韩语母语者的“字感”研究-以独体形近字为例」, 『한중인문학연구』, 2023, pp.345-370.

8) 姜颜岐,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中的手写汉字分析」, 沈阳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22.

9) 张积家·王娟·陈新葵, 「义符研究20年:理论探讨、实验证据和加工模型」, 『心理科学进展』第3期, 2014, pp.381-399.

r, 1984) 11)。相比于字频, 熟悉度是更有效全面的衡量标准 (Connine et al., 1990) 12), 可以更好地反映主体对字的认知程度 (Jiang, 2018; 陈士法, 2009) 13)。学界对熟悉度的确定没有统一的标准, 或根据字频或词频 (高兵、高峰强, 2005; 王娟等, 2014; 陈琳等, 2014) 14); 或通过VKS量表进行主观评定 (Wolter, 2001; 陈新葵、张积家, 2008; 陈士法等人, 2020) 15)。一般认为, 强熟悉度字的识别速度快, 弱熟悉度字的识别速度慢 (白学军等, 2008; Williams & Morris, 2004; Frisson & Pickering, 2007; Dolgusöz, 2018) 16)。除此之外, 语义透明度这一因素也经常被用来考

- 
- 10) Tanaka-Ishii, K., & Terada, H. "Word familiarity and frequency[J]". *Studia Linguistica* 1,2011, pp. 96-116.  
孙娜娜·李小建, 「汉字词频与熟悉度关系的研究」, 『内蒙古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6期, 2017, pp.37-40.
- 11) Gernsbacher, M. A. "Resolving 20 years of inconsistent interactions between lexical familiarity and orthography, concreteness, and polysemy[J]".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2,1984, pp.256-281.
- 12) Connine, C. M., Mullennix, J., Shernoff, E., & Yelen, J. "Word familiarity and frequency in visual and auditory word recognition[J]".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 Cognition* 6,1990, p.1084.
- 13) Jiang, N. *Second Language Processing: An Introduc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8.  
陈士法, 「英语复合词在英汉心理词典中存储单位的实验研究」, 『外语教学与研究』第3期,2009, pp.211-216+241.
- 14) 高兵·高峰强, 「汉语字词识别中词频和语义透明度的交互作用」, 『心理科学』第6期,2005, pp.80-82+87.  
王娟·张积家·许锦宇, 「语义透明度和构词频率对汉语动词多词素词识别的影响」, 『心理与行为研究』第6期, 2014, pp.769-774.  
陈琳·钟罗金·冷英·莫雷, 「拼音自动加工和语义加工中汉字字形的激活」, 『心理学报』第11期, 2014, pp.1661-1670.
- 15) Wolter, Brent. "Comparing the L1 and L2 mental lexical a depth of individual word knowledge model[J]".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2001, pp.41-69.  
陈新葵·张积家, 「义符熟悉性对高频形声字词汇通达的影响」, 『心理学报』第2期,2008, pp.148-159.  
陈士法·彭玉乐·王邵馨·马倩倩·杨连瑞, 「熟悉度和语义透明度对英语二语复合名词加工机制的影响」, 『现代外语』第1期,2020, pp.94-105.

察汉字加工。语义透明度指意符在语义上与整字字义的关联程度 (Yan et al., 2012)<sup>17)</sup>。语义透明度高的意符有助于汉字的语义激活 (高兵, 2004; 洪炜等, 2017; 章玉祉、张积家, 2018; Xu & Taft, 2015; Kim et al., 2019)<sup>18)</sup>, 但是也有部分学者认为语义透明度并未发挥促进作用 (吴岩、王协顺、陈烜之, 2015; Zhang, Chen, Weekes, & Brendan, 2009; Han et al., 2014)<sup>19)</sup>, 这可能是受到实验任务本身的影响, 即词汇判断任务不能有效地

- 
- 16) 白学军·刘丽萍·闫国利, 「阅读句子过程中词跳读的眼动研究」, 『心理科学』第5期, 2008, pp.1045-1048.  
Williams, R., & Morris, R. "Eye movements, word familiarity, and vocabulary acquisition[J]". *European Journal of Cognitive Psychology* 1-2, 2004, pp.312-339.  
Frisson, S., & Pickering, M. J. "The processing of familiar and novel senses of a word: Why reading Dickens is easy but reading Needham can be hard[J]".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4, 2007, pp.595-613.  
Dolgunsoz, E. "Word familiarity effects in EFL reading: An eye tracking study[J]". *International Online Journal of Education and Teaching* 2, 2018, pp.252-265.
- 17) Yan, M., Zhou, W., Shu, H., & Kliegl, R. "Lexical and sub-lexical semantic preview benefits in Chinese reading[J]".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4, 2012, pp.1069-1075.
- 18) 高兵, 「中文双字合成词加工中的透明度效应」, 山东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4.  
洪炜·冯聪·郑在佑, 「语义透明度、语境强度及词汇复现频率对汉语二语词汇习得的影响」, 『现代外语』第4期, 2017, pp.529-539+584-585.  
章玉祉·张积家, 「形声字的语义透明度和结构类型对义符语音激活进程的影响」, 『心理与行为研究』第5期, 2018, pp.612-617.  
Xu, J., & Taft, M. "The effects of semantic transparency and base frequency on the recognition of English complex words[J]".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3, 2015, pp.904-911.  
Kim, S. Y., Yap, M. J., & Goh, W. D. "The role of semantic transparency in visual word recognition of compound words: A megastudy approach[J]". *Behavior research methods* 51, 2019, pp.2722-2732.
- 19) 吴岩·王协顺·陈烜之, 「汉字识别中部件结合率的作用:ERP研究」, 『心理学报』第2期, 2015, pp.157-166.  
Zhang, Q., Chen, H. C., Stuart Weekes, B., & Yang, Y. "Independent effects of orthographic and phonological facilitation on spoken word production in Mandarin[J]". *Language and Speech* 1, 2009, pp.113-126.  
Han, Y. J., Huang, S. C., Lee, C. Y., Kuo, W. J., & Cheng, S. K. "The modulation of semantic transparency on the recognition memory for two-character Chinese

启动意符。至于探究熟悉度和语义透明度交互影响的文献则比较少，且主要针对英语复合词的研究（余清萍，2017；陈士法等人，2020；侯佳宁，2022）<sup>20</sup>。

整字熟悉度和意符语义透明度能全面反映学习者的字感能力：熟悉度体现了学习者对汉字整字形义认知的能力，这更倾向于汉字“外感”能力。而语义透明度则可以考察学习者对汉字意符与整字语义理据性的理解能力，这属于汉字“内感”能力。本文通过能反映被试实时加工状态的眼动追踪技术，利用视觉情景范式，采用意符判断任务研究韩语母语者对形声字的习得情况，探究熟悉度和语义透明度在形声字认知加工过程中的交互作用，以此考察韩语母语者的“字感”优势。我们提出以下研究问题：（1）整字熟悉度和语义透明度是否成为形声字识别加工的影响因素？（2）整字熟悉度和语义透明度在形声字加工进程中的作用以及时间进程有何区别？（3）韩语母语者习得汉字时是否具备字感的“内感”能力？

## 2. 研究方法

### 1) 被试情况

汉语母语者被试共26人（男13人，女13人），年龄23-26岁（M=24.38），母语为韩语的汉语学习者被试共29人（男15人，女14人），年龄23-26（M=23.13），均为在校大学生，在中国的大学系统学习了两年的汉语课程，并具备一定的认读书写汉字的能力，具备汉语水平考试HSK4级及以上的证书。实验前被试需参与汉语水平测试以便更准确地测量其汉语水平，测试后要求填写语言背景信息。该测试主要由完形填空构成，共有两篇完形填空，分

words[J]”. *Memory & cognition* 42, 2014, pp.1315-1324.

20) 余清萍，「基于时间进程的中国学习者英语复合词加工模式研究」，《现代外语》第5期，2017，pp.654-663+730.

陈士法·彭玉乐·王邵馨·马倩倩·杨连瑞，同上，pp.94-105.

侯佳宁，「熟悉度和语义透明度对二语复合词加工影响的眼动研究」，西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22.

别为汉字和拼音两个版本,共40个空,总分为100分。完形填空被视作评估学习者语言能力的有效方式(赵杨,2009)<sup>21)</sup>,且现有二语习得研究大多采用完形填空对学习者进行水平测试(武宏琛、赵杨,2018;柴孙乐子、常辉,2022;常辉等,2024)<sup>22)</sup>。29名韩语母语者得分在65-80之间,平均分为70.1分,视为中高级汉语水平组;汉语母语者得分在89-96之间,平均分为93.2分,作为对照组。

## 2) 实验设计实验材料

实验采用2(整字熟悉度:强熟悉度、弱熟悉度)×2(意符语义透明度:高语义透明度、低语义透明度)×2(被试类型:汉语母语者、韩语母语者)的三因素设计。组内变量为整字熟悉度和意符语义透明度,组间变量为被试类型。

## 3) 实验材料

实验材料选自《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简称《等级标准》)汉字表。《等级标准》将汉字分为识认汉字表和手写汉字表。其中识认汉字表分为三等九级,初等包括一级到三级,中等包括四级到六级,高等包括七级到九级。该表主要根据汉字的统计频度、常用度、构词能力、书写难易度等进行研制(梁彦民,2022)<sup>23)</sup>。我们选取了合体字中同音符的形声字,排除音符的干扰,只关注汉字熟悉度和意符语义透明度对合体字认知加工的作用。由于汉字基本上是以左形右声为主体的文字系统(张积家等,2014

21) 赵杨,「汉语非宾格动词和心理动词的习得研究——兼论“超集—子集”关系与可学习性」,『世界汉语教学』第1期,2009,pp.86-100.

22) 武宏琛·赵杨,「英语、韩语母语者汉语否定标记习得研究」,『世界汉语教学』第2期,2018,pp.256-269.

柴孙乐子·常辉,「母语为韩语的中高级学习者对汉语语篇层面空话题的习得研究」,『世界汉语教学』第4期,2022,pp.547-560.

何木璇·郑丽娜·常辉,「界面视角下韩国学习者汉语否定辖域的习得研究」,『世界汉语教学』第1期,2024,pp.111-125.

23) 梁彦民,「国际中文水平等级标准汉字表的发展」,『国际汉语教学研究』第3期,2022,pp.20-29+71.

) 24), 因此为避免汉字结构差异影响汉字语义信息的提取, 都选取左右结构的形声字。

依据字表中的等级划分初步确定强熟悉度汉字从1-4级中选取, 弱熟悉度汉字从5-9级中选取, 之后用主观量表对熟悉度做评定(陈士法等人, 2020)<sup>25)</sup>, 计算每个形声字的平均熟悉度(1=最不熟悉, 9=最熟悉), 按照熟悉度的高低排序, 取其前三分之一和后三分之一的形声字, 进行独立样本T检验, 发现两者存在显著差异( $p < 0.05$ )。意符的语义与整字语义的关联程度有强弱, 当意符语义可以完全提示该字的基本义时, 界定为高语义透明度意符, 当意符语义无法提示该字的基本义或与基本义无关联时, 界定为低语义透明度意符。实验材料最终确定为6组左形右声的形声字, 每组4个, 熟悉度有强弱差异, 语义透明度有高低之分, 共计24个。呈现实验材料的同时, 还需播放和每个汉字基本义相关的语音材料, 基本义选自《现代汉语词典(第7版)》, 为了韩语母语者易于理解, 语音材料在《现代汉语词典(第7版)》基本义的基础上适当改动, 替换意义中难度较高的词, 句子语义不变, 句长为11-18个字。如〈表1〉:

〈表1〉实验材料信息示例

例字	意符	音符	熟悉度	语义透明度	基本义—语音播放
站	立	占	强	高	表示一种动作, 身体直立并且两脚着地。
贴	贝	占	强	低	把很薄的东西放在另一个东西上。
沾	氵	占	弱	高	人或者东西被水弄湿了。
帖	巾	占	弱	低	学习写字的样本或者是邀请客人的纸片。

#### 4) 实验流程

使用Eyelink1000型眼动仪对被试右眼的眼动数据进行记录, 单眼采样率为1000Hz。被试注视的电脑屏幕分辨率为1024×768像素, 刷新率为100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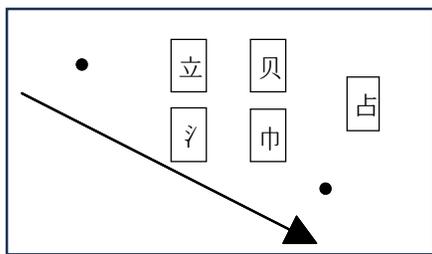
24) 张积家·王娟·陈新葵, 同上, pp.381-399.

25) 陈士法·彭玉乐·王邵馨·马倩倩·杨连瑞, 同上, pp.94-105.

由于该实验采用视觉情景范式研究汉字识别，而非阅读研究中的边界范式，因此刷新率对数据影响不大。被试眼睛距离显示器约为60cm。实验材料字号设置为100号，字体为宋体。

实验开始前，首先对眼动仪进行调试并进行九点校准，调整完毕后进入实验阶段。实验分为练习和正式实验两个部分。练习部分共有4个练习材料，以帮助被试熟悉实验操作。练习结束后，进行正式实验。

实验过程中，首先进行漂移校准，校准成功后屏幕呈现四个意符和一个音符：意符位于屏幕左侧，分列两行；音符位于屏幕右侧。屏幕信息呈现1000ms后播放一段3000ms左右的语音材料，其中一个意符与音符组成的汉字对应语音材料所表达的意思。语音播放结束后，要求被试尽快移动鼠标，选择与语音材料匹配的汉字的意符。如果被试在3500ms内未作答，该试次将自动结束接着进入下一试次（实验流程如〈图1〉）。正式实验分为两个block，期间被试休息一分钟，休息后对其重新进行眼部校准。整个实验过程大约进行15分钟。



〈图1〉实验流程图

### 3. 实验结果

本研究主要包括行为数据和眼动数据两部分。行为数据以反应时和正确率为指标，眼动数据以正确的意符为兴趣区，以首次注视时间、总注视时间和

总注视次数为指标。首次注视时间是认知加工时间维度上的早期指标；总注视时间是时间维度上的晚期指标；总注视次数是空间维度上的加工难度指标（闫国利，2013）<sup>26</sup>。删除错误反应的试次，删除行为指标反应时和眼动指标大于 $\pm 3$ 个标准差的数据。所有数据均采用SPSS26.0进行统计处理。具体信息如〈表2〉：

〈表2〉各项因变量的平均值

组别	熟悉度	语义透明度	正确率 (%)	反应时 (ms)	首次注视时间 (ms)	总注视时间 (ms)	总注视次数
汉语母语者	强	高	96.88	3785.84	317.2	486.54	1.79
	强	低	98.96	3826.97	351.77	776.58	2.37
	弱	高	70.83	4160.29	418.99	908.76	2.76
	弱	低	75	4239.2	429.06	933.24	2.86
韩语母语者	强	高	88.54	4251.47	352	735.32	3.02
	强	低	84.36	4347.94	285.11	649.35	2.71
	弱	高	58.33	4342.56	333.75	966	3.76
	弱	低	40.63	4917.4	341.18	921.26	3.38

### 1) 反应时

方差分析结果显示：熟悉度的主效应不显著， $F(1,30)=2.646$ ， $p=0.114$ ， $\text{偏}\eta^2=0.081$ 。语义透明度的主效应极其显著， $F(1,30)=61.66$ ， $p<0.0001$ ， $\text{偏}\eta^2=0.673$ ，低语义透明度意符的反应时显著长于高语义透明度意符。组别主效应显著， $F(1,30)=29.812$ ， $p<0.001$ ， $\text{偏}\eta^2=0.498$ ，韩语母语者的反应时显著长于汉语母语者。组别\*熟悉度的交互作用显著， $F(1,30)=7.906$ ， $p=0.009$ ， $\text{偏}\eta^2=0.209$ 。

进一步简单效应分析发现：汉语母语者识别强、弱熟悉度汉字的反应时不存在显著差异（ $p=0.409$ ）。韩语母语者识别强熟悉度汉字的反应时显著短于弱熟悉度汉字（ $p=0.004$ ）。在识别强、弱熟悉度汉字时，汉语母语者的反应时都显著短于韩语母语者（ $p_s<0.005$ ）。

26) 闫国利·熊建萍·臧传丽·余莉莉·崔磊·白学军，「阅读研究中的主要眼动指标评述」，『心理科学进展』第4期，2013，pp.589-605。

## 2) 正确率

熟悉度的主效应极其显著,  $F(1,30)=104.925$ ,  $p<0.001$ , 偏 $\eta^2=0.778$ , 弱熟悉度汉字的正确率显著低于强熟悉度汉字。语义透明度的主效应不显著,  $F(1,30)=1.514$ ,  $p=0.228$ , 偏 $\eta^2=0.048$ 。组别主效应极其显著,  $F(1,30)=22.057$ ,  $p<0.001$ , 偏 $\eta^2=0.778$ , 韩语母语者的正确率显著低于汉语母语者。

## 3) 首次注视时间

熟悉度的主效应不显著,  $F(1,30)=0.567$ ,  $p=0.458$ , 偏 $\eta^2=0.02$ 。语义透明度的主效应不显著,  $F(1,30)=0.031$ ,  $p=0.862$ , 偏 $\eta^2=0.00$ 。组别\*熟悉度的交互作用显著,  $F(1,30)=5.627$ ,  $p=0.025$ , 偏 $\eta^2=0.055$ 。

进一步简单效应分析发现:在弱熟悉度汉字的识别上,汉语母语者和韩语母语者之间的首次注视时间存在显著差异( $p=0.005$ ),而在强熟悉度汉字的识别上,尽管两组被试的首次注视时间有差异的趋势,但差异不显著( $p=0.08$ )。

## 4) 总注视时间

方差分析结果显示:熟悉度的主效应极其显著,  $F(1,30)=35.11$ ,  $p<0.001$ , 偏 $\eta^2=0.548$ , 强熟悉度汉字的总注视时间显著短于弱熟悉度汉字。语义透明度的主效应不显著,  $F(1,30)=0.986$ ,  $p=0.329$ , 偏 $\eta^2=0.033$ 。组别\*语义透明度的交互作用显著,  $F(1,30)=5.758$ ,  $p=0.023$ , 偏 $\eta^2=0.166$ 。组别\*语义透明度\*熟悉度的交互作用显著,  $F(1,30)=12.144$ ,  $p=0.002$ , 偏 $\eta^2=0.295$ 。

进一步简单效应分析发现:

汉语母语者组内结果为:低语义透明度意符条件下,汉语母语者对强、弱熟悉度汉字的总注视时间不存在显著差异( $p=0.194$ );高语义透明度意符条件下,汉语母语者对强熟悉度汉字的总注视时间显著短于弱熟悉度汉字( $p=0.045$ )。弱熟悉度汉字条件下,汉语母语者对高、低语义透明度意符的总注视时间不存在显著差异( $p=0.774$ );强熟悉度汉字条件下,汉语母语者

对高语义透明度意符的总注视时间显著短于低语义透明度 ( $p < 0.001$ )。

韩语母语者组内结果为：识别强、弱熟悉度汉字时，韩语母语者对高、低语义透明度意符的总注视时间均不存在显著差异 ( $p > 0.1$ )。在高、低语义透明度意符条件下，韩语母语者对强熟悉度汉字的总注视时间显著短于弱熟悉度汉字 ( $p = 0.002$  ;  $p = 0.001$ )。

汉语母语者和韩语母语者组间比较发现：高语义透明度意符条件下，韩语母语者对强熟悉度汉字的总注视时间显著长于汉语母语者 ( $p = 0.001$ )，对弱熟悉度汉字的总注视时间不存在显著差异 ( $p = 0.575$ )。低语义透明度意符条件下，无论熟悉度强弱，汉语母语者和韩语母语者的总注视时间均不存在显著差异 ( $p = 0.194$ ,  $p = 0.912$ )。

#### 5) 总注视次数

方差分析结果显示：熟悉度的主效应极其显著， $F(1,30) = 26.021$ ,  $p < 0.001$ , 偏 $\eta^2 = 0.473$ , 弱熟悉度汉字的总注视次数显著多于强熟悉度汉字。语义透明度的主效应不显著， $F(1,30) = 0.000$ ,  $p = 0.998$ , 偏 $\eta^2 = 0.000$ 。组别的主效应显著， $F(1,30) = 10.866$ ,  $p = 0.003$ , 偏 $\eta^2 = 0.273$ , 韩语母语者的总注视次数显著多于汉语母语者。组别\*语义透明度的交互作用显著， $F(1,30) = 6.712$ ,  $p = 0.001$ , 偏 $\eta^2 = 0.188$ 。

进一步简单效应分析发现：汉语母语者对低语义透明度意符的总注视次数显著多于高语义透明度意符 ( $p = 0.025$ )；韩语母语者对高、低语义透明度意符的总注视次数不存在显著差异 ( $p = 0.32$ )。识别低语义透明度意符时，汉语母语者和韩语母语者的总注视次数不存在显著差异 ( $p = 0.45$ )；识别高语义透明度意符时，韩语母语者的总注视次数显著多于汉语母语者 ( $p = 0.036$ )。

## 4. 讨论

### 1) 整字熟悉度和语义透明度影响形声字的加工时间进程

两组被试的实验数据都体现出整字熟悉度效应和语义透明度效应，但在汉字认知加工的时间进程上有差异：整字熟悉度效应贯穿形声字加工的整个过程，语义透明度效应出现在形声字加工的晚期。这一发现与前人研究结果一致（张仙峰、闫国利，2005；刘璐等，2021；姜雅梅，2021）<sup>27)</sup>，张仙峰、闫国利（2005）通过眼动追踪技术发现词汇熟悉度在首次注视时间、凝视时间、单一注视时间和总注视时间上，对词汇识别均有显著的影响，表明词汇熟悉度能够影响词汇识别的早期和晚期加工阶段<sup>28)</sup>。刘璐等（2021）通过眼动追踪技术发现在形声字识别的早期加工中并未显示语义透明度主效应显著，只有凝视时间这一晚期指标上显示语义透明度和意符位置交互作用显著，表明意符的语义透明度参与了汉字识别的晚期加工<sup>29)</sup>。

汉、韩母语者汉字识别加工的早期阶段，熟悉度效应就已经开始出现，一直持续到晚期阶段。眼动数据显示，首次注视时间的组别\*熟悉度交互作用显著，总注视时间的熟悉度主效应极其显著。如果研究中某种效应在兴趣区的早期指标（例如首次注视时间）和晚期指标总注视时间上显著，则说明该效应存在于加工的整个进程（闫国利，2013）<sup>30)</sup>。汉语母语者识别弱熟悉度汉字的首次注视时间均显著长于韩语母语者，而两组被试在弱熟悉度汉字上的总注视时间都更长。相比于强熟悉度汉字，被试需要花费更多的注意和认知

27) 张仙峰·闫国利，「大学生生词的获得年龄、熟悉度、具体性和词频效应的眼动研究」，『心理与行为研究』第3期，2005，pp.194-198。

刘璐·姜雅梅·张巧明·李诸洋，「义符位置与语义透明度对形声字语义激活的影响」，『心理与行为研究』第5期，2021，pp.585-591。

姜雅梅，「汉字识别中语义透明度和形旁位置对形声字语义激活的影响机制」，鲁东大学硕士学位论文，2021。

28) 张仙峰·闫国利，同上，pp.194-198。

29) 刘璐·姜雅梅·张巧明·李诸洋，同上，pp.585-591。

30) 闫国利·熊建萍·臧传丽·余莉莉·崔磊·白学军，同上，pp.589-605。

资源在弱熟悉度汉字上, 可以进一步表明汉语母语者和韩语母语者在汉字识别的整个阶段一直存在熟悉度效应。

语义透明度效应出现在形声字加工的晚期阶段。反应时方差分析结果表明语义透明度主效应极其显著, 汉、韩母语者识别低语义透明度意符的反应时均显著长于高语义透明度意符, 这说明语义透明度能够影响形声字加工的反应时间。虽然三个眼动数据分析结果都显示语义透明度的主效应不显著, 但在时间维度的晚期指标总注视时间上, 汉语母语者在高语义透明度条件下, 对强熟悉度汉字的总注视时间显著短于弱熟悉度汉字, 而韩语母语者没有语义透明度条件的制约。但在高语义透明度条件下, 韩语母语者对强熟悉度汉字的总注视时间显著长于汉语母语者, 低语义透明度条件下, 无论熟悉度强弱, 汉、韩母语者的总注视时间均不存在显著差异。这说明韩语母语者在形声字加工后期阶段具有一定的语义透明度效应, 但其对汉字形义整合推理的能力明显弱于汉语母语者。

## 2) 整字熟悉度和语义透明度对于形声字的加工作用有差异

整字熟悉度和语义透明度对形声字的加工作用有主次之分。反应时的方差分析结果表明组别\*熟悉度交互作用显著, 韩语母语者对强熟悉度的反应时显著短于弱熟悉度汉字, 说明熟悉度尤其对韩语母语者的汉字识别产生重要影响。正确率的熟悉度主效应极其显著, 汉、韩母语者识别强熟悉度汉字的正确率明显高于弱熟悉度汉字。眼动指标中, 总注视时间的组别\*语义透明度\*熟悉度的交互作用显著。汉语母语者的语义透明度效应主要在强熟悉度条件下发挥显著作用, 而韩语母语者无论语义透明度高低, 对强熟悉度汉字的总注视时间均显著短于弱熟悉度汉字。加工信息的熟悉度是长时记忆(Long-term memory, LTM) 中图式(Schema) 结构化程度的决定性因素(莫丹、江新, 2024) 31)。形声字的整字熟悉度越强, 自动化、结构化程度

31) 莫丹·江新, 「“边听边读”输入对汉语二语学习者阅读的影响——来自眼动的证据」, 『世界汉语教学』第1期, 2024, pp.97-110.

越高,主体在长时记忆中可以提取的相关图式则越多,越有利于汉字识别。汉、韩语母语者对强熟悉度汉字具有整体认知模式,能够将汉字作为整体进行快速且正确地识别,不需要过多的认知资源对其进行加工处理。

总注视次数的数据也能提供一定的证据。总注视次数这一指标能够反映材料的认知加工负荷。难度越大的材料承载的认知负荷越大,注视次数越多(Henderson & Ferreira, 1990)<sup>32)</sup>。根据汉、韩语母语者的表现来看,语义透明度越低,认知加工难度则越大,从而会干扰汉字识别。当意符义与整字基本义高度相关时,意符和整字的语义联结呈现正向激活,认知难度较低;当意符义与整字基本义不相关时,意符和整字的语义联结呈现负向抑制(章玉祉、张积家, 2018)<sup>33)</sup>。因此两组被试在识别低语义透明度意符时的总注视次数多于高语义透明度意符,尤其是在弱熟悉度汉字的条件下,这一表现则更加明显。这同样能够证明熟悉度在汉、韩语母语者汉字认知识别中起到主导作用。

汉、韩语母语者对形声字的认知加工进程表现为:个体首先会感知到字符的视觉信息以此初步获取字形信息,此时整字熟悉度发挥主要作用,即个体通过熟悉度引导注意资源,激活字形层面。随着加工进程的推移,意符提供的语义信息可以为个体提供语义线索。但是汉、韩语母语者对于意符与整字语义的激活能力是不同的。在汉字加工的后期进程中,汉语母语者的语义透明度效应和熟悉度效应交互作用于形声字的语义加工,尤其是在识别强熟悉度汉字时表现显著,而韩语母语者的熟悉度效应却远大于语义透明度效应。

### 3) 韩语母语者具备一定的“字感”优势

韩语母语者在识别形声字时,熟悉度效应是主要因素,语义透明度是次要因素。熟悉度效应存在于汉字加工的整个进程,而语义透明度效应则出现

32) Henderson, J. M., & Ferreira, F. "Effects of foveal processing difficulty on the perceptual span in reading: Implications for attention and eye movement control[J]".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3,1990,pp.417-429.

33) 章玉祉·张积家,同上,pp.612-617.

在汉字加工的晚期阶段。相比于汉语母语者，韩语母语者虽然在汉字加工晚期同样受到语义透明度影响，但其作用并不显著，表现在总注视次数和反应时都多于汉语母语者。熟悉度更倾向于整字字形的形义识别，意符的语义透明度体现的是汉字内部要素之间的形义关联，这说明韩语母语者对于汉字的认知加工已经具备了显著的字感“外感”优势，而“内感”能力较弱。这种优势更多体现的是对汉字的一种主观直觉性和整体认知性，而对汉字内在要素与整字之间的形义关联的推理能力并没有得到很好的发展。所以韩语母语者的这种字感优势只是一定的，而不是完备的。

首次注视时间的长短可以说明学习者对汉字意符形义关注的敏感性。在首次注视时间里，被试能够获取初步的字形信息，也有可能获得字义表征。但是如果被试在首次注视时间里并没有完全获取字义表征，则会对字进行重复注视。汉语母语者和韩语母语者识别强熟悉度汉字的首次注视时间差异不显著，但在弱熟悉度汉字的识别上，汉语母语者的首次注视时间显著长于韩语母语者，说明学习者在汉字弱熟悉度条件下较少关注汉字内在要素的差异，对意符与整字语义关联的理据性并不敏感。但是在强熟悉度、高语义透明度的情况下，韩语母语者首次注视时间是高于汉语母语者的，说明这种“内感”能力只有在整字形义直观认知的前提下才发挥作用。此外，韩语母语者的总注视时间却显著长于汉语母语者，说明在汉字加工后期阶段面临着语义整合和加工难度（闫国利等，2013）<sup>34</sup>。汉语母语者首次注视时间较长而总注视时间较短，则反映了汉语母语者在汉字加工初期已经有了汉字拆分能力，形义系联能力，所以后期的语义整合时间就会缩短。韩语母语者在汉字识别前期虽然受到熟悉度效应影响，但是利用意符获取语义信息的能力较汉语母语者较弱，字义整合阶段较长。

韩语母语者具备一定的“字感”优势的原因主要有以下几个方面：

第一，从语言类型角度，韩语与汉语的语言距离 (language distance) 较小，韩语母语者在语言习得中容易产生母语的正迁移。崔萌等人 (2018) 通

34) 闫国利·熊建萍·臧传丽·余莉莉·崔磊·白学军，同上，pp.589-605.

过国际权威的“自动相似度判断程序数据库”(Automated Similarity Judgement Program Database) 测算一百多个国家和地区的語言与汉语之间的語言距离<sup>35)</sup>。其中, 与英語(102.40)、泰語(100.07)、日語(98.40)等語言相比, 韓語与漢語的語言距離数值最小(95.91), 表明韩语母语者学习汉语最容易产生正迁移从而促进語言学习。語言文字因素使得韩语母语者在汉字加工中出现类似母語的加工机制。

第二, 输入和語言环境会对学习者的語言习得产生重要影响“输入-输出互动(input-output interaction)理论(Krashen, 1979; Long, 1996; Swain, 1995)<sup>36)</sup>提出語言习得是外部环境和内在机制共同作用的结果, 是語言习得的必要条件。学习过汉字的韩语母语者有一定的語言背景, 并且良好的語言环境可以为韩语母语者提供输入和互动的机会, 从而使得韩语母语者在习得汉字的过程中更易于培养“字感”。

第三, 韩语词汇系统中存在大量汉字词。韓文由内生性的字母表(操作原则)和外生性的音节表(外形)构成, 其中代表音素的图形是由方块写成, 类似于汉字的方块性质(H.K. Pae et al., 2020)<sup>37)</sup>。韩语中存在大量的汉字词, 这些汉字词是从汉语词汇中引入, 以汉字为基础在韩语中产生, 并融入韩语词汇的词汇(刘燕, 2023)<sup>38)</sup>, 这部分词是韩语词汇中的重要组成部分(김광해, 1993; Kim, 1993)<sup>39)</sup>。长期的文字使用为韩语母语者学习汉字奠

35) 崔萌·张卫国·孙涛, 「語言距离、母語差异与漢語习得:基于語言經濟學的实证研究」, 『世界漢語教學』第2期, 2018, pp.280-288.

36) Krashen S D, Long M A, Scarcella R C, “Age, rate and eventual attain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J]”. *TESOL quarterly* 4, 1979, pp.573-582.  
Swain M. “Three functions of output in second language learning[J]”. *Principles and practice in applied linguistics: Studies in honor of HG Widdowson*, 1995, pp.125-144.

Long M H. “The role of the linguistic environ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J]”.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996.

37) Pae, H. K., Bae, S., & Yi, K. “Lexical properties influencing visual word recognition in Hangeul[J]”. *Reading and Writing* 33, 2020, pp.2391-2412.

38) 刘燕, 「汉韩异形同义汉字词对比研究」, 『汉字文化』第22期, 2023, pp.35-37.

39) 김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집문당, 1993.

定了一定的认知基础, 具有对汉字方块特点的独特认识, 对汉字字形及结构的区别辨认具备较好的外在“字感”优势。

第四, 韩国的韩文政策、词典中逐渐僵化的汉字词等导致文字代沟的出现, 韩国母语者学习汉字仍存在一定困难(全香兰, 2003) 40)。除此之外, 汉字笔画变形较多、现代汉字和韩文中简繁体占比不同以及“横平竖直”与“横竖斜圈”的汉韩书写规则之别都为韩语母语者习得汉字时带来一定难度(章婷等, 2023) 41)。这也能从一定程度上说明韩语母语者在识别形声字时正确率较低、反应时较长的问题, 即韩语母语者和汉语母语者的加工水平存在一定差距。韩语母语者对于形声字“知其形、不知其理”, 无法通过语义推理进行有效学习。

第五, 学习者进行第二语言处理时会受到工作记忆、词汇解码能力与识别速度等基本认知因素的影响, 具体表现为学习者比母语者工作记忆容量少、词汇解码能力弱、识别加工速度慢(McDonald, 2006) 42)。虽然本研究发现汉、韩母语者的加工机制类似, 但是由于本研究主要采用意符判断任务进行实验, 其时间短, 加工负荷较大。加工负荷的增多导致韩语母语者较难达到汉语母语者的语言水平。同时, 韩语母语者在加工四类形声字时, 无论语义透明度高低, 强熟悉度汉字的加工速度均快于弱熟悉度汉字。也说明加工资源也主要侧重于表层的字形信息, 并非深层的语义信息。

---

Kim, K. H. *A discourse on the Korean lexicon*, Seoul: Jibmoondang, 1993.

40) 全香兰, 「针对韩国人的汉语教学——“文字代沟”对对外汉语教学的启示」, 『汉语学习』第3期, 2003, pp.70-76.

41) 章婷·宋婷立·周雅洁, 同上, pp.345-370.

42) McDonald, J. L. “Beyond the critical period: Processing-based explanations for poor grammaticality judgment performance by late second language learners[J]”.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2006,pp.381-401.

## 5. 结论

本研究的分析可以得出以下结论：第一，形声字的整字熟悉度和意符的语义透明度会影响汉韩母语者的认知加工进程。熟悉度效应贯穿整个汉字加工过程，语义透明度效应出现在加工的较后阶段并与熟悉度效应共同作用于形声字的识别加工；整字熟悉度效应大于语义透明度效应，尤其对于韩语母语者而言，熟悉度效应作用更大。第二，韩语母语者对形声字的加工具备一定的“字感”优势，具体表现为：字形、结构识别的“外感”能力较强，具备汉字的主观直觉性和整体认知性；汉字构成要素形义关联的“内感”能力较弱，缺乏汉字的形义系联性和语义推理性。随着学习者对汉字的不断接触与实践，这种字感能力也会由外向内逐渐渗透和发展。

本研究提出以下建议：第一，汉字教学以字感培养为着力点，重视常用字的滚动教学，对汉字形成整体认知；第二，注重汉字形体结构的分析，以“形”为抓手，串联汉字的音和义，重视构字能力强的意符，最大限度利用构形理据掌握汉字的构字规律，进一步提升字感的准确性；第三，开展以“汉字作为语素的知识教学”为核心的汉字进阶课程，遵循“部件—字族—词族”的认知规律，以某一个汉字构成的语素为基点，分析其构词的形义联系，形成同族词的学习意识，从而达到利用字感提高汉语学习能力的目的。

本研究主要采用识别和理解任务考察韩语母语者的字感能力，之后的研究可以利用事件相关电位 ERP (event-related potentials) 技术测查刺激呈现后的早期激活过程和不同认知加工水平的电生理反应，将眼动追踪技术与ERP技术相结合，进一步探究韩语母语者对汉字字形和语义的理解加工机制，从而更全面地探讨其字感能力。

### ◆ 参考文献

#### 1. 资料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由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

会于2021年发布实行。

## 2. 单行本

김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집문당, 1993.

Jiang, N. *Second Language Processing: An Introducti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18.

Kim, K. H. *A discourse on the Korean lexicon*. Seoul: Jibmoondang, 1993.

## 3. 论文

白剑波·刘艳妮, 「试论非汉字文化圈学生的字感培养与获得」, 『现代语文』第5期, 2006, pp.104-105.

白文婷, 「中亚东干留学生字感培养研究」, 西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19.

白学军·刘丽萍·闫国利, 「阅读句子过程中词跳读的眼动研究」, 『心理科学』第5期, 2008, pp.1045-1048.

柴孙乐子·常辉, 「母语为韩语的中高级学习者对汉语语篇层面空话题的习得研究」, 『世界汉语教学』第4期, 2022, pp.547-560.

陈琳·钟罗金·冷英·莫雷, 「拼音自动加工和语义加工中汉字字形的激活」, 『心理学报』第11期, 2014, pp.1661-1670.

陈士法, 「英语复合词在英汉心理词典中存储单位的实验研究」, 『外语教学与研究』第3期, 2009, pp.211-216+241.

陈士法·彭玉乐·王邵馨·马倩倩·杨连瑞, 「熟悉度和语义透明度对英语二语复合名词加工机制的影响」, 『现代外语』第1期, 2020, pp.94-105.

陈新葵·张积家, 「义符熟悉性对高频形声字词汇通达的影响」, 『心理学报』第2期, 2008, pp.148-159.

崔萌·张卫国·孙涛, 「语言距离、母语差异与汉语习得:基于语言经济学的实证研究」, 『世界汉语教学』第2期, 2018, pp.280-288.

高兵, 「中文双字合成词加工中的透明度效应」, 山东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4.

高兵·高峰强, 「汉字字词识别中词频和语义透明度的交互作用」, 『心理科学』第6期, 2005, pp.80-82+87.

何木璇·郑丽娜·常辉, 「界面视角下韩国学习者汉语否定辖域的习得研究」, 『世界汉语教学』第1期, 2024, pp.111-125.

洪炜·冯聪·郑在佑, 「语义透明度、语境强度及词汇复现频率对汉语二语词汇习得的影响」, 『现代外语』第4期, 2017, pp.529-539+584-585.

侯佳宁, 「熟悉度和语义透明度对二语复合词加工影响的眼动研究」, 西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22.

姜雅梅, 「汉字识别中语义透明度和形旁位置对形声字语义激活的影响机制」, 鲁东大

- 学硕士学位论文, 2021.
- 姜颜岐,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中的手写汉字分析」, 沈阳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22.
- 李宝贵·郭爽·李慧, 「国际中文教育汉字教学研究的回顾与前瞻——基于文献计量学视角」, 『云南师范大学学报(对外汉语教学与研究版)』第2期, 2022, pp.11-21
- 梁彦民, 「国际中文水平等级标准汉字表的发展」, 『国际汉语教学研究』第3期, 2022, pp.20-29+71.
- 刘璐·姜雅梅·张巧明·李诸洋, 「义符位置与语义透明度对形声字语义激活的影响」, 『心理与行为研究』第5期, 2021, pp.585-591.
- 刘姝, 「初级阶段非汉字文化圈学生“字感”的培养及汉字教学」, 『长江学术』第1期, 2013, 137-141.
- 刘燕, 「汉韩异形同义汉字词对比研究」, 『汉字文化』第22期, 2023, pp.35-37.
- 莫丹·江新, 「“边听边读”输入对汉语二语学习者阅读的影响——来自眼动的证据」, 『世界汉语教学』第1期, 2024, pp.97-110.
- 全香兰, 「针对韩国人的汉语教学——“文字代沟”对对外汉语教学的启示」, 『汉语学习』第3期, 2003, pp.70-76.
- 孙娜娜·李小建, 「汉字词频与熟悉度关系的研究」, 『内蒙古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6期, 2017, pp.37-40.
- 谭宏, 「汉字教学中非汉字文化圈学生的字感研究」, 重庆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10.
- 王娟·张积家·许锦宇, 「语义透明度和构词频率对汉语动词多词素词识别的影响」, 『心理与行为研究』第6期, 2014, pp.769-774.
- 吴岩·王协顺·陈烜之, 「汉字识别中部件结合率的作用:ERP研究」, 『心理学报』第2期, 2015, pp.157-166.
- 武宏琛·赵杨, 「英语、韩语母语者汉语否定标记习得研究」, 『世界汉语教学』第2期, 2018, pp.256-269.
- 肖丽君, 「以字感培养为核心的对外汉字教学设计」, 华侨大学硕士学位论文, 2020.
- 徐子亮, 「对外汉语教学的模式构建」, 『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4期, 1999, pp.104-109+115.
- 闫国利·熊建萍·臧传丽·余莉莉·崔磊·白学军, 「阅读研究中的主要眼动指标评述」, 『心理科学进展』第4期, 2013, pp.589-605.
- 尹泓嘉, 「汉字字感的培养与对外汉字教学」, 黑龙江大学硕士学位论文, 2015.
- 余清萍, 「基于时间进程的中国学习者英语复合词加工模式研究」, 『现代外语』第5期, 2017, pp.654-663+730.
- 张仙峰·闫国利, 「大学生词的获得年龄、熟悉度、具体性和词频效应的眼动研究」,

- 『心理与行为研究』第3期, 2005, pp.194-198.
- 张积家·王娟·陈新葵. 「义符研究20年:理论探讨、实验证据和加工模型」, 『心理科学进展』第3期,2014, pp.381-399.
- 章玉祉·张积家. 「形声字的语义透明度和结构类型对义符语音激活进程的影响」, 『心理与行为研究』第5期, 2018, pp.612-617.
- 章婷·宋婷立·周雅洁. 「韩语母语者的“字感”研究-以独体形近字为例」, 『한중인문학연구』, 2023, pp.345-370.
- 赵杨. 「汉语非宾格动词和心理动词的习得研究——兼论“超集—子集”关系与可学习性」, 『世界汉语教学』第1期,2009,pp.86-100.
- Connine, C. M., Mullennix, J., Shernoff, E., & Yelen, J. “Word familiarity and frequency in visual and auditory word recognition[J]”.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 Cognition* 6,1990, p.1084.
- Dolgunsoz, E. “Word familiarity effects in EFL reading: An eye tracking study [J]”. *International Online Journal of Education and Teaching* 2,2018, p p.252-265.
- Frisson, S., & Pickering, M. J. “The processing of familiar and novel senses of a word: Why reading Dickens is easy but reading Needham can be hard[J]”.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4, 2007,pp.595-613.
- Gernsbacher, M. A. “Resolving 20 years of inconsistent interactions between lexical familiarity and orthography, concreteness, and polysemy[J]”.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2,1984,pp.256-281.
- Han, Y. J., Huang, S. C., Lee, C. Y., Kuo, W. J., & Cheng, S. K. “The modulation of semantic transparency on the recognition memory for two-character Chinese words[J]”. *Memory & cognition* 42,2014,pp.1315-1324.
- Henderson, J. M., & Ferreira, F. “Effects of foveal processing difficulty on the perceptual span in reading: Implications for attention and eye movement control[J]”.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3,1990,pp.417-429.
- Kim, S. Y., Yap, M. J., & Goh, W. D. “The role of semantic transparency in visual word recognition of compound words: A megastudy approach [J]”. *Behavior research methods* 51,2019,pp.2722-2732.
- Krashen S D, Long M A, Scarcella R C. “Age, rate and eventual attain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J]”. *TESOL quarterly* 4, 1979,pp.573-582.
- McDonald, J. L. “Beyond the critical period: Processing-based explanations for poor grammaticality judgment performance by late second language

learners[J]”.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2006,pp.381-401.

Long M H. “The role of the linguistic environ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J]”.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996.

Pae, H. K., Bae, S., & Yi, K. “Lexical properties influencing visual word recognition in Hangul[J]”. *Reading and Writing* 33,2020, pp.2391-2412.

Swain M. “Three functions of output in second language learning[J]”. *Principles and practice in applied linguistics: Studies in honor of HG Widdows on*, 1995,pp.125-144.

Tanaka-Ishii, K., & Terada, H. “Word familiarity and frequency[J]”. *Studia Linguistica* 1,2011,pp. 96-116.

Williams, R., & Morris, R. “Eye movements, word familiarity, and vocabulary acquisition[J]”. *European Journal of Cognitive Psychology* 1-2,2004, p p.312-339.

Wolter, Brent. “Comparing the L1 and L2 mental lexical a depth of individual word knowledge model[J]”.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 2001,pp.41-69.

Xu, J., & Taft, M. “The effects of semantic transparency and base frequency on the recognition of English complex words[J]”.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3,2015,pp.904-911.

Yan, M., Zhou, W., Shu, H., & Kliegl, R. “Lexical and sub-lexical semantic pre view benefits in Chinese reading[J]”.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4,2012,pp.1069-1075.

Zhang, Q., Chen, H. C., Stuart Weekes, B., & Yang, Y. “Independent effects of orthographic and phonological facilitation on spoken word production in Mandarin[J]”. *Language and Speech* 1,2009,pp.113-126.

논문 접수일	2024년 7월 3일
심사 완료일	2024년 8월 26일
게재 확정일	2024년 9월 19일

*Abstract*

---

A Study on Word Sense of Native Korean Speakers at Upper-Intermediate  
Chinese Proficiency Level  
-A Case Study of Morphosyntactic Characters-

Zhang Ting · Song Tingli

In this study, we employed eye-tracking technology to investigate whether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native speakers exhibit a “word sense” advantage in the processing of morphophonetic characters through a visual scenario paradigm. Furthermore, we examined the effects of whole-word familiarity and semantic transparency on the recognition of Chinese characters.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Korean native speakers exhibited similar processing patterns as Chinese native speakers, yet Korean native speakers had not yet reached the processing level of Chinese native speakers. Native speakers of Korean exhibit certain advantages in the process of recognizing Chinese characters. These advantages can be manifested as a stronger advantage of “external sense” and a weaker advantage of “internal sense”. Additionally, the whole-word familiarity and semantic transparency of morphophonetic characters interact with each other to affect the recognition of Chinese characters. Familiarity and semantic transparency interact with each other to affect the cognitive processing of Chinese characters by native Han-Korean speakers. The familiarity effect is observed throughout the processing of Chinese characters, while the semantic transparency effect emerges at a later stage of processing. However, the whole-word familiarity effect is more pronounced than the semantic transparency effect in Chinese-Korean native speakers' processing of Chinese characters, particularly for Korean native speakers. In contrast, Chinese native speakers are more influenced by semantic transparency in the strong familiarity condition. Based on these findings, it can be proposed that international Chinese language teaching should prioritize the inclusion of commonly used characters in textbooks, an analysis of the morphological structure of Chinese characters, and the incorporation of conformational rationale to enhance the cultivation of learners' “word sense”.

**Keyword**

Familiarity: semantic transparency: native Korean speakers: word sense: eye movement



# 基于模因论视角下的流行语研究

-以中韩2014-2023年度十大流行语为例\*

赵雪君\*\* · 崔丽红\*\*\*

## 국문요약

본 논문은 2014-2023년 사이에 나타난 한중 양국의 인기 신조어 가운데 총 200개를 밈 이론과 정량적 분석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유행어 선정에 있어서는 유행성과 창의성을 중요 시하였으며 분석 대상으로서의 중국어 유행어는 중국 『咬文嚼字』에 나타난 10대 유행어로 2014~2023년 사이의 유행어를 선정하였고, 한국어 유행어 데이터는 '네이버 국어사전의 2015-2022년 사이의 인기 신조어' 웹사이트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에 나타난 2014~2023년의 데이터를 선정하였다.

한중 유행어를 살펴본 결과, 한중 유행어 모두 '동음이의(同音異義)'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그 둘의 차이점은 한국어 유행어에서 '동의동형(同義同形)'류가 많게는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는 점이다. 또 '동형이의(同形異義)'류 중 중국어 유행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파생 의미를 가진 것이었으며, 한국어 유행어는 75%가 줄임말로 파생 의미와 형태상의 중첩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한중 유행어에 대한 공식적 연구를 통해 유행어의 생성 근거 및 특징을 탐구함으로써 언어의 최신 양상과 미래 발전 추이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한편 밈이론을 사용하여 중한 유행어에 대한 비교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밈이론의 문화 매개체로서 문화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인지 언어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어 교육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중국어 어휘에 대한 후속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인기 유행어, 말뭉치, 신조어, 밈이론, 코퍼스, 『咬文嚼字』

\* 该论文在“第五届构式语法研究论坛-构式语法的理论探索和实践应用”学术大会(中国·上海 华东师范大学 2024年7月6日)上发表, 根据专家学者意见修改编辑而成。

\*\* 第一作者:东国大学-首尔, 一般大学院 中国语学专业 博士在读

\*\*\* 通信作者:东国大学-首尔, 中文系 教育教授

## 〈目录〉

1. 绪论
2. 中韩流行语的语言特征分析
3. 中韩流行语的模因特点分析
4. 结论

## 1. 绪论

在数字化交流的背景下，中韩两国的流行语作为一种备受关注的语言现象，不仅重塑社会语言环境，还反映出深层的文化与认知结构。本研究运用认知语言学、社会语言学的理论框架，对流行语在社会互动与文化传播中的功能及角色进行了深入探讨。研究表明，流行语不仅是社会群体自我意识的表征，同时也是解析当代中韩社会动态及文化倾向的关键工具。因此流行语研究对于深入理解语言的社会功能及其在文化层面的意义至关重要，而且对语言学和跨文化交际研究具有重要的学术价值和实际应用前景。

『咬文嚼字』杂志自2008年起，每年发布反映社会热点和网络特色的十大流行语，在流行语的选取上强调流行性、创新性和文明性，所以本文的中文流行语数据来源于2014至2023年间『咬文嚼字』<sup>1)</sup>杂志发布的“十大流行语”。韩语流行语的数据<sup>2)</sup>来源于naver国语词典及其他网络平台，涵盖2014至2023年的数据，选取标准主要依据网络新词的搜索频率，尽管数据来源多样且缺乏统一权威榜单，但naver这一搜索引擎的数据大体能够反映韩国流行语的主要使用情况。

模因(Meme)<sup>3)</sup>的概念最早是由Richard Dawkins于1976年提出：定义为

1) 数据来源：『咬文嚼字』年度十大流行语(2008—2021)，上海文化出版社，2021。  
『咬文嚼字』2022年度十大流行语和2023年度十大流行语来自网络数据。

2) “네이버 국어사전 2015-2022년 인기 신조어”网站主页。[检索日期:2024.04.18]

3) 参考 DAWKINS, R, *The selfish gene*, 1976, p.206. 转载：谢朝群，何自然，「语言模因说略」，『现代外语』第30期，2007，pp.30-39

文化传递的单位，像生物学中的基因，具备自我复制和相互竞争的能力。这一理论在建筑、文化及美学等领域广泛应用，有效解析了多种文化现象。何自然(2003)等学者将模因引入汉语语用学研究，系统阐述了语言模因的概念和修辞效应，扩展了模因论的研究领域。刘懿(2013)、顾晓玉、李娟(2019)等学者在不同年份的研究中，运用模因论分析了『咬文嚼字』的十大流行语，并探讨了流行语模因的类型特点。

韩国学者对于中文流行语模因现象的解释主要集中在运用上，尤其是对具体的语法现象和单个流行语进行了解析，但对历年中国流行语的关注相对不足。林志永(2023)运用模因论分析了“我佛了”；장우(2021)关注了2006-2019年『中国语言生活报告』的十大流行语。这些研究不仅深入剖析了中文流行语现象，而且对于网络语言和模仿现象提供了有效的信息。

在中韩流行语的对比研究中，中韩学者都没有采用『咬文嚼字』的语料库：리양(2011)、GUIDAN(2015)、한민(2020)、유문신(2021)和왕연(2023)的韩语语料都采用了韩国国立国语院调查的新造词，中文语料也没采用『咬文嚼字』进行对比分析。综上所述，中韩流行语对比研究没有同时采用模因论的方法和『咬文嚼字』的语料库。因此，本文的创新点在于填补了运用模因论对中韩流行语进行对比研究的空白，而且在韩国流行语语料上更关注流行性，选取各种不同的语料，对中韩流行语进行了共时研究，这有助于了解模因作为文化载体传递文化信息的功能及特点，还有助于深化认知语言学研究，还能后续的在韩中文教学提供教学素材。

## 2. 中韩流行语的语言特征分析

### 1) 语法单位

中韩年度流行语符合人们认知系统的特点，又在网络社交媒体的作用下不断复制和传播，是大众情感的载体之一。所以用语言模因论可以很好地解释年度流行语如何通过模因复制进行文化传播。用语言模因论分析，为流行语的研究提供了一种新的思路。本文整理出2014-2023年10年间的中韩流行

语, 如表1-1、1-2所示:

〈表1-1〉『咬文嚼字』2014-2023年度十大流行语

年份	2014年	2015年	2016年	2017年	2018年	2019年	2020年	2021年	2022年	2023年
1	网络用语	表情包	洪荒之力							
2	表情包	洪荒之力								
3	洪荒之力									
4	洪荒之力									
5	洪荒之力									
6	洪荒之力									
7	洪荒之力									
8	洪荒之力									
9	洪荒之力									
10	洪荒之力									

〈表1-2〉韩国2014-2023年人气流行语

年份	2014年	2015年	2016年	2017年	2018年	2019年	2020年	2021年	2022年	2023年
1	网络用语	表情包	洪荒之力							
2	表情包	洪荒之力								
3	洪荒之力									
4	洪荒之力									
5	洪荒之力									
6	洪荒之力									
7	洪荒之力									
8	洪荒之力									
9	洪荒之力									
10	洪荒之力									

(1) 近10年中韩年度流行语的语法单位

首先把中韩流行语按照语法单位进行分类进行共时语言研究, 如表2-1:

〈表2-1〉中韩流行语的语法单位

	数量 (个)	数量 (%)		百分比		合计	
		词	短语	词	短语	词	短语
流行语	词	100	100	100%	100%	100	100%
	短语	100	100	100%	100%	100	100%
	句子	100	100	100%	100%	100	100%

由上述统计结果看出，中韩流行语占比重最多的语法单位是词，其次是短语。这是因为词的动态性较强、稳固性较弱的特征，表达新事物和社会热点事件时，使用词可以提高表达的简洁性和效率，符合语言的经济性原则。另外由于流行语具有使用广泛、传播迅速、口语化强的特点，所以要求结构简单、修饰成分少，因而词和短语所占比重较大。

(2) 近10年中韩年度流行语的词长分布

本文采取计量的方法，对近10年来的200个中韩年度流行语的词长进行统计分析，结果如下表2-2：

〈表2-2〉中韩流行语词长

词长	数量(个)		百分比%	
	中文	韩语	中文	韩语
1	7	0	7%	0%
2	25	20	25%	20%
3	20	30	20%	30%
4	18	20	18%	20%
5	4	0	4%	0%
合计	74	40	54%	40%

根据表2-1显示,中文流行语占比较高的依次是:二字词、三字词和四字词。汉语中二字词最多是由语言简洁性、音节限制、历史发展、构词规则、表达效率、书写与记忆便利、韵律和对仗等多种因素共同作用的结果。汉语词的双音节化倾向是现代化社会生活中概念复杂化与汉语结构简约化彼此作用的结果,与三音节词语与四音节及以上词语相比,双音节具有明显的经济优势,另外汉语词的双音化,既显示了音节节奏整齐化,也符合语言实际要求经济的原则以及汉民族的审美心理。相比较下,韩语流行语的占比分别是:三字词、二字词、四字词。因为韩语本身是多音节语言,其语言结构和词汇来源也促使韩语流行语中多音节词的使用频率更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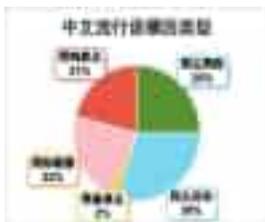
## 2) 模因类型

流行语的传播,本质就是以模仿为基础,复制和传播语言信息。从模因复制和传播的方式出发,语言模因可分为“内容相同形式各异”的基因型和“形式相同内容各异”的表现型两种类型。简单来讲,其中基因型模因可以分为同义同形的基因型模因(如命运共同体、供给侧、츄데레、화질구지等)和同义异形的基因型模因(如官宣、打工人、ㅇㅈㅇ、현타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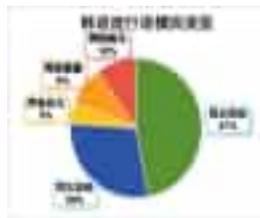
表现型模因则是一种横向嫁接,分为同音异义、同形联想与同构异义横向嫁接三种。同音异义就是保留原来的结构,用同音字来代替表达不同的语义,例如谐音词,蓝瘦、香菇(难受、想哭)等。同形联想重在语义的历史性变



了缩略词和误写；同音异义中没有谐音词，但包含了误读和外来语(英语、日语等)的同音借词；同构异义中有构式和含有类词缀的派生词。通过统计发现韩语流行语的基因型模因占76%远高于表现型模因24%，其中“原封不动”地传递信息的同义同形类占47%(参考图1-2)，说明韩语流行语很大比例在复制和传播中完全保留了原意。韩语流行语中占比较高的分别是同形同义47%、同形异义29%、同音异义5%、同型联想9%和同构异义10%(参考图1-2)。表明韩语流行语更加忠实地传递信息，形式变化较少，而中文流行语的复制和传播方式更多样化。相同点是同音异义的比例都是最低的，分别是中文2%、韩语5%，如下：



〈图1-1〉 中文流行语模因类型



〈图1-2〉 韩语流行语模因类型

### 3. 中韩流行语的模因特点分析

语言是文化承传的主要载体，是模因传播最得力的工具。语言模因带着模因宿主的意图，借助语言结构，以重复或类推的方式反复不断传播信息的表征<sup>5)</sup>。语言模因的模仿复制不是完全照搬，内容与形式也并非完全相同。根据不同的语言环境，语言模因在复制传播过程中出现新的模因个体，进而形成新的语言模因复合体。其中流行语的复制和传播分为直接和间接两种方

4) 音译词：셀프디스/하그케리/케미/셀럽/미러리스카메라/코스프레/미투/인싸/원디웍스/위하벨/인플루언서/플렉스/팬데믹/언택트/치팅데이/버킷리스트/메타버스/모멘텀/밀키트/홀리몰리.

5) 何自然, 「语言模因及其变体的应用」, 《新疆师范大学学报》第2期, 2016, p.37.

式, 同义同形基因型和同义异形基因型为直接方式, 同音异义表现型、同形联想表现型同构异义表现型为间接方式。以表3-1的统计结果, 运用模因论分析中韩流行语常见5种模因类型的特点。

## 1) 基因型模因的特点分析:

### (1) 同义同形类的特点分析

同义同形基因型为最常见的, 复制和保留信息最完整的模因类型, 做到了“照搬原文”, 如命“运共同体、退群、共享、流量、윈더익스, 위하벨, 인플루언서플렉스, 반아웃증후군”等。中文流行语的同义同形为25%, 而韩语流行语的同义同形为47%, 可见韩语流行语的占比高于中文流行语, 表音文字的韩语在同义同形模因的传播过程中具有显著的优势, 同义同形类的特点如下:

这些流行语往往是一些新闻实事或社会热点, 专有名词等, 所以理解这些流行语需要相关知识背景或语境。

如“命运共同体”一词的背景是2018年3月11日, 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通过『中华人民共和国宪法修正案』<sup>6)</sup>。“元宇宙(메타버스)”一词同时出现在了中韩流行语的榜单上, 说明元宇宙概念在当今各国比较火, 虽然中文做了意译, 韩语做了音译, 但是理解元宇宙, 作为专有名词需要有相关的知识。

另外韩语流行语中반아웃증후군은由번아웃(Burnout/精疲力尽)+증후군(症候群, 综合征)组成合成词, 还有一些就是外来语的音译词, 涉及一些专业名词, 需要了解本来的意思才能明白。如하드캐리(hardcarry)带领团队取得胜利的人, 셀럽(celebrity)特指代素人通过节目网络成名的人, 미러스카메라(mirrorless camera)无反光照相机等。本文并没有把所有的外来语的音译词都划分到同义同形, 流行语的传播和使用不同, 所以分类也有所不同。

6) 『『咬文嚼字』年度十大流行语(2008—2021)』, 2021.

多为简单模因，模因变体较少。

按着何自然(2006)的观点，模因也可以分为简单模因和由简单模因加其他语素构成的模因复合体。同义同形基因型大多是基于特定语境下的词或者专有名词，所以与其他语素结合较差，一般不发生语言变异。

语言相对规范，传播范围广。

这类流行语的基本概念固定，很少与其他语境结合，所以不易受到其他语境的影响，这次流行语多以概念、定义出现，所以构词规范；在网络、广播电视中广泛出现，因为大多是专有名词或外来语，所以意义固定；不会插入其他语素，所以形式固定，作为语块在日常交流中使用。

## (2) 同义异形类的特点分析

同义异形基因型指的是在形式上有所不同但在功能和含义上相同或相似的模因，多用缩略语、谐音、语码转换等方式在两种语言中转换产生新的语言现象。它们通过不同的表达方式在不同的语言、文化和历史背景中传播，确保信息的有效传递和适应。这些类型的模因在文化传播和进化中起到了重要的作用，增加了文化的多样性和适应性，所以也是流行语的复制和传播中较为常见的一种类型。

同义异形基因型流行语的类型较多。

通过生成理据按李娟(2019)<sup>7)</sup>的分类整理并修改，参考表4-1。

---

7) 李娟(2019)中共5中类型，其中“汉语加英文字母”只针对中文流行语，本文通过分析韩语同义异形类流行语后，将其修改为“语码混用”。并增加了“音节缩略”和“误写”两种类型，总共7种分类。



语码混用<sup>8)</sup>, 打call、996XX、互联网+、머션129, 分类如表5-1。

〈表 5-1〉语码混用分类

语码混用类型	例子	解释
英文混用	打call	为网络用语, 呐喊, 引申为为支持、同意某人或行话或行为。
汉字混用	996XX	是指早9点到晚9点, 一周6天工作的模式, 体现了欧美的工作压力不得休息, 因为996存在不会单独使用, 会放在句子中间用, 所以属于汉字加数字词的混用, 如996的企业文化, 996工作制。
汉字加符号混用	互联网+	“互联网+”中符号“+”是汉语汉字“加”, “互联网+”就是互联网与实体经济领域生产要素“相加”, 即以互联网与实体经济深度融合、重构、再创新的发展业态。
韩文加数字混用	머션129	韩语中明显是汉语词汇“早会” <sup>129</sup> (有什么事) 的音节结构加数字的方式。

语言是个开放的系统, 为丰富自己的词汇系统, 一种语言往往会从外语中吸收或借用词语, 所以语言接触是语码混用的根本原因, 另外语言的经济性原则和网络的开放性也造成了语码混用现象的增多。语码混用表现了当代中韩语言发展的新变化, 是中韩语言富有生命力和创造力的表现。

重叠, 如萌萌哒, 即“萌萌的”, “萌”是可爱的意思, 重叠为“萌萌”表示很可爱, 人、事、物均可适用。重叠用来强调某种语义或感情色彩, 或者在口语中增加语气的表达。另外重叠在语言节奏和韵律上也起到作用, 使句子更加生动和富有节奏感。这类变异在中文流行语中只有一个, 韩语流行语语料中没有发现, 可见重叠类模因变异受限制, 传播不广泛。

8) 语码混用(code-mixing)是指以一种语码为主, 再夹杂其他语码的语言现象, 如汉英语码混用, 即是在汉语词汇或词组中夹杂一些英语词汇或词组的语言表述。赵湘, 「汉英语码混用现象探析」, 『外语与外语教学』第6期, 2007, pp.10-12.

误写,如“레게노”是把legend(레전드)误读成了legeno(레게노),这种类型中文中没有出现。

音节缩略,韩语音节结构由(辅音)+元音+(辅音)+(辅音)的形态构成,可以用音节的开头辅音(초성자음)代替其音节进行缩写。常见于设计名称中,也经常用于网络聊天<sup>9)</sup>。ㄹㅇㅎㅁ是“라고 할 뻔(差点说成这样)”的音节缩率方式。ㅇㅅㅇ则是把우스위(好笑)<sup>10)</sup>音节的开头辅音来表示,一般用于聊天的表情中,在kakao聊天中较多使用,类似于流行的表情符号<sup>11)</sup>。这类变形与韩语的书写形式有关,所以中文流行语未出现。

引申义,引申义指一个词语在使用过程中逐渐扩展其原有的含义,或者通过比喻、隐喻等手法衍生出新的意义。引申义的产生常常是因为语言使用者在社会发展和文化交流中需要表达新的概念或适应新的语境而出现。中文流行语中如巨婴、躺平、内卷、洪荒之力、双向奔赴等。如“砥砺前行”中的“砥砺”,本义为磨刀石,引申指磨炼。砥砺前行,即在磨炼中奋勇前进。

缩略语,有官宣、断舍离、高大上、网红、失联、예지앞사、현피、내로남불等。缩略语在交际中节省时间和空间、简化交流、增加记忆力、并可以形成专业领域的标准化规范用词。结合우상도(2019)关于韩语缩略语的分类方法,整理语料中出现的4种分类,如表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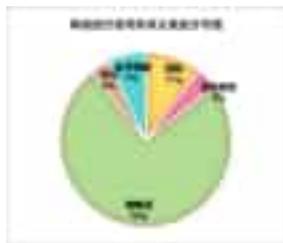
9) 「한국어와 영어의 줄임 말 유형의 비교 연구」, 『教育论丛』第56辑, 2019, pp.99-112.  
10) “우스위”:우스디的形式变化,原意是好笑、搞笑、幽默;这里ㅇㅅㅇ是模仿人呆呆的表情,就像眼睛看到的一样,表现出了发呆的表情和傻乎乎的氛围。但是用文字表达无表情的表情包要比其他文字表达简单可爱,就像眼睛睁得圆圆的,用在表情包中。  
11) 常见的此类韩语表情符号有:ㅇ:응,“恩恩”的意思;ㅎㅎ,ㅋㅋ:用来代表笑声。因为发音和人的笑声听起来十分相似;ㅇㅋ:오케이(OK)的意思等。



复合体,具有较强的传播性。引用刘懿(2014)的观点,同义异形类多为简单模因,模因变体较少。中文流行语用的最多的是引申义,占比46%,而韩语流行语最多的是缩略语,占比75%(图2-1和图2-2)。



〈图 2-1〉中文流行语同形异义类分布



〈图 2-2〉韩语流行语同形异义类分布

语言不规范,容易产生不受控制的“网络语言”。

模因本身一个文化概念,指信息、文化从一个人脑海“跳”到另一个脑海中,而语言模因也不仅限于一种语言内,能够随着交流被复制至另一种语言中。另外语码转换的方式也比较多,流行语的复制和扩展能力也比较强,其原因除了经济全球化加速,文化的互相影响和融合,还有网民们追求时代感、求新求异的心理。但随着网民们的低龄化、可以催生和创造出很多不规范的流行语,例如语码混用导致随意性大、不稳定、需要使用迂回或比喻的方法来表达许多精细的语义。韩语中外来语的随着网络迅速扩散和传播,很快发展成强势模因,但大量外来语会造成社会群体之间的沟通困难,其中更多的缩略词来源于特定的游戏或者流行文化,老年人可能不熟悉或不理解新兴的流行词汇和用法,导致沟通隔阂,很快产生也很快消亡。

另外误写、音节缩略等变异也具不可控性。例如,把“좋은”误写成“조은”,京畿道坡州市金村洞的一家酒馆页用“조은”命名,电视节目中也经常出现这种误写,变得流行且不可控,但是这种误写违反了《韩文拼写法规定》第15项:区分写用语的词干和词尾。音节缩略的例子如“어떻게지내”用“어뻐지”来代

替, 在电视节目、YouTube中这种因为追求聊天的简便而音节缩略的现象越来越流行起来, 但这却是不符合《韩文拼写法规定》的错误音节缩略。

## 2) 表现型模因的特点分析:

### (1) 同音异义类的特点分析

同音异义类是指那些通过同音字或谐音字来制造幽默、双关或讽刺效果的模因类词语。这类词语在网络中非常流行, 常用于社交媒体、论坛和聊天中。中韩流行语中有“我太南了/难了、蓝瘦香菇、와리가리、마봉춘、신학하다、아인슈퍼너、스웁、무스비”7个流行语。“其中同音字或谐音字代替的有“我太南了/难了”、“蓝瘦香菇”、“와리가리”<sup>13)</sup>、“einspanner”<sup>14)</sup>、“스웁”<sup>15)</sup>、“무스비”<sup>16)</sup>。可以看出中文的同音词替代更多的是被中文方言或有中国文化的词所代替, 而韩语中更多是日语和英语的音译词。另外还有属于英语单词关键字首音节缩略后的韩语方言谐音词。마봉춘(马逢春): 出演过MBC综艺节目《无限挑战》的主持人的绰号, 成员们根据MBC<sup>17)</sup>首字母取的外号, 并命名为마봉춘(马逢春)。

### (2) 同形联想类的特点分析

同形联想指的是人们对具有相同或相似形态的事物或概念之间产生的联

- 
- 13) “와리가리”是20世纪七八十年代韩国村里的小朋友们喜欢玩的游戏之一。这是往返于两个低音提琴之间得分的游戏, 在“来回(왔다 갔다)”一词上加上日语“来来回回(왔다리 갔다리)”的“리”语法格式(动词词尾)被命名为“와리가리”。
  - 14) “einspanner”一词“拉车的车夫”, 是指像过去车夫们为了缓解疲劳而喝的咖啡一样, 在美式咖啡中加入糖和奶油制成的咖啡。
  - 15) 스웁: “swag”的韩语音译, 原是莎士比亚的戏剧《仲夏夜之梦》中“吊儿郎当”的意思。进入现代后被嘻哈音乐人用于表现自大或有点从容、装腔作势的心情。
  - 16) 무스비: 来自日本动画片《你的名字》中的台词“结ひ”, 与“命运”的意思相似。
  - 17) MBC是韩国文化广播放送株式会社(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的英文名首字母缩写, 是韩国三大电视台之一, 另外两家是韩国放送株式会社“KBS”和首尔放送株式会社“SBS”。

想和联系。这种联想机制是模因传播和扩散化的一部分，因为具有相似形态的模因更容易被人们识别、记忆和传递。这类词有“锦鲤、大白、ㅍㅍ따리”等。中文流行语占比24%，韩语流行语占比9%，中文的同形联想高于韩语，这与中韩语言的特性有一定的关系，即表意文字和表音文字在形态与意义之间的关联方式不同，导致了它们在联想和理解上的差异。表意文字通过直接的形态(字形、部件等)表现意义，联想更为强烈和直观；而表音文字则依赖语音和语境来传达意义，形态本身的联想性较弱。这种差异反映了两种文字系统在信息传递和认知处理上的根本不同。

同形联想属于旧词新用或语义扩展，通过与新语境的结合产生新的意义，激活缺省语境。

模因本来像“病毒”一样入侵宿主通过信息感染来传播、扩散。但是宿主的主体联想起主体作用，宿主的主体联想是指宿主(说话者)结合语境对原模因信息表征发出相关性的联想。换言之，能否形成相同的主体联想很重要。通过生成理据分析，比如“大白”是从穿白色衣服的人(任何可以穿白色衣服的职业)而向相同的方向联想成为救死扶伤的医护工作者。“逆行者”从反方向形势的人联想到为了人民和国家的利益，不避危险奉献自己的人。这是一种画面感的联想。

多为简单模因，模因变体较少。这类流行语因为联想性强，所以本身的变化很少，词内部没有变化，所以不形成模因变体。

例如“锦鲤”已经指的是“运气好的人”不会变成“红锦鲤、绿锦鲤”这类词则和原意差别不大，也就是说“红锦鲤、绿锦鲤”则不具有“运气好的人”的联想意义。“顶层设计”的联想性，让本身不需要增加语素，而且词义的偏向性，指的是统筹规划、整体性看待问题，不会产生“底层设计”一词。ㅍㅍ따리：形容鸡爪的肉一样，表示非常少的意思。联想意义是年轻一代比起热情全力以赴，更

想通过一点努力享受琐碎的幸福的趋势。

语言较为规范，语义扩展更加自由。

因为此类词的模因变体少，所以语言较为规范，通过联想可以扩展出更多的语义，在流行语传播中更加自由。由于旧词新用所带来的新鲜感，满足了当代中韩年轻人的好奇心，使得他们不断模仿和重复，促使这类语言模因更加流行。比如“凡尔赛文学”的不断重复和模仿，出现了“凡尔赛风格”、“凡尔赛生活”、“凡式炫耀”等。“硬核”也出现了“硬核科幻”、“硬核粉丝”、“硬核健身”等。

### (3) 同构异义类的特点分析

这类词有“教科书式、可能xxx假xxx、개이득、웃안웃/꾸안꾸”等。中文流行语占比19%，韩语流行语占比10%，相差不多，但同构异义是扩展性很强的一种方式。通过生成理据分析多以构式类词语出现比如“可能xxx假xxx、一言不合就xx、웃안웃/꾸안꾸”等。“杠精”、“柠檬精”、“깊꾸”、“신꾸”等构式类词语可以用词语模<sup>18)</sup>理论进行解释，词语模也是一种语言模因，因为它能通过模仿得到复制和传播，它既是一种构词方式也是一种造词方式，利用词语模结构分析新词语，可以有效避开研究过程中出现的类词缀界定问题，从模槽和模标两方面分析形成的词语模的特点，具有简单明了的优势<sup>19)</sup>。根据李宇明(2002)的分类修改，如下：

18) “词语模”参见：李宇明，《语法研究录》，北京：商务印书馆，2002。

19) 孙志鑫·韩容洙，「词语模视角下“XX子”汉语网络新词浅析」，《中国研究》第90卷，2022，pp.23-38.

〈表 5-3〉同构异义分类

同构异义分类	数量	事例
前空型同构	10	XX红遍全球、XX孩子、XX打怪、XX模特、 YX千万条XX第一条、XX绝壁、XX响当当、 响当当、XX球球(男生球球)、XX来位(男)、XX平 白平(女)(著作)
后空型同构	11	断崖式XX、教科书式XX、物种灭绝、中国式 XX(中国式现代化)、村村村村、多过XX、野 性XX、抽基XX、次XX(事件)、假(假)XX、 山(假)XX
复古类同构	9	模仿过XX(非基XX商人)、XX到XX道XX道 XX(北京的小胡同)、XX(一言不合就XX、 XX(海)XX、不要在我得我要我(我不XX 我要XX)、可恨XX、假XX、美腿XX、 假当XX、XX(受)XX(受)XX)

例如“杠精”、“柠檬精”解释为“X+精”为一个前空型词语模，“精”为单音节模标，单音节模标“精”是自源性的，即是现代汉语词汇中固有的。“X먹과”、“XX꾸”、“X포세대”属于前空型词语模，“꾸”是单音节模标、“먹과”是双音节模标，“포세대”是多音节模标，其模标都是他源性的。X千万条，Y第一条”也属于前空型词语模。在这一词语模中，模标是“千万条”和“第一条”，是一个词语，“X”和“Y”是模槽。从模标与模槽的角度来讲，“X”和“Y”的模槽有前后顺序关系。“后空型”有“断崖式XX”、“킹X”、“갓X”等，“킹”是“king”、“갓”是god的音译词，模标“King”和“God”经常在韩语口语中使用，表示一种情绪(生气、感慨、无奈)。所以词模类语言模因易于模仿、复制、传播，加之互联网具有开放性、交互性等特点，同时展现了现实社会中人们的个性、习惯、情感态度等，得到了具有相同特征的模因宿主的肯定，加速了传播。

套用格式，激活缺省语境。这类词语可以套用相同的格式，模仿出相同结构的变体，激活了原来缺少或省略的语境。

套用格式比如：“可能xxx假xxx”来源于电竞圈甩锅(逃避责任，借口)用语“我可能喝了假酒”，被用于表示和自己所遇到的情况不同。“我可能学了个假

中文”来表示很多学习过中文的外国人在真正来到中国后所遇到的不同和震撼。“一言不合就XX”表示，毫无意料的情况下出其不意，作出意料之外的情况，套用这个格式，可以造出“老师一言不合就表扬学生”，“老板一不开心就放假”。把缺省的意料之外的语境补充出来了。2022年的流行语“웃안웃”表示笑了又没笑“웃긴데 안 웃겨”，表示虽然搞笑却笑不出来，和“웃기다+슬프다”是“看起来搞笑却悲伤”的缩略，与“웃프다”的意思“想笑不能笑”相似。用到了“x안x”的套用格式，2023年的新流行语便出现了꾸안 꾸<sup>20)</sup>，是“꾸민 듯 안 꾸민 듯”(打扮了又好像没打扮)。

因为类推机制和语言经济性原则，能产生大量新的模因复合体，可以在词句、篇章等层面上嫁接。

此类词语的多可以作为简单模因体组合成模因复合体，因为词语的粘性较高。构式类词汇因为仿拟机制推动，具有多产性。比如：“搭子”一词表示“搭伙、一起做某件事的人、伙伴”，在词前加上具体的相关事情，可以组成新的模因复合体，比如：“饭搭子(一起吃饭的)”、“学习搭子(一起学习的)”等。韩语中的개(原意为狗)，在表示程度加深的时候使用，意思是“非常、相当”，比如“개재밌어(非常有趣)”、“개맛있어(非常好吃)”、“개좋아(非常喜欢)”。“개이익”就是把“개”加上“이익”(利益)上表示很大的利益、很多好处。所以同构异义类是具有能产性和复制保真性的强势模因。

语言规范性较差，网络传播扩散性强。

因为套用格式的扩展性，使得语言变异产生随意性，比如“村超”一词中虽然“村”有村庄这一名词属性，但也有粗俗、土气的贬义形容词属性，对于套用

20) 类似于中文流行语中的“伪素颜”，表示与日常时尚、休闲装几乎相同。与华丽的时尚、正式服装形成鲜明对比的简单、单纯的风格为主。可以说这是一种极简生活。反义词是“打扮的”。可以理解为不追求刻意明显的妆容服饰，而是后现代社会一种更加返璞归真的时尚理解。

“x超”这一格式就不具有规范性，比如“确认过眼神”后半句可以加上“是XX的人”，一句这种已经超出了本文的流行语研究范畴，这种构式流行语的扩展降低了语言的规范性要求。韩语中的“웃안웃/꾸안꾸”也有类似的问题，虽然可以扩展出很多相似结构的构式流行语，但对于没有认知语境的受众来说接受度很低，并且与标准语差异过大，这种过于构式化流行语现象导致的沟通困难，会逐渐消亡，能否持续传播而不只是小圈层的用语也是值得探讨的问题。

## 4. 结论

本文对2014—2023年10年间的中韩年度流行语榜单的200个流行语运用模因论和定量计量分析的方法，进行了共时研究。进而探讨了流行语的生成理据、特点以及语言的最新动态和未来发展趋势等问题。

通过对『咬文嚼字』近10年的流行语和naver等网站流行语语料的对比分析，不但了解了两种语言发展的共同性，情感输出和语言传播方式的相同性，反方向验证了模因论也可以用于韩语流行语的研究，还可以找出中韩流行语发展的差异点。根据本文结论得知，中文流行语的同义同形、同义异形、同形联想和同构异义、同音异义分别为25%、30%、22%、21%、2%（如本文第7页的图1-1）；而韩语流行语的同义同形47%、同义异形29%、同音异义5%、同形联想9%和同构异义10%（如本文第7页的图1-2）。另外，在同形异义类中，中文流行语的同义异形48%是引申义、21%是借称、17%是缩略语（如本文14页的图2-1）；而韩语流行语同义异形的75%是缩略语（如本文14页的图2-2）。中文流行语中独有的是引申义、重叠方式；韩语流行语独有的是音节缩略和误写。中韩流行语都有借称，语码混用，缩略词。在同形联想表现型上，中文流行语占比23%，韩语流行语占比9%。有一部分同形联想是属于旧词新用或旧词的词扩义展，在此类中，中文流行语的转换明显高于韩语流行语。同构异义套用格式，激活缺省语境，中文流行语占比21%，韩语流行语占比10%，这类可以用构式词类或者词语模解释，虽然有很强的扩展性，但规范性较差。

网络流行语可以直观反映人们的关注焦点并通过简洁且模式化的特征使

受众快速达到交际目的。中韩两国的语言动态研究具有新的研究价值，而本文这种在共时性的比较视野下所做的研究，为中韩流行语差异化发展的细化和动态研究提供了探索的新方向，也为寻找中韩两国语言发展的特征、内在规律以及解读语言提供了新的思路。

## ◆ 参考文献

### 1. 单行本

Dawkins R, *The selfish gene*,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李宇明, 『语法研究录』, 北京:商务印书馆, 2002.

何自然, 『语用三论:关联论、顺应论、模因论』, 上海教育出版社, 2007.

何自然、陈新仁, 『语言模因理论与应用』, 暨南大学出版社, 2014.

『《咬文嚼字》年度十大流行语(2008—2021)』, 上海文化出版社, 2021.

### 2. 论文

金正勋, 「网络语言中模仿现象的模因论特征研究」, 『中国学』第83辑, 2023.

代玉帆, 「基于模因论探析词语模的构成与特征——以网络流行语“X千万条, Y第一条”为例」, 『文化传播』第33期, 2020.

刘懿, 「流行语模因的类型与特点——以近五年《咬文嚼字》“十大流行语”为例」, 『广州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4期, 2014.

李娟, 「基于模因论视角下网络流行语的研究——以近五年《咬文嚼字》十大流行语为例」, 『黑龙江教育学院学报』第9期, 2019.

李彤, 「基于模因论的网络流行语对外汉语教学探析」, 湖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21.

林志永, 「我佛了”中的模因组合模式探析」, 『中国人文科学』第85辑, 2023.

孙志鑫·韩容洙, 「词语模视角下“XX子”汉语网络新闻浅析」, 『中国研究』第90卷, 2022.

유철, 「网络流行语“X+精”研究从“戏精”、“杠精”、“柠檬精”等谈起」, 『中国言语研究』第96辑, 2021.

이상도, 「한국어와 영어의 줄임 말 유형의 비교연구」, 『教育论丛』第56辑, 2019.

장우, 「중국 인터넷 유행어 연구—2016-2019 인터넷 유행어를 중심으로」, 东国大学硕士学位论文, 2021.

陈娟, 「模因论视角下的汉语流行语及教学设计」, 安徽大学硕士学位论文, 2021.

何自然, 「语言中的模」, 『语言科学』第6辑, 2005.

### 3. 网络资料

〈咬文嚼字〉2022年度十大流行语

<https://wap.peopleapp.com/article/6961529/6820843>

〈咬文嚼字〉2023年度十大流行语

[https://guancha.gmw.cn/2023-12/18/content\\_37035088.htm](https://guancha.gmw.cn/2023-12/18/content_37035088.htm)

경향신문:

<https://m.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1504172220005#c2b>

네이버 국어사전 2015년 인기 신조어:

[https://blog.naver.com/dic\\_master/220575649986](https://blog.naver.com/dic_master/220575649986)

네이버 국어사전 2016년 인기 신조어:

[https://blog.naver.com/dic\\_master/220895270504](https://blog.naver.com/dic_master/220895270504)

네이버 국어사전 2017년 인기 신조어:

[https://blog.naver.com/dic\\_master/221171967539](https://blog.naver.com/dic_master/221171967539)

네이버 국어사전 2018년 인기 신조어:

[https://blog.naver.com/dic\\_master/221436020989](https://blog.naver.com/dic_master/221436020989)

네이버 국어사전 2019년 인기 신조어:

[https://blog.naver.com/dic\\_master/221747738600](https://blog.naver.com/dic_master/221747738600)

네이버 국어사전 2020년 인기 신조어:

[https://blog.naver.com/dic\\_master/222167415461](https://blog.naver.com/dic_master/222167415461)

네이버 국어사전 2021년 인기 신조어:

[https://blog.naver.com/dic\\_master/222599877041](https://blog.naver.com/dic_master/222599877041)

new wire website 2022년 새로 등장한 신조어:

<https://blog.newswire.co.kr/?p=13757>

생생정보통 2023년도 신조어:

<https://hop.gopsbs.com/entry/2023년-신조어-모음-총정리>

[검색일: 2024.04.18.]

논문 접수 일	2024년 8월 10일
심사 완료 일	2024년 8월 25일
게재 확정 일	2024년 9월 19일

*Abstract*

## A Study on the Top 10 Popular Words of the Year 2014–2023 in China and South Korea

Zhao Xuejun · Choi Ryeo Hong

This paper examined a total of 200 of the newly coined Chinese and Korean words that appeared between 2014 and 2023 using meme theory and quantitative analysis methods. In selecting buzzwords, popularity and creativity were emphasized, and the 10 buzzwords in Chinese 『咬文嚼字』 were selected between 2014 and 2023, and the Korean buzzword data was selected from 2014 and 2023 on the "Popular New Words" website and other online platforms of the Naver Korean Dictionary between 2015 and 2022.

As a result of examining Korean–Chinese buzzwords, "同音异义" was the least, and the difference is that "同义同形" accounts for as much as half of Korean buzzwords. In addition, the most common Chinese buzzwords among "同形异义" had derivative meanings, and 75% of Korean buzzwords were abbreviated, and no overlap of derivative meaning and form was found.

This paper was able to examine the latest aspects and future development trends of language by exploring the basi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reation of buzzwords through public research on Korean–Chinese buzzwords. In addition, innovation points use meme theory to fill the gap in comparative research on Chinese buzzwords, understand th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delivering cultural information as a cultural medium of meme theory, and help deepen cognitive language research. This will provide useful data for Chinese language education and help a lot in subsequent research on Chinese vocabulary.

**Keyword** Popular buzzwords, corpus, newly coined words, meme theory, corpus, 『咬文嚼字』

## 武宁王墓志铭中“冢”的再释读

张团伟\*

###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1971년 발굴된 이후 일치된 견해를 내지 못한 무령왕 묘지석의 맨 마지막 글자인 “冢”에 대해 중국 동진 남조시기의 출토 사례와 비교·검토함으로써 새롭게 판독하고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그 중요성과 가치성을 언급할 때 무엇보다 무령왕과 왕비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2매의 묘지석은 가장 으뜸이다. 묘지석의 발견으로 백제사 연구에 대해 시간적인 좌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한편 2매의 묘지석 명문에 따르면 무령왕은 62세 되는 523년에 사망했고, 525년에 왕릉에 안장하였으며, 왕비는 천명대로 살다 526년에 사망하여 529년에 왕릉에 옮기어 무령왕과 같이 합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에는 양나라 무제의 재위 기간(502—549년)이었다. 무령왕의 왕위 계승자인 성왕은 國喪 기간에 양무제를 위해 대통사를 영건하기도 하였고 백제 지배계층의 주 무덤 양식인 석실묘 대신에 남조 양식인 전실묘를 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무령왕릉의 수많은 부장품 중에 남조로부터 수입된 것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무령왕릉을 연구하는데 중국 동진 남조와의 비교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지금까지 학계에는 “冢”에 대해 ‘穴’, ‘冢’, ‘도교의 부적’, ‘印’, ‘家’, ‘爾’, ‘了’ 등으로 보고 있어 판독과 해석이 분분하다. 한편 최근에는 발굴을 통해 동진 남조시기에 관한 출토 자료가 늘어나 비슷한 시기에 축조된 무령왕릉에 대해 심층적인 비교 연구의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학 연구를 보완시킬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冢”에 대해 판독 및 해석했을 때 우선 “冢”의 구조적 특징의 분석을 통해 ‘冢’字와 字型的으로 유사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다음 동진 남조시기의 서예 작품, 매지권, 명문 벽돌 등에 나온 ‘冢’字와 비교하여 서체, 서풍, 문장의 구조 등 서로 간에 이질점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무령왕 묘지석의 마지막 글자인 ‘冢’字는 묘지석 뒷면의 陵域圖 및 왕비 묘지석 뒷면의 매지권과 문맥상으로 상통하기도 한다. 따라서 “冢”는 바로 ‘冢’字이고 무령왕의 葬地(무령왕릉)를 의미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백제, 무령왕, 묘지석, 판독, 송산리고분군

\* 南京师范大学 社会发展学院 文物与博物馆学系 博士后

## 〈目録〉

1. 序论
2. 学界对武宁王墓志铭中“𠄎”的释读
3. 武宁王墓志铭中“𠄎”字刂议
4. 结论

## 1. 序论

1971年在忠清南道公州市宋山里古坟群内发现了一座未被盗扰的墓葬，通过对出土墓志的释读，证实其为百济第二十五代王武宁王与王妃的合葬墓。此墓是迄今发现的韩半岛三国时期唯一一座明确墓主身份和卒葬年月的王陵级大墓。从武宁王陵发掘至今虽已经过了近一个甲子，但对其进行深入全方位解读的研究热情却并未消减，从墓葬的形制、构造、地理位置、与周围诸多墓葬间的关系等的分析，以及出土的各类陪葬品的制作工艺、产地、所蕴含的文化信息等解读正在逐步推进与细化。

武宁王陵墓主身份的确认，得益于两方墓志的出土，对墓志铭文的释读自墓志出土之日肇始即已开始，后经数十年的不断深入研究，对两方志石的正反共四面铭文的释读虽大体上已取得共识，然而对武宁王墓志铭文第七竖行首字（𠄎）的释读仍存在不小的争议。武宁王墓志铭文皆镌刻在由八条竖刻阴线划分的七条界栏内，前六条界栏内的铭文字数皆为偶数，第七条界栏内的字数为奇数，且仅有一字。对“𠄎”的释读，目前学界存在‘穴’、‘冢’、‘道教符籙’、‘印’、‘家’、‘尔’、‘了’七种观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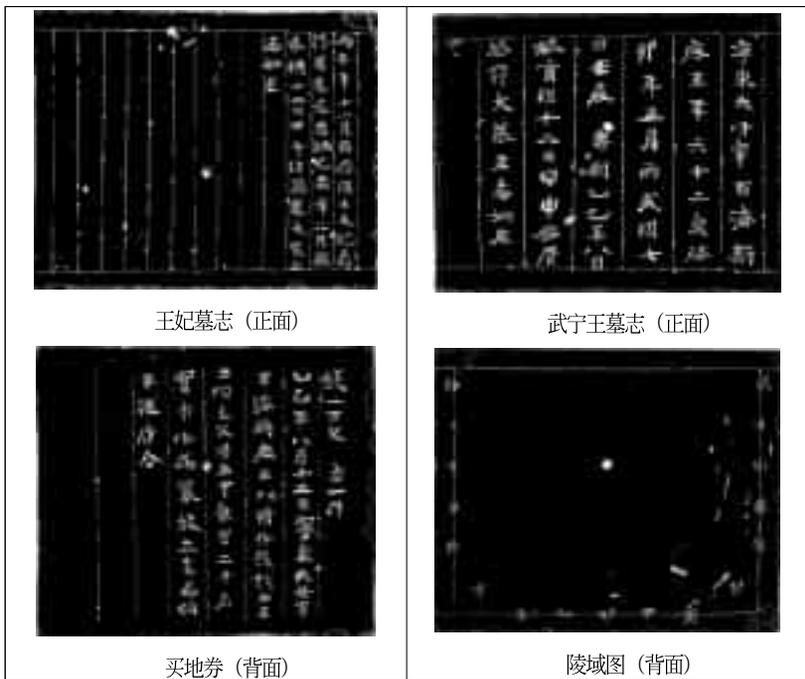
武宁王陵为典型的‘建康模式’砖室墓<sup>1)</sup>，如要对其进行深入全面地剖析，

1) 王志高指出武宁王陵无论是葬地选择、排葬方法，还是斜坡墓道、砖砌排水沟的设置，门券、封门墙、挡土墙、甬道、墓室、棺床、直棂假窗、火焰形灯龕的砌筑，乃至墓砖的规格、砖铭、花纹以及墓主的头向、棺位等，都与建康地区的东晋、南朝墓葬有着惊人的相似。因此，百济武宁王陵可以称作典型的“建康模式”。参见王志高，「百济武宁王陵形制结构的考察」，《六朝建康城发掘与研究》，江苏人民出版社，2015，p.335-345.

其与南朝墓葬间的比较研究则不可或缺。武宁王陵不仅墓葬结构源出南朝，其墓室内出土的青瓷、黑釉瓷、方格规矩神兽纹镜、青铜熨斗、铁质五铢钱等皆属从南朝流入。此外，镇墓兽、铜托银盏、龙凤纹环头大刀、墓志等也深受南朝文化的影响。

近年来随着与东晋南朝相关的考古发现日益增多，新材料的不断涌现不仅提升了中国该时段研究的深度与广度，更为与东晋南朝有着紧密联系的百济历史的研究提供了可供参考的一手资料。本文将着重以东晋南朝墓葬中出土的买地券和铭文砖，以及名家法帖为参照，对武宁王墓志铭文中尚存争议的“𠄎”字展开重新释读。

## 2. 学界对武宁王墓志铭中“𠄎”的释读



〈图1〉武宁王陵出土墓志

对研究一座古代墓葬而言，首要解决的问题莫过于明确墓主身份，而墓志的出土正好为墓主身份的确认提供了无可替代的文字凭证。武宁王陵中两方志石〈图1〉的出土不仅明确了墓主身份、确认了宋山里古坟群作为百济王陵园的地位、厘清了百济王系传承，更为韩半岛三国史的研究提供了时间坐标。目前对两方志石铭文的释读，仅剩武宁王墓志铭中“𠄎”字的辨识存在较大争议。本章就志石的出土经过，以及学界对“𠄎”字释读的诸多观点展开梳理。

### 1) 武宁王墓志出土经过<sup>2)</sup>

1971年在宋山里古坟群内发现了一座未被盗扰的砖室墓，通过对墓葬甬道内出土的两方志石的释读，证实其为百济武宁王夫妇的合葬墓。两方志石在出土时被并排列置于石制镇墓兽前，其上放置有梁武帝普通四年（523）始铸的铁五铢钱一串。甬道东侧为武宁王墓志，西侧为王妃墓志，武宁王墓志背面为陵域图（干支图），王妃墓志背面为买地券〈图1〉。

武宁王墓志长41.5cm、宽35.2cm、厚5.0cm，石质为角闪石，志石中央偏上部有一直径1.1cm的圆形透孔。武宁王墓志铭文由七竖行共53字构成，行间距约为5.0—5.3cm，每个铭文字径约为2.5cm，书体展现出兼有隶、楷风格，字体笔画舒展，波磔分明。

自1971年武宁王陵两方墓志出土肇始，学界对其研究的步伐从未停歇，目前对铭文中前52字的判读学界已达成基本共识：‘宁东大将军百济斯麻王年六十二岁癸卯年五月丙戌朔七日壬辰崩到乙巳年八月癸酉朔十二日甲申安厝登冠大墓立志如左’<sup>3)</sup>，然而对第七竖行“𠄎”的判读目前仍存在诸多分歧。

### 2) 学界对“𠄎”字的释读

2) 文化公报部 文化财管理局，『武宁王陵 发掘调查报告书』，1974，三和出版社；공립 공주박물관，『武宁王陵 新报告书IV』，2018，pp.20—32.

3) 韩国古代社会研究所，『译注 韩国古代金石文 제1권』，驾洛国史迹开发研究院，1992，pp.149—153.

1971年武宁王陵发掘后，成周铎于同年首次对出土的王与王妃墓志进行了释读，其中对武宁王墓志前六竖行共52字进行了考释，但对第七竖行的铭文却未提及。<sup>4)</sup>其后，随着1973年文化公报部文化财管理局『武宁王陵发掘调查考古报告』的正式刊行，对以墓志在内的四千余件文物进行了系统的整理与考释，然而报告中对“𠄎”的释读，仅大致推测是某种符号，或是有意镌刻却未完工的某字，而一笔带过。<sup>5)</sup>

成周铎在后续的研究中，通过对武宁王墓志全文的剖析，指出在铭文中如与武宁王有直接关联的字句前皆会出现空出一格或半格的现象，以示对武宁王的尊重。第六竖行‘立志如左’之后明显空出一格，显然其后“𠄎”字的字意当与武宁王有直接关联，通过对字形的观察，认为“𠄎”为‘穴’或‘冢’字的可能性最大，代指王穴或王冢。并认为其字意与墓志背后的陵域图不谋而合。<sup>6)</sup>

此外，金永旭通过对『高丽大藏经』「法界图记丛髓象」中版刻象征佛印的异体‘印’字的字形观察，认为其与“𠄎”颇为相似，武宁王墓志铭末尾镌刻表示佛印的‘印’字，或与当时百济人的生死观有关，表示由佛印护持着墓主往生极乐世界。<sup>7)</sup>其后，金荣官通过对“𠄎”的间架结构与字形的分析，否定了之前诸方家的观点，认为“𠄎”实为起到语气助词作用的‘尔’字。<sup>8)</sup>

4) 成周铎, 「武宁王陵」, 『百济研究』 제2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1, p.210.

5) 文化公报部 文化财管理局, 『武宁王陵 发掘调查报告书』, 1973, pp.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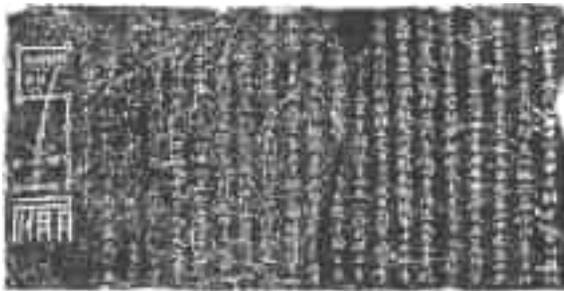
6) 成周铎, 「武宁王陵 出土 志石에 관한 연구」, 『武宁王陵의 研究现况과 诸问题 (武宁王陵发掘20周年纪念学术会议报告书)』, 忠清南道·公州大学校 百济文化研究所, 1991, p.116-117.

7) 金永旭, 「百济 吏读에 对하여」, 『口诀研究』 第11辑, 口诀学会, 2003, p.129-131.

8) 김영관, 「백제 무령왕릉 출토 지식과 매지권 판독 재고」, 『한국고대사탐구』 제30집,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8, p.291-299.



〈图2〉徐副买地券（长沙博物馆藏）<sup>9)</sup>



〈图3〉刘顓买地券拓本<sup>10)</sup>

与以上观点相左，权五荣认为“𡇗”并非文字，而是起到镇魂辟邪作用的道教符籙。<sup>11)</sup>指出与其相似的南朝实例有：湖南元嘉十年徐副买地券〈图2〉、湖北武汉永明三年刘顓买地券〈图3〉、湖南资兴天监四年买地券、湖南资兴普通元年何靖买地券。以上买地券皆在券尾刻有道符，极具浓厚的道教色彩，这些道符在墓中起着役使鬼神、超度亡灵的作用，以强化券约效力。<sup>12)</sup>其后，权仁瀚在权五荣的观点之上，结合『朝鲜王朝实录』中记载的百济使用纸钱的风俗，以及与东晋王献之作品中‘家’字的草书体相比较，认为“𡇗”应为‘家’

9) 长沙博物馆：https://www.csm,hn,cn/#/home

10) 毛远明，『汉魏六朝碑刻校注（第三册）』，线装书局，2008，pp.130.

11) 권오영, 「丧葬制를 중심으로 한 武宁王陵과 南朝墓의 비교」, 『百济文化』 第31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원, 2002, p.53.

12) 王志高、董庐，「六朝买地券综述」，『东南文化』 第2期，南京博物院，1996，p.51.

字，其作用与道符相似，起到接引墓主灵魂归家的作用。<sup>13)</sup>此外，金永心通过对昌宁郡火旺山城莲池中出土的与道教符籙相关的木简墨书的分析，认为“𠄎”与其书体相似，其性质当为道教符籙。<sup>14)</sup>

综上所述，以上诸方家的观点皆着重由“𠄎”的间架结构与字形来推测为某字或某种符号，忽略了与武宁王墓志上下文间的契合性和文意的连贯性，又缺少与同时期中国东晋南朝实例的对比分析。其中，虽有方家指出“𠄎”与南朝买地券券尾的道符相似，但南朝时期道符仅出现在买地券上，未发现墓志中出现道符的先例，且南朝时期镌刻在地券上的道符与“𠄎”相去甚大。因此，对“𠄎”的释读还有待商榷。

### 3. 武宁王墓志铭中“𠄎”字刍议

百济与中国官方接触的时间可追溯至东晋咸安二年（372），自此之后见诸史载的接触不胜枚举。最为频繁且密切的接触发生在百济迁都熊津后的63年间，不仅体现在遣使朝贡的次数上，更能从百济熊津故地内分布的属于‘建康模式’砖室墓的武宁王陵、宋山里6号墓、校村里3号墓，以及为梁武帝营建的大通寺等的遗存，一窥百济对南朝交流的广度与深度。

迄今为止，百济故地内随葬墓志的墓葬实例仅见武宁王陵，其墓志的内容、形制、文体、书体等皆能在东晋南朝寻得源流。目前对墓志铭文的释读，仅剩文末“𠄎”存在不小的争议，若要对其进行客观地释读，不仅要由“𠄎”的间架结构与字形入手，更要结合同时期中国出土实例加以比较分析。

#### 1) 见诸史载的百济对南朝文化的偏好

百济对南朝频繁的遣使不仅是出于政治上的需要，更有对南朝物质文化

13) 权仁瀚, 「武宁王陵 出土 铭文들에 대한 语学的 考察」, 『口诀研究』第17辑, 口诀学会, 2006, p.106-109.

14) 김영심, 「무령왕릉에 구현된 도교적 세계관」, 『韩国思想史学』第40辑, 한국사상사학회, 2012, p.222-223.

层面上的偏好。从考古发掘出土的实物资料着眼，百济汉城都邑期的风纳土城、梦村土城、石村洞古坟群；熊津都邑期的公山城、宋山里古坟群、大通寺遗址；泗泚都邑期的扶苏山城、官北里遗址、定林寺遗址、王兴寺遗址、陵山里陵寺遗址、陵山里古坟群，以及益山的王宫里遗址、弥勒寺遗址等，在这些百济的王宫、王陵、国家级寺刹中皆出土有各类六朝时期的文物。

除此之外，见诸史载的百济对南朝物质文化的需求与偏好也贯穿于整个百济史中。自东晋咸安二年（372）百济第十三代王（近肖古王）遣使东晋开始，开启了百济对东晋南朝长达数百年不绝的交流，期间大量的中国文化流入百济，不仅对百济的社会各方面产生了积极的影响，后续经由百济传入日本列岛后又推动了古代日本社会的发展进程。以下将以见诸史载的百济对南朝物质文化的需求与偏好为中心展开论述。

①二十七年，毗上书献方物，私假台使冯野夫西河太守，表求易林·式占·腰弩，太祖并与之。<sup>15)</sup>

②十九年，王遣使入梁朝贡，兼表请毛诗博士·涅盘等经义，并工匠·画师等，从之。<sup>16)</sup>

③出为东阳太守，百济国使人到建业求书，逢子云为郡，维舟将发，使人于渚次候之，望船三十许步，行拜行前，子云遣问之，答曰：「侍中尺牍之美，远流海外，今日所求，唯在名迹。」子云乃为停船三日，书三十纸与之，获金货数百万。<sup>17)</sup>

④见说书窗暂卧龙，神传妙诀助奇锋。也知外国人争学，惟恨无因乞手踪。（南朝萧子云善书，百济使人求手踪，以为国宝。）<sup>18)</sup>

⑤陆诒少习崔灵恩三礼义宗，梁世百济国表求讲礼博士，诏令诒行。<sup>19)</sup>

15) 沈约，『宋书·东夷·百济国』，中华书局，1974，pp.2394.

16) 金富轼，『三国史记·百济本纪·圣王』，乙酉文化社，1980，pp.236.

17) 李延寿，『南史·齐高帝诸子·子云』，中华书局，1975，pp.1075.

18) 崔致远撰，党银平校注，『桂苑笔耕集校注（下）』，中华书局，2007，pp.586-587.

史料①中记述，百济第二十代王（毗有王）于刘宋元嘉二十七年（450）遣使表求易林、式占、腰弩，太祖刘义隆欣然应允。其中的『易林』为象数易学之作，讲究占卜算卦，后世亦多用于占卜吉凶、筮算祸福。学界对此书的评价是：“在西汉一朝，象数易学甚为昌明，其中象数易学的传世之作『易林』厥功至伟，其上承孟喜卦气学易学思想，下启京房庞杂之象数体系。”<sup>20)</sup>『式占』是中国传统星占学发展的重要阶段，推测其出现于战国，盛行于秦汉，六朝之后渐趋匿迹。<sup>21)</sup>式盘则是『式占』占卜时的必要工具。1971年在武宁王陵中出土有两方志石，其中武宁王所属志石的背面阴刻有天干地支，志石中心偏下有一圆形穿孔，有学者认为此种制式与当时流行的式占天地盘相似。<sup>22)</sup>此外，又据『周书』卷49「百济」传记载：“又解阴阳五行。用宋元嘉历，以建寅月为岁首。亦解医药卜筮占相之术。”<sup>23)</sup>可知，百济不仅深谙卜筮、占相、阴阳五行、医药之术，还使用刘宋历法（元嘉历），以建寅月为岁首。



〈图4〉南京通济门外出土的南朝大型铜弩机（南京市博物馆藏<sup>24)</sup>）

- 
- 19) 姚思廉，『陈书·儒林·陆诩』，中华书局，1972，pp.442。  
 20) 汤太祥，「『易林』对『周易』的继承与新变」，『昭通学院学报』第46卷，昭通学院，2024，p.51。  
 21) 李忠林，「汉代的式盘与式占」，『郑州航空工业管理学院学报：社会科学版』第42卷，郑州航空工业管理学院，2023，p.25。  
 22) 권오영，『고대 동아시아 문명 교류사의 빛, 무령왕릉』，돌베개，2005，pp.90。  
 23) 令狐德棻，『周书·异域·百济』，中华书局，1971，pp.887。

关于史料①中言及的刘宋腰弩，腰力引张之弩谓之‘腰弩’，或称‘腰引弩’，后世又称‘腰开弩’。<sup>25)</sup>对于刘宋腰弩，王志高<sup>26)</sup>指出此类腰弩区别于一般常见的六石弩，而是一类比普通小型弩威力大、射程远，但又比大型弩使用更便捷的次大型弩。关于此类腰弩实物的发现，1960年在南京秦淮河通济门外出土有4件南朝铜弩机，其中最大的一件郭长29cm，其悬刀下端一侧有圆形穿孔，不同于一般小型铜弩机（图4）。故此，王志高认为此件弩，应为见诸史载的刘宋腰弩。

史料②中记述，百济第二十六代王（圣王）于梁大同七年（541；圣王十九年）遣使梁朝表求毛诗博士、《涅盘经》、工匠、画师等，梁武帝欣然应允。其中的《毛诗》是汉代产物，汉时的五经七博士中《毛诗》不在官学，故无博士，除王莽执政时期一度设置过毛诗博士外，两汉四百年间《毛诗》只在民间转播，魏晋以后，《毛诗》独兴，朝廷设置《毛诗》博士，掌以其经之学教国子。<sup>27)</sup>其次，对史料②中‘涅盘等经义’的解读，学界普遍认为此处的《涅盘经》即为流行于萧梁朝的《大涅盘经集解》。<sup>28)</sup>再者，史料②中也提及向南朝表求工匠、画师，南朝工匠、画师的输入，或与538年圣王迁都泗泚有关，此时新都城（泗泚都城）、国家级寺刹（陵山里陵寺）、王陵（陵山里古坟群）等的先后营建皆得到南朝工匠的助力，从近年来的考古成果中也能得到印证。

24) 南京市博物馆，《六朝风采》，文物出版社，2004，pp.380.

25) 王志高、沈宏敏，《汉城时代百济与中国东晋、南朝交流的三个问题》，《南京晓庄学院学报》第2期，南京晓庄学院，2019，p.14.

26) 同注21，p.16.

27) 蒋方，《唐毛诗博士考述》，《河北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32卷，河北师范大学，2009，p.74-78.

28) 조경철，《백제불교사 연구》，지식산업사，2015，pp.139-140.



〈图5〉萧子云小楷『列子』<sup>29)</sup>

史料③中记述，百济使者花费金货数百万求得萧子云书法三十张。萧子云是萧梁时期著名的书法家，据『梁书』卷35「萧子云」传记载：“子云善草隶书，为世楷法，白云善效钟元常、王逸少而微变字体。……其书迹雅为高祖所重，常论子云书曰：‘笔力劲骏，心手相应，巧逾杜度，美过崔寔，当与元常并驱争先。’其见赏如此。”<sup>30)</sup>。萧子云书法不仅享誉当代，后世对其的评价也不低，从李世民“子云近出，擅名江表”<sup>31)</sup>一语足可想见。现今其草书等今已不得见，唯小楷赖『淳化阁帖』以传〈图5〉。萧子云书法流入百济，说明当时百济统治阶层对南朝书法名家的追捧，不惜花费重金求得名家墨宝，也从侧面说明百济对以书法为首的南朝高雅艺术的向往，这也为之后『砂宅智积碑』等为代表的百济流美书风的形成奠定了基础。此外，统一新罗时期的崔致远所作『七言记德诗三十首谨献司徒相公』『笔法』中也对百济使者求取萧子

29) 『乾隆摹刻淳化阁帖』，上海商务印书馆，中华民国十年。

30) 姚思廉，『梁书·子云』，中华书局，1973，pp.515。

31) 房玄龄，『晋书·王羲之』，中华书局，1974，pp.2107。

云书法一事进行了记载和评述(史料④),指出百济使者求取萧子云墨宝视之为国宝。

史料⑤中记述,百济向萧梁朝表求讲礼博士,梁武帝遂派遣少习崔灵恩『三礼义宗』的陆诒前往。崔灵恩为南北朝经学史上极为重要的人物,其治经以博通见长,以礼学著于世,『梁书·儒林传』云其:“少笃学,从师遍通五经,尤精三礼、三传。”<sup>32)</sup>。后世对其著述『三礼义宗』的评价为:“贯综『三礼』,融通诸家之说而有名与后世者。”<sup>33)</sup>。陆诒自小研习『三礼义宗』,深谙崔灵恩礼学之道。礼学经由讲礼博士陆诒传至百济,对百济统治阶层的政治理念产生了深远的影响。

## 2) ‘冢’的再释读

武宁王陵为典型的‘健康模式’砖室墓,如要对其进行深入全面地剖析,其与南朝砖室墓的比较分析不可或缺。不仅墓葬形制,墓室内出土的随葬品中直接从南朝输入,亦或是在南朝文化影响下百济人再度创制的也不在少数。其中,墓葬甬道中随葬的两方墓志,即是深受南朝影响。目前为止,对于两方墓志的释读,仅剩武宁王墓志志文末尾‘冢’的释读存在不小的争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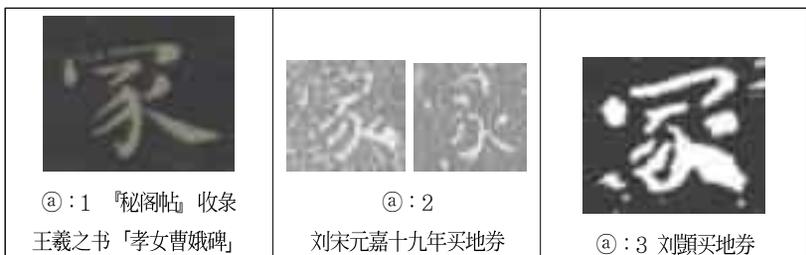
首先,根据2018年国立公州博物馆出版的『武宁王陵新报告书IV』中公布的武宁王墓志高清拓本(图1),‘冢’明显是由上下结构组成,上部为‘宀(秃宝盖)’,其左点稍斜、横画起笔不与左点相连、左下方出钩收笔;下部由两部分构成,上方为‘一ノ(横撇结构)’,横上斜、撇向左下行笔;下方为‘丨(竖钩结构)’,竖垂直、左上方出钩收笔。根据‘冢’的间架结构,其为文字毋庸置疑。武宁王墓志虽历经千余年的侵蚀,致使最后一字漫漶不清,但依据以上对‘冢’的分析,其与‘冢’字的间架结构相似,为‘冢’字的可能性较大。其次,对于‘冢’字的释义,许慎『说文解字』「冢字部」云:“高坟也。”<sup>34)</sup>2008年

32) 姚思廉,『梁书·儒林传·崔灵恩』,中华书局,1973,pp.676.

33) 焦桂美,『崔灵恩的经学成就及其经学史意义』,『管子学刊』第4期,山东理工大学,2007,p.118.

34) 许慎,『说文解字』,中华书局,2013,pp.729.

中国戏剧出版社出版的全注全译版《说文解字》中对其的注释为：“土部曰：‘坟者，墓也’，墓之高者曰冢，郑玄注《冢人》云：‘冢，封土为丘垅，象冢而为之’，《释诂》曰‘冢。大也’。”<sup>35)</sup>下文将立足于传世的名家法帖，以及与武宁王陵营建时间相近的中国东晋南朝出土实例，并结合“冢”字的间架结构和志文的上下文意，综合分析其为“冢”字的可能性。



〈图6〉东晋南朝名家法帖及买地券中的冢字

图6中列举的是东晋南朝时期的名家法帖和买地券中出现的‘冢’字。①：1为《秘阁帖》中收录的东晋王羲之书「孝女曹娥碑」中的‘冢’字，系小楷，字体奇而古，笔劲如铁，其笔法中保留有浓厚钟书（钟繇）的隶意。①：2为广东省始兴县城东东圩村出土的宋元嘉十九年（442）买地券中的‘冢’字。<sup>36)</sup>①：3为1953年湖北省武昌市东北郊河家大湾出土的齐永明三年（485）刘顓买地券中的‘冢’字。<sup>37)</sup>以上三例皆为楷书。

35) 许慎，《说文解字（全注全译版）》，中国戏剧出版社，2008，pp.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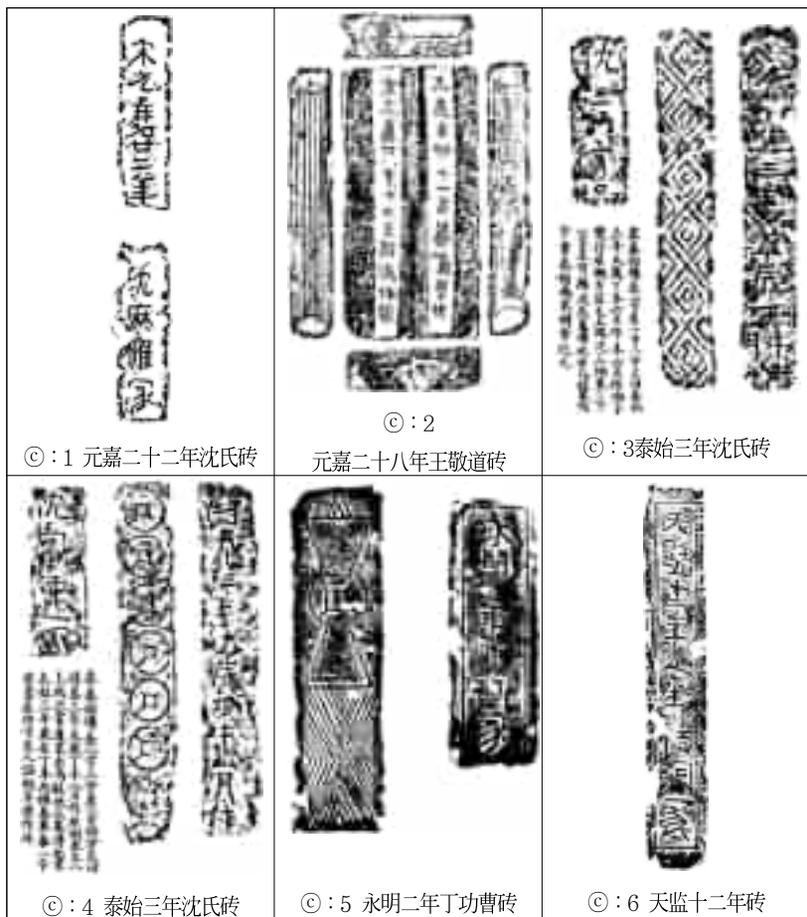
36) 廖晋雄，「广东始兴发现南朝买地券」，《考古》第6期，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1989，p.566-567.

37) 王善才，「武汉地区四座南朝纪年墓」，《考古》第4期，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1965，p.176-184.



〈图7〉东晋铭文砖<sup>38)</sup>

38) 黎旭, 『中国砖铭全集: 卷九』, 上海书画出版社, 2020.



〈图8〉南朝铭文砖<sup>39)</sup>

魏晋南北朝时期墓志铭的书写，习惯性的在文末使用‘冢’（⑥：1—6，⑦：1—6）、‘墓’（⑥：7、8）、‘窆’（⑥：9）等字结尾，以表示墓主葬地之意。图7中列举的东晋铭文砖（⑥：1—6）皆以‘冢’字结尾，铭文内容简单，仅述及墓主名讳、郡望、官职等，已具备墓志昭示墓主生平梗概的作用。其中，

39) 黎旭，『中国砖铭全集：卷十』，上海书画出版社，2020。

代表性的如㉔：4铭文砖，铭文全文为：“建元元年癸卯晋故太常都讲陈君冢”，仅由15字构成，文字精炼，言简意赅，字字皆是关键，明显起到标识作用，是东晋志文表述的一大特点。在此基础上，㉕：5铭文砖不仅涉及墓主名讳，还述及墓主籍贯、卒葬年月。再者，㉖：5铭文砖的特别之处还体现在铭文反书上，此类反书铭文砖的出现，可以上溯至西汉晚期，东汉晚期后大规模流行，东晋南朝时期达到高潮。此种反书行为还传至百济，2018年在对全罗南道丽水市竹林里车洞遗址的考古发掘中，在瓦棺墓中出土有一件肩部反书‘土王土父母建’铭文的陶瓶。<sup>40)</sup>对于汉魏六朝时期砖铭反书现象的解读，魏振认为其表达了生死有别，体现了‘生死异路’的生死观。<sup>41)</sup>



〈图9〉梁吴平忠侯萧景神道西柱额反书铭文拓本<sup>42)</sup>

图8中列举的南朝铭文砖，其铭文书写方式与图7中列举的东晋砖铭一脉相承，文末皆以昭示墓主葬地的‘冢’字结尾，铭文整体言简意赅。其中㉔：1铭文砖的“宋元嘉廿二年沈麻雇冢”与㉕：6的“太元廿年七月廿日正上蔡令冢”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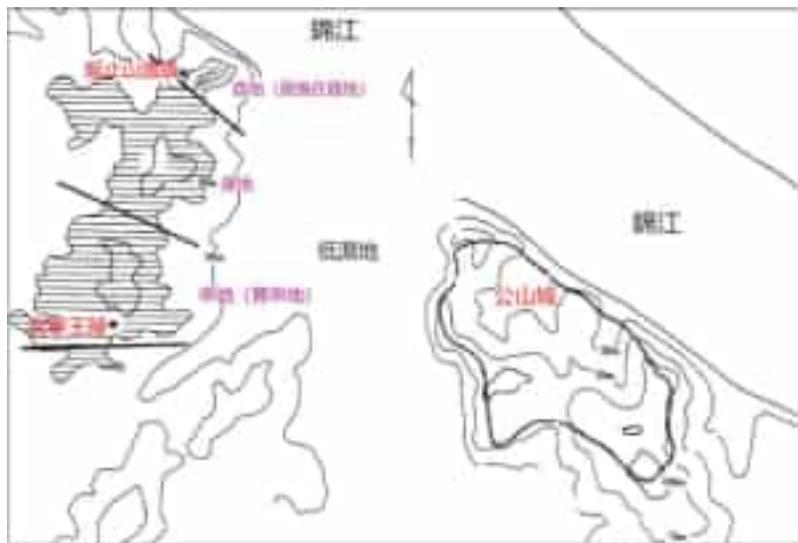
40) 한국토지주택공사·마한문화연구원,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Ⅱ —분묘—』 마한문화연구원 총서 46, 마한문화연구원, 2011, pp.165.

41) 魏振, 「汉魏六朝墓砖“反书”现象与“生死异路”观念」, 『南方文物』第二期, 江西省文物考古研究院, 2020, p.189-192.

42) 南京大学博物馆, 『南朝气韵：六朝石刻碑贴讲演录』, 凤凰出版社,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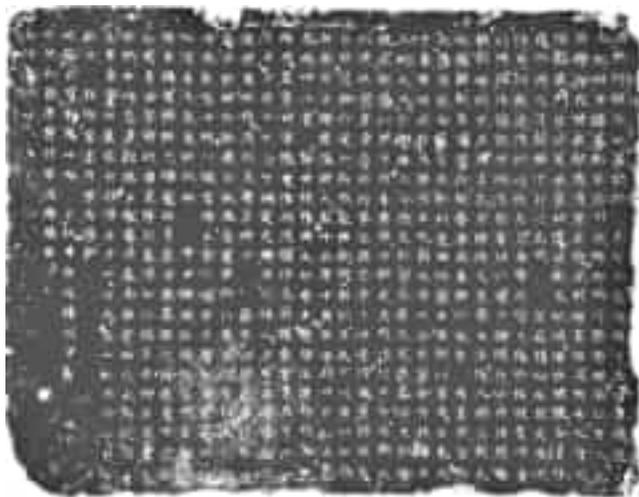
行文方式完全一致。除此之外，㉞：6与㉟：5一样同为反书，㉞：6为梁天监十二年砖，反书发展到萧梁时期不仅墓葬中有出土，墓葬外的礼制性石刻上也多有发现，梁武帝之父萧顺之建陵和梁吴平忠侯萧景墓前的神道石柱（图9）上镌刻的反书铭文为梁朝反书的代表。

对武宁王志文末尾“冢”的释读，虽因铭文的漫漶不清，致使存在诸多争议，但从残留的字形结构着眼，其与图6中列举的三则实例在字形、书体、气韵等方面相近，应为‘冢’字无疑。武宁王墓志铭文以‘冢’字结尾的行文方式，常见于东晋南朝时期的铭文砖中，图7、8中列举的实例中皆在文末附以‘冢’字，以昭示墓主葬地。武宁王陵中出土的墓志，是现今百济故地内墓志出土的孤例，为效仿南朝葬制设置。虽然图7、8中列举的皆为铭文砖，与武宁王石志存在材质和形制间的差异，但其昭示墓主生平梗概的作用却相同。



〈图10〉武宁王陵·公山城·艇止山遗迹相对位置<sup>43)</sup>

43) 강원표, 『무령왕 시대의 상장례』, 『무령왕릉 발굴 50년 1971-2021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며』, 국립공주박물관, 2021, 도판2, p.63.



〈图11〉南朝梁桂阳国太妃(王慕韶)墓志拓本(南京市博物馆藏 44)

武宁王陵出土的两方志石中〈图1〉,与武宁王有直接关系的共有三面(王墓志的正反面,王妃墓志背面的买地券)。其中,武宁王墓志背面的陵域图以干支指示方向,虽独缺代指西方方位的‘申庚酉辛戌’,却正与武宁王买地券中记述的‘买申地为墓’两相契合,‘申地’即为陵域图中所缺少的代指西南方的方位,如以公山城为基准点,武宁王陵正位于公山城西南方位〈图10〉。其次,‘冢’字之前的‘立志如左’后明显空出一格,这样的行文方式常见于南朝时期的墓志中,在行文中言及君王或墓主时采用空格、顶格的形式以示尊敬〈图11〉。武宁王墓志文末的‘冢’字是指代武宁王陵,与买地券中的‘买申地为墓’和陵域图中缺少的方位相互呼应。综上所述,无论是从“冢”的间架结构、书风、书体,还是志文的行文方式,亦或是墓志、陵域图、买地券间的关联性,皆证实其为‘冢’字无疑。

44) 故宫博物院·南京市博物馆,《新中国出土墓志(南京·上册)》,文物出版社,2014, pp.34.

## 4. 结论

武宁王陵发掘五十余年以来，对其的研究从未间断，而其中最受关注的莫过于出土的两方墓志。墓志的出土不仅明确了墓葬的所属，更为百济史的研究提供了时间坐标。武宁王陵是目前发现的韩国三国时期唯一一座明确墓主身份的墓葬，这更奠定了武宁王陵在韩国古代史，乃至东亚物质文明交流史中无可替代的地位。

根据志文记述，武宁王享寿62岁，癸卯年（523）崩，乙巳年（525）入葬王陵；王妃寿终于丙午年（526），己酉年（529）与武宁王合葬王陵。时值南朝梁武帝萧衍在位期间（502—549年），武宁王的继位者圣王在国丧期间，不仅为梁武帝修建了大通寺，还摒弃了百济的石室墓传统，为其父王修建了‘建康模式’的砖室墓，墓室内的随葬品中南朝舶来品也占有大宗。在这一背景下，武宁王陵与东晋南朝墓葬间的比较研究自然不可或缺。

对武宁王墓志的研究，自墓葬发掘肇始即已展开，历经五十余年的研究，目前仅剩文末“冢”的释读存在诸多歧义，对此学界存在‘穴’、‘冢’、‘道教符籙’、‘印’、‘家’、‘尔’、‘了’七种观点，但都莫衷一是。近年来随着东晋南朝时期的考古新发现的激增，相关资料的增加为武宁王陵的研究提供了新视角，与可供对比研究的契机。本文对“冢”的再释读，首先，基于“冢”的间架结构，推测应为‘冢’字。再者，通过与东晋南朝时期的名家法帖、买地券、铭文砖间的比较，其书体、书风、行文方式皆别无二致。其次，武宁王墓志文末的‘冢’字，又与背面的陵域图和王妃墓志背面的买地券间文意想通。通过本文的综合分析，“冢”为‘冢’字无疑，代指武宁王葬地之意。

### ◆ 参考文献

#### ◎ 韩国文献

##### 1. 资料

崔致远撰，党银平校注，《桂苑笔耕集校注（下）》，中华书局，2007。

金富弼, 『三国史记』, 乙酉文化社, 1980.

## 2. 単行本

- 공립공주박물관, 『武寧王陵 新報告書IV』, 2018.  
 권오영, 『고대 동아시아 문명 교류사의 빛, 무령왕릉』, 돌베개, 2005.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武寧王陵 發掘調査報告書』, 1973.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武寧王陵 發掘調査報告書』, 三和出版社, 1974.  
 조경철, 『백제불교사 연구』, 지식산업사, 2015.  
 韓國古代社會研究所, 『譯注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한국토지주택공사·마한문화연구원,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Ⅱ-분묘』 마한문화연구  
 원총서 46, 마한문화연구원, 2011.

## 3. 論文

- 강원표, 「무령왕 시대의 상장례」, 『무령왕릉 발굴 50년 1971-2021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며』, 국립공주박물관, 2021.  
 權仁瀚, 「武寧王陵 出土 銘文들에 대한 語學的 考察」, 『口訣研究』第17輯, 口訣  
 學會, 2006.  
 권오영, 「喪葬制를 중심으로 한 武寧王陵과 南朝墓의 비교」, 『百濟文化』第31輯,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2.  
 金永旭, 「百濟 吏讀에 對하여」, 『口訣研究』第11輯, 口訣學會, 2003.  
 金英관, 「백제 무령왕릉 출토 지식과 매지권 판독 재고」, 『한국고대사 탐구』제30  
 집,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8.  
 金英심, 「무령왕릉에 구현된 도교적 세계관」, 『韓國思想史學』第40輯, 한국사상사  
 학회, 2012.  
 成周鐸, 「武寧王陵」, 『百濟研究』제2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1.  
 成周鐸, 「武寧王陵 出土 誌石에 關한 研究」, 『武寧王陵의 研究現況과 諸問題(武  
 寧王陵發掘20周年紀念學術會議報告書)』, 忠清南道·公州大學校 百濟文化  
 研究所, 1991.

## ◎ 中国文献

### 1. 資料

- 令狐德棻, 『周书』, 中华书局, 1971.  
 姚思廉, 『梁书』, 中华书局, 1973.  
 姚思廉, 『陈书』, 中华书局, 1972.  
 房玄龄, 『晋书』, 中华书局, 1974.

- 李延寿, 『南史』, 中华书局, 1975.  
沈约, 『宋书』, 中华书局, 1974.  
许慎, 『说文解字』, 中华书局, 2013.

## 2. 单行本

- 『乾隆摹刻淳化阁帖』, 上海商务印书馆, 中华民国十年.  
南京大学博物馆, 『南朝气韵: 六朝石刻碑贴讲演录』, 凤凰出版社, 2022.  
南京市博物馆, 『六朝风采』, 文物出版社, 2004.  
故宫博物院·南京市博物馆, 『新中国出土墓志(南京·上册)』, 文物出版社, 2014.  
毛远明, 『汉魏六朝碑刻校注(第三册)』, 线装书局, 2008.  
许慎, 『说文解字(全注全译版)』, 中国戏剧出版社, 2008.  
黎旭, 『中国砖铭全集: 卷九』, 上海书画出版社, 2020.  
黎旭, 『中国砖铭全集: 卷十』, 上海书画出版社, 2020.

## 3. 论文

- 廖晋雄, 「广东始兴发现南朝买地券」, 『考古』第6期,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1989.  
李忠林, 「汉代的式盘与式占」, 『郑州航空工业管理学院学报: 社会科学版』第42卷, 郑州航空工业管理学院, 2023.  
汤太祥, 「『易林』对『周易』的继承与新变」, 『昭通学院学报』第46卷, 昭通学院, 2024.  
焦桂美, 「崔灵恩的经学成就及其经学史意义」, 『管子学刊』第4期, 山东理工大学, 2007.  
王善才, 「武汉地区四座南朝纪年墓」, 『考古』第4期,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1965.  
王志高、董庐, 「六朝买地券综述」, 『东南文化』第2期, 南京博物院, 1996.  
王志高, 「百济武宁王陵形制结构的考察」, 『六朝建康城发掘与研究』, 江苏人民出版社, 2015.  
王志高、沈宏敏, 「汉城时代百济与中国东晋、南朝交流的三个问题」, 『南京晓庄学院学报』第2期, 南京晓庄学院, 2019.  
蒋方, 「唐毛诗博士考述」, 『河北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第32卷, 河北师范大学, 2009.  
魏振, 「汉魏六朝墓砖“反书”现象与“生死异路”观念」, 『南方文物』第二期, 江西省文物考古研究院, 2020.

#### 4. 参考网站

长沙博物馆 : <https://www.csm,hn,cn/#/>

논문 접수 일	2024년 8월 1일
심사 완료 일	2024년 8월 30일
게재 확정 일	2024년 9월 6일

*Abstract*

## The Reinterpretation of ‘冢’ in the Epitaph of King Muryeong’s Tomb

Zhang, Tuanwei

This article conducts a reinterpretation of the last controversial character in the epitaph of King Muryeong’s tomb unearthed in 1971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examples from the Eastern Jin and Southern Dynasties of China.

The study of King Muryeong’s tomb has never ceased since its excavation over fifty years ago, and among the most scrutinized artifacts unearthed are the two epitaphs. The excavation of these epitaphs not only clarified the ownership of the tomb but also provided a temporal reference point for the study of Baekje history. According to the epitaphs, King Muryeong passed away at the age of 62 in 523 CE and was buried in the tomb in 525 CE; his queen passed away in 526 CE, and was buried with King Muryeong in the tomb in 529 CE. During the reign of Emperor Wu of Liang (502–549 CE), the successor to King Muryeong, King Seong, not only built the Daetongsa Temple for Emperor Wu of Liang but also departed from the Baekje tradition of stone chambered tombs, opting instead for a Southern Dynasties–style brick tomb for his father. The tomb contained a large number of Southern Dynasties imports among its grave goods. In this context,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ing Muryeong’s tomb and tombs from the Eastern Jin and Southern Dynasties period is naturally indispensable.

The study of King Muryeong’s epitaph has been ongo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tomb excavation. After more than fifty years of research, there are still many ambigui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st character, ‘冢’. The scholarly community has proposed seven different interpretations, including ‘穴’、‘冢’、‘Daoist Incantation’、‘印’、‘家’、‘尔’、and ‘了’, but none has achieved consensus. In recent years, with the increase in archaeological discoveries from the Eastern Jin and Southern Dynasties period, additional data has provided new perspectives for the study of King Muryeong’s tomb and opportunities for comparative research.

This article reinterprets the last character, ‘冢’, based on its structural framework, suggesting it should be interpreted as ‘冢’. Furthermore,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 fine specimen of calligraphy, title deeds, and inscribed bricks from the Eastern Jin and Southern Dynasties period, the font style, calligraphic style, and writing style are consistent. Moreover, the character ‘冢’ at the end of King Muryeong’s epitaph is consistent with the intended meaning between the backside of the tomb map and the title deed on the backside of the queen’s epitaph. Through comprehensive analysis, it is undeniable that ‘冢’ represents the burial place of King Muryeong.

**Keyword** Baekje, King Muryeong, epitaph, Elucidation of Ancient Characters, Songsan-ri Ancient Tombs

# 《分手的决心》의 模糊性及其要素分析\*

-一个跨越东亚文化研究的示例-

杨芷芸\*\* · 任志强\*\*\*

## 국문요약

《헤어질 결심》은 관객들에게 많은 연상의 여지를 제공한 영화로, 모호성과 다의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다시 말하자면 영화의 장르, 결말, 인물관계 등 모두가 명료하게 단정지을 수 없는 특징을 지니기에, 관객은 해석 과정에서 모호함이라는 난제에 봉착하게 된다. 본 연구는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모호함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등장인물의 대사, 촬영 초점, 시청각 요소 등에 입각하여 영화의 창작 기법과 의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써 영화의 모호함 이면에 숨겨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주제어** 《헤어질 결심》, 모호성, 다의성, 영화 창작, 영화 분석

## 〈目次〉

1. 序论
2. 《分手的决心》中的模糊性元素
3. 模糊性元素的呈现方式及作用
4. 结论

\* 本研究的部分观点受到明知大学 김영진(金泳辰) 教授的启发, 特此感谢!

\*\* 第一作者: 明知大学 电影艺术学科 博士研究生

\*\*\* 通讯作者: 高丽大学 中日语文学科 博士研究生, 高丽大学 4阶段 BK21 中日教育研究团 参与研究生

## 1. 序论

本文通过模糊性的理论方法对韩国导演朴赞郁执导的电影《分手的决心》进行研究，通过分析电影中的视听语言、模糊性的元素，尝试挖掘出电影中未明晰的信息，试图找寻导演想传递给观众的电影内核。

“模糊学(ambiguity)”被应用于各个领域进行研究。电影创作中的模糊性是一种暧昧的表达手法，电影在表达意念时，自觉或不自觉地产生双重或多重意义，造成不定向的指涉和更为复杂、矛盾的结果，就叫暧昧或者模糊。由于这种暧昧性是以多重意义为基础，有时亦可译作“多义性”。<sup>1)</sup>在电影中，暧昧性的产生可来自影像、剧情、剪辑、声音和表演等元素，有时也建立在这些元素的对比关系上。《分手的决心》在电影创作的诸多元素中营造了这种多义性和模糊性，给观众带来极大吸引和丰富解读。

关于《分手的决心》已有不少的研究，除了韩国的学者对其进行分析之外，国内也有不少对其进行探讨的文章。韩国的研究相对呈现出了多样性，例如从电影色彩符号学(호양 2023)<sup>2)</sup>、精神分析学(이미옥·안상혁 2022)<sup>3)</sup>、俄罗斯形式主义(홍상우·문준일 2023)<sup>4)</sup>、中国女性形象(진성희 2023)<sup>5)</sup>、诠释中国神话(이석구 2023)<sup>6)</sup>、音乐(왕혜은·김현태 2023)<sup>7)</sup>、内心场景制作策略(심정애·이주은 2023)<sup>8)</sup>、电影教育(백승숙 2024)<sup>9)</sup>、叙事结构(이희승 202

1) 杨凤仙, 「电影语言的模糊性」, 『影视论坛』 2000(10), 2000, p.50.

2) 호양, 「박찬욱 감독 영화 속 색상 활용에 대한 기호학 분석: 영화 <헤어질 결심>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7(5), 2023, pp.87-112.

3) 이미옥·안상혁, 「영화 <헤어질 결심>에 나타난 시각적 표상 연구 -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71), 2022, pp.133-143.

4) 홍상우·문준일, 「러시아 형식주의와 영화 <헤어질 결심>」, 『세계문화비교연구』 (84), 2023, pp.153-179.

5) 진성희, 「한국 영화의 중국인 여성 - 영화 <헤어질 결심>의 여성 재현과 윤리」, 『중국어 문논역총간』 (52), 2023, pp.207-230.

6) 이석구, 「산과 바다를 걷고 하는 헤어질 결심—영화 <헤어질 결심>을 통해 본 중국신화 이미지의 재해석」, 『중국소설논총』 (69), 2023, pp.1-22.

7) 왕혜은·김현태, 「영화 음악으로서의 기존 음악(pre-existing music) 연구 - 영화 <헤어질 결심>을 중심으로 -」, 『문화와융합』 45(4), 2023, pp.721-735.

4)10)等多个层面对《分手的决心》进行了分析。国内对于电影《分手的决心》的研究主要集中在电影叙事(严敏 2022, 邱禹明 2023, 张宁 2023)11)12)13)和视听语言(黄婧秋 2023, 高月 2023, 涂娇娇 2023, 聂君伊·唐国栋 2023, 陈旭慧 2024)14)15)16)17)18)两大领域。可以发现,目前在国内外已有的研究中,尚未发现对《分手的决心》中的模糊性元素进行详细探究的成果。

朴赞郁拍摄该电影时采用大量暗示、隐喻等手法,让观众沉浸其中不断猜想,通过分析这些展现模糊性的要素,可从不同的角度对这部电影进行理解或解释。不仅如此通过分析朴赞郁在拍摄时所选择体现出模糊性元素的方式和方法可为后人提供一些借鉴。并且期待本研究的结果可作为“跨越东亚”相关电影研究的基础材料。

## 2. 《分手的决心》中的模糊性元素

影片中的模糊性存在于不同的三个层面。首先是影片的题材,其次是片

- 
- 8) 심정애·이주은, 「〈헤어질 결심〉의 거울 이미지와 내적 몽타주 분석」, 『영상문화』 (43), 2023, pp.125-152.
  - 9) 백승숙, 「영화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헤어질 결심〉의 사랑과 정의의 문제」, 『국학연구론총』 (33), 2024, pp.181-206.
  - 10) 이희승, 「영화 〈헤어질 결심〉의 서사구조 분석: 진실한 사랑 혹은 사랑의 진실」, 『예술교육연구』 22(2), 2024, pp.1-12.
  - 11) 严敏, 「名不符实的《分手的决心》」, 『新民周刊』 2022(30), 2022, pp.80.
  - 12) 邱禹明, 「《分手的决心》电影叙事研究」, 『文艺生活(艺术中国)』 2023(02), 2023, pp.133-135.
  - 13) 张宁, 「以死亡捍卫爱情——《分手的决心》叙事分析」, 『今古文创』 2023(45), 2023, pp.105-107.
  - 14) 黄婧秋, 「电影《分手的决心》的意象表达」, 『艺术教育』 2023(04), 2023, pp.135-138.
  - 15) 高月, 「悲剧与救赎的交织:基于“悲剧快感”探析《分手的决心》的人物塑造」, 『声屏世界』 2023(11), 2023, pp.118-122.
  - 16) 涂娇娇, 「电影《分手的决心》的视听语言」, 『文化产业』 2023(23), 2023, pp.10-12.
  - 17) 聂君伊·唐国栋, 「浅析东亚语境下的电影美学新趋势——以电影《分手的决心》为例」, 『剧影月报』 2023(04), 2023, pp.23-25.
  - 18) 陈旭慧, 「《分手的决心》视听语言分析」, 『嘉应文学』 2024(03), 2024, pp.73-75.

中人物的关系，最后是影片的结局。朴赞郁通过不同的层面在影片中展现了多种模糊性元素。

### 1) 影片题材

单看电影的名字《分手的决心》，观众也许会猜测，这部影片是关于男女间要分手的故事，是爱情电影。实际上，影片在题材上结合了刑侦剧和爱情剧的模式，既有侦探悬疑元素又有浪漫爱情元素。所以并不能简单将电影归纳为单一的类型。

影片开头以谁杀害瑞莱(서래)丈夫为“钩子(hook)”，即使用故事中常说的悬念<sup>19)</sup>，吸引观众跟随警察海俊(해준)的调查，逐步深入了解案件以及瑞莱的身份，使影片充满悬疑色彩。而警察海俊在对嫌疑人瑞莱的持续交谈、跟踪中，逐步陷入了爱河而不自知。朴赞郁用了大量暗示性的镜头来表达男主对女主的爱意，例如以男主的视角去凝视、偷窥女主的镜头，还将男主的偷窥视角近距离化，打破偷窥视觉和空间的界限，仿佛他就在女主身边贴身窥视的感觉。

同时，模糊的山海界限也在象征着电影题材的模糊性，爱情与悬疑在电影中不单一呈现，相互纠缠、又相互补充，使得影片既复杂又多义。“山”与“海”的形象在影片中反复出现，是电影中的重要意象，它承载着角色的特征和关系，也是电影中不可忽视的元素。影片中多次出现山海模糊的画面，女主瑞莱的笔记本、手机壳、家里墙纸的图案等等。

《分手的决心》电影里体现的题材并不单一，以悬疑侦探题材开场，悲剧爱情题材结尾。融合了爱情和悬疑两种主题，而且两大内容双线并行，相互交融，密不可分。在题材的划分上就会给观众模糊感，从而影响观众对该影片的评判。这到底是爱情片还是悬疑片，给观众不明确的信息。增强观众对电影的讨论度。通过电影题材的模糊性，给予了观众无限的观看空间和想象空间。

19) 王雨时，「浅论电视片中的“钩子”」，《记者摇篮》2017(06)，2017，p16.

## 2) 人物关系

《分手的决心》中，朴赞郁通过塑造男女主模糊的身份，以此来营造出男女主角之间暧昧模糊的关系。男女主角一个是警察，另一个是嫌疑人，他们的身份既对立又互相吸引。而海俊与他的妻子间的夫妻关系也并没有电影中呈现得这么甜蜜美好，同样是不坚定的、模糊的。导演通过塑造模糊的人物身份，加之运用模糊的象征性元素，使得影片中的人物关系变得模糊暧昧。将刻板印象里的警察和嫌疑人、丈夫和妻子的关系全都打碎重组，给观众新鲜感。

### (1) 海俊与瑞莱

男主海俊的身份开始是一名刚正不阿的警察，但自从遇到瑞莱后，他被眼前这个楚楚可怜的女人所吸引，爱上了这名嫌疑人，并且帮她洗脱嫌疑。因此观众在观看影片时会产生疑惑：“原本是嫉恶如仇、正直的警察，只因为对嫌疑人产生好感，就可以放弃追逐真相了吗？”不仅是观众，影片里同样身为警察的同事也开始质疑海俊的能力。同时，导演通过“霉菌”与男主海俊身体叠化的镜头，以及海俊“频繁滴眼药水”的行为，都在暗示海俊“警察”这个身份并不是那么坚定。

海俊第一次滴眼药水是在死者奇都秀的死亡现场，海俊从山上往下看时，感觉眼睛干涩，有些晕眩，随后滴了眼药水。第二次滴眼药水是走访鱼塘与报案人聊起偷鳖贼的情况时，在案发现场再次滴了眼药水。最后，海俊在杀人案件现场再次滴眼药水。到了梨浦后，海俊滴眼药水的次数越来越频繁，也许是梨浦雾大的缘故，让身为警察的海俊看不清真相。又或许是遇到瑞莱之后，海俊就已经迷失了自己。影片最后，海俊在海边寻找瑞莱，同样滴了眼药水。这使他似乎更清晰了，他打开瑞莱车门，拿起手机，听到了录音，知道了真相。

女主瑞莱的身份既是杀害丈夫的嫌疑人，又是警察海俊暧昧对象，使得女主嫌疑人的身份变成了模糊的调查对象。观众跟随男主海俊调查视角，一

步步揭露瑞莱的身份。影片6分19秒，警察拿着死者奇都秀手机时，手机屏保中的画面是女主瑞莱与死者的合影，这时一名警察对着手机屏幕的合照说道：“女儿是个美人啊。”警察的话语给尚未出场的瑞莱罩上了第一层身份——死者的女儿。随后，一个女人的声音出现：“我是奇都秀的妻子宋瑞莱。”这时的镜头没有给到瑞莱，而是通过一个仰角镜头呈现了男主海俊的反应。这是导演给我们呈现瑞莱的第二个身份——死者的妻子。在进一步调查后，我们还发现，瑞莱是一个负责的看护工、有着外祖父“荣誉”而自豪的外国人。但随着调查的进一步深入，一个“蛇蝎女人”的形象映入眼帘，她早前杀害了自己的母亲，是一个偷渡来的外国人，确实杀害了自己的丈夫。就在观众以为瑞莱会被抓捕归案时，她却消失不见，再相遇时是已再次结婚的人妻，直到影片最后都没有得到应有的审判。

从观众视角看，这个女人谎话连篇、罪大恶极，而导演却用许多模棱两可的镜头，人物台词、山海模糊的图案颜色，塑造了一个复杂又神秘的女人，就像海一样深、一样琢磨不透。例如女主多穿蓝绿衣服，手机壳、笔记本、家里的墙纸都是山海模糊的图案和蓝绿不分的颜色。在一场戏中，瑞莱用中文对流浪的猫咪说：“将他的心带给我”，明明知道海俊在跟踪她，而且听不懂中文，不知道是故意还是真心，瑞莱还是说了。

影片中并没有明确交代男女主人公海俊和瑞莱正式在一起的画面镜头，没有用实际语言告诉观众。只是在他们相遇、相处中处处体现他们间的暧昧，靠模糊的镜头语言，让观众猜想他们应该在一起了吧。如影片开头3分钟的时候，妻子对海俊说：“都说买寿司吃了。”海俊立刻拒绝说：“不吃寿司，不喜欢吃寿司。”和同事一起执行任务，也会让同事不要吃太贵的。但是面对嫌疑人瑞莱的时，却一起吃了刺身拼盘这种高级寿司。但随后一个镜头，一支使用完的寿司酱油，以及一支完全未开封的寿司酱油，又说明了两人本质的不同。

又例如，在审讯室里，瑞莱用翻译器说“智者乐山，仁者乐水，我不是仁者，我喜欢海。”然后海俊低声说，“嗯，我也是”表示认同。但是导演却用了下面的镜头表示两人的距离，瑞莱的形象是在监视器上，也强调女主的身

份，此时她是一个嫌疑人，而海俊身为警察，在审讯室里审问嫌疑人，两人呈现了背对的相反方向，也表明两人的关系最终分道扬镳。语言的认可却伴随着肢体的疏离，模糊了彼此的关系。

影片临近结束的97分03秒，手铐将两人连接在一起，但海俊无名指有戒指，瑞莱没有。他们手掌间的距离很近，但却是永远都无法靠近的距离。这些暧昧模糊的镜头语言将二者的关系展现的淋漓尽致。

朴赞郁导演在塑造男女主角时，为了让观众跟随电影节奏一起揭露男女主的真实内心，从一开始便故意模糊其身份，使他们呈现复杂多样的身份信息，正如导演在采访中提到的那样：因为想要展现角色更为美妙的内心世界，所以做了改变。<sup>20)</sup>

## (2) 海俊与妻子

男主的妻子是电影中较“特殊”的存在，在电影里，妻子好像才是“第三者”，她不体谅海俊，嫌弃海俊吸烟。海俊在做爱的时候会想瑞莱，并不专注于自己的妻子，种种表现都说明他们夫妻的关系并没有呈现出来的这么美好，因此夫妻关系在电影中是不坚定的、模糊的。

海俊妻子的身份是一名核电站安全员，影片2分40秒一张报纸交代了妻子的职业，并写道“核电站完全安全”。核电站是一个必须要求稳定的地方，否则危及人身安全。而妻子所做的工作和传递的理念也是追求稳定性的。但是从海俊与妻子在家中的对话中，我们可以得知，海俊与妻子是周末夫妻，并且海俊没有想搬回梨浦的想法，夫妻二人的饮食习惯也不相同，妻子想吃寿司，海俊一口回绝：“不喜欢吃寿司”。海俊想抽烟，妻子也是非常嫌弃地让海俊戒烟。

影片一开始，2分10秒左右，男主海俊夜晚开车回家，准备与妻子一起过周末，途中穿过一大片有雾的公路，大雾遮挡了路面，全靠路面几盏微弱的灯

---

20) 韩国振兴委员会2022年6月6日报道

[https://chi.koreanfilm.or.kr/06\\_news/?mcode=0406010000&mode=2&no=3253](https://chi.koreanfilm.or.kr/06_news/?mcode=0406010000&mode=2&no=3253)

光将马路照亮，路上汽车的喇叭声惊醒了正在开车但忍不住瞌睡的海俊。

影片在第10分钟的时候，海俊与妻子进行着夫妻生活，妻子露出很享受的样子，但是海俊并没有专注与此，眼睛看向前方角落。这时镜头突然切到女主瑞莱在家看电视的画面，电视上的声音又叠加在海俊与妻子的行为上，让人分不清时空。而前方角落的霉菌变成瑞莱在医院做的“X光”片，并且X光的的心脏还在跳动着，X光手的照片叠化成海俊的手。妻子躺在海俊的臂弯里说：“我们幸福吧”。海俊只是冷漠说着：“哦”。并面无表情地与妻子交谈，导演通过镜头画面的切换、声画不同步的剪辑、X光与海俊手的叠化，表明海俊心思并不在妻子身上，而是在瑞莱身上。

男主海俊不辞辛苦穿过迷雾找寻以为是相爱的妻子，周末生活在以为是和谐幸福的家庭里，其实都在否定海俊与妻子的生活，导演通过多种表现手段，试图从电影的种种镜头说明他们的夫妻关系并没有看起来这么美好坚定。同时丰富了角色的内心世界，让观众在观看时带着审视的目光看待这看似正常的夫妻关系。

### 3) 影片结局

《分手的决心》通过两个故事将影片结构一分为二，影片第一部分以一场命案开始，以瑞莱的消失结束，即警察海俊遇到嫌疑人瑞莱，相爱又分开的故事。第二部分涉及另一桩杀人案件，男女主角再次相遇、纠缠直到瑞莱再一次消失结束。朴赞郁在这两个部分的结尾处都模糊了一些信息，给观众带来无限的遐想。

在第一部分的结尾，海俊识破瑞莱杀人的计划，来到家中与她分手，男女主的关系戛然而止。但海俊还是包庇了瑞莱，没有将她杀人的事实告知警局同事，所以第一部分的命案以被害人是自杀的结论而草草结案。但是观众们知道，案件并没有结束，真正的凶手没有被绳之以法，而瑞莱从此消失在海俊生活里。朴赞郁导演在第一部分结尾处设置了女主瑞莱的离开，男女主角是否从此再也不相见？杀人案件后面会不会有反转？这些模糊念头都牵引着

观众继续往下看。

此后，海俊患上严重失眠症，和妻子来到医院治疗，后来在另一座城市——梨浦的菜市场遇到女主瑞莱。瑞莱的第二任丈夫被杀害，海俊怀疑瑞莱，约在嗅虎山相见，瑞莱将手机交给海俊，并说想成为海俊永远的悬而未决的案子。瑞莱最后自己在海边挖了坑，就像当初她埋乌鸦尸体般，任凭海水将自己吞没。在海水涨潮的波涛中海俊将做出什么选择？影片最后定格在海俊在海边苦苦寻找瑞莱的画面中，两个人的故事成为了永远未决的案件。

海俊找到瑞莱了吗？瑞莱最后死了吗？她得到应有的审判了吗？而这些信息影片都没有给出明确答案，结局是开放的也是模糊的，是意犹未尽的，留给观众填写自己的答案。

### 3. 模糊性元素的呈现方式及作用

电影《分手的决心》不仅是通过影片的题材、结局、人物关系，使其模糊，导演还使用大量模糊性元素，让影片内容更加丰富，更加充满模糊性。根据影片呈现的元素，将其归纳为试听语言(Audio-visual language)与非试听语言(Non audio-visual language)。

#### 1) 试听语言

试听语言是将文字转换为影像元素和声音元素的综合表现，包括影像、声音、剪辑等方面内容。<sup>21)</sup>在电影《分手的决心》的试听语言中，导演通过镜头的变焦，模糊焦点，以及声画不同步来营造模糊感。同时在人物台词语言中，使用了韩国语和中国语，尤其是女主瑞莱，她的身份使她不得不使用两种语言。导演通过翻译器，让其成为两国语言的桥梁。但也有一些则是不明确的、模糊的翻译，让男女主的沟通形成模糊的障碍。同时电影中一些人物台词，与电影中出现的情节往往相反，观众不能仅通过人物语言确定角色传递

21) 袁金戈·劳光辉，《影视试听语言》，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0，p16.

的信息，需要思考、判断。这些模糊的电影语言，往往给观众留下审美创造的余地，乃至无穷的意味。

### (1) 人物台词

首先是场景对话中的人物台词。影片中一些场景下的人物台词总是会出现与剧情事实不符，或者是前后颠倒的情况。这是朴赞郁导演的巧妙之处，利用角色的对话台词，反衬人物内心，表里不一、言行不一致，使影片的模糊性更加丰富。例如，影片3分27秒，家中妻子试探性地对海俊说道：“坐我旁边的李主任装作担心我的样子和我说，周末夫妻十对中有六对考虑离婚，问我没关系吗？”海俊问妻子对此怎么回答的。妻子说道：“我问她，你知道无性夫妇的离婚率是50%吗？”海俊听后大笑，而妻子则是抬眼望着海俊，并微微一笑，仿佛这并不是一句玩笑话。海俊的妻子没有用肯定或者否定的语言去回复李主任，而是使用了相同的疑问句去反问她。妻子含糊不清的话语，也给夫妻二人的关系增添不确定的模糊感。而影片最后揭示了李主任是男性，而妻子故意用女字旁的“她”指代李主任，混淆试听，欺骗海俊也欺骗了观众。

影片11分30秒，海俊与妻子在床上交流，当妻子问起第一部分的案件时，海俊说：“是一个年轻的中国女人在山里死掉的案件，留下年老的丈夫很可怜。”很明显，在前面的案件中，观众可以清楚地知道，海俊说谎了，他将死者与瑞莱的身份互换，故意隐瞒了嫌疑人是女性的事实。这说明海俊心里已经开始在意瑞莱，但是他不想让妻子发觉他的变化，所以干脆抹杀掉瑞莱的一切，让她一开始就“死”了，死在了海俊的描述里。影片最后，海俊在车上给瑞莱打电话，谈及录音时：

瑞莱说：录音是你的声音，就是跟我说爱我的那个。

海俊不解地问道：我什么时候说过爱你？

(直到海俊在海边拿出瑞莱手机播放录音)

录音里海俊的声音：手机扔海里吧，扔到深处，不能让别人找到。

海俊(站在海边重复着)：手机扔进海里。

此时，女主瑞莱的声音响起：你的声音，对我说爱我。

男主此时才明白过来，维护瑞莱的言语，对瑞莱而言，就是未能说出口的爱。

电影通过人物的台词来模糊其人物关系，在第一个例子中，从男主海俊和妻子对话中观众可以知道，原来妻子对海俊并不忠心，妻子模糊的话语，故意引导李主任是女性，而后海俊在案件中也欺骗了妻子，故意将嫌疑人和死者的身份互换，以达到自己的目的。后一个例子，女主瑞莱和男主海俊在车上通话，从他们的对话可知，他们也并非心意相通的“知己”，颇有点鸡同鸭讲的感觉。导演通过设置人物中模糊的台词，来说明人物间的关系并非明朗清晰，而是复杂多义，生活多年的夫妻也会相互隐瞒，以为是红颜知己，其实也有心意不通的时刻。

其次是翻译软件装置下的台词，《分手的决心》因为女主瑞莱是中国人，所以影片中多次出现瑞莱用翻译器，将话语翻译给海俊听。但翻译器的话语是否准确表达了瑞莱的真正含义？其实瑞莱的韩语说得并不差，这一举动让人怀疑女主的意图。海俊与瑞莱的第一次对话中，瑞莱用中文对海俊说：“孔子说过，智者乐水，仁者乐山，我不是仁者，我喜欢海。”它的中文翻译为：智慧的人喜欢像水一样，懂得变通；仁义的人像山一样，心境平和。古语本来就很难翻译，这句话不确定男主海俊和韩国观众是否听懂了，就中国观众来说，这也是一句令人费解的话语。同时，中国也有句古话叫：“智者不入爱河。”即有智慧的人不轻易坠入爱河，不轻易因为爱情里迷失自己。所以女主说自己不是“仁者”，暗指自己是“智者”的意图令人意味深长。

还有一幕，电影字幕将“心”翻译成“心脏”的意图也是令人思考颇多，女主表面是想得到海俊的心，即他的爱，但是导演通过字幕告诉观众，也许不是这样，她想要的可能远不止海俊的爱，也许是他的生命，也许是成为他永远的心结，让他一辈子都忘不了。

朴赞郁导演巧妙地利用了翻译装置给人物语言添上一层朦胧的迷雾，翻译的不准确性，给男女主人公的关系增添了复杂性。正如导演自己所说，“为

想要展现出人物更为美妙的内心世界，剧中人物可以说是要么干脆完全隐藏自己的想法，要么说一些反话，或者用拐弯抹角，模棱两可的表达方式。”

## (2) 镜头变焦

聚焦的镜头焦点可以清晰呈现影片重要信息。而在《分手的决心》中，朴赞郁导演通过镜头的变焦来模糊人物内心或真实意图，以达到电影的模糊性。

影片6分55秒，在停尸间里，女主瑞莱坐在椅子上，男主海俊蹲下与瑞莱交谈，此时画面里呈现的是一个固定镜头，观众仅通过镜头变焦观察人物。一开始焦点聚焦于正在安慰女主的海俊，前面的女主以及后面男主的同事都呈现虚焦的状态。随后镜头变焦到女主瑞莱脸部，观众可以清晰地看到瑞莱泪眼朦胧地摇着头，一副楚楚可怜的样子。但是当瑞莱开口说第一句话“他去爬山后一直没有回来”时，镜头焦点却对准海俊，瑞莱脸部模糊。瑞莱说第二句话“我很担心”时，焦点重新回到瑞莱身上。一般来说，镜头画面里谁在说话，镜头焦点就会一直对着说话的人，以表示画面重心。而导演通过反复变焦的表现手法，说明女主瑞莱说的话可能半真半假，呈现模糊失真的状态。最后，当女主瑞莱说：“担心他终于死了”的时候，镜头拉近，给男主海俊清晰的脸部特写，海俊重复着刚才瑞莱的话：“终于...”，随后海俊若有所思地点点头。值得注意的是，尽管最后镜头对准海俊的脸，但是瑞莱脸部轮廓始终占据画面前部，且遮挡了海俊部分脸颊，使他呈现的形象不再完整。

除此之外，在审讯室里，瑞莱用中文说：“孔子说过，智者乐水，仁者乐山，我不是仁者，我喜欢海。”这一幕，导演通过镜头的变焦在现实与镜像中来回切换，表现了男女主角微妙暧昧的心理。场景开头两人面对面，镜头中立，两个人都对上了焦，他们的镜像在背景中是模糊的。焦点在两个角色身上前后变换，从瑞莱开始，再是海俊，又回到瑞莱，如此反复，取决于谁在说话。当瑞莱说中文时，焦点在她身上，而不懂中文的海俊是失焦的。当瑞莱用手机翻译播放韩文时也是如此。镜头焦点在海俊时，瑞莱则失焦，镜像中的焦

点也发生互换，所以不论谁在说话，他面对的都是另一个人的镜像。因此虽然对话以审问的形式出现，视觉上的失衡传达了他们潜意识里的兴趣，暗藏彼此想进一步交流的渴望。镜子的设置进一步反映人物内心的复杂，镜头焦点在现实与镜像、海俊与瑞莱身上来回切换。导演运用镜头变焦巧妙地告诉了观众他们的悲惨命运，他们的关系永远不会开花结果。从这个意义上说，这些镜子里的形象展示的是他们对爱的觉察。而这恰恰只是一种镜中像，是一种虚假的希望和讽刺。

以上两次变焦都发生在审讯时，第一次故意将焦点在男女主脸部间跳跃变换，以模糊女主的话语信息，暗示观众，女主的话半真半假。而后一组审讯的变焦是在现实和镜子中来回跳跃，来暗示男女主间的关系，时而清晰时而模糊，也为后期关系的发展埋下伏笔。

### (3) 声画不同步

《分手的决心》使用交叉蒙太奇的剪辑手法，使该影片部分情节“声画不同步”，传达的含义有不少是模糊的，这样观众才有机会获取各自不同的审美感受。

影片25分04秒，海俊在追嫌犯时，镜头呈现的是嫌犯拼命奔跑的画面，但画面声音却是女警察在调查女主瑞莱外祖父身份所念的信息，各自独立的影像事件与音轨事件的交叉剪辑，形成了模糊的指代，导演到底想让观众看到警察追嫌犯的激烈场面，还是关注调查到的女主身份的信息？

影片45分钟，海俊和瑞莱在房间讨论芝谷洞案件犯人洪善浩，此时镜头给到洪善浩藏匿在美容室的画面，但是此时画面声音还是男女主角谈论案件的声音。镜头一转，来到抓捕洪善浩的现场，但此时声音还是延续男女主在房间谈论案件的声音。影片117分钟，镜头中是女主瑞莱拿着花在病房探视病人的画面，但是瑞莱的话语却是一个男人的声音，是男人回忆的复述，正是这个男人，杀了瑞莱第二任丈夫的四铁盛。声音不同步带来时空的错乱，让观众难以快速分清电影中的时空。以非常规的叙事线扰乱观众的代入与理解，消解

虚实界限与主体性。声画不同步所造成的心理与时空的叙事混乱，给观众丰富的感官感受，是不确定的、复杂又多义的。

## 2) 非试听语言

通常电影通过象征、符号、暗喻或隐喻等手法，增强电影的多义性和模糊性内涵，使电影不落于直白和平铺直叙，模糊性的表现也可以让观众参与到电影的解读当中。一般来说，电影的象征性事物不是具体的实物，而是可以赋予想象里的，不是普通大众认知下的象征，而是更捉摸不透、难以言说的东西。该电影同样通过一些容易造成迷惑的、朦胧的象征性符号如笼罩的“迷雾”、难辨的色彩和山海难辨的界限来营造故事情节、人物关系的模糊感。

### (1) 雾

现实中的“雾”没有形态，无色无味，难以形容。电影中的“雾”是非常重要的元素之一，几乎贯穿整部电影，故事主人公海俊的意志并不坚定，作为丈夫，他与妻子、瑞莱间关系就像雾一般混乱、暧昧不清；而作为警察，他和嫌疑人的关系也像雾一样朦胧。同时，作为悬疑题材，电影中出现的几起杀人案件的复杂性，也像雾般错综复杂，看不清真相。影片开头，海俊为见妻子而前往梨浦的路上被雾笼罩，因为失眠症处于意识和睡眠之间模糊界限的海俊穿梭在车道上的场面。影片35分20秒，得知瑞莱杀了她自己的母亲，海俊来到一片雾的海边思考，并对妻子解释说：“想看看被雾笼罩的美丽的大海”。表明此时的海俊已经被美丽又神秘的女人瑞莱所吸引，也许正在思考如何帮瑞莱脱罪。影片82分08秒，男女主在梨浦一个市场重逢，海俊问为什么搬家，瑞莱回答：“喜欢有雾的地方。”但海俊妻子反驳说：“雾多是人们离开这里的理由，不是来这里的理由。”之后雾在电影想要隐藏什么的时候登场，起到模糊场面、意义和情感的作用。包括男主海俊滴眼药水，感觉眼里有雾，看不清真相。海俊和瑞莱的关系就像雾一样，海俊因为背离自己的原则而崩溃，选择远离瑞莱不再见面。“雾”不仅作为视觉因素，而且作为听觉因素也作用于电

影，

音乐《雾》第一次登场是警察在询问瑞莱看护的奶奶时，奶奶坐在摇椅上，对手机说：“Siri放首歌听听，政勋的《雾》。”随后奶奶又重复了一遍播放歌曲的话语，表明奶奶的意识不清晰，警察得不到有用信息。第二次响起是59分30秒的时候，男女主在海俊釜山的家中一起听的音乐，镜头切换到海俊梨浦的家中，变成海俊带着耳机自己听，随后海俊妻子拿走一个耳机听。说明有关瑞莱的事物被带到梨浦的家中，妻子还闻到海俊身上的烟味，其实是瑞莱抽的，而被海俊说成是同事抽的，夫妻关系进一步破裂。63分13秒《雾》这首歌被再次提及，不过没有播放音乐，而是作为一个象征提醒，随后揭开瑞莱杀丈夫的手法。

《分手的决心》将歌曲“雾”作为电影的背景音乐和登场人物收听的歌曲，歌词表达了雾里看花的感情关系，以及最后男女主角没能在一起的悲伤情绪，诉说着心上人如迷雾一样难以捉摸、飘忽不定。也在反复提醒人们“雾”与电影的主题意识密切相关。

## (2) 色彩

与“雾”一起证明《分手的决心》追求模糊性的对象是“色彩”。

影片3分46秒，画面中出现了如雾一般的青灰色，占据整个画面。后突然由深蓝变黑，随后出现红、蓝、绿频闪的圆形光点和光圈，最后这些光圈变成了救援队手中的手电筒发出的光线。导演通过色彩转场，也通过这些混乱的颜色暗示了影片的整体主色调。

海俊跟踪瑞莱时，瑞莱穿深蓝色的上衣，审讯时也是深蓝色。到32分15秒，喂猫、埋葬乌鸦时，瑞莱开始穿青绿的上衣，表明此时的女主意图开始变化。她知道海俊在跟踪并且偷窥她，她故意说一些让人误会的话语，会去楼下敲海俊的车窗，跟他说早上好，试图通过语言、行为向海俊示好。通过女主青绿难辨的衣服，表明女主意图不清，到底是真的喜欢海俊，还是只是想利用海俊的警察身份洗清嫌疑？影片93分46秒，海俊拿着瑞莱的照片去走访附近目

击者，目击者说衣服是一件蓝色的连衣裙，海俊反问道：“是蓝色吗？不是绿色吗？”随后照片被放大，一个穿着像大海般颜色衣服的女子背影出现在画面，海俊同事也补充道：“是蓝色。”之后瑞莱的连衣裙被警察妍秀判断为蓝色，而海俊认为是绿色，再次引起混乱。最终瑞莱的连衣裙随着光线看起来是绿色和蓝色混合的青绿色，电影可以感受到一种颜色，但无法用已知概念去描述。

影片94分53秒，导演用闪回镜头交代了瑞莱第二任丈夫被杀的情况，画面一开始瑞莱穿的衣服是蓝色，发现丈夫死亡，搬动尸体时，从呈现的画面来看裙子是绿色，洗刷泳池时衣服明显是蓝色。导演通过光线的明暗调整，衣服颜色在镜头前呈现差异。死去的丈夫突然睁眼，是瑞莱的幻想还是事实？影片并没有交代清楚。

影片117分22秒，海俊问杀人犯四铁盛，有没有留意青绿色的胶囊，那是瑞莱用来杀人的芬太尼胶囊。而影片中并没有出现过胶囊的画面，该设置也模糊了“毒药”的真实性。现实中是否真的有这个胶囊？瑞莱真的用这个胶囊来杀人了吗？影片只是通过对话告知观众有这个青绿色胶囊，却没有明确的画面信息，是“薛定谔的药”。

《分手的决心》以象征性的青绿色为电影整体的色调、背景和特定事物，通过用于壁纸、沙发、画册、领带、桶等反复提醒模糊性状态。重复的颜色、动作和语言提醒观众他们之间的相互迷恋、相似性和爱意，尤其是几乎不断出现的红色、绿色和蓝色，不断提醒观众人物之间的异同就像山和海洋一样。这就是为什么电影中最常见的颜色是蓝绿色，一种绿色和蓝色的混合色，就是海俊和瑞莱从头到尾面对彼此的方式。作为一名警探和一名嫌疑人，作为一个丈夫和一个寡妇，作为山脉和海洋。他们对彼此的兴趣是明确的，但从来不是有形的。他们的位置、身份、环境都阻止了他们的开始。他们的颜色不能混合，他们就像自己所代表的地方一样遥远，就像他们所说的语言一样不同。但是他们努力适应彼此。

电影中出现的多数色彩是混合的，是复杂的，女主家的墙纸、笔记本、手机壳、服装等都在暗示瑞莱是一个复杂的矛盾的人，并不是看上去这么清

楚。色彩的复杂性也是人物的复杂性。

### (3) 山与海

影片中出现了大量山海模糊的形象画面，如影片28分30秒，海俊在审讯室审问嫌犯，当嫌犯说出“他有杀人冲动”这句话时，镜头切换到女主瑞莱在家中吃雪糕的画面，家中的背景墙呈现出一种既像山脉的形状，又像海浪的波浪的形状，而且山海之间紧密相连，彼此没有清晰的界限。有时看起来是蓝色，有时看起来又是绿色。这是一种非常模糊、会迷惑的形状。为什么嫌犯说完杀人的冲动，镜头要给到女主瑞莱？其实都在暗示女主是一个危险的杀人犯，模糊的山海界限更是将瑞莱深不可测、不可捉摸的形象呈现出来。

影片88分13秒，男女主海边对峙，后面的景虚焦，但能辨认出海中有座山，但山海界限难辨，融为一体，暗示男女主模糊不清的关系。作为警察的海俊生气指责瑞莱的行为，已经超过了警察对于嫌疑人的行为和情感。

而瑞莱则更为极端，她为了成为海俊心中永远的悬案，在沙滩上挖了一座深坑，随着潮水上涨，她被泥沙慢慢淹没，山与海的界限逐渐模糊。永远将真相沉埋在海里，让自己的爱意化作浪潮，永远拍打着海俊的心。男主喊出女主名字时海浪的轮廓是瑞莱侧脸，暗示其山海相融的自毁方式。这个镜头是导演通过航拍的方式拍给观众看的，电影里男主角的视角是看不见这个画面的。上帝视角的我们总感觉能比男主知道的更多一些。其实不然，到影片最后我们也不可不知男女主的结局。

影片最后，瑞莱挖坑自毁，此时镜头呈现了一组这样的画面，被堆砌成山的形状的沙子，在海浪的拍打下，逐渐失去形状，最后消失。也许就象征着男女主的结局。

模糊的山海界限，正如电影中男女主二人的关系般，既是爱人又是警察与嫌犯，相爱相杀，爱恨纠缠，错综复杂。导演运用大量模糊性元素以追求出人物的复杂性、人物关系的复杂性、包括电影走向的复杂性，这些都不是观众可预知的，导演用无数模糊性的元素，营造了这个庞大且混乱的电影世界。

## 4. 结论

本研究通过对电影《分手的决心》的分析，探索了朴赞郁导演在创作时有意添加的多种模糊性要素，并对这些要素在电影作品中的呈现方式及其作用进行了探究。

首先，《分手的决心》中的模糊性体现在三个层面，分别是影片题材、人物关系和影片结局。《分手的决心》题材的模糊体现在它以悬疑侦探题材开场，悲剧爱情题材结尾；人物关系的模糊体现在男女主角之间微妙且未曾道破的朦胧关系以及电影的名称，并且关系的模糊不只局限于男女主角之间，男主和妻子之间的关系也存在一定的模糊因素；影片结局的模糊体现于两部分，影片由两个故事组成，每个故事的结尾处都存在模糊的元素，尤其是通过第一个故事结局的模糊性使第二个结局更加的模糊。

其次，《分手的决心》的模糊性元素主要由人物台词、镜头变焦、声画不同步等视听语言与“雾”、“山”、“海”、“色彩”等非试听语言进行呈现。人物台词中除了常规台词以外，通过翻译器表现的台词使剧情更加具有模糊性，特别是在模糊男女主关系上起到了独特的作用。通过镜头变焦体现出的模糊性主要作用于女主角真假难辨的形象塑造。声画不同步主要模糊了时间与空间，通过将不同时期发生的事情同时展现在同一画面达到时空错乱的效果。“雾”、“山”、“海”、“色彩”等非试听语言所体现出的模糊性主要作用于男女主角的关系、男女主角的身份认同、以及电影主题意识等几个层面，在影片中与视听语言相辅相成的共同营造出多种模糊性元素。

通过分析《分手的决心》中所展现的模糊性要素，了解导演的创作意图，用模糊暧昧的试听语言、象征性的模糊元素，展现复杂的人物内心，塑造复杂多面的人物形象。导演试图让观众自己去观察电影中的人物故事，不给电影中的故事情节、人物关系下定义，留给观众更多的想象和讨论空间。有助于从不同的角度对这部电影进行理解或解释。也可为后人拍摄电影提供一些借鉴与帮助。

◆ 参考文献

1. 单行本

袁金戈· 劳光辉, 『影视试听语言』,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10.

2. 论文

백승숙, 「영화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헤어질 결심〉의 사랑과 정의의 문제」, 『국학연구 논총』 (33), 2024, pp.181-206.

심정애· 이주은, 「〈헤어질 결심〉의 거울 이미지와 내적 몽타주 분석」, 『영상문화』 (43), 2023, pp.125-152.

왕혜은· 김현태, 「영화 음악으로서의 기존 음악(pre-existing music) 연구 - 영화 〈헤어질 결심〉을 중심으로 -」, 『문화와융합』 45(4), 2023, pp.721-735.

이미옥· 안상혁, 「영화 〈헤어질 결심〉에 나타난 시각적 표상 연구 -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71), 2022, pp.133-143.

이석규, 「산과 바다를 걸고 하는 헤어질 결심—영화 〈헤어질결심〉을 통해 본 중국신화 이미지의 재해석」, 『중국소설논총』 (69), 2023, pp.1-22.

이희승, 「영화 〈헤어질 결심〉의 서사구조 분석: 진실한 사랑 혹은 사랑의 진실」, 『예술교육연구』 22(2), 2024, pp.1-12.

진성희, 「한국 영화의 중국인 여성 - 영화 〈헤어질 결심〉의 여성 재현과 윤리」, 『중국어 문논역총간』 (52), 2023, pp.207-230.

호양, 「박찬욱 감독 영화 속 색상 활용에 대한 기호학 분석: 영화 〈헤어질 결심〉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7(5), 2023, pp.87-112.

홍상우· 문준일, 「러시아 형식주의와 영화 헤어질 결심」, 『세계문학비교연구』 (84), 2023, pp.153-179.

陈旭慧, 「《分手的决心》视听语言分析」, 『嘉应文学』 2024(03), 2024, pp.73-75.

高月, 「悲剧与救赎的交织: 基于“悲剧快感”探析《分手的决心》的人物塑造」, 『声屏世界』 2023(11), 2023, pp.118-122.

黄婧秋, 「电影《分手的决心》的意象表达」, 『艺术教育』 2023(04), 2023, pp.135-138.

聂君伊· 唐国栋, 「浅析东亚语境下的电影美学新趋势——以电影《分手的决心》为例」, 『剧影月报』 2023(04), 2023, pp.23-25.

邱禹明, 「《分手的决心》电影叙事研究」, 『文艺生活(艺术中国)』 2023(02), 2023, pp.133-135.

涂娇娇, 「电影《分手的决心》的视听语言」, 『文化产业』 2023(23), 2023, pp.10-12.

王雨时, 「浅论电视片中的“钩子”」, 『记者摇篮』 2017(06), 2017, pp.16-17.

严敏, 「名不符实的《分手的决心》」, 『新民周刊』 2022(30), 2022, pp.80.

杨凤仙, 「电影语言的模糊性」, 『影视论坛』 2000(10), 2000, pp.50-51.  
张宁, 「以死亡捍卫爱情——《分手的决心》叙事分析」, 『今古文创』 2023(45), 2023,  
pp.105-107.

### 3. 网络资料

韩国振兴委员会

[https://chi.koreanfilm.or.kr/06\\_news/?mcode=0406010000&mod\\_e=2&no=3253](https://chi.koreanfilm.or.kr/06_news/?mcode=0406010000&mod_e=2&no=3253)

논문 접수 일	2024년 8월 4일
심사 완료 일	2024년 8월 31일
게재 확정 일	2024년 9월 19일

*Abstract*

---

The Ambiguity of Decision to Leave and Its Element Analysis  
-An Example of Trans-East Asian Cultural Study-

Yang Zhiyun · Ren Zhiqiang

The release of “Decision to Leave” has brought a lot of associations to the audience, and a careful taste can find that its connotation is vague. The film theme, the ending of the film, the character relationship and so on are vague, and do not give the audience a clear and clear cognition. This pape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tion to break up film creation, combined with the ambiguity in the film, from the character lines, focus, sound synchronization, audition language elements, in-depth analysis of the film technique and intention, understand the movie ambiguity hidden information, let the audience have a more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film.

**Keyword** Decision to Leave, Park Chan-wook, Ambiguity, Film Creation, Film Analysis



# 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融合发展现状及其对策研究\*

许世立\*\* · 许森宇\*\*\*

## 국문요약

광둥·홍콩·마카오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는 중국에서 개방도가 가장 높고 경제 활력이 가장 강한 지역 중 하나로서 전반적인 국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이 지역에는 163개의 대학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사립대학은 66개로 약 40.5%를 차지하고 있다. 사립대학이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대학들 간에 구성된 다양한 융합 플랫폼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공립대학이나 관련 정부 부처가 주도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은 주로 이에 참여하고만 있을 뿐이며, 참여도 또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사립대학 간의 자발적인 융합발전 현황을 살펴보면 융합의 범위, 깊이, 빈도 등이 매우 제한적이며 아직은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립대학 간의 고품질 융합발전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광둥·홍콩·마카오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의 사립대학 간의 융합발전 현황, 존재하는 주요 문제점 및 앞으로의 발전대책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은 광둥·홍콩·마카오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의 사립대학 간의 고품질 융합발전에 관한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관련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며 관련 정부 부처에서 고등교육 융합발전 관련 정책을 내놓는 데도 일정한 참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사립대학, 융합 발전, 현황 연구, 대책 연구, 웨강아오 대만구

\* 本论文为中国民办教育协会2024年度规划课题（学校发展类）“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高质量融合发展研究”（课题批准号：CANFZG24500）和中国深圳城市职业学院校级课题“一带一路视域下职业院校国际化建设路径研究——以深圳技师学院为例”（课题编号：2412003）的阶段性研究成果。

\*\* 许世立，中国珠海科技学院韩国学研究中心主任，第一作者。

\*\*\* 许森宇，中国深圳城市职业学院商贸学院现代物流管理专业教师，通讯作者。

## 〈目録〉

1. 序论
2. 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融合发展现状
3. 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融合发展中的主要瓶颈
4. 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融合发展的主要对策
5. 结论

## 1. 序论

中共中央、国务院于2019年2月印发《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明确提出要充分发挥粤港澳的综合优势，加强内地与港澳的深度合作，进一步提升粤港澳大湾区在国家经济发展和对外开放中的重要支撑和引领作用，支持香港、澳门更好地融入到国家发展大局；积极拓展粤港澳大湾区在教育、文化和旅游以及社会保障等领域的合作，要在粤港澳大湾区积极打造教育和人才高地，推动教育合作发展。教育部、广东省人民政府于2020年12月联合印发《推进粤港澳大湾区高等教育合作发展规划》，明确提出要探索建立粤港澳大湾区高等教育协同发展体系，把粤港澳大湾区打造成为内地与港澳教育全面合作发展的生动典范。这些重要文件的发布和相关政策的出台，使粤港澳大湾区高等院校的高质量融合发展成为很多专家学者及有关部门关注的焦点。截止目前，既有政府政策方面的研究，也有教育、经贸方面的研究；既有理论研究，也有实际合作举措。

在理论研究方面，与本文密切相关的研究内容并不多见，主要如下。杨玉浩（2018）研究发现粤港澳大湾区高等教育供给相对滞后于经济社会发展战略需求，而且地区分布有些不均衡，提出要通过合作办学模式培养高端研究型人才，以分校模式，依托地方普通高校，不断增强应用型人才培养，全面提高大湾区人才供给。孙丽昕（2020）分析发现，与世界三大湾区高等教育集群相比，粤港澳大湾区高等教育集群发展相对来讲仍存在数量、质量和基础三个方面的差距。针对此问题，该研究认为高等教育布局结构调整至关

重要,要构建大学集群与专业集群,扩大规模,调整结构,提升质量。卓泽林(2021)围绕粤港澳大湾区高等教育整合问题,对其动力、原则以及发展目标进行了阐述。魏明海(2024)认为,建设大湾区高水平大学,要把握好高等教育与区域高质量发展相互依存相互促进、尊重高等教育内涵式发展规律与探索大湾区大学差异化错位发展、推进大湾区高等教育协同发展与突破三地政策机制差异、多元文化背景与塑造文化认同的辩证统一关系,要充分发挥独特优势赋能大湾区发展。

总体而言,粤港澳大湾区高等教育合作方面的理论研究主要表现为框架层面的研究,这些理论如何精准落地,还需要进一步研究和探讨。而民办高等教育合作方面的研究比较零散,还无法形成“合力”去突破合作瓶颈。从实际合作举措来看,其广度、深度和频度等方面也同样有待于进一步加强。

基于以上理解和认识,本文通过收集大量线上线下相关资料,对粤港澳大湾区高校,尤其是民办高校的分布情况进行统计和分析,对该区域各高校之间的融合发展平台以及近一年来该区域民办高校官方网站发布的对外交流与合作及跨境招生方面的有关信息进行分析、归纳和整理,拟研究和探讨如下三个方面的问题。一是以宏观视角研究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的区域分布、教育领域融合发展现状;二是研究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的融合发展瓶颈及其主要原因;三是将从政府与高校、教师与学生、学术与思政等三个层面研究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融合发展的对策。

本文的研究内容有助于进一步构拟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高质量融合发展的理论框架,有助于在这一框架下开展相关的实证研究,同时对于政府有关部门今后出台相关政策文件具有一定的参考价值。

## 2. 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区域发展分布及融合发展现状

### 1) 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区域发展分布

粤港澳大湾区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广东省广州市、

深圳市、珠海市、佛山市、惠州市、东莞市、中山市、江门市、肇庆市（以下简称珠三角九市），总面积5.6万平方公里，常住人口达8,600万人，是中国开放程度最高、经济活力最强的区域之一，2023年粤港澳大湾区经济总量突破14万亿元，约占全国经济总量的11%<sup>1)</sup>，在国家发展大局中具有非常重要的战略地位。

笔者根据中国教育部及香港、澳门特别行政区官方网站相关信息进行统计数据显示，截止2024年4月粤港澳大湾区高等院校共有163所，其中珠三角九市131所，香港22所，澳门10所，在该区域高校总数中的占比分别为80.4%、13.5%、6.1%；粤港澳大湾区民办高等院校共66所，在该区域高校总数中的占比约为40.5%，其中珠三角九市48所（含独立学院），香港12所，澳门6所，在该区域民办高校总数中的占比分别为72.7%、18.2%、9.1%；民办本科院校42所（珠三角九市24所，香港12所，澳门6所），民办专科院校24所（珠三角九市24所），在该区域民办高校总数中的占比分别为63.6%、36.4%<sup>2)</sup>，其中不乏国内知名的民办高校。如，澳门科技大学、澳门城市大学、珠海科技学院、广州南方学院、广州城市理工学院等，其在国内具有较好的学术声誉。

在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的数量以及在校人员规模都占相当大的比重，在该区域教育、经济、文化等各领域起到越来越重要的作用。因此，如何使该区域民办高校能够快速高质量融合发展，值得我们深度思考和研究。

## 2) 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融合发展现状

### (1) 共建共享融合平台

几年来，粤港澳大湾区内的高等教育机构之间互动频繁，积极推进实质性合作，举办北京师范大学-香港浸会大学联合国际学院、香港中文大学（深

1) 黄应来，「粤港澳大湾区去年新增常住人口超44万」，南方日报网络版，2024. 5. 10. [https://epaper.nfnews.com/nfdaily/html/202405/10/content\\_10098781.html](https://epaper.nfnews.com/nfdaily/html/202405/10/content_10098781.html)

2) 这一组数据来源于笔者基于中国教育部网站以及香港和澳门两个特别行政区官方网站发布信息的分类和统计，其数据采集截止时间为2024年4月30日。

圳)、香港科技大学(广州)、香港城市大学(东莞)等四所内地与港澳台地区合作办学机构<sup>3)</sup>,成立了粤港澳高校联盟、粤港澳大湾区高校在线开放课程联盟、粤港澳大湾区科技协同创新联盟、粤港澳联合实验室、粤港澳大湾区产教融合技能人才培养联盟、粤港澳高校数字经济联盟、大湾区产教联盟等,还成立了联合研究机构,共享教学科研资源。下面着重考察和分析与民办高校有一定关联的五个代表性的融合平台。

### ① 粤港澳高校联盟

该联盟成立于2016年底,是由中山大学倡议,并联合澳门大学、香港中文大学共同发起的非营利性的跨区域大学合作联盟;该联盟以汇集粤港澳三地的精英大学,强强联合培养高素质人才,推动三地共同迈向知识经济时代为宗旨,成立时获得中国教育部、国务院港澳事务办、中联办等多个单位支持。<sup>4)</sup>2020年7月,在粤港澳高校联盟在线年会暨校长论坛上,宣告成立粤港澳高校智慧校园联盟,其顺应当时的形势所需,为后疫情时代粤港澳联盟高校之间的沟通与合作带来更为可靠的技术支撑和平台,从而有效推动粤港澳高校联盟的发展。

截止目前,已有三地共计43所成员院校加盟,其中广东27所,香港9所,澳门7所,在联盟框架下先后共成立55个专业联盟,在文、理、医、工多个学科和高校事务领域积极拓展成员院校之间的务实合作;在学术交流、人才培养、科研合作等方面不断开拓创新,开展了一系列卓有成效的工作,集群内涵建设不断提升,交流合作持续深化,科研教学深度交融,大湾区高校携手共进,影响力持续提升。<sup>5)</sup>

笔者根据该网站相关信息进行统计数据显示,该联盟成员主要来自公办

3) 该数据摘自中国教育部中外合作办学监管工作信息平台官方网站发布信息。2024.09.08

4) 卢静怡,「粤港澳26高校结盟寻科研突破」,大公网,2016.11.16。  
<https://www.takungpao.com/hk/mainland/text/2016/1116/38580.html>

5) 粤港澳高校联盟官方网站。<https://eao.sysu.edu.cn/ghmua/zh-hans/about>, 2024.5.25.

高校，其成员中的广东27所和香港9所高校均为公办高校，民办高校只有澳门的4所——澳门科技大学、澳门城市大学、澳门镜湖护理学院、澳门圣若瑟大学等，珠三角九市的民办高校均未见入围。参加该联盟的民办高校数量在该区域民办高校总数的比重只占6.1%，参与度并不高。

## ② 粤港澳大湾区高校在线开放课程联盟

该联盟成立于2019年11月，是由广东省教育厅指导，由中山大学、华南理工大学、暨南大学等11所高校联合倡议成立，是全国首个粤港澳大湾区高校课程建设和应用联盟。该联盟以在线开放课程为重要平台，大力推进成员院校之间的课程融合，从而积极推动粤港澳三地高等院校之间的快速融合发展。

该联盟搭建了“一站式服务”综合课程平台，跨校、跨区域协同建设满足不同需求的各类课程群，将校内校际课程以多种形式进行共享，在人才培养方面有效深化了成员院校之间的互动与合作。开课平台有超星、智慧树、优课在线、学堂在线、好大学在线、优学院、爱课程、人卫慕课等；课程包括国家级一流课程、省级一流课程、省级系列课程等，按学科分为哲学、经济学、法学、教育学、文学、历史学、理学、工学、农学、医学、军事学、管理学、艺术学等14大类。该联盟集聚了1600多门课程支持会员高校开展在线教学，受益教师超20万余人次；配合广东省教育厅发布‘广东省大学生2020年开学第一课’线上课程，一周内有17万名大学生完成线上学习<sup>6)</sup>，资源共享、学分互认、积极推动大湾区高校集群化发展。

笔者根据该网站相关信息进行统计数据显示，截止到2024年5月，共有82所高校加盟，其中珠三角九市的民办高校24所，香港、澳门两地的民办高校2所。参加该联盟的民办高校数量在该区域民办高校总数的比重只占39.4%，参与度还有待于提高。

6) 陈亮，「新增19所！粤港澳大湾区高校在线开放课程联盟成员增至82所」，羊城晚报羊城派，2020.12.19.

<https://baijiahao.baidu.com/s?id=1686493024392449383&wfr=spider&for=pc>

### ③ 粤港澳联合实验室

在支持高校参与粤港澳联合实验室建设方面，广东省充分发挥粤港澳的地理优势、科技优势、产业优势和人才优势，结合国家战略和区域国际科技创新及产业发展的实际需求，通过粤港澳紧密合作，围绕着新材料、新一代信息技术、人工智能、先进制造、生物医药、环境科技、土木工程、纳米科学与技术等重点领域集智攻关，分别于2019年、2020年、2023年分3批启动建设粤港澳联合实验室共31家，其中22家依托广东省高校建立。但笔者统计发现，在该区域民办高校当中只有澳门科技大学等极个别高校参与该联合实验室建设，其比重只占个位数。这一数据也侧面表明，在科研领域民办高校普遍存在短板，有待于自我提升，更有待于融合发展。

### ④ 粤港澳大湾区产教融合技能人才培养联盟

该联盟成立于2023年10月，是由广州市人社局、广州市发改委、广州市教育局、广州市工信局、广州市总工会、南沙区政府指导，联合大湾区内的高等院校、行业代表性企业、培训机构和其他社会组织等多元组合成立的跨区域、非营利性的技能人才培养联合组织。<sup>7)</sup> 该联盟紧贴产业发展和新技术发展，设立了人工智能技术应用、新一代信息技术、智能网联与新能源汽车产业等14个专委会。联盟目前是广东省湾区办唯一批复成立的大湾区区域性产教融合人才培养平台性组织，吸纳近150家成员单位入盟，率先全国打造由政府部门牵头的辐射粤港澳技能人才培养交流合作的新阵地。

该联盟自成立以来，积极开展学习调研、打造智库、项目培育、产教对接等活动，努力建设学习型、规范型、创新型联盟。充分凝聚成员力量，积极整合大湾区各企业、行业协会、院校、培训机构、评价组织等资源，积极探索培养产教融合技能型人才的新模式、新做法和新经验。<sup>8)</sup> 但笔者根据粤港澳

7) 程景伟，「粤港澳大湾区产教融合技能人才培养联盟在广州成立」，中新网，2023.10.12.

<https://www.chinanews.com.cn/dwq/2023/10-11/10092504.shtml>

8) 何颖思，「2024年粤港澳大湾区产教融合技能人才培养联盟理事会召开」，广州日报，

大湾区产教融合技能人才培养联盟第一批专家库名单进行统计发现, 参加该联盟的民办高校共有3所(均为专科院校), 占该区域民办高校总数的4.5%, 其参与度有待于加强。

### ⑤ 大湾区产教联盟

该联盟成立于2020年12月。该联盟由南博教育集团下属的4所民办高校牵头, 联合大湾区知名企业、高等院校、研究机构、社会组织等发起成立。首批加入联盟的成员单位共55家。该联盟引产入教, 促进高校与企业、高校与行业组织的合作, 为有志在大湾区就业、创业的人才提供实习、就业、创业平台, 推动粤港澳大湾区与中西部地区的人才资源流动, 提升人才培养质量。

该联盟虽然由民办高校牵头成立, 但从其会员单位及专家委员情况来看, 主要是企业界人士居多, 珠三角九市民办高校的参与情况还有待于进一步关注。

通过以上考察和分析, 发现上述的融合平台和融合活动具有其共性特点。一是基本上由公办院校或政府有关部门牵头或主导, 民办高校虽然参与其中, 但总体数量有限, 受众面较窄, 其参与度有待提高。二是个别民办高校牵头或主导的融合平台或融合活动, 其实际影响力相对有限, 还有待于加以推动。

## (2) 民办高校自主融合

### ① 跨境招生。

截止2024年5月, 广东省具备招收港澳学生资质的高校达71所, 招收港澳学生规模持续扩大。据报告显示, 广东省现有在读港澳学生1.5万人, 规模居全国首位。<sup>9)</sup> 笔者根据珠三角九市民办高校在各自的官网发布的招生信息统

---

2024.4.24.

<https://baijiahao.baidu.com/s?id=1797219991517719883&wfr=spider&for=pc>

9) 侯梦菲, 「数量超全国的一半 广东已建成6所中外、内地与港澳合作大学」, 羊城晚报, 2024.05.29.

计数据显示, 2023年度约有20所民办高校在港澳两地进行招生。另外, 2023年香港12所、澳门6所共18所港澳高校单独招收广东的高中毕业生。<sup>10)</sup> 其中, 包括香港树仁大学、香港恒生大学、香港高等教育科技学院、香港珠海学院、东华学院、澳门科技大学、澳门城市大学、澳门镜湖护理学院等8所民办高校, 占港澳民办高校总数的44.4%。值得关注的是, 香港珠海学院2023年首次参加内地高考统招, 在广东、福建、江苏等九个省招收普通本科批次学生, 共投放100个招生名额。而珠三角九市的一些民办高校也纷纷发布面向港澳台学生的招生简章, 其中有本科院校, 也有专科院校。虽然录取人数占比相对较少, 但三地民办高校已初步形成较好的招生态势。这势必加速粤港澳三地人员的融合进程。

## ② 学生融合。

在粤港澳大湾区融合发展这一大背景下, 在国际形势动荡不安和新冠三年疫情影响下, 尽管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之间还未形成全方位合作机制, 但学生的交流日益频繁, 其主要表现在两个方面。一是珠三角九市民办高校积极选派学生赴港澳高校进行短期交流, 包括参加“一国两制”研习营、寒暑假实训营、“国际创新优才培养计划”、港澳名校访学实践项目、探访横琴·澳门青年创业谷项目、香港名企实习交流项目、粤港澳大湾区高校创新工程邀请赛等, 形成积极向上的良好融合态势。二是积极推动毕业生本升硕项目。珠三角九市民办高校目前基本上还没有硕士学位授权点, 于是把目光转向港澳高校。每年有为数不少的应届毕业生报考港澳硕士研究生。无论是短期交流项目, 还是本升硕项目, 都有效地推动了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学生之间的融合。相比之下, 港澳学生赴珠三角九市民办高校开展融合活动的相对较少, 这还有待于进一步加强。

---

[https://news.ycwb.com/2024-05/29/content\\_52714201.htm](https://news.ycwb.com/2024-05/29/content_52714201.htm)

10) 广东省教育考试院, 「港澳高校招收我省高中毕业生报名进行中」, 广东省教育考试院官网, 2023.06.02.

[https://eea.gd.gov.cn/ptgk/content/post\\_4191302.html](https://eea.gd.gov.cn/ptgk/content/post_4191302.html)

### ③ 教师融合

笔者根据大湾区各民办高校官方网站发布的信息进行统计数据显示,民办高校教师之间的合作交流也日益频繁,其主要表现为三个方面。一是学校高层领导及职能部门之间的交流,包括访问、参观、考察、学习、座谈、交流以及签订合作协议或备忘录等。港澳民办高校的代表也比较积极主动,表现出较好的合作态势。二是教师之间的合作交流,包括邀请港澳名师进行学术讲座、组织粤港澳大湾区混合式教学主题研修、举办粤港澳大湾区语言与文化研究高层论坛、共同申报粤港澳大湾区高等院校合作发展相关的研究课题等。三是珠三角九市高校青年教师赴港澳学习,提升学历。近年来由于内地学子赴港澳留学深造形成一股风,其竞争越来越激烈。

通过以上考察和分析,发现粤港澳民办高校在自主融合方面虽然已形成较好的态势,但还存在如下几个方面的问题。一是在跨境招生方面,尽管参与的民办高校数量占据一定比例,但各高校招收的学生数量还是相对有限。二是民办高校在读学生的融合方面,更多的是还停留于寒暑假短期交流或研修等层面,开展学历学位教育方面的深度融合项目并不多见。而现阶段进行中的短期研修交流项目,无论是其广度、深度还是频度,均有待于加强。三是教师融合方面,尽管形成了较好的发展态势,但还有待于提升融合高度,拓宽覆盖面。

## 3. 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融合发展中的主要瓶颈

### 1) 政策机制瓶颈

粤港澳大湾区作为一个区域空间概念,改革开放以来在产业联系和结构布局方面经历了快速演进过程,尤其是香港、澳门回归祖国以后,粤港澳三地从优势互补、功能合作逐步提升为融合发展、制度合作的高度。但还存在政策机制上的瓶颈。首先,粤港澳大湾区属于一国两制、三种法律体系,对于大湾区高等教育的融合发展产生实际影响。<sup>11)</sup>如,港澳留学归国人员学历学位的认证、粤港澳三地师生的出入境等方面,还有待于持续关注和优化。其次,粤

港澳三地在高校的教育环境、教育理念、管理模式、课程设置、学分认定与转换、学位授予等方面存在一定的差异，在合作衔接与合作机制上存在一定的难度。再次，粤港澳三地的经济发展水平不同，教育消费能力也存在差异，对内地学生来讲，赴港澳学习和交流，经济上有一定的压力。突破政策机制障碍，既是破解大湾区教育科技人才一体化协同发展新挑战的突破点，也是促进大湾区高等教育协调发展的重要契机；要不断完善粤港澳大湾区高等教育协调发展的政策机制体系；不断深化合作的层次。<sup>12)</sup>

## 2) 融合动力瓶颈

在民办高校个性化自主融合发展的过程中，缺乏足够的内生动力。一方面，粤港澳大湾区大部分民办高校的办学时间相对较短，在学科专业建设、人才培养、科学研究、社会服务、国际教育交流等方面还存在一些短板，目前还难以形成具有显示度的高尖端核心竞争力。除了澳门科技大学、澳门城市大学等少数高校之外，一般来讲民办高校与公办高校相比，在粤港澳三地的认可度还有很大的提升空间。尽管民办高校之间具有相同的“遗传基因”，但它们更希望与享有学术盛名的公办高校紧密融合，民办高校彼此之间融合意愿和融合动力并不强烈。另一方面，民办高校在内部决策方面还缺乏行之有效的内部运行机制和激励机制，难以形成强劲的、可持续的相互融合发展的动力。从长远考虑，民办高校要加大人力、物力、财力等方面的投入，不断提升自身的办学水平和办学竞争力的同时，还要不断改革和创新，优化内部运行机制和激励机制，持续推动融合发展进程。

## 3) 认识瓶颈

一些学者认为，粤港澳大湾区的融合发展问题是属于政府部门要考虑的

---

11) 毛艳华，「创新体制机制提升一体化水平」，经济日报，2022.08.24.

12) 魏明海，「粤港澳大湾区高水平大学建设的时代使命、关键问题与实践路径」，《中国高等教育》第九期，2024.，第13页。

事情, 或者是经济学或社会学领域的研究专家要关注的事情, 与高等教育没什么关联, 与民办教育更没有关联。其实则不然, 作为高等教育工作者, 要有责任和担当, 要担负起国家和历史赋予的使命。国家层面大力推动粤港澳大湾区融合发展, 既是为了形成新时代全面开放新格局、提升粤港澳大湾区在新经济发展和对外开放中的重要支撑和引领作用, 也是为了积极支持港澳尽快融入国家发展大局。<sup>13)</sup> 作为民办高校的教育工作者首先需要充分理解和认识这一国家大政方针, 要深入学习和领会《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推进粤港澳大湾区高等教育合作发展规划》以及党的二十届三中全会的重要思想内涵。其次, 要深度认识和把握港澳的高等教育发展环境的特殊性和差异性, 理解和掌握港澳民办高校的发展规律和运营特点。同时也要分析和研究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的融合发展模式及融合发展机制, 突破认识上的瓶颈, 做到积极规划, 尽早投入, 优势互补, 持续推进。

## 4. 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融合发展的主要对策

### 1) 政府主导与高校自主融合相结合

政府主导与高校自主融合相结合, 才能实现政策与教育交流实践的有机衔接, 更加快速推动民办高校的高质量融合发展。

#### ① 政府层面

在促进民办高校融合发展过程中, 政府应发挥主导作用, 不断突破政策机制上的瓶颈的同时, 要多方位提供政策支持和指导。首先, 在充分调研和评估自2023年2月20日起在粤港澳大湾区内地城市试点实施的往来港澳人才签证政策<sup>14)</sup>的基础上, 可以适时逐步放宽该区域内地城市的留学归国人员、博士

13) 汤贞敏, 「建设教育强国背景下粤港澳大湾区教育该当何为」, 『教育导刊』第3期, 2023, 第59页。

14) 根据该项政策, 在粤港澳大湾区工作的内地6类人才, 即杰出人才、科研人才、文教人才、卫健人才、法律人才以及其他人才(湾区人才、科技主管部门认定的高层次管理

等学历人才的签注政策。其次，港珠澳大桥、深中通道的开通，为内地学员住在珠海或深圳，往来澳门或香港攻读学历学位提供了极大方便，并在很大程度上减轻了学员经济上的压力。因此，建议有关部门尝试出台或进一步优化这一类港澳留学归国人员学历学位认证相关的政策或指导性意见，对境外停留时间要求等方面进行精细化评估与管理。再次，政府层面可以通过培育和推选“粤港澳大湾区民办高等教育融合发展示范校”、指导和支持成立“粤港澳大湾区民办高等教育联盟”、培育和推广“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人文交流机制”、推动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融合发展相关的教科研课题立项并提供经费支持、举办“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创新创业/职业规划大赛”、选拔和表彰“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融合发展先进单位和先进个人”等一系列措施，进一步注入和激发各相关高校的融合动力。

## ② 高校层面

在促进民办高校融合发展过程中，高校应发挥好主体作用。首先，大湾区民办高校要大力推进内涵建设和品牌建设，提升其学术知名度、信誉度和美誉度，以激发彼此之间的融合意愿，从而形成可持续的内生动力。其次，要具体了解和熟悉粤港澳三地高校之间的教育理念、管理模式、课程设置在学分认定等方面的差异，积极破解困难和屏障，并根据自身办学特色和实际需求，寻求合作路径和合作方案。再次，民办高校要大胆进行改革和创新，进一步完善内部运行机制和激励机制，吸引更多的师生加入到融合发展的队伍中来，从而形成强大的融合动力。另外，要以学科专业建设链为龙头、以人才培养链为基础、以文化融合链为纽带，充分发挥主观能动性，搭建融合发展平台，加强融合机制建设，拓展融合交流项目。如，民办高校可以在教育主管行

---

和专业技术人员)可以申办往来港澳人才签注。这6类人才可以根据实际需要,单独或者同时申请办理赴香港人才签注和赴澳门人才签注。其中杰出人才可以申办有效期5年的人才签注,科研、文教、卫健人才可以申办有效期3年的人才签注,法律人才和其他类人才可以申办有效期1年的人才签注。持证人在签注有效期内可以不限次数往来香港或者澳门地区,每次在香港或者澳门停留不超过30天。光明日报,2023.02.10.

政部门的指导下,筹备成立“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联盟”,每年定期举办融合发展论坛或学术论坛,也可以在联盟框架下成立相关专业联盟,在学科专业领域和高校事务领域积极拓展成员院校之间的务实合作,在人才培养、科研合作、学术交流等方面不断开拓和创新。

## 2) 教师融合与学生融合相结合

教师融合与学生融合相结合,可以促进教师的教学科研质量的提升,培养更具竞争力的人才,同时也是民办高校快速融合发展的最有效办法。

### ① 教师融合

教师是学校高层内部决策的对外落实者,也是学生融合项目的具体推动者,其在整个民办高校高质量融合发展过程中起着承上启下的关键作用。首先,要充分理解和认识国家大力推动粤港澳大湾区融合发展的战略意义,提高站位,开阔视野,突破认识上和观念上的瓶颈。其次,要积极利用粤港澳大湾区已搭建好的高校联盟、专业联盟、课程联盟、人才培养联盟以及产教联盟等平台,积累学术人脉,拓宽学术视野,促进教学科研资源共享和互联互通。再次,通过共同开发课程、申报项目课题、学术合作研究、举办专业学术会议等形式,加强相互融合的深度、广度和频度。另外,有条件的高校还可以通过申报内地与港澳地区合作办学项目或合作办学机构,积极引进师资,引入课程,加大融合的覆盖面。

### ② 学生融合

要以教师融合带动学生融合,为学生全方位提供学习交流的台阶和平台。首先,要推进“四个带动”,即,以短期游学带动交换留学,以公派游学带动自费游学,以非学历留学带动学历留学,以派遣学生带动港澳(或内地)学生的招生。其次,部分高校和有关部门举办“粤港澳大湾区高校学生汕尾行”、“大湾区之光”青(少)年短视频大赛高校行活动、“粤港澳大湾区高校港澳台

侨学生2024农耕文化体验营”、“2024粤港澳大湾区大学生创意节”、“粤港澳大湾区大学生艺术节”等丰富多样的活动，这些经验和做法有必要进一步进行梳理和推广。再次，华南理工大学在2020年与澳门大学合作签订湾区首个2+2本科双向双学位项目合作协议，华南农业大学与香港伍伦贡学院联合开展副学士学位3+X课程项目，华南师范大学与香港教育大学联合开展英语专业3+1课程项目，这些公办院校的做法和经验值得民办院校学习和借鉴。

### 3) 学术融合与思政融合相结合

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的高质量融合发展要通过“双轮驱动”来实现，一个是学术驱动，另一个是思政驱动。学术驱动即以学科专业建设、人才培养为主线的驱动，是一条“明线”；思政驱动即以培养家国情怀以及思想认同、价值认同为主线的驱动，是一条“隐线”，要潜移默化地贯穿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相互融合的全过程、全领域、全方位，尤其要进一步加强港澳学生的湾区认同感、国家身份认同感以及对祖国大陆主流价值观的认同感。

总之，要以政策机制建设来带动高校之间的“常”融合，以高校高层的互访机制来带动师生“快”融合，以融合平台的建设来带动高校之间的“广”融合，以学科专业建设来带动人才培养的“深”融合，以人文交流机制来带动三地学生的“频”融合，从而加强粤港澳三地民办高校融合发展的速度、广度、深度和频度。

## 5. 结论

本文从宏观的视角研究和探讨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之间的融合发展现状、融合发展中的主要瓶颈以及融合对策等问题。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在共建共享融合平台、个性化自主融合等方面取得了一些阶段性成果，但仍面临一些挑战。在融合发展过程中，我们既要防止以注重融合的深度为由而忽略融合的广度，同时也要防止以规模化融合为由而忽略融合质量。质量融合与数量融合有机结合，才能实现规模化融合发展的同时确保融合的高度。我们要

通过政府主导与高校自主融合相结合、教师融合与学生融合相结合、学术融合与思政融合相结合等途径,积极突破政策机制瓶颈、融合动力瓶颈以及思想认识上的瓶颈,切实加强融合深度、融合广度和融合频度,大力推动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的快速高质量融合发展,为湾区经济社会发展注入新的活力。

#### ◆ 参考文献

##### 论文

- 郭孔生·马燕霞·许长青,「粤港澳大湾区民办高校联动发展协调治理机制研究」,『教育与职业』第8期,2019, pp.79-85.
- 郭孔生·薛慧丽,「世界一流湾区经验与粤港澳大湾区民办高等教育集聚发展探讨」,『浙江树人大学学报』第22卷第5期,2022, pp.9-16.
- 孙丽昕,「粤港澳大湾区高等教育集群发展:基础、差距与赶超策略」,『东莞理工学院学报』第27卷第4期,2020, pp.112-118.
- 汤贞敏,「建设教育强国背景下粤港澳大湾区教育该当何为」,『教育导刊』第3期,2023, pp.59-63.
- 魏明海,「粤港澳大湾区高水平大学建设的时代使命、关键问题与实践路径」,『中国高等教育』第9期,2024, 13-18.
- 杨玉浩,「基于地缘关系的粤港澳大湾区高等教育现状及发展战略研究」,『教育导刊』第8期,2018, pp.77-81.
- 张仕华·谭瑞峰·郭晓溶,「粤港澳大湾区开放高等教育合作机制的探析」,『广州广播电视大学学报』第6期,2023, pp.77-83.
- 卓泽林,「粤港澳大湾区高等教育整合:动力、原则及目标」,『高教探索』第2期,2021, pp.14-20.

논문접수일	2024년 8월 10일
심사완료일	2024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24년 9월 19일

*Abstract*

---

## Study on Current Situation and Countermeasures of Integrated Development of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Xu, Shili · Xu, Senyu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is one of the regions with the highest degree of openness and the most vibrant economy, which possesses crucial strategic position in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country. Up to now, there are 163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this area, 66 of which are private, accounting for 40.5%. Across various integration platforms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is region, they are basically led or dominated by public colleges and universities or relevant departments of government, while private ones only participate in it, with relatively low participation rate and limited coverage. In view of the self-directed integration status among privat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integration lacks depth, breadth and frequency. Therefore, the integrated development of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with high quality in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is worth our consideration and research. From a macro perspective, this paper studies and discusses the current situation, main bottlenecks and countermeasures of the integration of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is area. The research content of this paper will help to further construct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high-quality integrated development of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help to carry out relevant empirical research under this framework and provide certain reference for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to issue policy documents in the future.

**Keyword** priv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urrent situation research, countermeasure research,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 한중인문학회 회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중인문학회(한문표기 : 中韓人文學會, 이하 “학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한국학의 진흥 및 그 성과의 해외 소개
2. 재외 한국학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해외 한국학의 활성화
3.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학술문화사상적 교류 및 관계 탐구
4. 기타 한국학의 국제적 위상 및 정체성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제3조(사업)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2. 학회지 『한중인문학연구』 간행
3. 한중인문학 관련 도서 간행
4.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제4조(연구 윤리)

1. 학회의 제반 활동은 학술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다.
2. 회원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별도의 <윤리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한중인문학 관련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문화, 언어교육 분야 등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기타 한중문화 교류에 관여하는 전문가 및 기관

제6조(가입) 학회의 가입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회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제10조(조직)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전공별, 지역별)
3. 분과이사 약간명
4. 감사 2인

제11조(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분과이사 및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2. 행정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의 사업을 기획·조정한다.
3. 분과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와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재무사항 일체를 감사하며 매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제4장 회 의

### 제14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사업 계획의 심의
  - ②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③ 임원 선출 및 인준
  - ④ 회칙 개정
  - ⑤ 기타 중요사항
3. 임시총회는 학회 운영상 특별히 의결이 필요할 때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이사회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제15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공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 ③ 업무 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중요사항

### 제16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제반 활동 및 회원의 연구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 연구 윤리 규범을 홍보하고 <윤리 규정>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18조(의결) 회의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내역)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기금, 입회비, 연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21조(예결산) 예산 및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6장 기 타

제22조(내규)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 부 칙

- 이 회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한중인문학연구』編輯委員會 規定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발행) 본 위원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는 다음 지침에 따라 발행된다.

1. 연4회 발간하되, 3월 30일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지 게재 심사 대상은 투고된 학술대회 발표문과 수시로 접수한 논문으로 한다.

제3조(연구 윤리)

1. 본 위원회의 활동은 학술연구자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 이행에 바탕을 둔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의 활동은 본 학회의 〈윤리 규정〉에 의한 제반 규약을 준수한다.
2. 이와 관련한 사안은 연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처리한다.

###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1.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인원) 편집위원은 아래의 분야에 따라 위촉한다.

1. 한국 인문학 : 문학, 어학, 고전, 역사, 문화, 교육 등 6개 분야
2. 한중 비교학 및 중국학 : 중국 문학, 중국 어학, 중국 사상, 비교 문학 등 4개 분야
3. 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로서 연구업적과 활동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 임명한다.

제6조(편집위원 선정 기준) 편집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자
2.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자

제7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 편집활동의 제고를 위해 약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3장 심사

제9조(투고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이면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0조(논문의 범위)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로 한정한다.(기취득한 학위논문을 요약 및 발췌한 내용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과의 접근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1. 한국학의 내적 특성을 심화시키거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
2.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인문학 분야 및 한국학의 정체성 탐구와 관련 있는 내용

제11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 논문 한 편 당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2조(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심사하여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 점수	5	4	3	2	1
논문의 창의성					
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타당성					
체제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총점					

## 제4장 심사 절차 및 심사 규정

제13조(접수)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을 통해 수시로 받는다.

제14조(예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세부 분야별로 분류하여 예심을 한다.

제15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예심을 거친 논문을 해당분야의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의뢰서’와 함께 보내 심사를 요청한다.

제16조(심사 절차)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 평가란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가운데 택일하여 기록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원고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규정)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에서 3인 이상이 게재에 동의할 경우 반드시 게재한다.
2. 최종평가에서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1주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수정확인서와 함께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5. 최종평가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6. 논문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7. 심사결과 2인 이상 ‘게재 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무조건 반려한다. 단 1인 이하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이 판정은 ‘수정 후 게재’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심사 결과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① 투고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과 구체성 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한 가지 중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다수의 판정 결과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 ③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 차례에 한한다.
  - ④ 재심사에 들어갈 경우 이의 신청자는 재심 논문 심사비 등을 포함하여

내규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재심은 심사비 납부 이후에 진행된다.

9. 투고자에게는 논문의 게재여부와 구체적인 심사 내용을 명시한 ‘논문심사 결과서’를 보낸다.
10.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경우 만약 심사자의 의견에 대한 수정보완이나 구체적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게재를 제한한다.
11. 발행 면수 제한 때문에 논문 편수를 더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최하위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12. 외국어 논문을 학회지에 일정 비율 수록하도록 한다. 수록 비율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13. (재투고 금지) 재투고는 1회에 한하며, 이전의 심사결과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아 반려된 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재투고된 논문은 1차 심사절차와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 제5장 투고 규정

제18조(투고) 투고는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메뉴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시 학회에서 요구하는 ‘논문투고신청서’ 양식과 논문표절 방지를 위한 문헌 유사도 검사지를 제출해야 한다. 국문으로 쓴 논문은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상세 결과지를, 중문으로 쓴 논문은 ‘CNKI論文查重’의 〈文本複製檢測報告單(全文標明引文)〉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공동저자인 경우에도 저자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논문투고신청서’에 반드시 저자정보를 밝혀야 한다.

제19조(접수 마감) 접수 마감은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제20조(원고 작성) 논문 작성 요령은 제26조의 논문 작성 양식을 따른다.

제21조(투고 제한) 단독 저자 및 공동 저자의 투고 시, 연속 2회 투고 및 게재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을 재투고할 수 없다.

제22조(원고의 제출) 논문의 내용 상 그래프나 표 등이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1 부를 출력하여 그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기, 겉표지와 논문을 첩하여 아래의 학회사무실로 제출하고 인수증을 받는다. 우편 제출 시 논문 겉표지에 『한중인문학연구』 제 00호 투고 논문'이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쓴다.

#### 학회사무실 주소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이은희 교수 연구실  
 E-mail : kochih@hanmail.net

제23조(심사비)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비를 학회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서 접수 후 심사위원들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24조(게재료) 심사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일반 논문과 연구비 수혜 논문으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금액은 편집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25조(영문초록)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학술논문 영문교정 전문기관에 영문 초록 교정을 의뢰한다. 영문 초록 교정에 드는 비용은 논문 저자가 부담하여, 게재료에 반영한다. 단 저자가 별도 교정을 원할 경우, 저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영문 초록 교정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영문 초록 교정 확인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연구 윤리) 연구 윤리를 심의 감독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회장이 임명한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7조(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방지) 논문 투고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관련 보고를 요구받았을 때, 즉시 학회 측에 이해상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 후라도 이해상충 관련 연구부정이 확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즉시 이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에 돌입한다.

제28조(논문 작성 양식) 논문 작성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논문은 “한글(2010 이상)”으로 작성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편집 후 총면수 24쪽 이내) 내외로 하고, 150매 이상(편집면수 30쪽 이상)은 투고를 제한한다.(출판 편집 후 24쪽을 초과할 경우에는 1쪽 당 2만원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한다.)
3. 논문의 체제는 제목, 성명, 국문개요, 국문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 성명,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으로 한다.
4.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저자의 소속 및 직위 등은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표시하고, 공동 저자가 있을 경우 주저자(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또는 제2저자) 등을 빠짐없이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기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성명/대학명/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의전담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
	대학 및 대학원 소속 학생	성명/대학명/학부과정, 석사과정, 석사수료, 박사과정, 박사과정수료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성명/대학명/박사 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명/교사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명/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기관명/직위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성인	성명/전)소속명/중별 학위, 전)직위, (또는) 성명/연구자
	소속/직위가 없는 미성년자	성명/최종소속명/학생, 졸업, 재학연도

- 모든 논문은 국문개요와 영문초록을 첨부하고 국문 주제어와 영문 주제어를 각각 5개 이상 표기한다.
- 편집용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용지 종류	용지 여백		용지 방향
사용자 정의 폭 : 153mm 길이 : 225mm	위쪽	19,0mm	좁게
	아래쪽	27,0mm	
	왼쪽	22,0mm	
	오른쪽	22,0mm	
	머리말	13,0mm	
	꼬리말	0	
	제본	0	

-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에 의거한다.
  - 본문의 항목구분은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 표 및 그림은 <표1> 제목, <그림1> 제목의 순서로 한다. 중국어논문은

〈表1〉 제목, 〈圖1〉 제목의 순서로 한다.

③ 〈 〉 작품, 『 』 작품집, 「 」 논문, 『 』 신문 · 잡지 · 저서,  
‘ ’ 강조 및 간접인용, “ ” 직접 인용으로 한다.

8. 논문의 스타일 모양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논문일 경우

스타일 이름	글자모양				문단모양				
	크기	장평	자간	글꼴	왼쪽 여백	오른 여백	들여 쓰기	줄 간격	정렬 방식
바탕글	10	90	-6	휴먼명조	0	0	10	170	양쪽
국문요약	8.5	95	-9	휴먼명조	0	0	10	160	
논문제목	14.5	95	-9	신명태명조	0	0	0	160	중앙
1	12	90	-6	신명태명조	10	0	0	170	양쪽
1)	10.6	90	-7	신명중고딕	10	0	0	170	양쪽
(1)	10	95	-8	신명중명조	10	0	0	150	양쪽
①	10	95	-9	휴먼명조	10	0	0	170	양쪽
인용문	9	95	-9	휴먼명조	10	0	10	150	양쪽
각주	8.6	95	-9	휴먼명조	0	0	내어쓰기 14	138	양쪽
참고문헌	8.9	95	-9	휴먼명조	0	0	내어쓰기 30	145	양쪽
영문초록	9	90	-7	신명신명조	10	0	0	150	양쪽
표제목	8.5	95	-7	중고딕	0	0	0	170	중앙
머리말(홀수) (논문 제목 기입)	8.7	90	-5	신명신명조	0	0	0	170	오른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기입)	8.7	90	-5	신명신명조	0	0	0	170	양쪽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② 중국어논문일 경우

스타일 이름	글자모양				문단모양				
	크기	장평	자간	글꼴	왼쪽 여백	오른 여백	들여 쓰기	줄 간격	정렬 방식
논문제목	14.5	95	-9	신명조 간자	0	0	0	160	중앙
국문요약	8.5	95	-9	휴먼명조	0	0	10	160	
바탕글	10	90	-6	신명조 간자	0	0	10	170	양쪽

1	12	90	-6	신명조 간자	20	0	0	250	양쪽
1)	10.6	90	-7	신명조 간자	10	0	0	210	양쪽
(1)	10	95	-8	신명조 간자	10	0	0	200	양쪽
①	10	95	-9	신명조 간자	10	0	0	170	양쪽
인용문	9	95	-9	신명조 간자	10	0	10	150	양쪽
각주	8.6	95	-9	신명조 간자	0	0	내어쓰기 14	138	양쪽
참고문헌	8.9	95	-9	신명조 간자	0	0	내어쓰기 30	145	양쪽
영문초록	9	90	-7	신명조 간자	10	0	0	150	양쪽
표제목	8.5	95	-7	신명조 간자	0	0	0	170	중앙
머리말(홀수) (논문 제목 기입)	8.7	90	-5	신명조 간자	0	0	0	170	오른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기입)	8.7	90	-5	신명조 간자	0	0	0	170	양쪽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 중국어 투고 논문은 간체자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 모양은 신명조 간자를 사용한다.(다만, 변체자 사용 지역에서 투고하는 경우나 중국의 고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변체자를 사용할 수 있다.)

9.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수정 2016. 01. 13)

① 저자,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인용쪽수는 p 또는 pp로 표기한다.)

② 영문 각주일 때 논문은 “ ”로,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0. 참고문헌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참고문헌은 단행본과 논문으로 나누어 완전한 서지정보를 표기한다.

② 학술지에 실려 있는 논문일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게재 면수(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반드시 표기한다.

③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기타 동양권 문헌 다음에 영어, 불어, 스페인어, 기타 서양권 문헌의 순서로 배열한다.

④ 국내문헌은 저자의姓을 가나다 순서로, 동양권 문헌은 저자 독음을 가나다순으로, 그리고 서양권 문헌은 저자姓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⑤ 외국 논문의 경우 자국 언어의 문헌을 국내문헌으로 간주한다.

## 제6장 논문의 학회 이용권

제29조(학회의 저작권)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저작권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학회의 이용권을 자동 허락한다.

제30조(논문의 이용)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게시된 논문은 회원에 한하여 무료 온라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논문 공개) 한국연구재단(KCI)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술지의 모든 논문은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상업 이용 금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저자와 학회 간에 별도 협약을 맺는다.

## 부 칙

제33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를 따른다.

제34조(개정)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한중인문학회 윤리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제반 활동의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약)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 규정 준수를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 규정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 규정 준수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의무) 본 학회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회원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학회의 윤리 조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해야 한다.
2. 회장은 회원의 연구 수행과 주관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범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

제6조(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장 일반적 윤리

제8조(사회책 책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9조(학문의 자유) 연구자는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로서의 자세) 연구자는 자신의 학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며 타인의 연구 활동을 존중한다. 연구자들은 오직 학문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본인의 전문적 영역을 넘어서는 판단을 삼간다.

## 제3장 연구 관련 윤리

제12조(저자의 의무)

### 1.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결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 2. 출판 업적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회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 자료(인터넷 및 SNS 등등 게시 자료 포함)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

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 6.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금지

저자는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논문 게재 후라도 연구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 규정' 제27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된다.

#### 제13조(편집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제14조(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

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15조(구성과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제16조(임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2.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20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 부칙

제21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2조(시행)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 彙報

- 2024.8.15. 한중인문학연구 84집 1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4.9.5. 한중인문학연구 84집 2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4.9.20. 한중인문학연구 84집 3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4.9.25. 한중인문학연구 84집 4차 편집위원회 개최  
 2024.9.30. 한중인문학연구 84집 발간

## 2024年度 事業計劃

- 1) 한중인문학연구 82집 투고 마감(2024년 02월 10일)
- 2) 한중인문학연구 82집 발행(2024년 03월 30일)
- 3) 한중인문학연구 83집 투고 마감(2024년 04월 30일)
- 4) 한중인문학연구 83집 발행(2024년 06월 30일)
- 5) 제 53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2024년 7월 2일~6일, 중국 절수의국어  
대 및 절강성 일대) – 주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의 연대와 지원
- 6) 한중인문학연구 84집 투고 마감(2024년 08월 10일)
- 7) 한중인문학연구 84집 발행(2024년 09월 30일)
- 8) 한중인문학연구 85집 투고 마감(2024년 10월 30일)
- 9) 제 54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2024년 12월 7일, 한성대학교)  
– 주제: 이주의 시대, 문화다양성과 상호문화주의의 인문학
- 10) 한중인문학연구 85집 발행(2024년 12월 30일)

## 〈알림〉

### 1. 『한중인문학연구』 중간 안내

2014년부터 학회지 발간을 4회로 증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투고 마감일 : 01월 30일, 04월 30일, 07월 30일, 10월 30일
- 발행일 : 03월 30일, 06월 30일, 09월 30일, 12월 30일

### 2. 『한중인문학연구』 85집 원고 모집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실 회원은 원고 마감 기한을 지켜 학회로 원고를 보내주시십시오. 원고 분량은 편집면 기준 30쪽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타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잘 참고하시어 투고하시기 바랍니다.(학회의 논문 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만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 논문 투고 :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
- 투고 마감 : 2024년 10월 30일
- 발행 예정 : 2024년 12월 30일

### 3.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 안내

76집부터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외국학자 논문도 동일 적용)

- 심사료 : 7만원(재투고 논문일 경우에도 동일 적용)  
단, 이의제기로 인한 재심사 논문의 경우에는 재심 신청과 동시에 별도의 심사료 7만원과 회의비 4만원(합계 11만원)을 추가 부담한다.
- 게재료 : 기본 10만원(편집면 24쪽 이내)  
추가분량 편집면 1쪽당 2만원씩 추가(편집면 최대 30쪽까지 가능)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 교내지원 20만원, 교외지원 30만원 추가  
단, 두 곳 이상의 지원을 받는 연구비 수혜논문은 항목별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추가 납부한다.(게재료는 연구비 지원이 높은 곳을 기준으로 청구비는 가장 높은 금액 100%와 나머지는 각각

50%를 합하여 계산한다.)

- 편집면 24쪽 이내 게재료의 예:

교외지원(100%)+교내지원(50%)=40만원

교외지원(100%)+교외지원(50%)+교내지원(50%)=55만원

#### 4. 회비 납부 안내

학회 가입비, 연회비 및 심사료는 다음과 같으며, 논문 심사는 연회비 및 심사료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가입비 : 30,000원

연회비 : 30,000원

투고 논문 심사료 : 70,000원

학술지 해외 배송료 : 20,000원 (중국의 경우, 기타 해외지역은 별도문의)

학회통장 : 신한은행 100-029-987203 한중인문학회

\* 연회비를 장기미납하신 회원의 경우 아래의 가, 나, 다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국내, 국외 회원 동일하게 적용)

가. 1년 연회비 3만원과 재입회비 3만원, 총 6만원 납부

나. 3년 연회비 9만원 납부

다. 5년내 연회비를 납부실적 있을 경우 재입회비 면제, 연회비 3만원 납부

\* 회원 주소록을 정비하오니 소속,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회원께서는 학회 메일로 직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5. 학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

한중인문학회 신규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인문학회 도메인 주소 : <http://kochih.kr/>

신규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ID 생성 시 영문 또는 숫자만 허용합니다. 이에 기존 가입자 중 특수기호나 스페이스가 들어간 ID는 교체를 권장해드립니다.

## 6. 학회지 PDF 발송

2018 가을 학회 총회 의결에 따라 제62집부터 기관 회원 등을 제외한 모든 회원님께 PDF 파일로 된 학회지를 발송합니다.

## 한중인문학회 제14기 임원진 및 위원진

(2024.1.1~2025.12.31)

명 예 회 장 :	김상대(전 아주대)	한계전(전 서울대)	송현호(전 아주대)
	최병우(전 강릉원주대)	한용수(동국대)	박윤우(전 서경대)
	임경순(한국외대)	유성선(강원대)	김유중(서울대)
고 문 :	김공환(아주대명예)	김종철(서울대명예)	김호웅(연변대명예)
	김현숙(이화여대명예)	류종렬(부산외대명예)	민현식(서울대명예)
	박경현(경찰대명예)	박순애(호남대)	박옥걸(아주대명예)
	박인기(경인교대명예)	박일룡(홍익대명예)	서준섭(강원대명예)
	송하춘(고려대명예)	우한용(서울대명예)	유인순(강원대명예)
	윤석달(항공대명예)	윤여탁(서울대명예)	이정숙(한성대명예)
	전인영(이화여대명예)	정병현(숙명여대명예)	조창환(아주대명예)
	최유찬(연세대명예)	최학출(울산대명예)	
회 장 :	이은희(한성대)		
전공 부회장 :	이지영(어학:서강대)	구재진(문학:세명대)	김원중(고전:단국대)
	김 호(역사:서울대)	임치균(사상:한중연)	임대근(문화:한국외대)
	민병곤(교육:서울대)	이선이(여성:경희대)	이해영(중국학:중국해양대)
지역 부회장 :	이명찬(서울:덕성여대)	이태숙(경기:단국대)	김풍기(강원:강원대)
	윤의섭(충청:대전대)	김성진(경상:대구대)	김혜영(전라:조선대)
	송현정(제주:제주대)		
행정 부회장 :	김형규(아주대)		
분 과 이 사 :	<u>[총무]</u> 박선옥(한성대)	차희정(명지대)	임대근(한국외대)
	박 진(국민대)	정진석(강원대)	조명숙(경희대)
	<u>[기획]</u> 김정우(이화여대)	최미숙(상명대)	윤선자(전남대)
	박진호(서울대)	황영미(숙명여대)	남연(북경대)
	<u>[연구]</u> 조하연(아주대)	김근호(전남대)	김원중(단국대)
	송윤미(강원대)	이미옥(서울대)	김명숙(중앙민족대)
	<u>[편집]</u> 최효영(강원대)	송재연(제주대)	이명아(국민대)
	최유학(중앙민족대)	왕녕(대련외국어대)	전월매(청진사범대)
	<u>[국제]</u> 진공(국민대)	이영남(광서사범대)	지수용(화중사범대)
	신영덕(인니국립대)	박춘란(사천외대)	엄홍화(회해공대)
	<u>[섭외]</u> 조원일(전남대)	김환기(동국대)	박강(부산외대)
	이정란(한중연)	홍순애(동덕여대)	유전진(운남사범대)
	<u>[홍보]</u> 박성일(한국체대)	김상일(동국대)	김현주(한국외대)
	최재선(산업대)	선저이쿠마르(코리아헤럴드)	이영호(제주대)
	<u>[교육]</u> 류수열(한양대)	권순희(이화여대)	김미순(한국외대)
	김호정(서울대)	한창훈(전북대)	전영근(광동외대)

[정보] <u>송지언(홍익대)</u>	강남옥(경인교대)	이승준(항공대)	이희정(경북대)
장은영(조선대)	최인자(가톨릭대)	노금숙(호남사대)	
[출판] <u>김진규(가천대)</u>	황혜진(건국대)	오영미(교통대)	권유리아(부산외대)
정혜영(대구대)	유정은(강원대)	김경선(북경외대)	

감 사(2) : 이기원(강원대), 김영희(조지메이슨대)

간 사(3) : 행정학술-이윤정(한성대), 편집정보-이수진(서울대) 형재연(한성대)

\* 밑줄은 실무담당 상임이사입니다.

### 〈편집위원회〉

편집자문위원 : 권용옥(남서울대 명예)	김석희(인하대 명예)	류종렬(부산외대 명예)
민현식(서울대 명예)	박인기(경인교대 명예)	서준섭(강원대 명예)
손희하(전남대 명예)	윤여탁(서울대 명예)	윤정룡(한남대 명예)
이영춘(한중문화연구소)	전인영(이화여대 명예)	정병현(숙명여대 명예)
최유찬(연세대 명예)	우한용(서울대 명예)	김호웅(연변대 석좌)
심정창(북경대 명예)	윤윤진(길림대)	김기석(상해외대)
허세립(길림대 주해)	김종철(서울대 명예)	김하림(조선대)
박일용(홍익대 명예)	정호웅(전 홍익대)	유문선(한신대)
이후일(선문대)	공종구(균산대)	박경수(부산외대)
차성만(서경대)	문철영(단국대)	박현규(경북대 명예)
이선이(경희대)		

편집위원장 : 정래필(영남대)

편집위원 : 전 궁(어학(중), 수도권:국민대)	백승호(한문학(한), 수도권:국민대)
김지혜(한국어교육(한), 수도권:명지대)	유정은(철학(한), 강원:강원대)
최호영(현대시(한), 강원:강원대)	오현아(문법교육(한), 강원:강원대)
박은정(고전문학(한), 경상:영남대)	구원산(현대시교육(한), 충청:충남대)
이인화(문학교육(한), 전라:전북대)	한위성(고전(중), 해외:중국대련외국어대)
조용준(역사(중), 해외:중국길림대)	이혜영(문학(중), 해외:중국해양대)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 김유중(서울대)

위원(14) : <u>이은희(한성대)</u>	<u>정래필(영남대)</u>	<u>김형규(아주대)</u>	<u>박선옥(한성대)</u>
<u>조화연(아주대)</u>	<u>최호영(강원대)</u>	김정우(이화여대)	김진규(가천대)
박성일(한국체대)	서혁(이화여대)	이선이(경희대)	임치균(한국학중앙연구원)
전 궁(국민대)	조원일(전남대)		

\*밑줄 당연직: 학회장, 편집위원장, 행정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한중인문학연구 제84집

2024年 9月 27日 印刷

2024年 9月 30日 刊行

發行人 : 이 은 희

事務室 :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이은희 교수 연구실

한중인문학회 이은희

T. 02-760-4381

<http://kochih.kr/>

E-mail : [kochih@hanmail.net](mailto:kochih@hanmail.net)

製作處 : 한유북스 E-mail : [hanyubooks@naver.com](mailto:hanyubooks@naver.com)

값 15,000원